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2008~2020년)

2008



공 고 문

충청남도 공고 제2008 - 12호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의 요지를 국토기본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에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요지)

I. 道계획의 의의와 필요성

① 계획근거 : 헌법, 국토기본법

- 국토와 자연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헌법 제120조 제2항)
- 국토계획이라 함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국토기본법 제6조 제1항)
-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 도지사는 지역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지역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내 기능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내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그밖에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국토기본법 제13조 제1항)

② 계획의 필요성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의 지역적 실천을 위한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 국정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충남도정의 능동적 대응
- 지역 내·외의 여건변화를 새로운 지역발전 계기로 활용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도청이전에 따른 새로운 지역발전 구도 설정

Ⅱ. 계획 목표와 추진전략

① 계획의 기초 및 목표

-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기초로 설정
- 계획의 목표는 균형 있는 지역발전, 함께 하는 복지사회,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역동적인 산업경제,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으로 설정

② 7대 추진전략

- 살기 좋은 도시·농촌 정주기반 형성
-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산업 육성
- 특색 있는 지역문화와 매력 있는 관광 진흥
- 신속하고 편리한 인프라 구축
- 더불어 누리는 생활·복지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자원의 개발 및 관리
- 깨끗하고 안전한 푸른 충남 구현

Ⅲ. 공간구조의 설정

① 국내외 교류·협력을 위한 개방형 지역발전축 구축

- 균형발전과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거점간 연계망을 구축하는 개방형 3×3의 田자형 개발축 설정
- 외부 발전파급효과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지역의 특성과 자원 잠재력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

구 분	축 별	개 발 방 향
북 부 축	태안~천안	· 내륙 및 임해형 신산업 복합지대
중 부 축	행정도시~공주~보령	· 서해·중부내륙 연계 문화·관광·물류지대
남 부 축	서천~금산	· 친환경산업·바이오산업지대
서해안축	서산~서천	· 국제교역·교류 거점 및 해양관광지대
중부내륙축	당진~부여	· 역사·문화·관광, 농산업 중심지대
동부내륙축	천안~금산	· 중추행정·첨단산업·내륙교통·물류지대

② 상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경영권 구상

- 지리적 여건과 산업·환경·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간 연계 개발에 의한 지역개발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4대 개발경영권을 설정
- 권역별 기능특화 및 광역적 연계·협력개발을 통하여 개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략산업의 효과성을 제고, 권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권역별	대 상 지 역	발 전 방 향
북 부 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환황해경제권의 전진기지, 충청권의 신성장 거점지대
서해안권	태안, 보령, 서천(서산, 홍성)	해양산업·신산업(융합)벨트, 해양휴양·관광의 메카
내 륙 권	공주, 계룡, 연기, 홍성, 예산, 청양	국가·지방 중추행정 연계축, 지역균형발전 촉진지대
금 강 권	금산, 논산, 부여(청양, 공주, 서천)	금강 역사문화생태관광벨트, 생명산업과 전원도시화지대

IV. 부문별 계획

① 살기 좋은 도시·농촌 정주기반 형성

- 혁신적이고 인간적인 도시개발 및 정비
- 활력있는 농산어촌 육성 및 특수지역 활성화

②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산업 육성

-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서 농·림·축·수산업 육성
- 제조업의 지식기반화와 신성장산업의 혁신클러스터화
- 서비스업의 지식기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③ 특색 있는 지역문화와 매력 있는 관광 진흥

- 개성있는 지역문화권 형성과 문화기반의 조성
- 안정된 관광기반 구축과 특화 관광자원 개발

④ 신속하고 편리한 인프라 구축

- 전방위 교류·교역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
- 생산·물류 신중심권 구현을 위한 물류·유통기반 강화
- 디지털복지사회를 위한 유비쿼터스 충남 구현

⑤ 더불어 누리는 생활·복지환경 조성

-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조성
-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의료 서비스체계 구축
-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학습사회 실현

[6] 지속가능한 자원의 개발 및 관리

- 친환경적 토지이용과 관리
- 개성과 매력의 지역경관 형성과 관리
-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효율적 수요관리
-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7] 깨끗하고 안전한 푸른충남 구현

- 지역생태망 구축과 자연환경 보전·관리
- 대기질 관리와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
- 맑고 깨끗한 물환경 관리
- 폐기물의 과학적 관리와 재활용기반 구축
- 재해에 강한 안전충남 조성

V. 계획의 집행과 관리

[1] 행정계획

- 미래지향적 자치역량 확보
- 지역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협력적 지역개발
- 국제교류 및 국제통상의 활성화

[2] 재정계획

-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 확충
- 성과중심 세출예산 및 세출의 계획성 제고

-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의 다각적인 조달
-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의 형평성 제고

[3] 투자계획

- 투자 대상사업 선정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광역권개발계획 등 중앙정부가 추진·지원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
 - 도 전체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군 경계를 넘어서 개발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선정
 - 시·군이 요청한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도가 직접 추진하거나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
- 투자계획
 - 총사업비 : 76조 2,889억원
 - 제1단계(2008~2010) : 17조 2,763억원(22.6%)
 - 제2단계(2011~2015) : 31조 9,581억원(41.9%)
 - 제3단계(2016~2020) : 27조 545억원(35.5%)
 - 재원별 사업비
 - 국 비 : 36조 3,337억원(47.6%)
 - 지방비 : 10조 2,036억원(13.4%)
 - 민 자 : 29조 7,516억원(39.0%)

VI. 시 · 군별 발전방향

- 천안시 : 충청권을 대표하는 국제적 산업·업무·R&D 거점도시
- 공주시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상생 발전하는 SMART CITY
- 보령시 : 4계절형 국제적 종합해양관광·문화 허브도시
- 아산시 : 중부 광역권의 성장을 견인하는 세계속의 녹색 첨단도시
- 서산시 : 내포문화·해양생태자원·신산업이 어우러진 임해관문 도시
- 논산시 : 도농복합형의 자족형 전원도시
- 계룡시 : 누구나 살고 싶은 전원·문화·국방의 모범도시
- 금산군 : 자연과 생명산업이 공존하는 활력 있는 전원도시
- 연기군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함께 하는 역동적인 건강도시
- 부여군 :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관광의 중심지역
- 서천군 : 쾌적한 환경과 풍요로운 삶이 있는 「어메니티 서천」
- 청양군 : 에코 파라다이스(Eco-Paradise) 청양
- 홍성군 : 충남의 자랑, 서해안시대의 신중심 홍성
- 예산군 : 역사와 문화속에 힘차게 도약하는 충남의 신중심도시
- 태안군 : 서해안 관광벨트의 국제적 관광허브 도시
- 당진군 : 동북아 물류 및 임해형 신산업 중심도시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2008~2020년)

충청남도지사 귀하

이 보고서를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1.

충남발전연구원장 원장 김용웅

목 차

제 I 편 기본구상

제1장 계획의 개요	2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3
2. 계획의 성격과 역할	5
3. 계획의 범위	6
4. 계획수립의 방법과 체계	9
제2장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12
1. 지역현황 및 특성 분석	13
2. 관련계획의 검토와 평가	34
3. 대·내외적 여건변화 분석	48
4. 지역주민 의식조사	55
5. 충남지역의 발전여건 분석: SWOT 분석	67
제3장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72
1. 계획의 기본이념	73
2.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74
3. 주요 계획지표의 전망	77
4. 공간구조의 설정	87

제 II 편 부문별 계획

제1장 살기 좋은 도시·농촌 정주기반 형성	96
1. 혁신적이고 인간적인 도시개발 및 정비	97
2. 활력있는 농산어촌 육성 및 특수지역 활성화	110
제2장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산업 육성	116
1.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서 농·림·축·수산업 육성	117
2. 제조업의 지식기반화와 신성장산업의 혁신클러스터화	138
3. 서비스업의 지식기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158
제3장 특색 있는 지역문화와 매력 있는 관광 진흥	166
1. 개성있는 지역문화권 형성과 문화기반의 조성	167
2. 안정된 관광기반 구축과 특화 관광자원 개발	180

제4장 신속하고 편리한 인프라 구축	200
1. 전방위 교류·교역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	201
2. 생산·물류 신중심권 구현을 위한 물류·유통기반 강화	221
3. 디지털복지사회를 위한 유비쿼터스 충남 구현	229
제5장 더불어 누리는 생활복지환경 조성	239
1.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조성	240
2.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의료 서비스체계 구축	251
3. 평생학습사회의 실현 및 생활체육 활성화	270
제6장 지속가능한 자원의 개발 및 관리	283
1. 친환경적 토지이용과 관리	284
2. 개성과 매력의 지역경관 형성과 관리	295
3.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효율적 관리	305
4.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	317
제7장 깨끗하고 안전한 푸른충남 구현	327
1. 지역생태망 구축과 자연환경 보전·관리	328
2. 대기질 관리와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	338
3. 맑고 깨끗한 물환경 관리	346
4. 폐기물의 과학적 관리와 재활용기반 구축	362
5. 재해에 강한 안전충남 조성	368

제Ⅲ 편 계획의 집행과 관리

제1장 행정계획	387
1. 미래지향적 자치역량 확보	388
2. 지역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협력적 지역개발	393
3. 국제교류 및 국제통상의 활성화	397
제2장 재정계획	405
제3장 투자사업계획 및 집행방안	419

제Ⅳ 편 시·군별 발전방향

425

- [부록] 1. 원계획과 수정계획의 비교 / 442
 2. 종합계획도 / 449
 3. 투자사업내역 / 450

	제 I 편
기 본 구 상	
	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제3장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제1장 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2. 계획의 성격과 역할

3. 계획의 범위

4. 계획수립의 방법과 체계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가. 계획수립의 배경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연계

-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토기본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2월 30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확정되었으며, 그 하위계획인 도종합계획 역시 이에 연계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함

■ 국정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충청도정의 능동적 대응

- 2000년대에 들어와 국가적 차원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지방분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에 따라, 충청남도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새로운 도정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도청이전 등에 따른 새로운 지역발전구도 설정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도청이전에 따른 새로운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을 선택하는 한편,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국가간선망 건설의 파급효과를 지역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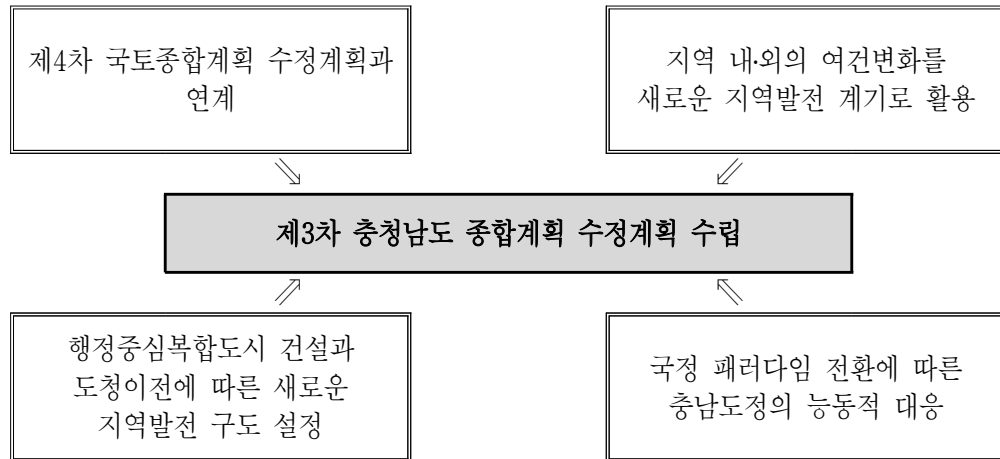
■ 지역 내·외의 여건변화를 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 등 초국가적 경제협력의 강화 및 남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서해안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21세기 충청남도의 번영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비전 제시가 필요함
- 충남지역은 전통적인 농업 중심지역에서 첨단산업 중심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와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는 등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대전·충북·경기·전북 등 주변 시·도간의 광역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향후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형성, 네트워크형 도시체계의 발달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협력적인 지역개발 구도로의 전환이 필요함

■ 민선 4기의 출범에 따른 새로운 도정이념과 운영전략 수용

- 민선 4기의 출범에 따라 새로운 도정목표인 「균형 있는 지역발전, 함께 하는 복지사회, 활력 있는 농·어촌, 역동적인 산업경제, 건강한 자연환경」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요구됨

〈그림 1-1〉 계획수립의 배경



나. 계획수립의 목적

- 도가 보유한 유무형의 인적, 물적 자원과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하고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달성함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상위계획의 기조와 정책을 충남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환황해경제권시대의 대응체제를 구축함
-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서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함

2. 계획의 성격과 역할

가. 계획의 성격

■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

- 충남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국토기본법」 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시행되는 도단위 최상위 법정계획

■ 상위계획을 구체화한 계획

-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골격을 수립하여 지역 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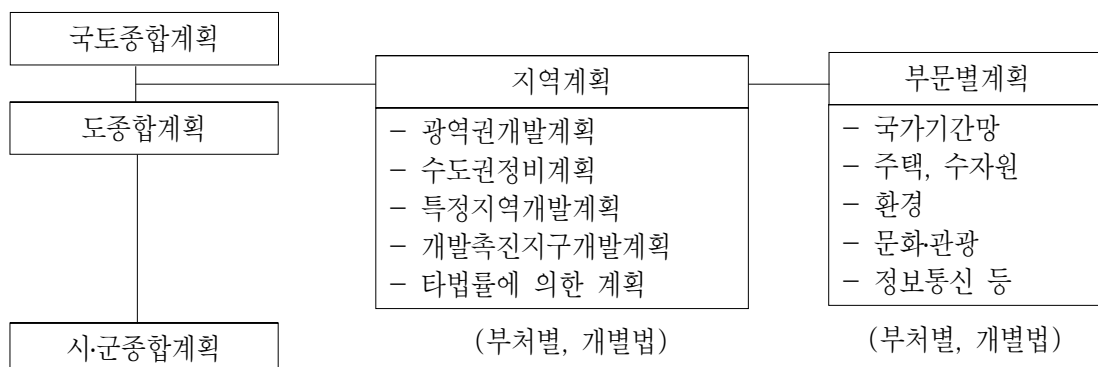
■ 국토종합계획에 부응한 지역·부문별 계획

- 국토종합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도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계획을 담는 계획

■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제공 계획

- 시·군종합계획¹⁾ 등 하위계획에 대한 기본이 되고 민간부문에 대해 개발방향과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하는 계획

〈그림 1-2〉 「국토기본법」 상 국토계획체계



1) 시·군종합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분야 등의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으로 정의되어 있음(국토기본법 제6조).

나. 계획의 역할

■ 지역주민에게 지역발전에 대한 미래상 제시

- 도민에게 지역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상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북돋음

■ 도정 및 시·군에 지역발전의 부문별 정책방향과 가이드라인 제공

- 도 단위의 장기적 발전방향, 전략사업 제시를 통하여 도정과 시·군의 부문별 업무수행에 있어서 기본방향 및 방침을 제공

■ 중앙정부에 사업추진 및 지원요청 근거 제시

- 국가정책의 지역적 실현방안을 구체화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지역적 요구와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앙정부의 지원과 상호협력을 강화

■ 민간부문 및 기업에 지역개발 정보 제공 및 투자방향 제시

-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정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방침과 시책 등 정보를 제공

3. 계획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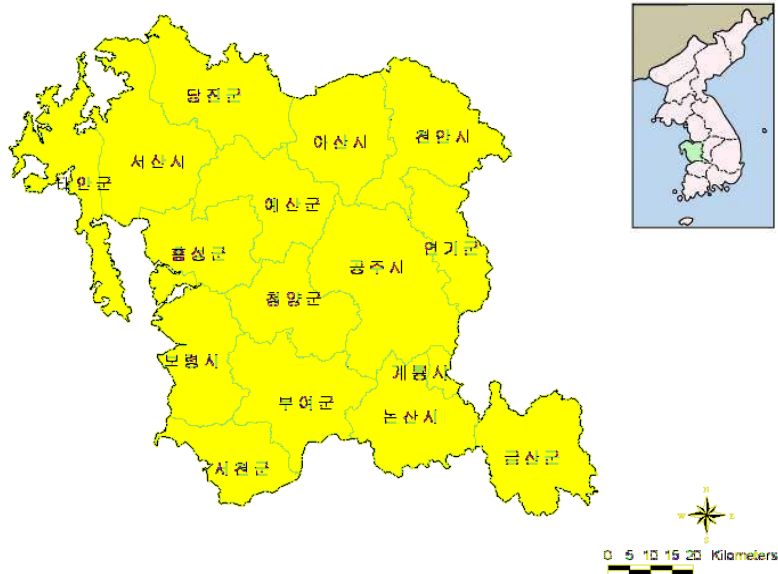
■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08~2020년
- 기준년도 : 2005년(자료활용 기준년도)

■ 공간적 범위

- 계획구역 : 충청남도 전역(16개 시·군, 총면적: 8,600.5km²)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7개 시)
 -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9개 군)

〈그림 1-3〉 계획의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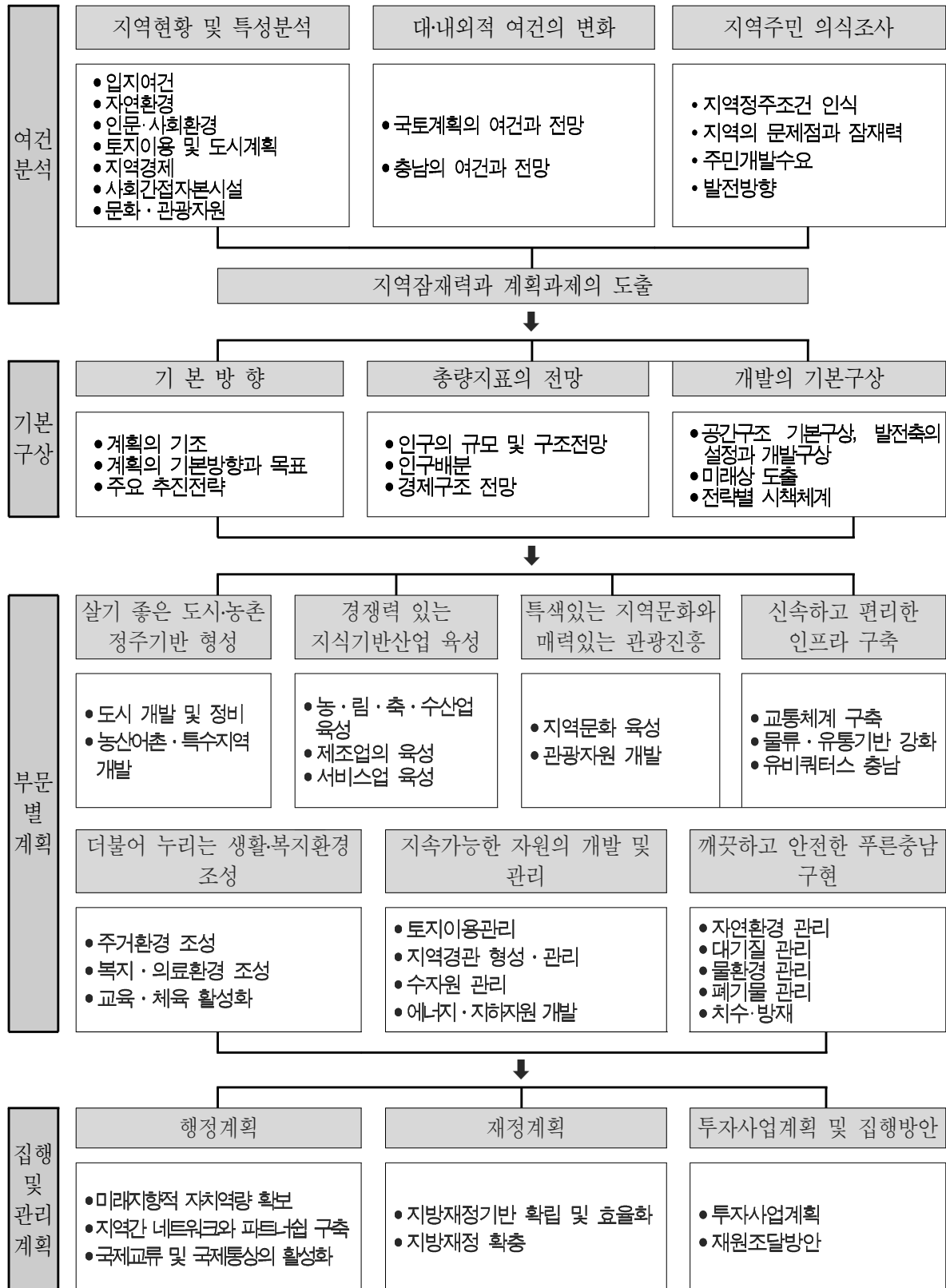
■ 내용적 범위

- 건설교통부의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지침(2006. 2)」에 따라 지역여건과 발전 잠재력 분석,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전략별 추진계획, 시·군별 발전방향, 계획의 집행과 관리를 포함

※ 도종합계획의 내용

- ① 『국토기본법』 제13조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안으로 기능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내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1. 주택, 상하수도, 공원, 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자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단계별 주요과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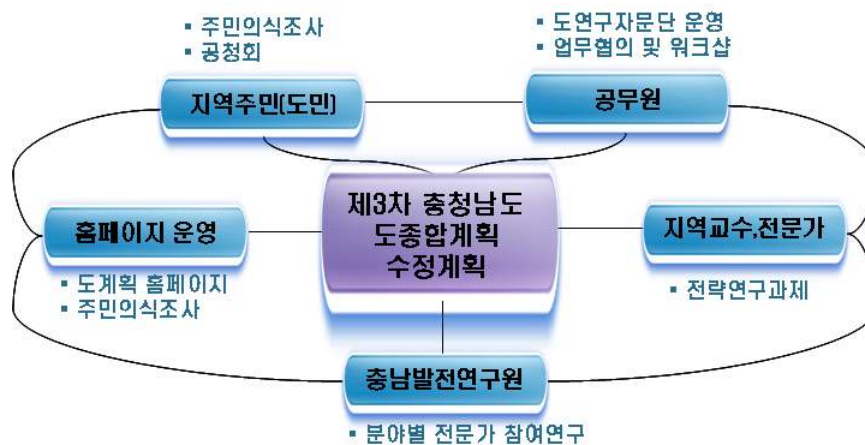


4. 계획수립의 방법과 체계

가. 계획수립의 방법

-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혁신적인 접근방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적·참여적인 계획과정을 통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그리고 실현수단의 마련을 중시하여 수립함
- 계획수립 참여주체
 - － 道와 각 시·군의 공무원, 도민,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추진 道연구자문단,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 청소년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상향적(bottom-up) 과정을 통한 계획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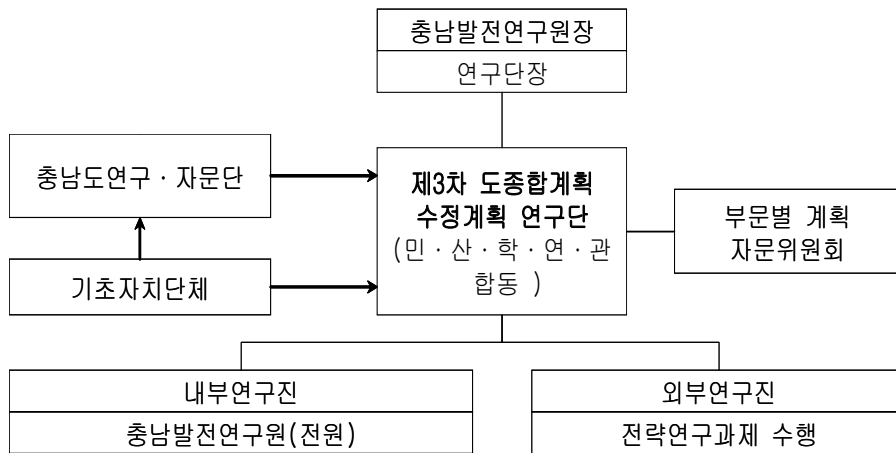
〈그림 1-4〉 계획수립 참여주체와 역할



나. 계획수립체계

-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연구단(충남발전연구원)
 - － 단 장 : 충남발전연구원장
 - － 총괄팀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진
 - － 연구단원: 충남발전연구원 및 정부출연연구원, 외부전문가

〈그림 1-5〉 계획수립체계



-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연구·자문단」
 - － 구성 : 7개 분과 71명(도 실국장·과장·담당, 전문교수, 시·군)
 - － 운영 : 연구·자문단 회의 및 분야별 토론회 참석하여 아이디어 제시

다. 추진경위

■ 1단계 : 조사·분석 및 계획과제의 도출

- － '05. 11~'06. 2 과업착수 및 분과별 워크숍(연구자문단)
- － '05. 11~'06. 2 「분야별 주요시책(150개)」 수합
- － '05. 11~'06. 3 시·군별 「발전방향」 및 「개발희망사업」 수합(16개 시·군)
- － '06. 1 도민의견수렴 홈페이지 개통
- － '05. 11~'06. 2 분야별 관련부서 워크숍(도 실과, 전문가, 연구단)
- － '06. 4.3~4.21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 2단계 : 기본구상 및 부문별 계획방향 설정

- － '06. 3. 17 기본구상(안) 워크숍(도, 시·군 관계공무원 및 개발위원)
- － '06.4.10~4.19 시·군 발전방안 워크숍(도 관계관, 16개 시·군, 연구단)
- － '06. 4.21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 구상(안) 작성

■ 3단계 : 부문별 구상 및 실행계획 수립

- '06. 5. 2~6. 15 「부문별 구상 및 실행계획」 워크숍(도 관련부서)
- '06. 7. 27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연구·자문단」 자문
- '06. 9. 4~9. 15 「부문별 투자계획」 워크숍(도 관련부서)
- '06. 9. 22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06. 10. 31 도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06. 11. 13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06. 11. 15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전략환경평가(안) 자문위원회 자문
- '07. 1. 22 충청남도의회 보고회 개최
- '07. 4.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07. 4. 최종안 작성 및 건교부 승인신청
- '07.12. 건설교통부 승인

제2장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1. 지역현황 및 특성 분석

2. 관련계획의 검토와 평가

3. 대·내외적 여건변화 분석

4. 지역주민 의식조사

5. 충남지역의 발전여건 분석 : SWOT 분석

1. 지역현황 및 특성 분석

가. 입지여건

■ 대외적 입지여건

- 환황해권 중심에 위치한 요충지역
 - 충남은 중국의 관문항인 대련항·청도항과 최단거리에 입지하고 있어 높은 교류잠재력을 보유
 - 해양과 내륙을 연계시킬 수 있는 항만개발 적지를 다수 보유하여 동북아 교류거점 구축이 용이

〈그림 1-6〉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충청남도의 위상



■ 대내적 입지여건

- 국토의 중심부이자 교통의 요충지
 -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호남을 연결하면서 수도권의 압출여력을 흡수하여 비수도권으로 확산시키는 역할 수행 가능
 - 고속도로, 철도 등이 충남지역을 동서·남북으로 통과하거나 계획되어 있어 지역내 도로망과 연계체계 구축이 용이

〈표 1-1〉 충청남도의 경위도상 위치

구 분	지 명	극 점	연장거리
극 동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동경 127°38'31" 북위 36°01'47"	동서간 187.7km
극 서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동경 125°32'21" 북위 36°36'37"	
극 남	금산군 남일면 신동리	동경 127°29'15" 북위 35°58'30"	남북간 120.8km
극 북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동경 126°25'46" 북위 37°03'44"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나. 자연환경

■ 지형·지세

- 충남지역은 전체적으로 저지대형 지형으로 차령산맥이 본 지역의 중앙부를 북동쪽에서 서남향방향으로 가로질러서 서북부와 동남부로 분리하고 있음
- 충남지역 전체면적의 65%가 표고 100m 이하의 평지이고, 평균표고는 전국 평균 482m보다 훨씬 낮은 100m로서 전국에서 가장 낮음

〈표 1-2〉 표고별 면적분포

구 분	면적(km ²)	구성비(%)
계	8,600.5	100.0
100m 이하	5,607.6	65.2
100~200m	1,664.6	19.3
200~500m	1,279.0	14.9
500m 이상	51.3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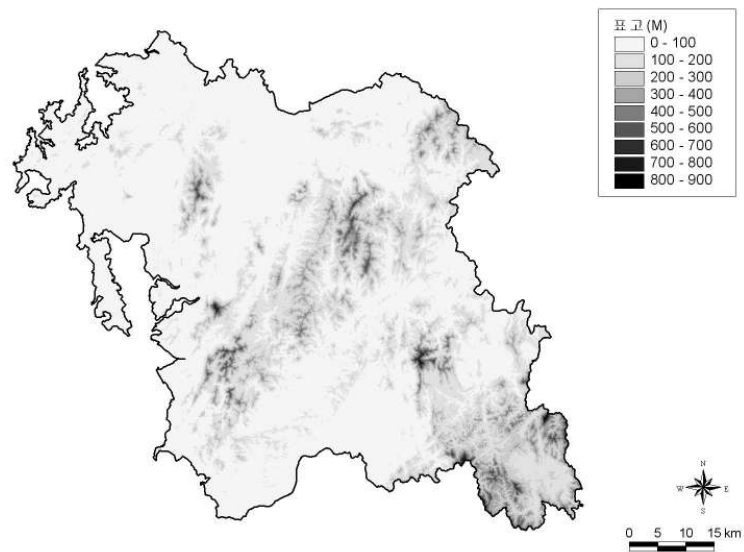
주: 1/25,000 지형도에서 Grid(20×20m) 단위로 구적

- 경사도 또한 5도 이하로 완만한 지역이 전체면적의 43.8%, 15도 이상의 경사지역은 전체 면적의 30.0%를 차지하고 있음
 - 중부 내륙지역과 남동부 산악지역은 비교적 경사도가 높으나 나머지 지역은 경사가 낮은 평지 또는 구릉지를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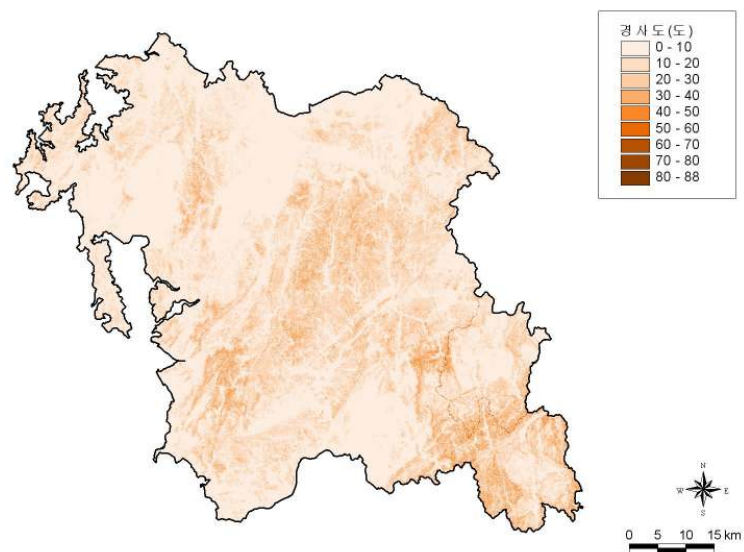
〈표 Ⅰ-3〉 경사별 면적분포

구 분	면적(km ²)	구성비(%)
계	8,600.5	100.0
5도 이하	3,768.8	43.8
5~10도	1,138.3	13.2
10~15도	1,118.4	13.0
15~20도	973.5	11.3
20~25도	738.5	8.6
25도 이상	863.0	10.1

〈그림 Ⅰ-7〉 표고분석도



〈그림 Ⅰ-8〉 경사분석도



■ 해안 및 하천

- 충청남도의 해안선은 리아스식 해안(rias coast)이며, 도서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침수해안의 특색을 지니고 있음. 충청남도의 서북단에 돌출해 있는 태안반도가 도내에서 가장 큰 반도이며,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동북쪽에는 아산만과 가로림만이 있고, 동남쪽에는 천수만과 비인만 등이 있음
- 충청남도의 주요 도서로는 안면도·원산도·난지도·삽시도·가의도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많은 259개의 도서가 있음

〈표 1-4〉 해안선 및 도서현황

(단위: km, 개소, 인)

구 분	해안선(도서 포함)	도서현황			
		계	유인도	무인도	인 구
아 산 시	7.0	—	—	—	—
보 령 시	250.9	79	16	63	3,692
서 산 시	196.2	27	4	23	326
서 천 군	76.7	15	1	14	136
홍 성 군	50.0	11	1	10	95
태 안 군	530.8	119	10	109	10,596
당 진 군	113.0	8	3	5	411
소 계	1,224.6	259	35	224	15,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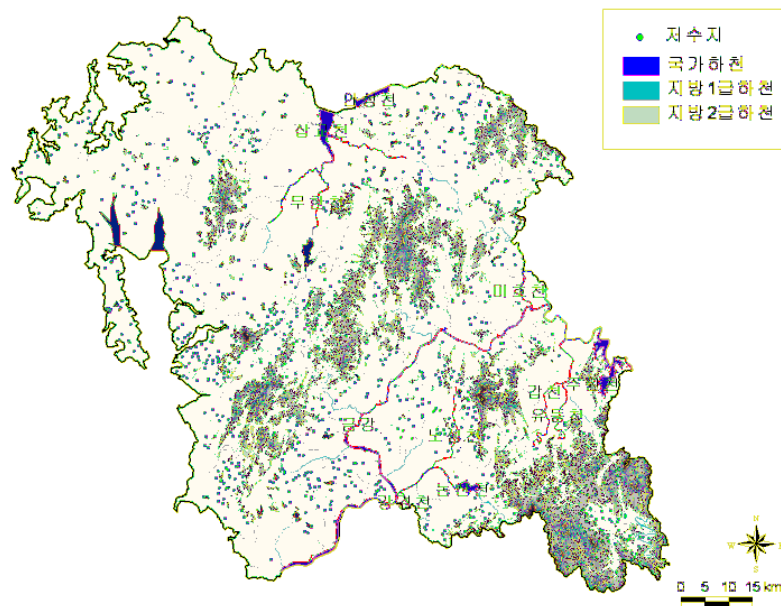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 충청남도의 대표적 하천은 금강·안성천·삽교천 등이며, 금강은 우리나라 3대 하천 중 하나이고 안성천·삽교천은 10대 하천에 포함됨. 본 지역의 하천수계는 차령산맥을 사이에 두고 동남부의 금강수계와 북서부의 삽교천 수계로 크게 양분됨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뜯봉샘에서 발원한 총길이 395.9km의 금강은 노령산맥과 차령산맥 사이에서 신탄진에 이르러 갑천·유등천·대전천 등 여러 소지류들을 합류시켜 곡류하고 있으나, 부여부터는 커다란 강폭을 나타내며 대체로 넓고 평탄한 충적평야를 지나 서해로 유입되고 있음

〈표 1-5〉 충청남도의 주요하천

하천명	유역면적(km ²)	유로연장(km)	발원지
금 강	9,915	395.9	전북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안성천	1,659	66.4	경기 안성군 삼죽면 옥사봉
삽교천	1,668	58.6	충남 홍성군 장곡면 오서산

〈그림 1-9〉 하천 및 수계도



다. 인문환경

■ 행정구역

- 충청남도의 총면적은 2005년 현재 8,600.5km²로 국토 전체면적(99,618.7km²)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7개 시와 9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역내 시·군의 평균면적은 537km²이며, 이 가운데 공주시가 941km²(10.9%)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계룡시가 61km²(0.7%)로 가장 작은 관할구역을 보유하고 있음

■ 총인구규모 및 시·군별 인구분포

- 충청남도의 총인구는 2005년 현재 1,982,495인으로 전국(49,267,751인)의 4.0%로 전국면적 대비비율(8.6%)에 비해 절반가량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충남의 인구는 2000년 1,930천명에서 2005년 현재 1,982천명으로 연평균 0.53%씩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인구 대비 충남의 인구비중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약 4%대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표 1-6〉 전국대비 충남인구비중 추이(1995~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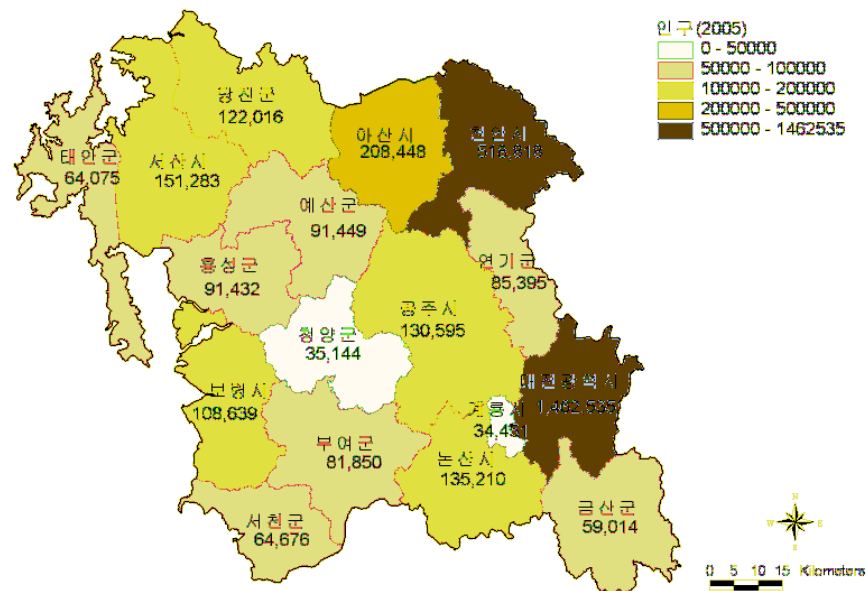
(단위: 천인,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가율(%)	
				'95-'00	'00-'05
전국인구	45,982	47,977	49,268	0.86	0.53
충남인구 (전국대비비중)	1,855 (4.0)	1,930 (4.0)	1,982 (4.0)	0.80	0.53

자료: 통계청,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해당년도.

- 시·군별 인구는 2005년 현재 천안시(26.2%), 아산시(10.5%), 서산시(7.6%) 순으로 많으며, 가장 인구비중이 낮은 지역은 계룡시와 청양군으로 충청남도 전체인구의 3.5%를 차지

〈그림 1-10〉 시·군별 인구분포 현황(2005)



■ 인구변화추이

- 충청남도의 인구는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연평균 0.8% 증가하였으나,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연평균 0.5% 증가하였음
- 2000년 이후 천안시와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연기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 천안시의 경우 1995년 이후 연평균 4.5% 증가하여 2005년 인구규모가 1995년 대비 1.5배 이상 성장한 반면, 서천군과 청양군 등은 동 기간 동안 각각 연평균 2.7%, 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7〉 시·군별 인구분포 현황(1995~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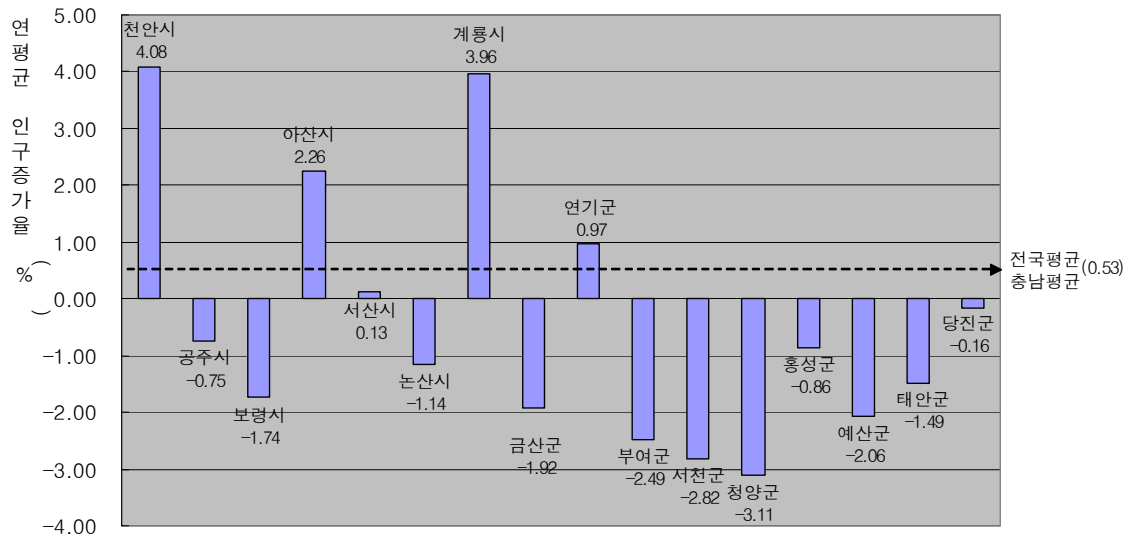
(단위: 천인,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가율		
				'95-'00	'00-'05	'95-'05
충남 계	1,855(100.0)	1,930(100.0)	1,982(100.0)	0.80	0.53	0.66
천안시	335(18.0)	425(22.0)	519(26.2)	4.87	4.08	4.48
공주시	138(7.4)	136(7.0)	131(6.6)	-0.29	-0.75	-0.56
보령시	123(6.6)	119(6.2)	109(5.5)	-0.66	-1.74	-1.24
아산시	159(8.6)	186(9.6)	208(10.5)	3.19	2.26	2.76
서산시	142(7.6)	150(7.8)	151(7.6)	1.10	0.13	0.61
논산시	150(8.1)	143(7.4)	135(6.8)	-0.95	-1.14	-1.05
계룡시	16(0.9)	28(1.5)	34(1.7)	11.84	3.96	8.20
금산군	71(3.8)	65(3.4)	59(3.0)	-1.75	-1.92	-1.82
연기군	81(4.4)	81(4.2)	85(4.3)	0.00	0.97	0.54
부여군	104(5.6)	93(4.8)	82(4.1)	-2.21	-2.49	-2.33
서천군	85(4.6)	75(3.9)	65(3.3)	-2.47	-2.82	-2.72
청양군	46(2.5)	41(2.1)	35(1.8)	-2.28	-3.11	-2.60
홍성군	102(5.5)	95(4.9)	91(4.6)	-1.41	-0.86	-1.04
예산군	110(5.9)	101(5.2)	91(4.6)	-1.69	-2.06	-1.83
태안군	72(3.9)	69(3.6)	64(3.2)	-0.85	-1.49	-1.19
당진군	122(6.6)	123(6.4)	122(6.2)	0.16	-0.16	-0.01

주: ()의 수치는 충남인구 대비 비중임

자료: 충청남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 해당년도.

〈그림 I -11〉 시·군별 인구성장률(2000~2005)



■ 도시인구

- 충청남도의 도시인구는 2005년 현재 1,198천인으로 2000년 이후 약 110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2.0%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충남의 도시화율은 2000년 56.2%에서 2005년 60.4%로 증가하였으나 2005년 전국 도시화율(89.8%)에 비해 낮은 편임

〈표 I -8〉 도시인구 변화추이(1990~2005)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가율		
					'90~'95	'95~'00	'00~'05
충남 전체(천인)	2,028	1,855	1,930	1,982	- 1.77	0.79	0.53
도시인구(천인)*	1,009	970	1,085	1,198	- 0.79	0.22	2.00
농촌인구(천인)	1,019	885	845	784	- 2.78	-0.01	- 1.49
충남 도시화율(%)	49.8	52.3	56.2	60.4	-	-	-

주: 도시인구는 동부와 읍부의 합으로, 농촌인구는 면부의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충청남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 해당년도.

■ 인구구조

- 향후 국가 및 지역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와 노령화인구의 증가를 들 수 있음. 지역의 거주인구가 감소하고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령인구의 비중이 커지게 되고, 사회적 생산잠재력과 생산성은 떨어지게 되며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게 됨. 사회적인 측면에서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이 지역개발에 있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충청남도의 인구구조(2005년)를 보면, 15세미만 인구가 18.5%로 전국의 19.0%에 비하여 다소 낮은 반면에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13.3%로 전국의 8.9%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

〈표 1-9〉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1995~2005)

(단위: 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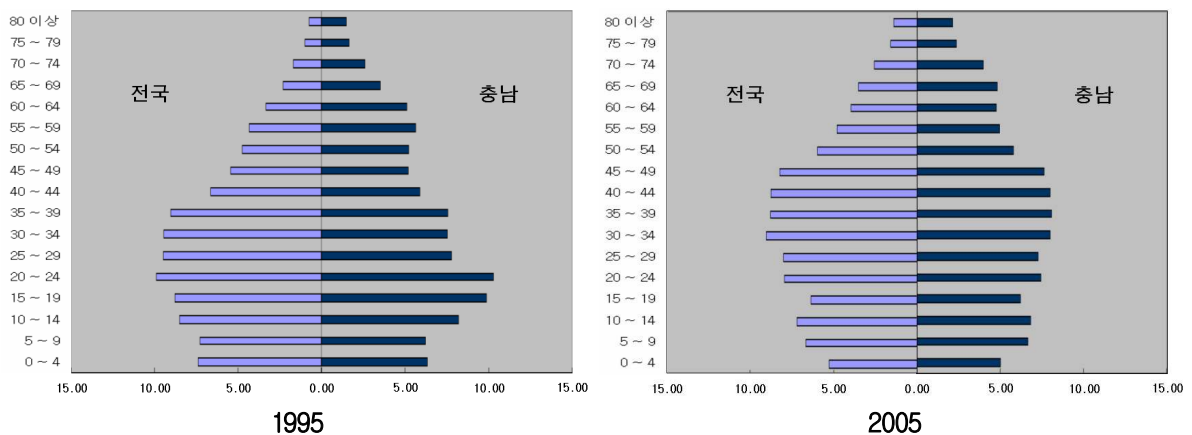
연령 ¹⁾	1995년		2000년		2005년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계	45,858,029 (100.0)	1,852,361 (100.0)	47,732,558 (100.0)	1,921,604 (100.0)	48,782,274 (100.0)	1,962,646 (100.0)
15세 미만	10,477,476 (22.9)	384,271 (20.7)	9,958,802 (20.9)	381,468 (19.9)	9,257,908 (19.0)	363,131 (18.5)
15~64세	32,715,312 (71.3)	1,297,089 (70.0)	34,418,140 (72.1)	1,325,077 (68.9)	35,199,778 (72.1)	1,337,715 (68.2)
65세 이상 ²⁾	2,665,241 (5.8)	171,001 (9.3)	3,355,616 (7.0)	215,059 (11.2)	4,324,588 (8.9)	261,800 (13.3)

주1: 충남의 연령별 인구는 외국인수를 제외한 값임.

주2: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잠정결과(2006. 5)』에서는 2005년 11월 현재 전국의 노령화율은 9.3%, 충남의 노령화율은 14.3%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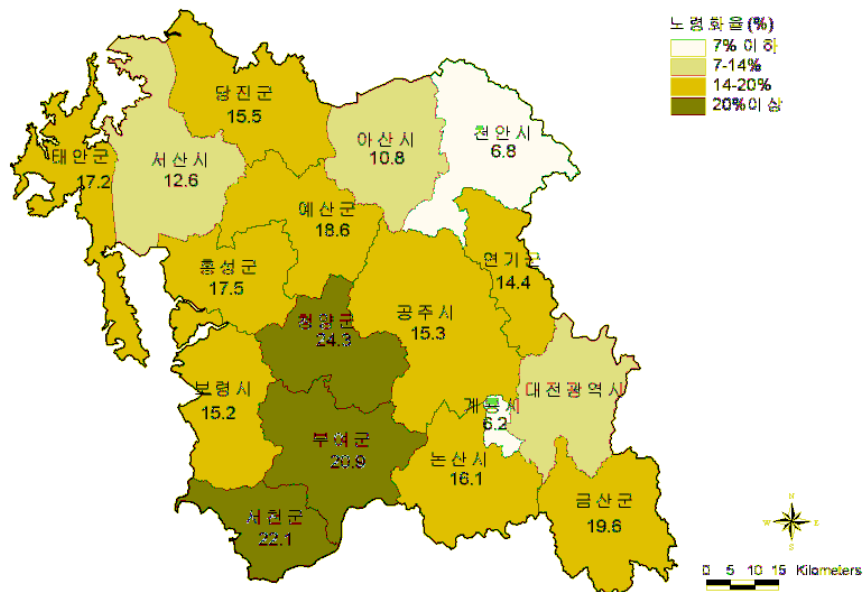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해당년도.

〈그림 1-12〉 전국대비 충남의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



- 2005년 현재 도내 시·군별 노령화 현황을 보면,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은 노령인구 비율이 각각 24.3%, 22.1%, 20.9%에 달하여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와 금산군, 연기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등 9개 시·군의 노령인구비율은 15%~20%에 달하여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음

〈그림 1-13〉 시·군별 노령화 현황(2005)



■ 인구이동

- 2000~2004년간 충남지역과 여타 지역간의 인구이동을 보면, 충남은 전입 146,740명, 전출 133,872명으로 총 12,868명의 인구유입을 보여 1995~2000년까지의 인구유출지역에서 인구유입지역으로 전환됨
- 1995~2000년간 충남지역에서 유출되는 인구의 지역분포를 보면, 총 유출인구의 27%가 광역충청권 내에서 이동하였으며, 광역수도권으로의 유출비중은 1995~2000년간 56%에서 2000~2004년에는 55%로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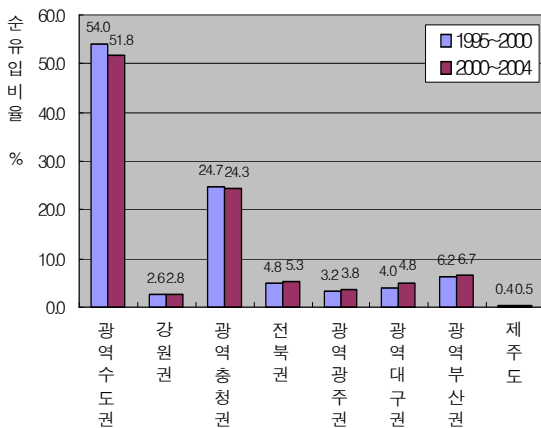
〈표 I -10〉 충남지역 인구이동패턴(지역별 추이)

(단위: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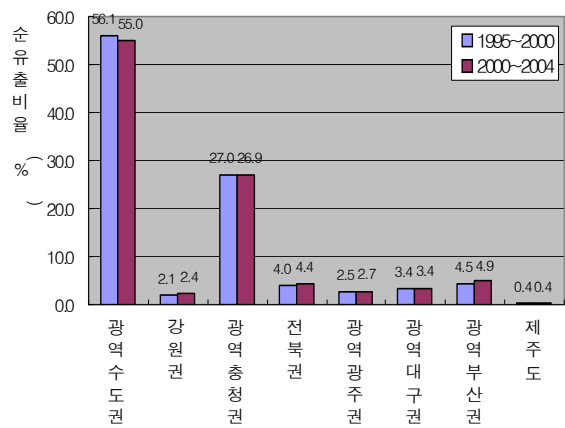
구분	1995~2000년			2000~2004년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충남 계	118,424	122,090	-3,666	146,740	133,872	12,868
광역시도권	63,950	68,473	-4,523	76,004	73,592	2,412
강원권	3,115	2,602	513	4,045	3,193	852
광역충청권	29,273	32,982	-3,709	35,634	35,997	-363
전북권	5,683	4,939	744	7,850	5,879	1,971
광역광주권	3,822	3,067	755	5,514	3,580	1,934
광역대구권	4,769	4,107	662	7,091	4,492	2,599
광역부산권	7,294	5,480	1,814	9,901	6,580	3,321
제주도	518	440	78	701	559	142

주: 광역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강원도), 광역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중 충남은 제외), 전북권(전북), 광역광주권(광주, 전남), 광역대구권(대구, 경북), 광역부산권(부산, 울산, 경남), 제주도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해당년도.

〈그림 I -14〉 충남지역 인구이동(유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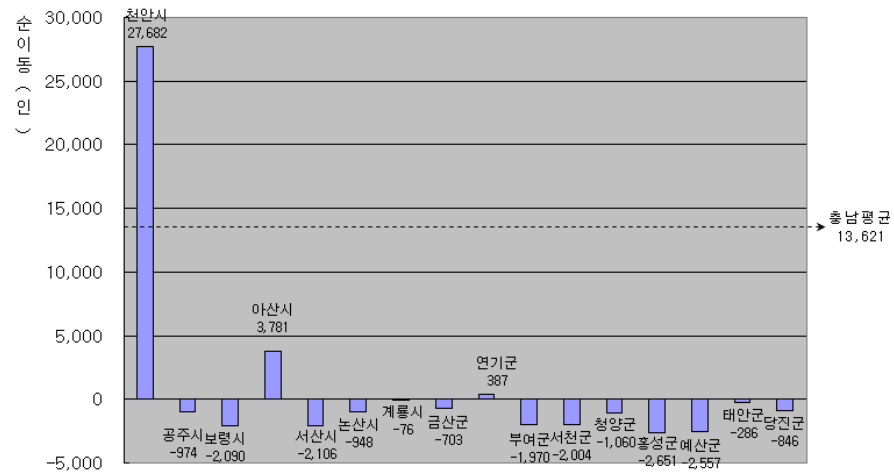


〈그림 I -15〉 충남지역 인구이동(유출)비중



- 시·군별 인구이동패턴을 보면, 2000~2004년 사이에 천안시, 아산시, 연기군은 인구이동으로 인한 순증가가 이루어진 반면, 나머지 지역은 인구의 순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1-16〉 지역내 시·군별 순인구 이동패턴(2000~2004)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해당년도.

라. 토지이용

■ 지목별 토지이용

- 충남지역의 2004년 현재 지목별 토지이용실태를 보면, 도시용 토지가 전체면적의 6.5%, 농업용 토지 32.0%, 임야 52.2%, 기타 9.3%의 순으로 나타남
- 토지이용실태를 전국과 비교하면, 농업용 토지와 도시용 토지이용 면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농업 및 도시개발 부문의 잠재력이 높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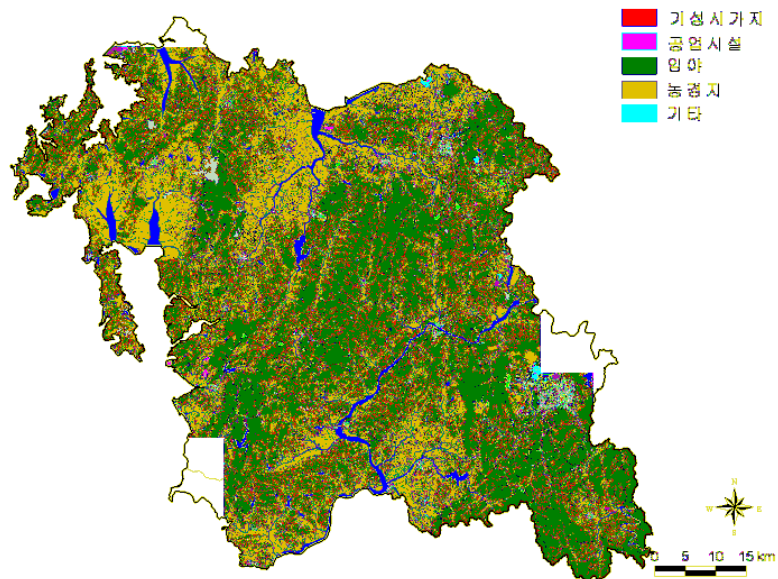
〈표 1-11〉 전국과 충남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2004)

(단위: km², %)

구 분	총면적	도시용 토지	농업용 토지	임 야	기 타
전국	99,617.4 (100.0)	6,087.5 (6.1)	21,296.0 (21.4)	64,884.8 (65.1)	7,349.1 (7.4)
충남	8,598.5 (100.0)	562.4 (6.5)	2,749.7 (32.0)	4,483.2 (52.2)	803.2 (9.3)

자료: 건설교통부, 2004 도시계획현황, 2005.

〈그림 I-17〉 토지이용 현황도(2004)



■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 충남지역의 도시지역 면적은 총 929.92km²로 충남 전체면적의 10.8%로 전국의 17.1%에 비하여 낮은 편임. 충남지역의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분포를 보면, 녹지지역이 6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지정지역 13.5%, 주거지역 10.9%, 공업지역 6.0%, 상업지역 1.3%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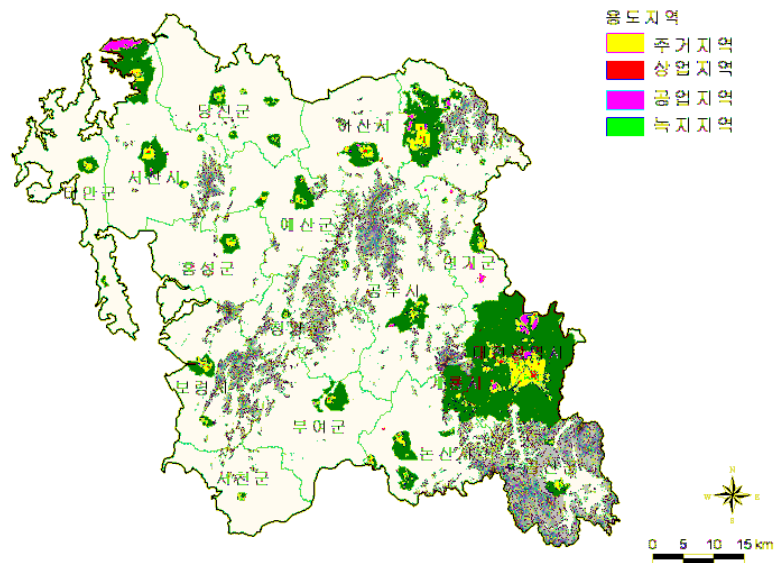
〈표 I-12〉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현황(2005)

(단위: km², %)

구분	도시지역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지역
전국	17,039.77 (100.0)	2,121.85 (12.4)	264.04 (1.5)	793.11 (4.7)	12,607.48 (74.0)	1,253.29 (7.4)
충남	929.92 (100.0)	101.48 (10.9)	11.82 (1.3)	55.32 (6.0)	635.42 (68.3)	125.88 (13.5)

자료: 건설교통부, 2005 도시계획현황, 2006.

〈그림 I -18〉 도시지역내 용도지역 현황도(2005)



■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 충남지역의 비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분포를 보면, 농림지역이 5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지역 38.2%, 자연환경보전지역 9.1%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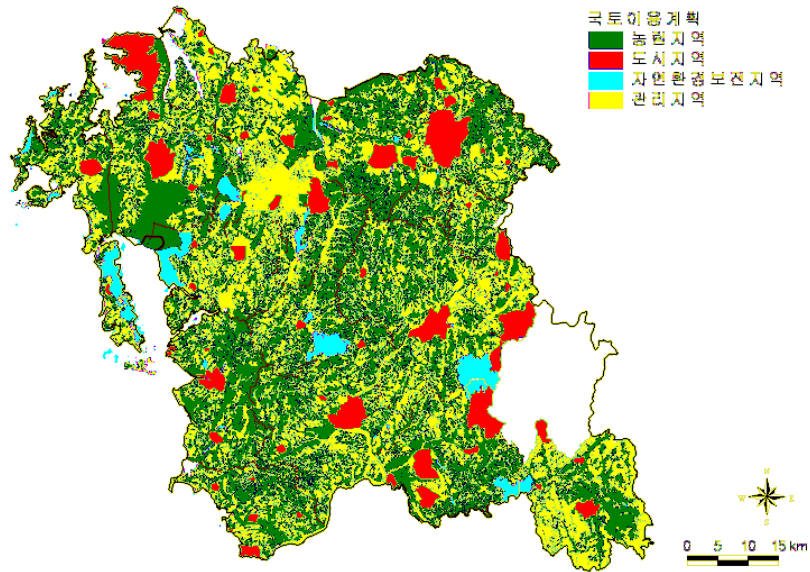
〈표 I -13〉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현황(2005)

(단위: km², %)

구분	비도시지역			
	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국	89,074.72 (100.00)	25,870.46 (29.04)	51,023.31 (57.28)	12,180.95 (13.68)
충남	8,198.54 (100.00)	3,130.33 (38.18)	4,324.53 (52.75)	743.68 (9.07)

자료: 건설교통부, 2005 도시계획현황, 2006.

〈그림 1-19〉 비도시지역내 용도지역 현황도(2005)



마. 생활환경

■ 시·군 생활권의 구조와 특성

-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물품 및 서비스 구매 형태를 보면, 고차(higher-order)의 상업·서비스 기능일수록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천안시의 영향권이 확대되고 있음
 - 일상용품 구매의 경우는 시·군의 중심지가 67~100%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가전제품 구매나 병원시설의 경우에는 천안시, 대전광역시, 서울·경기 및 기타 지역으로 영향권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음
- 상품 및 서비스의 유형별 점유비율은 일상용품, 가전제품, 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상용품 구매의 경우는 시·군 중심지가 72.7%(아산)~100%(천안·서산)의 중심성을 보이고 있으나, 가전제품 구매의 경우는 시·군간 점유비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자족성이 떨어짐
 - 병원시설 이용의 경우, 시·군의 일반병원은 39.6%(청양)~99.5%(천안)의 중심성을 보이고 있으나, 종합병원의 경우는 시·군내의 종합병원의 유무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임

- 시·군 중심지에서 타 지역으로 상품구매권과 서비스이용권이 이동하는 경우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가전제품, 일상용품 순이었음
 - 일상용품은 천안시가 충청남도 전체 구매력의 19.4%를 차지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3.1%, 서울·경기 및 기타 지역이 1.3%를 점유하고 있음
 - 가전제품은 천안시가 21.9%, 대전광역시 13.2%, 서울·경기 및 기타 지역이 4.7%를 점유함
 - 병원시설의 이용은 일반병원의 경우 천안시가 21.8%, 대전광역시 7.8%, 서울·경기 및 기타 지역 2.5%를 점유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의 경우 천안시 37.3%, 대전광역시 27.9%, 서울·경기 및 기타 지역 13.7%를 점유함
- 이러한 경향은 지역간 교통체계 정비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중·대도시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면서 시·군 중심지들의 배후상권이 위축되고 있고, 중·대도시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주민선호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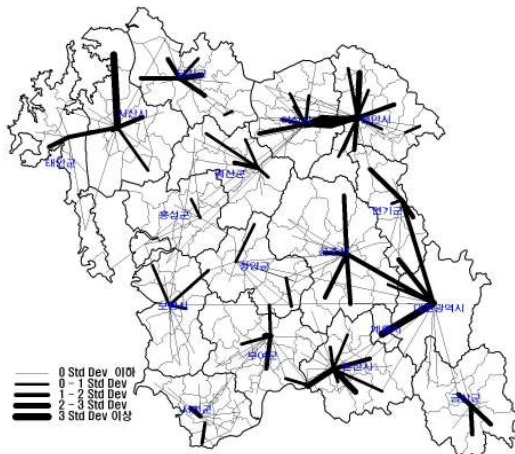
〈표 1-14〉 상품 및 서비스 유형별 시·군 점유율 분석(2006)

일용품		가전제품		병 원		종합병원	
시·군	점유율(%)	시·군	점유율(%)	시·군	점유율(%)	시·군	점유율(%)
연기	67.2	청양	16.3	청양	39.6	청양	0.0
아산	72.7	태안	36.0	연기	52.5	당진	0.0
청양	77.4	금산	41.3	계룡	57.5	계룡	0.0
계룡	79.5	연기	42.4	아산	61.5	연기	0.0
보령	84.2	계룡	50.0	태안	64.2	아산	0.0
태안	84.6	아산	51.0	부여	70.3	부여	0.0
서천	87.5	서천	57.1	금산	75.0	서천	0.0
공주	87.8	공주	63.8	예산	76.7	태안	12.0
부여	89.4	부여	65.6	논산	77.5	금산	12.8
금산	89.6	논산	71.3	공주	81.7	예산	17.8
논산	92.5	예산	77.8	당진	84.7	공주	20.0
예산	93.3	보령	81.6	서천	87.0	논산	27.8
당진	95.9	당진	82.9	홍성	90.0	홍성	32.4
홍성	98.6	홍성	92.8	서산	91.5	서산	42.7
천안	100.0	서산	96.2	보령	92.1	보령	60.5
서산	100.0	천안	97.9	천안	99.5	천안	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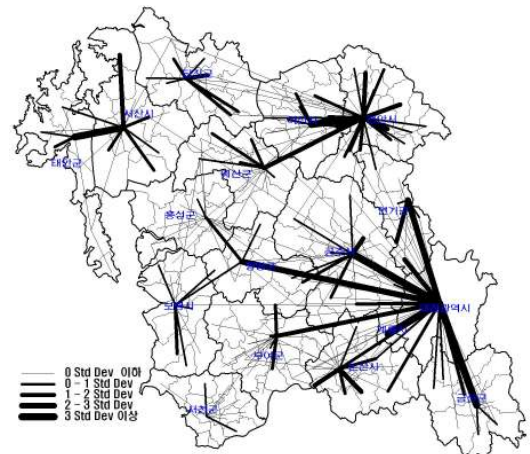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 지역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2006.

-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품 및 서비스 계층별 생활권의 구성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일상용품의 경우 천안시와 아산시가 동일한 권역을 형성하고 있고,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가 동일권역으로 나타나며, 서산시를 중심으로 태안군이 같은 권역을 형성하고 있음. 자체 구매권이 가장 약한 청양군의 경우 상품구매 패턴이 공주·부여·보령 등으로 분산되어 나타나며, 그 외의 시·군은 자체적으로 상품구매권을 형성하고 있음
 - 가전제품 구매권의 경우 천안시와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일용품 구매권보다 확대되어 나타남. 천안시의 상권은 아산시, 예산군까지 확대되었고, 대전광역시의 경우도 연기군,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으로 더욱 확대되었음
 - 일반병원 이용권의 경우도 가전제품 구매권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종합병원 이용권의 경우는 천안시와 대전광역시로 더욱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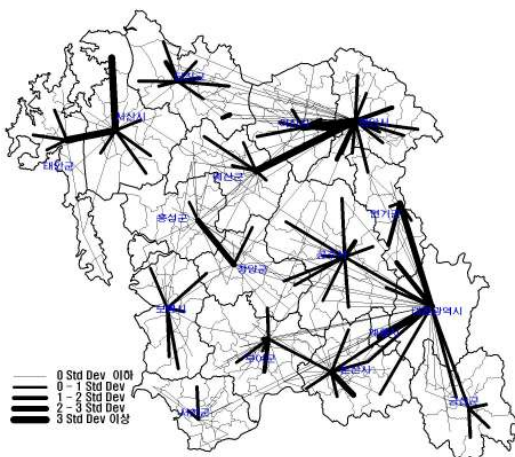
〈그림 1-20〉 일용품 구매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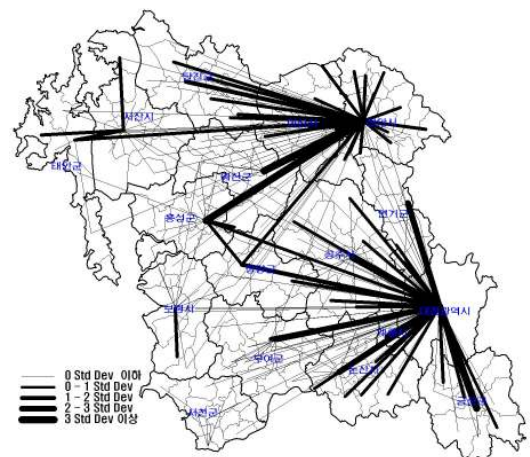
〈그림 1-21〉 가전제품 구매권



〈그림 1-22〉 일반병원 이용권



〈그림 1-23〉 종합병원 이용권



바. 지역경제

■ 지역총생산

- 충남지역의 지역총생산액은 2004년 현재 38조1,389억원(200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전국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GRDP는 19,335천원으로 전국 시·도 1인당 평균 GRDP의 135.0%에 달하여 여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기반이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음
 - 도내 1인당 평균 GRDP도 1995년 전국대비 106.9%에서 2004년 135.0%로 증가추이를 보임

〈표 1-15〉 지역총생산 및 1인당 지역총생산 추이(1995~2004)

(단위: 십억원,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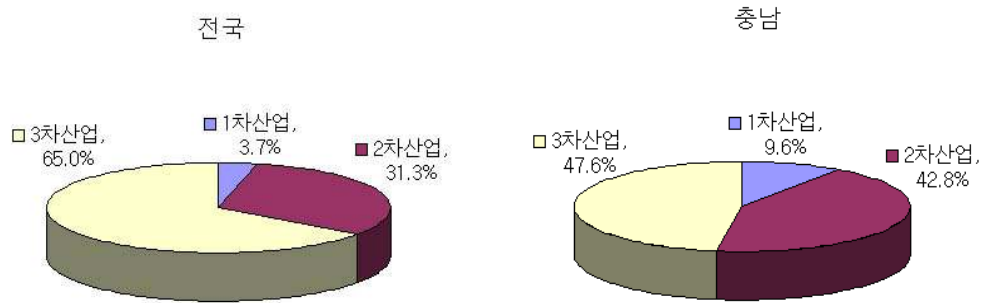
구분		1995년	2000년	2004년*
지역 총생산	전국	485,493.6 (100.0)	577,970.9 (100.0)	702,805.9 (100.0)
	충남	20,941.6 (4.31)	28,962.8 (5.01)	38,138.6 (5.43)
1인당 GRDP	전국	10,558.4 (100.0)	12,046.9 (100.0)	14,327.5 (100.0)
	충남	11,287.1 (106.90)	15,004.8 (124.55)	19,334.6 (134.95)

주: 2005년말 간행된 「충남통계연보(2004년 기준)」가 최신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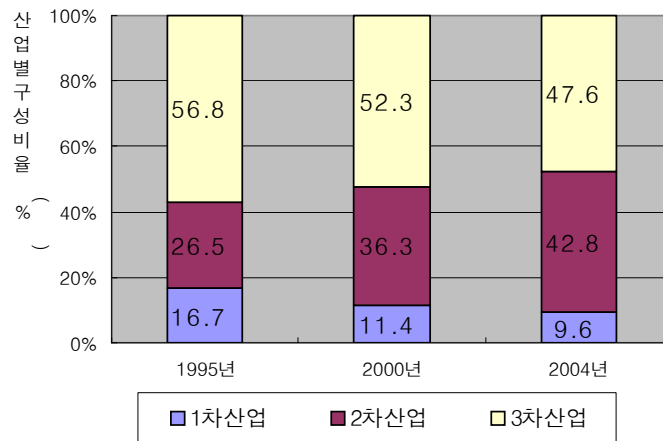
■ 산업구조

- 충남지역의 산업별 구성비를 생산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4년 현재 농림어업 9.6%, 광공업 42.8%, 서비스 등 기타가 47.6%임. 이를 전국과 비교해 보면, 농림어업 비중이 전국(3.7%)에 비하여 3배 정도 높은 반면, 서비스업 부문은 전국 평균치인 6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충남의 산업구조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이후 1차산업의 비중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2차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그림 1-24〉 전국과 충남의 산업구조 비교(2004, 생산액 기준)



〈그림 1-25〉 충남의 산업구조 변화추이(생산액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2005.

■ 취업구조

- 충남지역의 취업구조는 1차산업 취업자가 2004년 현재 222천명으로 전체 산업별 취업자의 24.1%를 차지하여 전국평균 8.1%보다 크게 높고, 2차산업은 155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6.8%를 차지하여 전국평균 19.1%보다 낮으며, 3차산업 취업자비율 또한 59.1%로 전국평균 72.8%보다 크게 낮음

〈표 1-16〉 전국과 충남의 취업구조 비교(2004, 취업자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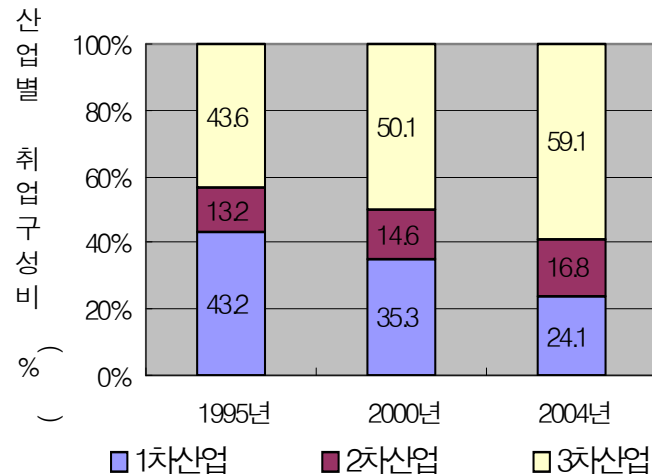
(단위: 천명)

구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계
전국	1,825 (8.1%)	4,306 (19.1%)	16,427 (72.8%)	22,557 (100.0%)
충남	222 (24.1%)	155 (16.8%)	544 (59.1%)	921 (100.0%)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2004.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 충남지역의 취업구조 변화추이를 보면, 1차산업 비중이 1995년 43.2%에서 2004년 24.1%로 크게 낮아졌으나, 2차산업 및 3차산업 비중은 증가추세에 있음. 특히, 지역내 산업단지 조성효과로 2차산업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26〉 충남의 취업구조 변화추이(1995~2004)



사. 사회간접자본시설

- 충남지역의 도로연장은 2004년 현재 전국의 7.5%인 7,543km이며, 도로포장률은 72.8% 수준으로 전국평균 76.1%에 근접하고 있음
- 주택 및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수준을 보면,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일반가구 기준)은 96.7%로 전국의 102.2%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2004년 현재 상·하수도 보급률도 61.5% 및 49.3%(2005년 53.9%)로 전국평균인 90.1% 및 81.4%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충남지역의 생활환경 및 지역경제 여건을 나타내는 지역총생산, 1인당 GRDP는 전국평균에 비해 높은 반면, 도시화율, 도로수준 지표는 전국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아. 문화·관광자원

- 충남지역에는 2개소(계룡산, 태안해안)의 국립공원과 3개소(칠갑산, 대둔산, 덕산)의 도립공원이 분포되어 있음

- 충남지역은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이 지정되어 있고, 859점의 국가 지방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
- 25개소의 지정관광지와 2개소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31건의 축제가 충남지역내에서 해마다 개최되고 있음

〈표 1-17〉 관광자원 분포현황

구분		개소수	분 포 지 역
자연 자원	국·도·군립공원	6개소	•국립공원(2개소) : 계룡산, 태안해안 •도립공원(3개소) : 칠갑산, 덕산, 대둔산 •군립공원(1개소) : 연기 고북저수지
	온천	16개소	•온양, 도고, 아산, 덕산, 마곡, 동학사, 홍성 등
역사 문화 자원	문화재	859점	•국가지정문화재(201점), 도지정문화재(356점), 문화재 자료 302점 등 총 859점
	향토문화축제	31건	•한산 모시문화제, 보령 머드축제, 금산 인삼축제, 강경 젓갈축제,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등
관광 자원	지정관광지	25개소	•삼교호, 구드래, 태조산, 신정호, 안면도 등
	관광특구	2개소	•보령해수욕장관광특구, 아산시 온천관광특구

자료: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6.

사. 사회복지시설

- 2005년 현재 충남지역에 9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5,929명이 수용되어 있음
 - 유형별로는 노인복지시설이 45.6%, 장애인복지시설이 18.5%, 아동복지시설이 16.3%, 정신요양시설이 12.0%를 차지하고 있음
 - 수용인원으로는 정신질환자 31.8%, 노인 28.4%, 장애인 21.2% 등의 순임

〈표 1-18〉 사회복지시설 분포현황(2005)

(단위: 개소, 인, %)

구 분	총 계		아동복지 시 설		노인복지 시 설		장애인복지 시 설		여성복지 시 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부랑인시설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계	92 (100)	5,929 (100)	15 (16.3)	901 (15.2)	42 (45.6)	1,684 (28.4)	17 (18.5)	1,257 (21.2)	6 (6.5)	41 (0.7)	11 (12.0)	1,887 (31.8)	1 (1.1)	159 (2.7)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6.

2. 관련계획의 검토와 평가

가. 국가계획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 기초와 목표

- 21세기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기조로 「상생하는 균형국토」,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살기 좋은 복지국토」,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번영하는 통일국토」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목표 하에서 충청남도의 개발목표는 다음과 같음
 - － 행정중심복합도시권으로서 국가균형발전 선도지역으로 도약
 - － 첨단산업과 전통 농·축산업의 상생발전 지역으로 조성
 - － 개성과 전통을 살린 문화·관광 창출지역으로 개발

■ 개발전략

-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동북아시아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채택하였음
- 동 계획에서는 지역경쟁력 강화와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차원에서 충청남도의 개발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 개발
 - －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과 혁신체계 구축
 - － 개성 있는 지역문화권 형성과 특화관광자원 개발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서해안시대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
 - － 지역자원의 관리 및 고품격의 생활·복지환경 조성
 - －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지자체간 교류·협력 활성화

■ 주요 지역개발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및 인접도시간 광역도시권 설정, 아산만광역권을 지원하는 중심도시 조성

- 산업클러스터 형성(천안·아산: 전자정보기기산업, 서산·당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 등)
- 서해안과 백제·내포문화권을 연계한 관광네트워크 형성,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 당진~울진간, 서천~영덕간 고속도로, 대전~서천간 고속화도로, 충청선철도(보령~조치원), 서해안철도(야목~안중~예산) 등의 건설과 장항선 개량 및 복선전철화 등

2)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2008)

■ 기조와 목표

-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도약」을 계획기조로 삼아 지역혁신체계(RIS)에 기반한 역동적 지역발전을 계획목표로 설정하였음
- 이와 같은 목표 하에서 충청남도는 동북아경제의 대중국 교역 교두보 건설을 비전으로 삼고 다음과 같이 계획목표를 제시
 -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동력을 수용하여 對중국교역의 교두보로 육성
 - 권역별 산업클러스터 형성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지역혁신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 개발전략

-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는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수도권외 질적 발전 추구,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등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채택하였음
- 동 계획에서는 충청남도를 동북아 경제권의 신성장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발전략을 제시
 - 동북아 경제권 성장동력의 능동적 수용을 위한 SOC기반 확충
 - 고급인력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문화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 전통산업의 지식산업화 및 산업입지 수요에 부응한 신산업단지 조성

■ 주요 지역개발사업

- 충남테크노파크·전략산업기획단·산학연 협력단 육성, 지역혁신연구회·지역기업협의회 운영
- 천안·아산지역을 전자·정보관련 핵심기술 창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천안·아산(천안밸리)~대전(대덕밸리)~오창·오송(중부하이웨이벨트)을 연계한 삼각 테크노벨트 조성
- 서해안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자동차부품·메카트로닉스 하이웨이벨트 조성
- 홍성·예산·청양의 농·축산바이오, 논산의 동물바이오, 금산의 인삼·약초 바이오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대전(의약), 충북(보건의료)과 연계한 초광역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형성

3)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 기조와 목표

-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기반시설의 확보를 계획기조로 삼아 비용절감형 물류체계와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 구축, 신속·안전·편리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실현, 그리고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교통망의 구축을 계획목표로 설정

■ 개발전략

- 계획의 전반기(2000~2009)
 - 기존 간선교통망 확충사업의 완공과 지역 간 수송 애로구간의 해소
 - 간선교통축을 다변화하여 지역간 수송수요를 분산·조정하고 전국 차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대폭 향상
 - 신공항·신항만 등 국제교통시설의 확충으로 동북아 교통·물류중심지 기반을 조성
 - 남북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남북교통망 복원을 추진
- 계획의 후반기(2010~2019)
 - 간선교통망의 지속적 확충과 철도중심의 간선교통망을 구축
 - 동서·남북교통축의 확충과 미개설구간 연결 등 국가기간교통망을 완성
 -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국가 역할수행을 위한 교통체계의 첨단화 및 고도화 추진

■ 주요 건설사업

- 남북 7개축 중 제2축인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공주, 호남), 천안-남이(경부), 화덕-논산(호남), 자유로와 제3축인 동두천-서울-대전-진주-충무(중부, 대전-진주), 충무-거제, 대전남부순환 고속도로를 건설
- 동서 9개축 중 제5축인 당진-천안-영주-울진과 제6축인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청주-상주), 당진-대전, 대전-대구(경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 호남고속철도, 천안-조치원-대전구간 전철화, 호남선 전구간(대전-목포간) 전철화, 천안-온양간 및 온양-군산간 장항선 복선전철화, 보령-조치원간 및 천안-안흥간 광역전철망 구축
- 대산항·보령항 등 배후수송망 확충, 대전·청주권 및 아산만권 내 유통단지 개발 등

4)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

■ 기조와 목표

- 「21세기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관광대국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관광한국」,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관광한국」, 「관광자원의 가치를 창조하는 지식기반형 관광한국」,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민참여형 관광한국」,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개방형 관광한국」 등의 계획목표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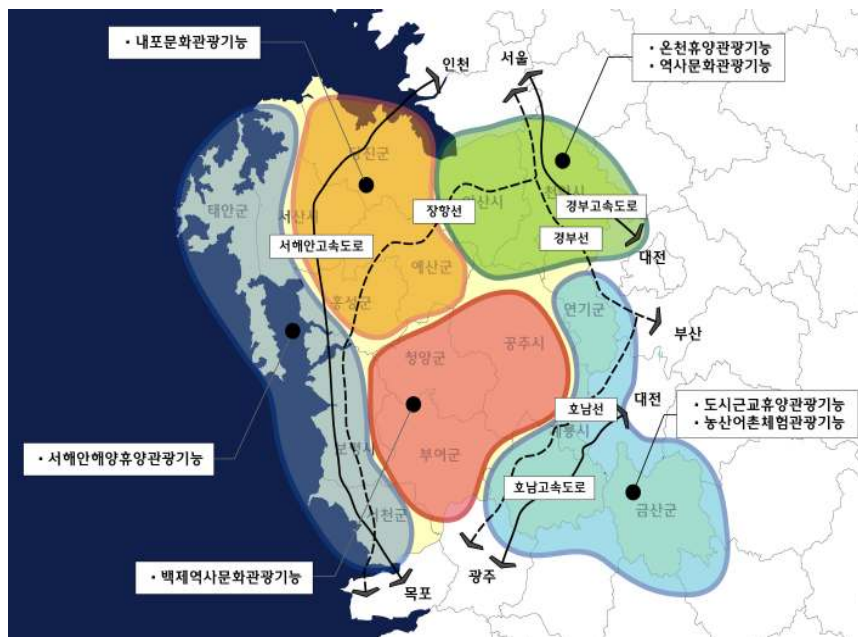
■ 개발전략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시설 개발 촉진, 지역 특성화와 연계화를 통한 관광개발 추진,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관광자원화 촉진,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 강화, 지식기반형 관광개발 관리체계 구축, 국민 생활관광 향상을 위한 관광개발 추진, 남북한 및 동북아 관광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개발전략으로 채택

■ 주요 개발방향

-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 충남은 「서해안 해양관광 중심지역으로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백제역사문화 관광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설정
 - 천안·아산 일대는 온천자원과 독립기념관, 현충사, 수덕사 등의 역사자원을 연계한 온천휴양관광 기능 수행
 - 서산·홍성·예산지역은 내포문화권 개발을 추진하여 백제문화권과 연계한 역사문화관광 기능 부여
 - 태안·보령·서천의 서해안지역은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과 함께 가족형 휴양지 조성으로 해양휴양관광 기능 부여
 - 논산·금산·연기 일대는 농산촌 체험관광 기능 부여 등을 주요 개발방향으로 제시

〈그림 1-27〉 충청남도 관광개발 방향



5)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2005~2009)

■ 장기비전

-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 구현
 -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인프라 구축으로 농촌인구를 현재 20% 수준으로 유지

■ 중점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 중점추진과제로는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4대 부문별로 수립되었음
 -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의료 서비스시설 확충, 여성·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시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유아교육 기회 확대, 초·중·고등교육 지원 및 우수교원 확충,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실시
 -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기초생활환경 개선, 경관·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 민간의 자본·인력·경영기법 등의 활용
 -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향토자원 발굴 및 산업화 지원, 농산어촌 관광기반 확충, 농산어촌 Amenity를 소득자원화 함

6) 국가환경종합계획(2005~2015)

■ 계획의 기초와 목표

- 21세기 한반도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하는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조성」을 기조로 「한반도 환경용량의 효과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확충」, 「세대간 세대내의 환경 형평성이 구현되는 사회 구축」,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이용체계 구축」, 「생태계의 원리를 존중하는 안정적 경제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목표 하에서 충청남도는 「환경친화적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설정함

■ 추진전략

-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자연생태 보전, 자연자원 보전과 효율적·순환적 이용, 환경을 지키는 경제, 경제를 살리는 환경, 환경 형평성 구현 기반구축, 동북아 환경보전 및 환경협력 강화, 지구적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도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채택하였음. 권역별 계획에서는 국토의 환경용량 보전 차원에서 5대 환경관리 대권역 중 하나인 충청남도에 대한 환경계획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동서-남북 광역생태축의 구축과 복원관리 강화
- 지역특성별 대기오염 관리방안 추진
- 서해연안 및 도서 생태환경의 보전관리 강화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시범사례 추진
- 금강수질총량관리 강화

■ 주요사업

- 동서~남북 광역생태축 구축과 복원·관리 강화
 - 대둔산~계룡산, 속리산~금강 하구를 잇는 동서~남북 광역생태축을 토대로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훼손지역의 복원관리 강화 등을 추진
- 지역특성별 대기오염 관리방안 추진
 - 서산, 당진, 아산 등의 화력발전소, 산업단지 등의 확장에 따른 서해연안 대기오염 광역화 관리방안의 수립 추진
- 서해연안 및 도서 생태환경의 보전·관리 강화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원북면, 소원면 등의 양호한 연안생태자원 및 해양수질(1등급)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도서·연안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추진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시범사례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환경계획을 작성하여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시행
- 금강수질총량관리 및 대청호 조류대책 강화
 - 금강오염총량관리계획에 기초한 시행계획을 조기에 작성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체계 강화로 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유도

7)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03~2007)

■ 계획의 기조와 목표

- 「지속가능한 참여형 녹색국가 건설」을 기조로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강화」, 「개발과 보전의 조화」, 「환경과 경제의 상생 정착」, 「민·관, 국제 파트너십 증진」을 목표로 설정함

■ 추진전략

- 공기·물·폐기물 등으로부터의 체감 생활환경 개선, 환경위해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전, 보전과 개발의 통합적 국토환경관리기반 강화,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문화 정착, 환경선진국을 향한 환경기술산업 육성,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국민 참여 확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채택

나. 관련계획

1)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1995~2011)

■ 계획지역

- 천안·아산·서산·당진·태안군 지역 전체와 예산군 일부 지역

■ 개발전략

- 중추관리기능, 유통기능, 교육 및 연구기능, 고급 서비스기능을 확충하여 천안을 아산만권의 권역중심도시로 육성
- 기존의 온양시(아산시 동부), 서산시, 송탄시, 평택시 등을 지역 내 1차적 서비스와 중소규모의 공단을 지원하는 지방중심도시로 성장을 도모하고 도시별 기능분담을 유도
- 아산항과 아산국가공단, 석문공단, 인주공단을 지원할 수 있는 배후주거지역을 개발하여 권역 밖에서 전입하는 인구를 수용
- 아산항,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등의 간선교통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구축
- 동서지역간 교통축을 형성함으로써 남북교통축 위주의 교통망체계를 개선
- 임해지역에는 아산항과 연계하여 해상물동량이 많은 업종을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내륙에는 부품산업을 배치하여 산업연계를 도모

2) 장항·군산권 광역개발계획(1996~2011)

■ 계획지역

- 보령시·서천군 및 논산시(강경읍, 연무읍, 채운면, 성동면), 부여군 일부

■ 개발방향

- 환황해경제권을 겨냥한 국제교역전진기지 구축
- 신산업지대의 조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권 형성
- 기술정보사회에 대비한 미래형 물적기반 조성
- 역사유적과 해양휴양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관광위락거점 조성

■ 개발전략

- 장군산업기지의 지역내 확산 촉진
- 주변의 향후개발 여건과의 연계강화 유도
- 권역 내 지역별 특성과 잠재력의 활용 극대화
- 상이한 행정구역간의 기능적 통합증진
- 4대 권역별 개발방향
 - － 산업업무중심권(장·군산업기지), 배후생산지원권(논산), 내륙문화관광권(부여), 해양휴양관광권(보령, 서천)
- 축별 개발방향
 - － 해안축(보령-장군신산업기지), 내륙축(논산-익산-김제)

3) 대전·청주권 광역개발계획(1996~2011)

■ 계획지역

-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연기군, 금산군

■ 개발방향

- 국가중추행정 및 업무기능의 수용기반 구축
- 경쟁력 있는 자족적 경제권으로 육성
- 지역간·수단간을 통합하는 광역교통망의 정비와 확충

- 정주체계 개편을 통한 도시환경 정비

■ 개발전략

- 도시공간구조 개편에 의한 대전·청주의 기능 확충
- 첨단산업의 집중육성으로 경제기반 강화
- 교통시설 확충 및 연계강화로 방사원형 교통망 형성
- 인구와 산업의 분산배치를 위한 신시가지 조성

4) 4대권 개발경영구상(1997)

■ 기본목표

- 충청남도 자원배분의 효과성을 극대화
- 각 지역에 고유한 지방성을 바탕으로 기능의 전문화 및 특화
- 도시와 농촌간의 기능적 연계를 통한 영역적 통합성 추구

■ 개발전략

- 서해안권은 태안해안국립공원~안면도~보령을 연결하는 서해안지역으로 해양레저기능과 교역기능을 특화시켜 국제관광 및 환황해권 전진기지로 중점 육성
- 백제권은 백제의 고도인 부여·공주축을 중심으로 교육·관광·문화기능을 복합시켜 국제적인 문화권으로 육성
- 북부권은 천안·아산·당진·서산축을 신산업지대로 육성하여 수도권의 기능분담과 21세기 중부권 교역 및 산업중심지로 육성
- 금강권은 금강수계 중심의 치수와 주운개발을 통하여 물류·유통산업 및 근교농업 등 대도시 연계기능 특화와 중소규모의 자족적인 전원도시 개발

5)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2005)

■ 기본방향

- 공주·부여·익산지역의 백제역사문화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발굴·정비·복원하여 백제문화를 재현하고, 금강변을 중심으로 관광휴양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백제문화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민여가공간으로 제공

■ 개발전략

- 1993년 6월 공주부여·익산지역 1,915km²를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종합개발 계획을 시도해 왔으나, 사업추진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사업기간 및 투자비용 등을 수정·보완
- 사업내용은 백제역사유적의 발굴정비·복원,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관광·휴양·위락공간 확충과 도시환경정비, 교통망확충 등을 포함하고 있음

6)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2005~2014)

■ 기본방향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을 해양내륙형 복합관광지대로 조성
 - － 지역내에 유무형의 전통적인 역사문화자원을 발굴·보존정비를 통하여 지역개발을 추진
 - － 개발잠재력이 뛰어난 자원을 관광상품화하며, 지역의 문화생활 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21세기 해양내륙형 복합관광지대로 중점 육성

■ 개발전략

- 보령·서산·홍성·예산·태안·당진 등 955km²에 이르는 내포문화권 개발은 경주의 신라문화권과 공주·부여의 백제문화권으로 대표되는 王都·양반문화권에 대비되는 최초의 서민·종교문화권 육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님
- 내포문화권 개발은 2014년까지 총 1조 50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정신문화창달, 문화유적정비, 관광휴양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가야산권(역사·문화관광), 해양권(해양·생태관광), 북부권(위락·휴양관광), 내륙권(가족 휴양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며, 주요사업으로는 간월도 관광지 조성, 홍주성 복원, 내포보부상촌 조성, 가야산순환도로 건설 등 총 46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음

〈그림 1-28〉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7) 충남 환경보전 종합대책 기본계획(2003~2020)

■ 계획의 기초와 목표

- 「맑고 푸른 고장, 충남 21의 구현」을 기조로, 강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물환경 조성,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이 있는 대기환경 조성, 자연순환형 생활환경 조성, 생명이 넘치는 토양환경 조성, 산·바다·강·들이 조화를 이룬 고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추진전략

- 환경요인·생물종의 파악, 방해요인·종다양성 분석, 보호대상종 파악을 통한 자연환경 보전방안 강구
- 대기오염 배출원과 배출량 분석을 통한 대기질 관리정책 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
- 환경 기초시설 현황·수질(특성)·오염원 현황 조사, 하천변 수질예측 및 수질환경 목표 설정 및 저감계획에 따른 종합적 수질보전대책 수립
- 폐기물 배출현황·재활용품목의 배출실태(회수 및 재활용 현황) 파악, 음식물 쓰레기 발생현황과 효율적 처리방안 제시 및 폐기물의 최종처리 현황 파악을 통한 종합적인 폐기물 관리대책 수립

다. 도종합계획의 평가(1998~2005년)

■ 인가지표

-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의 기준년도인 1998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충남의 인구는 연평균 0.47% 증가하였고, 도시화율도 2005년 현재 60.4%로 1998년에 비해 4.6% 증가하였음
 - 이는 과거 대전 또는 수도권지역으로 유출되었던 충남의 인구가 최근 들어 천안·아산지역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지역으로 꾸준히 유입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에 기인함

■ 지역경제지표

- 지역내 총생산은 1998년 17조1,400억원에서 2004년 현재 38조1,390억원으로 2.2배 증가하였음
- 산업구조는 1차산업의 비중(생산액 기준)이 1998년 14.4%에서 2004년 9.6%로 크게 낮아진 반면, 2·3차산업의 비중은 크게 높아졌음. 이는 농·림·어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함

■ 사회기반시설지표

- 도로부문은 고속도로의 연장이 1998년 78.5km에서 2004년 303.8km로 약 3.9배 증가하였고, 국도의 연장은 1998년 1,191km에서 2004년 1,321km로 확충되어 약 10% 증가하였으며, 도로 포장률도 71.1%에서 72.8%로 신장되었음. 이와 같은 국도 및 지방도의 확충으로 도시와 도시, 도시와 농촌간의 교통연계가 향상되었음을 의미함

■ 생활환경지표

- 생활환경부문에 있어도 상수도 보급률은 1998년 49.0%에서 2005년 63.3%로 크게 향상되었음
- 주택보급률은 2005년 현재 96.7%에 달하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됨

■ 관광부문지표

- 2005년 관광객수는 83,003천명으로 1998년과 대비하여 약 2배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정계획에서 예측한 2020년 관광객 예측치 79,153천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표 1-19〉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00)」의 추진성과

부 문 별		단 위	주 요 내 용			비 고
			1998년 (현황)	2005년 (실적치)	2020년 (목표치)	
인구 및 소득	인 구	천인	1,919	1,982	2,186	
	도 시 화 율	%	55.8	60.4	71.0	
	지역내총생산	10억원	17,140	38,139 ¹⁾	63,926	
	산 업 구 조	1차:2차:3차 의 구성비	14.4:28.9:56.7	9.6:42.8:47.6 ¹⁾	6.7:30.7:62.6	생산액 기준
교통	도로포장율	%	71.1	72.8 ¹⁾	100.0	
	고 속 도 로	km	78.5	303.8 ¹⁾	618.0	
	국 도	km	1,191	1,321 ¹⁾	1,794	
	지 방 도	km	1,710	1,817 ¹⁾	2,055	
생활 환경	주택보급률	%	88.0	96.7 ²⁾	106.0	
	상수도보급률	%	49.0	63.3	91.4	
복지	의료병상수	개	10,189	14,850 ¹⁾	22,440	
	사회복지시설	개소	56	74 ¹⁾	97	
관광	관광객수	천명	41,152	83,003	79,153	

1) 2004년 현재

2) 충남의 2005년 주택보급률 96.7%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결과(2006)」에 제시된 수치이며, 충남통계연보(2005)상의 2004년 주택보급률 98.1%와는 조사방법 차이로 인하여 시계열적인 비교는 불가능함

자료: 충청남도,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00~2020), 2000.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3. 대내·외적 여건변화 분석

가. 거시적 여건변화와 전망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지역경영전략의 변화

- 무역·투자자유화, 초국적기업의 세계화 전략,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경 없는 지구촌경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임
-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충남의 기술집약적 첨단제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1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2·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가 예상됨
 - 이에 따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된 지역경영전략을 추구하되, 경쟁력을 상실하는 부문에 대한 발전정책 수립이 요구됨

■ 환황해권 시대 전개에 따른 능동적 대응

- 글로벌 경제에 따라 향후 중국은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환황해권은 아시아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임
- 충남은 중국과 가장 근접한데다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지경학적 유리성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국가성장의 선도지역이자 환황해경제권의 생산·물류기지로써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지식기반경제의 발전과 성장전략의 변화

- 지식과 기술이 고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면서 지식기반산업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되고 있음
-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 등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와 이들 주체간의 상호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함
-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 생산자동화 설비의 확산, 급격한 기술진보로 인한 자본수익률의 저하 등으로 향후 5% 내외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고용창출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임

■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증가의 둔화

- 통계청의 예측에 의하면, 출산율 저하, 지속적인 평균수명 연장으로

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18년에는 고령사회²⁾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임. 인구증가율은 점차 둔화되어 2020년 4,996만명 수준까지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1-20〉 전국의 인구성장 전망

구 분	1970년	1990년	2005년	2020년
인구(천명)	32,241	42,869	48,294 ¹⁾	49,956
인구증가율(%)	2.21	0.99	0.44	0.01

주: 주민등록상 인구는 2005년 현재 49,268천명임.
자료: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2005.

- 저출산·고령화는 인구구성의 세대간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노인부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저하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의료비용의 증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야기할 것임
- 저출산·고령화는 충남지역에 장기적으로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위험성도 있지만, 이보다 먼저 이미 고령화되어 있는 농어촌지역을 더욱 공동화(空洞化) 할 것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각적인 정주 촉진대책의 추진이 필요함

■ 지구 환경문제와 에너지·자원 위기의 도래

-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빈번한 자연재해, 황사현상의 심화, 오존층 파괴 등 국제환경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
-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수려한 경관 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가할 전망
- BRICs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 화석연료 등 자원공급이 한계에 봉착하여 새로운 에너지원 발굴이 중요 과제로 대두될 것임

■ 친환경, 삶의 질 중시의 문화 정착

- 삶의 질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삶을 중시하는 웰빙 트렌드가 생활문화로 정착되고 여가와 문화관광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주5일 근무제에 따라 5都2村형 생활패턴이 확산될 것임

2)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을 의미함

- ‘삶의 질’에 대한 가치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인간중심적 친환경·생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쾌적한 생활·정주환경 등 새로운 도시 및 지역개발 수요가 증대될 것임
-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하는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도청이전신도시·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의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도 환경, 경관, 문화 등을 크게 중시하여 추진하게 될 것임
- 도시, 농어촌의 삶의 질을 제고하면서 개발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시책 및 제도정비가 요구됨

■ 지방자치에 따른 지역간 개발경합과 협력·제휴 증가

- 지방자치가 정착됨에 따라 지방의 자립적 발전여건이 개선되고 지방의 권한 확대에 창의적 발전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지방자치에 따라 자율권이 강화되어 지역간 경합과 갈등이 증대하여 향후 지역간 갈등과 분쟁조정이 주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임. 다른 한편으로는 인접한 자치단체간 협력적인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할 경우 시너지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부문이 증가하여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 지역간 협력·제휴가 증가할 것임

나. 충남의 여건변화와 전망

■ 인구와 산업의 총량적 성장 지속

- 충남의 총인구는 1990년 201.4만명에서 1995년에는 185.5만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에는 193.0만명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이후 인구증가지역으로 변모하여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충남지역 내부적으로는 지역간 인구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이 큼
- 충남지역은 과거의 국가성장의 배후지역에서 국가성장의 선도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충남의 인구, GRDP, 1인당 GRDP, 제조업체수(5인 이상 제조업체 기준), 제조업 생산액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전국의 제조업 종사자수는 감소한 반면 충남의

제조업 종사자수는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충남지역 내부적으로는 천안·아산 지역은 수도권에 기능적으로 편입되어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지만, 충남 중부내륙 및 서해안측은 1차 산업 중심으로 상대적 저발전 상태에 있어 발전격차가 심화되면서, 충남지역의 정체성, 안정성, 지속성, 유기적 발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결국, 충남 중부내륙 및 서해안 지역은 저성장지역으로, 행정도시 인근 지역은 발전지역으로, 충남 서부-북부 지역은 광역수도권 영향권 등으로 충남이 공간적으로 분절될 우려가 있음

〈표 1-21〉 전국과 충남의 주요 인구·경제지표의 연평균 증가율(1995~2004)

(단위: %)

	인구	GRDP	1인당 GRDP	제조업체수	제조업 종사자	제조업 생산액
전국	0.74	4.67	3.22	1.84	-0.59	9.04
충남	0.59	6.38	5.70	3.87	3.85	17.72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해당년도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해당년도
충청남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해당년도

■ 제조업 중심의 산업지역으로 전환

- 충남의 2차산업 비중은 1995년 26.5%에서 2004년 42.8%로 전국의 31.3%를 크게 상회할 정도로 전통적 농업지역에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지역으로 전환되고 기업의 입지잠재력도 더욱 향상될 것임
- 그러나, 난개발 및 오염 증대의 문제와 함께, 양극적 경제구조가 심화되면서 양극적 지역구조의 고착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Hub & Spoke 방식으로 산업집적과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연계 네트워크 강화

- 공주·연기지역에 2030년까지 중앙행정기관 12부 4처 2청의 이전, 인구 50만명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도시권은 충남지역의 한 대도시권을 형성할 것임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2~3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 충남은 국가혁신 및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 부상될 것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행정중심복합도시시는 국가의 중추 행정기능을 수행할 것임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충남이 기존의 단순한 지리적 중심지로부터 중추행정 중심지역으로, 수도권집중 완화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 천안·아산의 첨단산업과 대덕의 R&D 기능과 연계하여 지식기반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우리나라 신성장의 중심지역으로, 전국에서 2~3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변모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 도시간의 수평적, 호혜적 네트워크 형성은 충남지역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그 주변 시·군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주변 시·군의 경제적 성과 등을 흡수하면서 발전기회를 박탈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계기로 충남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 차원에서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충남지역 도시의 경제성과와 인구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일방적으로 흡수되지 않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기능적 연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함
 - 이와 함께 대전광역시~행정도시~천안·아산 등 경부축선상의 지역과 내륙·서해안지역과의 광역 차원에서의 기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함

〈그림 1-29〉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지역 연계체계



■ 도청이전신도시 건설과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 홍성·예산지역에 2020까지 인구 15만명의 도청이전신도시가 건설될 예정임. 공주~서천 및 당진~대전고속도로의 준공과 더불어 도청이전을 계기로 도청이전신도시와 각 시·군간 교통체계가 정비되면, 충남은 대부분의 지역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임
- 도청이전에 따라 환황해권시대 거점지역으로서 서해안지역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고, 정부축을 중심으로 기능이 집적된 불균형적 지역구조를 벗어나 충남 내륙, 북부, 서해안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임
- 도청이전신도시는 주변의 도시 및 주요 집적지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충남 서부지역의 발전을 견인함과 동시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선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막대한 재원투입으로 전략적 도정 과제 수행을 어렵게 할 수도 있음

다. 충남의 기능 및 역할 전망

■ 정치·행정의 중심지역

-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계기로 수도권 과밀과 집중의 악순환을 해소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치·행정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것임
- 행정도시가 지방화시대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체계의 분권화를 촉진함으로써 충남은 지방시대의 선도지역 역할을 담당할 것임

■ 국가혁신의 선도지역

- 충남은 지식기반시대 혁신주도적 성장전략의 모범지역으로 국가혁신을 주도할 것임
- 충남은 행정도시의 지식·정보 생산기능 및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기능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산업, 교육, 연구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지역혁신을 창출하고, 나아가서 국가적 혁신을 촉진하는 촉매자의 역할을 할 것임

■ 중부권의 성장거점

- 금강권 광역복합개발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서천까지의 충남 남부 지역 일대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중부권의 성장거점으로 발돋움 할 것임
- 공주·부여지역의 백제권은 과거와 미래가 융합된 새롭고 독창적인 문화권을 형성하여 금강르네상스 상징지역의 이미지를 구축할 것임

■ 교통의 중심지역

- 경부·호남고속철도가 통과하여 전국에서 2시간대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 공주~서천고속도로, 당진~대전고속도로의 개통과 충청선철도 건설로 교류와 물류의 거점지로 거듭날 것임

■ 환황해권 서해안시대의 주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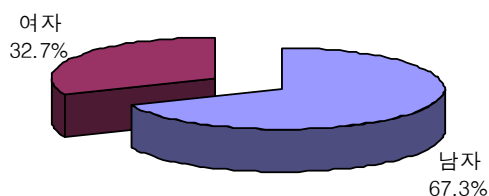
- 서해안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 항만지역으로 중요한 대 중국 권 교류지역으로 성장할 것임
- 아산만 주변지역은 충남~경기상생협약 등을 통하여 환황해권시대 첨단산업지역으로 개발되어 충남은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할 것임

4. 지역주민 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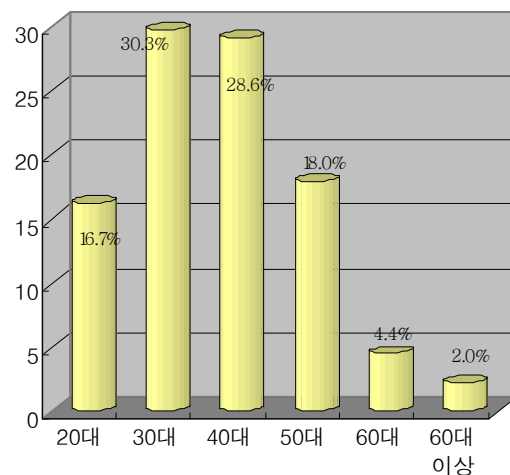
가. 조사 개요

- 본 조사는 충청남도 도민들이 생각하는 충청남도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충청남도가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사기간은 2006년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약 3주간이 소요되었으며, 조사대상은 2006년 1월 1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충남도 16개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임
- 설문조사는 인구비례추출법에 의해 총 1,5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시·군별로 할당하여 조사하였으며, 회수율은 95.2%(1,428부)였음
-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67.3%, 여자 32.7%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 16.7%, 30대 30.3%, 40대 28.6%, 50대 18.0%, 60대 4.4%, 60대 이상이 2.0%임
- 직종별로는 전문직 0.6%, 관리직 9.8%, 반(半)전문·기술직 2.5%, 사무직 46.4%, 판매직 3.0%, 서비스직 3.0%, 생산직 2.4%, 농어민 21.3%, 미취업자가 11.0%이었음

〈그림 1-30〉 응답자 성별 구성



〈그림 1-31〉 응답자 연령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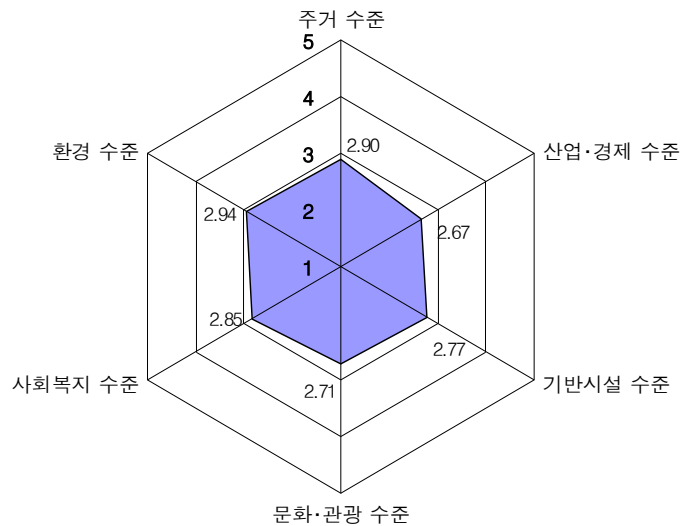
나. 분석결과

1) 지역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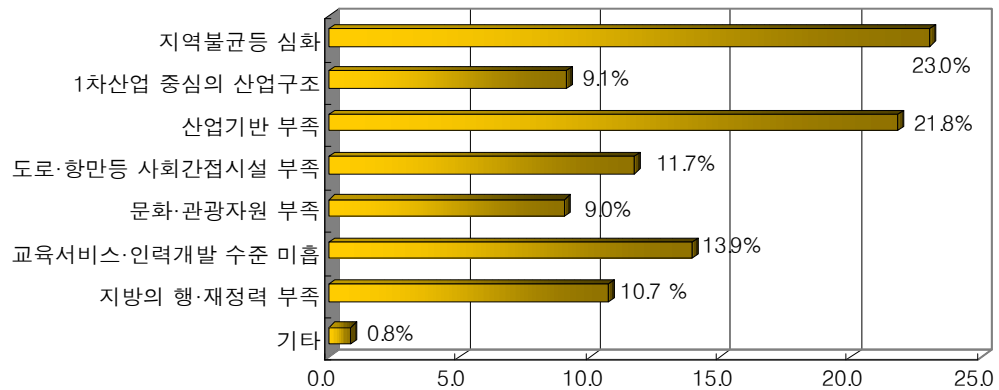
■ 발전수준 및 발전방향

- 5점 척도로 조사한 충남의 종합적인 발전수준은 2.8로서 평균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부문별로는 산업·경제 2.7점, 문화·관광 2.7점, 사회복지 2.9점, 환경부문 2.9점, 주거부문 2.9점으로 여러 부문에 있어서 다른 도에 비해 개발수준이 유사하거나 약간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32〉 충남의 상대적 발전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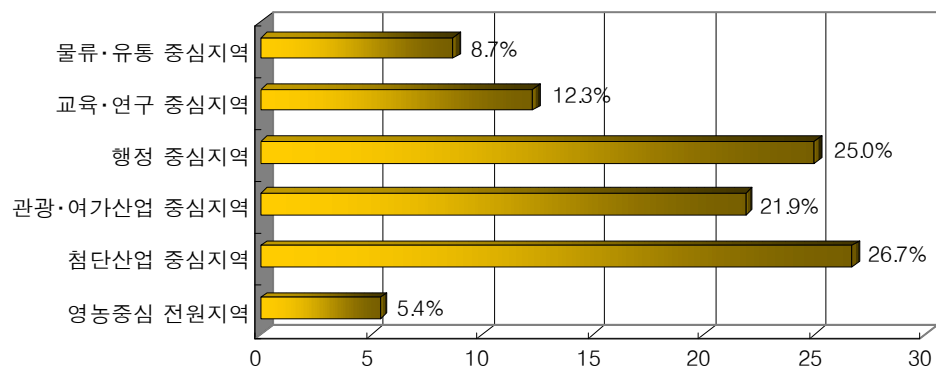
- 충청남도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지역간 불균형 심화 (23.0%), 산업기반 부족 (21.8%), 교육인적자원 수준의 미흡 (13.9%),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부족 (11.7%), 지방의 행·재정력 부족 (10.7%) 순으로 조사됨



■ 지역의 발전방향

- 도민의 대다수는 충청남도가 첨단산업 중심지역 및 국가행정의 중심지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음
 - － 도민들은 2020년 충청남도의 미래의 발전모습으로서 첨단산업 중심지역 (26.7%), 행정중심지역(25.0%), 관광·여가산업 중심지역(21.9%), 교육·연구 중심지역(12.3%) 순으로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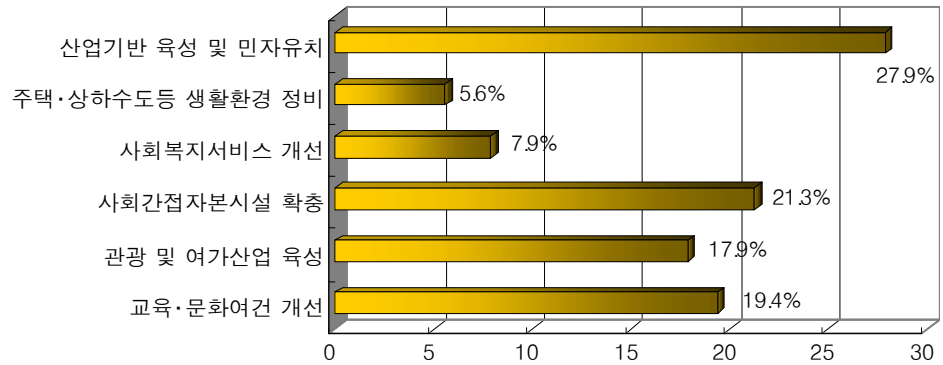
〈그림 1-34〉 2020년의 충남의 미래상



■ 우선적인 지역개발 추진 분야

- 충청남도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기반 육성 및 민자유치(27.9%)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교통·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21.3%)과 교육·문화여건 개선(19.4%)의 순서로 중점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사됨

〈그림 1-35〉 중점투자 및 개선이 필요한 분야



■ 역점 시책사업에 대한 인식

- 충청남도의 역점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77.1%), 경제자유구역 지정(67.0%), 도청이전신도시 건설(62.3%), 금강권광역복합개발 추진(56.3%) 순으로 중요도가 조사됨

〈표 1-22〉 충남의 역점 시책사업별 중요도

(단위: %)

구 분	매우중요	중요	보통	중요치 않음	전혀 중요치 않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34.1	43.0	17.9	3.7	1.3
경제자유구역 지정	25.0	42.0	29.2	2.8	1.0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23.8	38.5	29.0	6.7	2.0
금강권광역복합개발	16.5	39.8	38.5	4.3	0.9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충남지역 발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대부분이 긍정적(79.7%)이었으며, 그 이유는 삶의 질 향상(33.5%), 취업기회 확대(21.1%), 지역이미지 향상(18.1%), 산업체 증가(14.7%)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응답자들은 지역간·계층간 격차 심화(35.4%), 지가상승 및 부동산 투기조장(25.0%) 등의 부작용을 우려

2) 도시개발 및 정주기반 정비

■ 시·군별 발전방향

- 시·군의 발전방향은 개별 시·군의 특성에 맞도록 지역의 기능과 역할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의 경우 첨단산업도시로의 발전을, 공주시는 행정도시와의 연계 발전을, 보령시는 관광·휴양도시로의 발전을, 계룡시는 전원문화의 특징을 살린 환경·생태도시로의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군지역의 경우, 금산군은 환경·생태도시, 연기군과 홍성군은 행정도시, 부여군은 역사·문화·예술도시, 서천군과 청양군, 태안군은 관광·휴양도시, 예산군과 당진군은 첨단산업도시로의 발전방향이 조사됨

〈표 1-23〉 충남 도민이 바라는 시·군별 발전방향

구분	충남 도민이 바라는 발전방향		
	1순위	2순위	3순위
천안시	첨단산업도시(34.3%)	역사·문화·예술도시(18.2%)	교육도시(16.9%)
공주시	행정도시(27.1%)	역사·문화·예술도시(18.8%)	교육도시(15.6%)
보령시	관광·휴양도시(41.3%)	역사·문화·예술도시(15.2%) ¹⁾	교육도시(15.2%) ¹⁾
아산시	첨단산업도시(35.8%)	교육도시(18.7%)	역사·문화·예술도시(17.1%)
서산시	첨단산업도시(33.7%)	관광·휴양도시(19.27%)	교육도시(15.4%)
논산시	첨단산업도시(24.8%)	역사·문화·예술도시(19.3%)	관광·휴양도시(14.7%)
계룡시	환경·생태도시(35.7%)	행정도시(19.6%)	역사·문화·예술도시(16.1%)
금산군	환경·생태도시(24.6%)	관광·휴양도시(19.7%)	교육도시(14.8%)
연기군	행정도시(50.0%)	교육도시(12.8%)	환경·생태도시(11.5%)
부여군	역사·문화·예술도시(30.4%)	관광·휴양도시(29.1%)	첨단산업도시(19.0%)
서천군	관광·휴양도시(28.6%)	첨단산업도시(20.0%) ¹⁾	환경·생태도시(20.0%) ¹⁾
청양군	관광·휴양도시(45.8%)	환경·생태도시(15.3%)	교육도시(11.9%)
홍성군	행정도시(33.3%)	역사·문화·예술도시(19.8%)	첨단산업도시(14.8%)
예산군	첨단산업도시(33.3%)	관광·휴양도시(19.8%)	행정 도시(12.3%) ²⁾ 역사·문화·예술도시(12.3%) ²⁾
태안군	관광·휴양도시(50.8%)	환경·생태도시(16.4%)	역사·문화·예술도시(13.1%)
당진군	첨단산업도시(26.5%)	물류·유통도시(22.9%)	관광·휴양도시(9.6%)

주1: 2순위와 3순위가 같음

2: 3위가 동률로 같음

■ 도청이전신도시의 바람직한 도시상

- 도청이전신도시의 기능에 대해서는 행정도시(56.5%), 교육도시(12.8%), 경제·금융도시(12.0%), 관광·휴양도시(11.5%), 문화도시(10.2%), 전원도시(8.9%) 순으로 응답함

〈표 1-24〉 도청이전신도시의 바람직한 도시상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행정도시	교육도시	경제·금융도시	관광·휴양도시	문화도시	전원도시
(56.5%)	(12.8%)	(12.0%)	(11.5%)	(10.2%)	(8.9%)

■ 지역별 투자 및 개선 요구사업

- 충남에서는 교육·문화·의료시설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조사됨

〈표 1-25〉 지역별 시급한 사업

구분	교육·문화·의료시설 확보	산업단지 조성	공원·여가시설 확보	도로포장 및 확장	주거환경 개선	하천수질 개선 및 정비	자연환경 조성 및 복원	유통물류단지 조성	전체 (%,명)
천안시	21.4	5.0	20.2	13.0	16.0	8.8	11.3	4.3	100(238)
공주시	34.7	26.3	6.3	13.7	4.2	7.4	4.2	3.2	100(95)
보령시	43.5	15.2	2.2	17.4	6.5	6.5	8.7	—	100(46)
아산시	46.8	3.2	16.9	12.1	10.5	8.1	1.6	0.8	100(124)
서산시	40.4	6.7	12.5	17.3	6.7	5.8	5.8	4.8	100(104)
논산시	29.4	17.6	11.8	8.8	10.8	13.7	2.0	5.9	100(102)
계룡시	54.4	8.8	10.5	10.5	3.5	7.0	5.3	—	100(57)
금산군	50.8	11.5	9.8	1.6	13.1	1.7	11.5	—	100(61)
연기군	44.9	2.6	10.3	5.1	12.8	11.5	10.3	2.5	100(78)
부여군	48.1	20.3	2.5	7.6	10.1	8.9	1.3	1.2	100(79)
서천군	31.0	26.8	8.5	8.5	5.6	14.1	4.2	1.3	100(71)
청양군	59.3	15.3	5.1	5.1	6.8	3.4	1.6	3.3	100(59)
홍성군	43.8	16.3	15.0	10.0	6.3	2.5	5.0	1.3	100(80)
예산군	44.4	23.5	2.5	4.9	12.3	6.2	3.7	2.5	100(81)
태안군	46.7	8.3	6.7	18.3	8.3	1.7	8.3	1.7	100(60)
당진군	49.4	5.9	8.2	8.2	3.5	14.1	4.8	5.9	100(85)
전체	39.9	12.2	11.1	10.6	9.5	8.0	5.9	2.8	100(1,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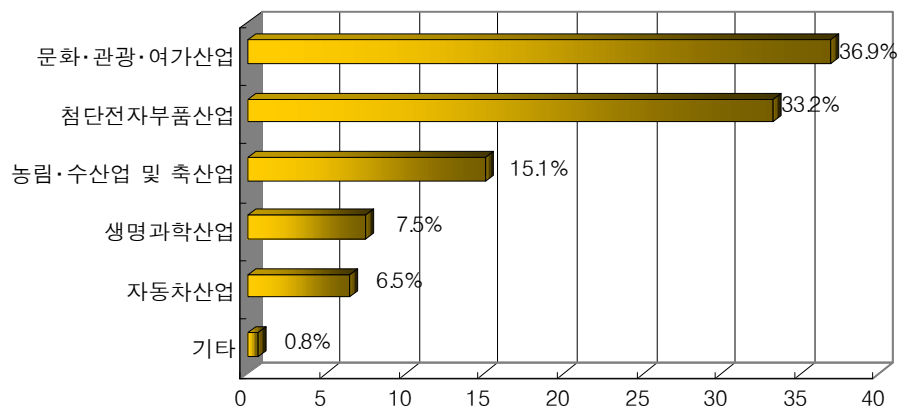
주: ()안의 숫자는 설문 응답자 수임

2) 지역산업

■ 산업 부문

- 충청남도가 추진해야 할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역점사업은 문화·관광·여가산업(36.9%), 첨단 전자부품산업(33.2%)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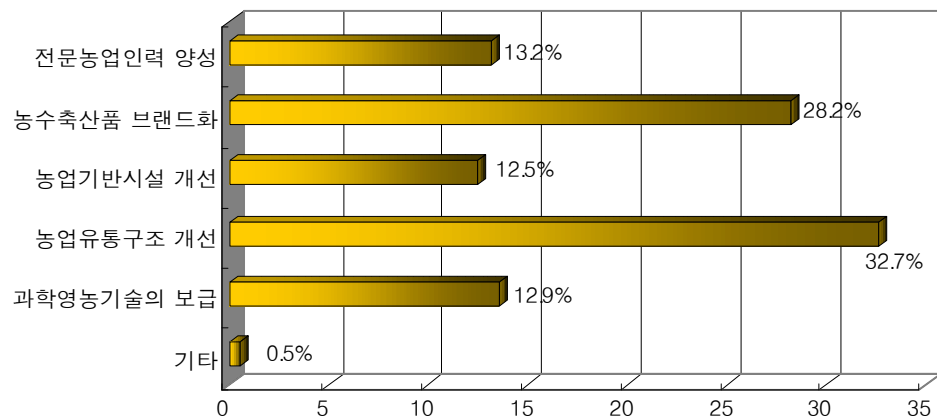
〈그림 1-36〉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역점사업



■ 농업 부문

- 농업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은 농업유통구조 개선(32.7%), 농수축산물 브랜드화(28.2%), 과학영농기술 보급(12.9%), 전문 농업인력 양성(13.2%), 농업기반시설 개선(12.5%) 등의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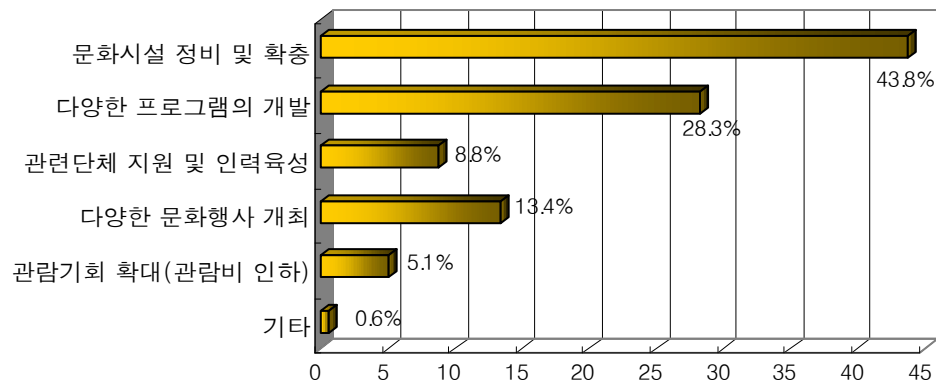
〈그림 1-37〉 농업발전 위한 추진시책



■ 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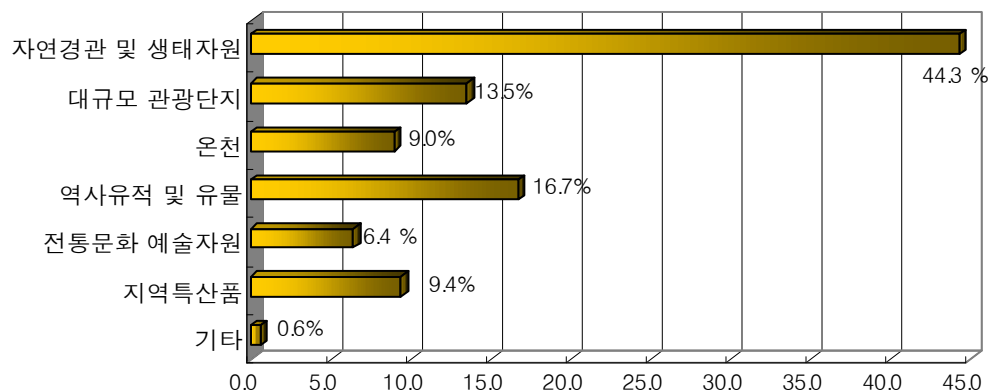
- 충남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는 문화시설 정비·확충(43.8%)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28.3%)을 지적하였음

〈그림 1-3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우선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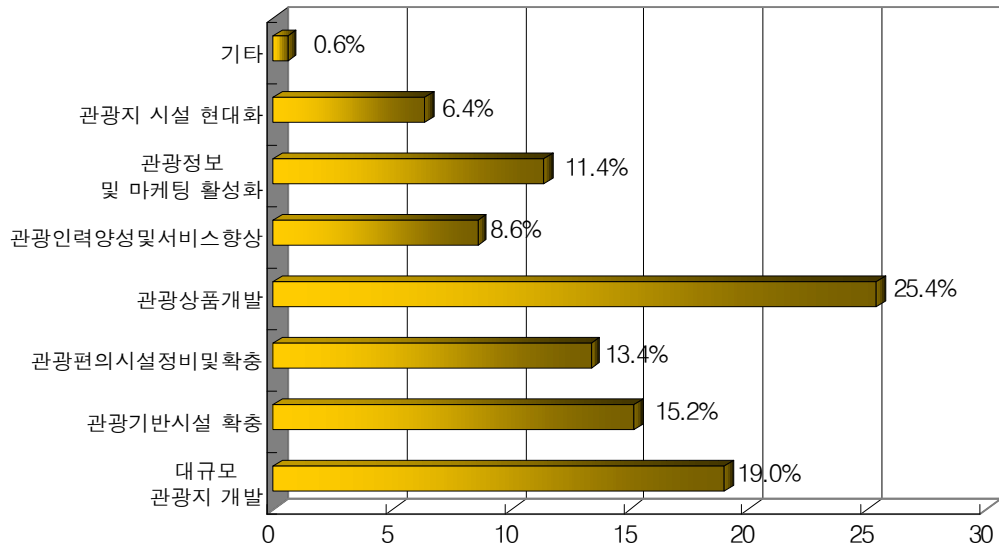
- 충남의 관광자원 중 개발 잠재력이 있는 관광자원으로는 자연경관 및 생태자원(44.3%)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역사유적 및 유물(16.7%)로 조사됨

〈그림 1-39〉 충남의 개발 가능한 관광자원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벤트·관광코스·특산물 등의 관광상품 개발(25.4%), 관광지 개발(19.0%), 관광기반시설 확충(15.2%), 관광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13.4%), 관광정보 및 마케팅 활성화(11.4%)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1-40〉 충남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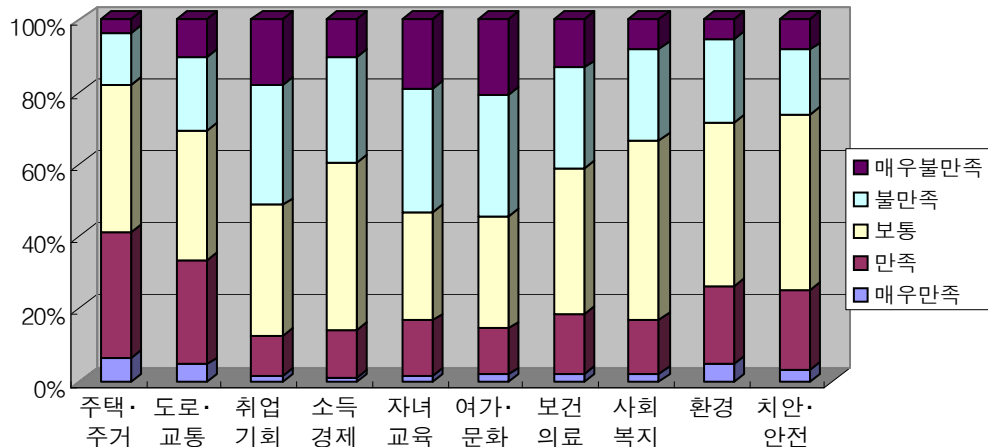


3) 환경·문화 및 복지서비스

■ 생활만족도

- 충청남도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보통(49.5%), 만족(35.8%), 불만족(10.4%), 매우 만족(1.5%), 매우 불만족(2.8%) 순으로 조사됨
- 영역별로는, 주택·주거 여건과 도로·교통 여건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었으나, 여타 영역에서는 불만족이 만족보다 높게 조사되었음. 특히, 여가·문화, 보건의료, 자녀교육, 취업·기회 영역에서의 불만족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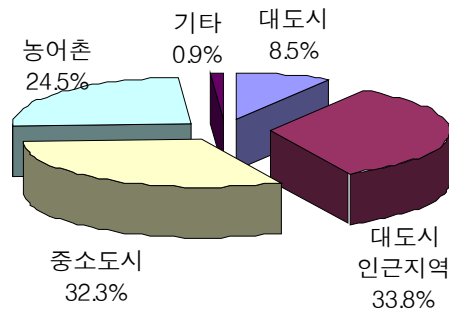
〈그림 1-41〉 충남 도민의 영역별 생활 만족도



■ 삶의 질 개선

- 충남 도민이 2020년 이후 거주하고 싶은 지역은 대도시 인근지역 (33.8%), 중소도시(32.3%), 농어촌(24.5%)로 나타나 환경이 오염되고 복잡한 대도시보다는 편의시설과 복지혜택을 누리면서도 비교적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1-42〉 2020년 이후 희망 거주지역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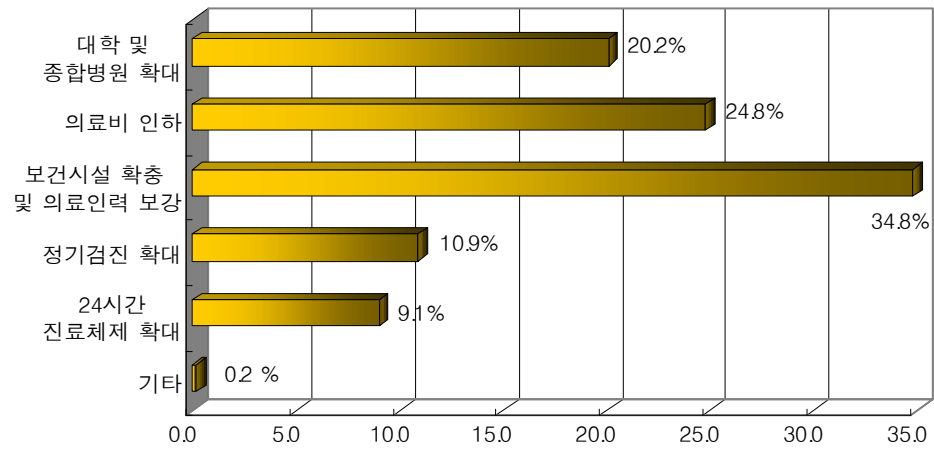


- 희망하는 주거주택 유형으로는 전원주택(52.7%), 단독주택(25.0%), 고층아파트(18.3%), 저층아파트(2.3%), 연립주택(1.3%) 순으로 조사됨

■ 사회복지정책

- 충청남도가 역점 추진해야 할 사회복지정책 대상은 노인복지 부문이라는 의견(45.2%)이 압도적으로 높아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노인복지에 있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저렴한 의료서비스 제공(48.5%), 취업기회 확대(25.6%), 유·무료 양로원 건립(16.8%) 순으로 응답함
- 충남 도민이 바라는 보건의료정책은 보건시설 확충과 의료인력 보강(34.8%), 의료비 인하(24.8%), 대학 및 종합병원 확대 설립(20.2%)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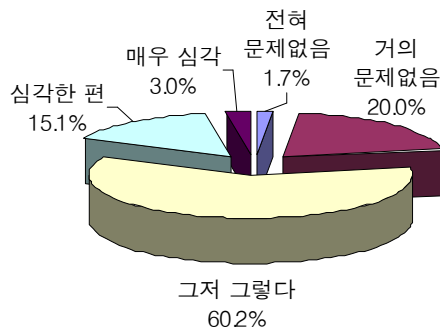
〈그림 1-43〉충남도민이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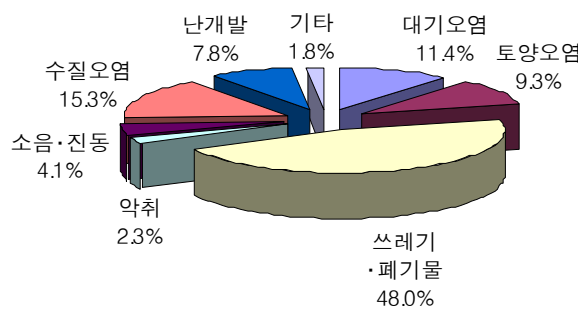
■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

- 충청남도의 환경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그저 그렇다(60.2%), 문제 없다(21.7%), 심각하다(18.1%)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는 쓰레기·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48.0%), 수질오염(15.3%), 대기오염(11.4%), 토양 및 농지오염(9.3%) 순으로 나타남

〈그림 1-44〉충남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



〈그림 1-45〉충남의 심각한 환경오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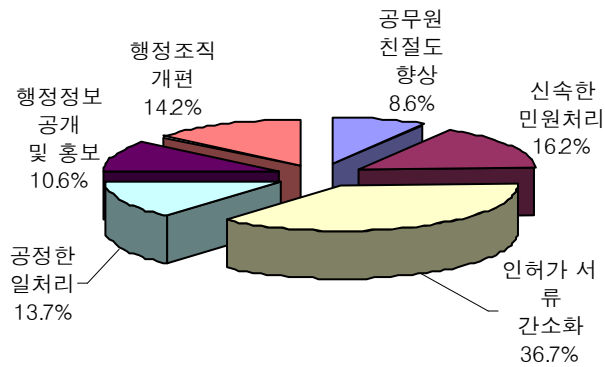
- 주민들의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홍성군, 당진군 6개 시·군은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조사된 반면,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등은 문제가 없다고 조사됨

- 심각한 환경오염의 유형으로는 홍성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는 쓰레기 및 폐기물 환경오염이 지적되었으며, 홍성군에서는 수질오염이 심각하다고 조사됨

■ 지방자치 및 행정

-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인허가 서류 간소화(36.7%), 신속한 민원처리(16.2%), 공정한 행정처리(13.7%)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남

〈그림 1-46〉 행정서비스 개선 요구



5. 충남지역의 발전여건 분석: SWOT 분석 및 계획과제

가. SWOT분석

1) 강 점(Strengths)

■ 국내외적으로 양호한 접근성 및 교통중심지로서의 입지적 유리성

- 충남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계기로 전국으로부터 2시간 교통시간거리의 중심축이 될 것이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개방형 국토축의 서해안축에 입지하여, 환황해경제권시대의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서 각광받을 것임

■ 우수한 경관과 생태자원 보유

- 산업화가 미진한 차령산맥과 금북·금남정맥 주변지역은 아름답고 청정한 산악·휴양자원을 보전하고 있고, 서해안은 국내 최대 생태체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웰빙 생활양식의 확산에 따라 이들 지역에 있어서 경관·생태자원의 다양한 활용이 예상됨

■ 개성적이고 다양한 문화·역사·관광자원 보유

- 백제문화권의 역사문화자원, 서민 중심의 내포문화권 역사문화자원, 천주교·불교 전래지역으로서의 종교·문화자원과 서해안의 관광자원은 주5일근무제 정착에 따른 유·무형의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음

■ 지역의 풍부한 인적 자원

- 충남에는 28개의 대학(교)가 있으며, 특히 천안·아산권에는 15개 대학(교)이 위치하여 전자정보, 자동차부품산업의 혁신클러스터 형성이 용이함

2) 약 점(Weaknesses)

■ 도내 동서간 연계교통체계 미비로 공간통합성 결여

- 지역의 남북간 연계교통체계 형성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중심의 서해안권, 경부고속도로 중심의 북부권, 대전광역권의 기능적 통합은 형성되었으나, 동서간 연계교통망은 미비하여 동서지역간 기능적 연계가 미흡함

■ 경제·발전거점의 편중분포로 지역간 경제력 격차 심화

- 충남의 북부권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집적지로 성장하여 지역경제력이 강화된 반면, 1차 산업 중심의 기타 지역은 1차 산업의 쇠퇴와 상대적 비중 약화로 이들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됨

■ 농·어촌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 약화

- 저출산·고령화로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사회로의 전환이 나타남. 더욱이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농어촌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 미약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 지역내 연구기관이 영세하고 기술개발환경이 취약하여 대규모 연구개발투자비가 소요되는 원천기술 개발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산·학·연 협력네트워크도 미약함

3) 기회요인(Opportunities)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수도기능 이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충남지역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지역이 될 것임. 특히, 충남은 국가중추행정 기능을 담당하면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수도권에 집중된 중추기능의 분산을 유도할 것임

■ 홍성·예산지역 도청이전신도시 건설로 서해안·중부내륙 성장거점 기반 마련

-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은 중부내륙과 서해안권의 발전을 촉진하여, 경부축선상에 집중된 인구·경제를 분산하고, 장기적으로는 환황해경제권시대에 개방형 국토개발을 위한 성장거점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이 예상됨

■ 고속(화)도로 건설로 서해안·내륙지역 접근성 개선

- 당진~대전고속도로, 공주~서천고속도로의 건설과 서천~대전 및 서해안관광산업도로 등 고속화도로의 확·포장으로 충청도내 지역간 접근성이 개선되어,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의 발전이 촉진될 것임

■ 충남~경기상생협약으로 환황해권 생산·교류거점 확보

- 충남·경기상생협약으로 아산만권 경제자유지역, 첨단산업단지 및 첨단산업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충남의 서북부지역은 환황해경제권 시대 첨단산업의 국제적 생산·교류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4) 위협요인(Threats)

■ 수도권 규제완화와 주요 기능의 유출 가능성

-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과 각종 기능의 충남 북부지역으로의 추가 이전이 제한되어, 이 지역의 발전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음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 저출산·고령화는 1차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인 농촌지역의 공동화와 고령화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2차적으로는 경제활동의 인구 감소와 사회적 복지 지출비용을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력의 저하가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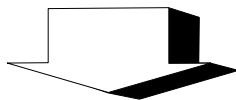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생태 파괴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아산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난개발로 인근 환경·생태자원의 파괴가 우려됨

■ FTA 확대에 따른 지역 1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

- 한·미 FTA가 체결되어 농·축수산업 등 전통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임. 세계화의 흐름 속에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1차 산업 및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노력이 필요함

강 점 (Strengths)	약 점 (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교류중심지로서의 입지잠재력 ▪ 우수한 경관과 생태자원 보유 ▪ 다양한 문화·역사·관광자원 보유 ▪ 지역의 풍부한 인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동서지역간 공간 통합성 미약 ▪ 지역간 경제력 격차 심화 ▪ 농·어촌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 약화 ▪ 미약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기 회 (Opportunities)	위 험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중심도시건설과 수도권기능 이전 ▪ 홍성·예산지역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 서해안·내륙지역의 접근성 개선 ▪ 환황해권 생산·교류거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규제완화 가능성 상존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생태 파괴 ▪ FTA확대로 지역 1차산업의 경쟁력 약화



균형, 경쟁력, 복지, 환경을 핵심주제로 설정하여
지역균형발전, 역동적인 경제,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성 확보에 역점

나. 계획과제

1)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균형발전 추구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와 주변도시간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 낙후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SOC 확충방안 마련
-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농촌의 교류활성화 촉진

2) 무한경쟁시대 지역의 경쟁력 확보

- 환황해권 첨단 생산·교류거점 구축
- 지식기반시대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체제 확립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농·축·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시책 마련
- 지역연고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별 특화된 발전기반을 구축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반 마련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시책 및 아동복지 대책 강구
-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 고용·학습복지 등 생산적 복지 방안 실현

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 산·강·바다를 잇는 통합적 생태네트워크 구축
- ‘푸른 충남’ 실현을 위한 수질, 대기질, 폐기물 관리방안 마련
-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어메니티 확충

제3장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1. 계획의 기본이념

2.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3. 주요 계획지표의 전망

4. 공간구조의 설정

1. 계획의 기본이념

■ 개방·미래지향성(globalization and future-oriented)

- 21세기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독자적 경쟁력을 지닌 지역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의 지구화, 문화와 전통의 국제화 등 개방성을 추구함

■ 창조·실천성(creativity and practice)

- 충남지역이 새롭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능동적이고 실천력 있게 추진함

■ 혁신·경쟁성(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 지식기반시대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통합적인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s)를 구축하고,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및 지역내 기업가정신의 함양 등 지역의 혁신성을 강화함

■ 쾌적·지속가능성(amenity and sustainability)

- 지역 고유의 생태·경관자원 보호 및 환경의 쾌적성을 증진하고,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함

■ 문화·정주성(culture and livability)

- 지역고유의 전통과 문화의 고양, 개발의 질적 탁월성 증진, 교육·의료·사회서비스 등 종합적인 주거복지환경 조성 등 살 맛 나는 지역정주기반을 구축함

■ 참여·협력성(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 지역발전 추진에 있어서 지역의 주민, 대학, 기업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자발적, 민주적 참여를 증진하고, 지역간 경쟁과 협력, 제휴를 통한 지역중심 발전체계를 구축함

2.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가. 계획의 기초

기 조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 기초설정의 배경

- 최근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는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새롭고 적극적인 충남의 역할수행을 요구하고 있음. 특히, 충남이 창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한 추진력과 실천력을 갖추어야 함
- 이와 같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본 계획의 기초로 설정

■ 한국의 중심

- “한국의 중심”은 충남이 국가중추행정기관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국토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 지리적 장점의 극대화과 권역별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환황해권 경제교류 중심지로서의 약동을 추구하며
- 지식·문화의 세기에 충청남도도 새로운 지방문화 창조의 중심지로서 우리나라 사회·문화의 고품격화와 선진화를 견인

■ 강한 충남

- “강한 충남”은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충남이 국가와 지역발전정책 수립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강한 추진력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함
- 이를 위해 지역·계층간 균형적 성장을 바탕으로 주민의 참여·협력에 의한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이루도록 함

나. 계획의 목표

■ 균형 있는 지역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와 혜택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
- 권역별 전략산업과 지연산업을 육성하여 모든 지역이 자생력 있고 특화된 발전기반을 구축

■ 함께 하는 복지사회

- 고령화와 양극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소외를 해소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여 사회 공동이익이 창출되는 성숙한 사회 건설
-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여 양성 평등사회를 구현하고, 빈곤의 구조적 악순환이 타파되는 기회균등사회를 실현

■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 고품질 농·수산물로 개방화시대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촌 어메니티를 증진하여 ‘돌아오는 농촌’을 건설
- 농·어촌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정보화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을 건설

■ 역동적인 산업경제

- 혁신주도형 경제발전기반을 확립하고, 유·무형의 고부가가치 원천을 개발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충만한 경쟁력 있는 산업경제를 육성
- 지역의 산업입지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외자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관광자원을 산업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환경

-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하여 인간과 상생하는 풍요롭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창출
- 모든 도민이 안전과 편안함을 누리도록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건설

다. 추진전략

추진전략	주요과제
살기 좋은 도시·농촌 정주기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이고 인간적인 도시개발 및 정비 • 활력 있는 농산어촌 육성 및 특수지역 활성화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서 농·림·축·수산업 육성 • 제조업의 지식기반화와 신성장산업의 혁신클러스터화 • 서비스업의 지식기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특색 있는 지역문화와 매력 있는 관광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있는 지역문화권 형성과 문화기반의 조성 • 안정된 관광기반 구축과 특화 관광자원 개발
신속하고 편리한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위 교류·교역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 • 생산·물류 신중심권 구현을 위한 물류·유통기반 강화 • 디지털복지사회를 위한 유비쿼터스 충남 구현
더불어 누리는 생활·복지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조성 •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의료 서비스체계 구축 •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학습사회 실현
지속가능한 자원의 개발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적 토지이용과 관리 • 개성과 매력의 지역경관 형성과 관리 •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효율적 수요관리 •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
깨끗하고 안전한 푸른충남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생태망 구축과 자연환경 보전·관리 • 대기질 관리와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구축 • 맑고 깨끗한 물환경 관리 • 폐기물의 과학적 관리와 재활용기반 구축 • 재해에 강한 안전충남 조성

3. 주요 계획지표의 전망³⁾

가. 인구지표 전망

■ 인구지표 설정의 전제

- 계획지표는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의 표현보다는 실천가능성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인 환경과 국가정책의 추진 등 충남지역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변화전망을 전제로 하여 설정하였음
- 특히, 인구지표의 설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국가발전 및 성장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이나 시책의 계획적인 추진을 전제하였음

■ 인구지표 전망

- 인구지표가 미래상으로서의 당위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였음. 즉, 인구지표 설정은 상한치와 하한치를 제시함으로써 미래변화와 불확실성을 감안토록 하였음
 - 상한치는 기존 국가정책과 사업추진이 모두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하였고, 하한치는 기존정책의 추진이 부진한 경우로서 현재의 인구증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하였음

■ 안정성장 시나리오: 1,982천명(2005년 현황) → 2,500천명(2020년)

- 안정성장치 시나리오에 의한 계획인구는 자연증가분과 사회적 증가분의 구분에 의한 추정방법을 사용하였음
 - 자연증가분의 추정은 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을 사용하되, 인구의 전·출입을 가감하지 않고 인구의 출생률 및 사망률만 고려하여 순수한 자연증가분만 계상
 - 사회적 증가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신도시 개발이나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유입인구를 적용

3) 계획지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들을 기준으로 하고, 충남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설정하였음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자연증가분은 2005년 현재 1,982천명에서 2020년에 2,101천명으로 전망되며, 사회적 증가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아산만권신도시, 태안기업도시, 국가산업단지 등을 고려하여 약 400천명으로 추계할 수 있음⁴⁾

■ 최저성장 시나리오: 1,903천명(2005년 예측치) → 2,090천명(2020년)

- 최저성장치는 과거 인구변화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미래 인구를 추정한 값이며, 다양한 모형으로 추정이 가능하나 2005년 4월 통계청이 시도별로 출생, 사망, 인구이동을 반영하여 작성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적용하였음
- 단, 시도별 장래추계인구는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등의 효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지 않은 수치임

〈표 1-26〉 충남인구 인구조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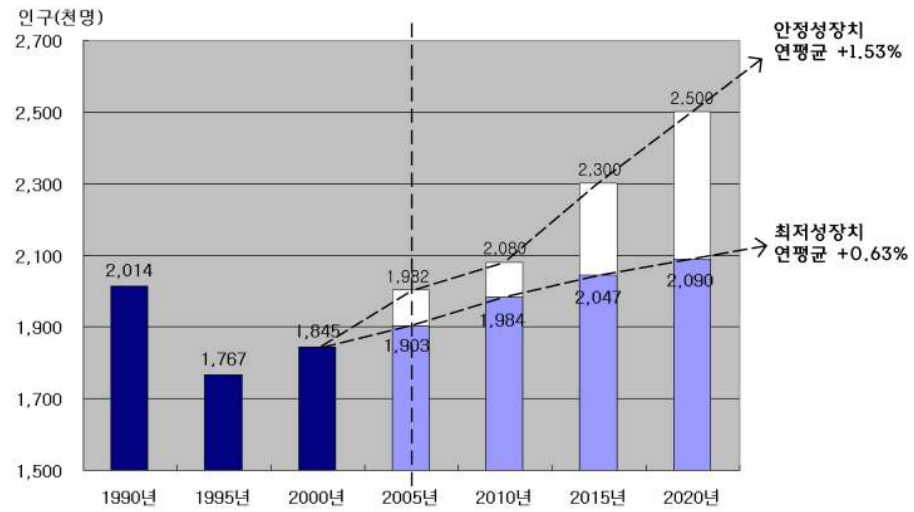
(단위: 천명, %)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05~'10	'10~'15	'15~'20
전국인구*			48,294	49,220	49,803	49,956	0.38	0.24	0.06
충남	목표인구	최대치	1,982 (4.1)	2,080 (4.2)	2,300 (4.6)	2,500 (5.0)	0.97	2.03	1.68
		최저치*	1,903 (3.9)	1,984 (4.0)	2,047 (4.1)	2,090 (4.2)	0.84	0.63	0.42

주: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결과(2005.4)」에 제시된 수치이고, 주민등록상 인구는 2005년말 현재 전국 49,268천명, 충남 1,982천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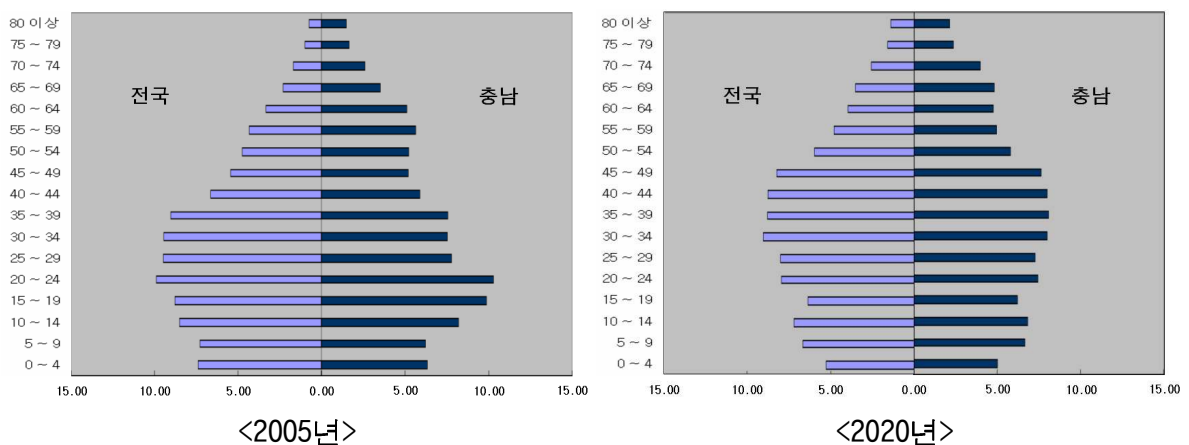
4) 사회적 증가분은 2020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180천명(계획인구 300천명, 외부유입률 60%), 도청이전신도시 35천명(계획인구 100천명, 외부유입률 35%), 아산만권신도시 59천명(계획인구 168천명, 외부유입률 35%), 태안기업도시 5.3천명(계획인구 15천명, 외부유입률 35%), 국가산업단지(2개소)유발 외부유입인구 117천명을 고려하여 약 40만명으로 추계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인구추정결과는 자료집에 제시함

〈그림 1-47〉 충남인구 인구지표 전망



- 충남의 인구구조는 14세 이하의 유년인구의 구성비가 2005년 18.5%에서 2020년 16.3%로 낮아지는 반면에,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비율은 2005년 13.3%에서 2020년에는 17.8%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5~64세의 경제활동가능인구의 구성비는 2005년 68.2%에서 2020년에는 65.9%로 감소

〈그림 1-48〉 전국대비 충남의 연령별 인구구조



나. 도시 및 농촌의 인구지표 전망

- 충청남도의 총인구는 1995~2005년 기간동안 연평균 0.66%씩 증가해 왔으며, 도시인구는 연평균 2.13%가 증가하여 왔음. 농촌인구는 연평균 1.20%로 감소하였음. 이와 같은 도시인구의 증가와 농촌인구의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충남지역의 도시인구는 2005년 전체인구의 60.4%인 1,198천명에서 2020년 총인구의 87.6%인 2,189천명으로 증가되는 반면, 농촌인구는 반대로 784천명에서 311천명으로 감소가 전망됨
 - 과거 10년 동안의 도시인구 증가추이를 반영하여 장래의 도시인구를 전망해본 결과, 2005년 현재 1,198천명에서 2020년에는 2,189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화율은 2005년 60.4%에서 2020년에는 87.6%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이러한 도시인구 추정방법은 향후 사회적인 인구증가 요인(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기업도시, 아산만권신도시,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인한 외부유입인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사회적 인구증가 요인에 의한 외부 유입인구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7:3 정도로 배분되어 유입된다는 가정 하에 도시인구를 예측하였음

〈표 1-27〉 충남의 도시 및 농촌인구 지표전망

(단위: 천명, %)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95~'05	'05~'20
총인구	1,855	1,930	1,982	2,080	2,500	0.66	1.56
도시인구	970	1,085	1,198	1,396	2,189	2.13	4.10
농촌인구	885	845	784	684	311	▽1.20	▽5.98
충남도시화율	52.3	56.2	60.4	67.1	87.6	—	—
전국도시화율	86.4	87.8	89.8	—	95.0*	—	—

주: *는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상에 제시된 수치임.
 자료: 충청남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 해당년도.

다. 지역경제 전망

■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

- 충청남도의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1989년 14조3,930억원에서 2004년 현재 38조1,386억원으로, 연평균 6.7% 성장하였음
- 충청남도의 지역내총생산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4.8%에서 2004년 현재 5.4%로 증가하였으며, 충청남도의 연평균 지역경제 성장률은 6.7%로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단, 1993년부터 1998년 기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충청남도의 경우 4.5%, 그리고 전국의 경우 3.3%로 낮게 나타난 것은 1997~1998년 외환위기에 직면하였던 시기이기 때문임

〈표 1-28〉 지역내총생산(GRDP) 변화(2000년 불변가격)

(단위: 십억원, %)

구분	1989년	1993년		1998년		2004년		연평균 성장률 (89~04)
		GRDP	연평균 성장률 (89~93)	GRDP	연평균 성장률 (93~98)	GRDP	연평균 성장률 (98~04)	
충청남도 (구성비)	14,393 (4.7)	18,861 (4.6)	7.0	23,504 (4.8)	4.5	38,139 (5.4)	8.4	6.7
전국 (구성비)	304,679 (100.0)	413,371 (100.0)	7.9	486,246 (100.0)	3.3	702,806 (100.0)	6.3	5.7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 1인당 GRDP 추이

- 앞에서 제시된 지역내총생산과 인구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지역의 1인당 GRDP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충청남도의 1인당 GRDP는 1989년 7,133천원에서 2004년 현재 19,524천원으로 연평균 6.9%씩 성장하였음
 - 이와 같은 충청남도의 1인당 GRDP 성장은 같은 기간 전국 평균 1인당 GRDP의 연평균 성장률 4.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충청남도의 1인당 GRDP와 전국평균 1인당 GRDP 성장률의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국 평균 1인당 GRDP에 대한 충청남도 1인당 GRDP의 비'는 1993년 1.080, 그리고 1998년 1.207, 2004년 1.35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표 I-29〉 1인당 지역내총생산 변화추이(2000년 불변가격)

(단위: 천원, %)

구분	1989년	1993년		1998년		2004년		연평균 성장률 (89~04)
		GRDP	연평균 성장률 (89~93)	GRDP	연평균 성장률 (93~98)	GRDP	연평균 성장률 (98~04)	
충청남도 (A)	7,133	10,105	9.1	12,675	4.6	19,524	7.5	6.9
전국 (B)	7,178	9,353	6.8	10,505	2.4	14,466	5.5	4.8
A/B	0.994	1.080	-	1.207	-	1.350	-	-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 지역내총생산 전망

- 신고전적 지역성장(Neoclassical Regional Economic Growth)⁵⁾ 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변화는 아래 표와 같음
- 충청남도의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2004년 38조1,386억원에서 목표년도인 2020년에는 98조9,718억원으로 연평균 6.1%씩 성장이 예측됨
- 반면, 충남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지역내총생산 및 전국의 국내총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같은 기간 각각 5.4%로 충남의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됨

〈표 I-30〉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변화 예측(2000년 불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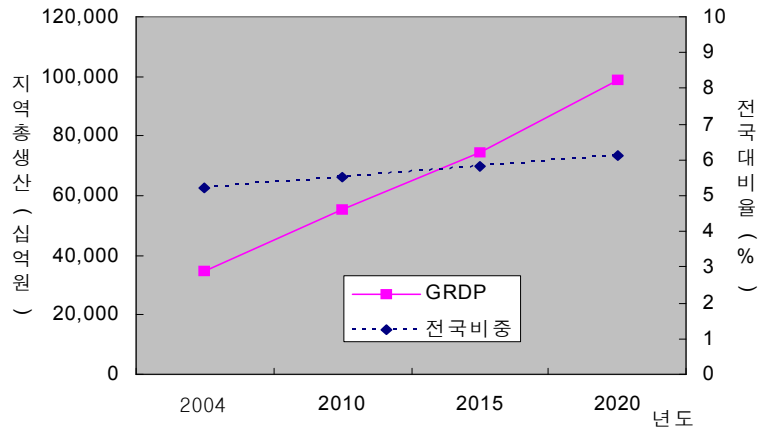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구분		2004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 성장률 (04~20)
		GRDP	비율	GRDP	비율	GRDP	비율	GRDP	비율	
GRDP	충청 남도	38,138.6	5.4	55,166.4	5.5	74,400.3	5.8	98,971.8	6.1	6.1
	기타 지역	664,667.3	94.6	946,353.0	94.5	1,216,929.9	94.2	1,532,837.3	93.9	5.4
	전국	702,805.9	100.0	1,001,519.4	100.0	1,291,330.3	100.0	1,631,809.1	100.0	5.4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5) 신고전적 지역성장 이론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지역내 생산성과 자본 및 노동 등 지역내 생산요소의 성장과 축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는 주로 지역간 노동 등의 생산요소 이동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 및 인구 규모가 예측되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 일인당 소득수준의 변화가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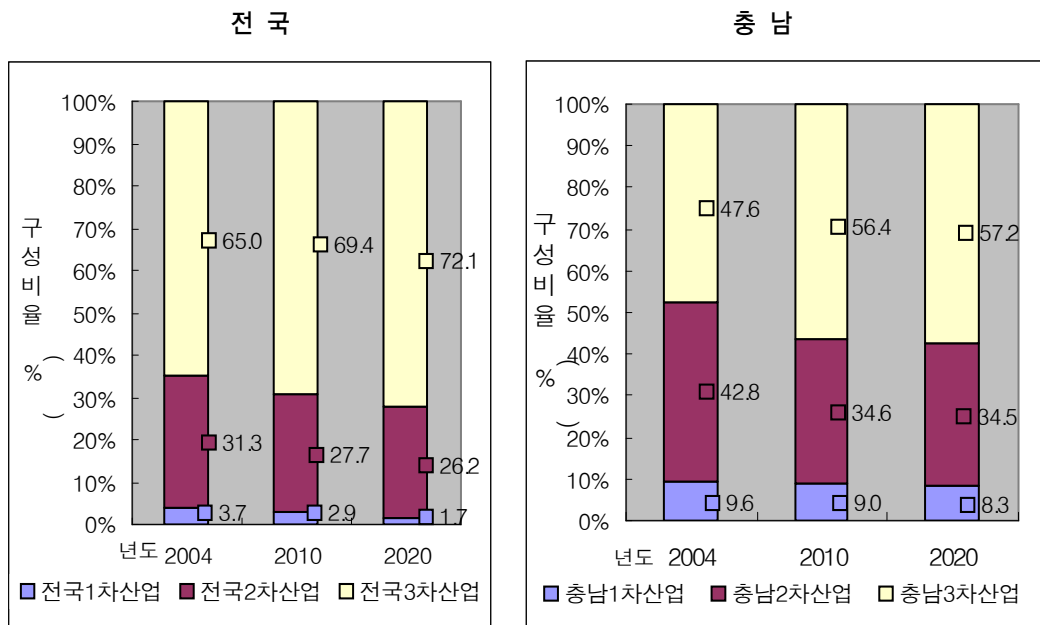
〈그림 1-49〉 충청남도의 지역내총생산액 및 전국비중 전망



■ 지역산업구조

- 생산액 기준 충청남도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은 2010년에는 9.0%, 2020년에는 8.3%로 감소하고, 2차산업 역시 감소하여 2020년에는 34.5%인 반면, 3차산업은 2010년에 56.4%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57.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50〉 산업구조 전망



주: 전국 산업구조 전망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5~2020)」에서 제시한 지표를 활용

다. 주요 사회지표 전망

■ 도시화

- 2020년까지 2,500천명으로 증가한 충남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흡수됨에 따라 도시인구는 2,189천명이고 도시화율은 87.6%에 달할 것이나, 전국의 도시화율 보다는 다소 낮을 것임

■ 사회간접시설

- 자동차 보유대수는 연평균 3.6%씩 증가하여 2005년의 635.9천대에서 2020년에는 1,078천대로 증가할 것임
- 고속도로와 국도는 2020년까지 꾸준히 확충되어 2005년 도로연장의 각각 2.3배와 1.3배로 증가할 것이고, 철도 연장 역시 2.7배로 증가할 것이며, 항만 시설능력은 1.8배로 확충되어 국제적 교역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

■ 주택

- 2020년까지 주택보급률은 103.3%로 제고되고,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375호 이상으로 확보될 것임

■ 사회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기준과 국제화, 정보화, 문화화 추세를 반영하여 아동인구 및 사회복지 수요증대 등을 고려하여 20개소로 계획함
 - 아동복지시설은 1995년 이래 거의 변동이 없었고 향후에도 시설수의 급격한 증가보다는 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이 예상됨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기준으로 생활수준 향상과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른 노인복지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계획지표를 58개소로 설정함
-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향후 장애인 증가 추이, 사회복지 수준,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총 22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함

■ 보건·의료

- 목표연도에는 병상률(인구 10만인당 병상수) 640개소, 의사율(인구 10만인당 의사수) 288인으로 설정하여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확충계획을 수립

■ 생활환경

- 상수도보급률은 충청남도 계획인구 대비 급수인구를 고려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전망하되, 장래인구와 정부 및 충청남도의 정책의지를 고려하여 2020년의 상수도 보급률 목표를 90%로 계획함
- 충남도 하수도보급률은 연도별 충청남도 계획인구 대비 하수처리인구를 고려하고, 광역자치단체의 하수처리인구율을 비교하여 목표연도에는 하수처리인구율 85%로 계획함

〈표 I -31〉 2020년의 주요 사회지표 전망

구 분		단 위	충 남			전 국
			2005년	2010년	2020년	2020년
인 구	총 인 구	천명	1,982	2,080	2,500	49,956 ²⁾
	노령화율	%	13.3 ¹⁾	15.2	17.8	15.7 ²⁾
도 시	도시인구	천명	1,198	1,396	2,189	47,458
	도시화율	%	60.4	67.1	87.6	95.0
지 역 경 제	지역총생산 (2000년 불변가격 기준)	십억원	38,139 ³⁾	55,166	98,972	1,631,809
	산업구조(1차:2차:3차)	%	9.6:42.8:47.6 ³⁾	9.0:34.6:56.4	8.3:34.5:57.2	1.7:26.2:72.1
	1인당 GRDP	천원	19,524 ³⁾	26,522	39,588	32,665
사 회 간 접 시 설	자동차 대수		천대	635.9	824.0	1,078.0
	도로	고속도로 ⁴⁾	km	304	459	721
		일반국도	km	1,257	1,375	1,630
	철도	연장 ⁵⁾	km	268	268	717
	항만	시설능력	백만톤/년	130	180	230
주 택	주택보급률(일반가구 기준)	%	96.7	98.7	103.3	—
	인구 1,000명당 주택수	호	338	351	375	370
사 회 복 지 시 설 ⁶⁾	아동복지시설	개소	16 ³⁾	17	20	328
	노인복지시설	개소	29 ³⁾	37	58	443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13 ³⁾	18	22	308
보 건 의 료	(10만인당) 의사수	인	164 ³⁾	200	288	326
	(10만인당) 병상수	개소	608 ³⁾	618	640	870
생 활 환 경	상수도보급률	%	63.3	89	90	97 ⁷⁾
	하수처리인구율 ⁸⁾	%	53.9	80	85	90
	폐기물발생량 ⁹⁾	kg/인·일	0.90	0.92	0.95	1.00

주1: 주민등록상 인구(외국인 제외)기준 자료이며, 이 수치는 2006년 5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충남의 노령화율 14.3%(2005년 11월 현재)와는 차이가 있음

2: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2005. 4)」에 제시된 수치

3: 2004년 지표

4: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외

5: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외, 금강관광경전철 포함

6: 사회복지시설 중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부랑인시설은 제외

7: 농어촌지역은 85% 수준으로 향상

8: 하수처리인구÷총인구×100

9: 2004년 기준 폐기물 발생량은 0.88(kg/인·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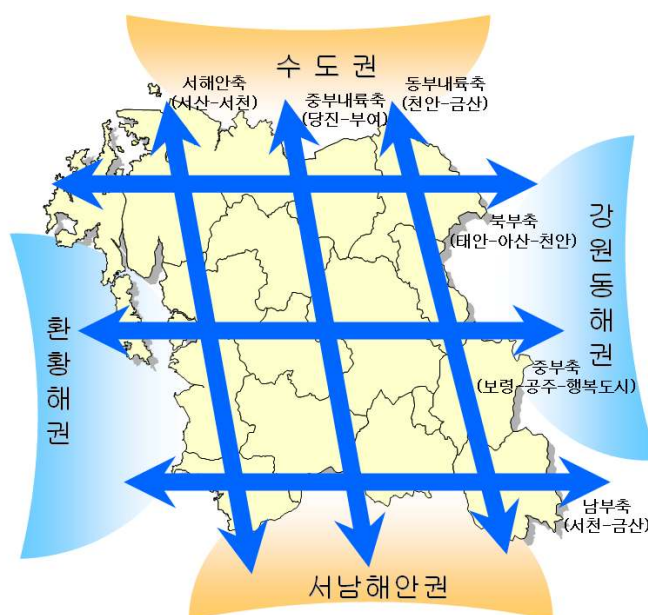
4. 공간구조의 설정

가. 국내외 교류협력을 위한 개방형 지역발전축 구축

■ 발전축의 설정

- 지역발전축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외적 차원의 개방형 국토축과 대내적 차원의 다핵연계형 지역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00)」의 “田”자형 개발축을 수용하여 설정
- 충남지역 외부로부터의 발전 파급효과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권역별 특성과 자원 잠재력 활용을 극대화하며,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전축을 설정
 - 대외적으로는 중국, 유럽대륙, 동남아시아와 연계될 수 있는 교류축 구상
 - 대내적으로는 수도권 및 서남부 해안권과의 연결축 구축으로 지역간 연계·제휴를 도모
- 충청남도 내부적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거점간 연계교통·정보망을 구축하고 발전축별 특화기능을 부여

〈그림 1-51〉 충청남도의 발전축



■ 발전축별 개발방향

- 동서2축과 남북2축을 설정하여 개방형 통합국토축(역 π 형)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주변 광역시·도와의 연계성 제고 및 도내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 \perp ” 형의 2축을 추가
- 내륙의 성장거점권과 연안의 항만·임해산업지대 및 중추행정거점(행정 중심복합도시-도청이전신도시)간 연계성 제고를 위해 당진-대전간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남동~북서1축, 서천-공주간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남서~북동1축의 “>” 형 보조발전축을 설정
- 발전축별로 특화기능에 따라 지역별 전략산업 및 지연산업을 육성
 - 북부축은 첨단산업복합지대로, 중부축은 문화·관광·물류지대로, 남부축은 친환경·바이오산업지대로, 서해안축은 해양관광·국제교역지대로, 중부내륙축은 역사문화·첨단농축산업지대로, 동부내륙축은 중추행정·R&D중심지대로 육성

〈표 1-32〉 발전축별 연계지역과 개발방향

구 분	축별 연계지역	개 발 방 향
북 부 축	태안-천안 (태안-서산-당진-아산-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륙 및 임해형 첨단신산업 복합지대 • 국제교류 및 서해안 개발의 교두보
중 부 축	행복도시·연기-보령 (행복도시·연기-공주-청양-보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안과 중부내륙 연계 문화·관광·물류지대 • 해양과 내륙의 물류·산업·행정 연계
남 부 축	서천-금산 (서천-부여-논산-금산-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산업·바이오산업지대 • 임해산업·해양물류 거점 및 농산업지대와 대덕 R&D 특구 연계
서해안축	서산-서천 (서산-홍성-보령-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역·교류 거점 및 해양관광지대 • 연안개발·관리 및 산업구조 고도화지역
중부내륙축	당진-부여 (당진-예산-청양-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관광, 농산업 중심지대 • 첨단농축산업 연구생산 및 그린투어리즘지대
동부내륙축	천안-금산 (천안-행복도시-대전-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추행정, 복합적 첨단산업, 내륙교통·물류지대 • 중부내륙의 행정·산업·R&D·물류·교통중심축

나. 상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경영권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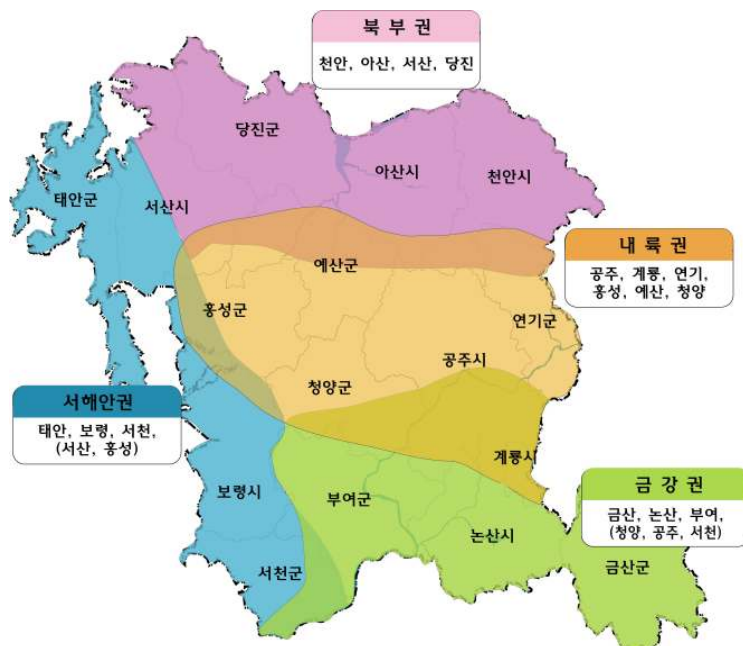
1) 개발경영권의 설정

- 지리적 여건과 산업·환경·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간 연계개발에 의한 지역개발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4대 개발경영권을 설정
- 본 수정계획에서의 개발경영권은 기존 개발경영권의 설정·운영 원칙을 수용하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시·군간 광역적 연계체계의 재편 필요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백제권”을 “내륙권 (중앙과 지방의 중추행정도시 연계권)”으로 조정
- 권역별 기능특화 및 광역적 연계·협력 개발을 통하여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광범위하게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전략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권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개발을 추진

〈표 I -33〉 4대 개발경영권 설정

권역별	대상지역
북부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서해안권	태안, 보령, 서천, (서산, 홍성)
내륙권	공주, 계룡, 연기, 홍성, 예산, 청양
금강권	금산, 논산, 부여, (청양, 공주, 서천)

〈그림 I -52〉 4대 개발경영권의 구분



2) 권역별 발전방향

■ 북부권 : 환황해경제권의 전진기지, 충청권의 신성장 거점지대

- 국내외적 교류·교역의 거점으로서 항만·철도망·도로망의 입체적 구축과 물류·유통 거점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산업과 연계
- 내륙지역은 정보·기술집약적 첨단산업, 연안지역은 임해산업을 중심으로 배치하되, 산업단지간·지역간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수도권과의 산업을 효과적으로 분산 수용
 -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하여 환황해권시대 성장을 견인하는 국제적 성장지역으로 성장 유도
 - － 아산만권 주변으로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정밀화학, 바이오, 철강 등 전략산업의 생산 및 R&D 기능 중심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 도시간 및 도시와 산업단지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복합기능 신도시 건설, 연담도시권의 성장관리 추진

■ 서해안권 : 해양산업·신산업(융합)벨트, 해양휴양·관광의 메카

- 거점항만 및 항공물류기지 확충으로 국제적 교역·교류의 거점으로 특화 육성
- 항만 배후지 및 서해안고속도로 IC 연결부를 중심으로 신산업집적지·물류유통단지 등을 조성하여 무역항 및 경제자유구역과 연계
- 우리나라 서해안 해양관광벨트의 중핵기능을 담당하고, 통합적 연안환경 관리, 풍부한 어족자원 육성, 미래형 해양산업의 거점지대로 개발
 - －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국제적 관광지 수준의 종합레저·스포츠시설을 갖춘 가족휴양지로 개발하여 서해안 관광·레저활동 중심지역으로 육성

■ 내륙권 : 국가·지방 중추행정 연계축, 지역균형발전 촉진지대

- 충남의 중서부지역에 인구 15만의 다기능 도청이전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거점을 형성하여 주변지역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충남도내 지역간 지역균형발전을 촉진
- 도청이전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긴밀히 연계하면서 관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국가지방 중추행정 연계축을 구축
-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을 연계하여 역사문화·녹색관광 벨트 구축

■ 금 강 권 : 금강 역사·문화·생태관광벨트, 생명산업과 전원도시화지대

- 금강의 수자원, 역사·문화자원, 경관·환경자원, 토지자원, 다양한 농촌 어메니티자원 등을 활용하여 금강권광역복합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충남 남부지역의 발전을 견인
 -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 개발수요를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금강권역을 특성화·브랜드화
 - 자연생태환경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명소의 발굴·육성 및 테마형 광역관광벨트 구축
- 중부권의 물류·유통 거점 육성, 대덕R&D특구와 연계한 첨단생명산업 및 정보산업 육성, 근교·관광농업 활성화와 다양한 형태의 도시근교형 전원 주거지 개발, 수자원·관광개발 및 도시근교형 산림·수변생태공원 조성

3) 권역별 발전촉진을 위한 “4 + 3” 프로젝트 추진

4대 거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문화권 개발 • 내포문화권 개발 • 서해안 관광산업벨트 조성 • 금강권 광역복합개발
3대 핵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중심복합도시 연계 발전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및 주변지역 연계 발전 • 서북부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 백제문화권 개발

- 백제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 역사·문화 관광·휴양도시로 건설
- 관광육구 다변화와 지적 육구 증가에 따라 문화관광자원의 효율적 발굴, 정비 및 교통체계 구축

■ 내포문화권 개발

- 내포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정비·활용
- 역사·문화·경관자원을 활용한 고품격의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학습·체험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 교통시설을 구축하여 자원간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

■ 서해안 관광산업벨트 조성

-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집객력 있는 해양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Hub & Spoke 방식의 연계관광지를 조성
- 지역 자원의 상호 연계발전을 위해 관광거점·연계관광지와 연계한 해양·생태·문화·음식자원 등을 전략적으로 개발

■ 금강권 광역복합개발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장군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축 (Super Corridor)으로서 금강의 기적을 창조
- 생태, 문화, 교통, 환경, 도시, 산업의 축으로서 각종 사업의 연계발전 효과를 극대화하여 낙후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

■ 행정중심복합도시 연계발전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권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지역과의 공생적 발전을 위해 상호 보완적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강화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및 주변지역 연계발전

- 충남지역의 혁신적 발전과 지역간 균형을 선도하는 도시로 건설
- 도청이전신도시와 기존 중소도시, 산업집적지, 물류·유통거점들을 상호 연계하여 충남 중서부지역의 거점도시권을 형성

■ 서북부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 생산·교역기능에 R&D기반, 산업클러스터, 지식네트워크 기능을 추가한 지식창조형 경제특구를 건설하여 대중국 생산기지 및 수출입 전진 기지로 육성
- 첨단생산과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계하는 네트워크형 허브 개발방식을 도입

다. 협력과 제휴의 지역생활권 형성

■ 지역생활권의 설정

- 지역생활권은 네트워크형 도시체계의 형성을 전제로 하되,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를 고려하여 지정 생활권을 조정
 - 지정 생활권과 달라진 점은 당초 공주와 부여가 백제고도권으로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포함되었으나, 본 계획에서는 공주와 연기를 행정도시 근교권에 포함하고, 부여는 보령·서천과 함께 서남부권에 포함한 것임
- 지역생활권은 기존 생활권체계, 생활권 내부의 지역간 기능적 연계성 및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확보, 지역생활권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로 구분함
 - 북부내륙권은 천안·아산 연담도시권 전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도시 기능을 적절히 분담시키면서 해당 도시들의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동일생활권으로 구분
 - 서해안권은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 지형적 특성과 기존 시·군지역들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2개의 광역적 지역생활권(북부해안권, 서남부권)으로 구분
 - 특히, 중부권(홍성, 청양, 예산)과 행정도시근교권(공주, 연기)은 각각 도청이전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나의 생활권으로 구분
 - 대전근교권은 대전 대도시권과 논산을 중심으로 계룡, 금산의 기존 중심지들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도시들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성을 강화하되, 충남지역의 도시기능이 대전광역시에 일방적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 생활권으로 구분

■ 지역생활권 내·외의 도시간, 도·농간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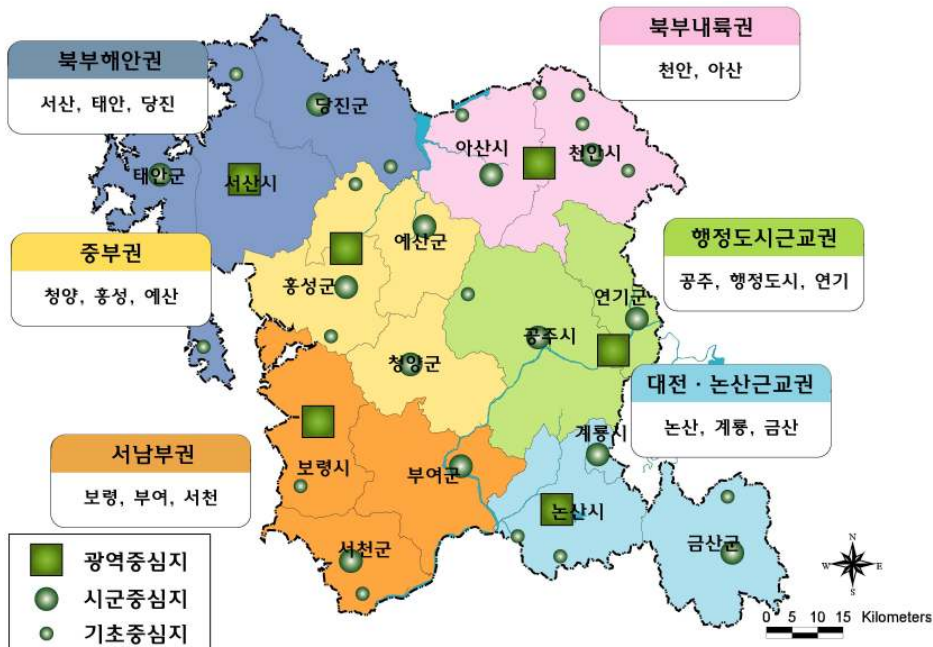
- 광역중심지는 권역내 생활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해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광역중심지와 배후지역간 교통·정보통신 연계를 강화하여 네트워크형 도시체계를 구축
- 시·군중심지 및 기초중심지는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전원도시화를 추진하되, 지역실정에 맞도록 농촌중심형·대도시주변형·특수기능형으로 발전전략을 차별적으로 적용

- 지역생활권에 포함된 시·군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와 공동이용체계 구축으로 운영 효율성 제고

〈표 1-34〉 지역생활권 및 중심지체계

지역생활권	중심지체계			대상지역
	광역중심지	시군중심지	기초중심지	
북부내륙권	천안(아산신도시)	아산	성환, 성거, 인주	천안, 아산
북부해안권	서산	당진, 태안	대산, 합덕, 안면	서산, 당진, 태안
서남부권	보령	부여, 서천	웅천, 장항	보령, 부여, 서천
중부권	도청이전신도시	홍성, 예산, 청양	광천, 삼교	홍성, 청양, 예산
행정도시 근교권	공주(행정중심복합도시)	조치원	유구	공주, 연기
대전·논산 근교권	논산(대전)	계룡, 금산	강경, 연무, 추부	논산, 계룡, 금산

〈그림 1-53〉 지역생활권과 중심지 계층



	제 II 편
부 문 별 계 획	
	<p>제1장 살기 좋은 도시·농촌 정주기반 형성</p> <p>제2장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산업 육성</p> <p>제3장 특색 있는 지역문화와 매력 있는 관광 진흥</p> <p>제4장 신속하고 편리한 인프라 구축</p> <p>제5장 더불어 누리는 생활·복지환경 조성</p> <p>제6장 지속가능한 자원의 개발 및 관리</p> <p>제7장 깨끗하고 안전한 푸른충남 구현</p>

제1장 살기 좋은 도시·농촌 정주기반 형성

1. 혁신적이고 인간적인 도시개발 및 정비

2. 활력 있는 농산어촌 육성 및 특수지역 활성화

1. 혁신적이고 인간적인 도시개발 및 정비

가. 현황과 문제점

■ 불균형적 도시성장

- 서북부권 도시의 성장과 전통도시의 침체로 지역·도시간 불균형이 심화됨
 - 아산만권을 중심으로 신산업지대가 형성되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서북부지역이 급속히 성장
 - 2005년 현재 천안시(519천명), 아산시(208천명), 계룡시(34천명)는 성장하고 있으나 기타 도시의 인구는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어 도시간 인구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교통망에 따른 지역의 불균형구조 고착
 - 경부축선상을 따라 지역이 개발되어 전통산업 중심의 내륙 및 서해안지역의 도시가 침체
 - 충남도내 동서지역간 교통연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저개발도시의 정주생활여건이 미흡

■ 중소도시의 중심지 기능 약화

- 교통·정보통신체계 개선에 따른 지역생활권의 광역화와 지역주민의 대도시 지향성이 강화됨. 이에 따른 중심기능의 상향이동(Upward Shift)으로 중소도시의 중심지 기능이 약화됨
- 천안시, 아산시를 제외한 기타 중소도시들의 중심지 기능과 역할이 미약
 - 대다수 시·군청소재도시의 중심지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읍면급 도시의 중심성은 더욱 제약됨
- 중견도시의 지역발전 거점 역할 미흡
 -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권, 생활권이 형성됨에 따라 전통 농촌지역에서의 중견도시의 발전거점 역할이 미흡

■ 중소도시 상권의 위축

- 대도시의 대형마트 입점으로 대도시 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의 상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왜곡된 상권구조를 형성

- 대전, 천안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형마트의 입점은 인접한 주변 중소 도시의 상권을 위축
- 최근에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도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고 있어 중소도시의 기존 상권의 침체 우려

■ 도시별 기능특화 미흡

- 지역의 다양한 지역자산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개성 있는 도시기능 창출이 미흡
- 도시간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가 미약
- 획일적인 가치관에 의한 건축활동과 도시개발로 지역적 특성과 고유한 매력이 미흡

■ 비정형·비계획적 도시구조

- 대부분의 도시가 지역간 간선도로 및 철도역 중심의 비정형적인 도시 형태를 나타냄
 - 이런 결절점이 도시중심지의 역할을 담당하여 교통혼잡과 시가지의 인위적인 단절에 의한 불균형적인 발전을 초래
- 도시외곽 개발에 따른 기존시가지의 노후화와 공동화가 야기됨
 - 기성시가지의 노후화로 주거환경 악화 및 지역 상권의 침체가 진행됨

나. 여건변화와 전망

■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 도시체계 변화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아산만권신도시 등이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지만, 주변도시 특히, 구시가지의 침체·쇠퇴를 야기할 가능성이 병존

■ 광역도시권의 형성과 확대

- 천안·아산 광역도시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건설로 새로운 형태의 광역도시권이 형성

- 천안시, 아산시는 신도시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라 2020년에는 100만이 넘는 하나의 광역도시권으로 변모될 전망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대전, 청주, 공주, 연기, 계룡 등의 도시들이 광역도시권을 형성하여 세계도시권(World City Region)으로 발전될 전망
- 홍성·예산의 도청이전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들이 연합하는 새로운 도시권이 형성될 전망
- 광역도시권의 형성과정에서 개발압력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도시개발 및 관리체계구축이 필요

■ 네트워크 도시체계로의 전환

- 광역교통망의 정비로 지역간 구분이 모호하게 됨에 따라 도시간의 관계는 과거 종속적, 계층적 관계에서 서로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네트워크체계로 전환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신도시와 주변도시간, 거점도시와 주변도시간 공동발전을 위한 연계네트워크가 요구됨

■ 생산기반 중심에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정책으로의 전환

- 5都2村의 생활패턴 정착에 따라 도농공생형·도농교류형 개발방식이 확대됨
- 물리적 기반구축 중심의 도시정책으로부터 생활환경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변화
- 세계화·정보화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의 개성적 문화와 어메니티 자원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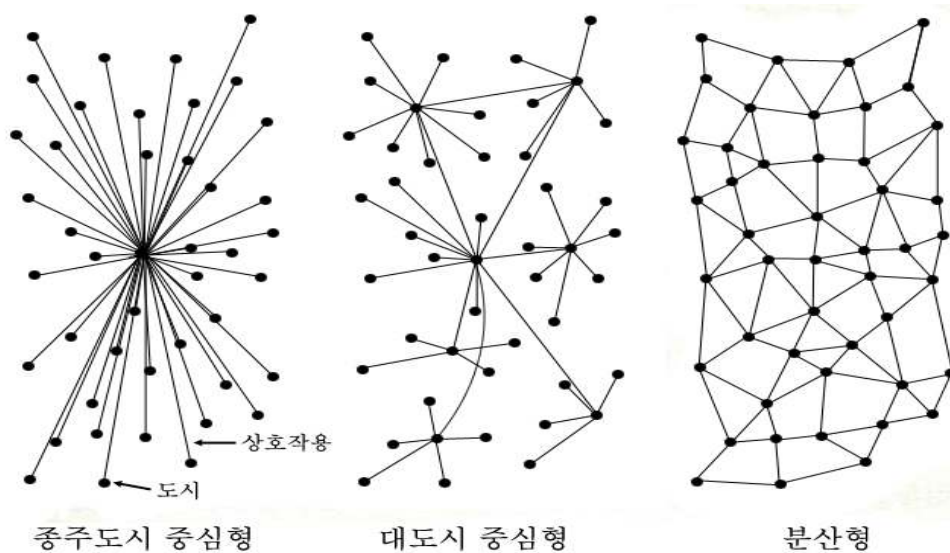
다. 계획의 기본방향

1) 광역도시권 관리와 네트워크 도시체계 강화

- 수도권 규제 효과로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천안·아산 광역도시권과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권,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연합도시권의 성장관리
 - 성장관리정책은 스마트 성장의 원칙과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통합된 토지이용계획과 친환경성 및 미래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

- 지역발전을 선도할 중핵도시, 중소도시간의 창조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관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역도시체계(City-Region) 형성 유도
 - 중핵도시는 광역 및 지역생활권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육성하며, 인접한 중소도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공간적, 기능적으로 특화하여, 충남 전체를 유기적인 네트워크 도시체계로 형성
 - 도시와 주변 농어촌지역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중심지의 서비스기능을 강화

〈그림 II-1〉 도시네트워크 체계



2) 지역발전의 혁신거점 육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아산만권신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 개발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발전의 혁신거점으로 형성하고, 주변 도시와의 상생발전 도모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기업도시 개발 등에서 소외되어 상대적인 침체가 예상되는 중소도시에는 지역 잠재력과 고유의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균형발전 도모
 - 개발사업의 발굴추진에 있어서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지리적·공간적 장점을 살려 육성

- 교통결절점인 IC연접부 등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개발을 유도

3) 지역특성을 활용한 전문기능도시 육성

- 충남의 발전방향과 전략산업에 부합하고, 권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거점도시와 주변지역을 개발
 - 지역혁신 거점과 지역의 전략산업 및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전문기능도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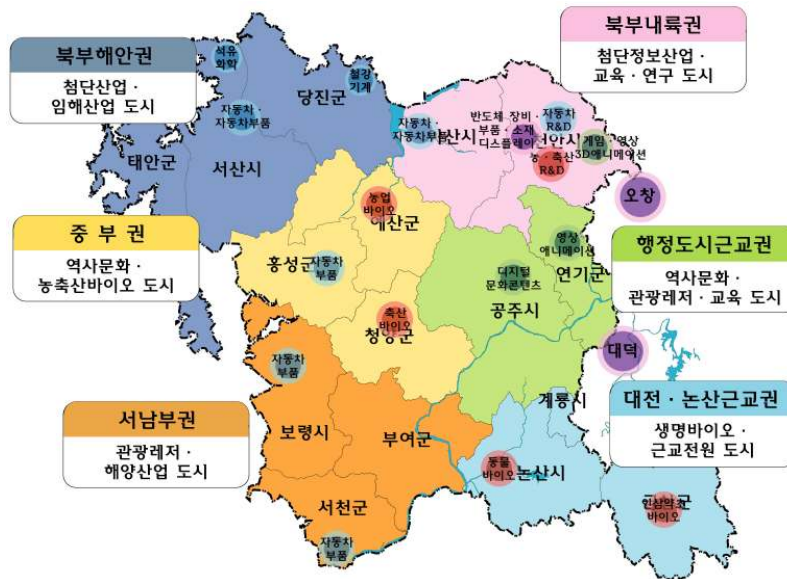
〈표 II-1〉 특화산업 및 전문기능도시 육성 방향

구 분	대상 지역	전문기능도시 육성방향	주요 특화산업
북부내륙권	천안, 아산	첨단정보산업· 교육연구 도시	반도체·디스플레이, 게임·영상
북부해안권	서산, 당진, 태안	첨단산업· 임해산업 도시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 관광
서남부권	보령, 부여, 서천	관광레저· 해양산업 도시	자동차, 통신기기, 해양, 영상문화
중 부 권	홍성, 예산, 청양	역사문화· 농축산바이오 도시	축산바이오, 첨단농업
행정도시 근교권	공주, 연기	역사문화·관광레저· 교육 도시	역사문화, 관광, 레저, 문화콘텐츠, 에니메이션, 첨단농업
대전·논산 근교권	논산, 계룡, 금산	생명바이오· 근교전원 도시	군관련산업, 생명바이오, 실버바이오

주: 특화산업은 충청남도의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2004.7)」 참조하여 재작성

- 중소도시는 역사문화, 입지적 특성 등 지역자산을 살려 전문기능도시로 육성하고, 주변도시와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
 - 동북아시대의 도래, 접근성 강화, 문화관광의 중요성 부각 등의 변화요인을 적극 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 활성화와 연계
 - 고속도로IC와 연계된 지역이나 접근성이 높은 주요국도 주변지역을 물류·유통,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문 기능공간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면서 개발압력을 흡수하는 특화공간으로 육성

〈그림 II-2〉 권역별 특화산업 및 기능 육성 방향



4) 중소도시 활성화와 인본적 도시환경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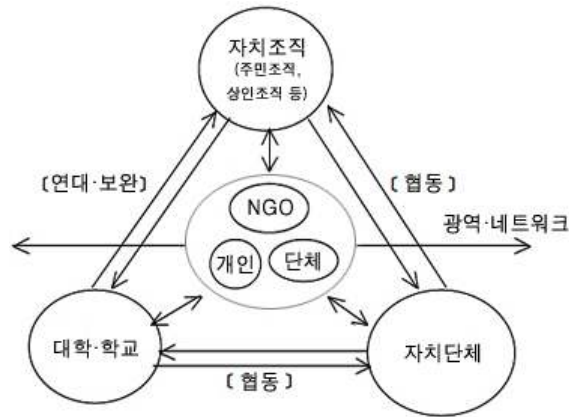
- 도시 특성과 잠재력을 살려 중소도시를 활성화하고, 살고 싶은 인본적 도시환경으로 정비
 - 중소도시의 중심시가지와 주변지역을 기능적으로 특화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상생적인 발전을 도모
- 기존의 재래시장 및 상가환경 정비, 소도읍육성, 고도옛모습가꾸기사업 등과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고도보존사업 및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책 등을 연계 추진하여,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이미지를 창출
 - 특히, 중심시가지는 친인간성, 독창성을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상권활성화를 촉진

5) 참여와 협력의 도시계획체계 구축

- 도시계획·개발과정에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행정과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는 체계 구축
 - 주민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의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함. 주민주도형 참여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이를 계획행정에 반영토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

- 도시계획 결정권한의 지방 이양에 부응하여 도 및 시·군 차원에서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조례, 시책·사업을 개발

〈그림 II-3〉 지역발전 참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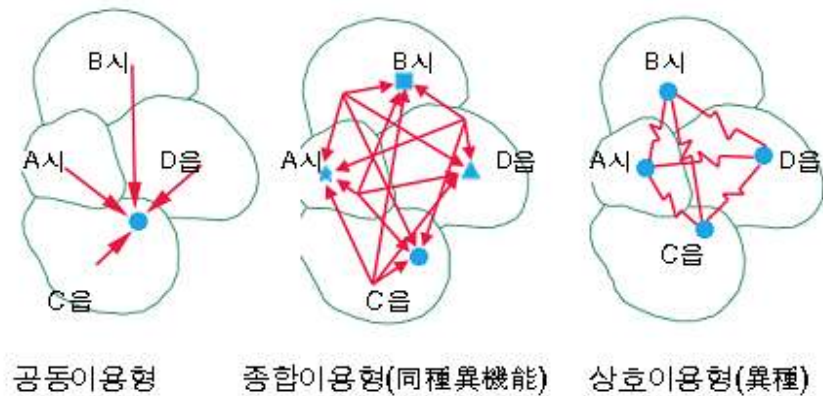
라. 세부추진시책

1) 광역도시권 성장관리 및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 광역도시권 관리

- 도시성장에 따라 연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천안·아산 연담도시권,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권, 도청이전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소도시 연합도시권의 체계적인 관리
 - 최근 수도권 효과 등에 따라 빠른 성장과 연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천안·아산 광역도시권은 성장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난개발을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관리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 주변지역은 난개발을 억제하면서 개발 효과를 주변지역에 극대화
- 광역도시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광역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성장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광역시설의 상호이용체계 및 광역조정기능을 강화
 - 스마트 성장을 위해 무분별한 교외개발을 억제하고, 광역조정기능을 강화하며 광역적 토지이용시스템을 구축
 - 지역주민의 편리성 향상과 활발한 역내 교류, 역외 인구유출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종합병원, 운동공원 등 광역시설의 상호이용 방식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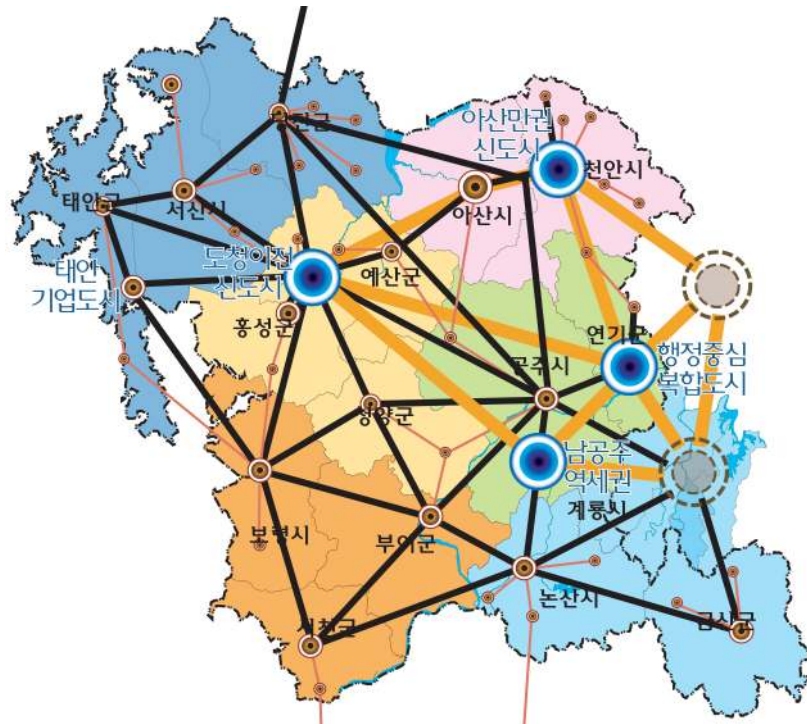
〈그림 II-4〉 광역적 도시시설의 상호이용 유형



■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 대도시와 주변도시, 중소도시간, 도시와 주변 농촌, 신도시와 기존 도시간의 협력적 네트워크체계를 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아산만권신도시, 태안기업도시 등 신도시와 주변도시와의 광역 네트워크도시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적, 국가적, 광역적 기능을 수행
 - 행정도시 광역도시권내의 지역들은 행정도시의 주요 기능인 행정·연구기능, 문화국제교류기능, 첨단지식기반교육기능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기능 설정을 통한 상생 발전 도모
 - 천안(동면, 병천면, 수신면, 성남면, 광덕면)은 도시민을 위한 레저기능 도입과 IT·BT 등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적 생태산업단지 조성
 - 공주는 역사문화관광과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중핵도시로의 육성(국제관광기능, 물류·첨단산업기능 확충)
 - 계룡은 국방 및 군관련 산업 및 연구기능 중심의 전문기능도시로 육성
 - 연기는 CT, 수요자 근접형 친환경 첨단농업 육성을 통한 네트워크 체계 강화
- 도청이전신도시와 주변도시는 중소도시 연합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시대에 대비한 서해안 거점 도시권으로 육성
 - 도청이전신도시와 주변도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별 기능 특화분담
 - 도청이전신도시와 행정도시, 주변도시간 교통·정보 네트워크 구축

〈그림 II-5〉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안)



2) 거점 도시 및 지구 개발

■ 신성장 거점도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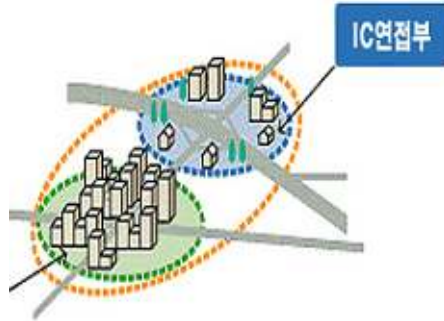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신도시의 개발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 도모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충남의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인접한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발굴육성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정비
- 도청이전신도시는 충남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충남의 경쟁력 제고 및 도민통합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
 - 도청이전신도시를 중심으로 소도시 연합체계를 구축하여 서해안 거점 도시권을 형성
 -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충남의 다른 지역과 연계성을 강화
- 남공주역 역세권 개발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백제문화권의 관문 혁신 거점으로 조성

- 남공주역 신설에 따른 역세권 개발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유입인구의 수용과 주거기능을 지원
-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 개발을 통해 수도권 기능을 분담 수용하고, 아산만권을 산업·교역의 중심지역으로 육성
- 관광레저형 태안기업도시를 안면도 관광지와 연계 개발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서해안 관광산업벨트를 구축
 - 태안기업도시의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발전을 도모
 -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통해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 모색
 - 태안기업도시 개발에 따라 공동화 현상 등이 우려되는 태안읍 등 기존 지역과의 연계 발전 전략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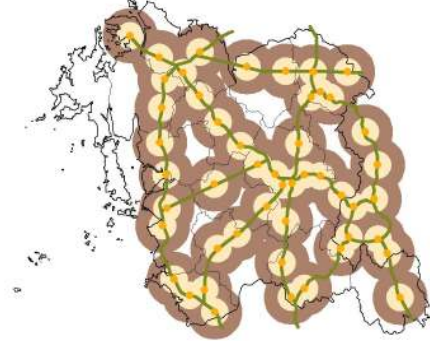
■ 지역활성화 거점 육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신개발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인 침체가 예상되는 중소도시는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
 - 지역 스스로 지역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
 - 논산의 지역 자산인 군 관련 기능을 활용하여 국방혁신도시를 건설
- 고속도로의 직접영향권내에 있는 IC연접부와 호남고속철도 남공주 역세권지역 등을 지역활성화 거점으로 개발함으로써, 주변 농어촌 및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
-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복합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테마형 단지로 개발하여 수도권 및 충청권 대도시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지역의 중심지로 육성
 - 복합단지형 :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이나, 수도권 이용인구가 많은 지역을 Outlet, Shopping Park, 물류유통단지 등이 복합된 특화공간으로 개발
 - 산업단지형 : 제조업 및 첨단산업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산업단지로 개발
 - 관광단지형 : 충남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대전) 광역도시권 및 수도권 전원주택 수요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관광단지를 개발하며,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된 관광단지를 개발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체계의 정비에 따라 신규 고속화도로 및 새롭게 건설 예정인 고속도로 IC연접부를 적극 활용

〈그림 II-6〉 IC연접부 개발의 개념



〈그림 II-7〉 충남의 고속도로
IC영향권(10km)



3) 기존도시 활성화

■ 중소도시 활성화

- 신시가지와 기성시가지(중심시가지)의 균형발전, 기성시가지의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을 중소도시 특성에 맞게 적극 활용
 -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주거지 정비와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이를 위해 “도시재정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한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중심시가지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
 -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규제완화 및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유도
 -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과 주변지역을 일체화하여 정비
-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권과 문화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
 - 교육문화 여건을 개선하고, 친수공간정비 등의 환경정비를 통해 살기 좋은 도시로 육성
 -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는 도로혼잡, 주차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
 - 중심시가지 활성화 과정에 주민, 상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타운매니지먼트(도시관리자) 육성사업을 추진

- 중심시가지내 오픈스페이스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공원 조성, 담장 허물기, 도시숲 조성, 녹지활용 계약제 등과 연계한 그린 파크 (Green Park)를 조성
- 「소도읍종합육성계획」 등 기존의 중소도시 관련 계획 및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 역사·문화자산 활용

-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지리적 장점 등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기존 도시를 활성화
 - 기존도시 내에 분포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정비하여 중소도시의 어메니티를 제고
- 고도옛모습 되살리기사업, 고도보존사업 등에 근거하여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을 정비
 - 체계적으로 고도옛모습을 정비·복원하며,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민을 위해서는 신개발 사업의 주택 공급과 연계

4)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와 주민참여 확대

- 참여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지역의 고유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체제 확립에 노력하고 있음
 - 이를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충남형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는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
 - 도청이전신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 개발의 조성단계 및 기존도시 정비, 주거환경 정비 과정에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개념을 적극 도입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을만들기 교실 운영 및 주민제안형 사업 전개
 - 마을만들기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교실을 운영
 - 법정계획뿐만 아니라 비법정계획에서도 주민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과 시·군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표 II-2〉 도시개발 및 정비 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광역도시권 성장관리 및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광역도시권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시설 상호이용체계 구축 · 자치단체간 광역협력체계 구축 ·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 · 도시성장관리체계 구축
거점 도시 및 지구 개발	신성장 거점도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 아산만권신도시, 남공주역세권 개발 · 태안기업도시 건설
	지역활성화 거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연접부 개발(5개소 : 복합단지형, 산업단지형, 관광단지형 등) · 호남고속철도 남공주역 역세권개발 · 택지·도시개발사업 등(30개 지구)
기존 도시 활성화	역사문화자산 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보존사업 연계 환경정비사업(2개 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정비 가이드라인 작성 ·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등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도읍종합육성사업(22개 소도읍) · 주변지역 연계 시장재개발사업 · 타운매니지먼트 육성사업* 등
	Green Park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공원 조성, 담장 허물기, 도시숲 조성(363개소)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와 주민참여 확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형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국가정책과 연계)
	주민참여 확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만들기 교실 운영, 전문인력 육성 지원, 주민제안형·공모형사업 등

주: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조직으로 미국, 일본 등에서 활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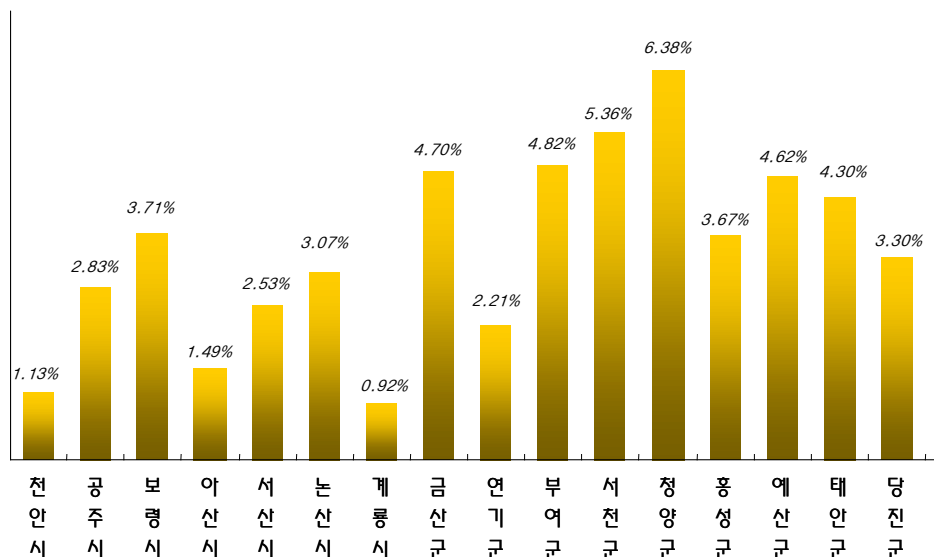
2. 활력있는 농산어촌 육성 및 특수지역 활성화

가. 현황과 문제점

■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 충남의 농가수는 2000년 179,550호에서 2005년 163,223호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가인구도 2000년 539천명에서 2005년 446천명으로 최근 5년간 93천명 가까이 줄어들었음
 - 특히, 면이하의 농촌인구가 2000년 845천명에서 2005년 784천명으로 급감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동읍지역의 인구비중이 높아져 그만큼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2005년 현재 충남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3.3%¹⁾로 전국평균(2004년) 9.1%를 1.5배 정도 상회하면서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음
 - 지역적으로는 청양서천·부여의 2000년 대비 2005년의 노령인구 증가율이 각각 6.38%, 5.36%, 4.82%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금산과 예산도 각각 4.70%, 4.62%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림 II-8〉 2000년 대비 2005년의 시·군별 노령인구 변화율



1) 전국과 충남의 2005년 노령화율 9.1%, 13.3%는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2005.12)이며, 인구주택총조사 잠정결과(2006.5)에서는 전국 9.3%, 충남 14.3%로 제시하고 있음

■ 지역간 생활기반 여건의 불균형

- 농촌지역에 대한 사회적·환경적 인식변화와 대도시 주변 농촌의 근교농업지대로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오지·도서를 비롯한 대부분 농산어촌지역의 상대적 낙후가 지속되고 있음
 - 면부이하 농촌지역을 인구규모에 따라 2,500~5,000명의 평균 규모의 농촌지역, 그 이하의 소규모 농촌지역(2,500명 미만), 그 이상의 대규모 농촌지역(5,000명 이상)으로 구분해 보면, 충남은 평균규모의 농촌지역과 소규모 농촌지역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농림부 2005)
 - 이러한 지역의 특징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생활환경여건의 낙후로 면중심지 기능이 쇠퇴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기능이 악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실제 2004년 기준 충남 군지역 도로포장율과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는 전국평균(각각 76.1%, 588명)을 상회하고는 있지만,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상수도 보급률도 46.6%(면지역 33%)로 전국평균(90.1%)의 절반수준에 불과함(2005 충남통계연보)
 - 또한, 농촌학교 교육 서비스 만족도에서도 「보통이거나 불만족스럽다」가 91.1%로 조사되었으며, 농사지식 및 기술교육을 제외한 취미활동 등에 대한 수요(전체 26.6%)는 높았으나 실제 교육·문화·생활 경험도는 문화유적(37.7%)이나 극장(10.9%) 등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2004 농촌생활지표 조사 보고서)

■ 농촌경제기반의 변화와 농촌지역의 분화

- 농업부문에서 FTA가 확대되고 있어 지역농가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농촌인구의 감소와 대규모 개발수요로 충남의 농촌경제기반과 영농형태도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지역도 과소 농촌지역과 근교농촌지역으로 발전의 양상을 달리하고 있음
 - 농경지 면적은 대규모 개발수요(수도권 개발수요의 충남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로 인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역내 총생산에서 농림어업의 생산비중도 감소(1999년 12.4% → 2003년 7.7%)하고 있어, 충남의 농가소득 및 경제기반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영농형태도 전통적인 쌀농사에서 충남 서북부(아산, 당진, 천안 등)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연기, 공주 등)을 중심으로 특용작물, 축산, 채소, 과수 등의 근교농업으로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충남 시·군별 전입·전출 현황을 보면 천안·아산·연기 지역은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금산·부여·청양·서천 등은 지속적으로 전출인구가 많아 농촌의 과소화 현상과 대도시권 농촌을 중심으로 한 교외화 현상이 양극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나. 여건변화와 전망

■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동시적 진행

- 충남의 농촌인구(면부인구 기준)는 2000년 845천명에서 2005년 현재 784천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충남의 노령화율은 2000년 11.9%, 2005년 13.3%, 2010년 15.2%, 2020년 17.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 같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농촌지역의 정주기반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권 주변의 농촌지역은 신흥개발지역으로 포함되어 빠르게 도시화되고 있어 ‘농촌정주기반 확보’와 ‘농촌지역의 도시화’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전략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촌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의 쇠퇴로 이어지고 있어 오자·도서를 비롯한 낙후지역의 기초생활시설의 정비 및 교육·의료·복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농촌공간에 대한 수요의 복합화와 다양화

- 도시민의 농촌공간에 대한 체재·정주 수요 증대와 최근의 국내·외 농업·농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촌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음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3년)』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04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을 지원하고 농촌의 물리적 시설개발 외 교육, 복지 등을 포함한 종합개발을 도모하고 있음

- 또한, 농촌관광활성화 대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 등 농어촌마을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충남은 이러한 정부정책과 사회적 여건변화 속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같은 대규모 개발과 교통망의 발달로 농촌지역 변화의 속도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빠를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농촌지역에 대한 소득, 생활환경, 문화, 교육의료 시설 등에 대한 도시적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농촌개발사업의 추진이 요구됨

다. 계획의 기본방향

■ 전원적인 삶과 휴양 및 다양한 산업이 조화된 복합정주공간으로 조성

-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 지속적 정비 추진
- 농가 및 자연마을 중심의 개발전략에서 벗어나 농산어촌 주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심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통합적 개발전략을 추진
- 농촌공간에 대한 도시민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한 개발전략을 추진

■ 농촌자원의 다원적 활용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 농촌의 경관, 생태자원, 민속 등을 활용한 영농체험, 주말농장, 생태체험관광을 활성화 하되, 이를 농촌정주환경정비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
- 농촌개발 과정에서 농촌의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여 자원화

■ 낙후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 시책의 추진

- 도서, 어촌, 산촌은 지역의 잠재력과 활용자원에 따라 유형화하여 특성적으로 개발하고 지원체계를 구축
- 이들 지역은 주민의 소득생산기반과 함께 주거환경, 보건, 문화,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 기초생활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촌불량주택의 개량과 마을단위 하수도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
- 이와 연계하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상의 상·하수도, 교통, 정보·통신 등을 포함하는 지역개발 분야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전반적인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 농촌 정주환경의 종합적인 정비 추진

- 면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을 추진하여 도로, 상·하수도,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기초생활기반시설을 종합 정비
- 지형조건, 자원잠재력, 생활권, 영농권 등의 면에서 동질성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일련의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 단위로 개발함으로써 확대된 마을공동체로의 발전을 도모
 - － 농산어촌 중심지의 기능 강화를 위해 면소재지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대상에 포함

■ 테마마을 조성 및 도농교류 활성화

- 고령자, 은퇴자, 수도권 및 주변 대도시로부터의 유입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농촌복지형 주거공간 및 지역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맞춤형 전원주거단지를 조성
- 농산물 판로 확대, 농외소득 증대, 농촌주민의 수용태세 강화를 위한 다양한 도·농 교류프로그램 활성화

■ 낙후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특성의 자원화

- 오지·도서를 비롯한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충남의 지역여건에 따라 기초생활여건을 정비
 - － 산촌종합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사업, 신활력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체계 개선, 교육 및 의료시설 확충 등 정주환경을 개선

-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관광개발, 지역생산품의 특화, 생물·경관자원 보전 등을 통한 지역특성의 자원화
- 홍성·태안·보령 등 기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서천·금산·부여 등을 신규 지정·개발
- 단위 사업들을 연계함으로써 전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개발

〈표 II-3〉 농산어촌개발 분야의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기초생활인프라 구축 및 농촌정주환경 정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 마을하수도정비사업(265개소) · 농어촌불량주택개량사업(9,713동)
	농촌정주환경정비	·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114개 면)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100개 권역) · 전원마을조성사업(35개 마을)
	테마마을 조성 및 도농교류 활성화	·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64개소) ·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47개소) · 어촌체험마을사업(24개 마을)
균형개발 및 지역특성의 자원화	낙후지역 활성화	· 오지종합개발사업(32개 면) · 도서종합개발사업(24개 도서) · 산촌종합개발사업(55개 마을) · 어촌종합개발사업(5개 권역: 보령, 서천, 당진, 태안, 미정 1) · 신활력사업(금산, 부여, 청양, 서천)
	개발촉진지구 개발	· 홍성지구(11개 사업) · 태안지구(7개 사업) · 보령지구(18개 사업) · 서천지구(15개 사업) · 금산지구(15개 사업) · 부여지구(15개 사업)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	· 시범사업(홍성, 5개 분야)

제2장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산업 육성

1.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서 농·림·축·수산업 육성
2. 제조업의 지식기반화와 신성장산업의 혁신클러스터화
3. 서비스업의 지식기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1.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서 농·림·축·수산업 육성

가. 현황과 문제점

■ 농업

- 지역농업 비중의 지속적 감소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농가가구는 28.0%에서 23.5%로, 농업취업 인구는 29.9%에서 23.1%로, 농업면적은 29.9%에서 29.2%로 각각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표 II-4〉 농업 비중 변화추이(2000~2004)

(단위: 호, 천명, km², %)

구 분	가 구			취업인구			면 적		
	전 체	농 업	구성비	전 체	농림업	구성비	전 체	경 지	구성비
2000년	641,499	179,550	28.0	891	266	29.9	858,644	256,838	29.9
2001년	649,989	172,833	26.6	895	252	28.2	859,720	255,082	29.7
2002년	660,991	168,521	25.5	908	247	27.2	859,794	253,516	29.5
2003년	649,411	164,080	25.3	902	225	24.9	859,820	251,534	29.3
2004년	683,578	160,784	23.5	921	213	23.1	859,848	250,591	29.2

주: 취업인구 중 농림업인구에는 임업인구가 포함됨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해당년도

- 지역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지역 농가인구수는 539천명에서 453천명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농가인구수는 56천명에서 65천명으로 증가
 - 이에 따라 지역의 농업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 농업소득의 지속적 감소
 -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 이전수입으로 구성되나, 농업의 소득 창출력 저하로 인하여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 이는 전업농가와 1종 겸업농가의 감소에 기인함

〈표 II-5〉 충남 농가의 고령인구 비중추이(2000~2004)

(단위: 천명,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 농가 인구수	전국(A)	4,031	3,933	3,591	3,530	3,415
	충남(B)	539	515	486	469	453
	비중(B/A)	(13.4)	(13.1)	(13.5)	(13.3)	(13.3)
65세 이상 농가인구수	전국(A)	876	957	940	982	1,002
	충남(B)	56	61	63	64	65
	비중(B/A)	(6.4)	(6.3)	(6.7)	(6.5)	(6.5)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해당년도
통계청 (<http://kosis.nso.go.kr>)

〈표 II-6〉 충남의 농가유형 변화추이(2000~2004)

(단위: 가구, %)

구분	합계	전업농가 ¹⁾	겸업농가		
			계	1종 겸업 ²⁾	2종 겸업 ³⁾
2000년	179,550 (100.0)	117,509 (100.0)	62,041 (100.0)	31,973 (100.0)	30,368 (100.0)
2001년	172,833 (12.8)	112,642 (12.7)	60,190 (12.8)	21,851 (13.5)	38,339 (12.5)
2002년	168,521 (13.2)	114,490 (13.3)	54,031 (12.9)	18,511 (13.3)	35,520 (12.7)
2003년	164,080 (13.0)	105,885 (13.0)	58,195 (12.9)	18,688 (12.8)	39,507 (12.9)
2004년	160,784 (13.0)	101,144 (12.9)	59,640 (13.1)	19,903 (13.5)	39,737 (12.9)
전국대비 충남의 농가수 비중	13.0	13.0	12.9	14.2	11.8

1) 전업농가는 세대원 가운데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세대원이 없는 농가

2) 1종 겸업농가는 연간총수입 중 농업수입이 50% 이상인 농가

3) 2종 겸업농가는 연간총수입 중 농업수입이 50% 미만인 농가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해당년도
통계청 (<http://kosis.nso.go.kr>).

- 농가의 경지규모 양극화 확대
 - 충남의 경지규모별 농가는 경지 없는 농가와 50천㎡ 미만의 영세농가, 그리고 50천㎡ 이상의 규모화 된 농가는 증가한 반면, 20~30천㎡의 경지를 보유한 농가 비중은 감소

〈표 II-7〉 충남의 경작규모별 농가수 변화추이(2000~2004)

(단위: 가구,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¹⁾
합 계	179,550 (100.0)	172,833 (100.0)	168,521 (100.0)	164,080 (100.0)	160,784 (100.0)	13.0
경지 없는 농가	1,601 (11.3)	2,231 (11.6)	2,258 (11.3)	2,401 (11.2)	2,572 (13.2)	11.7
5천㎡ 미만	48,759 (11.1)	51,477 (11.2)	50,442 (11.7)	50,377 (11.4)	50,094 (11.3)	11.3
5천㎡~10천㎡ 미만	49,726 (13.1)	48,623 (13.2)	45,506 (13.2)	44,437 (13.4)	43,246 (13.4)	13.3
10천㎡~20천㎡ 미만	51,454 (14.6)	48,379 (14.6)	45,379 (14.8)	42,079 (14.4)	41,044 (14.7)	14.6
20천㎡~30천㎡ 미만	16,605 (14.6)	12,967 (13.0)	14,083 (14.2)	13,082 (13.9)	12,584 (13.8)	13.9
30천㎡~50천㎡ 미만	8,209 (13.4)	6,692 (12.4)	7,134 (12.9)	7,487 (13.2)	7,164 (13.3)	13.0
50천㎡ 이상	3,196 (13.5)	2,464 (11.5)	3,718 (16.4)	4,217 (16.0)	4,080 (14.3)	14.3
전국대비 충남의 농가수 비중	13.0	12.8	13.2	13.0	13.0	13.0

1) 연평균증가율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 년도의 평균증가율임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통계청(<http://kosis.nso.go.kr>)

- 특용작물 중심 작물생산량 감소
 - 2000년 기준 2004년 충남의 작물생산은 과채류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감소
 - 전국대비 충남의 식량작물과 과채류는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나, 특용작물 생산량은 2000년 대비 40.3%의 수준임

〈표 II-8〉 충남의 작물생산량 추이(2000~2004)

(단위: M/T,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증가율 ⁸⁾
식량작물 ¹⁾	961,099 (16.3) ⁷⁾	979,212 (15.8)	903,768 (16.1)	863,198 (17.2)	935,249 (16.5)	16.4
과채류 ²⁾	412,714 (17.1)	385,740 (16.2)	372,857 (16.5)	398,200 (18.0)	415,422 (17.5)	17.1
엽채류 ³⁾	399,793 (10.7)	419,935 (11.4)	306,561 (10.7)	323,938 (9.9)	379,620 (11.0)	10.7
근채류 ⁴⁾	213,973 (11.2)	185,239 (9.8)	150,301 (9.7)	178,314 (10.6)	196,198 (11.0)	8.7
조미채소 ⁵⁾	184,910 (7.6)	179,291 (7.0)	144,647 (6.3)	131,552 (6.5)	133,999 (5.5)	6.6
특용작물 ⁶⁾	3,350 (5.3)	2,935 (4.5)	1,976 (3.5)	1,372 (3.4)	1,351 (2.8)	3.4

주1: 식량작물은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임

2: 과채류는 수박, 참외, 딸기, 오이, 호박, 토마토임

3: 엽채류는 배추, 시금치, 상추, 양배추임

4: 근채류는 무, 당근임

5: 조미채소는 고추, 파, 양파, 생강, 마늘, 가지, 풋고추, 기타임

6: 특용작물은 참깨, 들깨, 낙화생(땅콩), 섬유작물, 약용작물, 기타임

7: 비중은 전국에서 충남이 차지하는 비중임

8: 연평균증가율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도의 평균증가율임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통계청(<http://kosis.nso.go.kr>).

■ 임업

- 2004년 현재 충남의 산림면적은 충남 총 면적의 51.4%인 441,544ha로, 2000년 기준 0.4% 감소
- 사유림의 감소폭 확대
 - 충남의 임야면적은 국유림은 증가하였으나 사유림의 감소가 확대되어, 총 임야면적의 감소를 초래

〈표 II-9〉 충남의 소유주체별 임야면적 변화추이(2000~2004)

(단위: ha)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 계	443,493	442,887	442,354	441,910	441,544
국유림	23,711	24,705	25,150	25,968	27,487
공유림	21,555	21,352	21,349	21,358	21,233
사유림	398,227	396,830	395,855	394,584	392,824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통계청 (<http://kosis.nso.go.kr>)

- 침엽수림 입목지는 감소하였으나, 활엽수림과 혼효림 입목지가 증가하여 총 입목지는 증가추세임

〈표 II-10〉 충남의 임상별 산림면적 변화추이(2000~2004)

(단위: km²,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 계		4,434.9 (100.0)	4,428.9 (100.0)	4,423.5 (100.0)	4,419.1 (100.0)	4,415.4 (100.0)
입목지	소 계	4,218.7 (95.1)	4,202.5 (94.9)	4,316.8 (97.6)	4,302.1 (97.4)	4,290.0 (97.2)
	침엽수림	2,194.1 (49.5)	2,181.0 (49.2)	2,049.7 (46.3)	2,029.5 (45.9)	2,013.5 (45.6)
	활엽수림	1,027.9 (23.2)	1,030.2 (23.3)	1,144.5 (25.9)	1,152.8 (26.1)	1,160.7 (26.3)
	혼 효 림	995.0 (22.4)	989.6 (22.4)	1,120.0 (25.3)	1,117.2 (25.3)	1,113.2 (25.3)
	죽 림	1.7	1.7	2.6	2.6	2.5
무입목지	소 계	216.2 (4.9)	226.4 (5.1)	106.7 (2.4)	117.0 (2.6)	125.4 (2.8)
	미입목지	40.1 (0.9)	48.0 (1.1)	33.3 (0.8)	46.1 (1.0)	47.9 (1.1)
	황 폐 지	0.4	0.3	—	—	—
	개 간 지	—	—	—	—	—
	제 지	175.7 (4.0)	178.1 (4.0)	73.4 (1.7)	70.9 (1.6)	77.5 (1.7)
전국대비 충남의 산림면적 비중		6.9	6.9	6.9	6.9	6.9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통계청 (<http://kosis.nso.go.kr>)

- 조림면적 확대
 - 2000년 기준 2004년 충남의 조림실적은 51.7% 증가
 - 전국 대비 면적 및 본수 기준 충남의 조림은 본수가 낮은 상태임

〈표 II-11〉 충남의 조림실적 변화추이(2000~2004)

(단위: ha, 천본,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 계	면적	2,051	2,129	2,590	2,590	3,111
	(비중) ¹⁾	(9.3)	(10.3)	(12.5)	(12.3)	(14.5)
	본수	3,715	3,746	3,743	3,894	4,730
	(비중) ¹⁾	(6.8)	(7.8)	(7.4)	(7.0)	(9.0)
장기수	면적	1,012	1,028	1,066	1,178	1,152
	본수	3,156	3,016	3,065	3,196	3,776
유실수	면적	901	858	1,236	1,236	1,644
	본수	366	344	494	499	687
대묘수	면적	138	162	40	40	96
	본수	193	243	60	61	144
조경수	면적	-	81	248	136	199
	본수	-	143	124	138	123

1) 비중은 전국 대비 충남의 비중임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통계청(<http://kosis.nso.go.kr>).

■ 축산업

- 2000년 기준 2004년 현재 충남의 주요 가축 사육가구수는 닭이 52.2%, 돼지가 50.0%, 한육우가 42.3%, 젓소가 29.7% 감소하였음
- 사육가구수의 규모화의 경우, 돼지사육가구는 상대적으로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다른 가축사육가구는 규모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사육가구당 5,000~9,999 두수의 규모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표 II-12〉 충남의 축산규모 변화추이(2000~2004)

(단위: 가구수, %)

구 분		2000년 ¹⁾		2001년 ¹⁾		2002년 ¹⁾		2003년 ¹⁾		2004년 ¹⁾	
		충남	비중 ²⁾	충남	비중 ²⁾	충남	비중 ²⁾	충남	비중 ²⁾	충남	비중 ²⁾
한 육 우	계	37,473	(12.9)	29,014	(12.3)	26,933	(12.7)	21,137	(11.2)	21,631	(11.4)
	1~19	35,321	(12.9)	27,031	(12.2)	24,948	(12.6)	19,090	(11.1)	19,175	(11.3)
	20~49	1,698	(14.9)	1,467	(13.9)	1,491	(13.8)	1,605	(14.1)	1,901	(14.2)
	50~99	217	(7.4)	383	(13.8)	323	(11.1)	311	(8.5)	389	(10.1)
	100이상	237	(20.9)	133	(12.0)	171	(13.3)	131	(9.5)	166	(10.2)
젖 소	계	2,168	(16.2)	2,190	(17.1)	2,023	(17.3)	1,675	(15.9)	1,524	(15.9)
	1~19	425	(17.1)	516	(21.9)	302	(17.6)	275	(19.1)	178	(15.5)
	20~49	1,224	(17.2)	1,072	(17.3)	1,078	(19.6)	741	(16.3)	676	(17.1)
	50~99	440	(13.1)	513	(13.4)	548	(13.7)	540	(13.7)	549	(14.2)
	100이상	79	(20.6)	89	(19.7)	95	(18.8)	119	(19.9)	121	(19.5)
돼 지	계	4,193	(17.6)	3,408	(17.4)	3,091	(17.7)	2,855	(18.7)	2,095	(15.8)
	1~999	3,811	(17.7)	2,957	(17.6)	2,598	(17.9)	2,349	(19.1)	1,589	(15.3)
	1,000~4,999	363	(16.4)	430	(16.6)	464	(16.7)	474	(17.3)	471	(17.6)
	5,000~9,999	13	(13.8)	14	(13.7)	22	(18.0)	24	(18.5)	24	(18.8)
	10,000이상	6	(17.1)	7	(16.3)	7	(14.9)	8	(15.4)	11	(19.0)
닭	계	26,217	(12.0)	24,881	(12.4)	21,660	(12.3)	14,842	(10.3)	12,540	(9.6)
	10,000미만	25,735	(12.0)	24,401	(12.3)	21,173	(12.2)	14,377	(10.1)	12,159	(9.5)
	10,000~30,000	289	(16.1)	282	(15.6)	266	(16.6)	233	(16.5)	169	(13.1)
	30,000~50,000	138	(19.2)	130	(17.4)	159	(20.0)	166	(21.8)	136	(17.3)
	50,000이상	55	(13.4)	68	(16.3)	62	(14.2)	66	(14.0)	76	(13.5)

1) 각 연도 12월 기준임

2) 전국 대비 충남의 비중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 수산업

- 충남의 어업가구는 2001년 이후 증가추세로 반전하였으며, 2004년 어업가구는 2000년의 98.7% 수준을 회복하였음
 - 전국대비 충남의 어업가구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업가구의 감소 규모가 작음

〈표 II-13〉 어업가구 및 어업인구 추이(2000~2004)

(단위: 명,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어업가구	전국(A)	81,571	77,717	73,124	72,760	72,513
	충남(B)	9,444	9,130	9,178	9,311	9,322
	(B/A*100)	(11.6)	(11.8)	(12.6)	(12.8)	(12.9)
어업인구	전국(A)	251,349	234,434	215,174	212,104	209,855
	충남(B)	27,575	25,927	25,869	26,814	26,267
	(B/A*100)	(11.0)	(11.1)	(12.0)	(12.6)	(12.5)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해당년도.
통계청 (<http://kosis.nso.go.kr>).

- 충남의 수산물 어획고는 수량과 금액 모두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 수산물 어획고에서는 연체동물의 수량과 금액 규모가 가장 큼
 - 연체동물과 해조류는 2000년 대비 2004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해조류는 증가폭이 매우 큼

〈표 II-14〉 충남의 수산물어획고 변화추이(2000~2004)

(단위: M/T,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 계	수 량	88,828	69,022	72,321	108,349	114,830
	금 액	183,954	169,496	204,539	288,472	331,405
어 류	수 량	35,129	22,898	23,459	23,273	27,966
	금 액	63,896	54,243	55,572	84,476	107,910
갑각류	수 량	10,876	9,020	6,900	8,189	3,564
	금 액	45,679	50,378	38,538	51,423	50,677
연체동물	수 량	37,140	4,631	35,630	65,307	67,927
	금 액	66,852	20,132	97,693	136,194	151,831
기타수산물	수 량	162	174	290	320	324
	금 액	35	2,951	4,918	4,846	4,719
해조류	수 량	5,521	32,299	6,042	11,260	15,049
	금 액	7,492	41,792	7,818	11,533	16,269

주: 표본조사결과이며, 금액은 어종별 위판단가에 의한 추정금액임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해당년도.

나. 여건변화와 전망

■ 농업

- DDA, FTA 진전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 한미 FTA 체결, 이어지는 한중 FTA 협상으로 지역의 채소와 과일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큰 타격이 예상됨
 - 지역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농업 육성 및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개척이 요구됨
-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친환경농산물 수요 증가
 - 웰빙문화 확산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임
 - 친환경 농산물을 출하량은 2000년 기준 연평균 91.5% 증가하고 있음

〈표 II-15〉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추이(전국)

(단위: 톤,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잠정치)	연평균 증가율 ²⁾
합 계		35,406	87,278	200,374	366,107	460,735	796,352	86.4
유기 농산물	출하량	6,538	10,670	21,114	34,191	36,746	68,088	59.8
	(비중) ¹⁾	(18.5)	(12.2)	(10.6)	(9.3)	(8.0)	(8.6)	
무농약 농산물	출하량	15,694	32,274	76,828	120,358	167,033	240,676	72.6
	비중	(44.3)	(37.0)	(38.3)	(32.9)	(36.3)	(30.2)	
저농약 농산물	출하량	13,174	44,334	102,432	211,558	256,956	487,588	105.9
	비중	(37.2)	(50.8)	(51.1)	(57.8)	(55.7)	(61.2)	

주1: 비중은 연도별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유형별 비중임

2: 연평균증가율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의 평균증가율임

3: 전환기유기농산물 출하량은 유기농산물 인증 출하량에 포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6, 2006.

- 친환경농산물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고려할 경우, 2010년에는 2조원, 2015년에는 4조 3천억원 규모의 시장형성이 전망됨
- 개방화시대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생산 확대가 요구됨

〈표 II-16〉 친환경농산물 유통규모 전망(전국)

(단위: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10년	2013년	2015년
총 계	7,788	9,130	11,069	19,833	31,577	43,240
곡 류	2,317	2,565	3,078	5,318	8,088	10,696
채소류	3,149	3,779	4,724	9,227	15,944	22,959
과실류	935	1,122	1,346	2,326	3,538	4,679
서 류	136	163	195	337	513	679
특작류	1,251	1,501	1,726	2,625	3,494	4,22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6, 2006.

-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 확대 및 브랜드농산물 수요 증가
 - 안전한 농산물 수요증가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안전제도가 확대될 것임
 - 농산물 소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소비가 확대 추세
- 농업경영주 및 종사자의 고령화 확대
 - 전국의 농업경영자는 2000년 1,383천명에서 2015년에는 846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농업의 신기술 개발 및 농업 경영능력을 저해하며, 장기적으로는 농업의 재생산구조를 악화시킬 것임

〈표 II-17〉 전국의 농업경영주 수(=농가수) 전망

(단위: 명)

구 분	합 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00년	1,383,468	7,270	84,246	237,737	348,067	479,485	226,663
2005년	1,224,148	1,271	36,269	187,137	295,905	414,466	289,101
2010년	1,036,768	305	11,508	106,137	262,182	330,123	326,424
2015년	846,941	171	1,999	45,363	205,179	277,176	317,05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6, 2006.

- 기업적 농업경영의 활성화
 - 규모의 경제 논리에 의해 영세적인 가족농에서 과학적 경영기법에 의한 기업적 농업경영이 확산될 것임
- 지역자원과 여건을 활용한 농산업 클러스터의 확대
 - 기존 지역의 특화작물 위주의 농산업 클러스터가 확대될 것임

■ 임업

-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임업의 침체
 - 견과류와 버섯류는 수출시장에서 중국 임산물 대비 가격경쟁력이 더욱 취약할 것임
 - 임산물 수출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 유지

〈표 II-18〉 농림축산물 수출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5년 잠정치	전 망				연평균 증가율 ¹⁾
		2006년	2009년	2013년	2015년	
합 계	2,223.8	2,458.1	2,978.2	3,415.8	3,683.5	5.2
농산물	1,901.8	2,134.4	2,613.7	3,015.2	3,254.6	5.5
축산물	172.2	184.5	236.9	320.8	360.8	7.7
임산물	149.8	139.2	109.9	79.8	68.1	-7.6
가공농림축산물	1,612.0	1,830.4	2,333.6	2,725.5	2,957.0	6.3
신선농림축산물	611.8	627.7	644.8	690.3	726.5	1.7
신선수출비중	27.5	25.5	21.6	20.2	19.7	-

주1: 연평균 증가율은 2005~2015년 기간 중 평균증가율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6, 2006.

- 웰빙문화와 5都2村 생활패턴 정착으로 산림·산촌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 산림·산촌이 갖는 생태적 기능과 임산물의 친환경 건강식품으로서의 상품 가치를 이용한 도시민을 위한 체험·휴양이 활성화될 것임

■ 축산업

- 축산시장 개방에 따른 지역 축산물의 경쟁력 약화
 - 한미 FTA 체결로 소고기, 돼지고기의 수입이 확대되어 지역의 한우, 양돈, 양계 등의 축산업의 약화가 전망됨
- 안전축산물 및 고품질 축산물의 수요 증대
 - 유전자조작, 인공사료에 의한 광우병 파동 등으로 안전축산물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이 강화될 것임
 - 소득증가와 웰빙 생활양식 확대에 따라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임

■ 수산업

- DDA, 한미·한중 FTA 진전에 따른 수산업의 위축
 - 수산보조금 감축과 관세인하로 지역수산업이 위축될 전망
- 어업자원, 어업인력 감소와 해양오염 가중
 - 해양오염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로 어장의 생산성 저하
 - 유능한 신규 어업인력의 감소 및 어업종사자의 고령화
- 고품질 수산물의 수요 증가
 - 식품안전, 웰빙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 및 수요 증가
 - 원료상태의 소비에서 일부가공 또는 전체가공 형태로 소비 변화
- 태안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서해안 수산업의 침체
 -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지역 수산물의 이미지 훼손
 - 장기간에 걸친 생태복원으로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 저하

다. 계획의 기본방향

■ 농업

- 저비용·고소득 농업구조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쟁력 제고
 - 규모화·기계화 영농에 필요한 농업기반 구축
 - 비용 절감이 가능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안정적 농업기반 구축
 - 표준적인 농작업, 농산물 물류표준화 기반 구축
 - 과학기술지식을 농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농업테크노파크와 연계 강화
 - 농산업 관련 신기술 개발 및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환경농업 시범마을과 환경농업지구의 확대 추진
 - 식량작물, 원예, 축산물에 대한 오염저감 생산체계 도입 확대 추진
- 지역 여건에 맞는 농산업클러스터 구축
 - 첨단 기술농업 구현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총괄하는 생산자단체 육성

- 가공형, 테마형, 광역 클러스터 등 차별적 농산업 클러스터 구축 확대
- 생산에 특화되어 있는 작목 위주의 클러스터 구축
- 부가가치 창출력 제고를 위한 클러스터 관련 주체의 네트워킹 강화
- 안전한 농산물 공급이 가능한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농산물 처리 및 가공·유통단계를 포함한 전(全)단계에서 안전체계 정립
- 유통 및 수출 활성화 지원정책 추진
 - 농산물 수요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판촉활동 강화
 - 유통전문 생산자단체 육성
 - 해외 농산물시장 개척 및 정보수집 활성화
 - 생산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수출전문생산단지 조성 및 항만 근접지역에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추진
- 기업적 농업경영 활성화 촉진
 - 영세적인 가족농에서 탈피하여 과학적 경영기법을 도입한 농업경영체로 변화 유도
 - 시장지향적 농업경영과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 전문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인력 육성
 - 농업종사자의 급속한 고령화추세에 따른 농업 공동화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기반 유지 및 농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수한 후계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
 - 청양대학(도립) 내 농업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학과 신설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쌀 산업 육성
 - 적정소득이 가능한 60천㎡ 이상의 규모화 된 전업농 육성
 - 영세농가는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 유도 및 소득직불제 지원
 - 고품질, 브랜드 쌀의 지속적 육성
- 명품 인삼 및 한방산업 육성
 - 인삼은 건강식품으로 검증된 대표적인 농산물이며, 신뢰성이 높고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가공·유통단계의 개선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
 - 생산단계에서는 생산이력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우수한 인삼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가공 및 유통단계에서는 제조업체의 건조시설 지원을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제고
 - 인삼 품질 제고 및 명품화 기반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확충하고, 인삼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

- GAP형 한약재 시범재배단지를 확대하여 한방산업의 메카를 조성
-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인삼 및 한방관련 학과와 연계를 강화하여 최신 생산기술 보급 및 가공·유통단계에서 상품성 제고, 향후 클러스터 추진

■ 임업

- 임산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촉진을 위한 산림·산촌 클러스터 조성
 - 견과류, 버섯류 고품질화를 위한 생산단지 조성
 -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 저장, 유통시설 연계 강화
 - 기존 특화작물 중심지역을 분류하여 구체적인 산림·산촌클러스터 추진(임산물 생산·유통주도형: 밤, 임산물 가공주도형: 구기자, 호두 등)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 환경친화적 경제수종 조림 및 산지관리체계 확립
 - 산림 생물자원의 생태적 균형 유지를 위한 보전관리체계 확립
 - 산불예방체계 선진화 및 진화장비 현대화
 - 숲 가꾸기 사업의 지속적 지원
- 전문 임업경영자 및 후계인력 육성
 - 사유림 비중이 높은 충남 특성을 반영한 경영전문교육 강화
 - 산림경영능력과 신기술을 갖춘 후계인력 육성 지원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축산업

- 시장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안전 축산물 생산체계 확립
 - 토마우 등 대표 축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
 - 축산물이력제도 확대 강화 및 지원
 - 품질경쟁력 갖춘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 안정적 축산물 공급을 위한 축산기반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사료 기반 구축
 -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환경의 조성
 - 축산농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료 급여율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기반 및 경종농가와의 연계성 강화
-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 축산분뇨 처리의 고도화 및 축산농가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체계 정비

- 순환형축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액비화사업 확대
- 지식기반 축산업 기반 조성
 -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 및 지식기반 축산업 기반 조성

■ 수산업

- 수산자원 조성사업 확대
 - 갯벌형 바다목장 추진
 - 지속적인 인공어초시설 및 패어망 수거
- 품질 경쟁력을 갖춘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 생산단계 생산물이력제 도입
 - 가공·유통단계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유통시설 현대화
 - 저가수산물과 차별화된 고품질 수산물 공급
- 자연환경과 연계한 미래형 수산업 육성
 - 수산업과 관광, 레저를 연계한 복합산업화 추진
- 태안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지역 수산업 경쟁력 회복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 농업

-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영농기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생산기반 시설의 지속적 확충
 - 기계화 영농을 위한 대구확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의 지속 추진
 - 농업용수 개발과 수리시설 개보수로 효율적인 생산기반 마련
-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 지원
 - 농업테크노파크의 성과를 농산물 생산에 연계하여 농산물 생산의 부가가치 제고
 - 우수 재배농업인이 농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교육 지원 및 인터넷 기반의 교육포털 구축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 일반 농산물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농업지구 확대 조성

- 계약재배, 소비자 직거래, 대형유통점 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의 구축
-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친환경순환농법 확대 정착
- 농산업의 복합화 촉진을 위한 농산업 클러스터 확대 추진
 - 지역별 특화작물의 육성을 위한 농산업 클러스터 구축
 - 인삼 등 전국적인 지명도를 보유하고 있는 작물을 대상으로 광역클러스터 체계 구축
 - 과학기술지식의 농산업 접목 확대
- 소비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농산물 생산이력관리제의 지속적인 확대 시행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 농산물 생산자인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간 교류 확대를 추진하여 농산물 직거래 확대 및 생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 충남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구축 및 대표 명품브랜드 육성·지원
 - 생산단계에서부터 출하단계까지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RPC를 중심체로 명미화를 지원하고, 관련 연구결과와 과학기술 지식을 집약화 할 수 있는 ‘충남 쌀 명미화 지원단’ 설립
 - 고품질 쌀을 브랜드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쌀의 브랜드 파워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도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벼가 다른 지역의 브랜드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품브랜드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책 추진
- 화훼류 생산기반 강화 및 판로 확대
 -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화훼류 생산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하우스시설 등 재배시설 확대 지원
 - 우량, 고부가가치 종묘의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
 - 화훼류 수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응책 지원 및 검역에 대한 정보 제공
- 인삼 등 한방산업 특화 육성
 -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인삼의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을 통하여 인삼산업의 메카로 육성
 - 인삼을 비롯한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연계 강화

■ 임업

- 산림·산촌 클러스터 육성으로 임산물 고소득 작목화
 - 생산 및 소비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작목을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고소득 작목으로 집중 육성
 - 산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단계적 추진 지원
 - 숲 가꾸기 사업 통한 경제수 조림과 육림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으로 임산자원 부가가치 제고
-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임업의 침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고품질화 전략 및 임업후계자 육성
 -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임산물을 포함한 임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품질화 전략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 이후 가공, 유통단계에 대한 과학적인 개선 추진
 - 일본 등에서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견과류와 버섯류 등의 수출 확대방안 지원
 - 임업의 침체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과 경영능력을 보유한 임업후계자 육성 지원
- 산림자원의 다원적 기능 제고
 - 산림자원은 경제적 가치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정화하는 기능적 측면의 경제적 가치 홍보
 - 수목원, 자연휴양림의 추가적인 조성으로 산림자원의 생태적, 다원적 기능을 통한 휴양객 확대
 - 산불감시 카메라 설치 등으로 산불피해 방지
- 한 마을 한 가정 내 나무 가꾸기 사업 등의 추진

■ 축산업

- 경쟁력있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이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
 - 고부가가치 축산물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사료 생산기반의 지속적인 조성
 - 생명과학 및 첨단기술을 축산업 생산에 접목할 수 있는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 설립·운영

- 사육단계에서부터 축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이력제 확대 시행
- 소, 돼지, 젓소 등 우수한 종축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축산물 육성
-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이 가능한 규모의 전업 축산농가 육성
- 안전한 축산물 생산의 기반이 되는 축사환경 제고에 필요한 선진화된 방역체계 구축
 - 축산분뇨 총량제에 대비한 효율적인 축산분뇨 처리시스템 및 공동 축산분뇨 처리장 구축
 -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갖춘 자동화된 축사시설 지원
 - 축종별 질병에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역체계 지원
-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
 -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하여 볏짚 등 조사료 기반의 안정적 공급 확보 및 자연순환형 축산 정착
 - 환경친화적인 축산농가 관리 및 축사개량의 인센티브 제공

■ 수산업

- 고품질 수산물 생산기반 강화
 - 기르는 어업으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이 가능한 갯벌형 및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확대 추진
 -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수산업 기반시설 강화
 - 인공어초 시설 확충
- 시장경쟁력을 갖춘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 수산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통의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 유통단계에서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한 어업경영 개선
 - 어족자원 남획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어업인 지원체계 구축
 - 연근해 어업에 대한 단계적인 구조조정 지원
-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지역 수산업 경쟁력 회복

- 지역 수산업의 활력회복을 위한 마케팅 등 시장개척 강화

■ 농·림·축·수산업의 복합화, 다각화

-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체험관광을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 생산현장을 도시 소비자에게 개방하고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체험관광 및 주말농장 활용으로 농가의 농외소득 제고
- 산림자원을 활용한 복합산업화 추진으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
 - 생태체험과 임산물 판매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견과류 및 버섯류 가공·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소비자와 직접 연계
 - 산림의 생태적 가치와 임산물의 효능을 홍보
- 축종별 전문조합화 지원으로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일관화
 - 축산물 가공작업장 조성 및 확대 지원
 - 축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 계열화
 - 전문경영인 영입 및 조합원수의 증가 유도
- 해양관광자원과 수산업, 화훼산업의 연계
 - 서해안 관광자원과 화훼단지를 연계하는 패키지 구축
 - 생태자원인 갯벌을 활용한 갯벌 체험형 관광산업 강화

〈표 II-19〉 농림축수산업 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개발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생명과학에 기초한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업 육성	생산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획경지정리(367백만㎡)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5,400km) · 발기반 정비(106백만㎡) · 중·소규모 용수개발(13백만㎡) · 지표수 보강개발(54개 지구) · 농촌생활용수 개발(1,291개소) · 배수개선(304백만㎡) · 방조제 개보수(133지구) · 한발대비 용수개발(87백만㎡)
	농업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업 기술 개발 및 보급(1식) · 농업테크노파크와 연계한 과학영농 추진 · 벤처농기업 창업 지원 · 무·배추 물류표준화 촉진 지원(228개소)
	영농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수채소원예단지 기계공급(6,000대) · 과실생산영농자재 공급(15개 시·군) · 대형농기계 지원(60개소, 15개 시·군) · 소형농기계 지원(6,400대) ·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2백만㎡)
	친환경농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10,020백만㎡) · 친환경인증비 지원(29,000건) · 친환경농자재 지원(205백만㎡) · 천적방제지원(3.5백만㎡) · 친환경 체험마을 조성(20개소) · 자연순환형 친환경농법 확산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41개소) ·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 다양화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확대
	농산업클러스터 조성	· 가공형, 테마형 농산업클러스터 조성(6개소)
	유통체계 개선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25식)
	고부가가치 충남 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천㎡ 이상의 규모화 된 전업농 육성 · 충남 쌀 명미화단지 조성(23개소) · 경쟁력 있는 우수브랜드 육성(35식) · RPC를 충남 쌀 유통의 중심체로 육성(159기) · 산물벼 처리를 위한 건조·보관능력 확충(16개 시·군) · 벼 공동육묘장 설치(192개 동)
	FTA지원사업 (과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1식) · 수확 후 고품질 일관처리시설 지원 · 수출단지 확대 조성 ·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 사과·배·포도 재배면적 및 농가 구조조정(80개소)
	화훼산업 육성	· 화훼단지 조성(9개 단지)
	한방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형 한약재 시범재배단지 확대 · 인삼 및 한약재 제조업체 건조시설 지원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산림자원의 생태적·경제적 가치 제고 지원	임업생산기반 확충	· 경제수 조림(255백만㎡) · 임도망 개설(792km)
	임산물 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	· 임산물 소득지원(16개 시·군) · 산촌 클러스터 구축(1개소)
	경제자원화 및 산림보호 강화	· 숲 가꾸기 확대를 통한 자원화 촉진(16개 시·군) · 산림재해 예방능력 강화(16개 시·군) · 산림병해충 방제(1,320천㎡) · 산불통합관리시스템 구축(감시카메라 10대)
	임업경영주체 육성	· 독립가·임업후계자 지속 발굴 육성(16개 시·군) · 산림조합 사유림 경영 육성자금 지원(16개 시·군)
	산림의 휴양관광자원화	· 수목원 조성(3개소) · 자연휴양림 조성(1개소)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과 유통 지원	축산 경쟁력 제고 및 바이오산업 육성	·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 조성(1개소, 청양) ·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3식) · 축산 전업농가 육성(13종) · 가축(종축)개량(3종, 소·돼지·젖소)
	축산경영 및 사료수급 지원	· 축산물브랜드 활성화(10개소)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240개소)
	안전축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 축산물 작업장 시설지원(20개소) · 도축검사 시설지원(1개소, 가축방역 지원본부) · 축산분뇨처리시설 확충(3,000개소)
	선진화된 방역체계 구축	· 가축방역사업 추진(3,600백만 마리) · 공동방제단 운영(500개소) · 소독약품 지원(50,000호) · 가축전염병 컨설팅(1,500호)
미래형 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	생산기반 확충	· 수산종묘 매입 방류(250종) · 기반시설(6개 시·군) · 김유기산 구입(3,500톤) · 인공어초시설(226,040천㎡) · 양식어장 소독제 지원(1,700톤) · 갯벌형 목장 추진(1개소) ·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2개소) · 연안자원 조성(13,500천㎡)
	신선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 수산물 유통의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어업경영 개선	· 어업인 경영지원 확대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420척)

2. 제조업의 지식기반화와 신성장산업의 혁신클러스터화

가. 현황과 문제점

1) 제조업의 위상과 업종구성 변화

■ 제조업의 성장과 전략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

- 2004년말 기준으로 충남의 제조업체수는 총 3,820개소로 전국의 3.4%, 월평균종사자수는 157,850명으로 전국의 5.6%를 점유하고 있고, 생산액은 65조4,260억원으로 전국대비 8.2%로 사업체수나 종사자수 비율보다 월등히 높아 전국대비 고부가가치산업이 많음
- 최근 10년간 충남의 제조업체수는 연평균 3.9%씩 증가하여, 동 기간 전국 제조업체수의 연평균 증가율 1.8%를 상회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종사자수에 있어서도 동 기간 전국은 0.6% 감소한 반면, 충남은 연평균 3.9%씩 증가하여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표 II-20〉 충남의 제조업 현황(1995~2004)

(단위 : 명, 개소,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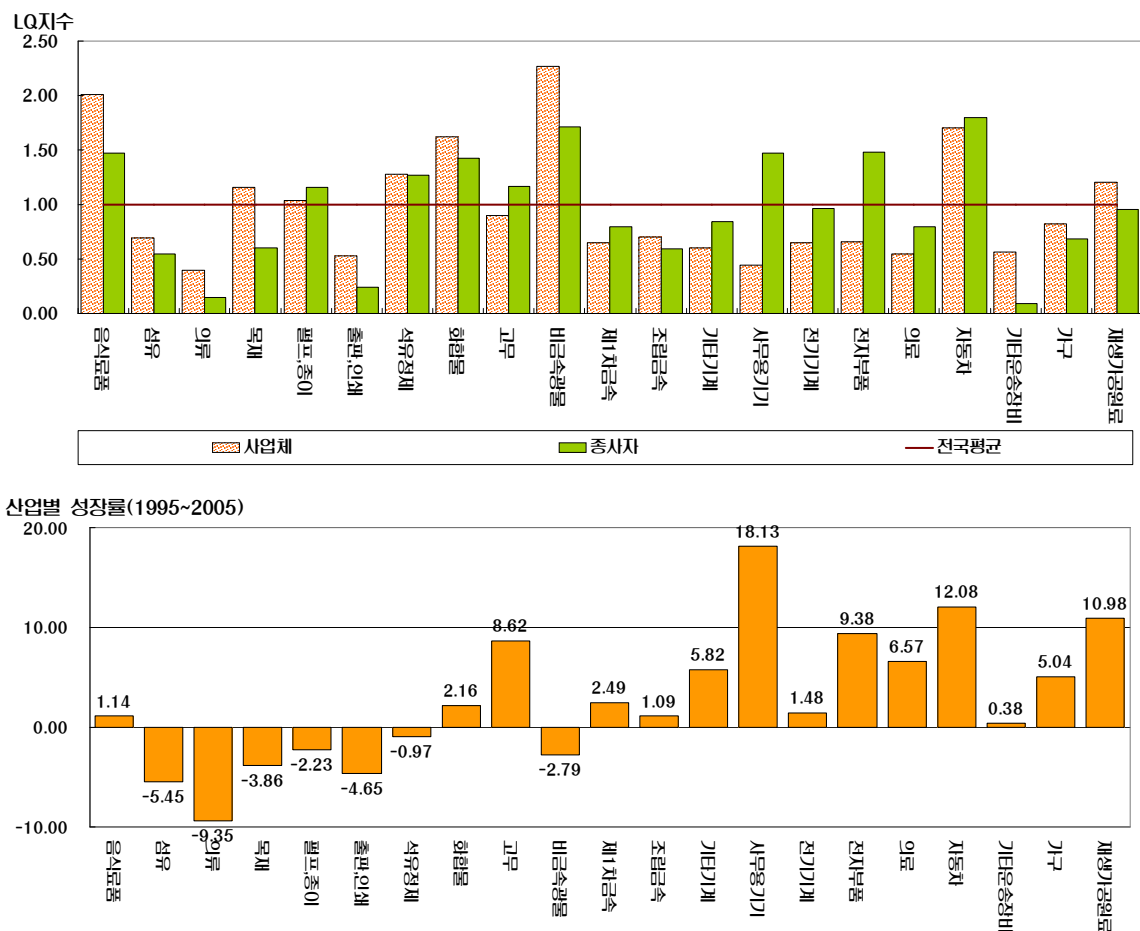
구 분		1995년	2000년	2004년	연평균 성장률		
					'95-'00	'00-'04	'95-'04
제조업체수	전국(A)	96,202	98,110	113,310	0.39	3.67	1.84
	충남(B)	2,715	2,893	3,820	1.28	7.20	3.87
	B/A*100	(2.82)	(2.95)	(3.37)	-	-	-
종업원수	전국(C)	2,951,885	2,652,590	2,798,192	-2.12	1.34	-0.59
	충남(D)	112,354	129,484	157,850	2.88	5.08	3.85
	D/C*100	(3.81)	(4.88)	(5.64)	-	-	-
생 산 액	전국(E)	364,821,270	564,834,119	794,853,174	9.14	8.92	9.04
	충남(F)	15,071,065	39,131,782	65,425,929	21.03	13.71	17.72
	F/E*100	(4.13)	(6.93)	(8.23)	-	-	-

주: 제조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은 5인이상 제조업체 기준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해당년도

- 충남지역은 입지계수(LQ)분석에 있어 전국대비 음식료품, 화합물, 비금속광물제품, 사무용기기, 전자부품, 자동차 등의 산업이 특화되어 있음
- 최근 10년간 충남지역은 사무용기기와 자동차, 재생가공원료, 전자부품 등의 산업이 급성장하고, 기존의 섬유·의류, 목재·펄프·종이, 출판·인쇄 등의 산업은 쇠퇴고 있어, 전체적인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

〈그림 II-9〉 충남의 제조업 입지계수(LQ;2004) 및 최근 10년간 산업부문별 성장률



2) 4대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혁신기반의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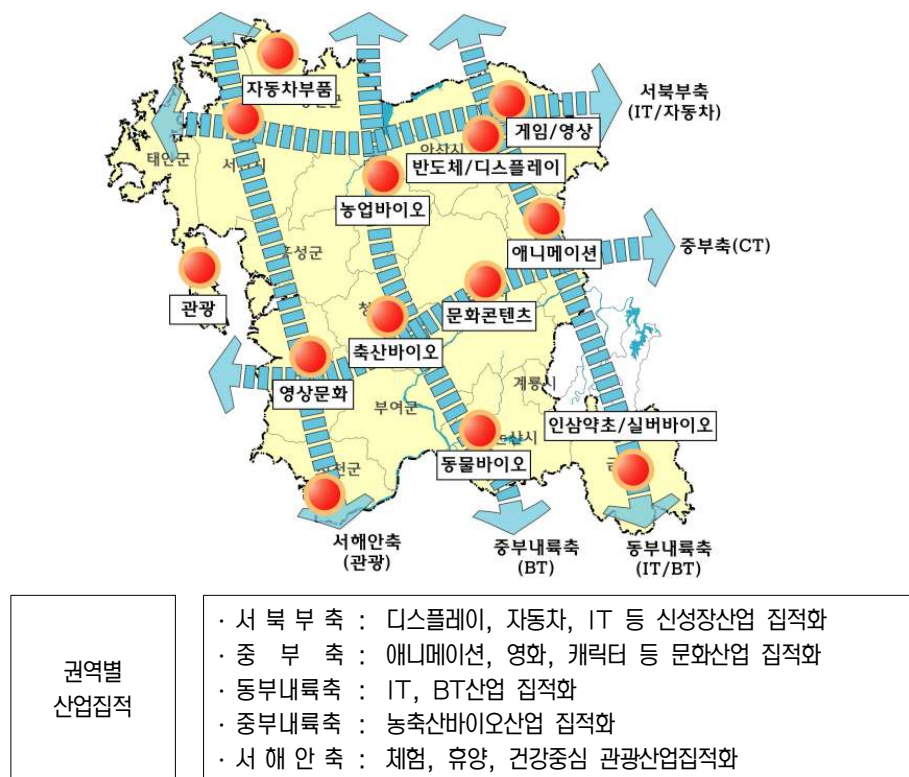
■ 충남 4대 전략산업의 추진과 산업간 연계구조 미흡

- 충청남도는 2004년 수립된 「충청남도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근간으로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농축산바이오, 첨

단문화 등의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우 완제품의 조립 및 생산은 지역내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재·부품·장비 등의 제조업체가 해외 또는 수도권지역 등에 분포되어 집적의 효과를 높이지 못하고 있음
 - 아산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소재·부품의 85%를 수도권지역 (48%)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등 주요 소재 부품의 역내 공급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그림 II-10〉 권역별 클러스터 형성 체계도



자료 : 충청남도, 충청남도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2004.

-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우는 일정 부분 집적을 이루고 있으나, 업체의 규모나 재정구조가 취약해 부품업체들의 연구개발 비율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주요 자동차부품의 기술경쟁력이 취약함
 -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생산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80%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술개발능력은 7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농축산바이오산업은 농업테크노파크,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 동물자원화센터 등을 거점으로 친환경 농축산 기술보급 및 사업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1차 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로 신산업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첨단문화산업은 천안·아산시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산업적 기반이 미약하고, 영상관련 전문기업이 적고 생산 활동 역시 취약함

■ 기업지원기능의 미흡과 전문인력의 부족

-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기업지원기능에 대한 만족도조사에서 75.5%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 지자체 및 기업지원기관의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실태조사결과,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분야는 기술 및 연구개발지원(57.9%), 교육훈련지원(15.8%),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협력 지원(10.5%), 금융지원(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생산라인에 투입할 공업고등학교 및 전문대 출신의 인력이 부족하며, 기존 인력의 전문성 및 자질 결여, 대기업 선호에 따른 잦은 이직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상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기업은 석·박사 이상의 고급 연구개발 인력 및 생산직 인력 부족, 교육과정과 산업현장간의 괴리 등에 따른 인력의 전문성 결여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기업의 입지수요 증가와 산업용지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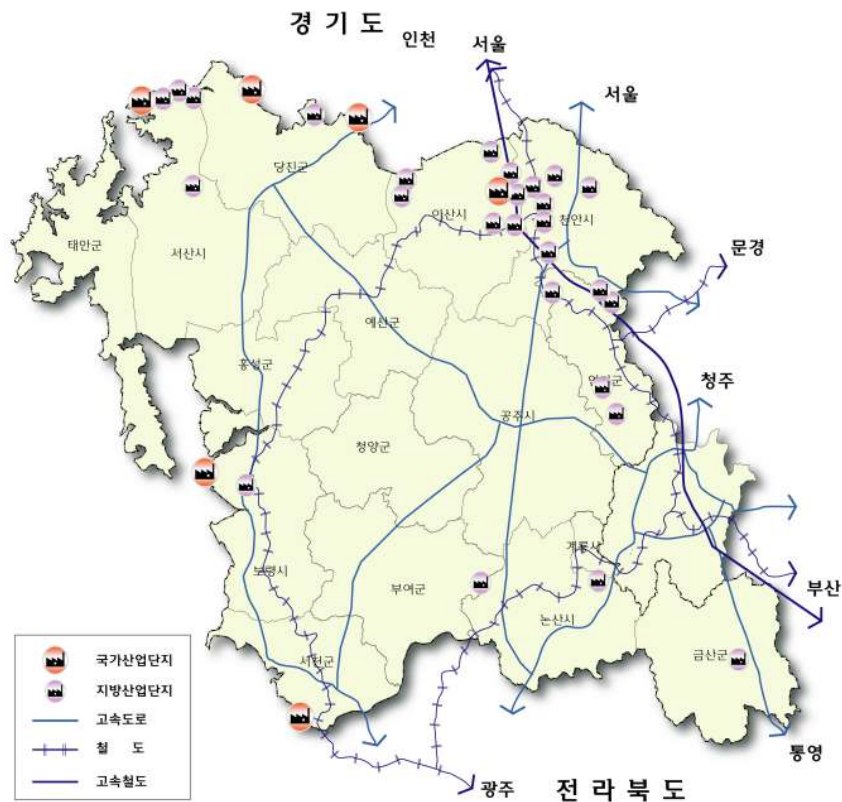
- 2006년 3월말 현재 충남의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6개소, 지방산업단지 24개소, 농공단지 71개소 등 총 104개소가 있음
- 충남의 산업입지 수요는 특히 천안과 아산 등 충남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용지 부족으로 도내로 기업이전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21〉 충남의 산업단지 현황

구 분	단위	계	국가	지방	농공	기타
단 지 수	개소	104	6	24	71	3
지정면적	천㎡	88,658	37,365	31,115	11,096	9,082
분양면적	천㎡	46,135	9,969	19,975	7,981	8,210
입주기업수	개소	1,318	121	388	778	31
고용인원	명	70,666	5,902	38,523	22,863	3,378

자료: 충청남도, 산업단지현황, 2006. 3.

〈그림 II-11〉 충남의 산업단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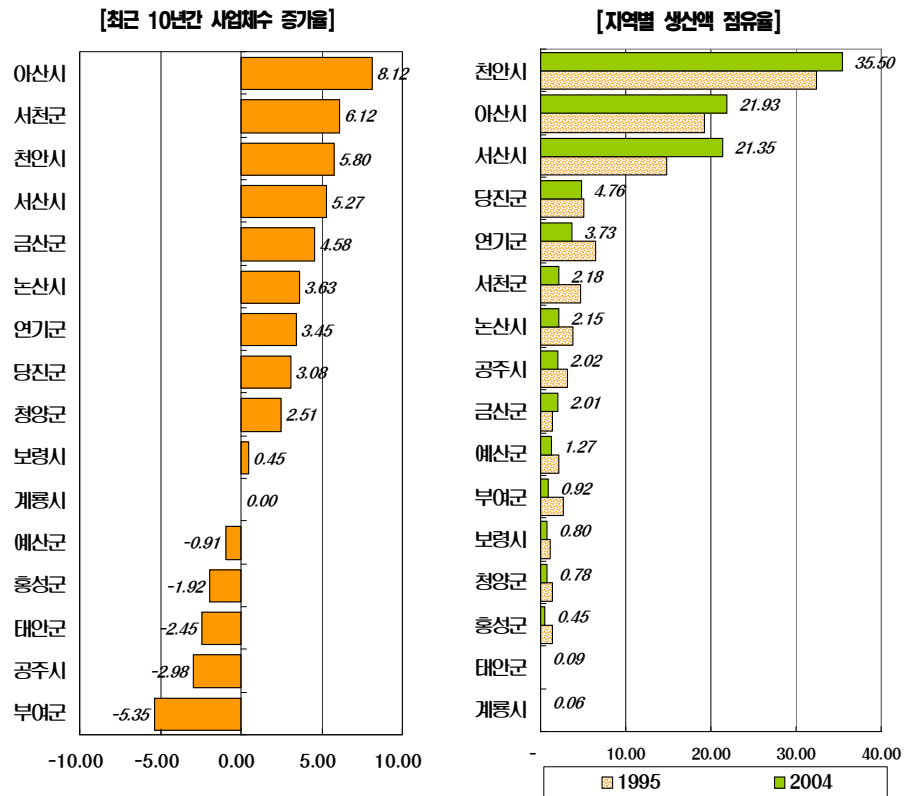
3) 도내 지역간 경제력 격차 심화

■ 북부권 중심의 산업집적 강화로 인한 지역간 경제력 격차 심화

- 2004년을 기준으로 도내 제조업체가 가장 많은 집적을 보이고 있는 곳은 천안·아산·서산 등의 북부지역으로, 충청남도 전체 제조업체의 54.9%가 집중되어 있음
- 제조업체수의 증가율에 있어서도 아산(8.1%), 천안(5.6%) 등의 순으로 16개 시·군중 가장 높게 나타나며, 산업집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내륙지역인 부여군과 공주시 등의 지역은 사업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계룡, 태안, 서천 등 5개 시·군은 사업체수가 100개에도 미치지 못함
- 시·군간 제조업 생산액의 경우 북부지역의 천안, 아산, 서산의 비중이 각각 35.5%, 21.9%, 21.3%로 충남 전체의 78.7%를 점유하고 있으며, 1995년에 비해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지역내 제조업 생산액이 낮은 지역으로는 보령시(0.8%), 부여군(0.9%), 청양군(0.8%), 홍성군(0.5%), 태안군(0.1%), 계룡시(0.1%) 등으로, 대부분 서해안의 관광산업 중심지역이거나 내륙의 농축산업 중심지역임

〈그림 II-12〉 지역별 사업체수 증가율 및 생산액 점유율 변화



나. 여건변화와 전망

1) 산업여건 및 구조변화 전망

■ 지식정보기반 경제로의 이행

- 세계화, 정보화의 발달에 따라 생산요소로서의 지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지식기반경제시대가 도래함
-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지식은 많이 축적될수록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더욱 용이해지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하며 축적된 지식은 혁신 창출의 기본요소로 작용함

- 전 산업에 있어 지식기반화가 중요시되고 있고, 지식기반산업은 21세기 경제발전을 주도하여 2010년 산업생산의 48.6%, 수출의 54.1%, 고용의 48.4%를 분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지역혁신체계의 중요성 증가

- 기업간, 산·학·연간 상호교류에 의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산업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산업정책도 기존의 개별 기업이나 부문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화된 산업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며, 네트워크경제 확보를 위한 지역산업군집의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기술융합화의 진전으로 이업종간 교류 증대 및 환경산업의 대두

- 정보통신과 생명공학의 결합에 따른 바이오인포매틱스의 출현 등 기술간 융합화를 위한 업종간, 기업간 교류가 더욱 증대될 것임
- 환경보전을 위하여 무역규제를 포함하는 각종 환경협약이 체결되고, 환경목적의 달성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 광범위하게 대두
 -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권 보장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환경설비 산업의 국내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1991년 8천억원에서 2001년 5조원 규모 성장, 한국은행)이므로, 이를 선도하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대덕R&D특구 지정,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지역변화의 확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역산업정책 방향정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인접한 대덕R&D의 발전도 가속화될 전망임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대덕R&D특구의 고급 연구개발 기능을 산업화함에 있어 충남지역은 다양한 산업용지를 제공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음
- 또한 도청이전신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농업중심지역인 홍성·예산지역에도 산업화가 촉진될 것임

■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주변지역간의 상생협력의 필요성 증대

- 충남은 전자정보기기, 자동차관련 산업은 매우 발달해 있지만, 전반적으로 산업적 다양성이 부족하고 R&D역량 및 혁신역량도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음
- 그러나 산업연구원의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전, 충남, 충북을 포괄하는 충청권을 하나의 집적지로 간주한다면, 반도체, 생물, 정밀기기 등에서 전국 10%이상의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음
- 향후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지역자원에 근거한 각 지역의 연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임

2) 산업입지 수요전망

■ 산업 입지수요의 지속적 증가

- 충남의 산업입지 수요는 특히 천안과 아산 등 충남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가용 산업용지 부족으로 도내로 기업이전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지역간·산업간 연관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다지역 투입산출모형(MRIO model)을 이용하여 도내 각 권역별 산업용지 수요를 예측한 결과, 향후 2020년까지 충남 전체적으로 총 74,891천m²의 산업용지 추가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산업용지 수요예측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 업종별 최종수요 변화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의 식을 통해 이루어짐

$$\Delta N = \hat{S} \cdot (I - CA)^{-1} \cdot C \cdot \Delta F$$

Δx : 변수(벡터) x 의 변화분, N : 토지수요,

\hat{S} : 토지량 투입계수(S_j^r , j : 산업부문, $r(s)$: 지역)의 대각행렬,

I : 항등행렬, C : 지역간 교역계수(c_j^{rs})행렬, F : 최종수요

- 산업용지 수요예측을 위해 충남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한 다지역 투입산출표가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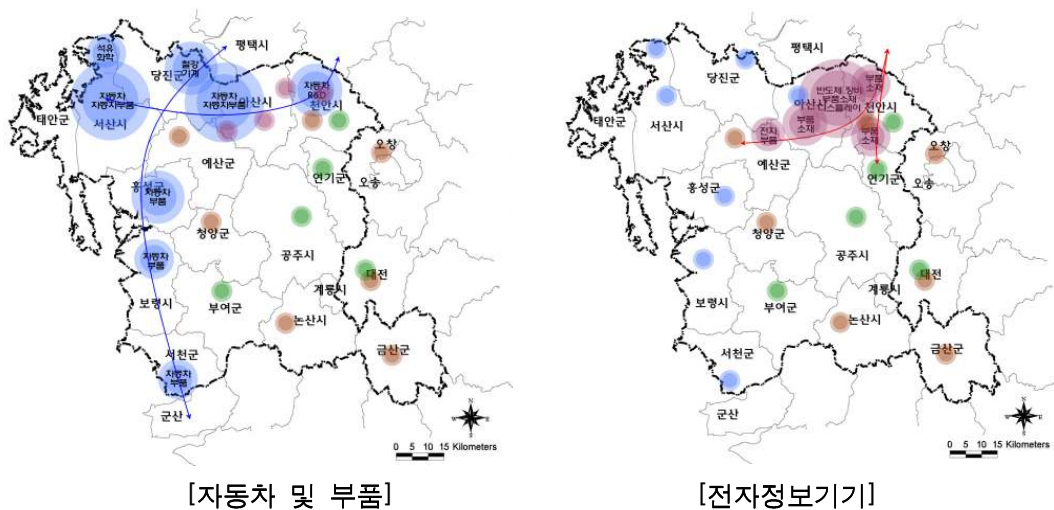
- 따라서 산업용지가 생산활동을 위해 투입되는 본원적 생산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충남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입지 공급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특히 권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용지 공급과 충남 4대 전략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을 중심으로 업종별로 산업용지 공급이 필요함
- 또한 충남 내 권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낙후권 역들의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 산업입지 공급규모 확대가 전략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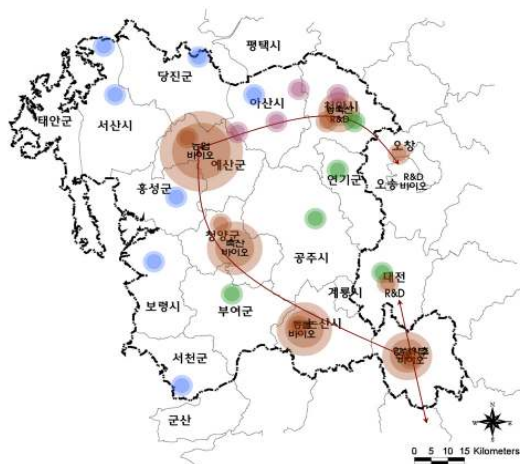
다. 계획의 기본방향

■ 충남 4대 전략산업의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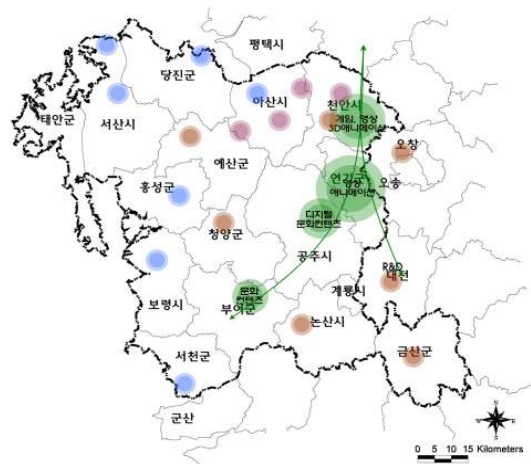
- 현재 전략산업별 집적지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기관·기업지원기관의 유치와 동종·유사업종 중심으로 산업집적화 추진
- 생산단지와 교육,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이 종합된 복합 클러스터로 육성
-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연구개발, 지식의 창출 및 공유
- 전략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직업교육 강화

〈그림 II-13〉 충남 4전략산업의 집적현황과 발전방향





[농축산바이오]



[침단문화]

■ 새로운 지식기반 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 지원

- 기존산업과의 연관이 높은 분야에서부터 출발하여 지역산업 여건 및 가용자원 규모를 고려한 새로운 지식기반 산업의 육성
- 산업화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를 적절히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산업의 육성
- 기업본사·R&D기관 유치와 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통한 업무도시 기반 조성
- 벤처창업과 R&D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도내 정착 지원
- 기업기술지원 및 산·학·연 연계지원을 위한 거점시설 유치

■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 북부지역의 산업집적지와 더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기업 및 지원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적극적인 기업지원 서비스업을 육성
-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특성화된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특성화된 인력지원시스템 구축
- 경영컨설팅, 기술지원, 정보, 마케팅 등 전문적인 생산지원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내 제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
- 대학과 산업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기술의 상용화 및 기업이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 수립

- 지역내의 혁신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지원
- 기술개발 및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 인접지역과의 광역협력체계 구축

- 인접 시·도간 공동연구개발 지원 및 해외 관련 클러스터와의 공동교류 등을 통한 경제협력 추진
- 인접지역과의 공동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협력체계 구축

■ 산업집적 촉진을 위한 생산기반 확대

- 충청남도의 전략산업 육성계획과 부합된 생산기반 강화
- 도내 각 권역의 경제 및 산업 활동 특성과 여건에 부합되는 특화 산업단지 조성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1) 충남 4대 전략산업의 육성

■ 디스플레이 및 전자·정보기기 클러스터 구축

- 천안·아산 등의 서북부권 지역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디스플레이 기술혁신 창출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 － 생산단지와 교육,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이 중합된 복합클러스터 조성
 - － 탕정2산업단지 조성,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조성, 천안 5산업단지 조성, 삼성SDI시설 확장 등 관련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혁신클러스터의 기반 구축
- 부품·소재 장비산업 지원체계 구축과 디스플레이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운영
- 기업이용 활성화를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인증·평가센터 설립
- 전자정보기기의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마련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디스플레이 산업에 요구되는 맞춤형 전문인력, 장비기술인력 및 중견 전문인력 양성

-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공장 신·증설 및 기업유치를 통한 세계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Display특구 지정

■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 자동차·부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의 기반시설 확충과 R&D 기능 강화
 -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지원을 위한 자동차·부품산업 R&D집적화센터 건립
 - 자동차 전장부품 내구성 향상 시스템 구축,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기반구축, 자동차 샤시부품 내구성 향상 기반 구축 등을 통한 자동차 R&D 기능의 집중 육성(전장부품 분야의 특성화 추진)
- 완성차 및 부품산업 연계를 위한 자동차·부품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 미래형 자동차 분야의 특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자금지원
- 해외 첨단부품업체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및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대비한 해외 마케팅 강화

■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 국제경쟁력을 갖춘 온라인, 모바일 등의 영상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영상·애니메이션테마파크 등을 통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시설 조성
- 사이버 전국체전 개최를 통한 영상문화산업의 대외적 홍보를 통해 충남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및 영상미디어산업 인지도 제고
- 교육아카데미, 창작영화제 등을 통한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
 -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기업의 전문성 제고 및 창업 유도

■ 충남BIO산업 육성

- 충남동물자원센터 설립, 생물실용화센터 설립 등을 통한 연구개발 및 창업시설, 신제품 생산 등의 동물자원활용산업의 육성
- 지역특화 바이오기술 개발사업을 통한 동물사료, 사료첨가제, 동물백신 등의 연구개발지원
- 축산관련 바이오신제품 개발 및 생명공학 벤처기업 육성과 도내 정착을 위한 시책개발

- BT와 IT를 결합한 신산업 육성
 - 영상의료(측정)기기 및 첨단 의료기기 등의 신산업 창출
- 초광역(충청권)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 바이오산업을 대전의 R&D, 충남과 충북의 생산기능을 결합한 바이오 관련 산업 집적지 조성 및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추진
 - 정책자문단, 기술연구회, 바이오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바이오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업 지원
 - 연구개발 중심 산업체의 적극 유치 및 인센티브 제공

2)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 지원

■ 이업종간의 기술교류를 통한 기술융합 산업 육성

- 이업종간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공유,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 이업종 교류회 운영
- 전자정보, 자동차, 통신 등 다수 이종 기술간 융합기술 기반 조성을 통한 텔레메틱스산업 육성
 - 충남의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융합산업 육성(벤처창업 지원)
- 기술인증 시스템과 표준화 지원
- 기술융합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구축 및 산·학·연 연구인력 네트워크 및 인력DB 구축

■ 환경산업, 나노산업 등의 미래지향적 산업 육성

-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술기반 조성
 - 환경산업 및 환경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지원, 환경산업혁신기반 조성 및 환경산업체의 유치
 - 환경산업의 산업화 촉진, 환경 벤처창업 및 실용화 지원
- 새로운 혁신기술 창출을 위한 나노산업 육성
 - 나노팹센터 구축사업 지원을 통한 전국 최첨단 시설인 NNFC의 효율적 활용
 - 나노소재, 소자, 공정 등을 중심으로 One-stop System 구축

■ 연구개발 중심의 집적지구 조성

- 연구개발 중심의 R&D집적지구 조성
 - 대덕R&D특구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고, 특화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기능과 벤처창업 등의 생산기능을 갖춘 집적지구(Smart 단지) 조성
 - 기술이전조직, 연구개발 컨설팅업체, 금융기관 등 기업지원기관 등의 유치
- 신기술 및 지식 집약형 테크노폴리스 조성
 - 천안밸리 배후단지, 서산 성연면 일원의 테크노폴리스 조성
 - 신기술, 지식 집약형 미래기술 육성을 위한 기술산업단지화 추진
 - 최적의 기업지원을 위한 종합 인프라 구축 및 지역기술혁신체제의 거점 역할 수행
- 연구기관, 첨단R&D기능 중심의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
 - 수도권외의 연구개발 기능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다국적 기업 및 연구소, 첨단R&D기업, 금융들을 집적화시켜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육성시키기 위해 천안·아산 인접지의 비즈니스파크 조성

■ 유헥장비의 효율적 운영

- 기업 및 지역내 유헥장비의 효율적 활용
 - 대학 및 산업체 보유의 유헥 기자재 또는 운영비용의 과다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기자재를 직접 관리·운영하기 위한 경제지원센터설립

■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과학기술기반 확충

- 대학의 연구인력과 개발성과를 중소기업의 생산기능에 접목시켜 시제품 개발 및 공정·품질개선 등의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추진(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
- 지역혁신센터(RTC)의 효율적 활용
 - RTC의 공동장비활용으로 기업의 구입비용절감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 대학과 기업간 공동기술연구개발, 장비구축 시험 및 생산 지원
 - 대학 및 기업 신기술에 대한 사업화 촉진
- 산학협력 영세기업 기술개발 지원
 - 기술 및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에 대한 생산현장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 매년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무료 컨설팅
- 창업보육업체의 도내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및 시책 개발

3)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체계 구축

■ 기업·현장 지향형의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 경영활동과 기술 및 품질 등 각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One-Roof-Service) 구축
- 전략산업중심의 기업정보 및 지원정보의 쌍방향 D/B화를 통해 산업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기업지원
- 중소기업의 대외 경제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 경제정보 DB구축을 통한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정보 제공(국내외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가공·분석)
 - 기업 투자 대상지에 대한 사전타당성 컨설팅, 기업투자, 철수 등의 사업타당성 컨설팅 수행
- 남부지역 기업민원의 신속한 해결 및 지역간 균형서비스제공을 위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 설치

■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투자 펀드 조성
 -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융자가 아닌 투자방식의 공공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창업에서 성장까지 필요한 자금의 직접투자
- 혁신형(기술경영)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지원
- 충남경기 상생중소기업펀드 조성

■ 중소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수출 지원

-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계기 마련
- 수출기업화사업 및 맞춤형(기업별) 해외시장 개척사업
- 수출업체 수출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

- 해외무역관의 수출지원, 인터넷 무역지원, 해외사무소 운영

■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 강화

- 전문가중심의 투자유치전담부서 설치
 - 투자유치 전문가 채용을 통한 전문투자유치 업무 수행
- 연구개발기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 분양가 차액보조, 토지취득비, 입지보조금 등의 입지 지원
 -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기업 지원
- 유망기업 및 지역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토지 취득 매입비 지원
 - 충남도내로 이전해오는 기업(본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4) 인접지역과의 광역협력체계 구축

■ 경제협력체계 구축

- 인접 시·도간 경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 구성 및 운영
 - 인접 시·도간 산·학·연의 정보 및 기술교류를 위한 만남의 장 마련
- 공동연구개발 지원
 - 충남에 연고를 둔 기업체가 기술개발을 위해 타 지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 지원
- 전략산업별 공동 국제협력
 - 해외 연관 클러스터와의 교류 활성화 지원
 -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분야 대학원생 및 해외기술자의 공동 유치 등을 통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 지원

■ 전략산업 중심의 초광역협력체계 구축

- 인접시도(경기, 대전, 충북, 전북)간 광역적 경제협력 지원
- 충남과 경기도간의 상생발전협약의 지속 추진
 - 접도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 자동차 및 부품산업 초광역클러스터 구축, 디스플레이 산업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 대전·충북과 연계한 초광역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 전북의 완성차업체와 충남의 부품산업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표 II-22〉 충남 인접 시·도의 유사 전략산업

구 분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경기도	자동차 및 부품,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충청북도	전자정보기기, 바이오산업
전라북도	자동차 및 부품산업

■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로서의 경제자유구역 공동 지정

- 충남 서산, 당진, 아산 일원과 경기 평택, 화성 일원을 네트워크형 개발을 통한 지식창조형 경제특구 건설
- 일반적 국제교역을 지양하고 對중국 수출입 전진기지로 육성
 -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로서 경기도와 공동으로 육성하며, 장항산업단지를 포함하는 군장국가산업단지를 최첨단부품소재 생산 클러스터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전북과 공동 지정
- 지정면적 41,894천m²(개발면적 29,491천m², 유보지 12,403천m²)

〈표 II-23〉 도입기능별 개발면적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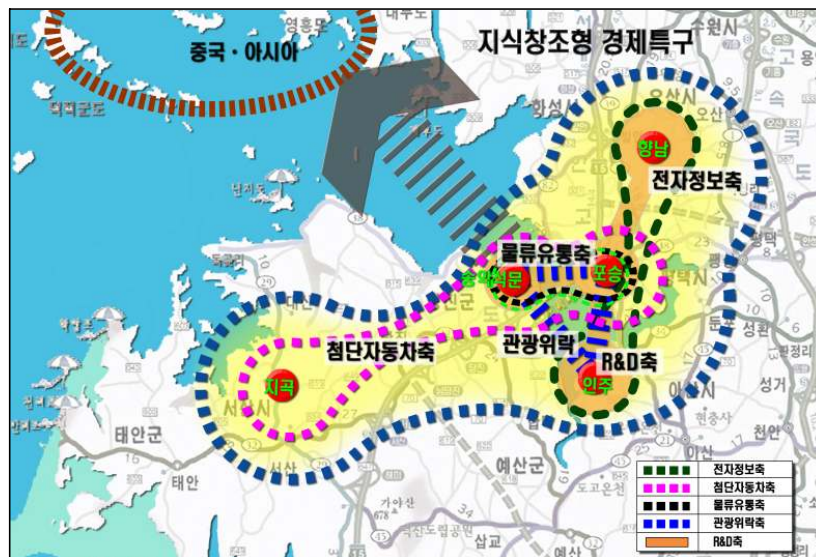
도입기능	첨단산업	물류유통	국제·상업	관광위락	교육주거
면적(천m ²)	17,474	2,962	2,635	1,557	4,863
비중(%)	59.3	10.0	8.9	5.3	16.5

자료 : 충청남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현황

- 첨단생산 및 연구개발 : 국내산업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첨단산업 생산기능과 R&D기능 집중
 - 주요시설 : 첨단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복합R&D단지
- 물류·유통 : 동북아권 지역중추항만으로서 부가가치 물류 중심으로 개발
 - 주요시설 : 컨테이너유통단지, 국제물류유통단지(물류+단순가공조립)
- 관광·위락 : 경제자유구역내 내·외국 거주민의 여가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

- 주요시설 : 마리나 리조트 등 해양위락시설, 골프장, 호텔 등
- 국제업무 : 경제자유구역내 첨단생산·연구개발기능, 평택·당진항의 국제물류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연계기반시설로서 도입
 - 주요시설 : 국제업무센터, 컨벤션센터·전시장, 업무지원시설, 기업지원종합서비스센터(One-Stop Service), 대형쇼핑몰, 오피스텔, 문화시설 등
- 교육·주거기능(배후도시) : 양질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수준높은(국내, 외국) 교육시설 도입
 - 주요시설 : 외국인학교, 산업기술대학, 국제전문대학원, 의료시설, 첨단주거단지, 레저·스포츠센터 등

〈그림 II-14〉 황해 경제자유구역 구상도



5) 산업집적 촉진을 위한 생산기반 확대

- 충남 전체적으로 기업의 신규 유치 및 수요에 충분히 대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공급규모 확대
 - 2020년까지 천안 제5지방산업단지, 사곡지방산업단지 등 총 74,891천㎡의 산업단지를 조성
- 낙후권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산업단지 공급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
- 논산·계룡의 국방산업, 금산의 한방바이오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의 산업화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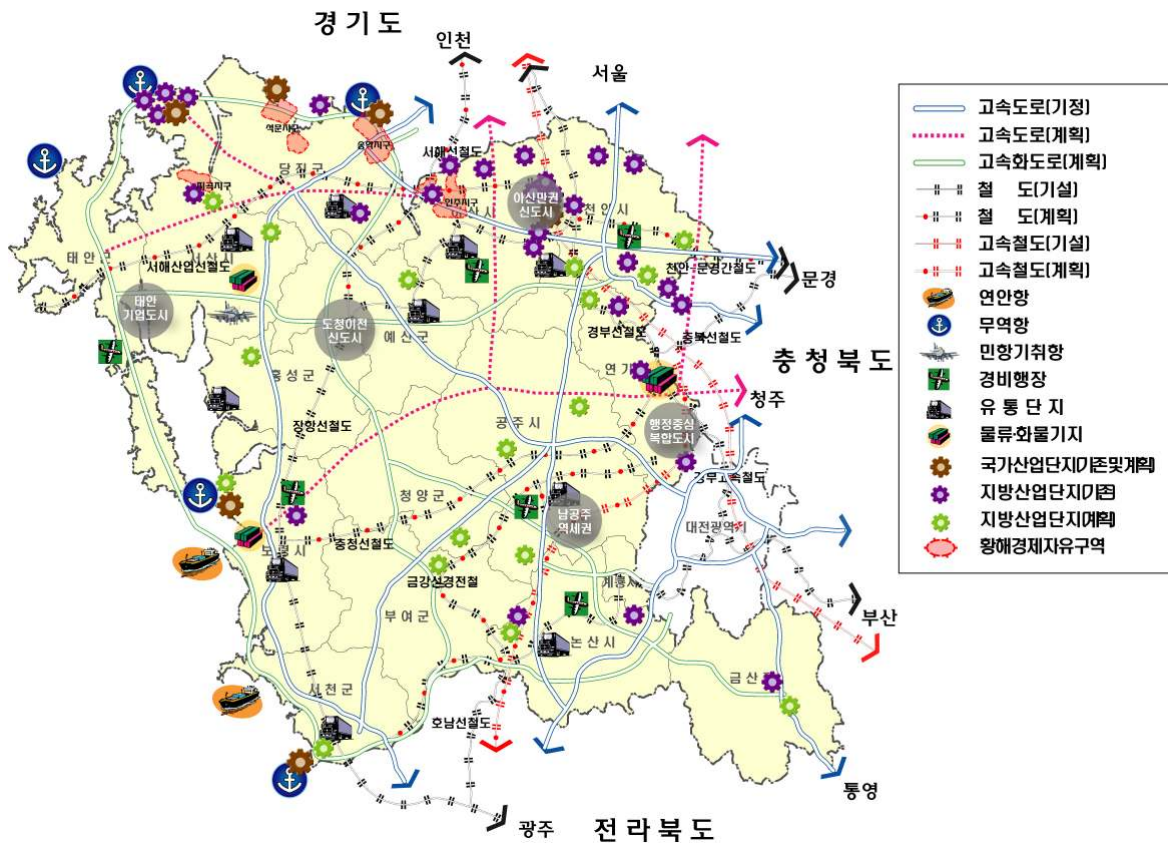
〈표 II-24〉 산업단지 조성계획

(단위: 천㎡)

구 분	기조성면적 (2006년 1/4분기 현재)	추가조성규모 (2006년~2020년)
충청남도	51,149	74,891

- 무분별한 개별입지 확대를 지양하고, 계획적인 차원에서 산업집적을 통한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
- 업종간 연계 강화 및 산·학·연 협력 강화 등을 도모하여 클러스터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배치
- 쾌적한 생활환경과 생산환경이 조화되는 다기능 복합 산업단지 조성

〈그림 II-15〉 산업단지 계획도



〈표 II-25〉 제조업 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사업
4대 전략산업의 육성	전자정보기기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 건립(아산 음봉, 9,740㎡) · 디스플레이협력단 운영 · 반도체장비 기술인력 양성(279개소)
	자동차부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부품산업 R&D집적화센터 설립(장비구축 지원) (천안 풍세 자부연내, 6,611㎡) · 자동차부품산업 기술개발 지원 · 자동차부품산업내구성향상시스템 구축 (선문대 RIS사업,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 · 친환경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기반구축 (천안 풍세 자부연 내, 1,983㎡) · 자동차샤시부품내구성향상시스템 구축 (천안 풍세 자부연 내, 1,074㎡)
	첨단문화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미디어산업사업화센터 건립(천안 직산 천안밸리내, 16,281㎡)
	농축산바이오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터 건립(논산, 7,091㎡)
새로운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지원	새로운 지식기반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메틱스산업 육성 지원(연구개발 지원) · 환경산업 육성 지원(연구개발 지원) · 나노산업육성(KAIST 나노팹센터 설립지원, 18,109㎡)
	기술개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콘소시엄(16개 대학)
수요자중심의 기업지원체계 구축	지원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천안시, 3,825천㎡) · 서북부권 경제지원센터 설립(1개소, 천안·아산 인접지)
	기업유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취득 매입비 지원(661,160㎡) · 지방이전 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생산기반 확대	시설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농공)시설 현대화 지원(노후시설 개선)
	산업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조성(74,891천㎡) - 32개 산업단지 및 추가조성 예정면적 포함

3. 서비스업의 지식기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가. 현황과 문제점

■ 취약한 서비스산업 기반

- 2004년 현재 충남지역의 서비스업체는 111,720개소, 고용규모는 381,860명으로 전국대비 각각 3.9%, 3.4%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취약함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전체업체수의 30.6%(종사자수 기준 2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25.4%(종사자수 기준 17.6%),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3.9%(종사자수 기준 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과 통신업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기준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26〉 충남 서비스업 현황(2004)

(단위: 개소, 명, %)

구 분	전 국		충 남				전국대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사업체수	종사자수
서비스 합계	2,857,382	11,351,321	111,720	100.0	381,860	100.0	3.9	3.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501	65,087	86	0.1	4,164	1.1	5.7	6.4
건설업	83,891	729,905	3,503	3.1	22,912	6.0	4.2	3.1
도매 및 소매업	878,294	2,481,215	34,236	30.6	78,752	20.6	3.9	3.2
숙박 및 음식점업	643,773	1,700,621	28,364	25.4	67,254	17.6	4.4	4.0
운수업	331,458	858,773	9,555	8.6	23,825	6.2	2.9	2.8
통신업	8,913	131,594	431	0.4	5,046	1.3	4.8	3.8
금융 및 보험업	33,913	582,815	1,398	1.2	17,680	4.6	4.1	3.0
부동산 및 임대업	113,155	411,530	3,677	3.3	9,725	2.5	3.3	2.4
사업서비스업	85,262	988,405	2,209	2.0	15,578	4.1	2.6	1.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2,319	522,777	869	0.8	24,238	6.4	7.1	4.6
교육서비스업	120,837	1,117,671	4,645	4.2	48,755	12.8	3.8	4.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2,935	598,548	2,815	2.5	21,619	5.7	3.9	3.6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126,157	372,071	4,358	3.9	10,051	2.6	3.5	2.7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44,974	790,309	15,574	13.9	32,261	8.5	4.5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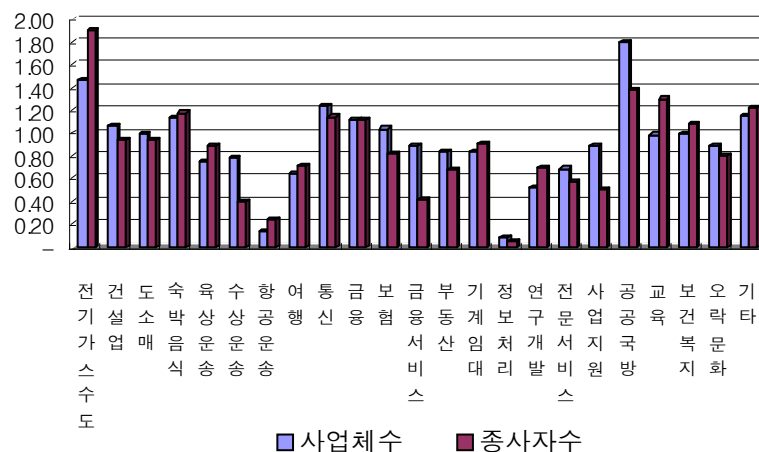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2006.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교육서비스업 등은 업체수 기준으로는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종사자수 비중이 높아 타 서비스업에 비해 대규모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 서비스업 위주로 특화

- 2004년 업체 및 종사자수 기준으로 입지계수가 1보다 큰 업종은 전기, 가스, 수도, 숙박음식, 통신, 금융, 공공, 국방, 기타 서비스업 등으로 이들 업종만이 전국에 비해 특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업체 및 종사자수 기준으로 입지계수가 1보다 작은 업종은 도소매, 운수, 부동산 및 임대, 사업서비스업 등으로 이들 업종은 타지역에 비해 특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그림 II-13〉 충남 서비스업종별 입지계수(2004)



■ 생산자 서비스업 기반 취약

- 2004년 현재 지역 내 생산자서비스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전국대비 각각 3.1%, 2.2%로 소비자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자 서비스업의 기반이 취약함
 - 기업활동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정보처리, 금융 및 보험, 사업지원 서비스업 분야는 종업원수 기준으로 전국대비 0.2~1.7%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취약한 형편임
 - 비은행기관은 전체 금융기관의 79.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으나, 지역산업 및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기능이 취약하여 지역경제의 실물부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하지 못하는 실정임

- 지역 내 생산자 서비스업의 집적정도를 볼 때, 업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사자가 적어 소규모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27〉 생산자 서비스업 현황(2004)

구 분	전 국		충 남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소 계	232,330	1,982,750	7,284 (3.1)	42,983 (2.2)
금 융	19,087	253,406	834 (4.4)	9,493 (3.8)
보 험	8,374	263,532	339 (4.1)	7,271 (2.8)
금융서비스	6,452	65,877	225 (3.5)	916 (1.4)
부동산	92,774	365,242	3,010 (3.2)	8,319 (2.3)
기계임대	20,381	46,288	667 (3.3)	1,406 (3.0)
정보처리	9,094	156,661	30 (0.3)	234 (0.2)
연구개발	2,154	66,639	44 (2.0)	1,538 (2.3)
전문서비스	54,454	354,816	1,460 (2.7)	6,849 (1.9)
사업지원서비스	19,560	410,289	675 (3.5)	6,957 (1.7)

주: ()내는 전국비중임

자료: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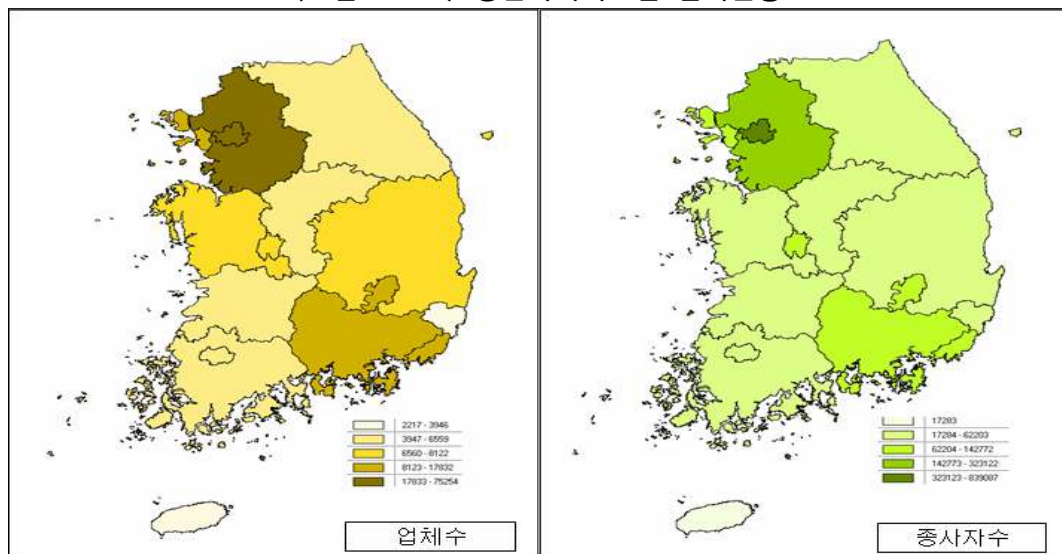
〈표 II-28〉 금융기관 현황(2005)

구 분	합 계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기타
계	1,013 (100.0)	150 (14.8)	802 (79.2)	61 (6.0)
공 주	74	8	62	4
논 산	78	11	65	2
보 령	53	6	46	1
서 산	80	11	59	10
아 산	87	13	69	5
천 안	215	52	130	33
금 산	41	3	38	0
당 진	57	9	47	1
부 여	54	4	49	1
서 천	39	4	35	0
연 기	45	5	39	1
예 산	51	5	45	1
청 양	32	2	30	0
태 안	41	4	37	0
홍 성	57	10	45	2
계 룡	9	3	6	0

주: ()내는 구성비임

자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06.

〈그림 II-14〉 생산자서비스업 집적현황



나. 여건변화와 전망

■ 서비스시장의 대폭적인 개방 가시화

- DDA서비스 협상, 한미·한중 FTA 진전 등으로 서비스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이 가시화 되고, 서비스시장의 글로벌 경쟁도 한층 격화되는 등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는 바, 개방의 시기와 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 서비스시장의 대폭 개방은 불가피한 상황임

■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서비스산업 부각

- 서비스산업은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제기여도와 성장잠재력이 높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향후 중남은 산업의 파급효과, 내부역량 및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를 전략서비스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제조업 지원 관련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증대

- 생산부문에서 지식집약화, 생산코스트의 구조변화 등으로 생산활동의 전문화 및 아웃소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활동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임
- 아울러 전문적인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수요가 증가세에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유통서비스업의 대형·전문화 경향 및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신장

- 유통시장개방 이후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의 급속한 증가로 지역 전통소매상권의 변화가 불가피함
- 더욱이 인터넷 및 TV 등의 매체를 이용한 쇼핑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 경쟁분야의 정보인프라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됨

다. 계획의 기본방향

■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기반조성

- 경제활동의 세계화 및 지역화 추세에 따른 글로벌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업하기 좋은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
- 구체적으로 충남 4대 전략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고려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

■ 지역내 신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한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

- 수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한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제조업 일변도의 전략산업을 다각화
- 충남의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

■ 지속가능한 유통서비스업의 육성

- 지역 내 다양한 유통시설의 상호보완을 통해 유통산업의 발전 및 선진화기반 구축
- 재래시장의 경우, 전통시장형태의 유지 및 시장의 현대화 중에서 지역 특성에 알맞은 개발방식을 정하여 비효율적인 투자 및 중복투자 방지

■ 자금의 효율적 중개 및 배분을 통한 지역금융의 활성화

-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외부투자자금의 유치와 더불어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 내에 재투자되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할 필요
- 지역의 실물부문 투자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지역금융의 원활한 내부적 순환시스템 구축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 중소기업서비스업 경쟁력 기반 강화

- 중소기업서비스업 창업보육센터 설립
 - － 중소기업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지도, 시장정보제공, 기술지원 및 자금지원 등 다양한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

- 중소기업 지원센터 설립
 -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One-stop Solution 서비스 제공

■ 서비스업의 지식기반화

- 정보화 기반시설을 활용한 지식기반화
 -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보망을 서비스업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사업체 대상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행·재정적 지원확대
 -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 업체별 홈페이지 및 정보 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각적으로 행·재정적 지원 확대

■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간 가치창출 네트워크 구축 : Triple 2 Strategy

- S2P 전략 : 서비스업과 농림수산업간 가치창출 네트워크 구축
 - 도시지역민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On-line Market 개설 지원
 - 농산어촌과 도시지역 사이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 S2M 전략 :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가치창출 네트워크 구축
 - 기존 충남 4대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을 설치
 -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R&D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지원강화 차원에서 적정 대출모델을 개발
 - 고급 및 생산인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 시스템 구축
- S2S 전략 : 서비스업간 가치창출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신성장 모멘텀 확보 및 충남 전략산업의 다각화 차원에서 지식서비스 산업을 전략산업화 하기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 산·학·연 연계를 통해 지식 서비스 혁신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성과를 DB로 구축하여 지식 서비스업체들의 적극 활용을 유도

■ 지역 유통 및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 충남 유통혁신센터 설립
 - 지역사업을 중앙정부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 지역 유통산업의 정보 DB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 유통 및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주체 구성
 - 지역 상권과 연계된 유통업태간 협력체제 및 시장경영 지원팀 운영
- 재래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 충남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및 도시민 대상의 온라인 쇼핑몰 구축
- 전국상권형 특화시장의 발굴 및 육성
 - 지역 특산품 등을 전국상권 대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케팅 및 온라인 주문, 택배 등을 적극 활용
 - 지역적 환경과 여건에 맞는 대규모 지역 이벤트 개최 및 관광시장기능 활성화
- 신선제품 위주의 Green Marketing 강화
 - 농·축·수산물의 고품질화를 위해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 대형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Green Marketing 강화

■ 지역 금융서비스산업 육성

-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
 - 지역 금융기관들의 지원역량 제고 및 지방채시장 육성
 - 핵심전략산업의 적극 발굴·육성을 통한 역내외 투자자금의 지속적 유치
- 지역금융의 내부적 순환시스템 구축
 - 금융기관의 지역밀착형 중추 지점화
 - 지역은행간 자금결제기구 및 상호협력체제 구축
- 지역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지역금융활동 기반 조성
 - 도내 전략산업 및 지연산업과 금융기관의 전략적 제휴지원
 - 지역 소규모 금융점포 및 기관의 정보화 지원

〈표 II-29〉 서비스업 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중소 서비스업 경쟁력 기반 강화	지원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서비스업 창업보육센터(5개소: 논산, 아산, 서산, 공주, 홍성, 각 1,653㎡) · 중소기업서비스업 지원센터 설립(1개소: 아산, 9,917㎡)
서비스업의 지식기반화	정보화 기반시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 DB 및 산업정보망 구축 · 기업체별 홈페이지 구축(1식)
비즈니스 서비스업 육성	인력 확보	· 인적자원시스템 구축(연구자원 DB 구축)
	혁신역량 강화	· R&D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지원
	지원체계 구축	· 충남비즈니스 혁신센터 설립(1개소: 천안, 9,917㎡)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의 육성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 혁신플랫폼 구축(1개소: 천안)
	산·학·연 연계	·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연구성과 DB 구축(1식)
유통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유통기반 강화	· 충남 유통혁신센터(1개소: 천안)
	재래시장 육성	· 환경개선 및 마케팅·경영혁신 지원, 상거래 현대화(재래시장 69개소)
지역금융의 활성화	자금의 역외유출 최소화	· 지방채시장 육성
	내부순환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밀착형 중추지점화 · 상호협력체제 구축
	지역금융활동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과 금융기관의 전략적 제휴 지원 · 소규모 금융점포 및 기관의 정보화 지원

제3장 특색 있는 지역문화와 매력 있는 관광 진흥

1. 개성있는 지역문화권 형성과 문화기반의 조성

2. 안정된 관광기반 구축과 특화 관광자원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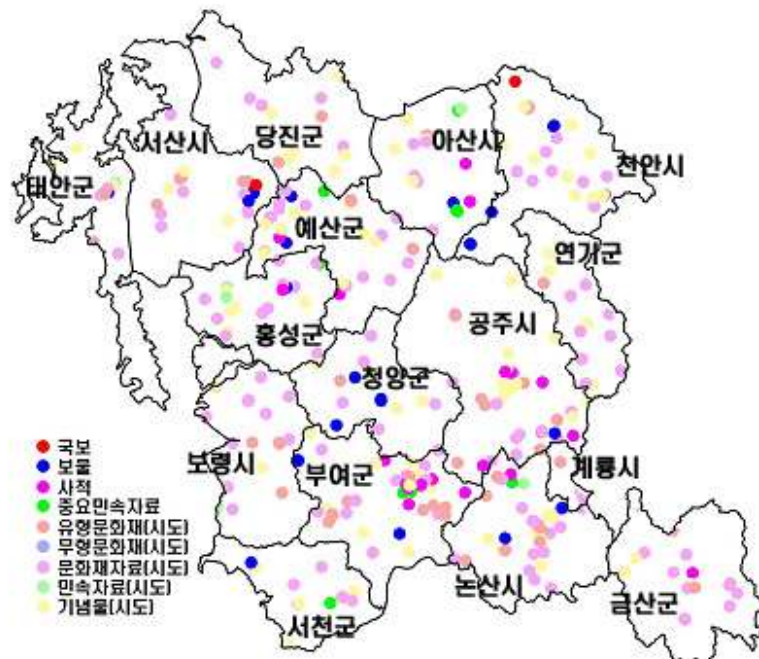
1. 개성있는 지역문화권 형성과 문화기반의 조성

가. 현황과 문제점

■ 다양하고 풍부한 전통문화자원 보유

- 역사적으로 충남은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 등 2개의 문화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
- 충남지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01점, 도지정문화재 356점, 문화재 자료 302점 등 총 859점이 분포
-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 보물, 사적, 중요민속 등의 유·무형문화재는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내포문화권을 대표하는 예산, 서산, 홍성지역 등에도 다수의 문화재가 분포
- 문화자원의 발굴과 체계적인 정비는 충남의 정체성과 지역문화 창달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지정 문화재의 지속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

〈그림 II-15〉 시·군별 지정문화재 분포현황(2004)



주: 문화재청(2005. 10),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내부자료(2005) 재구성

- 문화재의 지정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지정 문화재의 지속적 발굴과 함께 문화재로 지정하여 전통문화자산의 지속적인 보존이 필요

〈표 II-30〉 시군별 지정문화재 분포현황(2004)

구분 시도	합 계	국 가 지 정										도 지 정					문화재자료
		소 계	국 보	보 물	사 적	사적명승	무 형	명 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	소 계	유 형	기 념	무 형	민속자료		
전 국	9,215	2,913	307	1,420	453	9	110	14	359	241	4,321	2,218	1,458	331	314	1,981	
충 남	859	201	27	85	43	1	8	-	14	23	356	148	155	34	19	302	

자료: 문화재청 홈페이지, 2005. 10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내부자료,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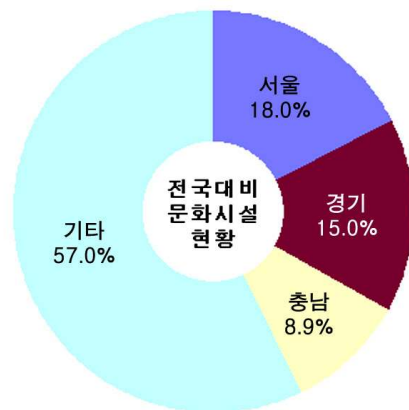
■ 백제·내포문화권 중심의 사업추진과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배려 미흡

- 백제문화권 및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유적 정비사업 추진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역사문화유적 체계적인 발굴, 보존에 성과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은 백제문화의 정체성 확보 및 관광산업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문화권형 특정지역 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필요
- 또한, 법정면적 제한으로 인하여 문화권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문화권형 특정지역 정비사업 추진 필요
 - 서천, 청양, 아산 등의 지역은 내포문화권, 백제문화권, 기벌포 문화권에 포함될 수 있으나, 특정지역 면적 제한으로 인하여 문화관광형 특정지역 사업에서 제외된 실정
 - 따라서, 역사문화적 차원,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해당 시군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차원에서 소외된 지역을 문화권형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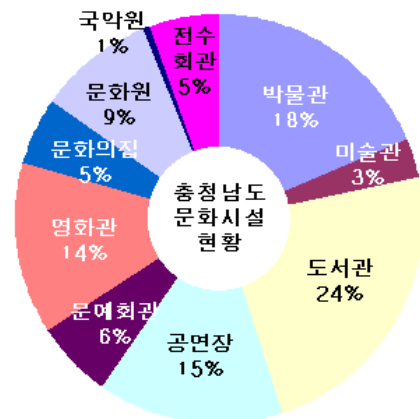
■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 보유

- 충남의 문화시설 규모는 총216개소로서 전국 2,441개소 중 약 8.9%를 차지하며, 서울 400개소, 경기 380개소에 이어 세 번째임. 시설의 양적인 측면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문화시설별 현황은 공공도서관 24%, 박물관 18%, 공연장 15%, 영화관 14%로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술관은 박물관(34개)과 달리 6개소인 3%에 그치고 있어 미술관의 예술창작 활동의 활성화와 작품보존 및 계승, 미술문화 향유증진에 따른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이 필요

〈그림 II-16〉 전국대비 충남문화시설 현황(2004)



〈그림 II-17〉 충청남도 문화시설별 현황(2004)



주: 문화기반시설총람(2005), 충청남도정백서(2005) 재구성

■ 커뮤니티형 문화공간의 부족과 낮은 활용도

- 커뮤니티형 문화공간으로서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도서관, 문화의 집, 문화원 현황을 보면, 문화의 집(10개)이나 문화원(17개)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함
 -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서의 생활밀착형 복합 문화시설의 확충이 요구됨
- 시·군별 문화시설 분포는 충남 전체의 문화시설 216개소 중에서 천안시에 36개소(16.6%), 공주시에 27개소(12.5%)가 집중되어 있음

- 문화시설 수가 상대적으로 과소한 시·군으로서는 계룡시(1개소), 청양군(4개소), 태안군(7개소) 등으로서 문화시설 인프라에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 공주, 천안 등의 시급 도시에 박물관, 공공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과소한 시·군에 문화시설 확충과 함께 기존 문화시설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
- 대표적인 문화예술시설인 문예회관은 총 11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예술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되지 않아 일부 문예회관은 활용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¹⁾

〈표 II-31〉 충남의 문화시설 유형별 현황(2004)

(단위: 개소, %)

구 분		전시시설			도서관	공연시설				지역문화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청소년시설		
지역별	총계	소계	박물관('05)	미술관('05)	소계('05)	소계	공연장('05)	문예회관('05)	영화관('05)	문화의집('05)	소계	문화원('05)	국악원('05)	전수회관('05)	소계	청소년문화의집('05)	수련장('05)
전국	2,441	413	344	69	501	726	286	138	302	164	343	224	35	84	294	160	134
충남	216	40	34	6	42	63	27	11	25	10	28	17	1	10	33	10	23
전국 대비	8.9	9.7	9.9	8.7	8.4	8.7	9.4	8.0	8.3	6.1	8.2	7.6	2.9	11.9	11.2	6.3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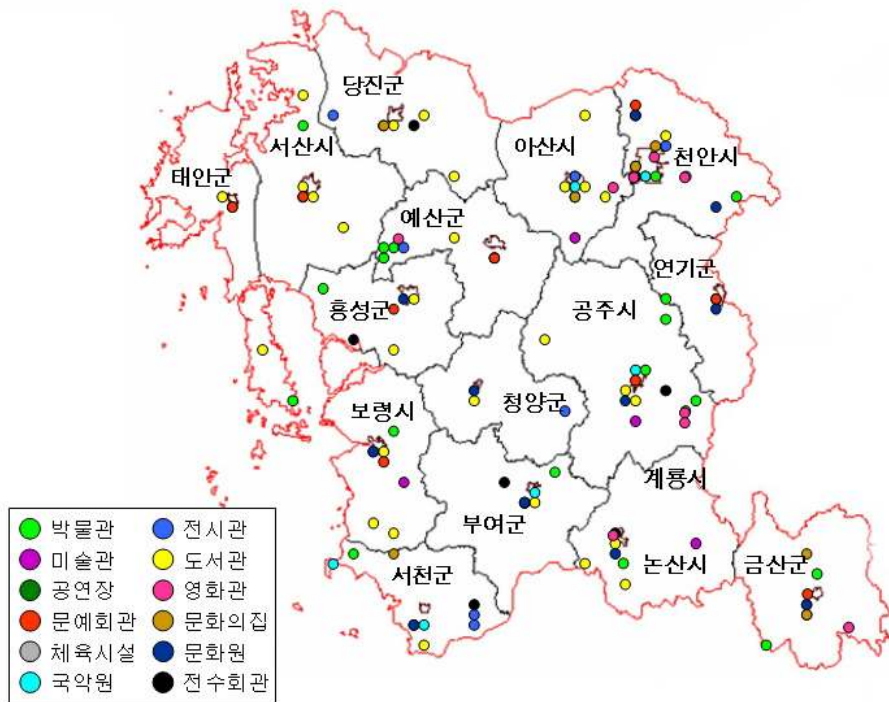
주: 충남시설은 전국시설 통계를 기본으로 자체 조사함

자료: 문화관광부, 문화기반시설총람, 2005.

충청남도, 충남도정백서, 2005.

1) 이러한 점에 있어서 금산다락원 생명의 집은 문예회관 조성에 시사점을 주고 있음. 8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중심으로 보건소, 노인의 집, 청소년의 집, 장애인의 집 등을 비롯한 복지 관련시설과 금산문화원, 스포츠센터를 집적화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며 지역의 중심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림 II-18〉 충청남도 시·군별 문화시설 분포현황(2004)



〈표 II-32〉 충청남도 시·군별 문화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계룡	공주	금산	논산	당진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아산	연기	예산	천안	청양	태안	홍성
총 계	216	1	27	15	12	15	16	11	12	8	16	9	14	36	4	7	13
박물관('05)	34	—	11	2	2	1	1	1	—	—	5	2	3	3	—	1	2
미술관('05)	6	—	2	—	1	—	1	—	—	—	1	—	—	1	—	—	—
공공도서관('05)	42	—	3	2	3	3	4	1	4	2	4	1	3	7	1	2	2
문예회관('05)	11	—	1	1	—	1	1	1	1	—	—	1	1	1	—	1	1
공연장('05)	27	—	2	2	1	2	2	1	2	1	1	1	2	8	—	1	1
영화관('05)	25	—	2	2	2	2	2	2	1	1	2	—	2	5	—	—	2
실내	19	—	2	1	1	2	1	2	1	—	2	—	1	4	—	—	2
야외	6	—	—	1	1	—	1	—	—	1	—	—	1	1	—	—	—
문화의집('05)	10	1	1	2	—	1	1	—	—	1	1	—	—	2	—	—	—
문화원('05)	17	—	1	1	1	1	1	1	1	1	1	1	1	3	1	1	1
국악원('05)	1	—	1	—	—	—	—	—	—	—	—	—	—	—	—	—	—
전수회관('05)	10	—	1	1	—	2	1	2	—	2	—	—	—	—	—	—	1
청소년시설('05)	33	—	2	2	2	2	2	2	3	—	1	3	2	6	2	1	3
청소년문화의집	10	—	2	—	1	1	1	1	1	—	—	1	—	1	—	—	1
수련장	23	—	—	2	1	1	1	1	2	—	1	2	2	5	2	1	2

자료: 문화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05
 문화관광부, 전국 공연장·공연예술단체 주소록, 2005
 전국 문화의집 연합회, 문화의집 조성·운영현황, 2005
 전국문화원연합회, 지방 문화원 현황, 2005
 문화재청, 전수교육관 건립현황, 2005

■ 저조한 문예활동과 주민들의 문화향수 욕구 증대

- 문화창작 역량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문화예술단체 및 활동을 살펴보면, 2004년 현재 등록된 전국 2,082개 단체 중 106개(5.1%를 차지)의 문화예술단체가 있음
- 그러나, 문화예술활동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충남의 문예활동은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저조한 편임²⁾
- 연극, 음악 등 기초예술분야 활동이 저조한 상태에서도 최근 연극분야의 경우 한국공연예술연수원의 유치, 연극제 개최, 공주고마나루 전국 향토연극제의 의욕적인 추진 등은 지역연극 활성화에 이바지

〈표 II-33〉 전국 및 충남 문화예술단체 현황(2004)

(단위: 개소, %)

지역	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국악	양악	연극	무용	영화	연예	종합
전국	2,082	249	348	145	15	280	310	275	171	41	53	195
충남	106	22	26	12	-	10	11	10	5	-	1	9
전국대비	5.1	8.8	7.5	8.3	0.0	3.6	3.5	3.6	2.9	0.0	1.9	4.6

자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단체실태조사, 2005.

- 충청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술단은 충남국악관현악단, 충남교향악단, 충남국악단 등 3개의 공립예술단체가 있음
- 그러나, 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내 공립예술단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조사에서는 68.5%가 관람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홍보부족과 공연내용의 매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음. 따라서 향후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예술단의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향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풍부한 문화콘텐츠 소재 및 첨단문화산업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

- 첨단문화산업 관련 창작소재 풍부, 국제규모의 향토축제 개최, 영상·음향기기 등의 하드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연계가 가능하고, 영상문화복합단지·영상애니메이션테마파크·영상미디어센터 등의 핵심플

2) 충청남도, 충청남도 문화예술종합발전계획 정책보고서, 2005, p51~52.

랫폼을 통한 장비구축 및 공간확보가 용이하며, 첨단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및 R&D기관이 분포되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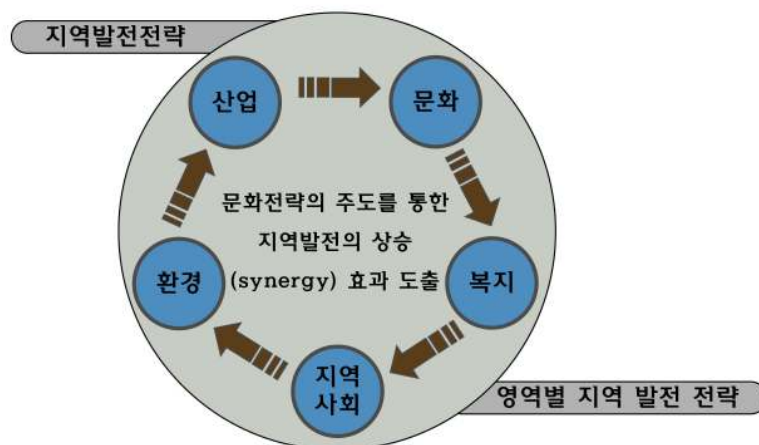
- 서울, 경기 다음으로 많은 대학과 인력을 배출하고 있고, 수도권과의 근접성으로 높은 발전 잠재력을 보유
- 문화콘텐츠 분야 관련 대학은 총20개 교로서 매년 2,500여 명의 인력을 배출하고 있음

- 그러나 게임·영상·애니메이션산업 및 관련제품의 국제화 부족, 지역 금융지원 및 사업환경 취약, 관련 사업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
- 충남이 지닌 풍부한 문화소재 발굴과 함께, 문화콘텐츠 관련업체들을 유치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발전 전략 필요

나. 여건변화와 전망

■ 지역발전에 있어서 문화전략의 역할과 중요성 증대

- 1990년대 이후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각 지역들은 지역의 발전과 활성화 전략으로서 문화이미지전략을 채택
 - 이는 문화공간 확충, 다양한 문화적 활동 장려, 문화산업 지원, 문화행사 유치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발전의 전략과 문화전략을 서로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문화전략적 관점에서 지역마케팅, 지역이미지 전략, 도시활성화전략 등을 과감히 도입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 지역의 자율성 증대와 지역문화의 진흥 추진

- 참여, 분권, 자율이라는 정책기조 속에 특색있는 지역문화의 진흥과 문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
 - 지역 문화진흥 추진을 위해 민간주도의 논의구조를 정립하며, 지역문화의 진정한 주체인 주민의 역량 수준 제고 추진
 - 또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역문화와 관련된 권한을 지방 및 민간에 이양하여 지역문화의 자율성 확보를 추진
- 창작활동 중심에서 창작, 매개, 향유라는 예술활동의 각 부문에 고른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비주류, 신진작가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하여 문화의 다원성과 다양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전 등에 따라 충남지역 문화발전의 새로운 기회도래

- 기존의 충남 문화진흥은 단위문화시설 확충과 지원, 문화재 정비와 함께 문화권 단위사업으로서 백제문화권 및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에 의해 추진되었음
- 그러나, 향후 행정도시의 건설과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은 충남의 미래 문화발전의 중요 요소로서 새롭게 등장
 - 행정도시 건설과 충남문화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의견은 계룡시가 72.7%, 연기군 71.8%, 공주시 71.7%, 서산시 62.5%, 금산군 61.9%로 나타남

■ 지역발전, 복지, 생활환경에 있어 지역문화의 역할 증대

- 공급자 중심에서 향유자, 수요자 중심으로의 문화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
- 도민들은 문화정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서 그간의 순수문화예술진흥 중심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계되는 문화환경 구축, 문화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 조성 등으로 문화정책 대상의 확대를 기대

■ 산업고도화에 따른 문화콘텐츠 및 문화산업의 급속한 발전

- 인간의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를 경제적 가치

로 상품화하는 문화콘텐츠 및 문화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21세기 각국의 승패는 문화산업에서 결정

- 문화콘텐츠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유발효과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큰 점을 감안할 때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

〈표 II-34〉 문화콘텐츠 사업의 경쟁력 비교(2004)

구 분	문화콘텐츠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유발계수	2.11	1.96	1.68
영향력 계수	1.13	1.05	0.90
고용유발계수	15.9명/10억원	9.4명/10억원	14.9명/10억원

자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제1회 지역문화산업 정책포럼, 2006. 2

다. 계획의 기본방향

■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통한 개성있는 역사문화공간 조성

-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에 산재한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의 개발·보전·복원 추진
-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공간 조성(박물관, 전시관, 향토사료관, 공연장 등)을 통한 지역문화 창달 및 문화적 정체성 확보
- 천안시, 공주시 등의 대도시와 서산시, 태안군 등 시·군간, 도시·농촌간의 문화시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간의 문화향유기회를 균등화 하고, 문화복지 향상 측면에서 도민들의 문화향수 실태 및 수요도를 조사하여 지역의 특성 및 규모에 맞는 문화시설 확충

■ 커뮤니티형 문화공간 확충과 문화네트워크 구축

- 문화, 경제, 생활이 어우러진 중심지역에 커뮤니티형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양적으로는 많은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에 필요한 다양하고 품격 높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인 문화의 집, 문화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
 - 따라서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 특정 장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시설의 확충에 편중하는 것보다는 균등한 문화향수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문화시설을 파악하여 균형적으로 확충
- 지역별 문화공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의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교류 및 발전을 촉진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고품격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경우 충남도민의 문화향수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문화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향수 기회 부여

■ 지역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

- 창조적인 지역문화활동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기금, 연계축제 개발을 추진
 - 충남 문화예술 단체와 연계한 지역문화활동 촉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 특히, 미술사진 관련단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충청남도 차원의 도립미술관, 종합문화시설 건립 등을 추진
- 지역주민들이 문예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체계를 구축
 - 지역의 주요 문화제, 시설, 문화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문화예술활동 종합지원체계 확립

■ 경쟁력 있는 지역 문화산업 육성

- 충남을 지식기반 첨단문화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육성
- 수도권에 지리적인 근접성을 바탕으로 영화, 애니메이션 등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산업을 육성
 -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문화산업기반을 구축하고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역사문화 정체성 확보

- 충남의 지정 및 미지정 문화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보존을 위한 연차적 발굴 및 정비사업 추진
- 백제문화권(공주, 부여, 논산, 계룡 등), 내포문화권(서산,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서천 등), 기호유교문화지구(논산, 계룡 등)를 중심으로 한 개성 있는 역사문화환경 조성
 - 기존의 문화권형 특정지역 사업, 충남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사업, 기벌포 문화유적 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공주과 부여는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및 문화재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역사고도로 조성
 - 기존의 제3차 충청남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및 백제·내포문화권 개발계획과 연계 추진
 - 내포문화권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낙후되어 있는 서천지역을 기 지정된 내포문화권에 포함하여 연계·개발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 역사문화중심도시(공주·부여) 지정을 통해 백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차별화된 고도경관을 조성,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 지역별 커뮤니티형 문화공간과 문화복지 기반시설 확충

- 지역주민의 생활, 경제, 활동의 중심공간을 핵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향수 기회를 부여하고, 도시경쟁력 제고하며 문화교류·창조의 공간으로 육성
 -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를 풀뿌리 문화공간으로 활용
 - 이용자 및 재정 규모에 따른 문화시설 확충보다는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생활권 내 문화예술 활동 강화를 위한 문화의 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강화
 - 미개원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며 조성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통한 대상 선정
- 창의력과 협동심, 감성과 균형있는 지성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 주민, NGO, 학교 등과의 협력모델 구축을 통하여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간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 문화예술공간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컨설팅 사업 추진
 - 도내 지역별 문화기반시설별로 지역여건과 주민수요를 고려하여 잠재력 있는 문화공간을 특성화된 대표시설로 육성
 - 전문문화공간(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과 예술인, 단체 등을 연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사업 추진

■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여건조성 및 지원

- 문화예술인과 문화향수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
 - 충남의 문화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등에 편중되어 있으며, 순수공연장은 문예회관이 전부임. 미술관련 단체가 다른 장르의 문화예술단체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전시장만 있어 창작활동을 고양하고, 도민들에게 질 높은 미술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도립미술관 건립을 추진
-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등의 계승·발전 지원책 마련 및 문화와 산업을 연계하여 지식산업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
- 폐교 등을 활용한 도예촌, 문화문예촌, 문예전수관 등을 건립하여 창작 활동 등의 문예활동을 지원
 - 지역 주요문화시설의 정보제공을 위한 사이버 문화관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체계 확립

■ 지역문화 기반의 문화콘텐츠 개발

- 충남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문화소재의 발굴과 문화콘텐츠화를 통한 지식문화산업 기반구축 추진
-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산업 관련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천안·공주·부여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산업을 특화 육성

■ 찾아가는 문화예술서비스 강화

- 도시지역까지 거리가 멀고 소규모 인구가 산재해 있어 각종 서비스의 공급효율이 낮아 문화예술 향수기회가 거의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문화예술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정기적으로 제공
- 노인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는 맞춤형의 찾아가는 문화예술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표 II-35〉 문화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개발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역사문화 자원의 체계적인 정비·복원	역사문화 자원 보존·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미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6개 시·군, 40개 국가지정문화재) · 전통사찰의 보수·정비(전통사찰 80개소) · 외암리 민속마을 보존 및 관광기반 확충 (저자거리, 민속박물관) · 한국최초 성경전래지 및 선교지 성역화 사업 (서천 마량, 논산강경 등) · 봉선리 유적 공원화 사업(서천, 95,868㎡)
	개성 있는 역사문화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문화권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정비사업 추진 (백제문화권 : 5개 분야 42개 사업) · 내포문화권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정비사업 추진 (내포문화권 : 4개 분야 46개 사업) · 기호유교문화지구 유적정비 및 개발사업 (돈암서원, 윤증고택 외)
커뮤니티 문화공간 확충과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도립 종합예술원 건립(도내 1개소, 33,058㎡) · 충남 도립미술관 건립(도내 1개소, 11,900㎡) ·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5개 시·군) · 주민자치문화센터 건립(8개소) · 계룡산 도예촌 조성(공주 상신리 일원) ·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13개소) · 군사문화박물관 건립(1개소)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립예술단/충남연정국악원 육성 (천안, 공주, 부여 등 3개 예술단) ·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도내 일원, 10개소)

2. 안정된 관광기반 구축과 특화 관광자원 개발

가. 현황과 문제점

■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기반구축은 미흡

- 충남은 국토의 중심에 있으며 자연공원, 관광지, 골프장, 온천, 관광농원, 자연휴양림 등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자연공원으로는 계룡산과 태안해안 등 2개의 국립공원과 칠갑산, 덕산, 대둔산 등 3개의 도립공원, 그리고 연기 고북저수지가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1997년 이후 보령 해수욕장지역과 아산시 온천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음

〈표 II-36〉 관광특구 지정현황(2005)

특구명칭	지 역	면 적(km ²)	지정일자
계	2개지역	6.23	-
보령해수욕장관광특구	보령시 신흥동 대천해수욕장 지역, 남포면 월전리 죽도지역, 웅천읍 관당리 무창포해수욕장 및 석대도 지역	2.52	'97. 1. 18
아산시 온천관광특구	아산시 온천1동, 권곡동, 모종동, 덕산동, 방축동지역, 도고면 도고 온천지역, 음봉면 아산 온천지역	3.71	'97. 1. 18

자료: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6.

- 온천지구는 온양, 도고, 덕산, 아산 등 16개소가 운영 또는 개발 중이고, 골프장은 5개소가 운영 중이고 4개소가 공사 중이며, 정안, 천안, 백제, West Beach, T.A.B.D, 안면도관광지, 안면도대부초지 등 7개소와 태안기업도시내 골프장 6개소가 사업계획을 추진 중임
- 지정관광지로는 2005년 9월 현재 전국 224개소 가운데 11.2%인 25개소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음
 - 그러나 태조산과 구드래관광지 2개소만이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지정관광지의 대부분이 관광지 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대체로 개발이 지연되거나 재원부족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표 II-37〉 관광지 지정현황

관 광 지 명	위 치	면 적(m ²)	지 정 일	비 고
계	25지구	13,499,182		
삼 교 호	당진 신평	169,983	1983.10. 10	가족휴양 중심관광지
구 드 래	부여 구교	148,515	1969. 1. 21	"
신 정 호	아산 방축	271,169	1971. 5. 20	"
태 조 산	천안 유량	331,000	1985. 7. 24	청소년 수련시설
예당 저수지	예산 음봉	143,000	1986. 6. 28	가족휴양 중심관광지
곰 나 루	공주 웅진	139,000	1987. 7. 24	"
용연 저수지	천안 목천	267,004	1988. 7. 12	"
무창포 해수욕장	보령 웅천	310,000	1986. 8. 20	해수욕장 중심관광지
대천 해수욕장	보령 신흥	2,150,000	1983.11. 29	"
안 면 도	태안 안면	3,815,456	1991. 2. 22	국제적 관광휴양지
덕 산 온 천	예산 덕산	723,575	1987. 6. 3	온천자원개발
죽 도	보령 웅천	73,380	1990. 4. 19	해양스포츠및휴양시설
각 원 사	천안 안서	82,294	1990. 4. 19	가족휴양 중심관광지
아 산 온 천	아산 음봉	844,000	1991. 3. 15	온천숙박 중심관광지
금강하구둑	서천 마서	177,600	1993. 9. 22	해양 및 놀이시설
마 곡 사	공주 사곡	126,000	1993. 11. 9	가족휴양 중심관광지
칠갑산 도립온천	청양 장평	140,102	1995. 10. 5	온천자원개발
천 안 온 천	천안 목천	748,259	1996. 7. 29	"
	성남			
마 곡 온 천	공주 사곡	621,592	1996. 9. 16	"
공 주 문 화	공주 웅진	1,330,000	1996.10. 24	백제문화 중심관광지
	봉정·검상			
춘장대 해수욕장	서천 서면	299,000	1997. 4. 21	해수욕장 중심관광지
간 월 도	서산 부석	149,800	2000. 5. 4	가족휴양 중심관광지
난 지 도	당진 석문	140,000	2000. 9. 7	"
왜 목 마 을	당진 석문	132,253	2002. 2.26	가족휴양, 일출관광
남 당	홍성 서부	166,200	2005. 4.19	해양관광, 가족휴양

자료 :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6.

〈표 II-38〉 온천지구 현황(2005)

구 분	면적(천㎡)	지구지정일
아산 온양	532	1981. 9. 22
아산 도고 기곡	694	1981. 9. 22
아산 음봉	1,210	1989. 11. 14
예산 덕산	3,091	1981. 9. 22
공주 마곡	810	1993. 3. 4
홍성 홍성읍	770	1993. 11. 25
예산 수덕	936	1992. 4. 15
공주 동학사	536	1987. 5. 22
청양 도립	532	1994. 10. 22
천안 성남	952	1994. 1. 27
아산 도고 향산	23	1997. 5. 10
공주 갑사	902	2005. 3. 9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2006.

〈표 II-39〉 골프장 현황(2005)

골프장명		위 치	규모(홀)
운 영 중	도고C.C	아산 선장 신성	회원 18
	코오롱 우정힐스 C.C	천안 목천 운전	회원 18
	IMG Nation C.C	연기 전의 유천	회원 27
	천안상록 C.C	천안 수신 장산	정규 대중 27
	에딘버러 C.C	금산 진산 행정	회원 18
공 사 중	버드우드 C.C	천안 병천 매성	회원 18 대중 6
	태안 비치컨트리클럽	태안 근흥 정죽	회원 18
	정안 C.C	공주 정안 인풍	대중 18
	퍼스트밸리 C.C	서산 대산 화곡	회원 18

자료: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6.

- 해수욕장은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당진군에 총 36개소가 분포하며, 태안군과 보령시 소재 해수욕장의 이용객이 가장 많음

〈표 II-40〉 해수욕장 분포 현황(2005)

시군별	개소수(개소)	2005년 이용객수(명)	비 고
계	36	27,058,585	-
보령시	5	11,999,945	대천, 무창포, 원산도, 호도, 용두
서천군	1	2,917,000	춘장대
태안군	29	12,021,940	만리포, 몽산포, 연포, 삼봉, 꽃지, 백사장, 학암포, 구레포, 청포대, 신두리 등 29개소
당진군	1	119,700	난지도

자료: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6.

- 자연휴양림은 칠갑산, 안면도, 만수산, 성주산, 용봉산, 금강, 남이, 용연, 영인산 등 12개소와 산림욕장은 성주산, 태조산, 남산, 장항 등 10개소를 포함한 총 21개소가 운영 중이거나 계획중에 있음

〈표 II-41〉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현황(2005)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소)	실 적									계 획
			계	98까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5~2008
충남	계	21(60)	19(50)	13(23)	2(5)	1(2)	(3)	1(5)	1(4)	(4)	1(4)	2(10)
	자연휴양림	11(60)	11(50)	9(23)	(5)	1(2)	(3)	(5)	(4)	(4)	1(4)	(10)
	산림욕장	10	8	4	2	—	—	1	1	—		2

주 : ()는 기존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사업의 수입
자료: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6.

■ 관광거점도시 개발을 위한 관광지원시설 미흡

- 관광숙박시설은 관광호텔이 12개소, 가족호텔 1개소, 콘도미니엄 8개소가 있으며, 증가하는 관광숙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총 10개소의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등이 건설 중에 있음. 향후 주5일 근무제의 정착에 따라 콘도미니엄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II-42〉 시·군별 관광숙박시설 현황(2005)

(단위 : 개소, 실)

구 분	계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호텔수	객실수	호텔수	객실수	호텔수	객실수	호텔수	객실수
계	21 (10)	2,425 (1,581)	12 (6)	907 (637)	1 (1)	100 (50)	8 (3)	1,418 (894)
천안시	2 (2)	160 (85)	1 (2)	60 (85)	1	100	-	-
공주시	- (2)	- (485)	- (1)	- (83)	-	-	- (1)	- (402)
보령시	1 (2)	305 (480)	(1)	(193)	-	-	1 (1)	305 (287)
아산시	11 (3)	1,359 (481)	6 (2)	628 (276)	-	-	5 (1)	731 (205)
서천군	(1)	(50)	-	-	(1)	(50)	-	-
논산시	2	66	2	66	-	-	-	-
예산군	3	244	2	110	-	-	1	134
태안군	1	248	-	-	-	-	1	248
당진군	1	43	1	43	-	-	-	-

주: ()내는 건설중인 호텔임
자료: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6.

- 관광숙박시설의 분포를 보면 아산시에 11개소가 집중 분포되어 지역적 편중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더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기반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거점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고급 숙박시설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임
- 관광객의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관광여행사는 총 230개소로서, 국외여행사 59개소, 국내여행사 169개소, 일반여행사 2개소가 있음
-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는 금산 추부면에 위치한 전문휴양업과 아산시 음봉면에 위치한 종합온천장과 수영장을 갖춘 전문 휴양업 등 2개소가 있으며, 종합휴양시설로는 수영장시설, 야영장 등을 갖춘 천안시 수신면 소재 천안상록리조트가 운영 중임
- 관광안내시설로는 천안시 관광안내소를 비롯하여 총 7개소(대전역 포함)의 상설안내소가 있으며 관광, 교통, 문화, 유적지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II-43〉 관광객 안내소 현황(2005)

명 칭	위 치	안내원	비고
계	7개소	22명	
대전역 종합관광안내소	대전역 구내	2	영1, 중1
충청남도 종합관광안내소	부소산성 주차장내	7	영2, 중2, 일2, 일반1
천안시 관광안내소	천안역 광장	1	영1
공주시 관광안내소	공산성 서문	5	영2, 일1, 중2
보령시 관광안내소	대천역 구내	3	영1, 일1, 중1
아산시 관광안내소	온양온천역 구내	2	영1, 일1
천안아산역 관광안내소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구내	2	영1, 중1

자료: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6.

■ 풍부한 인문관광자원에 대한 관광상품화 미흡

-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농수축특산물은 시·군별로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으며, 쌀과 배, 사과, 포도, 메론, 고추, 딸기, 복숭아, 수박, 버섯, 밤, 마늘, 구기자, 토마토 등의 농산물과 꽃게와 대하 등 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류로 김과 술, 젓갈류, 자염, 인삼, 버섯 등 제품 등이 있으나 관광상품화에는 미흡

〈표 II-44〉 시·군별 농·특산물 지정 현황(2005)

구 분	농 수 축 산 물 류	가 공 식 품 류
천안시	성환배, 입장 거봉포도, 광덕 호두, 성환 개구리참외, 안양골 배, 아우내 오이, 한신 수밤메론, 넷고을 버섯	병천 황토방 순대, 두레앙 와인
공주시	정안 밤, 우성 오이, 신평 풋고추	계룡 백일주
보령시	사현 포도, 백제골 산채, 껌질채 먹는 한방사과	까나리액젓, 대천 맛김, 청라 은행한과
아산시	아산 염작배	선장 김치, 탕정 와인
서산시	서산 6쪽마늘, 서산 감천배	서산 어리굴젓, 새댁김치, 들국화주
논산시	신선딸기, 산과들에딸기, 한방인삼딸기, 해찬들 한방딸기, 녹원축산돈정육	가야곡 왕주, 간장된장쌈장, 양촌 감식초, 생생포도즙, 고향 참·들기름
계룡시	—	계룡 산물엿, 영지디골드·대추골드
금산군	백삼·태극삼, 추부 깻잎, 땅두릅, 고려홍삼, 진생원 포크, 태극삼·홍삼, 태극삼	인삼주, 홍삼한과, 홍삼액, 홍삼진과·홍삼진과골드·홍삼절편, 홍삼경옥고차, 홍삼농축액
연기군	복숭아, 느타리버섯	—
부여군	방울토마토, 부여 밤, 참실콩나물, 구룡아침딸기, 백마강 수박, 아가리쿠스 건조버섯, 양송이 버섯, 백마강 메론	인동주, 청옥김치·단무지, 아가리쿠스 버섯 캡슐정제·과립·환제·미용비누
서천군	서천 냉각쌀, 어머니티 서천쌀	한산 소곡주, 서천 자하젓, 향토매운맛김, 바다로 21, 겨울바다맑은김, 雪味조미김
청양군	청양 구기자, 칠갑산 토종닭	한울김치, 구기자한과, 아이디어녹용, 둔송구기주, 참계장
홍성군	완숙토마토	광천토굴새우젓
예산군	신암 팽이버섯	삼다리짬
태안군	태안 꽃게, 태안 대하, 갯바람건고추, 태안6쪽마늘	정산포돌김, 태안자염
당진군	당진 쌀, 당진 가화포도, 황토갯바람 석문사과	—

자료: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6.

■ 지역특성의 향토문화축제를 관광자원으로 육성

- 2005년 현재 충남에서는 전통민속축제 4개, 지역문화제 8개, 특산물축제 13개, 이벤트축제 6개 등 31개의 향토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음
- 충남의 향토문화축제 중 보령머드축제, 한산모시문화제, 금산인삼축제, 강경젓갈축제, 성웅이순신축제 등 5개 축제는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음

〈표 II-45〉 2004년 향토문화축제 개최실태분석(2005)

(단위: 천명, 백만원)

시군	축 제 명	개최시기	장 소	행사비
계	31건			1,052
천안시(1)	천안흥타령축제	9.30~10.3 (4일간)	천안삼거리공원 일원	48
공주시(3)	계룡산 산신제	4.21~24(4일)	신원사 일원	23
	백제문화제(대제)	10.7~10(4일)	공산성 일원	41
	계룡산 분청사기축제	4.8~12(5일)	반포면 상신리 일원	10
보령시(1)	보령머드축제	7.16~22(7일)	대천해수욕장	53
아산시(2)	성웅이순신축제	4.26~5.1(6일)	현충사 일원	72
	짚풀문화제	10.21~23(3)	외암민속마을	65
서산시(1)	해미읍성병영체험	4.29~5.1(3일)	서산해미읍성 일원	12
논산시(1)	강경젓갈축제	10.20~24(5일)	강경포구, 젓갈시장	73
	논산딸기축제	4.8~10(3일)	논산천 둔치 일원	47
계룡시(1)	계룡축제	9.23~24(2일)	계룡시청 광장 일원	40
금산군(2)	금산인삼축제	9.2~11(10일)	인삼엑스포광장 일원	54
	금강민속축제	7.30~7.31(2일)	부리면 평촌리	15
연기군(1)	도원문화제	4.15~17(3일)	문화예술회관 일원	16
	조치원복숭아축제	8.12~13(2일)	고려대학교 캠퍼스	29
부여군(3)	서동연꽃축제	7.21~26(6일)	부여 서동공원 일원	47
	굿뜨래 수박축제	6.2~3(2일)	청소년수련관 일원	27
	백제문화제(소제)	10.3~5(3일)	부여군 일원	8
서천군(2)	한산모시문화제	5.1~6(6일)	한산모시관 일원	59
	동백꽃쭈꾸미축제	3.26~4.8(14일)	서면 마량리	17
청양군(2)	칠갑산장승문화축제	4.22~23(2일)	칠갑산 장승공원	25
	청양고추·구기자축제	8.30~31(2일)	지천 백세건강공원	37
홍성군(4)	만해제	10.4~5(2일)	한용운선생 생가지	12
	남당리대하축제	9.10~10.31(52일)	서부면 남당리	14
	광천토굴새우젓 및 조선김대축제	10.6~10(5일)	광천읍 일원	33
	내포사랑큰축제	10.1~3(3일)	홍성읍 일원	42
예산군(2)	매현문화제	4.28~5.1(4일)	충의사 일원	18
	추사문화제	10.7~9(3일)	추사고택 일원	21
태안군(2)	안면도국제공연예술축제	4.28~5.15(18일)	안면읍 꽃지공원	30
	자염축제	8. 17(1일)	근흥면 남금마을	12
당진군(1)	상록문화제	10.7~9(3일)	당진 일원	45

자료: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6.

나. 여건변화 및 전망

■ 관광환경의 변화와 전망

- 관광산업은 관광·레저산업의 중요성 증대와 세계 관광시장의 지속적 성장으로 고부가가치, 고용창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한국, 중국, 일본 등의 한 동북아시아 지역이 세계관광시장의 새로운 관광 목적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동북아시아 지역이 국제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41백만명인 7.8%에서 2020년에는 216백만명인 14.4%로 커지면서 연평균 6.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표 II-46〉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관광객수 변화 (도착기준)

(단위: 천 명, %)

구 분	기준년도	예 측 치		점 유 율		성 장 륜
	1995년	2010년	2020년	2010년	2020년	1995~2020년
세 계	565,400	1,006,400	1,561,100	—	—	4.1
동아시아·태평양	78,787	189,410	389,032	100.0	100.0	6.6
동북아시아	41,534	104,017	216,151	54.9	55.6	6.8
중 국	20,034	61,800	130,000	32.6	33.4	7.8
홍 콩	10,200	22,500	56,550	11.9	14.5	7.1
한 국	3,753	6,550	10,272	3.5	2.6	4.1
일 본	3,345	7,109	10,055	3.7	2.6	4.5
마카오	4,202	6,058	9,274	3.2	2.5	3.2
동남아시아	29,173	66,174	135,789	34.9	34.9	6.3
호 주	5,135	12,039	22,949	6.4	5.9	6.2
기 타	2,945	7,180	14,143	3.8	3.6	6.5

자료: WTO, Tourism 2020 Vision : East Asia & Pacific Vol.3, 2005.

■ 관광수요의 다양화

- 여가시간 증대,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관광객의 욕구가 테마추구형, 모험추구형, 스포츠·레저, 휴양, 자연친화형 등으로 다양화될 것임
-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관광형태의 변화가 예상됨

- 시설중심의 관광에서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추구형으로 관광형태가 전환될 것임. 이에 따라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관광이 증대할 것임
- 가족단위 관광이 증가가 예상됨
-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생태관광, 자연밀착형 관광, 자연체험형 관광 등이 대안관광으로 대두될 것임

■ 서해안권 광역교통 개선과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관광수요 급변 예상

- 충남의 관광객은 2001년 55백만명에서 2005년 83백만명으로 연간 약 10% 증가되었음

〈표 II-47〉 충남 관광객수 변화 추이

(단위: 천명)

구 분	관 광 객		
	내국인	외국인	계
2001년	54,811	473	55,284
2002년	62,567	654	63,221
2003년	65,106	755	65,861
2004년	66,850	670	67,520
2005년	82,488	515	83,003

자료: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6.

- 향후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 당진~대전간고속도로 건설, 백제·내포문화권 개발 등으로 지역의 관광객이 크게 증대할 전망
 - 내국인의 충남관광 수요전망으로, 전국관광객 이동량 수요예측과 충청남도의 시계열예측 수요를 종합분석한 결과 2010년에 95,339천명, 2020년 126,815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단기적 관광객 감소와 환경관광 중요성 증대
- 충남과 인접한 중국 관광객의 증가로 충남의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할 전망
 - 중국인 관광객은 연평균 증가율 7.84%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2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표 II-48〉 충남 관광객 수요예측 결과

(단위: 천명, %)

구 분		2005년	2010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2005-2010	2010-2020
총관광객 수 요	전 국	554,400	637,328	850,264	2.99	3.34
	충 남	83,003	95,339	126,815	2.97	3.30
숙 박 관 광 객	전 국	246,576	282,459	374,620	3.23	3.26
	충 남	35,276	40,138	53,125	2.75	3.23
당 일 관 광 객	전 국	307,824	354,869	475,644	3.05	3.40
	충 남	47,727	55,201	73,679	3.13	3.34

주: 「제3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2002)」의 수요를 충남의 장래 변화여건을 고려하여 재예측함
 자료: 충청남도, 제3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2002.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2005.

〈표 II-49〉 전국 외국인 관광수요 전망

(단위: 천명, %)

구 분		2005년	2010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2005-2010	2010-2020
동북아	소 계	3,666(60.9)	4,613(53.7)	7,068(51.3)	5.16	5.32
	일 본	2,440	3,152	4,199	5.83	3.32
	중 국	709	1,056	2,246	9.78	11.2
	대 만	351	147	202	-11.0	3.7
	홍 콩	166	258	421	11.0	6.3
미 국		530(8.8)	719(8.4)	1,116(8.1)	7.13	5.5
기 타 지 역		2,132(30.3)	3,253(37.9)	6,803(49.4)	10.51	10.9
합 계		6,022(100.0)	8,585(100.0)	13,781(100.0)	7.13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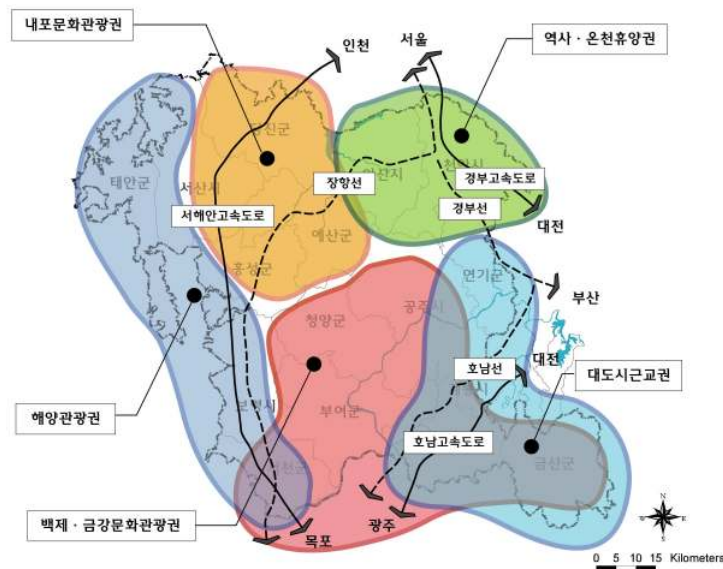
자료: 국토연구원 추계자료.
 문화관광부, 출입국통향, 2005.

다. 계획의 기본방향

■ 지역특성별 관광권역 설정과 대표적 특화 관광자원의 발굴·육성

- 자원의 특성과 동질성, 관광객 이용성향 기준으로 내포문화권, 백제·금강문화권의 2대 문화권역과 역사·온천휴양권, 해양관광권, 대도시근교권 등 5대 관광권역으로 구분하여 연계형 관광자원을 발굴·육성
- 해양관광권, 내포문화관광권, 백제·금강문화관광권, 역사·온천휴양권, 대도시근교권 등을 연계하여 관광권역별로 특색있고 다양한 관광명소를 특화 개발

〈그림 II-19〉 5대 관광권역



■ 관광거점도시 개발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기틀 마련

- 새로이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를 국제적 수준의 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
- 휴양과 웰빙 관광객을 위하여 온천이 집중한 도시에 온천·보양관광 도시를 개발
- 백제문화권 중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연계하는 배후지역에 역사 문화관광도시를 개발
- 환황해권 관광기능을 수용하는 서해안관광벨트 중심의 해양관광휴양 거점 전진기지 조성

■ 관광벨트 및 관광루트의 형성과 지역 관광자원의 연계망 구축

- 관광자원의 분포특성과 테마를 연계하여 상호 네트워크형의 관광벨트를 구축
- 해안과 내륙을 연계하는 테마관광도로를 조성하여 균형있는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추구
- 새로운 관광패턴형의 항공·해양레포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상호 연계하는 관광루트를 구축

■ 문화콘텐츠 상품의 제공으로 지역문화산업 활성화

- 웰빙문화의 확산에 따라 건강을 주제로 한 차별화된 먹거리 서비스 제공 및 체험상품 개발
- 역사자원과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소재로 하는 문화콘텐츠 상품 개발 및 판매 촉진
- 한류 대중문화를 충남의 자원과 접목한 관광상품 개발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 관광마케팅의 강화와 인접 지역간 상호 협력사업 추진

- 관광 마케팅 강화와 인접 시·군간 관광사업의 통합 홍보를 추진하고, 태안기름 유출에 따른 대응을 전화위복의 장소마케팅으로 활용
- 지역의 대표 문화관광축제를 세계적 축제로 집중 육성하고, 국제규모의 메가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
- 관광자원의 이용성과 관광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 추진

라. 세부추진 시책 및 주요 개발 사업

■ 지역 특성별 관광권역 설정과 특성화 개발 추진

- 백제·금강문화관광권을 백제역사문화자원, 금강 생태축과 연계한 문화·역사·생태관광지로 특화 발전
- 도청이전신도시 중심으로 서산, 홍성, 당진, 예산 등 내포문화관광권을 인물, 종교, 민속자원과 연안 관광중심의 역사문화·해양관광지역으로

육성

- 보령, 태안, 서천의 해양관광권을 해양, 연안, 생태, 휴양 등의 해양휴양관광지역으로 개발
- 천안·아산지역을 역사문화자원과 온천자원을 연계한 역사·온천휴양권을 특화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주, 논산, 연기, 금산, 계룡을 대도시근교형 관광위락지역으로 개발

〈표 II-50〉 관광권역 설정 및 관광특화

구 분	범 위	거 점	부거점	개발방향
백제·금강 문화 관광권	공주, 논산, 부여, 청양, 금산, 서천, 계룡	공주 부여	논산	백제역사문화자원과 금강 생태축을 연계한 문화·역사·생태관광
내포문화 관광권	서산, 홍성, 당진, 예산	예산·홍성 (신도청)	서산	내포문화권의 인물, 종교, 민속자원과 연안 관광중심의 역사문화·해양관광
해양관광권	보령, 태안, 서천	보령 태안	서천	안면·보령의 해양관광거점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연안, 생태, 휴양 등의 해양휴양관광
역사·온천 휴양권	천안, 아산	천안	아산	충절의 역사문화자원과 온천자원을 연계한 역사·문화·휴양관광
대도시 근교권	공주, 논산, 연기, 금산, 계룡	연기 (행복도시)	계룡	대도시근교형 관광위락지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산악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휴양·도시·문화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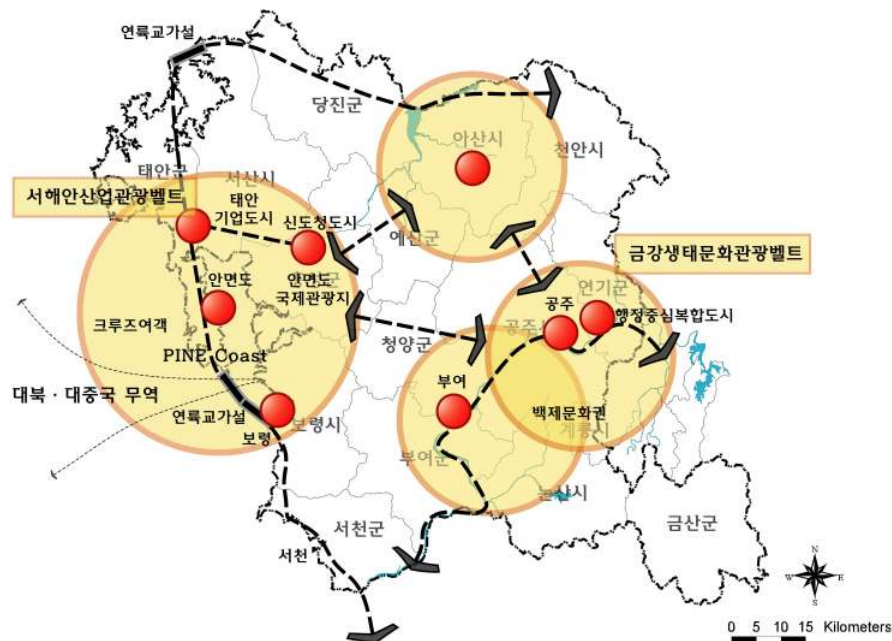
주: 관광권역은 입지 및 자원특성에 따라 중복 설정

■ 관광거점도시의 전략적 개발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를 국제적 문화관광도시로 육성
 -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의 건설시 친환경도시공간, 문화예술공간 및 시설, 회의산업 등의 문화관광기능을 도입하여 국제적 문화도시로 개발
 -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된 주변지역에는 백제호 종합개발, 고북저수지 개발, 송파수목원 조성사업, 운주산성 역사공원 조성 등 사업 추진
- 1,000만명이 찾는 건축 관광벨트 조성
 - － 행정중심복합도시·아산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내 초고층 건축물을 명품건물로 건축하여 충남의 새로운 미래형 관광자원으로 활용

- 신도시 건설시 초고층 건축물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육성
- 온천테마 보양·체험관광도시 개발
 - 역사온천휴양권의 중심 거점도시로서 온천자원(Spa)과 웰빙 보양, 관광체험요소들을 연계한 온천테마 보양·체험 관광도시를 개발하고, 온천관광지와 시내의 숙박시설·음식점, 주변 관광지들과의 연계 개발을 추진
 - 주요사업으로 아산만 해양관광지구, 광덕산 산림휴양단지, 영인산 수목원, 온천·옹기전시체험관, 외암리민속마을 보존 및 관광기반 확충 등 추진
 - 예산은 덕산을 중심으로 온천과 기반시설을 활용하고, 주변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기업체 연수 중심의 컨벤션산업 지역으로 개발
- 백제 고도 역사문화 관광도시의 개발
 - 공주와 부여, 논산, 청양 등을 거점으로 백제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한 백제 고도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개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 관광도시로 육성
 - 주요사업으로 공주부여·강경 고도 옛모습되살리기 추진, 백제역사재현단지 활성화, 금강생태공원 조성, 금강변 휴양시설 확충, 대백제전 개최, 백제의 집 건립 등임

〈그림 II-20〉 관광거점도시의 위치와 상호 관계



- Pine Coast 해양관광휴양 거점 조성

- 보령, 태안, 홍성 일대를 서해안관광벨트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국제적 해양관광휴양벨트로 구축하여 마름모형의 서해안 관광거점도시로 개발
- 안면도국제관광지(지포지구 포함) 조성, 태안관광레저기업도시 건설, 대천해수욕장 및 원산도관광지 개발, 이원-대산간 및 안면도-보령간 연륙교 건설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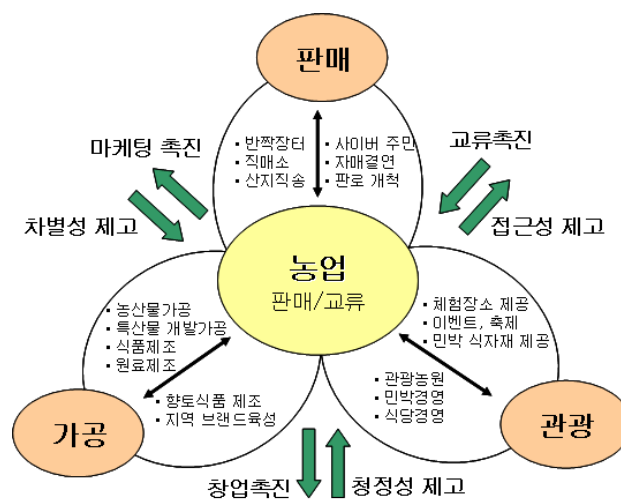
■ 관광명소의 발굴·육성과 상호 연계

- 자연경관 및 자연현상 명소관광지 육성
 - 기존 지정관광지, 해안관광도로, 관광미항, 마리너시설, 경관명소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명소자원을 특화 개발
 - 해안과 내륙의 경관자원, 자연특이현상, 희귀한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테마 명소관광지를 지정 육성
 - 기존 지정관광지 정비 및 조성, 해안산업관광도로 개설, 칠갑간 스타파크, 용봉산산림휴양타운 등 지역의 자연환경에 맞는 명소관광지로 조성
 - 특히, 해안의 안흥·보령·홍원·남당·삼길포항 등 관광미항 건설, 해안·도로·산악 경관명소관광지 조성 등을 시범 육성
- 종교·인물·유물 등 역사테마 관광지 개발
 - 충남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수목적 관광상품으로 역사인물 탐방, 불교문화탐방, 천주교성지순례 등 다양하게 개발
 - 역사자원 관광상품화를 위한 관광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
 - 한국최초 성경전래지 성역화사업, 침례교 최초선교지 성역화 사업, 사찰문화체험(템플스테이), 역사인물탐방, 봉선리유적 공원화 사업, 기벌포문화거리 조성, 황도 관광지구 등 추진
 - 서동요 세트장 및 팔충사 사적공원 조성
-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태안 기름유출 주변지역을 환경관광중심지구로 개발하고, 서해안에서 생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고, 교육과 관광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
 - 국립·도립자연공원, 서해안의 갯벌, 강과 하천의 수변자원, 해안사구, 담수호와 산악계곡 등의 환경자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생태교육 및 체험중심의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
 - 주요 사업으로는 태안환경관광지구, 서산AB지구 생태공원, 탑정호생태공원,

금강하구·유부도 생태공원, 신성리 갈대밭 체험장, 청양 지천지구 및 칠갑산 토텐 생태자원,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오서산 및 죽도 생태공원 조성 등을 추진

- 농어촌 관광마을과 재래시장의 관광자원화
 - 농산어촌의 판매·가공·관광을 결합하여 체험관광마을로서 녹색관광상품을 개발
 - 농산어촌의 어메니티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제공하여 도시·농촌간 교류·공생의 장으로 조성

〈그림 II-21〉 농촌관광의 방향성



- 지역별로 특색 있는 시골장터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서산의 삼화목장 등을 관광자원으로 개발
- 읍·면단위 시골장터를 지역특산물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하여 주말 관광시장으로 개발하고, 강경은 젓갈문화관광지구로 조성
- 농어촌 관광마을을 갯벌체험민박마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철새민박마을 등과 연계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 육성
- 해양·항공레포츠형 위락시설 개발과 연계 프로그램 구축
 - 해양수상·항공레저스포츠 기반시설로서 레포츠용 경비행장과 마리너 시설 조성
 - 해변 이벤트를 개발하고, 창벽레포츠단지를 조성하여 기반시설과 연계

■ 네트워크형 관광벨트와 관광코스 개발

- 서해안·역사문화·산악·금강생태 문화관광벨트 조성
 - 지역적으로 분포된 자원의 특성에 따라 서해안문화관광, 역사문화체험, 산악건강체험, 금강생태문화관광벨트 등을 조성
 - 해안과 역사문화, 산악, 금강생태 등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테마자원간에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여 관광코스로 개발

- 해양, 역사문화, 온천 자원은 청주공항과 평택·당진항(유람선 운행하여 다시 환원)을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상품을 제공하는 문화관광벨트로 발전
- 주요 사업으로는 서해안관광벨트 조성, 산악관광벨트 조성,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서해안 갯벌탐사 관광루트 조성, 금강변 생태관광벨트 건설 등을 추진

〈표 II-51〉 관광벨트별 개발방향

구 분	해 당 코 스	개 발 방 향
서해안문화 관광벨트	당진-서산-태안(태안환경관광지구/태안해안국립공원)-홍성-보령-서천	해양자원과 내포문화권을 연계한 국제교류지대 형성
역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천안-아산-예산-홍성-청양-부여-공주	내포·백제문화와 온천자원 등을 연계한 역사체험휴양지대 형성
금강생태문화 관광벨트	서천-부여-공주(금강)	백제문화권, 금강 연계 생태탐방 및 문화체험
산악·건강체험 관광벨트	예산(덕산, 가야산)-홍성(용봉산)-청양(칠갑산)-공주(계룡산)-금산(대둔산)	등산, 산악레포츠 등 산악체험 및 휴양

〈그림 II-22〉 문화·관광 네트워크형 광역 관광벨트



- 해안·내륙 연계 테마관광도로 조성
 - 서해안 해안관광도로, 내륙연결 산업관광도로, 금강변 산업관광도로, 금강 관광경전철 등의 관광교통망과 연계하여 관광개발
 - 해안과 금강내륙으로 이어지는 생태자원, 철새도래지, 금강변 경관자원을 직접 경유할 수 있는 금강변 테마관광도로를 이용한 교통루트 및 이용수단의 활성화
 - 백제문화와 서해안 휴양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중부내륙 테마관광도로를 건설하여 서해안 접근성 제고와 관광산업도로 기능 강화
 - 주요 사업으로 해안관광도로 건설, 금강생태계 복원, 금강변 자전거도로 조성, 관광휴양시설 확충, 금강 자연생태탐방 도로 조성 등을 추진

■ 현대 관광수요에 적합한 문화콘텐츠 상품의 제공

- 가족·건강·체험관광형 웰빙관광상품 제공
 - 웰빙 선호관광객을 위한 유기농 식품, 웰빙 음식축제, 체험프로그램 등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
 -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장 확대 조성, 청양 로하스 레포트타운과 전통 캠프촌 조성, 태안그린 웰빙파크 조성 등 추진
- 역사문화 소재 원형 문화콘텐츠 상품 개발과 판매 촉진
 -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와 연계한 역사도시 문화관광상품 개발
 - 주요사업으로 정암리 와요지 정비사업, 서동요셋트장 및 계백장군 무예촌 관광지, 의좋은형제 체험관광촌 조성 등을 추진
- 청주공항 등과 연계한 한류 패키지 외국인 관광코스 상품 개발
 - 한류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로부터 파생된 충남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상품화를 추진
 - 관광상품 및 서비스, 관광관련 업소 등에 대해 인증제를 실시하여 외국관광객에 대한 신뢰도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
 - 청주공항과 연계하여 온천과 백제·내포·서해안 연계 관광패키지 상품 및 관광코스를 집중 개발
 - 드라마셋트장 관광자원화, 영상테마복합단지 조성, 금산인삼엑스포 행사장 관광지구 조성, 백제문화권 패키지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

■ 충남 관광마케팅과 시·군간 협력사업 추진

- 충남 관광브랜드의 개발과 마케팅 강화사업

- 충남 관광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늘 가까운 충남(Near-Chungnam)’의 의미의 관광브랜드를 개발하고 관광마케팅을 강화
- 충남의 홍보·관광안내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간 관광자원들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
- 충남관광에 대하여 모든 관광홍보물, 관광축제, 관광설명회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상품의 통합브랜드화를 추진
- 유비쿼터스 시대에 적합한 U-관광도시, U-관광홍보, U-관광안내 등과 인터넷, 모바일 관광안내체계를 강화
- 종합관광안내시스템 표준화 사업, 천수만생태자원 유네스코 등록 등을 추진
- 문화관광축제의 세계화와 메가이벤트의 정기 개최
 - 공주·부여 백제문화제 통합 개최, 금산인삼제, 보령머드축제, 한산모시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강경젓갈축제, 홍타령축제 등 충남의 지역문화제를 세계적 문화제로 육성
 - 2008년 세계 군문화 엑스포 개최, 2010년 대백제전 개최, 세계 철새엑스포, 국제 게임엑스포 등을 추진하고, 이를 정기 개최하여 지속성 확보
- 시·군간 상호 협력적 관광자원 및 관광코스 개발과 지역축제의 개최
 -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적 특성이 유사하거나 상호 연관이 있는 시·군들의 협력개발을 추진하여 지역별 자원 활용의 효과성 제고
 - 특히, 투자효율성 도모와 사업효과의 극대화 유도를 위해 관광지 조성 및 관광사업, 지역축제, 체험프로그램 등을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
 - 시·군 공동으로 서해안Sea Food페어 상품화, 테마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굴포운하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
- 관광서비스 및 지역 문화관광 인력 양성
 - 급증하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음식, 쇼핑, 안내·해설 등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관광인력을 전략적으로 양성하고, 사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제도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숲해설사, 생태해설사, 레포츠지도사 등의 다양한 문화관광 인력을 단계별로 양성

〈그림 11-23〉 관광개발 구상도



〈표 11-52〉 관광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개발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관광권역별 관광거점과 대도시 배후 테마관광지 개발	대도시 배후 관광지와 국제관광도시 조성	· 백제호 종합개발(부여, 2,975천㎡) · 안면도국제관광지(6,115천㎡) · 태안관광래저형 기업도시 건설(14,612천㎡)
	온천테마 보양·체험관광지 개발	· 아산만권 해양휴양단지(아산) · 온천·옹기전시체험관 건립(아산 도고, 17,365㎡)
관광거점 연계형 관광명소의 발굴·육성	명소관광지 및 역사테마관광지 개발	· 기존 지정관광지 정비 및 조성(25개소) · 신규 지정관광지 조성(4개소) ·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예산 대흥, 66,116㎡)
	생태관광자원 및 농어촌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 탐정호생태관광지구(논산 탐정, 52,892㎡) ·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예산 예당, 109,091㎡)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1개소)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한 관광자원 개발 및 이벤트 개최	레포츠형 위락 및 웰빙체험관광 개발	· 마리너시설 조성(보령, 서천, 홍성, 당진 등 서해안 지역) · 태안그린웰빙파크 조성(태안 원북, 694천㎡)
	메가이벤트의 정기 개최와 시군 협력 관광자원 개발	· 문화관광축제 육성 (금산, 보령, 서천, 강경, 아산 등) · 세계 군문화 엑스포 개최(계룡) · 대백제전(공주·부여) · 서해안 Sea Food 페어 (보령, 서산, 태안, 홍성, 당진, 서천 등)

제4장 신속하고 편리한 인프라 구축

1. 전방위 교류·교역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
2. 생산·물류 신중심권 구현을 위한 물류·유통기반 강화
3. 디지털복지사회를 위한 유비쿼터스 충남 구현

1. 전방위 교류·교역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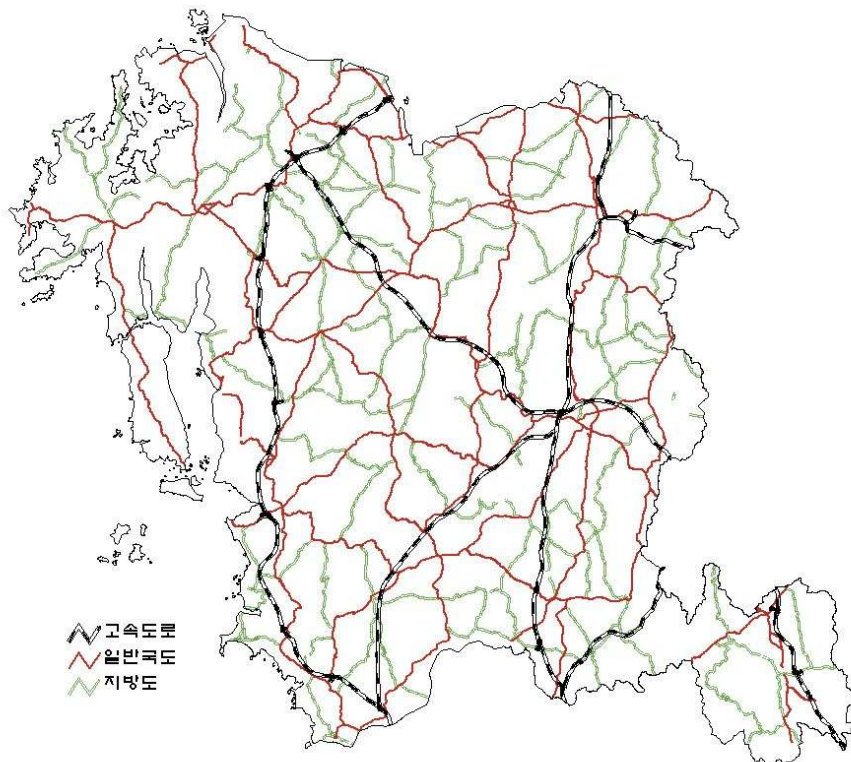
가. 현황과 문제점

1) 도로

■ 도로망

- 충청남도의 고속국도는 남북축으로 5개 노선이 건설되어 운영 중이며, 동서축 연결을 위한 2개 노선이 건설 중에 있음
- 일반국도는 남북 10개 노선과 동서 6개 노선이 지역간 연결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동서간 연결노선이 부족함
- 지방도는 총 37개 노선(남북 26, 동서 11)으로 충청남도 전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나, 내륙은 금북정맥 및 금남정맥으로 가로막혀 도로의 단절 및 연장이 길어지고, 차선수도 적어 통행이 원활하지 못함

〈그림 II-24〉 도로망 현황(2004)



〈표 II-53〉 도로체계 현황(2004)

구분		노 선 명	비고
고속국도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대전-통영간고속도로, 당진-대전간고속도로(건설중), 서천-공주간고속도로(건설중)	7개 노선
일반국도	남북	•1, 13, 17, 21, 23, 29, 37, 39, 45, 77	10개 노선
	동서	•4, 32, 34, 36, 38, 40	6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		•23, 55, 57, 68, 70, 96	6개 노선
지방도	남북	•507, 591, 601, 603, 607, 609, 611, 613, 615, 617, 619, 623, 625, 627, 629, 633, 635, 645, 647, 649, 691, 693, 697, 725, 795, 799	26개 노선
	동서	•604, 606, 610, 614, 616, 618, 622, 624, 628, 634, 696	11개 노선

■ 도로시설 현황

- 충남은 수도권과 영·호남지역의 가교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비율이 전국에 비해 높음
- 도로연장은 총 7,543km로 전국의 7.5%를 차지하고, 72.8%의 포장률로 전국 평균(76.1%)보다 낮은 실정임
- 1인당 또는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이 전국에 비해 1/2 수준이며, 도로밀도에 비해 포장률이 낮아 실질적으로 도로의 확포장이 필요함

〈표 II-54〉 도로시설 현황(2004)

(단위: km, %)

구분	총연장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 방 도	시 도	군 도
전국(A)	100,278 (100.0)	2,923 (2.9)	14,246 (14.2)	17,371 (17.3)	17,476 (17.4)	24,539 (24.5)	23,723 (23.7)
충남(B)	7,543 (100.0)	304 (4.0)	1,321 (17.5)	— —	1,817 (24.1)	1,726 (22.9)	2,375 (31.5)
전국대비비율 (B/A*100)	7.5	10.4	9.3	—	10.4	7.0	10.0

자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5

〈표 II-55〉 도로시설 수준 비교(2004)

구 분	면적 (km ²)	인구 (천명)	도로연장 (km)	포장 (km)	포장율 (%)	도로밀도 (km/km ²)	1인당 도로연장 (m/인)	자동차 대수 (천대)	자동차1대당 도로연장 (m/대)
전 국	99,617	49,053	100,278	76,347	76.1	1.0	2.0	14,934	6.7
충 남	8,598	1,973	7,543	5,494	72.8	0.9	3.8	636	11.9

자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5

■ 교통량 및 애로구간 분석

- 충청남도의 고속도로 교통량은 경북측의 교통량을 주변의 신설고속도로에서 분담하고 있어, 경부·대전-통영간고속도로는 감소하고, 호남·서해안·천안-논산간고속도로가 증가함
- 기존의 수도권 관련 교통량과 서해안 관광 등 여가교통량의 증가로 충남과 경기를 잇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주변과 서해안고속도로 당진J.C 주변에서 주말과 공휴일 및 명절에는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음
- 서해안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고속도로의 개통은 호남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접속부의 상습 정체현상을 완화하였음
- 일반국도의 경우는 북부지역에는 산업 및 택지개발 등으로, 서해안은 관광 목적의 교통량 증가로 22개 구간(전체 구간의 33%)에서 애로구간이 발생하고 있음
- 국도 확포장사업의 추진으로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00)」 수립 시보다 개선되었음

〈표 II-56〉 고속국도 교통량과 애로구간 분석

노선	구간	차선 수	연장 (km)	교통량(대/일)			V/C	비고 (도3차)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가율(%)		
경부고속도로	대전-천안	6-8	68.2	113,493	93,792	-3.74	1.09	0.94-1.21
	천안-수원	8	52.3	142,702	132,551	-1.46	1.54	0.87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대천	4	56.3	24,133	20,322	-5.57	0.35	
	대천-서산	4	54.9	28,715	28,396	-0.37	0.33	
	서산-송악	4-6	24.0	38,348	40,034	1.44	0.47	
	송악-안산	6	53.2	72,403	88,492	6.92	1.03	
호남고속도로	전주-논산	4	24.7	30,490	36,948	3.92	0.64	0.72
	논산-회덕	4	54.0	22,907	27,758	3.92	0.48	0.77-0.87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논산-천안	4	80.9	19,532	24,358	11.67	0.42	
대전-통영간고속도로	무주-산내	4	41.8	28,931	27,901	-1.2	0.48	

주: 개통시기에 따라 서해안고속도로는 2002년, 천안-논산간고속도로는 2003년, 대전-통영간고속도로는 2002년 자료를 사용

자료: 건설교통부, 교통량조사자료, 해당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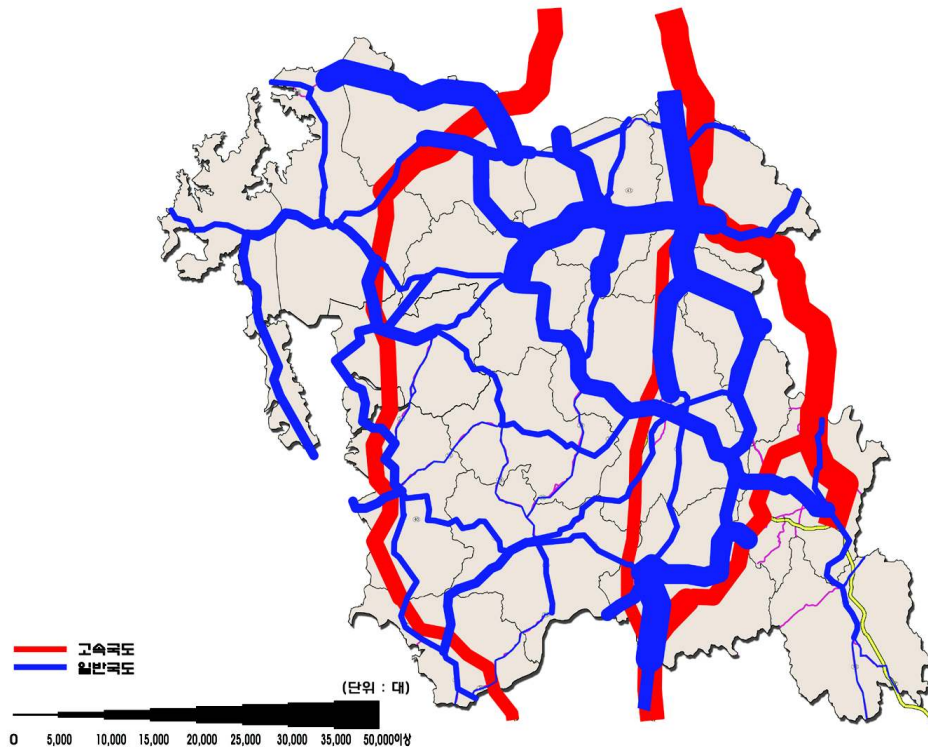
〈표 II-57〉 일반국도 교통량 및 애로구간 현황(2000, 2005)

노선	구간	차선수	연장(km)	교통량(대/일)			V/C	비고 (도3차)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가율(%)		
1호선	삼례읍-논산시	4	40.36	23,716	22,774	-0.81	0.57	1.02
	논산시-봉암리	4	33.90	51,416	51,389	-0.01	1.25	0.50
	봉암리-종촌리	4	13.95	14,199	23,106	10.23	0.57	0.40
	종촌리-조치원	4	9.50	19,446	27,111	6.87	0.66	0.35
	조치원-천안시	4	31.81	37,591	48,604	5.27	1.19	0.55
	천안시-평택시	4-6	23.02	33,818	41,807	4.33	1.02	0.71
4호선	장항읍-서천읍	4	10.80	11,585	8,036	-7.05	0.80	1.20
	서천읍-부여읍	2-4	37.12	17,493	15,598	-2.27	1.55	0.56
	부여읍-논산시	2-4	21.43	14,300	12,470	-2.70	0.63	1.31
	계룡시-대전시	4	19.14	32,258	33,338	0.66	0.82	0.70
13호선	남일면-금산읍	2	7.70	-	3,358	-	0.34	-
17호선	고산면-마전리	2	45.40	5,880	4,310	-6.02	0.43	0.62
	마전리-대전시	2-4	20.81	17,945	9,883	-11.25	0.99	1.51
21호선	개정면-보령시	2-4	47.23	20,573	14,214	-7.13	1.42	1.00
	보령시-홍성읍	4	31.49	13,949	9,575	-7.25	0.96	1.23
	홍성읍-오가면	4	17.65	15,378	12,656	-3.82	0.31	0.34
	오가면-아산시	4	23.95	55,846	50,322	-2.06	1.23	0.68
	아산시-천안시	4	17.02	51,014	57,755	2.51	1.41	1.30
	천안시-병천면	2-4	13.80	23,467	19,637	-3.50	0.98	1.63
	병천면-사석리	2	14.25	5,437	6,183	2.60	0.62	0.44
23호선	함열읍-논산시	4	19.79	8,577	24,935	23.79	0.61	0.43
	논산시-공주시	4	28.61	11,351	13,832	4.03	0.70	0.81
	공주시-전의면	4	33.05	19,121	30,600	9.86	0.76	1.28
29호선	효실리-한산면	2	9.05	6,636	4,349	-8.10	0.44	0.71
	한산면-임천면	2	15.74	5,602	3,877	-7.10	0.39	0.51
	임천면-규암면	2	13.09	6,848	5,366	-4.76	0.54	0.72
	규암면-청양읍	2	26.51	6,982	4,649	-7.81	0.46	0.57
	청양읍-홍성읍	2	24.67	7,630	6,608	-2.84	0.66	0.64
	홍성읍-해미면	2-4	25.40	7,867	24,763	25.78	1.24	0.81
	해미면-서산시	4	10.36	16,194	17,609	1.69	0.88	1.56
	서산시-대산읍	4	25.57	12,422	14,855	3.64	0.37	0.33
32호선	만리포-태안읍	2-4	15.95	9,659	5,842	-9.57	0.58	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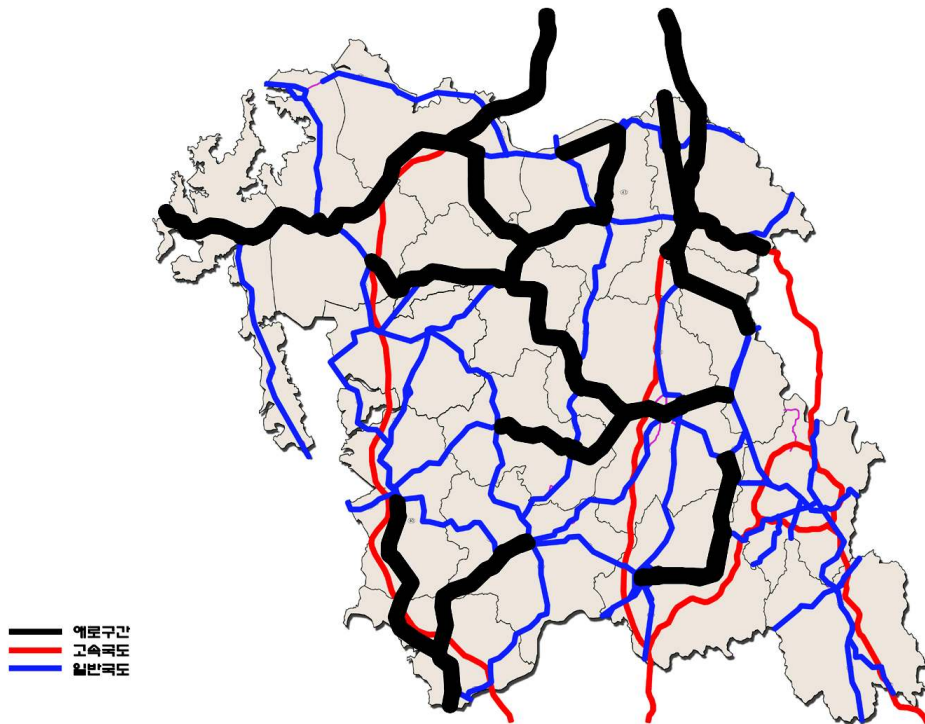
노선	구간	차선수	연장(km)	교통량(대/일)			V/C	비고 (도3차)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가율(%)		
32호선	태안읍-서산시	4	16.27	19,165	19,907	0.76	1.00	1.81
	서산시-당진읍	4	25.02	13,089	12,737	-0.54	1.27	1.18
	당진읍-신례원	2-4	32.87	36,541	28,330	-4.96	1.42	1.29
	예산읍-동대리	2-4	46.04	19,503	16,785	-2.96	1.67	0.92
	동대리-공주시	4	7.29	19,148	20,857	1.72	1.04	1.90
	공주시-반포면	4	14.31	27,003	29,027	1.46	0.72	0.46
34호선	신평면-인주면	4	16.10	30,239	20,663	-7.33	0.51	0.62
	인주면-둔포면	2-4	14.55	12,658	12,315	-0.55	1.23	1.02
	둔포면-성환읍	2-4	8.68	7,327	7,589	0.71	0.75	0.67
	성환읍-도림리	2-4	11.91	10,510	12,514	3.55	1.25	0.98
	도림리-진천읍	2	21.98	4,037	4,268	1.12	0.43	0.64
36호선	대천동-보령시	2-4	10.64	20,124	19,497	-0.63	0.48	0.48
	보령시-청양읍	2-4	23.86	6,981	7,090	0.31	0.70	0.64
	청양읍-동대리	2-4	32.64	9,940	10,320	0.75	1.03	0.89
	공주시-종촌리	2-4	8.76	10,147	10,709	1.08	1.07	0.87
	조치원-청주시	4	21.12	19,961	26,511	5.84	0.65	0.58
37호선	가옥리-금산읍	2-4	24.64	5,744	2,874	-12.93	0.29	0.35
	금산읍-마전리	4	10.29	15,369	13,777	-2.16	0.34	0.27
	마전리-옥천읍	2-4	17.78	7,382	8,246	2.24	0.82	0.69
38호선	송산면-포승면	2-6	32.33	19,280	40,031	15.73	0.98	-
39호선	은산면-정산면	2	16.52	5,313	3,540	-7.80	0.35	0.42
	정산면-신평면	2	12.87	4,592	2,994	-8.20	0.30	0.40
	유구읍-아산시	2	31.45	8,816	7,413	-3.41	0.74	0.95
	아산시-인주면	4	12.70	22,569	30,172	5.98	0.73	0.76
40호선	덕산면-주포면	2-4	46.35	-	16,232	-	0.79	-
	보령시-개화리	2-4	10.31	7,912	5,711	-6.31	0.57	059
	개화리-구룡면	2-4	20.70	5,273	4,554	-2.89	0.46	047
	부여읍-공주시	2-4	30.98	6,355	4,774	-5.56	0.48	0.79
45호선	해미면-덕산면	2	17.39	10,179	10,910	1.40	1.09	1.17
	덕산면-오가면	2	13.16	12,119	10,686	-2.49	1.07	1.26
	아산시-둔포면	4	14.73	10,771	13,359	4.40	1.34	1.07
	둔포면-평택시	4	7.65	17,212	23,062	6.03	1.15	1.30
77호선	고남면-태안읍	2-4	47.25	-	19,415	-	0.48	-

자료: 건설교통부, 교통량조사자료, 해당년도

〈그림 II-25〉 교통량 현황(2005)



〈그림 II-26〉 애로구간 현황(2005)



2) 철도

■ 철도시설

- 철도노선은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등 총 7개 노선에 연장 268km가 건설되어 있으며, 총 45개 철도역이 있음
- 경부선, 호남선은 도내의 동북단과 동남단에 치우쳐 있어 통과수송 위주로 지역내 여객 및 물동량 수송에 대한 기여도는 떨어지고, 내륙지역의 철도여건이 미약하며,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미흡함

〈표 II-58〉 철도시설 현황(2004)

노 선	구 간	연 장(km)	비 고
전 국		3,374.1	—
충 남		268.1	—
경 부 선	성 환 ~ 내 판	60.1	여객운송
호 남 선	두 계 ~ 강 경	30.1	여객운송
장 항 선	모 산 ~ 장 항	143.1	여객운송
강 경 선	채 운 ~ 연무대	9.0	화물운송
충 북 선	조치원 ~ 봉 양	4.4	여객운송
서천화력선	간 치 ~ 동백정	17.1	화물운송
남 포 선	남 포 ~ 옥 마	4.3	화물운송
전 국 대 비(%)		7.95	—

자료: 대전지방철도청, 철도통계연보, 2005.

■ 철도수송

- 철도를 이용한 권역내의 총여객통행은 2004년 19,536천명으로 1998년에 비하여 연평균 1.5%씩 감소하였으며, 화물은 연평균 0.8%씩 감소함. 다만 화물의 발송톤수는 2004년 708천톤으로 1998년에 비하여 0.7%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충남지역 제조업의 증가에 기인함

〈표 II-59〉 철도수송 현황

구분	승객(천명)			화물(천톤)		
	승차인원	강차인원	계	발송톤수	도착톤수	계
2004년	9,741	9,795	19,536	708	2,053	2,761
1998년	10,628	10,855	21,483	678	2,216	2,894

자료: 충청남도, 통계연보, 1999, 2005.

- 충청권의 철도 이용객 감소는 철도와 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자동차이용으로 교통수요가 이동하였기 때문이며, 장항선이 호남지역의 철도와 연결되지 않은 요인도 있음

3) 항만

■ 항만시설

- 2004년말 현재 충청남도에 지정된 무역항은 5개로 접안능력이 29선석이고, 하역능력이 39,993천톤/년이며, 연안항은 2개로 접안능력이 756척이며, 하역능력은 552천톤/년임
- 충청남도의 항만시설은 접안능력이 빈약하고 컨테이너 처리시설이 없어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고, 주요 취급화물은 유류임
- 평택·당진항의 경우, 주로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항이 주를 이루고 있어, 충남지역의 물동량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주요 산업지역과의 연결 교통망이 확충되고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항만의 확충이 필요함

〈표 II-60〉 충청남도 무역항 개발계획(2004)

항 명		개발계획	현황	하역능력 (천톤/년)
무역항	소계	81선석	29선석	39,993
	평택·당진항	5만톤급등 41선석	5만톤급등 6선석	16,869
	대산항	25만톤급등 25선석	25만톤급등 17선석	5,040
	보령항	13만톤급등 11선석	13만톤급등 2선석	10,672
	장항항	1만톤급 2선석	1만톤급 2선석	1,626
	태안항		15만톤급 2선석	5,786
연안항	대천항	물양장 : 1,180m 방파제 : 1,220m 여객터미널 1동	접안시설 : 1,180m 방파제 : 1,220m 호안 : 1,085m	
	비인항	물양장 : 411 방파제 : 635 호안 : 755	접안시설 : 279m 방파제 : 410m 호안 : 691m	

자료: 충청남도, 해양수산과 내부자료, 2005

나. 여건변화와 전망

1) 여건변화

■ 동북아 경제권의 중추 역할 수행 및 국제 교통량의 증대

- EU, NAFTA 등과 더불어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2020년, 전세계의 29% 차지)에 따라 국제교류 및 물동량의 증대에 대응한 국제적 교류 거점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됨

■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관광지 개발에 따라 인구증가 및 교류 확대

- 행정중심복합도시(50만명), 신도청도시(15만명) 등 충남지역에 건설되는 신도시로의 인구 유입과 제조업체 증가로 교통량 급증 예상
- 안면도국제관광지, 태안기업도시와 백제·내포문화권 및 서해안관광벨트 개발 등으로 관광객 증가 예상
- 호남고속철도 건설, 수도권 전철의 신도청도시 연장으로 수도권 및 타지역으로부터의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

■ 개인교통수단의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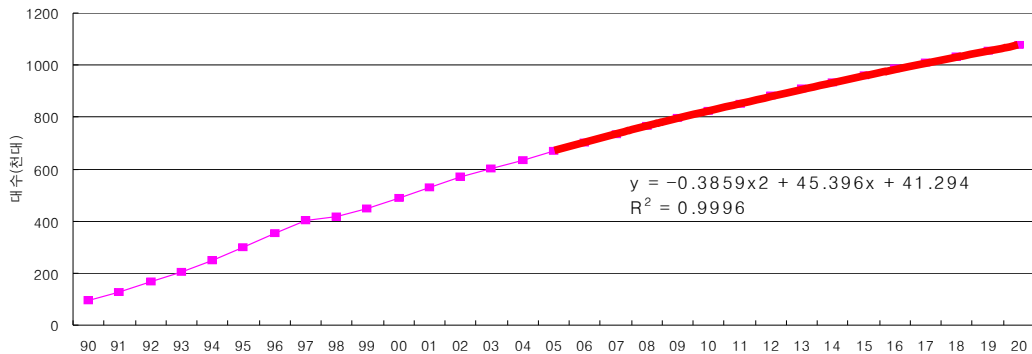
- 충청남도의 자동차 보급대수는 1993년 20.6만대에서 2004년 63.6만대로 3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평균 10.8%씩 증가한 것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택지공급으로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율은 3%이상(경제성장률 하한치)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2) 교통수요 전망

■ 자동차보유대수의 전망

-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10)」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를 2004년에 14,934천대에서 2020년에는 23,310천대로 1.56배 증가 전망(연평균 증가율 3%, 1가구당 1대 예상)
- 충청남도의 1990~2005년까지의 증가추세를 적용하면, 2020년의 자동차대수는 1,078천대가 될 것으로 전망

〈그림 II-27〉 충청남도 자동차 보유대수



주 : 추세선은 R²값이 가장 높은 다항식을 선정
 자료 : 건설교통부, 도로업무편람, 2006.

■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통시설의 필요성 대두

- 충남지역의 관광객수는 2010년에 95,339천명, 2020년에 126,815천명으로 약 3.5%에 가까운 연평균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2005)
- 당일관광은 2020년 73,679명으로 연평균 3.34%씩, 숙박관광객은 53,125명으로 연평균 3.23%씩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승용차 및 전세 버스에 의한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관광객은 개인교통수단을 80%, 대중교통수단을 20%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철도망 확충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이 필요
- 따라서, 대규모 이동이 가능한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통해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내의 시내버스시스템을 관광투어형으로 개선하여 관광지들을 연결할 필요성이 큼

■ 교통량 전망

- 충남지역은 자체 통행량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수도권 등 타지역과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
- 충남지역의 도착통행량을 목적별로 구분하면 업무 36.77%, 귀가 25.47%, 여가 18.40% 순임. 업무, 귀가 및 여가 통행량은 고속교통망의 확충과 주5일근무제의 정착 및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충남지역의 지역간 간선교통망의 확충이 필요함

〈표 II-61〉 충청남도 통행량 추정

(단위: 통행, %)

구분	도착통행량			발생통행량		
	2006년	2021년	연평균증가율	2006년	2021년	연평균증가율
수도권	181,222	218,871	1.27	166,343	199,820	1.23
강원권	3,902	5,799	2.68	3,720	6,071	3.32
충청권	122,383	169,552	2.20	128,144	175,404	2.11
호남권	46,731	51,993	0.71	50,781	56,517	0.72
영남권	20,645	36,135	3.80	23,845	41,466	3.76
충남	265,373	301,493	0.85	265,373	301,493	0.85
합계	640,256	783,843	1.36	638,206	780,771	1.35

자료: 국가교통DB센터, 교통통계, 2005.

〈표 II-62〉 목적별 통행량 전망(2021)

(단위: 통행, %)

구분	통행목적							합계
	출근	업무	귀가	통학	쇼핑	여가	기타	
통행량(통행)	40,996	288,186	199,629	20,560	22,561	144,264	67,647	783,843
비율(%)	5.23	36.77	25.47	2.62	2.88	18.40	8.63	100.00

자료: 국가교통DB센터, 교통통계, 2005.

■ 장래여객 및 화물수송량의 전망

- 충남지역의 장래 화물 물동량은 2006년에 1억 2,390만톤에서 2021년에 2억 2,972만톤으로 4.20%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내 물동량보다 지역간 물동량이 1.2배 더 많아 지역간 교통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 충남지역의 항만물동량은 2005년 대비 2006년에는 29.1%, 2011년에는 74.4%의 증가가 예상되어 항만시설의 확충이 요구됨

〈표 II-63〉 충남지역 장래 화물물동량 전망

구 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연평균증가율(%)
지역내물동량(톤)		56,134,319	70,832,579	85,690,994	103,627,791	4.17
지역간 물동량(톤)	발생	40,606,164	51,075,164	61,827,345	74,811,129	4.16
	도착	27,162,749	34,574,607	42,062,234	51,277,235	4.33
합 계		123,903,232	156,482,350	189,580,573	229,716,155	4.20

자료: 국가교통DB센터, 장래통행량 예측자료, 2005(<http://www.ktdb.go.kr>).

〈표 II-64〉 충남지역 항만물동량 전망

(단위 : 천톤, %)

구분 항명	2005년 처리실적(A)	2006년		2011년		비고
		물동량(B)	비율(B/A)	물동량(C)	비율(C/A)	
계	106,798	137,910	129.1	186,232	174.4	
보령항	8,650	8,426	97.4	11,094	128.2	13만톤급 2선석
평택·당진항	43,133	67,345	156.1	105,226	244.0	5만톤급등 11선석
대 산 항	44,720	53,033	118.6	58,168	130.1	25만톤급 17선석
장 항 항	1,414	1,150	81.3	1,271	89.9	1만톤급 2선석
태 안 항	8,881	7,956	89.6	10,473	117.9	15만톤급 2선석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용역, 2004.

다. 계획의 기본방향

■ 도내 1시간 생활권 실현과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체계 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신도청도시의 건설과 연계하여 전국에서의 접근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기간교통망을 기초로 그동안 미약했던 지역과의 연계교통망을 우선적으로 강화
- 고속도로 계획노선의 조기개발이 필요하며, 보조간선기능으로 신도청도시를 중심으로 한 고속화도로를 확충

■ 산업·관광개발의 촉진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

- 지역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변 타시·도와 연접한 도내지역을 개발·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망을 확충
- 해안지역과 내륙을 잇는 금강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여 금강관광경전철을 건설

■ 국제 직교류 거점 구축을 위한 항만개발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항만 및 서해안 관광벨트의 거점항만 개발
- 환황해권의 경제성장을 비롯하여 대중국과의 교역확대 등 국제적인 여객 및 물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해양물류기지를 조성

■ 항공 교통시대를 선도할 근거리 항공의 실용화와 경비행장 건설

- 충청권에 부족한 공항시설을 확보하고, 관광과 접목시켜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 등 실용적인 항공교통시설을 확보

■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체계 정비 및 신교통수단 도입

-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및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는 노선선정 및 저감방안 강구 등 환경친화적 건설 추진

라.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 개발사업

1) 도내 1시간 생활권 실현과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체계 구축

■ 전국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동서축과 남북축의 고속도로망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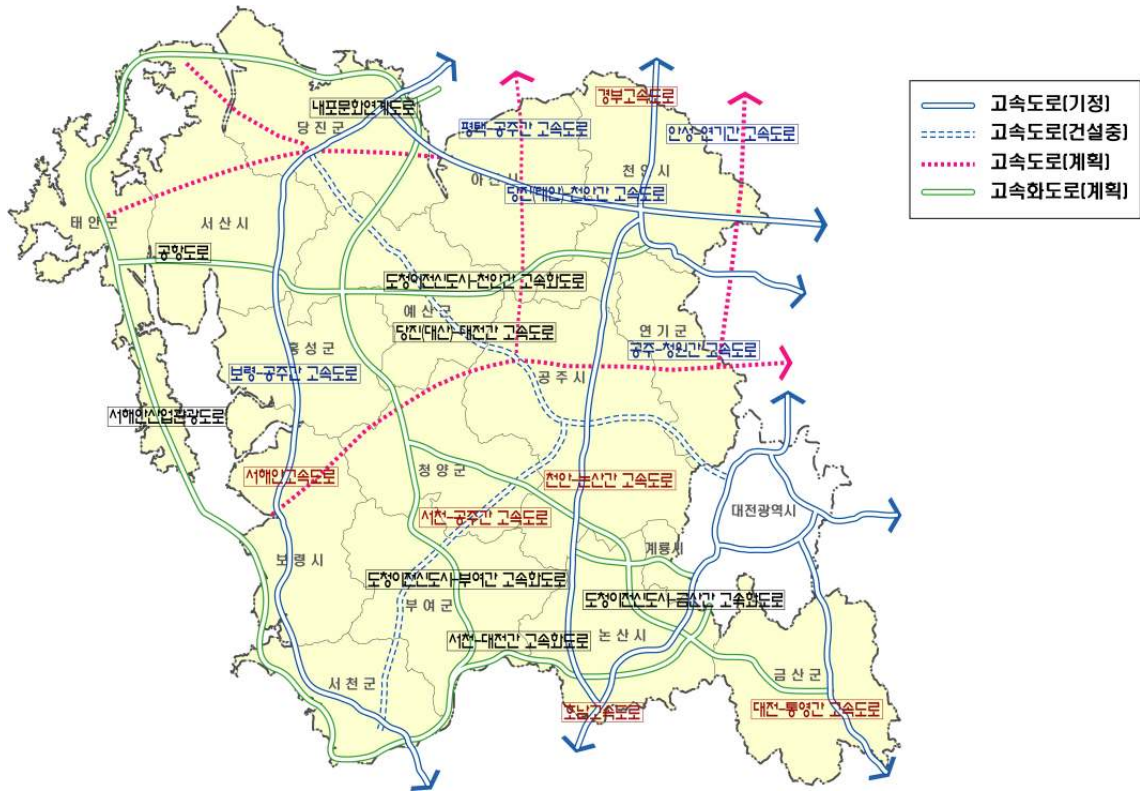
- 보령-공주간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내륙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동서축을 강화하고, 서해안의 지역발전을 촉진
-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접근을 지원하는 외곽순환교통망으로써 공주-청원간고속도로 건설
- 건설중인 대산(당진)-대전간고속도로와 서천-공주간고속도로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북부 및 남부해안권의 산업지대와 신도청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성을 강화
- 태안(당진)-천안(오창)간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북부권의 산업기능을 지원하고 수도권 인접지역의 병목현상을 해소
- 평택-공주간고속도로, 안성-연기간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및 수도권으로부터의 신속한 이동성 확보

■ 신도청도시를 중심으로 도내 1시간 통행을 위한 고속화도로 건설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신도청도시의 연결 강화, 동서간 연결교통망 구축, 백제문화권 및 내포문화권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홍성서북부우회도로, 신도청도시~천안간고속화도로(천안, 아산지역), 내포문화연계도로(신도청도시~당진), 공항도로(간월호관광도로를 확장, 서산, 태안지역), 신도청도시~부여간고속화도로(청양, 부여지역), 신도청도시~금산간고속화도로(논산, 금산지역)를 건설
- 충남의 남부지역과 주변도시간의 접근성 향상, 장항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서천-대전간고속화도로를 건설

- 신도청도시와 관련된 광역교통계획 등은 신도청도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

〈그림 II-28〉 고속도로 등 도로확·포장 계획



〈표 II-65〉 고속도로 등 도로확·포장 계획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고속 도로	남북축	서해안고속도로, 평택-공주간고속도로, 안성-연기간고속도로
	동서축	당진-천안간고속도로(태안연장, 오창연장), 보령-공주간고속도로, 공주-청원간고속도로
	X축	당진-대전간고속도로(대산연장), 서천-공주간고속도로
기타 도로확·포장		일반국도 12개 노선, 지방도 26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 4개 노선, 광역도로 4개 노선

■ 지역간선도로망의 이용 극대화 및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

- 단기(2006-2015)적으로 충남의 지역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일반국

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에 대한 확포장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 장기(2016-2020)적으로 미개통구간 확포장사업을 추진하여, 충남 전지역의 체계적인 교통망을 구축
- 전체적으로는 시급도시 및 주요 읍면급 도시들의 도시교통 체증해소를 위하여 애로구간의 확·포장 및 우회도로를 개설
- 신도청도시와 남공주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방도 및 시·군 도는 국가지원지방도 및 국도로의 승격을 추진
- 대전광역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되는 주요 도로인 행정도시에 서 남공주역간 순환도로와 정안IC간·오송(청주공항)·구즉간·북유성IC간 연결도로는 광역도로로 지정·추진

■ 지역문화·관광을 지원하는 연계도로망 구축

- 내포문화권-백제문화권, 서해안권-내륙권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서해안산업관광도로(당진~서천)를 개설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결된 도로를 정비

2) 산업·관광개발의 촉진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

■ 경부, 호남고속철도의 건설로 전국적 광역고속교통체계 구축

- 북부지역은 경부고속철도(천안아산역)를 중심으로, 남부지역은 호남고속철도(남공주역)를 중심으로, 서해안지역은 정항고속전철 운행으로 고속철도망 구축

■ 4×3의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간 연계개발 촉진

- 남북4축 : 기존철도의 전철화 및 복선화 사업 추진
- 동서3축 : 장기계획 노선의 조기 완료 및 민자사업 추진
- 충청선·서해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서해산업선 철도를 천안(경부선)까지 연결하며, 천안-문경간철도 건설을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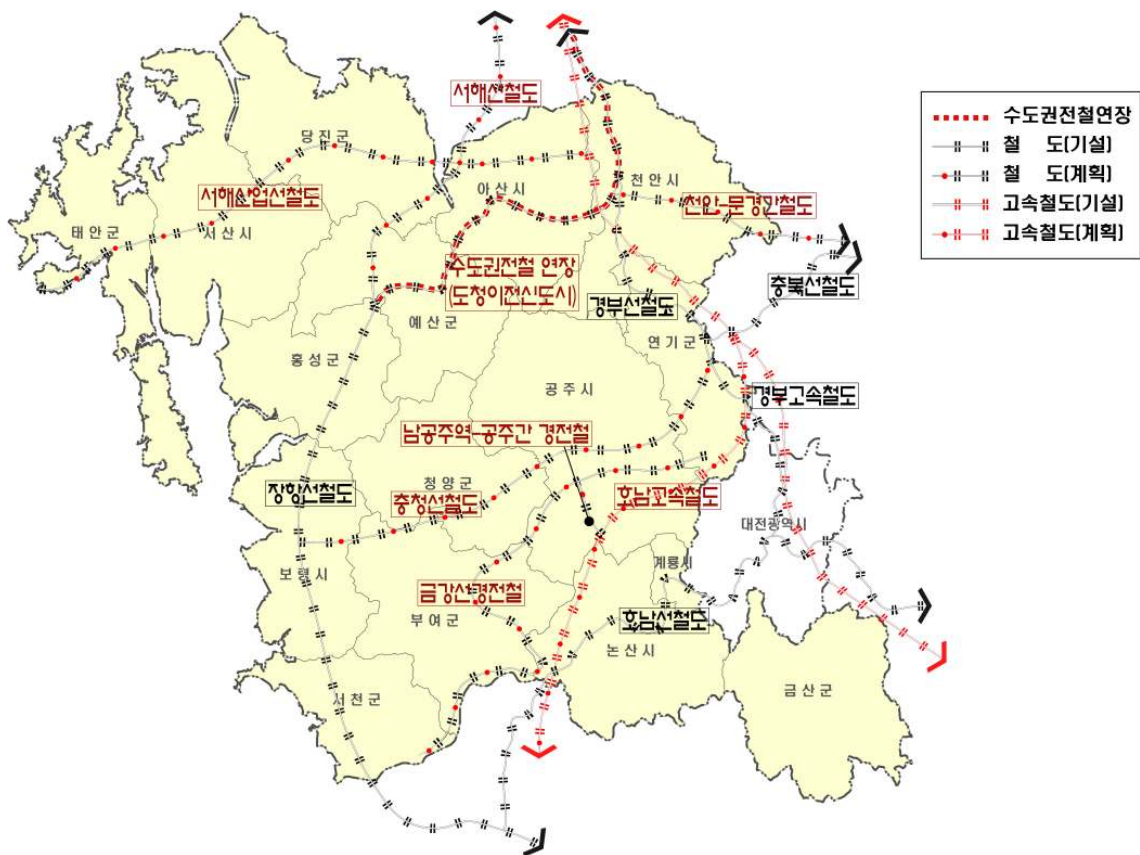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금강관광경전철 건설

- 지역의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남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금강관광경전철(행정도시~서천)을 단계적으로 건설

■ 대도시 및 역세권과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

- 남공주역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천안-아산을 연결하는 경전철과 행복중심복합도시·대전광역시와 주변도시(금산, 공주, 계룡, 조치원)간 경전철 건설
- 전철화사업 추진을 통해 수도권전철을 신도청도시까지 연장

〈그림 II-29〉 철도계획



〈표 II-66〉 철도계획

구 분		주요 내용
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천안아산역), 호남고속철도(남공주역)
일반철도	남북축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서해선
	동서축(장기검토)	충청선, 서해선연선, 천안-문경선
전 철	경 전 철	금강관광경전철, 남공주역-공주간, 기타경전철(천안-아산간, 대전-금산-계룡간, 세종도시-조치원(청주)간)
	수도권전철	아산-신도청도시간 연장

3) 국제 직교류 거점 구축을 위한 항만개발

■ 대중국 및 환황해권 교역거점으로서 5개 무역항 건설

-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신항, 장항항을 대중국 산업교역의 중심항으로 육성
 - 무역항을 중심으로 항만·철도·고속도로 등의 연계수송망 구축 및 컨테이너 기지·종합물류단지 건설
- 평택·당진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충남북부권에 조성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산업지원을 위한 중심항으로 육성하여 산업물동량 처리
- 대산항은 동북아교역의 중심항으로서 충남내륙 및 해안권의 물동량 및 대규모 선박을 지원하는 무역항으로 육성
- 태안항은 화력발전소를 지원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의 급증하는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 보령신항은 전국 및 중국, 대북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적 크루즈·여객항의 기능을 담당하는 미항(美港)으로 개발할 뿐만 아니라 환황해권의 거점항으로 무역기능을 강화
- 장항항은 장항국가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대 조성에 따른 남부권 및 대전권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담당하는 거점항만으로 육성

■ 서해안관광과 수산업 및 지역산업을 지원하는 연안항 건설

- 대천항과 비인항을 확충하여 서해안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운 및 수산업을 지원하고, 국내물동량을 처리하는 중부권의 중심항으로 육성
- 지속적인 지역산업의 성장,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 및 태안해안국립공원 등 서해안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안흥항을 연안항으로 지정하여 서해안지역의 발전을 도모

4) 항공 교통시대를 선도할 근거리 항공의 실용화와 경비행장 건설

■ 서산비행장의 국제공항 보조기능 수행과 민항기 취항

- 단기적으로 태안기업도시 등 부정기 민항기 취항으로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국제공항의 보조기능 및 신도청도시의 관문공항으로 육성

■ 근거리 항공수요에 대비한 관광·레저용 헬기장 및 경비행장 신설 추진

- 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천안 등에 경비행장을 건설하고, 이를 활용한 항공레포츠를 활성화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다각화를 지원

5) 신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지향적 개발로 친환경 교통체계 실현

■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는 신교통수단의 도입

-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광역시와 주변지역(공주, 연기, 계룡, 금산 등) 간 증가하는 교통량을 담당하는 친환경적인 신교통시스템을 도입

〈그림 II-30〉 항만 개발, 민항기 취항 및 경비행장 계획도



〈표 II-67〉 항만, 민항기 및 경비행장 계획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항만	무역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보령항, 장항항
	연안항	대전항, 비원항
공항	서산비행장	민항기 취항
	경비행장	6개소(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태안)

■ 대중교통지향적 개발(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 및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교통체계 정비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시·군별로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주요도로와 주차장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지능형교통체계를 도입

■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 보행자를 위한 신호체계 및 도로시설을 확충·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함.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통행의 편리성 제고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교통체계를 확립
- 공해를 최소화하는 연료 및 BIO 연료(식물에서 추출한 기름 등)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교통수단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쾌적성을 유지

■ 농어촌지역의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정비 및 확충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어촌교통수요를 원활히 수용하고, 배차시간노선을 유연화한 버스운송시스템을 도입하며, 다양한 보조교통수단을 장려

〈그림 II-31〉 교통체계 종합계획도



〈표 II-68〉 세부 추진시책 및 개발사업

구 분		사업내용
도로 1)	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공주(세종도시)간고속도로(40km) · 안성~연기(세종도시)간고속도로(8km) · 서해안고속도로 6차로확장(66km) · 당진~천안간고속도로(태안연장 추가검토)(103km) · 당진~대전간고속도로(대산연장)(24km) · 보령~공주간고속도로(45km) · 공주~청원간고속도로(21km) · 서천~공주간고속도로(59km)
	일반국도	12개 노선 확포장
	지방도	26개 노선 확포장
	국가지원지방도	4개 노선 확포장
	광역도로	4개 노선 확포장
철도	고속철도	· 호남고속철도(65km)
	일반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문경(도계) (22km) · 충청선(보령~조치원) (89km) · 서해산업선(안흥~천안) (78km) · 서해선(화성(야목)~안중~예산) (26km)
	전 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전철 연장(아산~신도청도시, 51km) · 금강관광경전철(행정도시~서천간, 105km) · 남공주역-공주간경전철(11km), 기타경전철(천안-아산, 금산-대전, 계룡-대전, 행정도시-조치원)(50km)
항만	무역항	· 평택·당진항(40선석), 대산항(6선석), 보령신항(9선석), 장항항(8선석)
	연안항	· 대천항, 비인항
	어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어항 정비(남당항, 삼길포항, 홍원항, 안흥항) · 지방어항 정비(29개 항)
공항	공 항	· 서산비행장(민항기 취항)
	경비행장	· 6개소(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태안)

주1) 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 및 국토건설5개년계획('06~'10)에 포함되지 않은 노선은 향후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함.

3. 생산·물류 신중심권 구현을 위한 물류·유통기반 강화

가. 현황과 문제점

■ 물류기반시설 부족 및 도로 편중의 수송체계

- 2004년 현재 충남의 화물수송량은 약 47,645천 톤으로 1995년 이후 매년 평균 8.7%씩 증가하고 있음
 - － 화물운송의 대부분을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시설투자가 부족한 형편
 - － 또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증가하는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
- 도내 철도,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국가 기간교통망이 남북간 연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서간의 연결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동서간의 물동량 수송을 위한 철도망이 전무한 실정

〈표 II-69〉 충남 화물수송 현황(1995~2004)

(단위: Ton)

구분	1995년	2000년	2004년	연평균증가율('95-'04)
전국(A)	408,370,628	496,174,000	518,855,708	2.7%
충남(B)	22,556,996	64,356,000	47,645,390	8.7%
B/A(%)	5.5	13.0	9.2	

자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5.

■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 미흡

- 물류업무 전반에 걸친 정보공유체계가 미흡하고, 물류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교통량 유발
- 물류표준화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물류활동의 기계화·자동화, 일관수송에 필요한 표준 파렛트 사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
 - － 물류표준화 미비로 일관수송시스템(Unit Load System), 제품 및 포장의 규격화가 어려운 실정

■ 도내 물류시설의 비효율적 운영 및 영세성

- 충남도의 주요 물류시설로는 연기군의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천안유통단지, 천안 및 아산의 화물터미널 등이 있으나 물류단지간 연계성 부족으로 기능 저하
- 물류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화물터미널 등이 환적·보관기능 보다는 알선과 대기를 위한 주차장 기능 수행
- 주요 물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류시설이 영세하여 시설의 대형화 및 현대화가 요구되며, 특히 산업단지와 연계된 물류단지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

〈표 II-70〉 지역 내 주요 물류시설 현황(2006)

명 칭	위 치	규 모 (천㎡)	사업비(억원)	주요설치시설
천안유통단지	천안시 백석·성성동	463	1,473	· 화물터미널 · 집배송단지 · 전문상가 · 대규모 점포 · 가공·제조시설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연기군 동면 청원군 부용면	479 (274)	2,009	· 컨테이너기지(충남) · 복합화물터미널(충북)
아산 공용화물터미널	아산시 선창동	21	—	· 창고시설 · 운수시설
천안 화물터미널	천안시 구룡동	34	—	· 창고시설 · 운수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4개 시·군	42개소	373	· 집하선별장 · 예냉·저온저장시설 · 냉장수송시설
아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아산신도시 2단계 지구내	33	200	—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천안시 성거읍	32	524	· 집하선별장 · 예냉·저온저장시설 · 냉장수송시설

주 : ()내는 충청남도 해당지역 면적임.

자료 : 건설교통부 및 충남도 내부자료(유통단지 및 일반화물 터미널 현황).

나. 여건변화와 전망

■ 동북아 3국(한국, 중국, 일본)간 교역 확대에 따른 물류여건 변화

- 1994~2004년 동안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간 교역 및 투자가 급증하여 역내 경제의존도가 증대되고 있음
 - 동 기간 중 동북아 3개국의 전체 교역에서 역내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5%에서 24%로 증가하였고, 대외교역 대상국 중 역내국가가 모두 4위 내에 위치
 - 이처럼 역내교역의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물류 측면에서 국제물류 서비스 시장의 개방, 선박의 대형화, 항만운영 및 물류의 정보화, 동북아 운항네트워크 변화, 물류기업간 전략적 제휴의 확대 등이 예상됨
- 특히 대중국 교역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한·중국간의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서해안 권역의 수출입컨테이너화물의 기종점(O/D)비율은 수입화물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입컨테이너화물 중 약 46.8%, 수출화물의 경우는 50.3%가 동 권역에서 유발

■ 동북아 경제권 부상에 따른 충청남도의 국제 물류 중심지로서 역할 증대

-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에 따른 평택·당진항 등 서해안권 항만의 중요성 증대
 - 지정학적으로 충청남도는 동북아 경제활동과 국제물류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접국인 중국의 上海항과 靑島항 등 경쟁항만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더딤
 - 따라서 충청남도가 경쟁항만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동북아 물류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평택·당진항을 비롯한 항만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
 - 이와 관련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서해안지역에 동북아를 겨냥한 국제적 생산·교류기반 및 신산업지대망 구축, 물적 교통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환황해권 국제교류의 거점 및 동북아를 연결하는 국제교통의 중심지로서 국내외 교역량이 증가할 전망이며, 남북경제 교류활성화에 따른 북방교류의 역할이 증대될 것임
 - 항만, 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거점의 중요성 증대 및 그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수요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무역항 및 연안항의 정비·확충은 물론 무역항의 신설이 시급

■ 항공수송 부담률 증대 및 물류네트워크의 효율화 추구

- 경박단소(輕薄短小)한 고부가가치 상품이 항공수송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대되는 가운데 항공화물터미널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
- 물류비 절감 및 교통량의 분배를 통한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 종합정보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 국가적으로 물류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수출입 물류중심 정보체계 개선사업, 모바일오피스시스템 상용화 등을 추진하면서 물류비 절감 및 물류프로세스가 개선됨에 따라 종합물류정보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다. 계획의 기본방향

■ 권역별·산업특성별 물류거점시설의 합리적 배치

- 산업특성별로 물류시설의 원활한 공급과 합리적 배치를 통해 물류비 절감과 지역 내 물류체계 구축
- 충남을 권역별로 나누어 실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개발방식을 통한 고객 지향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유통단지 건설

■ 효율적 물류시스템 구축

- 육상·항만물류의 정보화·표준화·고속화·자동화를 도모하여 비용 절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물류정보 연계·통합시스템 구축을 모색
- 육상·해상·항공·철도부문을 포함하는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물류거점시설의 정보화 및 유기적 연계를 통한 운영효율 극대화

■ 물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물류네트워크 구축

- 물류거점의 확충과 상호연계를 통한 기존 물류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는 물류네트워크 구축
- 산업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지역 내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경쟁력 확보

■ 동북아 관문으로 물류·비즈니스 거점항만기능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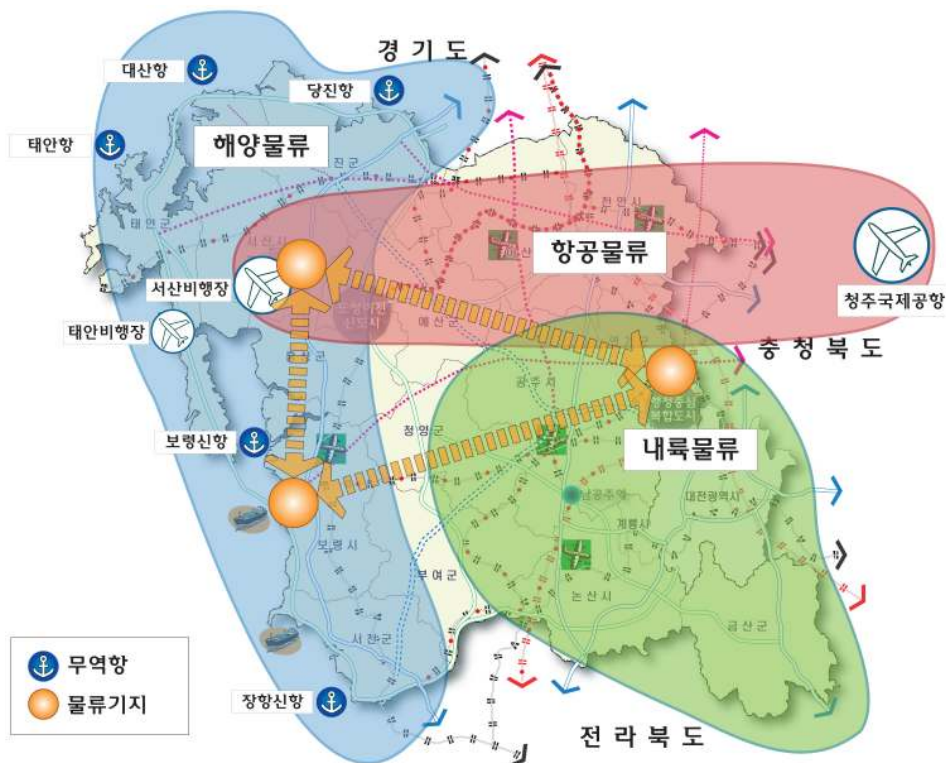
- 권역거점 및 지역항만의 확충으로 대중국 교역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환황해권 교역의 전진기지 구축
- 기존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에서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형」 항만으로 전환

라. 세부추진시책 및 개발사업

■ 지역 내 물류권역 설정 및 Tri-port 체계 구축

- 기능적 측면의 물류권역 설정
 - － 효율적인 물류유통을 위해 해양·항공·내륙 물류권역으로 구분
- 내륙·해양·항공물류기지를 입체적으로 연계한 Tri-port 기능 확충
 - － 생산·물류 신중심권 구현을 위해 Tri-port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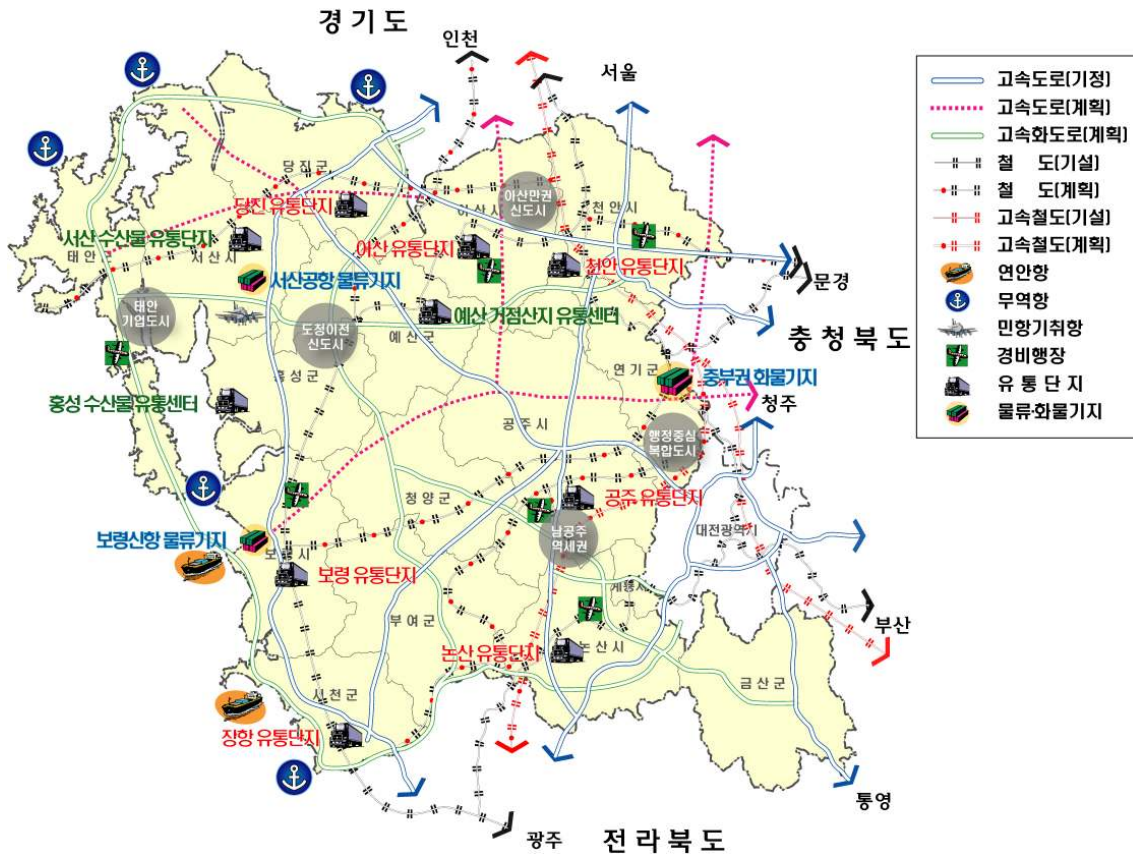
〈그림 II-32〉 지역 내 주요 물류권역 설정



■ 물류거점시설의 합리적 배치

- 권역별 육상·항만·항공물류기지 조성
 - 내륙화물 물동량 처리를 위한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조기 완공
 - 장항선 및 서해선철도,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평택·당진항 등을 연계하는 항만물류기지 건설
 - 경박단소(輕薄短小)한 IT 관련제품 및 화훼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산 혹은 서산비행장에 항공물류기지 조성
- 충청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단지 건설
 - 연계물류거점 기지로서의 지역거점 유통단지 건설
- 지역별 특산물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특화유통단지를 건설
 - 지역특산물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시설 및 시장이 소재한 지역은 제외

〈그림 II-33〉 지역 내 물류유통 계획도



■ 효율적인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 육상·항만 물류정보화 방안
 - －항공화물터미널과 배후단지 통합정보망 구축, 일반부두 정보화 등 추진
 - －전용망 중심을 인터넷 기반으로 전환하여 정보비용 절감 및 이용자 편의 제고
- 물류정보 연계·통합시스템 구축
 - －항만·철도·내륙컨테이너기지(inland container depot, ICD) 등 물류거점별·주체별 연계
 - －금융망·해외물류망 연계를 통하여 수출입 물류 일괄처리 시스템 구축

■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 사업

- 공로화물, 철도, 무역 EDI와 연계하여 복합 및 일반화물터미널, 철도화물역, 공동집배송단지 등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종합물류 정보망 구축
 - －유통정보화(POS)시스템 구축
 - －지능형 교통시스템(ITS)과 연계한 공로화물 정보체계 구축
- 물류 표준규격 미비 분야를 대상으로 물류표준화 사업
 - －포장의 모듈화 추진
 - －수송용 표준 파렛트를 ‘국제표준화기구’ 기준으로 규격화

■ 물류유발단지 및 물류·유통단지간 체계적 물류네트워크 구축

- 천안권 물류·유통단지, 중부권내륙화물기지 등 도내 주요 물류·유통단지간 상호 연계기능 강화
-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으로 물류단지간 하드웨어적 연계기능 강화
- 육상·해상의 개별정보망과 항만물류정보·통관·무역 등 유관 정보망이 연계된 물류정보망 구축

■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기능 강화

- 권역 내 제조기업의 대중국 수출증가로 인한 물동량 확대에 대응
 - －항만의 하역능력 확충
 - －선진 물류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 물류 인프라 확충으로 최적의 기업 입지여건 조성

- 기존 인천, 부산, 광양권 등 물류중심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된 첨단산업항만(High-tech Industry Bay) 조성을 위해 물류 인프라 확충
- 생산 및 연구개발 기능, 항만물류 등 다양한 기능 수행
- “On-Dock 시스템”의 구축
 - 컨테이너 부두에서 화물의 하역·보관·운송의 일괄처리 시스템 구축
 -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
 -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LBS)
 - 자동차 네비게이션 시스템(car navigation system, CNS)
 - 모바일(mobile technology) 등의 연계 결합

〈표 II-71〉 물류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개발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물류유통시설의 합리적 배치	물류기지	· 보령신항물류기지(330천㎡) · 서산공항물류기지(165천㎡)
	화물기지	· 중부권화물기지(1개소 : 연기 동면, 479천㎡)
	거점유통단지	· 천안 유통단지(462천㎡) · 아산 유통단지(330천㎡) · 공주 유통단지(330천㎡) · 당진 유통단지(330천㎡) · 논산 유통단지(198천㎡) · 보령 유통단지(529천㎡) · 장항 유통단지(330천㎡)
	특산물유통단지	· 서산 수산물유통단지(165천㎡) · 홍성(남당) 수산물유통센터(2,645㎡) · 예산 거점산지유통센터(과수원예, 25,124㎡)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사업	· 통합정보망 구축 및 인터넷기반 정보화 · POS 및 ITS와 연계한 공로화물체계 구축 · 모듈화 및 규격화 · 전자무역 결제 및 인증시스템 구축 ·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500개소)
	물류정보연계·통 합 시스템 구축	· 수출입물류 일괄처리시스템 구축 · 물류거점별·주체별 연계시스템 구축
	물류·유통단지간 체계적 물류망 구축	· 도내 주요 물류·유통단지 상호간 연계기능 강화
	물류단지간 하드웨어적 연계기능 강화	·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확충
	물류네트워크 구축	· 개별정보망과 유관정보망 연계기능 강화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 기능강화	항만기능강화	· 첨단산업항만(High-tech Industry Bay) 기능 강화
	일괄처리시스템	· On-dock 시스템 도입

3. 디지털복지사회를 위한 유비쿼터스 충남 구현

가. 현황과 문제점

■ 정보통신인프라 및 활용기반 취약

- 2005년 기준 충남의 인터넷 이용률은 63.1%로 전국 평균 72.8%에 비하여 낮으며, 이용자수와 이용률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각각 10위와 15위에 위치함

〈표 II-72〉 광역 시도별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률(2005)

지역	총인구(천명)	이용자수(천명)	이용률(%)	이용자수순위	이용률순위
충남	1,973*	1,150	63.1	10	15
전국	49,053	33,010	72.8	—	—

주: 충남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1,982천명임

자료: 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05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2005

- 컴퓨터 이용률도 67.2%로 전국 평균 78.9%에 비하여 낮으며,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12위로 하위권에 위치함

〈표 II-73〉 가구의 컴퓨터 보유 수준(2000, 2005)

구분	보유율(%)			광역자치단체별 순위		
	2000년	2005년	증감	2000년	2005년	순위변동
충남	56.4	67.2	10.8	12	12	0
전국	64.2	78.9	14.7	—	—	—

주: 한국인터넷진흥원 2005년 자료 재구성

- 이는 농어촌 인구·가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의 비중이 높아 정보화 지역기반이 취약한데 기인함
 - 충남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농가가구 비율이 25.2%로 전국 평균 7.1%에 비하여 매우 높고, 노령화비율도 높아 정보화 수준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생활주변에 교육시설 등 정보인프라 부족에 따른 학습기회가 적고, 노령인구 및 농어촌 주민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임

〈표 II-74〉 전국과 충남의 농가가구 현황(2004)

지역	대상 가구수(호)	농가가구(호)	농가비율(%)	노령화비율(%)
전국	17,391,932	1,240,406	7.1	8.7
충남	638,578	160,784	25.2	13.1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 충남의 정보화 수준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2002년 14위에서 2003년 11위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하위에 머물고 있음

〈표 II-75〉 광역시·도별 자치단체 정보화 수준(2002, 2003)

광역시·도	2002년		2003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80.58	6	78.27	10
부산	80.13	9	78.41	8
대구	79.24	13	77.26	15
인천	79.14	15	77.75	13
광주	82.22	2	78.29	9
대전	79.62	11	79.13	5
울산	81.77	4	79.99	2
경기	80.70	5	79.40	4
강원	80.14	8	77.38	14
충북	81.83	3	79.67	3
충남	79.22	14	78.17	11
전북	78.96	16	77.03	16
전남	79.95	10	79.08	6
경북	79.40	12	77.88	12
경남	80.36	7	78.45	7
제주	83.97	1	82.25	1

자료: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2005.

- 지역의 정보화는 정보통신망이나 정보화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수준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데, 충남의 정보통신산업분야의 발전 수준은 다소 낮은 편으로, 특히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있어서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4위로 하위 수준임

〈표 II-76〉 광역시도별 자치단체 정보통신산업 현황(2004)

(단위: 개소)

지역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총 업체수	종합 순위
	업체수	순위	업체수	순위	업체수	순위		
서울	1,708	1	1,440	2	4,135	1	8,623	1
부산	109	4	283	7	285	3	677	5
대구	75	6	120	10	169	5	364	9
인천	53	12	1,176	3	120	7	1,349	3
광주	49	13	94	11	123	6	266	11
대전	67	8	106	10	237	4	410	8
울산	20	15	68	12	48	16	136	15
경기	204	2	4,202	1	489	2	4,895	2
강원	62	9	55	14	54	13	171	13
충북	57	11	300	6	54	13	411	7
충남	47	14	239	8	58	14	380	10
전북	62	9	57	13	55	12	341	10
전남	87	5	15	15	61	11	163	14
경북	74	7	575	4	85	9	734	4
경남	113	3	359	5	110	8	582	6
제주	19	16	4	16	51	15	74	16
전국	2,806	—	9,093	—	6,157		18,056	—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2005.

■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의 위험성 내재

-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정보 접근성, 정보활용 능력, 정보수용 의지에 대한 계층, 지역, 성별, 세대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데, 정보격차는 정보화 투자효과와 생산성은 물론 지역, 계층, 직업별 격차를 확대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새로운 사회문제를 대두시킬 위험이 있음
 - 충남도와 같이 농어촌 지역이 산재하고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서의 정보격차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음

■ 정보화 추진사업의 순항

- 디지털 충남을 위한 정보화 사업은 2004년 현재 인트라넷 구축(23.5%, 전국 4위), 인터넷전자상거래(25.8%, 5위), 전자결재율(99.2%, 전국 4위), 정보화마을 조성(32개, 전국 4위)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

- 정보화 사업으로는 도민 정보화교육 확대, 공공시설의 ‘디지털 방’ 구축으로 무료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지역정보화촉진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종합관리, 고향마을에 홈페이지(고향 사랑 NET) 구축, PC보급 등의 일부 소지역 정보화 촉진사업 추진, 정보화마을 육성,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인터넷망 확충 등 전통적 인프라와 PC 등 정보 이용기기 보급 위주로 추진 중임

나. 여건변화와 전망

■ 고도지식정보사회 도래

- 섬유, 전자, 건설, 금융, 의료, 유통 등 전 산업분야에서 디지털화 및 전자거래가 확산되면서 산업의 생산, 개발, 경영에 혁신적 변화를 야기하고,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고도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할 전망이다
- 행정서비스의 특징도 공급중심의 행정에서 고객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음
- 첨단정보통신기술의 대통합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 미래 지식정보사회는 컴퓨터, 통신, 방송 등 모든 정보통신기기가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광대역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BcN) 기반의 네트워크사회로 빠르게 진화될 전망이다
 - 광대역통합망 및 초고속인터넷의 보급 확대는 주민의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욕구충족 및 참여기회를 확장시킴으로써 사회통합 및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유용한 수단을 제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전자주민투표, 온라인 여론조사, 전자공청회, 사이버 의정을 통한 전자적 시민참여 기회가 확장될 전망이다

■ 이용자 중심의 時空自在(Ubiquitous) 환경 실현

- 미래사회는 여가시간의 증가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욕구가 급증함으로써 사회구성원간의 시간·장소 및 이용수단에 구애받지 않고 지식과 정보를 생산·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이 구현될 것임
 - 모든 일상용품에 통신 및 컴퓨팅 기능이 내재되어 광대역통합망에 연동·사용됨으로써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時空自在 네트워크 사회(Ubiquitous Network Society)로 발전될 것임

- 時空自在 네트워크 환경은 다양한 정보를 끊임없이 소통시킬 수 있는 광대역통합망 기반 위에서 첨단 IT 서비스 및 제품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임

■ 정보통신융합도시 부각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정보·통신 부문의 핵심계획으로 유비쿼터스 국토의 구현과 이를 통한 국토·도시계획 관리 효율화 및 통합화를 제시하고 있음
- 첨단 정보통신인프라와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하여 도시생활의 편의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인 도시관리에 의한 안전보장, 신산업 창출 등 도시전반 기능을 혁신할 수 있는 정보통신융합도시(U-City)가 새로운 지역개발 모형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 광대역통합망과 유비쿼터스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여러 유형의 U-City 추진과 이러한 정보통신융합도시가 제공하는 時空自在 환경은 홈네트워크, 지능형 서비스로봇 등 IT 신성장동력과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이 융합되어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역 혁신의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 계획의 기본방향

■ 지역간 정보화격차 해소 및 정보통신기반 강화

- 농어촌지역 주민 및 사회적 약자(장애인·저소득층·고령층)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보급 및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정보화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농어촌 지역민 및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보급 및 정보화 교육을 통한 정보생활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콘텐츠를 구축하는 등 농업·농촌 정보화 확산 및 이용확대 기반 조성
-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을 강화
 - 지역 간 정보화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정보인프라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며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정보통신기반 강화

- 정보통신기반 확충을 통하여 도내 모든 지역이 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의 사회, 복지 서비스를 증진하고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역혁신을 도모
 - 광대역통합망, U-센서 네트워크(Ubiquitous Sensor Network)¹⁾,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²⁾ 등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통하여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도민생활의 편익을 증진

■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u-충남 추진

- 충남도 특성에 맞는 유비쿼터스 모델을 정립하여 디지털 충남의 고도화 실현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u-충남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한 각종 시범모델과 서비스를 구현
 - 도시개발 및 정비 분야에서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기성 시가지 개발모델과 민간주도의 복합기능 신시가지 개발모델을 구축하여,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유비쿼터스 충남 구현
- 지능정보기반의 신도시환경을 제공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U-City를 구축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간의 IT기반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도시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

라.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 개발사업

■ U-농촌 건설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사업 추진

- 초고속망이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마을(가구)을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 지자체 및 통신사업자와 협력사업을 통하여 초고속 인프라 구축
-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촌 마을에 저소득층 컴퓨터 무상교육 지원, 컴퓨

1) U-센서 네트워크는 물품 등 관리할 사물에 아주 작은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Identification) 및 주변환경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함

2) 종전의 인터넷 프로토콜(IPv4)은 5~9억 개의 인터넷 주소를 제공하고 있지만, IPv6는 인터넷 통신 이외에 이동전화, 스마트 정보가전 등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주소를 필요로 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128비트 차세대 프로토콜임

터 전문강사 교육지원, 기초생활수급가정에 대하여 인터넷 통신료 지원 등으로 농업·농촌 정보화 확산 및 이용확대 기반 조성

- 정보화 취약계층인 농어업인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농간, 산업간 정보화격차를 조기에 해소
- 특히, 어업인의 경우 정보화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원격영상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방지 등을 위한 문자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
- 영농과 생활에 농업정보 활용 및 경영정보화를 통한 효과적인 농업경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
- 정보화마을이나 디지털 사랑방 설치,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물 상거래 판매 지원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 산지유통기반이 갖춰진 농촌마을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통과 IT의 접목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
 - 농업인의 생활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도·농간 교류촉진 도모
- 단순한 마을 홈페이지 구축 차원을 넘어서 u-Commerce로 통합된 ‘고향사랑 Net’ 추진
 - 16개 사군의 읍면동별 테마의 집중 육성 발굴 및 충남 u-Commerce와 연계
 - 우수한 마을을 시범마을로 관리함으로써 전체적인 수준 제고

■ 행정혁신시스템 및 u-인프라 구축

-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IT: Ubiquitous IT)의 행정혁신시스템 도입과 행정서비스 구현
 - RFID, 무선센서 네트워크와 모바일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실시간 행정(uRTG) 시스템을 구축
 - M2M(Machine-to-Machine or Machine-to-Man)에 의한 행정자원관리(예: 행정조달물품관리시스템, 관용차량관리시스템, 환경자원관리시스템 등)
 - 도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uIT 기반의 CRM(Citizen Relationship Management) 도입(예: u-도민 서비스 포털 구축 및 운영, RFID를 활용한 u-보건의료 및 u-문화 서비스 제공, USN을 활용한 u-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도·시·군간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고, 향후 추진되는 u-City에 U-센

서네트워크를 시범적으로 구축

- 도-시·군간 분산 운영 중인 5대 통신망(행정망, 영상회의망, 민방위경보망, 지방행정정보망, 소방정보망)을 광대역통합망으로 구축하여 고도의 전자정부기반의 네트워크 구현
- 지역정보에 대한 부문별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체계를 통합·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충남 GIS기본계획에 의하여 효율적 지역자산의 이용·관리를 위한 토지, 지하시설물, 환경, 산업, 자원, 재해, 재난, 의료, 사회복지, 역사문화 등에 대한 기초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 각종 지역정보자원의 종합데이터베이스인 충남 ICDW(Integrated and Connected Data Warehouse)를 구축

■ 유비쿼터스 기반의 u-산업 육성

-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u-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하며, 관련 산업서비스를 제공
 - u-물류산업: LCD부품, 컴퓨터, 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의 충남 주력산업의 생산지와 항만물류를 연계하는 u-물류 서비스 산업을 육성(산업자원부의 차세대 물류시스템 개발사업, 정보통신부의 물류 모바일 네트워크 시범사업 및 텔레메틱스 물류응용 선도사업, 건설교통부의 ITS 프로젝트와 연계 추진)
 - u-웰빙산업: 산지의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고 산지 방문 및 시식과 같이 충남의 특화된 농축수산 사업과 연계하여 웰빙 상품(서비스)을 개발하는 u-웰빙산업을 육성(정보통신부의 USN 및 웹서비스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
 - u-소프트산업: 역사유적 및 풍부한 관광자원 그리고 우수한 지역 대학인재를 활용한 차세대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인 u-소프트산업(애니메이션, 컴퓨터 게임, 디지털 시나리오, SF 영화 등)을 육성(문화관광부의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사업과 연계 추진)
 - 단기적으로는 농·축산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식정보를 DB화하여 바이오산업의 활성화 도모
- 기존의 e-business(전자상거래) 지원을 넘어선 지역의 특화 산업에 대하여 u-Commerce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충남 u-Commerce Hub Center를 중심으로 한 지역정보역량 지원체계 구축
 - 기존 “지역대학+지자체+마을” 간의 협약을 통한 “정보화도우미제” 운영을 강화
 - 기존 농업기술원, 정보화 마을, 사·군, 대학 등의 연구개발 능력의 집중화

및 기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집중 육성된 테마마을과 기업체간 자매결연 지원차원을 넘어서 가공·유통·관광 등과 연계된 산업으로 발전·육성

■ u-City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시행

- u-City 추진은 신시가지나 기존 도시 중 일부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시행
 - 공공주도의 점진적인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기성 시가지 개발모델과 민간주도의 미래지향적 복합기능 신시가지 개발모델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여 추진
 - 산업기반형 u-City: 고속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신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지역산업 혁신의 기반이 되는 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biquitous IT, uIT) 기반의 종합물류 서비스, 재난관리 서비스 등을 구현
 - 첨단주거형 u-City: 지역 거주민을 위한 주거중심의 신도시로서 정보통신 부에서 추진 중인 IT 839 전략 선도적용 시범도시로 추진하며, 지능형 주거 서비스,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제공
 - 역사문화형 u-City: 충남지역 문화유산의 디지털 체험 시범타운을 조성
 - 국제교역형 u-City: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연계하여 u-항만 구축 및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uIT 적용 및 배후도시를 건설
 - 관광중심형 u-City: 서해안의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생태공원 및 웰빙타운 건설 이미지에 맞는 도시를 개발하고, 위치기반 서비스와 연계한 관광안내 서비스, 스마트 홈 시스템을 갖춘 숙박시설을 제공
 - 지역특색형 u-City: 국내 최초의 uIT를 접목한 실버타운 및 어항을 건설하되, 실버타운의 경우 노인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스포츠 시설, 디지털 홈, 노약자 길안내 시스템, 건강관리 및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RFID를 활용한 u-Health care)을 구축하고, 다기능 어항의 경우 u-놀이동산, u-IT 적용의 해양 수족관, u-숙박시설을 제공

〈표 II-77〉 유비쿼터스 분야의 세부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행정혁신 및 u-인프라 구축	u-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비쿼터스 실시간 행정(uRTG) 시스템 구축(1식) · M2M 행정자원 관리시스템 구축(1식) · 행정서비스의 고객 관리시스템(CRM) 도입(1식)
	정보화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대역통합망 구축 · U-센서네트워크 시범 구축
	데이터통합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DW 구축(1식)
U-농촌 건설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사업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5,334가구) ·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10개소) · 디지털 사랑방 지원사업 ·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 농어업인 정보화교육 · 도-마을 연계 '고향사랑 net' 구축(3,500개 마을) · 취약계층 컴퓨터 지원사업(16,500대) · USN 응용사업(2개 사업: u-스쿨, RFID 활용사업)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 건강 상담, 자가진단 실시(u-Health Care, 1식) · 도민 정보화 대축제
지역생산성 향상	u-산업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물류산업 · u-웰빙산업 · u-소프트산업
유비쿼터스 기반의 도시개발	u-City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시가지나 기존 도시 중 일부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시행(도청이전신도시)

제5장 더불어 누리는 생활·복지환경 조성

1.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조성
2.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의료 서비스체계 구축
3.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학습사회 실현

1.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조성

가. 현황과 문제점

1) 현황과 문제점

■ 주택의 보급과 양적수준

- 2005년 현재 일반가구수 기준 충남의 주택보급률¹⁾은 96.7%로 전국 주택보급률(83.8%)을 상회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일반가구수는 연평균 2.3% 주택수는 4.2% 성장한 반면, 충남의 일반가구수는 연평균 2.2%, 주택수는 연평균 3.1% 증가함

〈표 II-78〉 인구, 가구 및 주택여건의 추이(1990~2005)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변화율(%)
전국	인구수	(천 명)	43,411	44,609	46,136	47,254	0.6
	일반가구수	(천 가구)	11,354	12,958	14,311	15,900	2.3
	주택수	(천 호)	7,160	9,205	11,472	13,318	4.2
	보급률	(%)	63.1	71.0	80.2	83.8	1.9
충남	인구수	(천 명)	2,014	1,767	1,845	1,890	-0.4
	일반가구수	(천 가구)	478	514	589	660	2.2
	주택수	(천 호)	403	453	585	639	3.1
	보급률	(%)	84.3	88.1	99.3	96.7	0.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해당년도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잠정 집계결과 자료, 2006

■ 주거유형과 점유형태

- 충남의 주택유형은 전국 평균에 비해 단독주택 비중이 높은 편임. 2005년 현재 전국적으로 주택재고 중 아파트의 비율이 52.5%로 단독주택의 비율 32.1%에 비해 높으나 충남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38.3%에 그침
-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인 동부와 읍부의 아파트 비율이 각각 60.7%와 44.9%임. 농촌지역인 면부의 경우 단독주택이 82.6%에 달함

1) 주택보급률은 주택수를 일반가구수로 나눈 값임. 일반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취침 및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인 가구 중 외국인 가구와 집단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말함[일반가구수=보통가구수+(비혈연가구+1인가구)]. 한편, 본 계획의 주택보급률 산정에 사용된 주택수에는 빈집이 포함됨.

- 주택보급률은 동부가 86.1%, 읍부가 98.3%, 면부가 105.1%임
 - 시군별 주택보급률은 천안시가 86.4%로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으며 연기군, 서산시, 공주시 순으로 주택보급률이 낮음. 반면 금산군, 청양군, 부여군 등 10개 시군은 100%를 상회함
 - 도시지역의 주택보급률 수준이 낮아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농촌지역의 경우 공가비율이 높으므로 효율적 재고관리가 필요함

〈표 II-79〉 전국대비 충남의 주택유형 및 주택보급률 분포(2005)

(단위: 호수, %)

구분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주택보급률
전국	12,592,173 (100.0)	4,043,752 (32.1)	6,615,771 (52.5)	561,811 (4.5)	1,154,487 (9.2)	216,352 (1.7)	83.8%
충남	587,189 (100.0)	311,838 (53.2)	225,431 (38.3)	22,900 (3.9)	16,492 (2.7)	10,528 (1.9)	96.7%
동부	193,770 (100.0)	43,881 (21.7)	128,589 (60.7)	8,746 (4.7)	8,335 (11.3)	4,219 (1.6)	86.1%
읍부	142,221 (100.0)	68,854 (43.4)	54,824 (44.9)	9,906 (5.9)	5,058 (3.4)	3,579 (2.3)	98.3%
면부	251,198 (100.0)	199,103 (82.6)	42,018 (12.4)	4,248 (2.0)	3,099 (1.3)	2,730 (1.7)	105.1%
천안시	143,329	33,876	95,368	4,482	7,309	2,294	86.4%
공주시	38,242	24,881	11,063	903	577	818	94.6%
보령시	32,921	21,356	9,416	1,104	361	684	102.6%
아산시	61,026	23,669	32,013	2,957	1,542	845	99.7%
서산시	44,557	21,896	17,523	2,431	1,914	793	94.4%
논산시	40,726	27,937	10,272	1,247	501	769	100.4%
계룡시	9,369	1,212	8,090	17	7	43	113.1%
금산군	18,727	14,209	2,815	656	676	371	107.1%
연기군	23,683	14,187	7,948	801	337	410	91.5%
부여군	26,732	22,167	3,194	709	181	481	106.0%
서천군	21,976	18,114	1,508	1,385	511	458	105.2%
청양군	12,023	10,421	963	361	121	157	106.4%
홍성군	27,437	19,861	5,539	1,088	599	350	96.0%
예산군	28,389	20,582	5,854	1,239	256	458	103.3%
태안군	20,765	15,012	3,687	1,160	201	705	103.9%
당진군	37,287	22,458	10,178	2,360	1,399	892	103.9%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결과, 2006.

■ 주택의 점유형태

- 2005년 현재 충남의 자가소유 비율은 전국평균인 55.6%보다 높은 62.9%임. 그러나 1990년 이후 충남의 자가율은 73.2%에서 62.9%로 하락하였으며, 전세·월세 등 임차가구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표 II-80〉 점유 형태별 분포(1990~2005)

(단위: %)

구분	전국				충남			
	1990	1995	2000	2005	1990	1995	2000	2005
자가	49.9	53.3	54.2	55.6	73.2	72.5	66.1	62.9
전세	27.8	28.1	28.2	22.4	11.1	13.3	15.6	14.1
월세	19.1	15.5	14.8	19.0	11.5	9.9	13.2	17.5
기타	3.2	3.1	2.8	3.1	4.2	4.3	5.0	5.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해당년도.

■ 주거의 질과 주거복지 수준

- 충남은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많은 주거시설개선이 이루어졌음. 1990년 29.3%의 가구만이 입식부엌을 갖추었으나 2005년 현재 96.4%의 가구가 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의 97.9%에는 아직 미치지 못함
 - 수세식화장실과 온수목욕시설을 갖춘 가구의 비율도 많이 높아졌으나 전국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함
 - 온수목욕시설도 2005년 현재 전국 가구의 95.8%가 이 설비를 갖춘 반면, 충남은 93.4%의 가구만이 이를 갖추고 있음

〈표 II-81〉 주거시설의 질적 수준추이(1990~2005)

(단위: %)

구분	전국				충남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입식부엌	52.4	84.1	87.0	97.9	29.3	74.1	90.5	96.4
수세식화장실	51.3	75.1	93.9	94.0	19.8	56.2	78.8	90.8
온수목욕시설	34.1	74.8	87.4	95.8	17.4	63.5	82.3	93.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해당년도.

- 2000년 현재 충남의 최저주거기준²⁾ 미달 가구는 112천 가구로 전국의 미달가구비율(23.1%)보다 낮은 19.1%를 보이고 있음
- 시·군별로는 홍성군이 22.5%로 가장 높으며 천안시, 계룡시, 서산시의 순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많이 분포함

〈표 II-8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분포

구 분	가구(수)	미달가구(수)	비율(%)
전 국	14,311,807	3,303,404	23.1%
충 남	589,144	112,734	19.1%
천안시	129,865	26,530	20.4%
공주시	41,415	8,067	19.5%
보령시	35,440	5,753	16.2%
아산시	56,418	10,853	19.2%
서산시	45,759	9,152	20.0%
논산시	43,963	8,644	19.7%
계룡시	7,847	1,592	20.3%
금산군	20,230	3,985	19.7%
연기군	24,190	4,675	19.3%
부여군	28,833	4,956	17.2%
서천군	23,888	4,007	16.8%
청양군	13,148	1,844	14.0%
홍성군	30,045	6,767	22.5%
예산군	29,813	5,308	17.8%
태안군	21,127	3,818	18.1%
당진군	37,163	7,067	19.0%

주: 미달가구는 건교부가 발표한 최저주거기준 중 침실수 기준, 시설 기준 및 중북미달 가구를 합한 것임

자료: 통계청, 한국의 주택, 2002.

2)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2004. 6.15.) 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의미함.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수의 구성에 따른 면적기준과 시설, 환경기준으로 구성됨. 아래 표는 가구원수별 방의 구성과 주거면적을 나타낸 것임(건설교통부의 「주택업무편람(2005)」의 pp. 205-213 참조)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m ²)
1	1인 가구	1 K	12
2	부부	1 DK	20
3	부부+ 자녀1	2 DK	29
4	부부+ 자녀2	3 DK	37
5	부부+ 자녀3	3 DK	41
6	노부모+ 부부+ 자녀2	4 DK	49

2) 여건변화와 전망

■ 양질의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 증대

- 대규모 주택건설로 지역내 주택보급률 증가와 개별주택의 시설수준 향상이 이루어진 반면, 도시개발 및 주택개발과정에서 공원녹지 및 문화시설 등의 공급은 주택과 도로의 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질적으로 우수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
 - 2004년 통계청의 사회조사통계에서 ‘현 거주지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26.6%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04. 11. 22)
 - 현 거주지역에 대한 불만이유로는 교통, 주차, 편익·문화시설, 주변자연환경과 같은 주거환경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주택정비의 필요성 증대

- 충남은 전체 주택 중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신축된 주택의 비율이 66.1%로 전국의 67.7% 비해 낮은 편이며, 향후 주택 질적 향상 요구로 주택정비의 필요성 증대함.
 - 전국의 주택재고 중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건설된 주택의 비중이 22.1%였던 반면, 충남 주택의 18.8%인 109천호가 동 기간에 건설되었음
 -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동부에 건설된 주택이 전체 주택재고 중 76.7%에 달하는 약 147천호임
 - 반면 읍부와 면부의 경우 건축된 지 35년 이상된 주택의 비중이 전국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나 이 지역의 주택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건물의 내구년수를 기준으로 충남지역의 주택 정비소요를 산출하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내구년수가 30년일 경우 약 113천호, 35년일 경우 85천호, 40년일 경우 58천호의 주택정비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II-83〉 건축연도별 분포

단위 : 호(%)

구분	계	2000-2005	1990-1999	1980-1989	1970-1979	1960-1969	1959이전
전국	12,494,827 (100.0)	2,756,034 (22.1)	5,709,033 (45.6)	2,445,064 (19.6)	871,561 (7.0)	302,363 (2.4)	410,772 (3.3)
충남	583,548 (100.0)	109,860 (18.8)	275,698 (47.3)	89,771 (15.4)	46,945 (8.0)	22,058 (3.8)	39,216 (6.7)
동부	192,577 (100.0)	43,847 (22.8)	103,739 (53.9)	27,817 (14.4)	10,239 (5.3)	3,209 (1.7)	3,726 (1.9)
읍부	141,137 (100.0)	25,085 (17.8)	66,319 (47.0)	23,695 (16.8)	12,595 (8.9)	5,554 (3.9)	7,889 (5.6)
면부	249,834 (100.0)	40,928 (16.4)	105,640 (42.3)	38,259 (15.3)	24,111 (9.7)	13,295 (5.3)	27,601 (11.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5.

〈표 II-84〉 주택정비 소요 예측

(단위: 호)

구 분		내구년수 30년 가정	내구년수 35년 가정	내구년수 40년 가정
주택재고(2005)		583,548	583,548	583,548
주택 정비 수준	2006-2010	23,473	23,473	11,029
	2011-2015	38,096	23,473	23,473
	2016-2020	51,675	38,096	23,473
계		113,244	85,041	57,97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해당년도.

■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주택정책의 변화

-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의 시설을 보완하고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은 노인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함
- 노인거주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의 경우 행정,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존 주거지를 일정 지역으로 집단화, 거점화 추진

■ 주택수요의 전망

- 충남지역 주택수요는 2000년까지 202천호의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³⁾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선진국 수준인 1,000명당 주택수 370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20%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해야 함
- 주택수요 및 공급량에 따른 택지수요는 개발 용적률에 따라 2020년까지 약 15,229천m²~25,375천m²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⁴⁾

〈표 II-85〉 장기 주택수요·공급량 및 택지개발 수요전망

(단위: 천호, 천m²)

연도	주택수요		공급량	충남 택지개발수요		
	전국	충남		용적률 250%	용적률 200%	용적률 150%
2006	435	15	18	1,131	1,415	1,884
2007	439	15	18	1,131	1,415	1,884
2008	444	15	18	1,131	1,415	1,884
2009	444	14	17	1,055	1,319	1,759
2010	436	14	17	1,055	1,319	1,759
2011	431	14	17	1,055	1,319	1,759
2012	427	14	17	1,055	1,319	1,759
2013	418	14	17	1,055	1,319	1,759
2014	411	14	17	1,055	1,319	1,759
2015	408	13	16	979	1,226	1,633
2016	398	13	16	979	1,226	1,633
2017	381	12	14	906	1,131	1,507
2018	363	12	14	906	1,131	1,507
2019	353	12	14	906	1,131	1,507
2020	348	11	13	830	1,038	1,382
계	6,136	202	243	15,229	19,042	25,375

주: 주택당 택지소요단위는 정부의 「주택종합계획(2003~2012)」에서 사용한 값을 활용함.
즉 2007년까지는 157m², 2008~2020년까지는 190m²을 사용함

자료: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부문별 보고서, 제2권, 2005.
정의철, 중장기 주택수요 변화 전망, 주택산업연구원 개원 10주년 세미나 자료, 2005.

3) (정의철, 2005, 중장기 주택수요 변화 전망, 주택산업연구원 개원 10주년 세미나 자료.) 참조

4) 택지수요는 신개발 및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택지개발수요를 포함하는 것임

나. 계획의 기본방향

1) 주거복지정책의 강화

- 저소득층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물리적·경제적 차원의 지원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추진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2) 주택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 개성 있게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어메니티 공간 창출
 - 도시지역의 노후화된 주거지는 도시재생·재정비 차원에서 정비
- 농촌의 마을과 주택을 연계한 종합적인 주거환경 정비
 - 기존의 농촌 지역개발정책과 상호연계(Policy Mix)를 통한 주거환경 정비
 - 농촌지역은 기존 주택재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서비스의 충실한 제공과 어메니티 제고의 관점에서 주거지를 정비

3)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전략의 통합

- 인구고령화, 독신가구 증가, 주거욕구의 다양화 등에 따라 다양한 주택공급을 확대
- 다양한 수요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주거 유형개발 및 주거단지 설계
- 지방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을 통해 보다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고, 주택정책을 단순한 주택공급정책이 아닌 경제개발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및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과 통합 연계 추진

4) 주택거버넌스의 구현

- 원활한 주거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주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갈등관리를 통해 개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주체간 갈등을 최소화
 - 충청남도과 시·군간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
 - 주택개발 및 도시개발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하며, 공공기관 및 공익단체들과의 협의·협력 채널을 확보

다. 세부추진시책

1) 주거복지정책의 강화

■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위한 대책

- 공급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 임대주택 공급, 기존주택지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
 -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곳에 입지토록 유도
- 수요측면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최저 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주택의 보조금 체계를 개선하고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근로자·서민 전세 자금대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및 주거비 보조프로그램 등 수요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 노령화에 따른 노인주거복지 대책

- 권역별로 고령친화적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는 노인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설계기법을 도입
-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울려 거주하는 세대간 통합형 (generation mix) 주거단지 조성
- 지역차원에서 역모기지(reverse mortgage)제도 등의 금융제도 활성화

2) 주택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
-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와 연계하여 친인간적·친환경적으로 주거지 정비

3) 다양한 주택공급의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전략의 통합

- 다양한 주택유형 개발 및 주거단지 조성
 - 장애인주택, 노인주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및 주거단지 조성
 - 농촌경관 및 지역특성을 살리고, 도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친환경 전원주거단지 조성
 - 기존 농촌주택의 공가관리를 위해 도시주민들에게 비투기적 목적의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구입·임대 기회 확대
- 주택정책·사회복지정책 및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과 통합 연계 추진

4) 주택거버넌스의 구현

- 주택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효과적인 집행체계 구축
 - 충남도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이 시·군 현실에 맞게 집행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시·군 차원에서는 주택담당부서가 지역현실에 맞게 최저주거기준, 주택보급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능력, 주택보조금의 지원대상 가구 선정과 같이 지역별 주거복지 지표 작성 및 주거복지 평가위원회 구성
 - 세입자와 임대자간의 분쟁이나 신규주택개발업체와 주민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주택개발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참여 체계 구축

〈표 II-86〉 주거환경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주거복지정책 강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을 위한 공급정책 · 수요지원정책 및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 지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유기적 연계 등
	주거복지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시니어타운 조성사업 (8개소 : 서천,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 역모기지제도 등 금융제도 활성화 등
주택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100개 지구) · 소규모 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의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전략의 통합	다양한 주택의 공급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가구, 1인 가구 등 · 친환경적 주택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저밀의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개발 －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3개소)
	주택정책과 지역사회발전 전략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주도적 주택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전략의 통합 · 주택 거버넌스 구현 · 시·군 단위 주거복지 정책평가

2.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의료 서비스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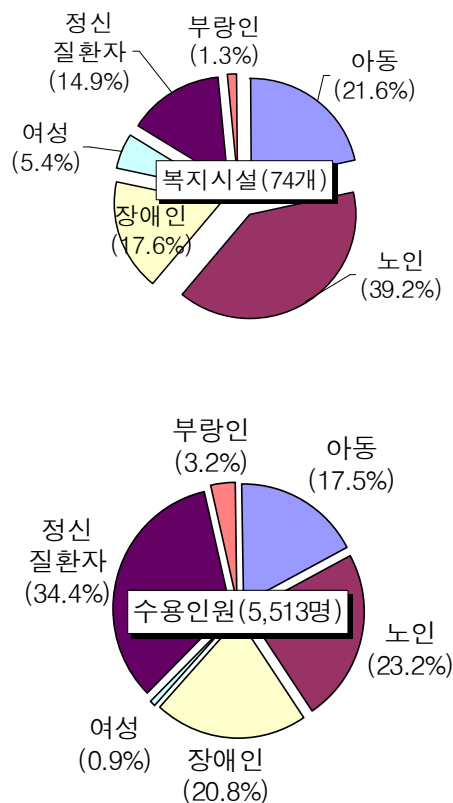
가. 사회복지

1) 현황과 문제점

■ 사회복지시설

- 2004년 현재 충남지역의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총 74개이며, 수용인원은 5,513명임
- 충남 지역의 복지시설 유형별 현황은 노인복지시설 39.2%, 아동복지시설 21.6%, 장애인복지시설 17.6%, 정신요양시설 14.9%로 나타남
 -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정신질환자 34.4%, 노인 23.2%, 장애인 20.8% 등의 순임

〈그림 II-34〉 충남의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구성현황(2004)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 시군별 사회복지시설을 보면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등 일부 도시지역에 한정 분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설이 집중된 도시지역마저도 충분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만한 기반을 갖추지 못한 실정임
- 청양군은 사회복지시설이 전무하며, 계룡시는 1개소의 여성복지시설이 있고 태안군은 1개소의 아동복지시설만 있음

〈표 II-87〉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분포 현황(2004)

(단위: 개소, 인, %)

구분	총 계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부랑인시설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계	74 (100)	5,513 (100)	16 (100)	963 (100)	29 (100)	1,278 (100)	13 (100)	1,148 (100)	4 (100)	47 (100)	11 (100)	1,899 (100)	1 (100)	178 (100)
시 부	41 (100)	3,621 (100)	9 (100)	600 (100)	10 (100)	653 (100)	11 (100)	1,053 (100)	4 (100)	47 (100)	7 (100)	1,268 (100)	- (-)	- (-)
천안시	8 (19.5)	569 (15.7)	3 (33.3)	258 (43.0)	1 (10.0)	49 (7.5)	1 (9.1)	63 (6.0)	1 (25.0)	4 (8.5)	2 (28.6)	195 (15.4)	- (-)	- (-)
공주시	9 (22.0)	800 (22.1)	- (-)	- (-)	2 (20.0)	267 (40.9)	4 (36.4)	333 (31.5)	2 (50.0)	35 (74.5)	1 (14.3)	165 (13.0)	- (-)	- (-)
보령시	5 (12.2)	432 (11.9)	2 (22.2)	90 (15.0)	1 (10.0)	30 (4.6)	2 (18.2)	312 (29.5)	- (-)	- (-)	- (-)	- (-)	- (-)	- (-)
아산시	6 (14.6)	443 (12.2)	1 (11.1)	25 (4.2)	3 (30.0)	212 (32.5)	1 (9.1)	79 (7.5)	- (-)	- (-)	1 (14.3)	127 (10.0)	- (-)	- (-)
서산시	3 (7.3)	211 (5.8)	- (-)	- (-)	1 (10.0)	29 (4.4)	2 (18.2)	182 (16.3)	- (-)	- (-)	- (-)	- (-)	- (-)	- (-)
논산시	9 (22.0)	1,158 (32.0)	3 (33.3)	227 (37.8)	2 (20.0)	66 (10.1)	1 (9.1)	84 (7.9)	- (-)	- (-)	3 (42.9)	781 (61.6)	- (-)	- (-)
계룡시	1 (2.4)	8 (0.2)	- (-)	- (-)	- (-)	- (-)	- (-)	- (-)	1 (25.0)	8 (17.0)	- (-)	- (-)	- (-)	- (-)
군 부	33 (100)	1,892 (100)	7 (100)	363 (100)	19 (100)	625 (100)	2 (100)	95 (100)	- (-)	- (-)	4 (100)	631 (100)	1 (100)	178 (100)
금산군	3 (9.1)	128 (6.8)	2 (28.6)	102 (28.1)	1 (5.3)	26 (4.2)	- (-)	- (-)	- (-)	- (-)	- (-)	- (-)	- (-)	- (-)
연기군	9 (27.3)	703 (37.2)	1 (14.3)	72 (19.8)	5 (26.3)	138 (22.1)	1 (50.0)	77 (81.1)	- (-)	- (-)	1 (25.0)	238 (37.7)	1 (100)	178 (100)
부여군	4 (12.1)	326 (17.2)	1 (14.3)	66 (18.2)	2 (10.5)	117 (18.7)	- (-)	- (-)	- (-)	- (-)	1 (25.0)	143 (22.7)	- (-)	- (-)
서천군	3 (9.1)	77 (4.1)	- (-)	- (-)	2 (10.5)	59 (9.4)	1 (50.0)	18 (18.9)	- (-)	- (-)	- (-)	- (-)	- (-)	- (-)
청양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홍성군	4 (12.1)	329 (17.4)	1 (14.3)	37 (10.2)	2 (10.5)	90 (14.4)	- (-)	- (-)	- (-)	- (-)	1 (25.0)	202 (32.0)	- (-)	- (-)
예산군	4 (12.1)	108 (5.7)	1 (14.3)	43 (11.8)	2 (10.5)	17 (2.7)	- (-)	- (-)	- (-)	- (-)	1 (25.0)	48 (7.6)	- (-)	- (-)
태안군	1 (3.0)	43 (2.3)	1 (14.3)	43 (11.8)	- (-)	- (-)	- (-)	- (-)	- (-)	- (-)	- (-)	- (-)	- (-)	- (-)
당진군	5 (15.2)	178 (9.4)	- (-)	- (-)	5 (26.3)	178 (28.5)	- (-)	- (-)	- (-)	- (-)	- (-)	- (-)	- (-)	- (-)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 저출산·고령화 현황

- 2005년 충남의 출산율은 제주,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1.26명 수준이지만, 2000년의 1.52에 비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외국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 반면, 2005년 충남의 고령화율은 13.3%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2004년 13.1%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복지

- 2005년 충남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도민의 4.1%인 80,995명이며, 이중 시설수급자는 4,541명으로 전체수급자의 5.6%를 점유하고 있음
- 2000년에 비해 기초수급자가 증가한 이유는 사회양극화, 경기 불황으로 인한 빈곤층 증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수급자 발굴 등에 기인한 것이며, 노인인구 급증, 장애인구 지속적 증가, 저소득 농어업인구 증가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 증가하고 있음

〈표 II-8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단위: 가구, 시설, 명)

구 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수	수급자	가구수	수급자	개소수	수급자
2000년	43,182	93,216	43,182	88,913	50	4,303
2005년	43,593	80,995	43,593	76,454	67	4,541

자료: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5.

■ 노인복지

- 2005년 현재 충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62천명으로 총인구 198만명의 13.3%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의 9.3%보다 훨씬 높음
- 특히, 군부의 경우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해 있으며, 청양군(24.3%), 서천군(22.1%), 부여군(20.9%) 등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고, 시부도 천안시와 계룡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

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도달해 있음

- 한편, 충남도내에는 공설묘지 8개소 1,045천㎡와 사설공원묘지 8개소 2,966천㎡, 공동묘지 722개소에 18,470천㎡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매장능력은 864,470기 규모로서 578,350기를 매장하여 잔여기수 286,120기와 납골시설 23개소(공설 15, 사설 8) 총 봉안능력 183,551기, 봉안기수 130,797기, 잔여기수 52,754기로 향후 도내 사망자 전원을 30년간 매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장애인 복지

- 2005년 충남의 등록장애인은 92,094명으로 도내 전체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음
 - 지체장애 49,818명, 시각 9,766명, 청각장애 8,514명, 언어장애 862명, 정신지체 7,399명, 뇌병변 7,722명, 발달장애 253명, 정신장애 3,675명, 신장장애 1,572명, 심장장애 529명, 호흡기 850명, 간장애 214명, 안면장애 63명, 장루장애 524명, 간질장애 333명
- 장애원인은 선천적 원인, 출생시 원인, 후천적 원인으로 질병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 89.4%, 선천적 원인 4.4%, 원인 미상 3.9%, 출산시 원인 2.3%로 나타남

■ 아동·여성복지

- 2005년 충남도내 시설아동은 879명, 소년소녀가정아동은 166명, 가정위탁보호아동은 513명에 달함
- 사별, 이혼 등 사유로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은 3,207가구 8,907명이며, 부자가정은 868가구 2,364명으로 나타남
- 충남도내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국제 결혼여성이민자 1,51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적응프로그램인 “행복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표 II-89〉 연도별 모자·부자가정 현황(2000, 2005)

(단위: 호, 명)

구 분	모 자 가 정				부 자 가 정			
	전체 모자가정		재 가 보 호		전체 부자가정		재 가 보 호	
	가구수	가구원	가구수	가구원	가구수	가구원	가구수	가구원
2000년	1,873	5,558	542	1,546	417	1,195	107	310
2005년	3,207	8,907	1,473	3,924	868	2,364	368	985

자료: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5

2) 여건변화와 전망

■ 저출산·고령사회의 진전

- 가임여성인구의 감소로 출생아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노령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저출산은 인구규모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고, 이것은 다시 노동력 부족과 산업인력 고령화를 야기하여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인구고령화를 가속화시켜 사회보장비지출(연금, 건강보험 등)의 증가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복지가 위협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가족규모를 축소시켜 노부모에 대한 개인 또는 가족의 사적부담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표 II-90〉 65세 이상 노령화 전망

(단위: 천인, %)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05~'10	'10~'15	'15~'20
우리나라 ¹⁾	전체	47,279	49,220	49,803	49,956	0.81	0.24	0.06
	노령인구	4,365	5,354	6,445	7,821	4.17	3.78	3.95
	노령화율	9.3	10.9	12.9	15.7	—	—	—
충남	전체	1,982	2,080	2,300	2,500	0.97	2.03	1.68
	노령인구	262	316	380	445	3.82	3.76	3.21
	노령화율	13.3 ²⁾	15.2	16.5	17.8	—	—	—

주1: 통계청의 “시도별 장애인구 특별추계결과(2005.4)”에 제시된 수치이며, 2005년 현재 주민등록상 전국인구는 49,268천인임

2: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잠정결과(2006. 5)에서는 2005년 11월 현재 충남의 노령화율은 14.3%로 제시하고 있음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잠정결과, 2006.

■ 사회 양극화에 의한 신빈곤층의 증대

-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속에 소득, 고용, 산업, 기업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빈곤계층 및 차상위 계층으로 정의되는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 확대, 노동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 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증대

- 치매·중풍과 같은 중증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간병수발 등을 위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 중증장애인, 국제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동 및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증가에 따라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 여성복지서비스 개선요구 증대

- 출산율 저하와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에 따라 양성평등의식이 확산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복지서비스 개선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3) 계획의 기본방향

■ 가정·사회·정부가 참여하는 종합적 저출산대책 모색

- 사회·직장환경의 획기적 개선
 - 여성이 직장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영아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정착, 여성근로자의 파트타임 근무 및 탄력근무제 활성화
- 보육시설 서비스의 양질화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영아보육시설 활성화, 취학아동의 방과후 과정을 다양화하는 제도 마련

- 기존의 민간보육시설을 개선하고 영아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영아보육활성화 대책 마련
- 자녀 양육비용 경감대책의 강구
 -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경제적 혜택 부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1인 가구에 대한 부담 강화

■ 다양한 사회복지욕구에 대응한 복지인프라 확충

- 노인·장애인·아동·여성·부랑인 복지시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장묘 시설 등 사회 계층별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프라의 전반적인 확충과 서비스 수준 향상
 - 시설 서비스 최소기준 마련 및 시설 인증제도 도입
- 노인수발보험의 시행에 대비한 치매, 중풍, 만성질환 등의 장기요양과 수발서비스 시설 확충
-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및 부랑인 복지시설은 광역생활권별로 배치
-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시설은 권역별·지역별로 배치
- 화장물의 급증에 대비한 화장장 및 납골시설 확충방안 모색

■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복지체계 확립

- 고령화의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령화 대책을 추진
 - 고령화문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제고를 위해 노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노인복지시설은 교통 및 생활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조성하되,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모색
 -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성하고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 고령자들의 재교육과 평생교육시스템 정비를 통해 고령자들의 질적 능력을 제고하고, 노인창업 및 취업프로그램을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고령친화산업육성 방안 모색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차상위 계층, 장애인, 고령자 등의 자활 및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확충방안 강구

-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소득보장 강화 및 창업지원 활성화 방안 강구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복지지원제도의 지속추진 및 사회복지서비스 다양화 방안 모색

4)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 개발사업

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

■ 건강한 임신출산 및 보육 지원

-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 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 영유아 건강보호 및 여성건강 증진대책을 강구하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추진방안 강구
 - 임신부건강관리, 산후조리 도우미제도 도입
 -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확충, 저소득층 보육료 지급,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입양아동 양육비지원, 아동수당제도 도입
- 저소득 출산가정, 출산친화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지방세 및 공공요금 감면, 아파트 우선 분양권 부여, 출산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 국내 입양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 강화방안 강구

■ 국제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등 소수자 권리 강화방안 강구
 -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추진
 - 부부교실, 고부교실, 모성보호, 이벤트 등
- 우리문화 보급사업 추진
 - 한글교실, 생활예절교육, 요리교실, 우리문화가족여행,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설치, 한국친정만들기결연 등

■ 저소득 아동복지 강화

-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역사회아동에 대한 복지강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 아동급식사업지원,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나) 사회계층별 사회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시설 확충

■ 노인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증축 및 기능보강, 전문요양시설 신·증축, 노인 복지회관 신·증축,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재가보호시설 등 확충
-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휴양촌, 고령자 생활복지센터, 은퇴자농장, 맞춤형 시니어타운 또는 마을 등을 조성
- 노인그룹홈,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수발보험제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확충

■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 노후 장애인생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직업 재활시설운영 및 기능보강,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소규모장애인 작업장 설치·확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 보육·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 보육시설 신축 및 환경개선 등 기능 보강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다양화
- 저소득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등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선진 장묘기법의 도입 및 기존 장묘시설의 재정비

- 화장시설, 납골시설, 산골장, 자연장 등 선진장사시설 조성
- 추모공원 조성사업, 공동묘지 재정비,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
 - 아산당진의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천안시의 추모공원 조성사업, 아산시 의 공설납골당 건립

다)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

■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확대

- 재가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 운영, 무료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독거노인 월동비 지원
- 노인 건강 및 의료보장,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등 사회적 노인부양 체계 개선방안 강구

■ 노후 소득보장 강화 및 권리 증진

- 고용·노후 소득보장, 경로연금지급, 교통수당 지급,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노인건강축제 개최

■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 노인일자리 창출 등 소득보장,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고령친화기업 육성 등
- 시니어클럽을 통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 자원재활용, 실버도우미, 문화관광해설사, 공예품 제작, 어린이 보육 등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 추진

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의 지속적 추진,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
-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 능력 있는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농어민,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차등 경감
- 장애인 소득지원 확대, 경로연금 확대,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급범위 확대
- 저소득층 주거 지원 및 주거활용 지원, 고엽제·참전용사의 지원 확대

〈표 II-91〉 사회복지 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사업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15개소)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74개소) · 노인복지회관 신증축(22개소)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38개소) ·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2개소) · 장애인 복지관 건립(6개소) ·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2개소)
	아동·여성복지시설	· 아동시설 기능보강(15개소) · 보육시설 기능보강(90개소) ·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3개소)
	부랑인 복지시설	· 부랑인시설 기능보강(1개소)

나. 보건·의료

1) 현황과 문제점

■ 지역내 의료복지 현황

-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질병구조가 변화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보건의료 수요가 양적·질적으로 다양화·고급화되고 있음
- 충남지역의 의료시설 현황을 보면, 2004년 현재 의료기관수는 총 1,598개소로 전국의 3.4%, 병상수는 4.2%, 의사수는 4.5%를 차지하고 있어, 충남지역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 4.0%와 비교해 보면 병상수와 의사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의료시설의 양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

〈표 II-92〉 전국과 충남의 의료시설 비교(1998, 2004)

(단위: 개소, 병상, 인, %)

구 분		전 국			충 남		
		1998	2004	증가율	1998	2004	증가율
의 료 시설수	계	34,558	47,378	5.4	1,125	1,598	6.0
	종합병원	225	282	3.8	10	10	0.0
	병원	517	855	8.7	21	28	4.9
	의원	17,041	24,491	6.2	570	891	7.7
	치과병·의원	9,684	12,075	3.7	269	331	3.5
	한방병·의원	6,697	9,350	5.7	255	323	4.0
	부속의원	216	158	-5.1	-	2	-
	기타	178	167	-1.1	9	13	6.3
병상수	계	236,387	353,289	6.9	10,544	14,850	5.9
	종합병원	101,137	117,323	2.5	3,443	3,834	1.8
	병 원	52,355	97,342	10.9	2,166	2,642	3.4
	의 원	55,663	91,702	8.7	2,927	4,901	9.0
	치과병·의원	81	184	14.7	-	-	-
	한방병·의원	6,177	9,585	7.6	135	297	14.0
	부속의원	510	338	-6.6	-	-	-
	기 타	20,464	36,815	10.3	1,873	3,176	9.2
의료인력	계	57,837	90,917	7.8	2,655	4,146	7.7
	의 사	47,387	61,052	4.3	1,524	2,089	5.4
	치과 의사	7,692	16,065	13.1	446	597	5.0
	한 의 사	1,268	11,177	43.7	240	466	11.7
	약 사	1,490	2,623	9.9	445	994	14.3

주 : 의사= 상근+비상근, 기타병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조산원, 정신병원 포함

자료 : 통계청, KOSIS통계정보시스템(<http://kosis.nso.go.kr/>),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 지역의료복지 수준 추이

- 의료시설 변화추이를 보면, 1998~2004년 기간동안 전국병원수는 연평균 6.1% 증가한 반면, 충남지역은 비교적 높은 11.4% 증가함. 병상수는 동기간중 연평균 6.8% 증가하여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나, 의료인력은 연평균 9.3%로 전국과 비슷하게 증가함. 병상당 인구수는 전국이 1998년 200명에서 2004년 133명으로 변화한데 비해 충남지역은 각각 182명, 133명으로 전국의 병상시설 확충과 비슷한 추이를 보임

〈표 II-93〉 시·군별 의료시설 분포 현황(2004)

(단위: 개소, 명, %)

구분	계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기 타	
	병원 수	병상수	병원 수	병상수	병원 수	병상수	병원 수	병상수	병원 수	병상수	병원 수	병상수	병원 수	병상수
충 남	1,598 (100)	14,850 (100)	10 (100)	3,834 (100)	28 (100)	2,642 (100)	891 (100)	4,901 (100)	331 (100)	- (-)	323 (100)	297 (100)	15 (100)	3,176 (100.0)
천안시	452 (28.3)	3,664 (24.7)	4 (40.0)	1,919 (50.1)	4 (14.3)	253 (9.6)	244 (27.4)	1,372 (28.0)	108 (32.6)	- (-)	90 (27.9)	120 (40.4)	8 (53.3)	
공주시	113 (7.1)	2,504 (16.9)	1 (10.0)	220 (5.7)	1 (3.6)	133 (5.0)	63 (7.1)	295 (6.0)	19 (5.7)	- (-)	23 (7.1)	- (-)	- (-)	1,856 (58.4)
보령시	94 (5.9)	780 (5.3)	1 (10.0)	200 (5.2)	2 (7.1)	147 (5.6)	53 (5.9)	324 (6.6)	16 (4.8)	- (-)	21 (6.5)	73 (24.6)	1 (6.7)	36 (1.1)
아산시	127 (7.9)	1,497 (10.1)	- (-)	- (-)	3 (10.7)	441 (16.7)	77 (8.6)	306 (6.2)	27 (8.2)	- (-)	18 (5.6)	- (-)	2 (13.3)	750 (23.6)
서산시	108 (6.8)	714 (4.8)	1 (10.0)	188 (4.9)	1 (3.6)	77 (2.9)	62 (7.0)	376 (7.7)	22 (6.6)	- (-)	22 (6.8)	73 (24.6)	- (-)	
논산시	137 (8.6)	1,545 (10.4)	1 (10.0)	760 (19.8)	1 (3.6)	282 (10.7)	76 (8.5)	503 (10.3)	25 (7.6)	- (-)	34 (10.5)	- (-)	- (-)	
계룡시	30 (1.9)	112 (0.8)	- (-)	- (-)	1 (3.6)	36 (1.4)	15 (1.7)	76 (1.6)	7 (2.1)	- (-)	7 (2.2)	- (-)	- (-)	
금산군	54 (3.4)	393 (2.6)	- (-)	- (-)	2 (7.1)	221 (8.4)	31 (3.5)	172 (3.5)	8 (2.4)	- (-)	13 (4.0)	- (-)	- (-)	
연기군	70 (4.4)	325 (2.2)	- (-)	- (-)	2 (7.1)	167 (6.3)	43 (4.8)	158 (3.2)	12 (3.6)	- (-)	13 (4.0)	- (-)	- (-)	
부여군	65 (4.1)	803 (5.4)	- (-)	- (-)	2 (7.1)	157 (5.9)	35 (3.9)	202 (4.1)	12 (3.6)	- (-)	13 (4.0)	- (-)	3 (20.0)	444 (14.0)
서천군	54 (3.4)	528 (3.6)	- (-)	- (-)	3 (10.7)	328 (12.4)	27 (3.0)	200 (4.1)	11 (3.3)	- (-)	13 (4.0)	- (-)	- (-)	
창양군	20 (1.3)	158 (1.1)	- (-)	- (-)	1 (3.6)	100 (3.8)	10 (1.1)	58 (1.2)	4 (1.2)	- (-)	5 (1.5)	- (-)	- (-)	
홍성군	69 (4.3)	702 (4.7)	1 (10.0)	395 (10.3)	1 (3.6)	78 (3.0)	39 (4.4)	108 (2.2)	13 (3.9)	- (-)	14 (4.3)	31 (10.4)	1 (6.7)	90 (2.8)
예산군	75 (4.7)	405 (2.7)	1 (10.0)	152 (4.0)	- (-)	- (-)	40 (4.5)	253 (5.2)	19 (5.7)	- (-)	15 (4.7)	- (-)	- (-)	
태안군	45 (2.8)	144 (1.0)	- (0.0)	- (0.0)	- (0.0)	- (0.0)	27 (3.0)	144 (2.9)	11 (3.3)	- (-)	7 (2.2)	- (-)	- (-)	
당진군	85 (5.3)	576 (3.9)	- (-)	- (-)	4 (14.3)	222 (8.4)	49 (5.5)	354 (7.2)	17 (5.1)	- (-)	15 (4.7)	- (-)	- (-)	

주1: 의료시설총계는 보건의료원 이하 미포함

2: 기타에는 특수병원+요양병원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 의사 1인당 인구수는 전국이 2004년 현재 540명, 충남지역은 476명으로 1998년에 비해서 개선되었으며, 전국적인 수준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임. 의료시설당 의사수는 전국 평균 1.9명인데 비해 충남지역은 2.6명, 의료시설당 병상수는 7.5명에 비해 충남지역은 9.3명으로 의료인력 및 서비스 수준에 있어서는 전국과 비슷하거나 비교적 양호함
- 지역주민의 1차적 의료서비스 기관인 공공보건기관은 보건의료원 2개소(청양태안군), 보건소 14개소, 보건지소 158개소, 보건진료소 233개가 분포하고 있음

〈표 II-94〉 보건의료기관 분포 현황(2004)

(단위: 개소, 명, %)

구 분	계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충 남	407	2	14	158	233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 시군별 의료수혜 격차 심화

- 지역내 시·군별 의료시설 현황을 보면, 도내 의료기관의 66.4%, 병상수의 72.8%, 의사수의 70.6%가 시부에 집중되어 시부가 차지하는 인구비중이 65%임을 감안할 때 의료기반의 시·군간 격차가 비교적 큼
- 시·군별 의료시설 분포 현황을 보면, 3차 진료권인 종합병원이 천안에 4개소, 공주, 보령, 서산, 논산, 홍성, 예산에 각각 1개소로 80%가 시부에 분포되어 있고, 군부의 경우는 대부분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의존하고 있어 입원환자 발생시에는 시급도시로 나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촌 및 낙후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이 시급함
- 일반병원의 경우 총 28개중 시부와 군부에 각각 13개소, 15개소가 있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청양, 태안 지역은 민간병원이 없는 실정임

2) 여건변화와 전망

■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및 의료서비스 요구

- 인구고령화로 인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와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전문적 요양, 치료, 재활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요구됨

■ 전문의료기관에 대한 수요 증가

-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특정질환 전문병원, 장애인 전문병원 등 특정계층을 위한 전문의료기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의료서비스 개방에 따른 의료환경 변화

- 의료인력의 자격에 대한 규제,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규제, 의료보험과 관련된 규제 등 외국자본에 의한 의료서비스의 국내시장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공략이 증대될 경우 의료환경 변화가 예상됨

■ 평생건강에 대한 국민요구 증대

- 흡연, 음주, 영양섭취 및 스트레스 등의 환경이나 생활습관 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조기사망은 물론 만성질환을 초래하고 건강증진에도 잠재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최적의 건강수준을 유지·증진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평생건강에 대한 국민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3) 계획의 기본방향

■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지원 강화

- 출산양육에 유리한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만성질환 및 장기요양 중심의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방안 모색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관리체계 구축방안 강구

■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 보건관련 단체가 연계된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의료시설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

- 인구 고령화의 진전,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확충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방안 강구
- 시·군별 인구 규모를 고려한 종합병원 유치, 병상수 및 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

■ 지역간·계층간 균형있는 지역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 생활권 단위에서 진료기관간 기능분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읍·면·동 단위에서는 1차적 의료서비스, 중소도시에서는 2차적 의료서비스, 거점도시에는 종합병원 등 의료서비스 기능 제공
 - 중소병원간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을 공동활용하고 협력체계 구축
- 취약지역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대 및 기능 강화
 - 농어촌지역이나 낙후지역을 위한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자·도·서 순회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으로써 의료서비스 개선
-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안내체계와 지원체계 확립
 - 장애인 재활의료 서비스 강화로 재활 가능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실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들에 대한 의료비 감면

- 공립치매요양병원 등 정신요양시설을 광역생활권 중심지부터 설치하여 노인의료복지 서비스 수준 제고
 - 중소병원, 지방의료원에 노인전문요양병동을 추가설치 특화 육성
 - 4개 의료원 현대화는 홍성은 2002년도에 완료되었고, 서산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며, 천안·공주는 현대화사업이 필요한 실정임

4)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 개발사업

가) 도민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시설 확충

■ 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기능보강

-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 현대화 사업의 추진(천안, 공주, 서산, 홍성)
- 의료기관 시설 및 기능보강 지원하고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 치매·중풍 및 정신요양시설 확충

- 공립치매요양병원 건립을 통해 노인 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쾌적한 요양시설 운영

나) 건강한 임신출산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지원

■ 건강한 임신·출산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지원

-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모유수유 확대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종목확대 및 미숙아등 의료비지원 확대
-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지원 강화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치매환자 관리 및 치매전문병원 건립,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전담요원 배치, 치매검사 확대, 치매예방 및 조기진단시스템 구축
- 재가 치매환자 가정방문 진료서비스 제공, 재가치매 노인관리 시범사업, 전문간병인력 양성

다) 질병예방 및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체계 구축

■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보건소 운영
- 보건소 금연클리닉 설치운영, 보건소 및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
- 건강도시(금산, 연기) 지정 확대를 통한 국제적 수준의 건강관리

■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의료혜택 제공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로 및 의료시설 확충 및 현대화 추진
- 도서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병원선 현대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고
- 저소득층 암검진,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및 불임시술비 지원,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 시군단위 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
-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및 순회의료시스템 구축
- 장애아동 무료시술사업 추진, 난치병 장애아동 치료비 지원

라) 전염병 예방 및 만성·신종질환 관리강화

■ 전염병 예방 및 감시체계 강화

-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 위험집단 예방접종 및 취약지 방역소독

■ 만성·신종질환 및 마약류 관리

- 한센병, 결핵 등 만성병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순회이동 검진
- 한센병 환자 정착촌 자립기반 조성 및 양로시설 신축
- 에이즈환자 치료 지원, 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감시 체계 구축 운영,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마)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 지역 정신보건사업 추진

- 지역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및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
- 재가정신질환자 관리

■ 치매환자 관리

- 저소득층 치매환자 입원·간병 등 서비스 제공
- 재가 치매환자 가정방문 진료서비스 제공
- 재가 치매노인관리 시범사업 추진

〈표 II-95〉 보건의료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사업
보건·의료	의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2개소) 및 기능보강사업(4개소) · 정신요양시설 기능 보강(10개소) · 공립치매병원 건립(4개소)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209개소)

3. 평생학습사회의 실현 및 생활체육 활성화

가. 현황과 문제점

■ 학교교육 시설

- 충남지역의 교육시설 수는 충남의 전국대비 인구비율 4.1%에 비해 전반적으로 많은 편이나 교육환경 수준이 떨어져 고급인력이 외부로 유출되어 지역사회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전국에 비해 학교수나 학생수가 높은 학교급은 대학교 이상으로 충남지역의 전문인력 창출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음. 즉, 대학교 및 대학원수는 전국의 15.0%와 6.3%를 차지하고, 학생수는 7.9%와 3.2%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96〉 전국과 충남의 학교수 및 학생수 비교(2004)

(단위 : 명, %)

구 분	전 국		충 남		전국대비	전국대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비율	학생수 비율
유치원	8,275	541,603	546	20,834	6.6	3.8
초등학교	5,646	4,022,801	442	156,088	7.8	3.9
중학교	2,935	2,010,704	187	95,846	6.4	4.8
고등학교	2,095	1,762,896	110	68,059	5.3	3.9
전문대학	158	853,089	10	20,039	6.3	2.3
대학교	173	1,859,639	26	146,539	15.0	7.9
대학원	1,051	282,225	66	8,939	6.3	3.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 2005.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 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 학생수 비중이 전국대비 충남지역 인구비중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젊은 층의 지역외유출이 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젊은 층의 지속적 감소로 2000~2005년 기간에 유치원과 고등학교 학생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충남지역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는 유치원 20.3명, 초등학교 26.8명, 중학교 39.7명, 고등학교 30.1명, 교원당 학생수는 유치원 16.6명, 초등학교 19.9명, 중학교 21명, 고등학교 13.7명으로 전국에 비해 중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교육시설의 질적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이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당 학생수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교육수준의 실질적인 개선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인구 유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학교시설의 노후화, 교육기자재의 부족 등 다양한 교육여건의 문제를 안고 있어 교육시설의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함

〈표 II-97〉 학교시설 및 현황추이

구 분	2000년							2005년						
	학교	교실	학급	학생	교원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학교	교실	학급	학생	교원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충남계	1,366	10,619	11,526	518,877	20,951	45.0	24.8	1,387	12,362	13,058	516,344	24,192	39.5	21.2
유치원	561	1,001	954	21,440	1,198	22.5	17.9	546	1,072	1,027	20,834	1,256	20.3	16.6
초등학교	432	5,293	5,188	151,526	6,890	29.2	22.0	442	6,312	5,832	156,088	7,830	26.8	19.9
중학교	186	2,114	2,059	73,993	4,212	35.9	17.6	187	2,515	2,412	95,846	4,564	39.7	21.0
고등학교	106	2,211	2,212	84,959	4,932	38.4	17.2	110	2,463	2,259	68,059	4,965	30.1	13.7
전문대학	10	—	229	37,474	601	163.6	62.4	10	—	150	20,039	526	133.6	38.1
교육대학	1	—	49	2,040	70	41.6	29.1	1	—	67	2,541	80	37.9	31.8
대학교	19	—	835	140,205	3,048	167.9	46.0	25	—	609	143,998	4,102	236.4	35.1
대학원	51	—	—	7,240	—	—	—	66	—	702	8,939	869	12.7	10.3

주 : 초중학교 분교는 제외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학습시설

- 충남지역에는 금산, 부여, 아산, 서산, 태안 등 5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다양한 평생학습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충남지역의 대표적 평생학습시설은 충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지역 평생학습관을 들 수 있음.
 - 충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현재 충남도학생회관을 비롯한 공주대학교,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의 4개 기관 컨소시엄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평생학습관으로 현재 충청남도학생회관과 논산평생학습관, 그리고 도서관(17관)을 지역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외에도 평생교육기관으로 공공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문화원,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 사회복지관, 농업기술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육성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박물관미술관, 문화공간, 사회체육시설, 사설학원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있음
- 2005년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은 63개소(설치중 23개소)가 운영 또는 설치중에 있음

〈표 II-98〉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05)

(단위: 개소)

구 분		계	운영중	공사중	비 고
합 계		63	40	23	
공공 시설	소 계	25	20	5	
	수련관	9	6	3	천안, 보령, 논산, 금산, 부여, 홍성 (설치중: 아산, 서산, 태안)
	수련원	2	2	-	당진, 홍성
	문화의집	11	9	2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논산, 연기, 부여, 홍성, 당진 (설치중 : 천안, 당진)
	야영장	3	3	-	천안, 아산, 예산
	유스호스텔	-	-	-	
민간 시설	소 계	38	20	18	
	수련관	-	-	-	
	수련원	11	7	4	천안, 서산, 금산, 연기, 청양2, 태안 (설치중: 아산, 서산, 태안, 예산)
	문화의집	2	1	1	공주민속극박물관 청소년수련실 (설치중: 금산)
	야영장	8	5	3	천안2, 연기, 서산, 예산 (설치중: 보령, 금산2)
	유스호스텔	17	8	9	천안2, 공주2, 아산, 부여3 (설치중: 보령, 아산2, 서천, 태안5)

자료: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5.

■ 지역인적자원개발

- 요소투입 성장의 한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둔화, 사회적 양극화 심화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과 “지식” 주도형 성장전략으로 2010년에는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 세계 10위권에 진입, 학습사회 및

인재강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2005년 제2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발표

- 이에 근거하여 충남지역에서는 충청남도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과 충청남도 인적자원개발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음. 기본계획에서는 충청남도, 노동사무소, 산업인력공단, 교육청, 상공회의소, 대학, 중소기업청, 평생교육기관이 네트워크를 통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신뢰하는 학습공동체와 경쟁력 있는 지역사회 형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4대 영역, 12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음

〈표 II-99〉 충남인적자원개발 정책영역 및 추진과제

영역	추진과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교육 · 지역밀착형 산업인력 육성 · 신지식 농업·농촌인력 양성 ·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
도민역량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추진기반 구축 ·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의 내실화 ·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교육 강화 · 여성의 능력개발기회 확대 ·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 추진체제 및 네트워크 구축

자료: 충청남도, 충청남도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2005.

- 인적자원개발 실행계획에서는 기본과제에서 제시된 4대 영역 12개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106개 사업을 제시하였음
- 한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전국의 직업훈련기관은 2005년 현재 6,410개소가 있으며, 충남지역은 310개로 전국의 4.8%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100〉 직업훈련기관 현황(2005년 7월 현재)

구 분	계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	직업능력 개발훈련 법인	직업능력 개발단체	학 교	평생교육 시설	학 원	사업주/ 사업단체 등시설	기 타
전 국	6,410	826	93	5	240	1,165	1,769	943	1,369
충 남	310 (4.8)	25 (3.0)	1 (1.1)	—	12 (5.0)	61 (5.2)	107 (6.0)	60 (6.4)	44 (3.2)

자료: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http://www.hrd.go.kr/>).

- 충남지역 직업훈련기관중 사업주/사업자단체 등 시설이 전국의 6.4%, 학원이 6.0%, 평생교육시설이 5.2%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높은 반면, 학원이 전체 직업훈련기관의 34.5%, 평생교육시설이 19.7%, 사업주/사업단체 등 시설이 1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직업훈련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체육여가시설

- 체육여가시설중 일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춘 공공체육시설의 경기장 및 등록체육시설은 총33개소로 전국 905개소의 3.6%, 면적은 1,545천㎡로 전국 23,418천㎡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과 비교하여 체육시설당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공공체육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시부지역에 20개소(60.6%)가 분포되어 있어 지역간 시설분포 격차가 심한 편임. 그러나 계룡시에는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임
- 체육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각급 기관의 체육대회와 행사 등에 이용되고 있어 사용료 징수가 전무한 상태로 시설유지 및 관리비 충당이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운영중인 시·군단위 운동장 및 체육관은 시설규모에 비해 예산 및 인력부족에 따른 유지관리 소홀로 시설물이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임
- 등록체육시설로 골프장은 도고, 우정힐스, IMG, 천안 상록, 에딘버러 등 5개소가 운영중이고, 천안 버드우드, 태안 비치컨트리클럽, 공주 정안, 서산 퍼스트밸리 등 4개소가 공사 중에 있음

〈표 II-101〉 체육시설 현황(2004)

(단위: 개소, m², %)

구 분	경 기 장									
	합 계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수영장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합	33 (100)	1,545,768 (100)	16 (100)	78,689 (100)	11 (100)	1,378,496 (100)	5 (100)	83,039 (100)	1 (100)	5,544 (100)
천안시	8 (24.2)	531,330 (34.5)	3 (18.8)	22,926 (31.3)	2 (18.2)	490,575 (35.6)	3 (75.0)	17,829 (61.8)	- (-)	- (-)
공주시	3 (9.1)	77,609 (5.0)	2 (12.5)	11,493 (15.7)	1 (9.1)	66,116 (4.8)	- (-)	- (-)	- (-)	- (-)
보령시	2 (6.1)	117,900 (7.7)	1 (6.3)	4,063 (5.5)	1 (9.1)	113,837 (8.3)	- (-)	- (-)	- (-)	- (-)
아산시	3 (9.1)	14,831 (1.0)	2 (12.5)	9,287 (12.7)	- (-)	- (-)	- (-)	- (-)	1 (100)	5,544 (100)
서산시	2 (6.1)	154,207 (10.0)	1 (6.3)	7,986 (10.9)	1 (9.1)	146,221 (10.6)	- (-)	- (-)	- (-)	- (-)
논산시	2 (6.1)	145,070 (9.4)	- (-)	- (-)	1 (9.1)	89,860 (6.5)	1 (-)	55,210 (-)	- (-)	- (-)
계룡시	- (-)	- (-)	- (-)	- (-)	- (-)	- (-)	- (-)	- (-)	- (-)	- (-)
금산군	1 (3.0)	141,142 (9.2)	- (-)	- (-)	1 (9.1)	141,142 (10.2)	- (-)	- (-)	- (-)	- (-)
연기군	2 (6.1)	6,322 (0.4)	2 (12.5)	6,322 (8.6)	- (-)	- (-)	- (-)	- (-)	- (-)	- (-)
부여군	1 (3.0)	1,963 (0.1)	1 (6.3)	1,963 (2.7)	- (-)	- (-)	- (-)	- (-)	- (-)	- (-)
서천군	1 (3.0)	2,121 (0.1)	1 (6.3)	2,121 (2.9)	- (-)	- (-)	- (-)	- (-)	- (-)	- (-)
청양군	2 (6.7)	62,126 (4.0)	1 (6.3)	3,026 (4.1)	1 (9.1)	59,100 (4.3)	- (-)	- (-)	- (-)	- (-)
홍성군	1 (6.7)	115,060 (7.3)	- (-)	- (-)	1 (9.1)	115,060 (8.3)	- (-)	- (-)	- (-)	- (-)
예산군	2 (6.1)	74,932 (4.9)	- (-)	- (-)	1 (9.1)	64,932 (4.7)	1 (25.0)	10,000 (34.7)	- (-)	- (-)
태안군	1 (3.0)	2,322 (0.2)	1 (6.3)	2,322 (3.2)	- (-)	- (-)	- (-)	- (-)	- (-)	- (-)
당진군	2 (6.1)	98,833 (6.1)	1 (6.3)	7,180 (2.4)	1 (9.1)	91,653 (6.6)	- (-)	- (-)	- (-)	- (-)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나. 여건변화와 전망

■ 농어촌학교의 소규모화와 학교간 통폐합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

-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농어촌 인구감소로 학교 소규모화와 학교간 통폐합으로 인한 교육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 교원의 농촌학교 근무기피 현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저하 및 진

학, 취업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지역성장 동력으로서의 지역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 증대

- 전 세계적인 IT혁명으로 인해 원격교육사이버 교육 등 대안적 형태의 교육훈련방식이 확산되는 추세이며, 향후 한 국가의 교육인력 개발 성과는 정보기술 활용능력과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및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학력, 연공서열보다는 개개인의 능력과 실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고용·인사 관행이 확산·과급될 것으로 전망됨
- 광역자치단체가 지역교육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와의 정책 파트너십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대학간 자율경쟁체제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경쟁력이 없는 많은 대학 및 학과들은 도태 내지 자발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구조 변화가 중장년화와 아동 및 청년 인구의 감소로 학생수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성인인구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성인교육의 중요성 증대
-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이라는 직업세계에 대한 개념 전환으로 평생교육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교육과 산업, 고용정책간 연계를 통한 국가성장동력으로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 증대

■ 건강 및 자아실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 체육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 욕구충족과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다양한 체육·레저활동을 행하는 경향의 강화 등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의 증대 및 다양화, 전문화, 고도화 예상
- 주민의 민주의식 고양으로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어 뜻을 같이 하는 자생적인 스포츠 동호인 집단의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될 전망
-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여가 및 스포츠활동 증대, 스포츠 소비자의 욕구 다양화 등으로 각종 체육시설·프로그램·스포츠용품 이용과 체육활동의 전문지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다. 계획의 기본방향

■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과 우수학교 육성

- 폐쇄형 학교교육체제를 개방형 평생교육체제, 유비쿼터스-러닝 체제로 전환
- 농어촌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확충, 우수교사 확보, 학생복지 증진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차원의 종합적 지원 체제 구축
-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우수학교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시설 현대화 및 장학금 확충 등 지원방안 모색

■ 자치단체의 지역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및 확충

-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채용의 안정적 확보방안 모색
- 청소년의 새로운 변화욕구에 부응하는 청소년육성 시책 방안 모색
- 광역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기능의 전문화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담당 부서의 확충 등 재정비
- 자치단체, 충남교육청, 지방노동청, 지방중소기업청 등 인적자원개발 담당기관들의 인적자원 개발기능 확대

■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도민학습역량 강화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세대간 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학습 추진 체제 구축
- 주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신뢰구축과 민주 시민의식 함양
-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지역주민의 생애 학습역량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 지역내에 산재한 다양한 주민교육기관 및 시설의 통합화를 통한 주민 교육의 효율성 제고

■ 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생활체육 활성화

- 선수위주의 엘리트 체육에서 탈피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여가문화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점
 - 도시는 선수와 시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복합체육시설 확충
 - 농촌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체육시설 및 기구 확충
-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동호인 중심의 생활체육활동 영위
-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부응하는 노인체육시설 확충 및 활동지원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1) 농어촌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 기초학력 보장

- 만5세아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만 3·4세의 육아비용을 지원
- 환경개선비 확보 및 지원으로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추진
- 저소득층자녀 고교생의 학비지원을 확대하고,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전형 활성화
- 외국 이주결혼 여성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 특별관리 및 국제이해 교육 강화

■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 중심학교와 협력학교간 교육인력, 교육과정 및 시설 공동운영 추진
- 농산어촌의 특성을 살린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 및 독자적인 작은 학교 운영
- 소외지역 중시의 방과후 학교 운영 및 공부방·도서 지원 등 마을단위 교육기반 확충 및 지원방안 모색
- 교육지원조례 제정 및 매력적인 학교만들기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농어촌 자율학교 지정 확대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우선 배치

- 교원초빙제 확대 및 순환근무제 개선을 통한 우수교원 확보
- 농어촌근무수당 신설 및 주택구입비 지원, 해외연수 및 자기개발 기회 부여 등을 통한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운영 및 주민종합교육센터 설치
- 저소득층 PC 지원 확대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 e-learning을 통한 보충학습기회 제공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학교시설 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 방과후 교육 활동 활성화
- 농어촌지역 폐교 및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원격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 농어촌에 주민 및 학생에게 정보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 확충

2)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기반 구축

■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체제 구축

- 지역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 자치단체의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및 확충
 - 충남중심의 한민족정신문화허브(한민족마을 및 영어마을 조성, 국제화교육 지원 강화)
 - 시군명문고 육성 및 지원, 개방형자율학교 운영
 - 아산을 외국어 교육의 산실로 육성
 - 청양대학을 특성화대학으로 육성, 도민저소득층 자녀지원 확대
 - 유비쿼터스 시범학교 운영
- 추진체제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운영,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정책 지원기능 강화
 - 지역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과제 및 시범사업 발굴지원, 지역인적자원개발 재원의 안정적 확보
 - 특별행정기관(지방노동청, 중소기업청), 자치단체, 대학, 교육청, 상공회의소, 기업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파트너십 형성

■ 지역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 양성
 - 지역의 지식창출 기반 및 지역혁신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지방대학 육성
 - 지역밀착형 산업,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산업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신지식 농업·농촌리더 육성, 여성농업경영인 육성, 국제결혼여성농업인 육성
 -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잠재적 능력을 지닌 미래인재 발굴 및 양성기반 구축
- 도민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
 - 도민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추진기반 조성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
 -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우수인문계 고등학교의 명문고 만들기, 실업계고등학교의 특성화 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
 - 지방공무원의 수급체계 개선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성과 지향형 교육 훈련 강화
-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기초직업능력 함양교육을 통한 지역 사회통합
 - 여학생 진로지도, 고학력 청년여성 취업촉진 및 재직여성 능력개발 활성화
 - 문화산업·예술문화관광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백제내포문화 및 그린투어 전문인력 양성
 - 군 복무 중 중단 없는 학습여건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자격취득 및 기회 확대,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 미래지향적 청소년 건전육성

- 미래의 충남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새로운 체험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운영활성화 지원
- 청소년수련활동 내용과 수준향상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확산 및 위기의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 하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국제교류 및 문화체험, 청소년 상담지원 및 유해환경 정화
- 청소년 육성기금 사업,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확대

3) 평생학습사회의 실현 및 평생학습도시 건설

-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통해 학습공동체 구축 및 도민의 학습역량 강화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연계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지원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4)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체육활동 활성화

■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

-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및 마을별 생활체육시설 확충
 - 종합운동장,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전문체육시설 건립
 - 지역 생활체육 진흥방안으로써 시군별로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 기반시설 확보
 - 기존 공원에 체육용 기구 등을 설치 또는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이용도를 제고
- 서산 바이오 웰빙테마파크 조성 – 특구(부석, 갈마리)
- 종합사격장 건립: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구 구봉광산)
- 초·중·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의 확대 추진

■ 생활체육 보급 및 확대

- 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제 개최
- 계층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 어머니, 여성축구, 노인체육, 직장 산·학·관 대회
- 주5일제 시행에 맞춘 생활체육 확산과 동호인들의 체육활동 지원
 - 지역스포츠클럽 및 동호인클럽의 활성화
 - 사회복지시설 등에 체육시설을 확충·보급하여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 노인을 위한 게이트볼장 등 전용체육시설을 노인대학 등의 교육기관과 연계 설치 및 인조잔디조성 추진
-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대회 등을 개최
-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유희공유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규모의 공공 퍼블릭 골프장을 조성하고, 민간골프장 확충

〈표 II-102〉 교육 및 체육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사업
평생학습사회의 실현 및 생활체육활성화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도시 지정(11개 시·군) • 한민족정신문화허브(1식: 공주)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1개소)
	청소년 문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기능 보강(6개소) • 청소년 문화의 집(4개소) • 청소년여가문화시설(2개소) • 유스호스텔(1개소)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설운동장(5개소) • 실내체육관(7개소) •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54개소) • 생활체육공원(5개소) • 서산 바이오 웰빙테마파크 조성(5,775천㎡) • 골프장 건설(5개소) • 종합사격장(1개소: 청양, 165천㎡) • 기타 체육시설(150개소)

제6장 지속가능한 자원의 개발 및 관리

1. 친환경적 토지이용과 관리

2. 개성과 매력의 지역경관 형성과 관리

3.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효율적 수요관리

4.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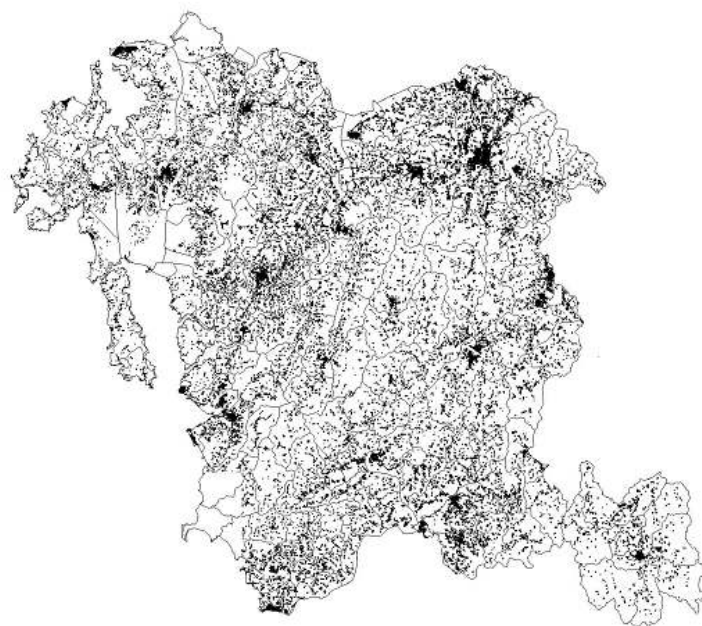
1. 친환경적 토지이용과 관리

가. 토지이용현황 및 특징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2005년 충남지역의 총면적은 8,598.5km²이며, 이 가운데 임야 52%, 농지 32%, 도시적 용지 6%로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농업용 토지와 도시적 토지 비중이 높은 편임
- 충남지역의 면적은 전국토의 8.6%인데 비하여, 농지는 12.9%이고 도시적 용지는 9.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충남지역의 인구비중이 4%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인구당 도시적 용지규모는 거의 2배 정도 높음
- 도시적 용지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천안시, 아산시로 7% 내외를 차지하여 전국 도시적 용지 비중의 2배 정도가 높고, 농지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당진군, 서천군으로 각각 지역면적의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II-35〉 도시용 토지 분포현황



■ 토지이용구조의 변화

- 1995~2004년 기간 동안 충남지역의 도시적 용지는 423km²에서 562km²로 총 139km²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의 도시적 용지 증가분 1,144km²의 23.1%에 달하는 큰 규모임
- 도시적 용지수요가 증대한 것은 개발수요가 높은 천안·아산지역의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도시적 용지의 공급으로 충남지역의 농지 및 산지의 감소규모는 동기간 중 전국 농지 및 임야 감소분의 3.1% 및 0.9%를 차지하여 농지의 타용도 전용이 타 지역에 비하여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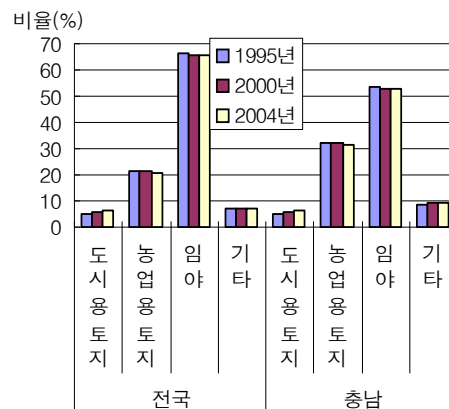
〈표 II-103〉 지목별 토지이용의 변화추이(1995~2004)

(단위: km², %)

구 분		1995년	2000년	2004년	증감 (1995~2004)
전국	계	99,268.38 (100.0)	99,460.74 (100.0)	99,617.38 (100.0)	349.00
	도시용 토지	4,943.72 (5.0)	5,592.69 (5.6)	6,087.49 (6.1)	1,143.77
	농업용 토지	21,970.69 (22.1)	21,595.57 (21.7)	21,296.00 (21.4)	▽674.69
	임야	65,506.05 (66.0)	65,138.80 (65.5)	64,884.83 (65.1)	▽621.22
	기타	6,847.92 (6.9)	7,133.68 (7.2)	7,349.06 (7.4)	501.14
충남	계	8,546.86 (100.0)	8,586.44 (100.0)	8,598.48 (100.0)	51.62
	도시용 토지	423.25 (4.9)	499.21 (5.8)	562.38 (6.6)	139.13
	농업용 토지	2,811.45 (32.9)	2,787.58 (32.5)	2,749.69 (32.0)	▽61.76
	임야	4,561.50 (53.4)	4,519.08 (52.6)	4,483.20 (52.1)	▽78.30
	기타	750.66 (8.8)	780.57 (9.1)	803.21 (9.3)	52.55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해당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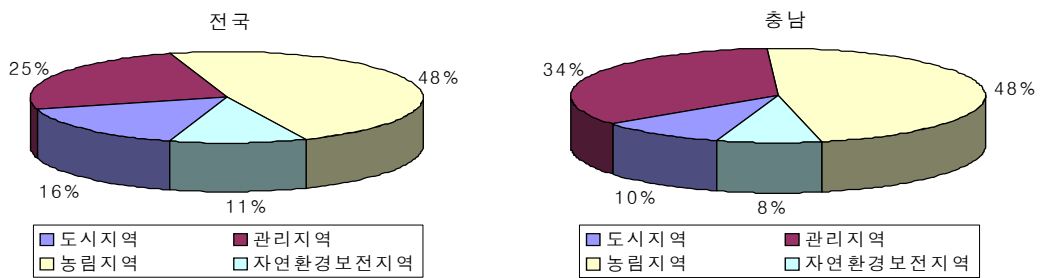
〈그림 II-36〉 지목별 토지이용의 변화추이



■ 도시계획

- 2005년 충남의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의 비율이 33.3%로 전국의 40.4%에 비하여 높은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1%로 전국평균보다 낮아 공적규제가 적고 개발가능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됨
- 1995~2005년 기간 동안 「국토계획법」상 충남의 도시지역은 707km²에서 930km²로 총 223km²가 증가한 반면 관리지역은 3,180km²에서 3,130km²로 총 50km²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국의 도시지역 증가분 2.2%와 관리지역 감소분의 0.8%에 달하는 소규모이어서 과거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은 타 지역보다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됨

〈그림 II-37〉 용도지역 지정 현황도(2005)



〈표 II-104〉 용도지역 지정변화추이(1995~2005)

(단위: km²,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증감 (1995~2005)
전국	계	99,550.10 (100.0)	100,825.59 (100.0)	106,114.49 (100.0)	6,564.39
	도시지역	13,918.08 (14.0)	15,806.43 (15.7)	17,039.77 (16.1)	3,121.69
	관리지역	28,229.45 (28.4)	27,276.28 (27.0)	25,870.46 (24.4)	▽2,358.99
	농림지역	50,418.12 (50.6)	50,472.26 (50.1)	51,023.31 (48.1)	605.19
	자연환경 보전지역	6,984.45 (7.0)	7,270.62 (7.2)	12,180.95 (11.4)	5,196.50
충남	계	8,526.21 (100.0)	8,576.64 (100.0)	9,128.46 (100.0)	602.25
	도시지역	706.85 (8.3)	769.03 (9.0)	929.92 (10.2)	223.07
	관리지역	3,179.75 (37.3)	3,144.20 (36.6)	3,130.33 (34.3)	▽49.42
	농림지역	4,312.38 (50.6)	4,311.20 (50.3)	4,324.53 (47.4)	12.15
	자연환경 보전지역	327.23 (3.8)	352.21 (4.1)	743.68 (8.1)	416.45

주: 2003년 이후 용도지역 체편에 따라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었음
 자료: 건설교통부, 도시계획 현황, 해당년도

■ 충남 토지이용의 특징

- 충남 북부지역은 제조업체의 산발적 입지와 더불어 기존 도심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읍·면지역은 무계획적 토지이용이 진행되고 있어 비도시지역 토지이용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
- 충남 동남부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이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는데 반해, 이들 지역을 벗어난 공주·연기·대전지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도시로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신시가지 및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난개발, 연담화, 경관·환경훼손 등 부작용이 우려됨
- 충남의 고속도로 IC와 연결한 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아지면서 접근성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도시적 토지이용 수요가 활발한 상태임
- 기타 농촌지역은 부처별 다양한 농촌개발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장기적인 계획 없이 단년도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행정단위의 종합적인 공간계획(도시기본계획등)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나. 여건변화와 수요전망

1) 여건변화 전망

■ 친환경적 토지수요 증대

-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로 도시외곽의 저밀도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지·수변 등을 이용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수요가 증대할 전망이다
- 사회구조 및 경제의 안정적 성장으로 도시적 생활방식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기반시설의 조성 등 공공용지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촌지역에서도 대지, 도로, 철도, 학교 등 도시적 토지이용의 증대가 예상됨
 - 그밖에 여가 및 문화관련 토지수요 또한 증가 할 것으로 전망

■ 계획적·효율적 도시용지 공급과 개발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성, 기업도시 건설 등의 대규모의 도시개발이 진행될 전망이며, 새로운 도시개발은 충남의 재정 부담 증가와 함께 토지소유주와의 갈등도 야기될 수 있음
 - 이와 함께 소득증가 등의 여건변화로 새로운 도시개발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환황해권 중심지역으로서의 역할 증대에 따른 산업입지 수요의 증가로 공장용지, 공공용지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 복잡다기한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기업의 애로가 상당수준 해소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가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될 전망임
 - 국토의 이용·개발·보전과 관련하여 일정한 지역·지구를 설정하고 있는 법률은 총 112개로서, 이를 13개 중앙부처가 관리·운영하고 있음
 - '05년 제정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토지에 대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여 국민의 토지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농지와 산지관리

- 침체된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시인의 농지소유 허용 등과 같은 농지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여가시간 증대로 농지에 대한 비농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등 산지의 공익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산림 유전자원의 보호 증식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지구분체계의 정비, 산업으로서의 임업과 산지관리 등 농지와 산지를 공간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2) 토지수요 전망

- 토지수요전망은 주택용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 도시적 토지이용의 수급계획은 물론, 기타 농업용지 등을 포함하는 생산용 토지이용의 수급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수립
- 이 중에서 도시적 토지이용의 전망은 주거 및 상업용지 등 주택용지와 공장용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국가적 공공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용지를 기초로 추정
- 주거 및 상업용지 등 주택용지는 2020년까지 추가로 증가할 도시인구를 감안하여 개발밀도를 적용하여 추정
 - 향후 주택용지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물량을 개발밀도로 차등화하여 추정함. 즉, 도시지역에서의 주택용지 수요는 120인/ha의 개발밀도를 적용하며, 비도시지역에서는 저밀도 및 저층의 전원적인 도시개발을 고려하여 90인/ha로 하향적용함¹⁾
 - 주택용지는 신규수용인구(약 33.8만인²⁾)의 약 87.6%를 도시지역 신규용지에서 수용하고, 약 12.4%를 비도시지역 신규용지에 수용하는 것으로 함³⁾
 - 그 결과, 2020년까지 주택용지는 도시지역에서 24.7km², 비도시지역에서 4.7km²로 총 29.4km²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별도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예정지 면적 73.1km² 중 주택용지⁴⁾로 계획된 18.7km²를 더하여 총 48.1km²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예측됨
- 주택용지는 도청이전신도시와 주로 시급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서 공급될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원 및 배후도시 역할로 인한 추가적인 토지수요와 주변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공장용지 수요는 앞장에서 제시한 산업용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2020년까지 산업단지를 74.9km² 규모로 추가 조성하되, 본장에서 목표년도의 공업용지 수요는 산업단지 분양대상면적 40.6km²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면적(34.3km²)은 공공용지로 분류함

1) 「건설교통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2005」 상 제시된 개발밀도를 적용(저밀: 100인/ha 이하, 중밀: 150인/ha 이하, 고밀 200인/ha)

2) 2005년 현재 인구 대비 2020년까지 추가로 증가할 인구는 51.8만인이며, 이 중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외부유입인구를 제외하면 338,000인임

3) 2020년 충남의 도시화율 87.6%를 적용

4) 주택건설용지 16.53km², 상업·업무용지 2.19km²

- 도로등 기반시설용지를 감안한 공공용지는 기존 추세를 감안하여 목표연도까지 주택용지 수요(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제외하고 29.4km²)의 1.2배인 35.3km²가 추가로 필요하며, 여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공시설 용지 54.4km²와 산업단지의 공공용지 34.3km²를 더하여 2020년까지 충남의 공공용지는 총 124.0km²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전망됨
- 이 경우 충남지역의 도시적 용지는 2004년 현재 562.4km²에서 2020년 775.1km²로 212.7km²의 증가가 예상됨
 - 과거 추세(1995~2004)대로라면 농지 및 임야의 전용비율이 4.4:5.6 정도이므로, 이를 적용하는 경우 2020년 농지는 93.6km², 산지는 119.1km²의 전용이 예상됨
- 이에 따라 도시적 용지의 토지는 2004년 6.5%에서 2020년 9.0%로 증가하는 반면, 농지와 임야는 각각 32.0% 및 52.2%에서 30.9%와 50.8%로의 비중감소가 예상됨

〈표 II-105〉 충남의 토지수급 전망

(단위: km², %)

구 분	2004년	2010년	2020년	증 감 (‘04~’20)
계	8,598.5 (100.0)	8,598.5 (100.0)	8,598.5 (100.0)	—
도시적용지	562.4 (6.5)	642.1 (7.5)	775.1 (9.0)	212.7
•주택용지	222.4	240.4	270.5	48.1
•공장용지	70.9	86.1	111.5	40.6
•공공용지	269.1	315.6	393.1	124.0
농업용 토지	2,749.7 (32.0)	2,714.6 (31.6)	2,656.1 (30.9)	▽93.6
임 야	4,483.2 (52.2)	4,438.6 (51.6)	4,364.1 (50.8)	▽119.1
기 타	803.2 (9.3)	803.2 (9.3)	803.2 (9.3)	—

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용도전용시기는 단계별로 실시계획이 수립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0년 전후로 배분하여 설정

- 이러한 토지수요에 기초하여 개발 및 공급가능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전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지역내의 토지수급전략은 다음과 같음
 - 토지수급계획은 중장기적인 토지수요에 대응하고, 가용토지의 합리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며, 토지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이용질서의 구축과 환경훼손의 사전방지를 감안하여 수립

- 또한 토지의 이용가능성, 용도지역 현황 등 토지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보전과 이용의 용도를 정하고 개발 우선순위 파악의 기초자료로 활용

다. 계획의 기본방향

■ 친환경적·계획적 토지이용관리체계 확립

- 도시계획 수립시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주거단지 개발, 친환경적인 도시용지의 공급 등 양질의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 토지이용 실태와 환경분석을 통한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고, 환경친화적 개발지침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함
 - 개발할 지역은 철저한 개발계획을 통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대상지역으로 엄격히 관리
- 토지절약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심부 나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등 내부충진식 개발의 활성화 유도
-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산업용지 및 산업단지를 계획적으로 공급하되, 수려한 자연경관과 자연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토지이용을 관리

■ 토지이용의 공익성 강화

- 지역 차원에서 수행 가능한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
 - 도시계획에 따른 우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관리가 토지이용의 실제 상황에 부합되도록 토지이용관리원칙을 마련
 - 토지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와 부동산정보체계를 정비

■ 농지 및 산지의 계획적 관리

- 안정적 식량공급, 녹색경관 보전 등에 필요한 일정면적 이상의 농지·산지를 확보하고, 농업 및 임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전대상 농지 및 산지에 대한 계획적 이용규제체계를 강화
- 충남은 전체면적의 52% 이상이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의 부분적 개발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인 동시에, 생태계 보전이 필수적인 지역임.

산지개발로 인한 산림생태계나 산지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산지개발기준을 마련·시행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 개발과 보전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지역여건 변화와 토지수요 분석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구축
 - － 관리지역의 토지적성평가를 토대로 지역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 － 관리지역 이외의 환경과 생태계 등을 고려한 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개발가능지, 보전용지 등으로 유형화·체계화하여 계획적으로 관리
 - － 관광수요의 증가와 함께 이를 수용하고 관광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발거점에 대한 토지수요와 입지배분계획을 수립
- 신규공급 위주의 토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주택 및 산업단지 리모델링, 직주 균형개발, 도심재개발 등 토지수요를 절감할 수 있는 수요관리 정책 추진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가능지는 기존의 도시지역보다 개발밀도를 하향조정하고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
- 중·장기적인 산업용지 및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계획입지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억제하기 위한 도시계획수단 강구

■ 통합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연담도시권의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 －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시·군 단위의 도시계획 방식에서 광역도시 및 도농통합 차원에서의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설의 공동이용으로 경제성, 효율성 제고
- 부문별 토지이용계획을 통합한 합리적 토지이용 관리
 - － 도시와 농촌, 도시와 도시간 기능연계 및 분담에 따른 토지이용 관리방안 모색

■ 합리적인 토지이용 규제장치의 마련

- 환경친화적 개발관리와 함께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 각종 공공기반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

- 지역내 산재한 공용청사, 공장, 학교 등의 이전적지를 민간이 개발할 경우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
- 개발가능토지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선시설비용의 공정한 분담방식을 통해 도시개발과정상의 애로요인을 해소
- 지가 안정을 위한 토지시장 관리의 과학화
 - 공공용 토지의 비축, 내셔널트러스트 활성화, 부동산투자신탁 등의 적극적 활용
 - 용도지역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시장 관리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이용관리체제를 구축
- 정주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 지나친 토지이용규제내용을 검토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주는 요소를 해소

■ 보전대상 농지 및 산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체계 강화

- 토지의 적성에 맞는 농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농지구분의 기초정보를 구축
 - 적정농지 면적의 확보와 체계적·계획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우량농지를 제외한 농업진흥지역을 재조정하고, 농지의 전용이 지역의 경관과 환경을 훼손되지 않도록 전용허가 요건과 절차를 정비
- 산지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준보전산지 등의 산지전용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보전산지 관리에 활용
 - 산지에 대한 개발수요는 가급적 준보전산지에서 충당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
 - 무허가 산지전용을 철저히 방지하고 녹지공간 확보와 공원시설, 등산로 등을 확충하여 녹색도시를 조성

〈표 II-106〉 토지이용 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추진시책 및 개발사업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토지이용 수요·공급의 적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자원의 유형화 및 체계화 ·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수립 · 개발 및 보전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 관광개발거점의 토지수요와 입지배분계획 수립 · 주택·산업단지 리모델링, 도시재개발 등 토지수요 절감 및 수요관리정책 추진
통합적 토지이용체계 구축	계획적 토지이용 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연담도시권의 성장관리 · 친환경적 토지개발기법 도입 확대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16개 시·군, 136개 지구) ·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16개 시·군)
토지이용 규제장치 마련	토지이용의 공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강화 · 지가 안정을 위한 토지시장 관리의 과학화
보전대상지의 계획적이용 규제체계 구축	농지 및 산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및 산지에 관한 기초정보 구축 · 산지전용에 따른 개발이익을 보전산지 관리에 활용

2. 개성과 매력의 지역경관 형성과 관리

가.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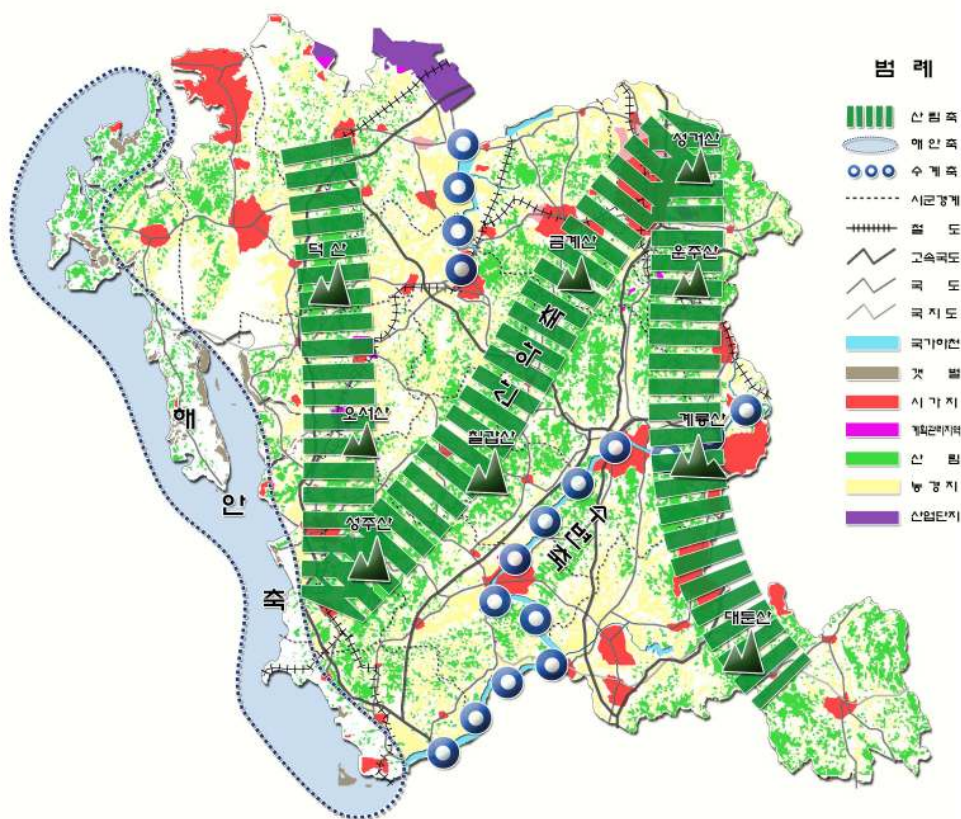
■ 두드러지지 않지만 훼손되지 않은 다양한 경관 보유

- 경관권역
 - 산지는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차령산맥을 중심으로 N자 형태로 분포하며, 평야는 가야산지를 제외한 차령산맥 북서부의 천안·아산·당진·서산 지역의 대부분과 차령산맥 남동부의 논산·부여·서천지역의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분포
 - 도시는 평면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농경지와 낮은 구릉지는 도시기반시설과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이로 인해 도시 스카이라인의 혼란, 녹지면적 감소, 생태계 단절이 나타나 생활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
- 경관축
 - 하천은 주로 산악을 배경으로 수변이 형성되는 산악형 하천과 농촌형 하천으로 나눌 수 있음
 - 산악형 하천은 푸른 산림과 함께 수려한 자연경관을 연출하고 있음. 수변으로는 레크레이션 공간이나 유원지가 많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음식점, 모텔, 관광시설이 개별입지하고 있음
 - 농촌형 하천은 수변공간에 농경지가 넓게 형성되는 하천으로 비교적 양호한 동식물 서식처이며 습지가 많이 분포함. 하천 범람에 대비한 호안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 섬, 갯벌, 해수욕장, 아름다운 낙조경관을 자랑하는 충청남도의 서해안은 해변을 따라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횃집, 모텔 등으로 인하여 해변경관이 훼손되고 있음
 - 산악축은 차령산맥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며, 산림과 자연경관이 양호한 곳에는 계룡산 국립공원, 칠갑산도립공원, 덕산도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음
 - 도로축은 자연환경 보전 측면에서는 도로선형의 직선화로 인한 산악지형변경, 평야의 단절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절개된 산악의 적극적인 녹화가 요구됨. 시각적 측면에서는 도로변을 따라 음식점, 상가, 광고물, 전신주 등이 선형으로 입지하여 가로 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각 구간별·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도로 경관 향상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함

• 경관거점

- 산능선 및 하천과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는 산정, 호수, 섬, 기암절벽, 하구 등의 우수한 자연경관은 지속적인 보존 및 보전이 필요함
- 인공적인 조망대상으로서의 중소규모 시가지, 농촌취락지, 공원, 랜드마크형 건축물, 역사문화자원은 그 경관적 특징을 활용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함

〈그림 II-38〉 충남의 경관구조와 특성



■ 도시화 및 개발행위의 증가로 인한 우수경관 훼손 가속화

- 우수경관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자연도가 높은 산림(철갑산 일대)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과 갯벌이 서해안에 넓게 분포하지만, 이들 지역에는 개발압력 증가로 인한 각종 시설물과 건축물의 개별입지로 인하여 기존 자연지형과 녹지 및 산림이 훼손되고 있음
- 기존 도시지역의 녹지축 파괴 및 주변지역의 개발압력 증가로 인하여 경관 훼손이 가속화됨

- 최근 천안-아산-당진으로 이어지는 북부지역에는 도로를 따라 선형으로 형성되는 난개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개발행위의 증가는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미설치로 수질 및 토양환경 오염이 가중되며, 과도한 성·절토에 의한 지형 훼손, 양호한 산림벌목 등은 산사태 및 홍수 등의 직간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미흡

- 최근의 경관관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경관계획의 위상 강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에 의거한 자연경관보전조례의 제정,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지 경관영향평가의 강화, 경관조례의 제정, 경관심의제도의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개별법에 의한 시책 추진으로 통합적인 경관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경관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경관조례 제도 미확립
 - 경관조례는 개별 조례제도가 갖는 한계, 즉 자연경관 보전조례,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옥외광고물 조례는 각기 다른 근거법의 위임을 받아 부문별로 경관관리를 추진함으로 한계가 있고, 이는 동일목적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고 복잡한 경관행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러한 개별 조례들을 통합하여 단일 제도로 확립할 필요가 있음

나. 여건변화와 전망

■ 경관저해요인의 지속적인 증대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의 건설에 따른 공간구조 재편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임
- 주5일 근무제의 시행, 광역교통망의 확충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은 새로운 관광지에 대한 개발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압력의 증가로 나타날 것임
- 경관 훼손에 대한 자각과 경관관리 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의 개발행위 증가는 필연적으로 경관훼손을 더욱 심화시킬 것임

■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경관에 대한 질적 욕구 상승

- 주민의 의식은 기반시설에 관련되는 실용적 요구로부터 점차 질적, 심미적, 정서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연환경 보호, 개성 있는 시가지 정비, 건축물의 수준 제고 등 생활공간의 질과 관련된 생태적, 심미적, 문화적 측면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경관을 역사적 유산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될 것임. 즉, 우리가 아름다운 경관을 이어받아 계승한 것처럼, 다음 세대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남겨야 할 의무를 자각해야 함과 동시에, 주의 깊고 신중한 환경가꾸기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변화할 것임

■ 지역의 개성과 매력을 표출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 증대

- 획일화된 도시 경관을 극복하고자 살기 좋은 도시를 미래상으로 설정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지역의 개성과 매력을 표출하는 요소를 자연경관·역사경관·건축문화로 정하고, 이를 통한 마케팅 활동이 증가할 것임

다. 계획의 기본방향

■ 우수경관의 보호 및 활용

- 경관적으로 우수한 산림, 계곡, 하천, 호수, 역사, 문화, 해안 등을 보전
 - － 산악경관은 녹지축 보호 및 녹지공간 확보, 주요 조망점 및 산으로의 우수한 조망을 보호
 - － 하천은 시각적 개방감 및 하천변 시가지 관리, 하천과 녹지공간을 연계하는 등 그 특성을 살린 계획을 수립
 - － 역사문화 경관자원은 문화재 보존 및 주변경관 개선,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하고, 무형의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경관을 형성
- 생태적으로 우수한 경관지역은 개발보다는 보전을 우선시 하여, 절성토 등 지형 변경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

■ 충남의 경관권역·축·거점을 설정하고, 특화계획 수립

- 산악경관 및 해안경관 보호를 위한 권역 설정
 -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자연경관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 조망, 스카이라인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
- 하천·도로경관보호를 위한 축의 설정
 - 하천을 주민의 휴식 및 여가활동 장소로 조성하고, 하천 연접지역은 중점적으로 관리
 - 주요 가로별 특성화를 추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
- 역사자원, 주진입부, 결절부의 거점 설정
 - 문화재와 주변지역을 일체화하여 관리하고, 주진입부 관문거점에 상징성을 부여
 - 공공시설 및 시각적 결절부에 거점을 설정

■ 생활경관 조성을 위한 부문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적용

- 시가지 권역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및 적용
 - 일반 시가지는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경관관리를 체계화
- 공공복리를 위해 경관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적용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 경관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본 틀 마련 및 지침제시

-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경관조례의 제정
 - 현재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경관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관조례를 제정
- 경관관리지역 중 보전대상지에 대한 경관관리지침 제시
 - 충청남도 차원의 경관관리를 위해서 우수경관에 대한 보호 및 활용을 추진
 -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의 산림, 해안선, 생태적 가치가 높은 갯벌과 습지, 농경지 등 절대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경관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관리지침을 제시

-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조망권이 고려된 지침을 제시
- 경관관리지역 중 개선대상지¹⁾에 대한 경관지침 제시
 -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고, 건조공간과 비건조공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경관심의제를 도입·확대함으로써 개발계획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개발압력이 증가하는 지역, 개발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산악 및 스카이라인 훼손에 대한 유도지침을 제시
- 지역의 개성과 매력을 표출하고, 정신적·문화적 측면의 질적 향상을 위해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및 지침 제시
 -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며, 일정수준의 통일성을 유도할 수 있고 건조물과 외부공간을 포함하되, 형태 및 외관, 색상·조경 등에 대한 조화성, 위계성, 변화성이 확보되는 지침으로 구체화
 - 지역의 매력을 표출하기 위해 건축물을 비롯한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환경색채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 건축물은 배치, 외관 및 형태, 옥외공간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토록 하며, 중점적으로 경관을 관리해야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구(이하 경관관리지구)를 설정하여 통경축 확보, 스카이라인 확보, 조망 확보를 고려토록 함
 - 버스정류장, 공공게시판, 판매대 등의 가로시설물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행 가능한 디자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함으로써 미관을 개선
 - 옥외광고물은 불법간판 정비와 디자인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간판규격화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범도민 의식개혁운동으로 전개, 「간판정비 시범거리」 지정을 통한 정비를 추진하고, 간판정비 시물레이션 결과사업효과를 건물주에게 제시하여 참여를 유도
 - 환경색채는 건축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의 색채 통일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개성과 매력을 표출토록 조성

1) 개선대상지 :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 중 개발압력이 증가하는 지역이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말함

〈표 II-107〉 경관유형별 관리 방향

경관유형	관리목표	관리 방향
자연경관	우수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형 해안, 하천 및 주요 호수, 산림녹지 및 구릉지, 바다, 강, 호수는 경관관리지구로 설정하고 적정개발 유도 ·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희귀식생, 8등급이상 수림, 보존 가치가 있는 구릉지 등)을 경관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조망권이 고려된 도시계획 및 설계
	개발계획 수립시 경관심의·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개발의 요구를 조화시킨 전원도시화 전략 채택 · 충남의 녹지체계 관리 계획 수립 · 경관심의제 확대 등 개발계획 수립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제도 마련
	경관영향평가제도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이나 일정폭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건설 등 대규모 구조물 계획시 경관영향평가심의제도를 의무화·강화하고, 주변자연경관과의 변화를 예측하여 저감대책 및 조망점 확보방안 마련
평야 및 농촌경관	농촌 풍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경작지 및 취락 형태를 보전하고 자연형 농사법을 장려하여 관광자원화
	토속성·향토성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마을의 전통담장, 울타리, 마을길, 정자목 등에 대한 보존 · 농어촌정비계획시 기존 취락 규모와 조화있는 개발규모, 공간구조, 건축형태 및 색채계획 수립하여 경관적 동질성 제고 · 전통농경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축제 등의 문화 발굴 및 계승
도시지역	개성있는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효율적 제도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조례 제정 · 경관상 보존가치가 높은 곳을 경관지구로 지정 관리 · 자연환경 특성을 반영한 도시경관 특화계획 수립 운영 · 시범 경관지구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위한 연구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관관리 지침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개발사업에 적용 가능한 경관지침을 마련하여 입체적인 도시계획 수립 · 도시외곽의 신시가지 확산이 기성시가지와 조화를 유도하는 경관지침 마련 · 도시간의 연담화를 방지하고 도시내부 건조공간과 녹지공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도시간, 도시내부 연계한 광역 녹지체계 수립

〈표 II-107 계속〉

경관유형	관리목표	관리방향
하천경관	계획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수질관리 및 훼손된 연안 복구 · 하천생태계의 복원을 통한 활력있는 자연경관 보존 · 친수공간으로서 공공의 접근성 및 레크레이션 기능 확대
	수변경관 조망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주변의 고층아파트 건설, 상업시설, 도로, 주차장 시설 등에 의한 경관훼손 방지 및 주민공원 확충 · 수변 조망을 위한 조망형 휴식공간 발굴 및 수변 경관 도로와 연계
	수변 탐방로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을 비롯한 주요하천의 경관적 특징 및 주변 역사문화 생태 유산과 연계된 경관탐방로를 구축하여 교육장으로 활성화 · 수변 주변의 테마별 녹색교통망체계 구축
해안경관	자연형 해안 절대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혜의 자원을 간직한 갯벌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절대 보존(단, 집단시설지구 등 개발가능지 제외)
	서해안 관광권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과 습지, 갈대밭 등을 활용한 생태 관광 활성화 · 휴양, 레저, 복합어촌마을 조성, 전통어촌생활 및 축제 자원화
	서해안 경관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 방조제부터 서천 금강하구둑까지 해안의 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탐방로 구축 · 서해안의 테마별 경관자원을 고려한 해안 경관도로 조성
산림 및 녹지	산림생태경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생태 경관보전을 위한 광역녹지축 계획 실행 · 개발행위로부터 경관훼손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산림 스카이라인 보전 및 개발전 우량수종 보호 대책 강화
	도시의 녹지 가시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주요 산림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고, 훼손된 곳을 복원 · 개발행위시 공원녹지 확보방안을 강화하고, 산림스카이라인을 보호하는 단지계획 유도
	나무심기 운동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단체, 주민, 개발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나무심기 운동 전개
도로경관	자연친화형 도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노선계획시 성질토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경관차단 등에 대한 부정적 경관영향평가 및 저감대책 강화
	지역별 특색있는 도로경관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지역, 농촌지역, 수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산업지역에 따른 특색있는 경관창출계획 수립 및 시행
	관광자원과 연계한 경관도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적지, 관광지, 유원지 주변의 친환경도로를 조사하여 경관도로 조성

■ 우수 경관형성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

- 충청남도는 개별법에 의해 행해지던 경관행정을 통합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경관전담부서를 설치·운영
- 경관심의기구, 경관자문기구, 계획추진기구, 디자인 자문기구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경관 추진체계 구축
- 경관관련 건축·건설행위에 대한 다단계의 실질적인 자문·심의 절차의 도입·운영을 강화
 - －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조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관코디네이터 제도 운영
 - － 지역의 개성과 매력을 창출하고, 이미지 개선을 위한 건축물 디자인 심사 강화
 - － 대형 건축 프로젝트 추진시 건축물의 창작성, 야간경관, 색채디자인을 고려한 건축 심의 강화

■ 경관정책의 실현성 제고를 위한 관련정책 개발 및 시행

-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및 협정제도의 도입
 - － 가로녹화 협정, 화분달기 협정, 생울타리 협정, 근린경관형성 협정, 옥외광고물 협정 등
- 경관관련 시책사업의 추진
 - － 금강변 경관형성사업, 서해안 생태탐방로 및 경관도로 조성, 야간경관조성사업, 충남 100경 가꾸기 사업, 건축물 관광코스 개발, 농어촌 빈집정비, 경관농업직불제의 확대 추진 등

〈표 II-108〉 경관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경관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본 틀 마련	경관관리 기본 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기본계획 수립 · 경관조례 제정
	경관관리지역 중 보존대상지에 대한 지침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 우수지역을 경관관리지역 지정 · 전통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 제시
	경관관리지역 중 개선대상지에 대한 지침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산악 및 스카이라인 훼손에 대한 유도 지침 제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및 지침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환경색채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우수경관형성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	경관행정의 통합·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행정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경관 행정 추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심의기구, 경관자문기구, 계획추진기구, 디자인 자문기구 등의 추진체 설치·운영
	자문 및 심의 절차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조경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참여하는 경관코디네이터 제도 운영 · 지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건축물 디자인 심사의 강화 · 대형 건축 프로젝트 추진시 건축물의 창작성, 야간경관, 색채 디자인을 고려한 건축심의 강화
관련정책 개발 및 시행	관련 정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심의시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 재정보호·기획 아이디어 구상 및 시행 ·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관협정 제도의 도입·운영
	경관관련 시책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변 경관형성사업 · 서해안 생태탐방로 및 경관도로 조성사업 · 야간경관 조성사업(교량, 주요 도로) · 충남 100경 가꾸기 사업 · 건축물 관광코스 개발 · 가로시설물 및 간판정비사업 · 농어촌 빈집정비(9,000동) · 경관농업직불제 확대 추진(16개 시·군)

3.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효율적 수요관리

가. 현황과 문제점

- 충청남도의 수자원 부존량은 117.9억 m^3 /년으로 단위면적당 전국의 110% 수준으로 전국평균보다 수자원이 풍부한 편임

〈표 II-109〉 수자원 부존량 비교(2005)

구 분	단 위	전 국	충 남
유역면적	km^2	99,601	8,598
평균강수량	mm	1,245	1,371
수자원총량	억 m^3 /년	1,240.0	117.9
하천유출량	억 m^3 /년	723.3	63.3
유출률	%	58.0	53.7
손실량	억 m^3 /년	516.7	54.6

자료: 건설교통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2006~2020), 2006

- 강수량 또한 비교적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강수의 계절적 편중으로 하천의 유량변동이 심하며, 수자원 이용가격이 실제 생산원가를 밑돌아 물사용량이 많음
- 또한,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 신규 용수원 확보에 주력한 반면 효율적 수자원 운용을 위한 용수의 수요관리에는 소홀

■ 하천유역 현황

- 충청남도를 수계별로 구분하여 볼 때 공주, 논산, 연기, 청양, 부여, 서천 등 도내 절반 이상의 지역이 최대 수역권인 금강수계에 속하며, 아산, 예산 전역과 천안시 일부지역이 삼교호, 안성천수계에 속하며 비교적 수자원이 풍부한 편임
 - 구체적으로 충남의 수계는 금강, 삼교호, 안성천의 3대 수계와 기타(서해) 수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남의 44.7%가 금강수계에 포함되고 19.4%가 삼교호수계에 포함되어 있고, 금강수계는 38.8%, 삼교호수계는 100%가 충남에 포함됨
- 주요 수원으로는 하천인 금강, 삼교천, 안성천 등이 있고 담수시설인 대청다목적댐, 아산호, 삼교호, 대호, 서산AB지역, 금강하구둑 등이 있음

〈표 II-110〉 수계별 유역면적 현황(2005)

(단위 : km², %)

구 분	유 역 면 적	총 납	총 납 비 율
계	16,174	8,598	53.2
금 강	9,915	3,845	38.8
삼교호	1,668	1,668	100.0
안성천	1,659	356	21.5
기타(서해)	2,932	2,729	93.1

자료: 건설교통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2006~2020), 2006

건설교통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2006

■ 담수호 현황

- 대부분 담수호의 유효저수량에 비해 생활용수, 관개용수 및 공업용수 등의 사용은 극히 미미한 실정임

〈표 II-111〉 주요 담수호 현황(2005)

구 분	위 치	시행자	개발면적 (천m ²)	담수호 면적 (천m ²)	유효저수량 (만톤)
계			1,047,390	147,830	34,649
부 사 호	보령시/서천군	보령시	23,950	4,950	817
석 문	당진군	당진군	37,490	8,740	626
이 원	태안군	태안군	17,120	2,900	209
금 강 1	서천군	농촌공사	430,000	36,500	11,187
대 호	서산시/당진군	농촌공사	77,000	21,750	5,296
서산 AB	서산시/홍성군/태안군	현대건설	154,090	41,740	7,036
삼 교 호	아산시/당진군/태안군	농촌공사	180,000	19,360	6,278
아 산 호	아산시/평택시	농촌공사	46,740	16,340	11,500

자료: 충청남도 치수방재과, 2006

■ 용수 현황

- 생활용수
 - 충청남도의 상수도 보급수준은 전국 평균인 90.7%에 크게 못미치는 63.3%에 불과하고 1인당 급수량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22L임
 - 2005년말 현재 지방상수도 시설용량은 612천m³/일이며, 지방 및 광역상수도의 급수량이 529천m³/일이며 상수도보급률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 계속적인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표 II-112〉 상수도 시설 현황(2005)

구 분	총 인 구 (A) (천명)	급수인구 (B) (천명)	보급률 (B/A×100) (%)	시설용량 ^{주2)} (천톤/일)	급수량 ^{주3)} (천톤/일)	1일1인당 급수량 (L)
전 국	49,268	44,671	90.7	28,182	16,211	363
시 계 ^{주1)}	23,079	22,832	98.9	14,655	8,025	351
도 계	26,189	21,839	83.4	13,527	8,186	374
총 남	1,982	1,255	63.3	612	529	422

주1: 시계는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의 합계임

주2: 시설용량은 지방상수도의 시설용량임

주3: 급수량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의 급수량임

자료: 환경부, 상수도통계, 2006

- 사군별 상수도 보급수준은 군지역이 48.4%로 시지역 68.3%와 현저한 격차를 보이며 1일1인당 급수량도 군지역이 385L로 시지역의 405L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군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전국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표 II-113〉 상수도 급수 현황(2005)

사. 군별	총인구 (인)	급수인구 (인)	보급률 (%)	시설용량 (m³/일)	급수량 (m³/일)	1일1인당 급수량(L)
계	1,982,495	1,254,632	63.3	612,111	528,902	422
천 안 시	518,818	433,732	83.6	199,759	208,253	480
공 주 시	130,595	81,550	62.4	37,903	30,671	376
보 령 시	108,639	67,762	62.4	42,691	28,027	414
아 산 시	208,448	139,818	67.0	59,002	51,289	367
서 산 시	151,283	85,780	56.7	38,860	34,281	400
논 산 시	135,210	74,036	54.8	44,678	40,459	546
계 룡 시	34,451	31,314	90.9	9,109	7,983	255
금 산 군	59,014	33,366	56.5	16,425	15,876	476
연 기 군	85,395	48,888	57.2	24,000	21,986	450
부 여 군	81,850	42,291	51.7	16,500	16,339	386
서 천 군	64,676	31,828	49.2	49,000	14,097	443
청 양 군	35,144	9,286	26.4	4,599	3,901	420
홍 성 군	91,432	46,092	50.4	16,159	14,690	319
예 산 군	91,449	42,969	47.0	18,042	12,392	288
태 안 군	64,075	35,770	55.8	187,700	14,260	399
당 진 군	122,016	50,241	41.2	16,684	14,398	287

자료: 환경부, 상수도통계, 2005

- 마을상수도의 급수시설은 951개소, 급수인구는 184,605명이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1,121개소, 전용상수도는 179개소임

〈표 II-114〉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상수도 시설현황(2005)

구분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상수도	
	개소	시설용량 (m ³ /일)	인구(명)	개소	인구(명)	개소	인구(명)
충청남도	951	64,051	184,605	1,121	75,746	179	104,840
시부	494	35,840	96,714	494	32,426	121	61,187
군부	457	28,211	87,891	627	43,320	58	43,653

자료: 환경부, 상수도통계, 2006

- 충청남도는 2006말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18개소 19.690km²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인구는 1,646명임

〈표 II-115〉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2006)

보호구역명 (개소)	지정면적 (km ²)	취수장	취수능력 (천m ³ /일)	행정구역	거주인구 (명)	수계
천안	0.592	남관	37	천안시 풍세면	18	곡교천
성환	0.873	안궁	4	천안시 성환읍	-	안성천
병천	0.410	병천	3.3	천안시 병천면	-	병천천
옥룡	1.560	옥룡	30	공주시 옥룡동	8	금강
유구	0.514	석남	2.5	공주시 유구읍	-	유구천
웅천	1.060	웅천	1.98	보령시 웅천읍	78	웅천천
청라	1.044	청라	1.2	보령시 청라면	431	대천천
온양	0.552	온양1	7.5	아산시 장존동	91	온양천
논산	0.921	성평	23.2	논산시 가야곡면·부적면·은진면	-	논산천
연산	0.177	연산	2.2	논산시 연산면	-	연산천
금산	0.460	금산1	12	금산군 남일면	-	봉황천
추부	0.531	금산2	6.5	금산군 제원면	-	금강
조치원	0.654	조치원	8	연기군 조치원읍	31	조천
금남	0.644	금남	3	연기군 금남면	75	용수천
금강광역	1.759	부여	300	부여군 부여읍·규암면	-	금강
청양	3.181	청양	4	청양군 청양읍·운곡면·대치면	348	지천
예산	2.601	예산	23	예산군 예산읍	251	무한천
당진	2.157	용연	8.9	당진군 당진읍	315	역천
계	19.690		478.28		1,646	

자료: 환경부, 전국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2007

• 공업용수

- 충남의 산업단지 수는 전국의 최하위 수준으로 도시권에 인접한 일부지역

만 집중 개발되어 있음

- 시설별 사용량은 전체 용수사용량의 67.7%인 194천 m^3 /일이 자체개발 용수이고 32.1%인 92천 m^3 /일이 지방상수도이며 광역상수도는 0.39천 m^3 /일로 0.14%에 불과한 실정
- 기존의 광역시설로는 충남 북부지역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대청광역상수도, 충남남부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금강광역상수도, 충남서해안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보령담광역상수도가 있으며, 건설중인 시설로는 충남서북부 해안공업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아산호에서 취수하는 아산공업용수도 2단계 사업이 있음
- 이와 함께 기존 대청광역급수지역의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청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이 계획되어 있음
- 산업단지별 지하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대부분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존 제조업체도 지하수를 이용하는 등 총 65.4천 m^3 /일의 지하수가 공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
- 농업용수
 - 농업용수의 이용 특성상 여러 종류의 수리시설에서 공급하고, 충남지역의 농업용수 이용 경지면적은 연평균 1.6%의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리 안전답률은 76.5%임

나. 여건변화와 용수수요 전망

■ 물 수요량 증대

- 인구 및 경제성장, 도시화 등으로 물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물 수요량 증가
 - 천안아산당진 등 북서부권을 중심으로 공장 등의 개발증대로 인한 물 수요량 증가 예상
 - 용수공급원 중 지하수가 차지하는 양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또한 증대되는 물 수요량에 따른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 신규 용수원 개발뿐만 아니라 수요관리를 중심으로 한 수자원 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수질보전에 대한 관심 증대

- 도시화 및 산업화, 인구증가 등에 따른 수질오염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 향상, 삶의 질적 수요 증대에 따라 양질의 물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
- 그러므로 수량 확보뿐만 아니라 양질의 수자원 확보가 지역발전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

■ 용수수요 전망

- 용수수요 전망은 용수이용량의 과부족, 주요하천별 수질상태, 수자원의 이용실태, 하천정비 상황, 생활·공업·농업용수 이용의 수급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전망하였으며, 생활용수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수요량을 별도로 예측
- 인구 및 산업성장에 관한 새로운 계획지표를 토대로 한 용수수요 전망에 따르면, 2020년 총 용수수요는 3,089.1백만 m^3 /년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용수이용 차원에서 보면, 생활용수는 2006년 457.8백만 m^3 /년에서 2020년 535.7백만 m^3 /년으로 17%의 증가가 예상되고, 공업용수는 2006년 203.2백만 m^3 /년에서 2020년 272.0백만 m^3 /년으로 34%의 높은 증가가 예상됨. 한편, 농업용수는 2006년 2,394.7백만 m^3 /년에서 2,281.4백만 m^3 /년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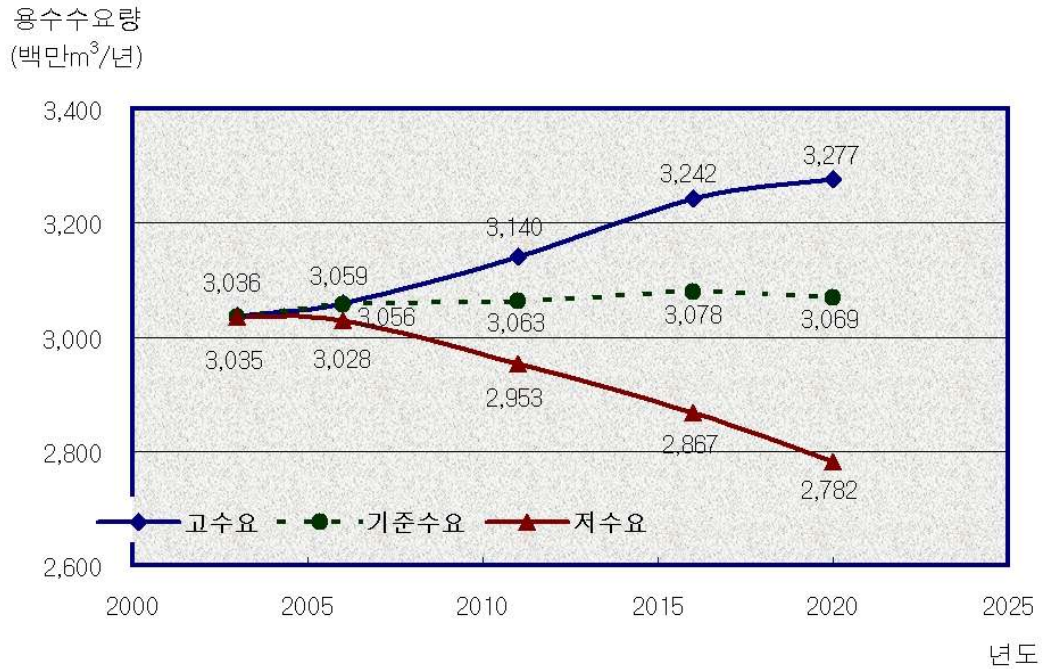
〈표 II-116〉 충남의 용수수요 전망

(단위 : 백만 m^3 /년)

구 분		2003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총수요	고수요	3,036.0	3,059.3	3,140.2	3,242.1	3,277.4
	기준수요	3,034.2	3,055.7	3,062.8	3,077.6	3,089.1
	저수요	3,034.1	3,028.3	2,953.1	2,866.8	2,782.0
생활용수		436.0	457.8	479.2	507.7	535.7
공업용수		186.6	203.2	229.8	259.7	272.0
농업용수		2,411.6	2,394.7	2,353.8	2,310.2	2,281.4

주: 총수요는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로 구분하여 전망하고, 용도별 수요는 기준수요를 토대로 구분함
 자료: 건설교통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2006~2020), 2006.

〈그림 II-39〉 충남의 용수수요 전망 그래프



■ 상수도 보급률 전망

- 생활용수 수요증대에 따라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2020년까지 97%(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8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인 90.1%에 크게 못 미치는 63.3%에 불과하므로 2020년까지 92%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및 광역상수도과 마을상수도를 확충하고, 자가급수 인구의 15%를 마을상수도로 대체해야 함
- 도심 외 지역의 소규모 면소재지와 리 단위의 인구밀집지역에는 마을상수도를 설치함으로써 소규모 마을상수도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

다. 계획의 기본방향

■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대체·보조수자원 개발을 통한 수자원 확보

- 체계적인 물공급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해 수요예측량에 따른 물공급 여건 조성, 비상시 용수공급 및 낙후지역의 대체·보조수자원 개발

■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전하고 안정된 물이용 및 지속적인 수요관리

- 물 수요관리를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물절약종합대책 추진
- 지하수 보전관리 및 지표수와의 연계이용을 통한 안정된 물이용 체계 확립
- 침투, 식생, 저류를 이용한 빗물유출수 관리 및 중수도시설 활성화 등을 통한 수자원 재이용 체계 확립

라. 세부추진시책

■ 효율적인 물 수급을 위한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 수자원 기초자료 수집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 및 물관리기법을 확립하고, 충남의 수자원 자료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통합관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
- 수자원 관리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 및 수계별 종합관리를 통한 수자원 공급 및 수요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자원 공급 및 수요관리의 실천적 계획인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20년 기간단위로 수립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수정계획을 5년마다 수립
- 물 수요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물절약종합대책을 추진
 - 생활용수의 경우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의 지속적인 추진,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수도요금누진제 강화를 통한 물사용 절감 유도, 절수기기 설치, 노후관을 교체하여 누수율 제고, 중수도 설치
 - 공업용수의 경우 산업체에 대해 냉각탑, 계량기 검사, 누수 검사 및 보수를 통한 누수저감대책 강화, 산업체의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제도를 정비함
 - 농업용수의 경우 농업용수로의 구조물화 사업추진,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자동화물관리시스템(TM/TC) 사업을 추진함
 - 물절약 홍보 체계 구축 및 지역, 개인에게 물 절약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함
 - 각종 용수기기의 성능판정기준을 작성하고 등급제를 도입하며 절수기기 개발과 보급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

〈표 II-117〉 공급관리 전략과 수요관리 전략

관리주체	기간	공급관리 전략	수요관리 전략
용수 공급자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수탐지 및 보수 •보조공급장치 •수압의 조절 •1인당 공급기준의 축소(비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두 부하요금 •자발적 수요 감축에 호소 •사용금지 및 배급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별 수자원 개발 •중수도 설치확대 •누수 감축계획 •수자원 연계이용 •담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부문별 물사용 절약계획 마련 •한계비용에 기초한 가격 책정 •정보의 공유 및 교육
용수 수요자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및 관리과정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 비용 기술을 통한 절수 •생활습관과 행태의 변화를 통한 절수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및 관리과정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율적 기구 및 설비 •효율적 토지이용, 관개 개선

■ 지역별·용도별 안정적인 물공급체계 구축

- 생활용수 수요 예측에 따라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의 확대 및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중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금강북부권 급수체계 구축, 충남남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등을 통해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을 확대하여 총 449.7천m³/일의 시설용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신시가지 상수도시설 사업, 배수지확장사업 등을 통하여 지방상수도를 확충

〈표 II-118〉 광역상수도 건설계획

광역상수도 시설명	급수지역	시설용량	비고
중부권	공주, 부여, 논산	163천m ³ /일	정수장 2개소, 관로 99.4km
금강북부권	천안, 아산, 청양	254.7천m ³ /일	가압장 2개소, 관로 45.34km
충남남부권	금산	32천m ³ /일	정수장 1개소, 관로 56.5km
계		449.7천m ³ /일	

- 비상시 용수공급이나 광역 및 지방상수도 개발이 어려운 낙후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물공급여건 조성

- 해안 및 도서지역은 대규모 상수도 공급망을 통한 물공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마을상수도 시설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비상시 생활용수로 활용이 가능토록 담수호의 수질 개선 및 해수담수화 시설의 보급, 강변 여과수 등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운영관리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및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암반관정 개발 등을 통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등의 개발증대로 공업용수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응한 공업용수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 현재 농업용수 공급용으로만 전용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등의 수리시설 정비와 활용을 통해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로의 이용효율성을 제고

■ 과학적인 지하수 이용 및 보전

- 지하수 부존량 기초조사 및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문지질도 구축 사업 등을 포함한 기초조사 사업을 추진
- 이 때, 광역지하수 조사와 정밀지하수 조사로 구분하여 수문지질도를 작성하고, 광역지하수 조사는 권역별 지하수 수위, 수질조사 및 지표수문조사 등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며, 정밀지하수 조사는 지역단위로 지하수 부존량, 개발가능량, 수위 및 수질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하수 개발시 실패공을 줄이고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에 활용
- 지하수의 부존현황, 개발가능량, 이용실태, 오염상태 등 관련정보를 GIS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16개 시·군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하관정에 대한 합리적인 보존대책 수립하고, 행정기관과의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능력 배양과 적극적인 활용으로 지하수 관리의 선진화를 도모
- 지하수오염 예방대책 사업 전개를 위해 매년 100공씩 2020년까지 지하수 폐공찾기 및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폐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주민참여를 유도하며, 지하수 폐공 등에 대하여 개발자 원상복구 의무화 및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징수

- 또한, 2020년까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및 수질측정망 설치·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연계한 지하수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표수와 연계하여 지하수를 보조수원 또는 비상용수로 활용하며, 지하수 고갈과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전계획을 매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합리적인 지하수관리를 도모
- 이와 같이 수립된 충남의 지하수관리계획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시·군별 지하수 기초자료 조사 등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

■ 물순환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수자원 재이용

- 침투 및 식생을 이용한 빗물유출수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빗물유출수가 지하로 침투하기 쉽도록 불투수 포장을 단계별로 제거하거나 침투도랑, 침투포장, 침투통, 우물 등 다양한 시설 설치 등 도시 및 하천하류의 우수 침투율을 개선하여 물순환의 건전성 회복
- 식생여과대 및 수로에 식생을 조성하여 부유물을 제거하고 홍수도달 시간을 지체시키는 동시효과를 거양하고, 수계별로 산지 및 수변지역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숲 조성사업으로 물저장(녹색댐) 및 정수기능을 극대화
- 저류를 이용한 빗물유출수 관리를 위해 빗물저류시설을 지역 외(인공 및 자연조정지), 지역 내(학교운동장 및 근린공원) 일정면적 이상의 건물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설치 후 생활용, 청소용, 조경용, 화장실용 및 농업용 등으로의 상용화하는 방안을 마련
- 또한, 저류시설 설치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도시지역의 홍수방지를 위한 우수 저류 및 보수기능 향상과 연계하여 추진
- 물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중수도시설 활성화를 위해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중수도시설 설치 의무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고도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

〈표 II-119〉 수자원 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종합적인 수자원관리	수자원이용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종합정보시스템 구축(1식) ·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수립(1회/5년)
	물절약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절약종합대책사업 추진(수도요금 현실화, 절수기기개발 및 설치, 노후관 교체 등)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	상수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용량 : 163천m³/일(공주, 부여, 논산) · 금강북부권 급수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설용량: 254.7천m³/일(천안, 아산, 청양) · 충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용량 : 32천m³/일(금산) ·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아산 영인·인주, 16천 m³/일) · 신시가지 상수도시설 사업(아산 배방, 10천m³/일) · 배수지 확장 사업(아산 용화, 22천m³/일) · 전주권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증설사업(서천, 관로증설 7.41km)
	낙후지역 물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77개소, 89천톤/일) · 암반관정 개발(907개 지구) ·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2,072개소 : 마을 951개소, 소규모 1,121개소)
	공업용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설치(천안·지방산업단지 외) · 둔포전자정보집적화단지 공업용수시설설치 사업(25천m³/일)
지하수 이용 및 보전	지하수 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기초조사사업(9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문지질도 구축사업, 광역지하수 조사, 정밀지하수 조사 · 지하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1식)
	지하수 오염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공원상복구사업(100공/매년) · 지하수 보조관측망 및 수질측정망 운영(16개 사군)
	지하수 보전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관리계획 수립(1회/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활용, 암반지하수 개발·이용, 지하수 고갈·오염 방지 등 ·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16개 시·군, 1회/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관리계획에 따라 수립
수자원 재이용	빗물 유출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 유출수 재이용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투수 포장 단계별 제거, 침투도랑, 침투포장, 침투통 등 다양한 시설 설치, 식생여과대 및 수로에 식생 조성, 빗물저류시설 설치
	중수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수도시설개발 및 보급(16개 시·군) · 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하수종말처리시설(관로 11.5km, 가압시설 3대) － 공주하수종말처리시설(관로 6.1km) ·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사업(16개 시·군)

4.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

가. 에너지

1) 현황과 문제점

■ 지속적인 에너지 이용 증가추세

- 충남지역의 에너지원별 이용을 보면, 석탄은 대체로 감소하다가 유류 가격의 상승에 따라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석유류, 전력, 도시가스, 부탄가스 등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120〉 충청남도의 에너지 이용현황

연 도	석 탄 (톤)	석유류 (kL)	전력사용량 (천kwh)	도시가스 (1,000m³)	기타가스 (톤)
2000년	59,186	2,196,817	12,235,851	214,840	224,377
2001년	44,229	2,226,008	13,832,971	289,609	241,214
2002년	42,025	2,114,342	15,447,796	352,102	260,803
2003년	48,425	2,414,972	17,584,894	412,867	259,772
2004년	66,973	2,545,062	19,416,698	492,338	264,882
연평균 증가율(%)	3.3	4.0	14.7	32.3	4.5

자료: 충청남도, 제45회 충남통계연보, 2005.

■ 전국 전력공급기지로서의 시설용량 과다

- 충남지역의 대용량 발전시설은 2005년말 현재 서천화력 2기, 보령 화력 6기, 보령복합화력 12기, 당진화력 5기, 태안화력 6기, GSEPS 1기 등 40기로 총 10,701천 kw임
- 소수력과 섬지역 내연발전 시설 등 소규모 발전시설은 총 14기에 1,011천 kw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면 2005년말 기준 충남지역의 총 발전시설용량은 11,712천 kw로 전국대비 17.6%를 차지하나 사용량은 224.5억 kwh로 전국대비 5.7%를 차지함

〈표 II-121〉 충청남도의 전력생산 시설용량(2005)

구 분	개소수	발전용량(천kw)	위 치
무 연 탄	1	400	서천
유 연 탄	3	8,500	당진, 태안, 보령
복합화력	2	2,301	보령, GSEPS(당진 부곡)
중 유	1	507	현대(서산 대산)
내연발전	3	1	외연도, 삽시도, 가의도
소 수 력	3	3	금산, 보령2
합 계	13	11,712	

자료: 통계청, KOSIS 에너지부문 통계, 2006.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2006.

〈표 II-122〉 충청남도의 전력 이용현황

(단위: 천kwh, %)

연 도	합 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산업용			
					소 계	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2000년	12,235,851 (100.0)	1,353,099 (11.1)	330,108 (2.7)	2,288,846 (18.7)	8,263,798 (67.5)	693,447	71,458	7,498,893
2001년	13,832,971 (100.0)	1,444,105 (10.4)	379,103 (2.7)	3,165,994 (22.9)	8,845,949 (63.9)	756,318	75,303	8,014,328
2002년	15,447,796 (100.0)	1,549,221 (10.0)	458,621 (3.0)	3,668,061 (23.7)	9,771,892 (63.3)	770,144	82,951	8,918,797
2003년	17,584,894 (100.0)	1,640,900 (9.3)	507,103 (3.4)	4,039,426 (23.0)	10,020,463 (64.8)	736,406	92,595	9,191,462
2004년	19,416,698 (100.0)	1,789,151 (9.2)	560,740 (2.9)	4,278,219 (22.0)	12,788,588 (65.9)	814,800	116,174	11,857,614
평균	15,703,642 (100.0)	1,555,295 (9.9)	447,135 (2.8)	3,488,109 (22.2)	9,938,138 (65.1)	754,223	87,696	9,096,219

자료: 충청남도, 제45회 충남통계연보, 2005.

■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체계

- 충청남도의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및 이용시스템 분석, 전망진단은 있으나 에너지수요 절감 성과는 기대보다 낮음
- 기존의 에너지 정책은 공급중심으로 치우쳐 수요관리 및 절약기반 기술이 미흡한 상황
- 미활용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이용확대가 필요하나 환경보전과 상충하는 관계로 미흡한 상황

2) 여건변화와 전망

■ 고유가시대에 따른 지역경제 부담 가중

- 국제 유가의 급등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부담 증가
- 자원민족주의 대두로 자원 확보가 점차 어려워질 것임

■ 국제 환경레짐(regime)의 제도화와 국가단위 책임 강화

-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와 새로운 국제 환경규제의 발현에 따른 국제적 압력가중이 예상됨
- 화력발전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대외적 규제 강화 예상
- 온배수량 증가에 따른 연안어장의 축소 등 해양수산의 환경상 악영향 우려

■ 신재생에너지 수요의 지속적 증가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쾌적 청정한 대기질 요구수준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
- 환경부하가 적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증가 전망

3) 계획의 기본방향

■ 에너지 수요에 근거한 공급기반 시설 구축

- 1차 에너지 가운데 도시가스, LNG, LPG 등 매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공급능력을 확충
-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산업구조를 개편

■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확보

- 화력발전의 증설 등은 국가전원개발계획에 탄력적으로 대응 운용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확대를 위해 경제적 지원방안을 확대

■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한 생태적 효율성 증진

-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으로 수요관리 기반강화
-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정착

4) 세부추진시책

■ 환경부하가 적은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

- 1차 에너지 가운데 도시가스가 32.3%, 기타 프로판 및 부탄가스가 4.5% 씩 매년 수요가 급증하므로, 이에 따른 공급능력을 확충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버스, 트럭 등 배출가스의 환경부하가 큰 교통수단에 대해 압축천연가스(CNG) 공급시설을 확충
- 도서지역, 오지 등 전력공급이 불리한 지역의 자체 에너지 공급시설 확충을 위해 내연발전 설비추가 등 공급기반을 강화

■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을 통한 수요관리 정착

-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기반 조성
- 고유가시대 에너지 위기에 사전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수요관리를 추진
- 에너지 이용의 생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에너지 절약기업(ESCO) 육성

■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에너지 위기 극복

-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여 대체 에너지 자원을 개발
- 대체에너지 자원발굴로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폐기물 소각시설에 에너지 회수시설,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강화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
 - 고유가시대에 대비하고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풍력, 소수력, 태양광발전 등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
 -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차원에서 탄소경제 체제를 수소경제체제로 점차 변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소에너지 시범단지를 조성
-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 신재생에너지 테마공원은 테마관광지와 연계 조성하여 지역경쟁력 및 성장거점 확보(서천, 중부발전 1개소)

-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이용을 통한 생태적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의 확대
- 에너지 수요증가에 따라 화력발전소에 기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온배수 등 환경영향의 광역화, 누적화에 대한 종합적 환경관리 대응 추진

■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고려한 지역·도시계획 수립

-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구조의 구축
 -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보급 확대
 - 환경친화적, 분산형 발전설비의 강화
-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적용
 -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단지 개발 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우선 고려할 경우 마을공동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린빌리지 사업에 대한 지원 추진

나. 광물자원

1) 현황과 문제점

■ 주요 광물자원의 생산 현황

- 주요 생산광물은 규석, 고령토, 석회석, 장석 등이며, 소량의 사금이 생산되고 있음
- 전국대비 생산 점유비중은 규석 3.0%, 고령토 1.9%, 석회석 0.36%를 차지하나, 장석은 전국 1위, 규사는 전국 1, 2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음

■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생산활동은 증가

- 충청남도의 광물자원은 전국대비 산업생산 비중과 광물의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2차 산업 중 광업의 비중은 전국대비 사업체수 1.8%, 종사자수 0.7%, 생산액 0.2%, 주요생산비 0.1%, 부가가치 0.4%를 차지하고 있음

- 2000년 기준 2004년 현재 광업관련 사업체수와 평균종사자수는 각각 연평균 11.8%, 6.7% 감소한 반면, 생산액은 7.2%, 주요생산비는 12.1%, 부가가치는 5.2% 증가함

〈표 II-123〉 충청남도의 광업생산 현황

(단위: 인, 백만원)

연 도	사업체수	평균종사자수	생산액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2000년	93	1,279	121,852	35,030	86,822
2001년	83	1,215	126,441	39,802	86,639
2002년	76	1,091	132,676	35,663	97,013
2003년	56	1,041	166,952	46,191	120,761
2004년	49	938	156,942	51,938	105,004
연평균 변화율(%)	-11.8	-6.7	7.2	12.1	5.2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 환경규제에 따른 생산조건 제약

- 규사와 장석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광물자원이기에는 하나 조업허가와 관련하여 주민 민원에 따른 환경규제가 제기되고 있음

〈표 II-124〉 충청남도의 주요 광물자원 생산량

(단위: 톤)

연 도	규석	고령토	석회석	장석	사금(kg)
2000년	575,434	86,861	530,763	105,318	2.99
2001년	436,158	103,956	571,274	140,255	1.05
2002년	377,175	144,456	554,809	179,763	1.22
2003년	183,164	98,634	480,939	166,268	0.65
2004년	237,210	106,062	458,056	166,485	2.20
평 균	361,828	107,994	519,168	151,618	1.62

자료: 산업자원부, 2004년도 광물 수급현황, 2005.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 폐금속광산의 토양오염 가중

- 충남지역에 산재된 폐금속광산중 오염 우려 광산 23개소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12개 광산지역 주변에서 환경기준을 초과
-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 12개소, 대책기준 초과지역 9개소

〈그림 II-40〉 충청남도의 폐금속광산 오염현황도



〈표 II-125〉 충청남도의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오염 현황

광산명	소재지	토양오염초과(지점)		초과 원소
		우려기준	대책기준	
대흥	공주 유구 문금	3		비소, 니켈
덕곡	공주 유구 덕곡	6	4	비소, 카드뮴, 니켈,
병사	논산 노성 병사	1		구리
덕풍	논산 벌곡 만목	4	2	비소, 카드뮴, 니켈, 납
서성	서산 지곡 도성	19	10	카드뮴, 구리, 니켈, 납, 아연
중앙	천안 입장 양대	5	1	비소
수북	금산 복수 신대	7	5	비소, 카드뮴, 구리, 납, 아연
아미산	당진 면천 죽동	2	1	구리
근암	부여 외산 수신	1	1	니켈
임천	부여 장암 지토	5		카드뮴, 납, 아연
전의	연기 전의 양곡	3	3	비소, 니켈, 아연
삼광	청양 운곡 신대	21	13	비소, 카드뮴, 구리, 니켈, 납, 아연

자료: 환경부, 충남 폐금속광산 오염실태 정밀조사, 2005

2) 여건변화와 전망

■ 광물자원의 수요전망

- 고령토, 석회석, 규석 등은 내수가 감소하고 있음
- 장석, 규사는 산업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환경보호와 자원생산의 상충

- 중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규사 관련 원자재 수출을 금지할 경우 국내의 원자재 수요가격 상승 시 국내의 개발여건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
- 국내수요가 증가하는 광물자원의 개발 및 이용확대가 필요하나 환경보전과 상충하는 관계로 미흡한 상황. 특히 규사는 광물공급의 경쟁력이 있으나 대부분 해사채취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수산업 및 해양환경 부문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조업규제가 예상됨

3) 계획의 기본방향

■ 광물자원 개발의 생태적 효율성 증대

- 안정적인 광물자원 확보와 이용의 생태적 효율성 증진과 합리적 개발·관리
- 매장량과 생산량이 적은 자원에 대하여는 환경보전 및 관리 차원에서 채굴을 가급적 지양

■ 광물자원 생산의 고부가가치화

- 경쟁력이 있는 광물자원의 생산, 유통, 가공시설을 정비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육성

■ 지역특성을 고려한 광물자원의 개발

- 광물자원 부존량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경쟁력이 낮은 광물은 가급적 억제
- 매장량이 풍부하고 경쟁력 있는 장석과 규사 중심 개발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강화

■ 광해방지 및 오염토양 환경복원의 추진

- 광물자원의 개발에 따른 훼손지역 최소화와 오염토양 환경복원사업 병행 추진
- 폐광산 주변지역은 토석 유실방지와 안정화시설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복원 추진

4)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 광물자원 생산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경쟁력 있는 장석과 규사 등에 대해 생산, 유통, 가공의 체계적 개발 및 육성으로 지역특화 산업 육성
- 부가가치 창출성이 높은 수요처 개발로 새로운 시장개척

■ 광물자원 부존량 조사를 통한 개발여건 관리

- 광물자원의 개발 및 이용의 생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존량 조사를 통해 매장량과 생산량이 낮은 광종은 개발 억제
- 장석, 규사 등 주요 광물 채취지역에 대한 환경성평가와 환경복원으로 지속가능한 자원개발 추진

■ 광해 방지사업의 지속추진

- 기존의 휴·폐광에 대한 광해방지 사업으로 환경복원 사업 추진
 - － 광해물질의 지속적인 유출로 생태적 안정성을 훼손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 환경보건 차원에서 유해요소를 제거하고 생태적 안정성을 확보
- 휴·폐광지역 주변지역 오염농경지에 대한 토양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 광미(鑛尾) 유실방지를 위해 옹벽설치공사, 우수침투방지를 추진
 - － 중금속 용출방지를 위해 지하수 차단 및 소류지 등에 퇴적된 오염물을 제거
 - －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 식재와 오염된 수로의 준설

〈표 II-126〉 에너지 및 지하자원 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사업
에너지 개발	도시가스 공급기반시설	· 공동주택(6,166세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확대	· 태양광발전(380kw) · 풍력발전(4지역, 16,450kw) · 태양열 급탕(32개소) · 그린빌리지 조성(16개소)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 신재생에너지 테마공원 조성 (서천, 중부발전 1개소)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	· 수소에너지 시범단지 조성(1식)
광물자원 개발 및 관리	대체산업 활성화, 관광개발, 기반시설정비	· 폐광지역 진흥사업(보령시 1식)
	폐광지역 안전관리 모니터링 및 오염토양 복원	· 폐광산 오염토양 복원(12개소)
	광물자원 부존량 조사	· 광물자원 개발 가능량 조사(1식)

VII. 깨끗하고 안전한 푸른충남 구현

1. 지역생태망 구축과 자연환경 보전·관리

2. 대기질 관리와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

3. 맑고 깨끗한 물환경 관리

4. 폐기물의 과학적 관리와 재활용기반 구축

5. 재해에 강한 안전충남 조성

1. 지역생태망 구축과 자연환경 보전 · 관리

가. 현황과 문제점

■ 식재면적의 감소

- 충남의 시가화건조지역(대지, 공장, 학교, 주차장, 주유소, 창고, 도로, 철도 포함)은 6.5%(561.6km²)에 해당하고, 임야는 52.1%(4483.2km²), 농지(논·밭·과수원·목장 포함)는 32.0%로서 산림 및 농업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음¹⁾
- 충남에 분포하는 식재면적은 2004년 현재 4,472.6km²(전체면적 8,598 km²의 52%)였으나, 과거 10년간(1994~2004년) 도시확장, 도로개설, 임목벌채 등의 개발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310.3km²의 식재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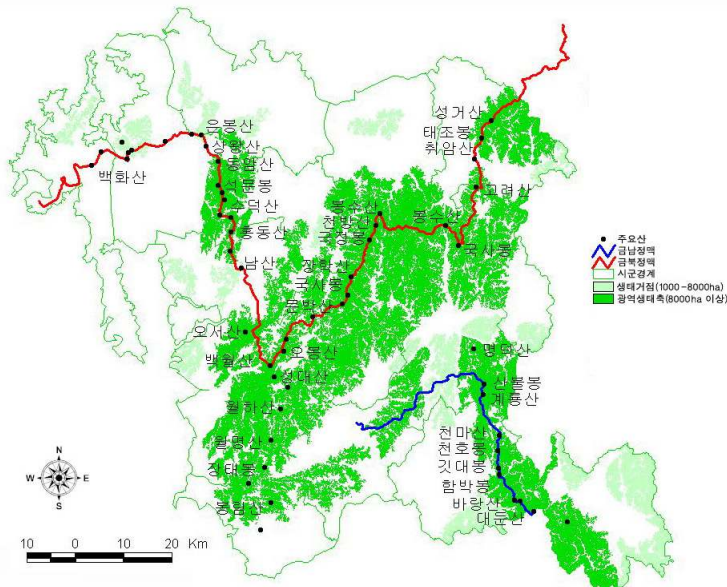
■ 산림조각의 급격한 감소

- 금남정맥(금산 대둔산~부여 부소산)과 금북정맥(천안 엽돈재~태안 안흥진)을 중심으로 양호한 산림자원을 보유
- 지속적인 도로 및 철도, 각종 개발사업으로 산림이 단절되는 파편화현상이 진행되고 있음
 - 공간해상도 30m인 위성영상으로 분석한 충청남도의 산림조각(forest patch)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57,511개에서 52,089개로 5,422개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큰 산림조각의 지속적인 단절(fragmentation)과 함께 작은 산림조각들이 개발사업 등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됨
 - 2004년 현재 충남의 산림조각에는 80,000천m² 이상의 광역생태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산림조각이 6개 존재하였고, 10,000천m²이상의 대규모 생태거점들이 광역생태축에 인접하여 29개 존재하므로, 대형포유류 서식을 위한 서식환경의 확보가 가능함
- 이에 따라 생물서식공간(biotop)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물종다양성도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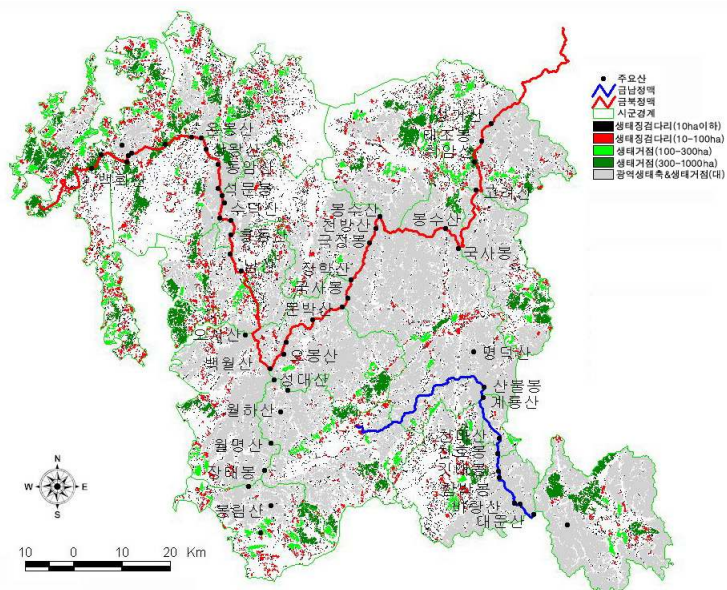
1) 충청남도, 제45회 통계연보, 2005, pp.12-21

- 반면, 1,000천m²이상~10,000천m² 미만의 산림조각들이 195개, 100천 m²이상~1,000천m²미만의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규모의 산림조각이 1,127개 존재하고, 이들 소생태거점 및 생태징검다리가 광역생태축·생태거점과 생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므로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산림조각들간의 연결이 절실히 요구됨

〈그림 II-41〉 충청남도의 광역생태축과 대규모 생태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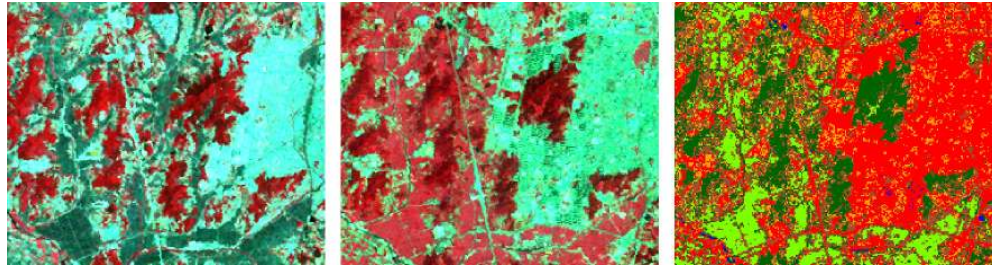
〈그림 II-42〉 충청남도의 소생태거점과 생태징검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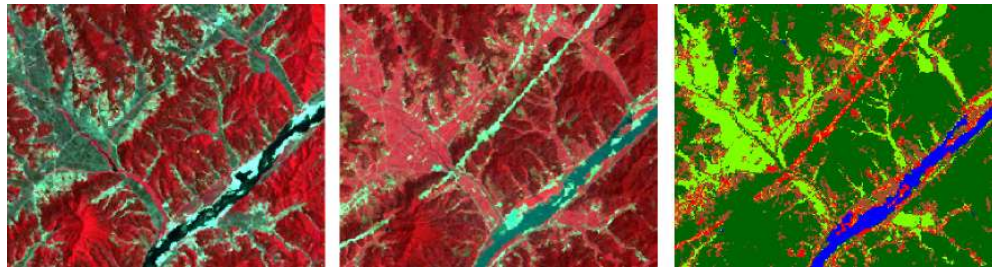
■ 개발사업, 도로개설, 형질변경에 따른 산림생태계 감소

- 충청남도 서북부지역의 개발사업, 도로·철도의 개설, 과수원 등으로의 산림전용에 따라 산림이 단절되거나 그 규모가 축소되었음

〈그림 II-43〉 도시확장 사례(천안; 좌: '94, 중: '04, 우: '04년 토지피복분류결과)



〈그림 II-44〉 도로개설 사례(청양; 좌: '94, 중: '04, 우: '04년 토지피복분류결과)



〈그림 II-45〉 형질변경 사례(부여; 좌: '94, 중: '04, 우: '04년 토지피복분류결과)



■ 산림, 공원, 사구, 습지 등 자연환경 훼손우려 증가

- 충청남도에는 자연공원 총 6개소(국립공원 2개소, 도립공원 3개소, 군립공원 1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도시공원 총 715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타도에 비해 공원지정 면적이 좁고 공원이용을 위한 접근성도 좋지 않아 도민의 공원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충청남도에는 우리나라 해안사구 133개 중 약 32%인 42개소가 분포하지만,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습지주변의 집약적 토지이용, 간척 및 매립, 개발사업 등으로 습지생태계의 오염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하천 및 연안의 환경오염 증가에 따른 어류 종다양성 감소

- 하천 하류지역 및 호소수의 수질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며, 천안·아산·당진 등 수도권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개별공장이 난립함에 따라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강하구 방조제 및 댐의 인위적인 환경부하와 담수의 다량 유입으로 인한 주변해역의 염분 및 해양환경 변화는 해양 생물자원의 변화를 초래함
- 연안역 수질의 변화,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 연안어장에 의한 자가오염, 해양 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편모조류 및 유독종에 의한 적조가 급증
- 서해안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연안환경의 변화가 해양생물의 서식처 및 산란장을 변화시키면서 회유어종 유입의 감소와 함께 종수, 개체수, 생체량, 종다양성 등의 감소를 유발하였음²⁾

■ 생물종 다양성의 지속적 감소

- 충청남도의 야생동·식물은 총 4,032종으로 그 중 식물이 1,841종으로 가장 많은 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곤충류로 702종, 조류 243종, 무척추동물 214종, 어류 196종, 포유류 41종, 양서류·파충류 30종의 순으로 서식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인 29,916종과 비교하였을 때, 충남지역 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야생동식물종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포유류에 있어서는 한반도에 분포하는 포유류 123종에³⁾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식하는 종마저도 청설모와 다람쥐를 제외하고는 정체 혹은 감소추세에 있음
-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증식을 위해서는 서식지 관리와 보호구역의 확대 뿐만 아니라, 유해야생동물 급증과 이에 따른 농림수산물의 피해 증가에 따른 야생동물 서식지에 대한 관리대책이 요구됨

2) 충청남도, 충남장기발전비전21, 1997, pp. 813-837.

3) 환경부, 국내생물종 문헌 조사연구, 1996

나. 여건변화와 전망

■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자연환경의 보전 및 모니터링 필요성 증대

- 자연환경 보전기본계획에 의해 생태네트워크 구축, 연안생태축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도 도 차원의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 및 구체적인 이행사업 추진이 요구됨
-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의 주제도가 제작되고 있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 차원의 보다 정밀한 자연환경 및 생물서식지의 분포에 대한 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산림생태계 규모의 감소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체계 확충으로 생태계 훼손면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산림을 관통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산림생태계 단절도 증가하는 추세임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물서식공간 조성을 위한 생태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증대

- 야생동물 보호정책 강화에 따라 야생동물의 개체수는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그 서식지와 이동통로 등의 정비를 통한 서식환경 개선이 요구됨
- 도시 확장, 도로 건설, 산림 훼손 등 인간 위주의 토지이용에 의해 생태계 단절 증가와 서식·보유종의 개체수 감소가 예상됨
 - 따라서 생물종의 소멸비율을 최소화하고 자연화를 최대화시킬 대책이 요구됨

다. 계획의 기본방향

■ 입체적인 자연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 산-하천-연안을 잇는 광역생태축을 중심으로 도전체 자연환경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자연환경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지리정보를 체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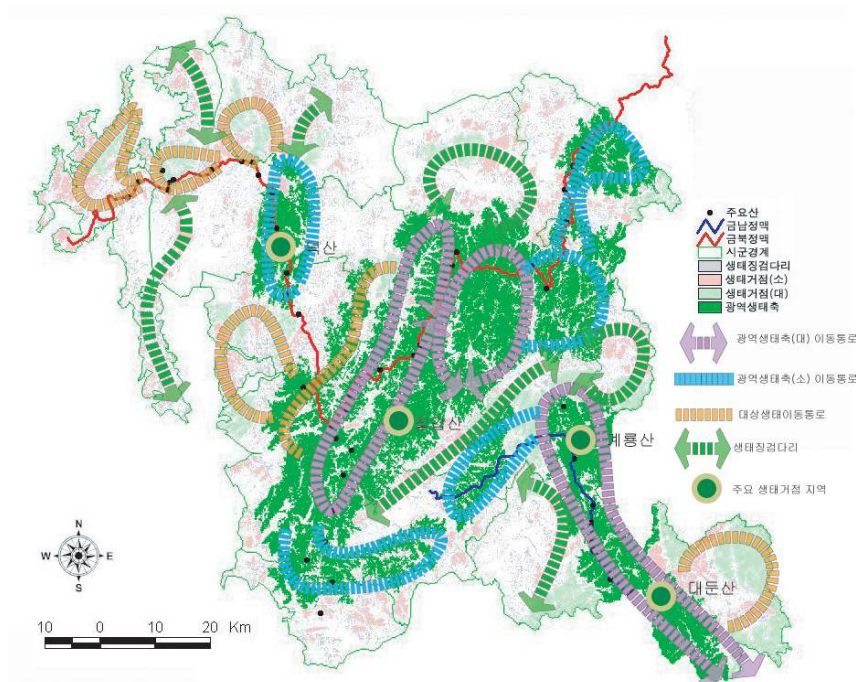
■ 사람과 생물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생태네트워크 구축

- 금남·금북정맥의 주능선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복원사업 추진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근거하여 생태적인 거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의 보전사업 강화
- 생태축-생태축, 생태축-생태거점, 생태거점-생태거점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생태코리더 복원

■ 생물의 유전적 우수성과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멸종위기 동식물의 자생환경 조성 및 유해야생동물의 적정개체수 조절
- 잃어버린 생물자원 복원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관리사업 추진

〈그림 II-46〉 충청남도 광역생태축 구상도



라. 세부추진시책

■ 환경과 조화된 지역발전을 위한 자연환경모니터링 사업 강화

- 1992년 「리우선언」에서의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 권고에 따라, 도내 주요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합의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충남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을 추진
- 충청남도 내 자연자원의 분포와 변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환경과 조화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자 2.5m 이내의 공간해상도를 가진 위성영상을 정사보정하여 매년 토지이용 급변화지역을 중심으로 갱신 구축함
- 영상정보로부터 도시, 도로, 공장 등 개발사업의 면적변화와 산림, 농경지, 습지 등 자연환경의 면적변화 등 도내 환경자원의 변동을 5년 주기로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 「환경보전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각 시군별로 수립하고, 야생동식물 보호와 종 다양성 증진을 위해 매 5년 단위로 「야생동식물보호 세부계획」을 수립
- 「야생동식물보호 세부계획」에 근거하여 파악한 도내 야생동식물 조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충남의 자연자원(산림, 하천, 습지, 공원 등), 야생동식물, 각종 생태계 조사 DB 등 환경자료를 기반으로 ‘충남 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내 환경정보를 입체적으로 관리
- 지역환경감시를 위해서 노령 유희인력을 활용한 실버환경감시단을 시군별로 조직

■ 산-하천-연안을 잇는 광역생태축 보전사업 추진

- 금남(금산군 대둔산~부여군 부소산)·금북(천안시 엽돈제~태안군 안흥진)정맥을 중심으로 산-하천-연안을 잇는 충청남도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종합적인 환경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생태적인 건전성을 평가하여 다양한 야생동식물이 서식·이동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조성함

- 야생동물의 원활한 서식과 이동, 종다양성 회복, 자연에너지활용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별 생태자원의 실태와 친환경적 토지이용을 종합한 지역단위 생태지도(biotop map)를 제작
- 환경친화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 도로에 의해 단절된 산림생태계를 연결하여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경로를 확보
 - 지방도 및 시·군도에서의 로드킬(road-kill)을 모니터링 하여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정 유형의 생태이동통로를 설치
- 연안의 광역생태축 정비
 - 연안침식과 갯벌의 보호를 위해 훼손되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설정
 - 자연석과 염생식물 등 자연식생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안을 정비
 -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생태계 모니터링 및 복원사업의 지속적 추진

■ 생태거점 보전 및 복원 사업 추진

- 천수만(서산), 금강(서천), 태안생태(태안)와 향후 생태적으로 우수한 3개 지역을 추가로 생물서식공간, 연구·조사공간, 관찰·체험공간, 학습공간을 포함하는 생태공원으로 지정
- 연안과 내륙의 습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습지복원사업을 추진
 -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의 토양, 식생, 생물서식 환경과 주변 관리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도내 반딧불이 보호구역을 지정
 - 연안습지는 연안의 자연성과 갯벌의 보호상태를 평가하여 연안습지보호구역을 지정
- 도시의 환경오염 개선 및 쾌적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내로 유입할 수 있는 바람길(wind-road, white-network)을 배려한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수립
 - 이를 근거로 도시 내에서 자연과의 공생을 통한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태 및 녹지환경을 풍부하게 조성
 - 물과 바람 등 청정환경을 적절히 조절·활용하여 친환경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생태시범도시 조성
- 농촌의 생태적 기능 제고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태마을 지정
 - 하수를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

- 우수를 재활용한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농업용수로 재이용하고 서식생물을 다양화

■ 생태코리더 복원사업 추진

- 금남정맥과 금북정맥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공간과 이동통로 확보하기 위하여 금남-금북정맥을 잇는 금강의 지류인 지천(16km 구간)에 대해 자연형 호안정비사업을 추진
- 사구의 가치와 사구에 존재하는 생물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태안군 신두리 사구에 사구체험교육관을 건립
- 장항선 복선화·직선화·개량화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철로구간과 주변부지에 대하여 주변의 녹지와 연결하는 연결녹지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향후 녹도(greenway)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함
- 청소년들이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내 3개 권역(북부권, 남동부권, 서부권)에 체험장과 교육시설을 포함하는 생태환경체험교육장을 건립

■ 체계적인 야생동식물 조사·관리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의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지정하고,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정 및 피해예방사업을 추진
- 야생동물 증식과 방사를 위해 칠갑산 천장호 지역에 중부권 생물자연관(1개소),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1개소)를 건립하여 야생동물 종보존 시설을 구비하고 야생동물 위치 추적, 멸종위기종 복원·증식, 질병 및 서식지 연구의 업무를 지원
- 2006년 현재 수행 중인 3개 시·군(서산, 홍성, 서천)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인 서천, 서산 등의 철새도래지에 추가적으로 생물다양성계약을 추진하여 철새의 먹이자원과 서식처, 은신처의 보호를 강화
 - 철새의 이동에 따른 병원균 전염과 질병의 퇴치 등 철새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 철새연구센터를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위치를 고려하여 1개소 건립

〈표 II-127〉 자연환경보전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사업
자연환경 모니터링 사업 강화	환경 원격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성영상촬영(해상도: 2.5m 이내, 정사영상) 자연자원변동조사 사업(1회/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산림, 농경지 및 대규모 개발계획의 면적변화 변동조사
	자연환경 보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1회/5년) 야생동·식물보호 세부계획 수립(1회/5년)
	환경정보망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동·식물 실태조사 및 DB 구축 사업(1식) 충남 환경정보시스템 구축(1식)
지역생태네트 워크 구축	광역생태축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조사(1식) 로드킬(road-kill) 조사사업(지방도 37개 노선) 생태이동통로 설치(20개소) 시군 생태지도 제작(16개 시·군) 연안정비사업(90개 지구)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생태계 모니터링 및 복원사업
	생태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수만 생태공원화 사업(서산 부석) 금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서천하구둑~신성리) 가로림만 생태공원 사업(태안군 삭선리) 생태공원 조성사업(3개소)
	습지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습지 복원사업(3개소)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사업(3개소)
	생태도시(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람길 지도 제작(3개 시·군) 생태도시 시범사업(1개소) 생태마을 조성사업(10개소)
	생태코리더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천 자연형 호안 정비사업(16km) 사구체험교육관 건립(1개소: 태안)
생물다양성 증진	야생동·식물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유해 야생동물 종별 피해예방사업
	야생동물 증식·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동물 증식·방사구역 조성(1개소) 중부권 생물자원관(1개소)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1개소)
	철새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행, 철새도래지 7개소) 철새연구센터 설립·운영(1개소)

2. 대기질 관리와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

가. 현황과 문제점

■ 비교적 양호한 대기질 유지

- 충남도내 대기질 현황을 대기질지수(AQI)로 나타낸 지표는 10~100 범위로 대부분 좋음~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부분적으로 일부 오염물질 항목에서는 단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음

〈표 II-128〉 주요지역 대기질 현황

연 도	천안 원성동(도시지역)			서산 독곶리(산업단지)			당진 난지도리(해안지역)		
	SO ₂ (ppm)	NO ₂ (ppm)	PM ₁₀ ($\mu\text{g}/\text{m}^3$)	SO ₂ (ppm)	NO ₂ (ppm)	PM ₁₀ ($\mu\text{g}/\text{m}^3$)	SO ₂ (ppm)	NO ₂ (ppm)	PM ₁₀ ($\mu\text{g}/\text{m}^3$)
2002년	0.006	0.021	56	0.007	0.015	50	0.002	0.020	53
2003년	0.005	0.018	40	0.006	0.014	46	0.003	0.024	57
2004년	0.005	0.023	47	0.005	0.016	56	0.004	0.020	49
2005년	0.005	0.026	49	0.005	0.012	51	0.005	0.013	48
평 균	0.005	0.022	48	0.006	0.014	50	0.004	0.019	52
환경기준 (장기)	0.02	0.05	70	0.02	0.05	70	0.02	0.05	70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5.

■ 북부권에 편중된 대기질 측정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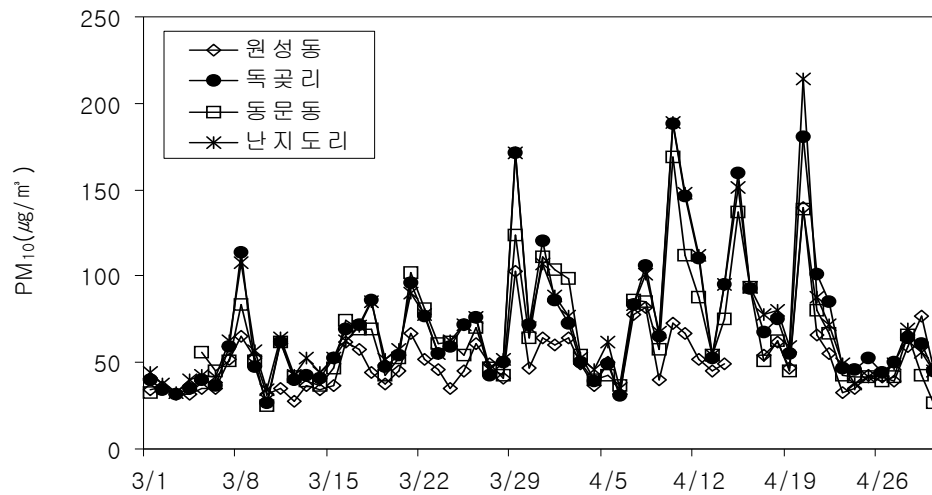
- 대기질 측정을 위한 지역측정망 5개소가 북부권에 위치하여 지역편중 문제가 있음

■ 주요 대기오염원 특성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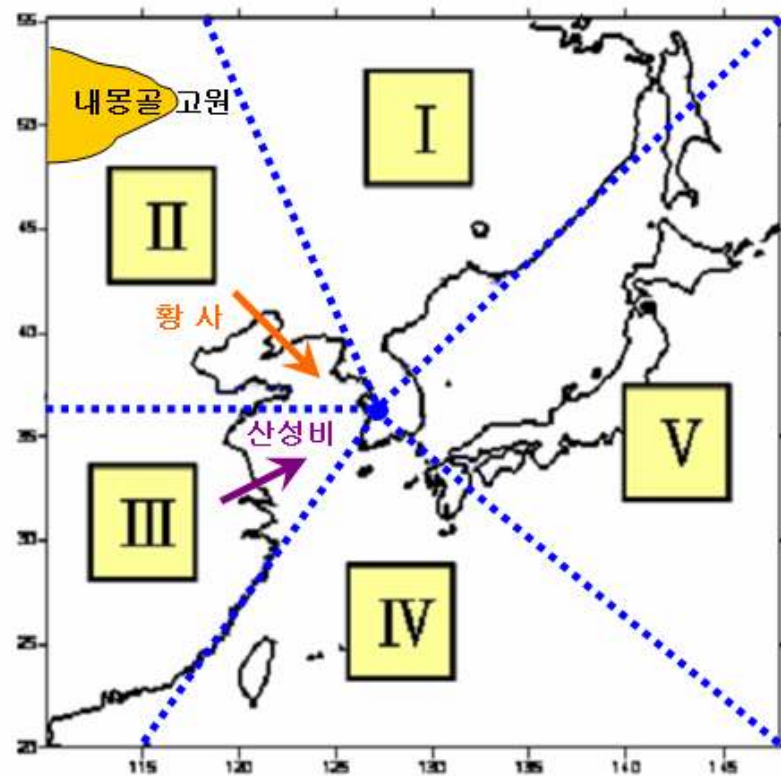
-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해연안에 근접하여 황사, 황산화물, 질산화물 등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에 의해 영향을 받음
 - 황사는 중국 내몽골 등 발원지와 근접하여 발생기간, 발생농도 등이 대체로 증가 : 연평균 발생 7일, 시간평균농도 227~350 $\mu\text{g}/\text{m}^3$

- 강우의 pH 4.4~4.6인 산성비로 중국 동남부지역의 영향을 받음
- 충남 서해안지역에 4개 화력발전소(서천, 보령, 태안, 당진)와 서산 대산지역 4개 유화단지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중국의 산업화와 황사로 대기오염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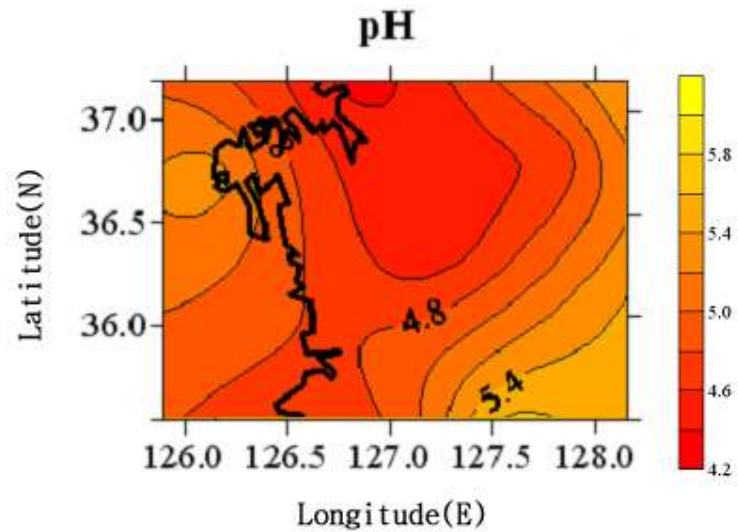
〈그림 II-47〉 주요지역 황사 발생기간의 미세먼지 농도 비교



〈그림 II-48〉 충청남도의 황사 및 산성비 영향 진원지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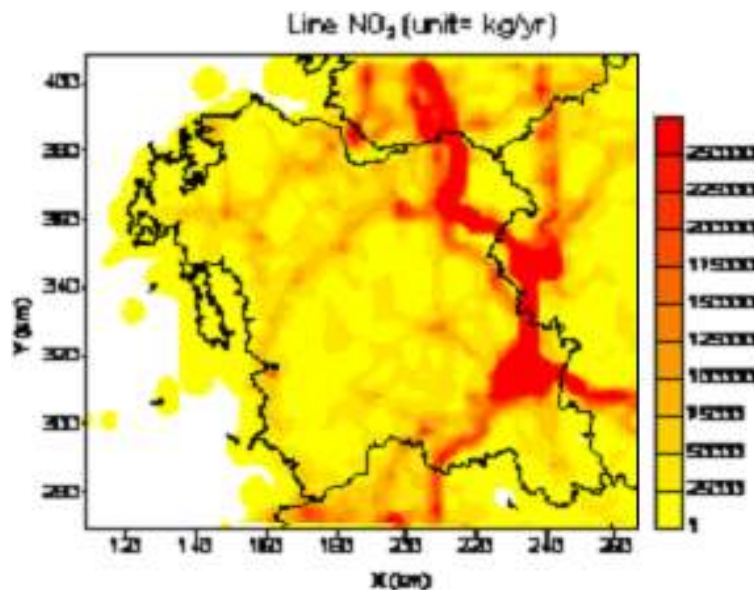


〈그림 II-49〉 충청남도의 강우 산성도 분포



-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신도시개발 등에 의한 대규모 대기오염배출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 교통부문에 의한 대기오염 증가
 - 자동차의 증가와 함께 교통과 환경대책간의 연계성이 미흡한 상황
 - 연료가격 구조 특성상 오염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오염배출 비중이 큼

〈그림 II-50〉 충청남도의 교통부문 NO₂배출량 분포



〈표 II-129〉 자동차 등록 현황(2000~2004)

(단위: 대, %)

구 분	합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2000	488,961	294,048	54,606	138,670	1,637
2001	527,522	327,798	48,408	149,510	1,806
2002	569,322	359,031	50,109	158,237	1,945
2003	602,433	383,395	50,529	166,384	2,125
2004	635,947	410,915	50,446	172,382	2,204
연평균 증가율	7.5	9.9	-1.9	6.1	8.6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나. 여건변화와 전망

■ 대기오염의 광역화 전망

- 대규모 개발사업과 함께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대기오염의 광역화 현상 초래

■ 선진국형 대기오염 형태 변화

- 중점관리 대기오염물질 항목도 황산화물에서 오존, 미세먼지 등으로 변화할 전망

■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지속적 증가 전망

- 수도권에 인접한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조성, 발전시설 증설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 상존
-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청정연료에 대한 수요 증가

〈표 II-130〉 충청남도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전망

(단위: 천톤/년)

구 분	CO	NO _x	SO _x	PM ₁₀	VOC
2003년	41	101	43	4	25
2005년	50	106	43	5	56
2010년	55	118	38	5	65
2015년	60	130	34	5	75
2020년	65	140	35	5	80

자료: 환경부, 국토환경관리종합계획 수립연구, 2005.

다. 계획의 기본방향

■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 대기오염 저감대책 수립 추진
-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추진

■ 대기오염 관리체계 구축

-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시스템도입
- 대기관리 정보시스템의 상시 가동
- 대기오염 예·경보제도 정착
- 대기오염 총량관리 제도 도입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 대기질 악화 우려 중점지역에 대한 대기질 조사 및 관리방안 도출

- 대기질 악화가 우려되는 중점지역 11개소에 대한 대기질 조사
 - － 화력발전소 4개소, 석유화학 및 철강단지 2개소, 도심권 5개소에 대해 측정 및 예측 결과 분석으로 관리방안 도출

■ 오염원별, 지역별 대기오염 저감대책 수립·추진

- 선 및 면 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저감대책
 - 고속도로 등 교통량이 많은 주요도로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를 위한 원격감시측정기 도입
 - 차세대 인공지능 도로·차량제어체계(ITS) 도입으로 교통소통을 향상시켜 도심권의 국지적 대기오염물질 축적감소
 - 도로변 대기오염물질 정화수중 식재로 생태녹화사업 동시 추구(생태 보전 축을 잇는 충남 그린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연계)
 - 인체에 위대한 2차 대기오염물질 생성억제 및 대기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천연가스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을 추진
- 주요 대기오염 배출원이 많은 서해연안 및 산업단지 등에 대한 배출원 관리로 오염물질 저감

■ 온실가스 저감 및 관리방안

- 주요 배출시설별 연료사용량 DB구축을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
 - 저탄소연료로의 전환계획 추진
- 기후보호도시(CCP) 등의 국제적인 환경관리 표준자치단체로 위상을 정립
 -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기오염 저감 및 환경감시 계획 실천
 - 외국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국제자치단체환경협의회(ICLEI) 등과 환경교류 강화

■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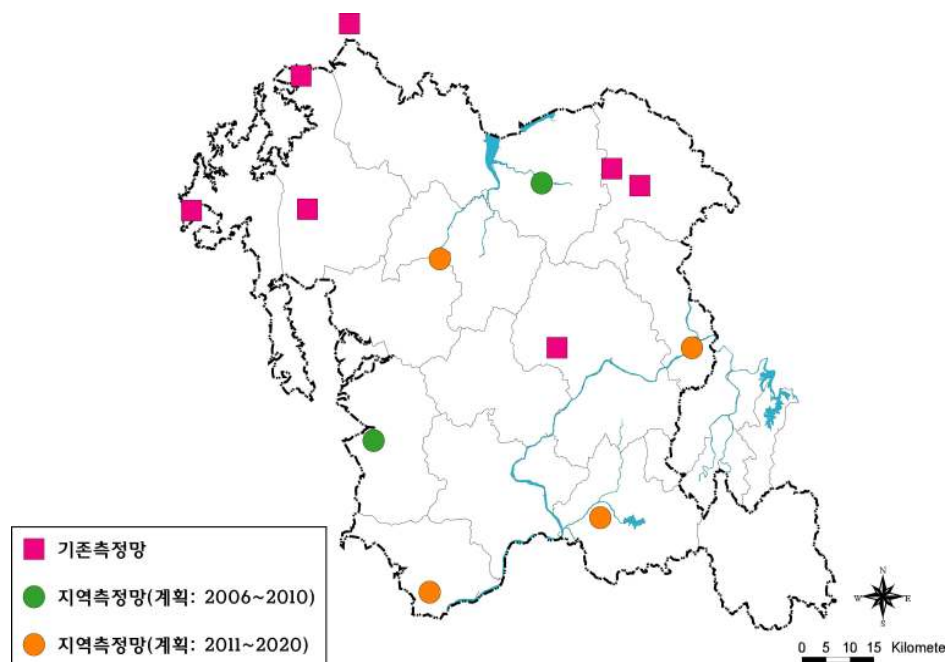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시스템 도입
 - 주요 화력발전시설 및 대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굴뚝감시 원격시스템(TMS) 구축
 -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종류별 발생량, 배출량을 목록화하여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른 총량규제나 배출권거래제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기오염물질 증가에 대응한 대기오염 예·경보제 정착

- 대기오염 예·경보체계를 내실화 정착
 - 오염원별 배출자료, 대기오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황사의 발생빈도와 농도가 증가하고 건강 및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전 예경보체제 구축 강화
- 대기오염 예보제 도입은 대기관리 지리정보시스템(Air-GIS) 등과 연계한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시스템 도입 등 환경관리 기반 정립이 요구됨
- 황사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농도증가에 대비하여 대기질 측정망의 증설을 통한 사전모니터링 기반 구축

〈그림 II-51〉 충청남도의 대기질 측정망 확충계획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로 배출시설관리의 경제적 유인 적용
 - 화력발전소, 석유화학, 철강산업 등 에너지 다소비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총량관리제 도입
 - 청정연료인 저유황유와 LNG로 연료전환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VA) 체결의 강화
 - 자발적 오염저감을 위한 선행행동(early action)에 대한 경제적 유인 인정제도
- 이웃 광역자체단체간의 대기환경 협력체계 구축
 - 수도권, 충청권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의 집합적 관리 및 통합적 운영체계 모색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산업입지의 재조정 및 신규입지에 대한 대기 질 환경용량 평가제도 도입

〈표 II-131〉 대기질관리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분야 세부추진시책과 주요개발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대기오염 저감대책 수립추진	대기질 조사	· 도내 중점지역(11개소)
	오염원 관리계획	· 도내 전배출원 목록관리 DB 구축(1식)
	자동차 공해 저감대책	· 천연가스 차량(시지역 1,500대) · 제작차의 저공해화 ·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 인공지능 도로차량제어시스템(ITS) 도입 ·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추진
대기오염 물질 배출 관리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시스템 도입	· TMS 관리시스템 구축(1~3종, 366개소) · 배출부과금 제도 개선 · 종합관리망 운영(1식)
대기오염 예·경보제 정착	측정망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	· 대기측정망 확충(20개소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홍성, 연기, 서천, 논산, 태안, 당진) · 소음자동측정망 설치(4개소 : 천안, 아산, 홍성, 연기) · 황사경보운영체제(1식)
대기오염 총량관리	제도기반 구축	·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원 목록 작성 · 연료전환(저황유, LNG 등) 유도 ·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대비 DB 구축(1식)
	자발적 협약 체결	· 경제적 유인 지급(이산화탄소, 5,000원/톤)
	광역협력체제 구축	· 수도권 및 충청권 통합적 운영체제

3. 맑고 깨끗한 물환경 관리

가. 현황과 문제점

■ 공공수역 현황

- 하천은 국가하천 9개소 267km, 지방1급하천 11개소 130km, 지방2급하천 526개소 2,603km, 소하천 2,396개소 3,406km으로 구성됨
- 호소는 949개소(담수호 4, 저수지 217, 소류지 728)임

■ 수질측정망

- 도내 하천, 호소 등의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수질변화의 추이와 집행된 주요 수질정책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정기적인 수질모니터링 지점은 총 267개 지점으로 여러 기관에서 분담하여 관리

〈표 II-132〉 시·군별 수질측정망 지점 현황

시군별	계	상수원수	하천수	호소수 (道지정)	농업용수	공단배수
합 계	267	27	55	123(100)	60	2
천안시	23	2	4	11(11)	4	2
공주시	20	3	6	5(5)	6	—
보령시	31	4	3	18(15)	6	—
아산시	25	2	3	13(10)	7	—
서산시	26	3	4	11(6)	8	—
논산시	19	1	10	8(6)	—	—
금산군	11	2	2	6(6)	1	—
연기군	8	2	5	0(0)	1	—
부여군	14	1	6	3(3)	4	—
서천군	12	—	2	5(2)	5	—
청양군	15	2	1	9(9)	3	—
홍성군	13	—	2	5(3)	6	—
예산군	20	2	4	12(9)	2	—
태안군	16	—	1	13(12)	2	—
당진군	14	3	2	4(3)	5	—

〈표 II-133〉 측정기관별 수질측정망 운영현황

측정기관	계	상수원수	하천수	호소수	농업용수	공단배수
계	267	27	55	123	60	2
보건환경연구원	158	25	31	100(道지정)	—	2
금강유역환경청	43	—	23	20	—	—
한국농촌공사	60	—	—	—	60	—
한국수자원공사	6	2	1	3	—	—

〈그림 II-52〉 충남지역 주요하천 및 호소의 분포도



- 또한, 연안지역의 수질현황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충남서해 5개 연안 및 천수만에 총 26개 지점(대천항 및 보령항 포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을 측정

〈그림 II-53〉 충남 연안지역의 수질측정지점



■ 수질현황

- 도내 공공수역 주요지점의 수질은 비교적 깨끗하지만 하천 하류지역 및 유역면적이 넓은 호소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134〉 하천 및 호소의 수질등급 현황(2000~2005)

구 분		지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외	비고
하천수 (BOD ₅)	2000년	41	1 2.4	19 46.3	15 36.6	1 2.4	1 2.4	4 9.8	지점 %
	2004년	50	1 2.0	14 28.0	28 56.0	2 4.0	2 4.0	3 6.0	
	2005년	55	2 3.6	21 38.2	25 45.5	2 3.6	1 1.8	4 7.3	
호소수 (COD _{Mn})	2000년	43		1 2.3	21 48.8	10 23.3	4 9.3	7 16.3	
	2004년	44		3 6.8	17 38.6	8 18.2	9 20.5	7 15.9	
	2005년	57			24 42.1	12 21.1	10 17.5	11 19.3	

자료 : 충청남도, 수질관리과 내부자료, 2006.

- 일반적으로 서해연안보다 동해 및 남해연안의 수질이 비교적 양호하고, 서해를 접하고 있는 충남연안은 북쪽에 위치한 인천연안과 남쪽에 위치한 군산연안의 수질보다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항목별 해역의 수질상태는 DO 및 T-P기준으로 I등급, COD_{Mn} 및 T-N 기준으로는 II등급 수준임

〈표 II-135〉 서해 연안지역 수질현황(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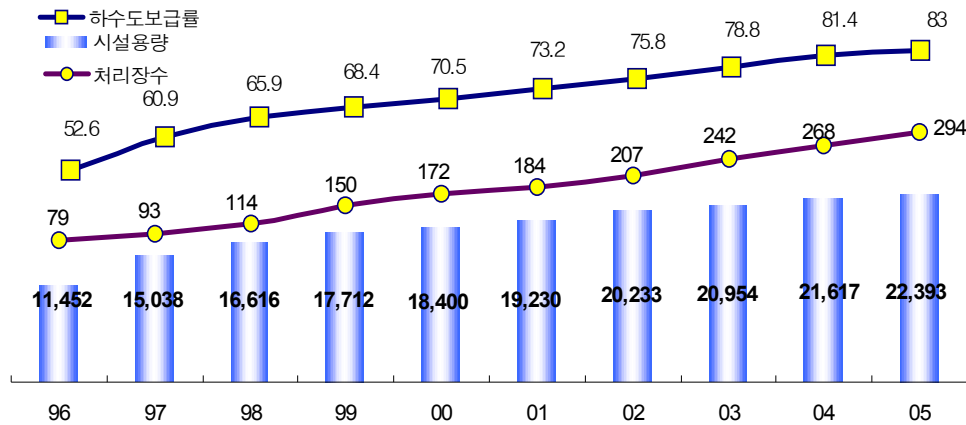
구분	DO(mg/L)	COD _{Mn} (mg/L)	SS(mg/L)	T-N(mg/L)	T-P(mg/L)
인천연안	10.1	1.7	18.7	0.856	0.040
아산연안	10.2	1.6	13.0	0.618	0.029
보령연안	9.2	1.3	11.6	0.416	0.025
군산연안	8.9	1.7	30.6	0.754	0.075
목포연안	9.2	1.8	15.5	0.393	0.045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5.

■ 수질관리시설

-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생활하수의 처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2005년 기준 전국 하수처리인구율(하수도보급률)은 83%이지만, 충청남도는 53.9%로 저조한 실정임
- 2005년말 기준 운영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4개소이고, 마을하수도는 90개소로 시설용량은 총 510,926m³/일임

〈그림 II-54〉 전국 하수처리 변화추이



자료 : 환경부, 하수처리통계(2004), 2005

〈표 II-136〉 충남 시·군별 하수처리 현황(2005)

구분	총인구 (명)	하수처리인구(명)			미처리 인구(명)	하수처리 인구율 (%)
		계	하수종말 처리인구	폐수종말 처리인구		
합 계	1,982,495	1,067,997	1,065,427	2,570	914,498	53.87
천안시	518,818	429,153	429,153	—	89,665	82.72
공주시	130,595	77,652	76,307	1,345	52,943	59.46
보령시	108,639	60,614	60,614	—	48,025	55.79
아산시	208,448	91,377	90,267	1,110	117,071	43.84
서산시	151,283	71,120	71,120	—	80,163	47.01
논산시	135,210	44,600	44,600	—	90,610	32.99
계룡시	34,451	32,199	32,199	—	2,252	93.46
금산군	59,014	23,488	23,488	—	35,526	39.80
연기군	85,395	39,564	39,564	—	45,831	46.33
부여군	81,850	24,557	24,442	115	57,293	30.00
서천군	64,676	2,229	2,229	—	62,447	3.45
청양군	35,144	10,525	10,525	—	24,619	29.95
홍성군	91,432	48,632	48,632	—	42,800	53.19
예산군	91,449	47,192	47,192	—	44,257	51.60
태안군	64,075	22,175	22,175	—	41,900	34.61
당진군	122,016	42,920	42,920	—	79,096	35.18

자료 : 충청남도, 하수처리통계(2005), 2006.

-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총 18개소이며, 대부분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재처리
- 2005년 기준, 산업단지(국가, 지방, 농공단지) 지정 현황은 총 99개소이며, 1개소 1업체인 오·폐수처리시설을 포함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은 총 48개소(국가지방 16, 농공 32)로 시설용량은 206,690m³/일이며, 오·폐수발생량에 비하여 대부분 시설용량이 과잉으로 설치됨. 나머지 지구는 개별 처리하거나 단지조성 중에 있음
- 비교적 소규모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총 6개소로 시설용량은 1,130kL/일이며, 축산분뇨 처리대상 량에 비하여 시설수가 부족한 편임

나. 여건변화와 전망

■ 여건변화 전망

- 21세기에 들어 경제발전보다 환경보전을 중요시하는 환경우선주의적 사고가 지배적
 - 하천·호소·연안 등이 친수공간으로 활용됨에 따라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물 생태계의 건전성과 경관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
 - 물에 대한 심리적 친숙도와 쾌적한 수변공간의 창출욕구 증대
- 도시화와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생활하수의 경우 집중적인 처리로 2005년 이후 배출부하량은 감소추세로 전환이 예상되나, 축산 사육두수와 산업생산의 증가로 축산분뇨 및 산업 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할 전망
 - 최근 가축사육두수의 증가와 함께 축산분뇨 발생량이 증가
 - 유기물질 및 영양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은 감소되는 반면, 화학물질의 유통량 증가, 신규 화학물질의 개발, 첨단산업 등 산업구조의 다변화 등으로 신규 수질유해물질 발생량이 증가
- 유역관리 중심의 정책 도입과 수질총량관리제 실현으로 배출시설에 대한 사후농도규제에서 총량기준에 의한 예방적 환경관리로 전환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기업도시 등 주요 개발예정지 및 주변 지역의 공공수역관리 필요성 증대

- 천안아산당진 등 수도권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활동에 따른 물환경부하 증가 우려
- 금강수질 관리를 위한 유역내 자치단체간 협력 필요성과 삽교천 등 서북부연안지역에 대한 수질관리대책 요구 증대
- 서해연안지역의 공단밀집 등 개발압력 증가로 육상기인에 의한 연안 오염 가속 및 갯벌 감소 우려

〈표 II-137〉 21세기 물환경관리 문제 전망

구 분	우려되는 부문	긍정적인 경향	비고
물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유해물질 배출 증대 · 지하수 고갈과 오염 및 비점오염원 증대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및 수자원 영향 (강우량 변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역 및 생태중심적인 물환경관리 · 점 및 비점오염원의 관리효율 증대 · 축산분뇨의 집중적인 관리방안 마련 · 물환경 관리기술 발달 	유역 관리 체계 정착
연안 환경·생 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매립 증가 · 폐기물 등 육상기인 해양오염물질 증가 · 유전자변형수산물·해양생물, 외래해양생물종에 의한 생태계 교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에 대한 도민인식 변화 · 해양보호구역 지정면적 확대 · 지속가능한 해양생물자원 개발 · 해양생명공학기술 발전 	해양 환경 보호 강화

■ 수질 및 수질관리시설 전망

- 수질변화 전망
 - 하천의 유량은 강수량과 매우 밀접하고 하천의 수질은 하천의 유량과 오염물질 유달부하량이 직결되는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강수조건에 따라 수질농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주요하천의 수질은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나빠지고 있음

〈표 II-138〉 하천 주요지점의 수질변화(1999~2005)

(단위: BOD₅, mg/L)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금강(금산 제원대교)	0.9	1.0	1.1	1.4	1.2	0.9	0.7
금강(연기 금남교)	3.1	3.0	3.7	4.0	2.5	3.6	3.3
금강(공주 금강대교)	2.6	2.6	3.7	3.1	2.1	2.7	2.9
금강(부여 백제대교)	2.6	2.7	3.7	3.3	2.1	3.2	3.2
금강(논산 황산대교)	3.5	4.5	5.1	4.5	3.3	3.5	3.7
삽교천(예산삽교)	4.1	3.7	4.2	4.9	3.0	3.4	2.7
무한천(예산광시)	1.7	2.0	2.1	2.2	1.7	2.6	2.1
곡교천(천안풍세)	1.6	3.0	1.8	2.2	1.7	1.5	1.2
유구천(공주유구)	1.5	2.1	1.6	1.3	1.3	1.9	1.9
미호천(연기남면)	3.4	4.4	5.7	4.9	3.6	4.9	5.1

- 유역면적이 넓은 대형호소를 중심으로 수질은 나빠지고 있으며 호소 내의 오염원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점진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표 II-139〉 주요 호소의 수질변화(1999~2005)

(단위: COD_{Mn}, mg/L)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탐정호(논산)	3.8	3.6	8.0	5.4	4.6	4.6	3.6
예당호(예산)	4.6	4.0	5.0	6.8	6.3	5.1	5.3
간월호(서산)	7.7	7.7	8.3	9.7	9.3	8.4	8.3
부남호(서산)	8.3	8.4	8.2	10.7	10.8	11.0	10.9

- 최근 5년간(2001~2005년)을 기초로 연안의 수질을 전망할 때, COD_{Mn}, T-N, Chlorophyll-a 항목 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T-P와 SS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연안오염은 대부분 육상오염물질에 기인하므로 연안영향지역의 육상오염물질 관리가 집중되어야 함

〈표 II-140〉 충남 연안지역의 수질변화 양상

구 분	항 목				
	COD _{Mn}	T-N	T-P	SS	Chl-a
아산연안	증가	급증	증감	감소	급증
대산연안	일정	급증	감소	감소	증가
가로림연안	약증	급증	감소	감소	증가
태안연안	증감	급증	증감	증감	증가
보령연안	약증	급증	증감	증감	급증

주 :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양환경조사 자료(<http://research.nfrdi.re.kr/>)를 기초하여 작성

- 수질관리시설 증감 전망

- 생활하수발생량은 인구 및 상수도 사용량과 직결되며, 2005년 기준 602,299m³/일에서 1인 약 350L/일 상수도사용량을 가정할 때 2020년에는 875,000m³/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약 54%의 하수처리인구율을 85%로 상향시키기 위하여 도심지역 중심으로 부족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설 및 증설이 필요하고, 노후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량사업도 함께 수반되어야 함. 또한, 도심 외지역의 소규모 면소재지와 마을단위의 인구밀집 지역에는 50~500m³/일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수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
- 수세화율 증가,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으로 분뇨처리 시설용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시·군당 1개소 수준에서 장래에는 약 2,000m³/일 이상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전처리 개념의 연계처리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시설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나 단위 시설용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산업단지(국가, 지방,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총 48개 시설(용량 : 206,690m³/일)이 운영 중이나 개별처리 하는 산업단지와 신규 조성중인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향후 추가적으로 산업단지 지정을 고려한다면 약 100개 시설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수질오염원 중 가축분뇨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나, 그간 처리공법의 개발이 미흡하고, 인근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6개소(시설용량: 1,130kL/일)를 운영하고 있음. 향후 축산 분뇨 처리기술 발전과 함께 점진적으로 시설 수 및 처리용량이 증가할 전망

다. 계획의 기본방향

■ 물환경 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환경정의 실현

- 권역단위의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추진 및 생태민감지역 오염물질 관리 강화
- 물환경 모니터링체계 선진화
- 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관리시설체계 구축
- 환경용량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 유역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물환경 관리체계 구축

- 유역 단위별로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수자원 공급과 하수처리의 통합·연계관리 등 물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 수질총량관리제 실시와 빗물이용 및 불투수면 관리를 통한 물 순환구조 개선
- 호소별 특성을 고려한 물환경 대책 마련
- 연안 및 하구지역의 오염예방·관리

■ 도민의 건강과 생태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추진

- 훼손된 도심하천 생태기능 회복과 하천 배후습지와 우수지의 보전 및 복원 시행
- 자연형 하천복원을 통한 물생태 건강성 회복
- 자원화된 축산분뇨와 연계하는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으로 전환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 유역중심의 물환경 관리정책 추진

- 수계중심적인 권역단위의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추진
 - － 대권역 및 중권역 기본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소권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수질오염도, 용수목적, 물생태 복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 상수원보호구역 및 생태민감지역 오염물질 관리강화
- 인체 건강성과 생태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유역평가기법 도입
- 유역 단위별로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수자원 공급과 하수처리의 통합·연계관리 등 물환경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 － 유역별 물환경 용량을 설정하고 허용범위 내에서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도모
 - － 수질측정망 통합관리 및 측정단계별 작업절차 표준화
- 수질총량관리제 정착 및 확대
 - － 금강수계의 수질총량관리제도가 정착(충남면적의 44.6%, 3,845.5km²)되도록 함.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차질 없이 추진('06~'10), 제2차('11~'15) 및 제3차('16~'20)계획기간 동안 공공수역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유지

- 삼교호수계의 수질총량관리제도 도입(충남면적의 19.4%, 1,668km²)
- 충남 수질총량관리센터 설치('07)
- 빗물이용 및 불투수면 관리를 통한 물 순환구조 개선
 - 빗물의 이용은 하천홍수 예방기능, 수돗물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있어 법 규정 이외의 가정, 학교, 군부대, 공단 등에 실시하여 생활용수, 청소수, 정원용수, 화장실용수 및 농업용수 등 상용화 실현¹⁾
 - 유역의 물 순환기능 제고를 위해 계획단계부터 불투수면 개선을 통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유도
 - 빗물유출수가 지하로 침투하기 쉽도록 침투도랑, 침투포장, 침투통, 우물 등 다양한 시설 설치 사업
 - 저류지를 이용한 빗물유출수 관리
 - 도시화된 지역의 불투수면 완화 및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유도
 - 수질관리시설 등 방류수 재이용 대상시설과 재이용비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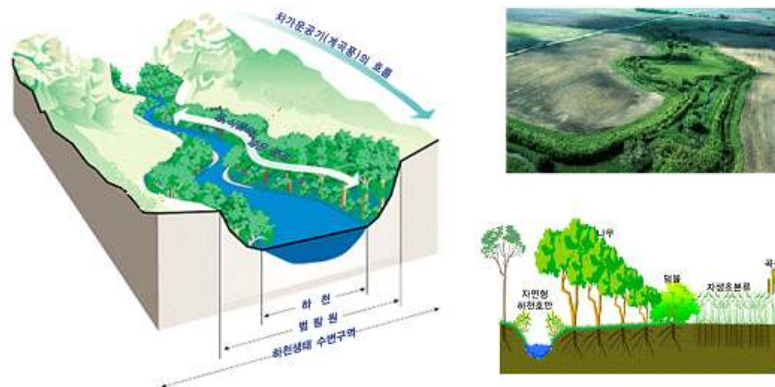
■ 자연형 하천복원을 통한 물생태 건강성 회복

- 생태민감 지역 생물서식 상태 및 주변 환경조사
 - 물의 흐름을 막는 보·저수지·댐 현황, 하천변 개발현황, 직선화, 모래·자갈 등 골재채취 실태, 취·배수현황 등 조사
 - 수변에 산재해 있는 소, 여울, 습지 분포, 수변식생, 수변토지이용 조사 등
 - 관련기관 간에 물생태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조사분석 기반 조성
- 물생태 건강성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물생태 건강성에 대한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하천별 물생태지도 작성
 - 자연형 하천복원, 하천 배후습지, 수변녹지 조성 등 물생태계 건강성 복원을 통합하는 기본계획 수립
 - 시가지 지역에 위치한 하천과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오염하천에 우선 반영하여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
 -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운영중인 지침을 하나의 하천관리 지침으로 통합·운영
 - 하천 경작지 점용허가 연장 불허 및 신규 점용허가 금지를 검토
 - 물생태 복원방법에 대한 타당성조사·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 마련

1) 「수도법」에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과 같이 넓은 지붕면적(2,400m² 이상)을 차지하는 시설물은 일정규모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 하천 배후습지 보전 및 복원
 - 기존 하천 배후습지 및 유수지에 대한 개발·훼손 방지대책 마련
 - 하천 배후습지와 유수지를 습지보호지역·생태계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 금강 및 삼교천 주변과 주요하천의 제내지(농경지 등)를 수변생태벨트(Riverine Ecobelt) 조성

〈그림 II-55〉 수변생태벨트 조성 모범사례



자료 : 환경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2006.

- 훼손된 도심하천 생태기능 회복과 복원 시행
 - 생물서식 상태 모니터링 및 주변 환경조사
 - 수질환경기준에 의한 평가와 서식환경, 물의 흐름, 하상형태,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정성 지표개발
 - 도심주변 하천 수변생태벨트 조성 및 도심하천 정화사업 추진
 - 도심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량확보 시책 강구 및 물생태 안정성 복원사업 본격시행
 - ※ 하수처리구역 내 아파트 단지, 공공건물, 산업시설 등 하수 발생량이 많은 시설 등은 기존 처리시설을 보강하여 하천으로 직접방류(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농도기준 이하)
- 물환경 모니터링체계 선진화
 - 새로운 권역구분, 수질환경기준과 물환경정책에 따른 측정망 재편
 - 측정지점, 측정항목, 측정시기 및 횟수, 측정방법 등에 대한 전면 검토를 통해 국가, 충남도 및 각 시군의 측정망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수질총량관리제의 단위유역 등을 고려하여 유량 측정망을 연계 운영하고, 물환경 정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측정망을 정비

- 배출시설과 정수장, 자동측정망을 연계한 통합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 구축
- 물생태계 측정망을 구축, 생태적 보전이 시급한 지역에 대한 생태손상도 평가, 물생태 복원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물환경 모니터링의 다원화

■ 호소별 특성을 고려한 물환경 대책 마련

- 호소의 용도, 주요 오염원, 생태적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관리대상 호소를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호소보전대책 수립
 - 상수원 호소, 농업용 호소 등 호소의 이용목적에 따라 목표수질 설정, 규제 차등화
 - 호소의 주요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원별 특성에 맞는 수질보전대책 수립
 - 생태적으로 중요한 호소는 우선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별도대책 강구
- 이용목적 상실호소의 활용 다원화
 - 휴경, 경작지의 감소 등으로 조성목적을 상실한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농림부와 협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상수원수, 공업용수, 하천 유지용수 공급 등으로 이용목적 다원화 방안 검토
 - ※ 수질이 상수원수 용도에 적합한 농업용저수지의 상수원수 및 공업용수 활용 근거 마련
 - 하류부 수질개선을 위한 농업용저수지의 하천유지용수 공급방안 마련
- 호소별 사전 오염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 상수원 호소 영향권역내 오염물질 관리 강화
 - 상수원호소 상류부 하천부지 경작지 관리 강화
 - 오염물질이 집적되는 호소 전이대에 수질개선 저류조(pre-dam)를 설치하여 수위 안정 및 오염물질을 제거, 상류부 생태계의 안정화 및 호소 상류 하천의 수질개선 도모
 - 친환경적 호소 관리 및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낚시제한 지역 확대
 - 수위변동이 심하여 생태적으로 사막화된 호안부에 수초재배지를 조성하여 오염물질 제거 및 생태공간 창출

■ 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관리시설 체계 구축

- 자원화된 축산분뇨와 연계하는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으로 전환
 - 비료사용량을 합한 가축양분총량과 농경지 면적을 감안하여 지역 내 양분 허용량을 산정관리 하는 읍면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 확보된 농경지의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초과량에 해당하는 사육두수 조정명령 또는 농경지 추가확보 증명제 등 도입 검토
- 축분퇴비의 펠렛화 시설 설치 지원 검토 및 액비 살포기술 개발
- 자원화되지 않은 지역과 가축분뇨 다량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
-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도심 및 주변 지역, 하천 주변지역, 생태민감지역 등)
- 수질관리 시설투자 합리화 및 운영관리체계 구축
 - 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하수관거 누수에 의한 토양·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하수처리장의 적정 유입유량을 유지
 - 지자체 또는 단위유역별로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등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 하수처리시설 부족지역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시설 지속 확충 및 하수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 본격 시행
 - ※ 읍면 단위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로 하수처리인구율을 75%이상 달성('10년 까지)하고, 100호 이상 밀집지역의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로 하수처리인구율 85%이상 달성('20년 까지)
 - 하수처리시설이 입지하기 어려운 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원(음식·숙박업소·목욕장업소·종교시설) 등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개별 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효율 향상 및 노후시설 연차적 개선 추진('06~)
 - 환경기초시설의 유역관리 기반 구축
- 산업체 폐수관리시스템 선진화
 - 산업폐수 특성 및 최적 처리기술, 인접 하천·호소의 용수 목적, 오염총량제 등을 고려한 업종별 또는 개별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 고농도 및 다량의 유기물질 발생업소 집중관리하고, 유역 물환경을 고려한 탄력적 허가제도 개선
 - 현장감시 중심의 지도·점검을 원격실시간 감시체계(TMS)로 전환
 -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환경감시제도 활성화
 -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되 업종별·유역별로 차등화 검토

■ 비점오염물질 관리 강화

- 환경용량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 도시지역, 공장지역 등 다량의 비점오염물질 발생원에 대하여 충남의 특성에 맞도록 집중적인 관리대책 마련

- 신규사업과 기존 지역·시설에 대한 차등화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도입방안 강구
- 발생경로에 따른 비점오염원 저감 및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환경용량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강구
 - ※ 비점오염 발생 및 배출 경로에 따라 ①발생단계 사전예방대책, ②하천 유입 전 차단·저감대책, ③공공수역 유입 후 저감·처리대책 등을 수립·추진
- 초기 강우시 비점화된 수질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출을 억제하거나 비점오염물질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관리
 - 도심지역: 하수관거의 수밀화, 나대지에 식생조성, 단지개발 지역 초기강우 저류지 설치 및 완충지대 설치
 - 농업지역: 환경친화적 경작실시, 농약비료의 사용량 및 살포횟수를 감소
 - 축산지역: 축산분뇨·축사관리 철저, 강우가 축사내로 유입되지 않고 우회되도록 방지턱, 도랑 등을 조성하고 하류지대에 식생여과대, 저류지 등의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 또한 방류수로에 수생식물(미나리, 부들 등) 등 수생식물 식재
 - 공장지역: 사업장의 원료·생산품 보관 철저 및 안전사용 준수, 건설공사장의 철저한 관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무 부과
- 비점오염물질이 용수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
 - 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 도로변, 주차장 등 토지이용 형태별로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 비점오염원의 영향이 큰 대표적인 소하천을 최적 관리모델 대상지역으로 선정, 저감시설 집중 설치 추진

■ 연안 및 하구지역의 오염예방·관리

- 연안 및 해양오염 방지를 통한 수산업의 생산성 유지
- 연안관리계획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시행방법 정립
- 연안해역 통합환경관리 체계 조기 정착
 - 연안 및 하구환경의 '통합적 연안관리' 강화 및 수질환경관리의 협력체계 구축
 - 「연안관리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안통합관리의 실효성 제고
 - ※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배후 육지부에 용도지역제 도입을 검토·추진하여, 연안 공간의 조화로운 이용체계 구축, 해양환경개선사업 연안통합관리체계 마련

- 연안해역 오염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확대를 위한 관련법령의 정비 건의
- 지방자치단체의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시행
 - ※ 보전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환경생태계 보호,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 오염부하 적정관리,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등 선계획 후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
- 연안 수질개선 및 사전예방대책 강구
 - 수질악화 해역을 특별 관리해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청정해역을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관리
 - 연안개발사업 시행시 대체생태계 조성을 법제화하고,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
 - 연안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갯벌보호 대상지역의 지정 및 연안습지 관리
- 반폐쇄성 수역 등의 육상기인 오염관리 강화
 - 연안환경의 수질총량관리제를 위한 타당성 조사
 - 반폐쇄성 연안수계 하수처리율 향상 우선 추진
 - 토지이용 관리, 산업단자유역 등 해양수질오염방지, 해양폐기물 투기 방지
 - 연안 중소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하천정비사업 추진
- 연안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처리
 - 유류유출사고 등에 의한 해양생태계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해상안전 체계를 강화
 - 해양폐기물 집하장 확대 설치하여 해상에 무단 투기되는 폐어망·폐어구 등 어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집중 수거
 - 연안지역의 폐기물 및 퇴적물에 대한 지속적인 준설 실시
- 대형담수호 기능규모의 적정성 재검토(금강호, 삽교호, 간월호, 부남호 등)
 - 특성별 호소관리방안 수립

〈표 II-141〉 물환경분야의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사업
유역중심의 물환경 관리정책 추진	유역통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권역별 기본계획 수립(2008~2015) · 유역별 통합물관리체계 구축계획 수립 · 수질측정망 통합운영관리 및 정비
	수질총량관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수계(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3,845km²) · 삼포호수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668km²)
	물순환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력적 폐수배출허가제도 도입 · 빗물이용 상용화 사업추진 · 불투수면 개선을 통한 환경친화적 토지관리 · 환경기초시설 등 방류수 재이용 대상시설과 재이용비율 확대
자연형 하천복원을 통한 물생태 건강성 회복	자연형 하천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형 하천조성사업(도내 일원, 기정 25km, 미정 50km)
	하천 배후습지 보전 및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 및 삼포천 주변과 주요하천의 제내지 수변생태벨트(Riverine Ecobelt) 조성 · 도심관류 하천 생태적 집중 복원 · 수질환경 우수마을 선정 육성
호소별 특성을 고려한 물환경 대책 마련	호소수질측정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보완계획 수립 추진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대상 호소 선정 · 이용목적 상실호소의 활용 다원화 · 호소별 물환경관리방안 마련 · 낚시제한 호소지정 확대
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물질관리시설 체계 구축	하수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종말처리시설(16개 시·군) · 하수관거설치(16개 시·군, 1,000km) ·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축산폐수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18개소)
	폐수종말 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21개소)
	분뇨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뇨처리시설공사(51개소)
	오수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지원(114개소)
	양분총량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시스템으로 전환 · 읍·면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 축분퇴비의 펠렛화 시설설치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 관리강화	비점오염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점오염물질처리시설 설치(15개소) · 생태민감지역의 비점오염원 중점관리지역 지정
연안 및 하구지역의 오염예방·관리	연안통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시행 · 연안환경관리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 갯벌보호구역 지정 및 연안습지 관리 · 대형담수호 기능 및 규모의 적정성 검토
	연안오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유출사고 등 해상안전 체계 강화 · 침체어망 인양(서해연안, 13,983톤) · 양식어장 정화(서해연안, 80,550천m²) · 항포구쓰레기 수거(서해연안, 12,630톤)

4. 폐기물의 과학적 관리와 재활용기반 구축

가. 현황과 문제점

■ 폐기물 발생배출 특성의 안정화

-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은 증가 후 안정추세 유지
 - 처리방법으로 매립은 감소, 소각은 증가, 재활용은 안정증가 추세 유지
- 사업장폐기물은 경제활성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매립은 감소, 재활용과 해양투기는 증가, 소각은 일정수준 유지
- 하수처리율 향상에 따라 하수슬러지 발생량 증가
 - 하수슬러지의 발생은 증가하나 해양투기 규제 강화로 처리가 어려움

■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민원 상존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의 민원 제기
-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계획 수립의 어려움이 여전함
- 폐기물 처리기반 시설의 부족을 초래하는 등 악순환의 반복
- 폐기물 부적정 처리는 도민의 삶의 질 하락 및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저해요소로 작용

〈표 II-142〉 생활폐기물 발생배출 및 처리현황(2000~2004)

구 분	배출량 (톤/일)	처리량(톤/일)			
		소 계	매 립	소 각	재활용
2000	1,602	1,602	823	127	652
2001	1,656	1,656	753	194	709
2002	1,754	1,754	658	367	729
2003	1,798	1,798	682	378	738
2004	1,745	1,745	652	347	746
연평균변화율 (%)	2.2	2.2	-5.2	43.3	3.6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표 II-143〉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발생배출 처리현황(2000~2004)

구 분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톤/일)					건설폐기물(톤/일)			
	발생량	매립	소각	재활용	해양배출	발생량	매립	소각	재활용
2000	8,152	3,545	362	4,157	88	3,739	195	178	3,366
2001	8,805	3,772	324	4,619	90	6,628	131	194	6,303
2002	9,133	2,331	306	6,438	59	5,944	155	253	5,537
2003	9,782	2,651	375	6,606	149	6,199	119	391	5,689
2004	12,215	2,481	309	9,155	270	7,504	119	400	6,986
평균	9,617	2,956	335	6,195	131	6,003	144	283	5,576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표 II-144〉 충남 시·군별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2004)

시·군	처리장	시설 용량 (천톤/일)	하수 슬러지 (톤/일)	해양 투기	매립	재이용		
						소계	녹생토	퇴비화
합 계		446.0	194.7	110.0	1.2	83.8	82.3	1.5
천안시	천안	150.0	94.0	45.0	—	49.0	49.0	—
공주시	공주	30.0	14.2	7.9	—	6.4	6.4	—
보령시	보령	30.0	8.4	8.4	—	—	—	—
아산시	아산	36.0	17.3	16.6	—	0.8	0.8	—
서산시	서산	30.0	10.6	—	—	10.6	10.6	—
논산시	논산	20.0	3.0	—	—	3.0	2.5	0.5
계룡시	계룡	27.0	7.4	7.4	—	—	—	—
금산군	금산	10.0	6.0	—	—	6.0	6.0	—
연기군	조치원	20.0	6.1	—	—	6.1	6.1	—
	전의	2.0	0.4	—	—	0.4	0.4	—
부여군	부여	15.0	2.4	2.0	—	0.5	0.5	—
청양군	청양	3.2	1.0	—	—	1.0	—	1.0
홍성군	홍성	17.0	8.5	7.3	1.2	—	—	—
	광천	5.0	—	—	—	—	—	—
예산군	예산	22.0	4.7	4.7	—	—	—	—
	덕산	3.2	0.1	0.1	—	—	—	—
태안군	태안	9.0	1.8	1.8	—	—	—	—
	안면	1.6	0.4	0.4	—	—	—	—
당진군	당진	15.0	8.4	8.4	—	—	—	—

자료: 환경부, 하수슬러지 발생 및 처리자료, 2005.

나. 여건변화와 전망

■ 폐기물에 대한 인식변화와 입지 갈등

- 폐기물에 대한 도민의 인식 변화
 - －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하여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
- 그러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환경악화 및 재산상의 가치 하락 우려
 - －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처리기술의 정립이 필요
- 안전한 시설계획, 설치, 운영과 함께 공동체 유대의식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의 병행을 통해 사회적 합의 형성이 중요

■ 폐기물의 지속적인 발생량 증가

- 지속적인 산업단지 증설확충, 도청이전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라 인구의 증가와 산업활성화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배출의 증가 전망
 - － 생활폐기물은 2005년 1,788톤/일에서 2020년에 2,432톤/일, 사업장 폐기물은 2005년 14,053톤/일에서 2020년에 18,652톤/일로 연평균 1.7~2.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폐기물 안전처리 기준 강화

- 폐기물의 안전처리 기준 강화 및 하폐수 슬러지의 해양투기의 금지 등 국제 환경레짐의 강화 추세
 - － 런던협약 의정서 발효(2006. 3)에 따라 유기성 오니의 해양배출 기준이 강화되고,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금지 입법추진 예정

다. 계획의 기본방향

■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와 안전처리

-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로 환경부하 경감
-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회수시설, 에너지 및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자원으로 회수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 불연성 폐기물 등 경제적·기술적으로 처리가 곤란한 것은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처분하여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관리
- 중간처리 및 안전한 처분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갈등 해소

- 주민참여형 제도의 정착과 경제적 유인보상책 제공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재활용 기반조성을 위한 관리·수거체계 정비

- 폐기물 발생단계부터 감량시책
 - 도심 폐기물 배출지역, 사업장별 감량목표 설정(감량 달성지역 인센티브 제공)
 - 환경친화적 공정개발 및 재활용 가능한 제품산업 집중 육성
 - 특정산업의 배출물을 다른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복합산업 구조인 생태산업단지 클러스터 형성
- 폐기물 수거체계의 정착과 재활용 기반 조성
 - 재활용품, 음식쓰레기, 가연성, 불연성 등 지역별 관리체계에 맞는 분리수거체계 정착
 - 재활용 생활화를 위한 「환경교육 센터」를 생태환경 체험교육장과 연계 운영
 - 지역의 산업여건과 배출특성을 고려하여 신산업단지 조성지역 인근에 재활용단지 에코타운 조성으로 환경자원 순환의 기반 구축

■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관리기반 확충 및 정비

- 음식쓰레기 처리 및 관리시설 기술개발
 -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한 음식쓰레기 발생량·수분함유량 최소화 정책
 - 지역단위별 가축사료 수요량에 적합한 수거체계도 작성
 - 남은 음식쓰레기 퇴비화 및 연료화를 위한 기술 개발
- 폐기물 중간처리의 활성화
 - 선별, 압축, 파쇄 등 중간처리를 통한 폐기물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 기여

- 유기성 폐기물의 사료화 및 연료화(RDF) 실현
-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 및 열분해로 감량화 및 무해화 도모
- 폐기물관리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시설 확충으로 매립량 최소화
 - 광역 자원순환단지 시설은 사업성 보장을 전제로 하는 민자유치 사업(BTL 등) 추진 등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
 -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광역기반시설은 지역간 각 기능의 상호 공여와 분담분업화(intravation)로 규모의 경제성 도모
 - 기존 비위생 매립시설은 안정화 적정공법으로 재정비하여 토양환경 복원과 지하수 오염방지

■ 폐기물 안전처리 기준 강화에 따른 하·폐수 슬러지 처리 기반시설의 구축

- 2012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2011년까지 슬러지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재원조달 대책 추진
- 하·폐수 슬러지로 인한 2차 오염의 예방
 - 직매립금지 정책의 기초에 따라 다양한 중간처리와 재활용방법 적용
 - 하·폐수슬러지의 발생량이 적은 지역은 기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혼합 소각

■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갈등 해소 및 계획관리

- 신도시 건설 및 공공시설의 입지시 자원회수시설을 사전 입지시설 계획단계에 반영하여 사후입지에 따른 민원제기와 및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
 - 폐기물 수거, 운반, 선별, 처리에 대한 최신�기술(state-of-the art technology)의 적용으로 원천적인 주민불신 해소
-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 구조의 제도화
-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관리 계획 수립 추진으로 환경거버넌스 구축

〈표 II-145〉 폐기물 분야의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사업
폐기물 걱정관리체계 확립	폐기물의 발생 및 수거관리체계	· 폐비닐, 농약병 수거비 지원(16개 시·군)
		· 공공재활용센터 지원(16개 시·군)
	재활용 기반 조성	·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11개소)
		· 재활용단지 에코타운 조성(1개소)
	폐기물처리 및 광역자원순환 단지 조성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공공시설(7개소)
		· 소각시설 설치(9개소, 시설용량 : 725톤/일)
		· 매립시설 설치 및 기존매립지 정비(매립지 11개소, 비위생매립지 3개소)
하폐수 슬러지 처리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 설치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7개 시·군, 260톤/일)

5. 재해에 강한 안전충남 조성

가. 현황과 문제점

■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 및 자연재해에 의한 재산피해

- 1996~2005년간 충남의 인명피해는 주로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자연재해에 의해 발생
 - － 자연재해로 48명(사망 및 실종)의 인명 피해를 입었으며 교통사고로는 221,166명(사망 8,740명)이 피해를 입었고 화재로는 935명(사망 282명)이 피해를 입었음
 - － 자연재해 피해액은 1,080,363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 재산피해액은 198,972백만원,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86,573백만원으로 나타남

〈표 II-146〉 최근 10년간 자연재해피해와 인위재난피해 비교(1996~2005)

구분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인명(명)	재산(백만원)	인명(명)	재산(백만원)	인명(명)	재산(백만원)
1996년	0	18,538	24,696		88	8,327
1997년	1	35,592	21,654	32,857	77	7,783
1998년	22	100,306	22,929	32,771	74	11,199
1999년	6	90,141	30,834	36,764	74	10,797
2000년	3	53,337	22,567	25,215	85	11,362
2001년	0	246,062	21,486	30,904	110	10,976
2002년	2	84,014	17,700	19,382	133	9,136
2003년	9	42,411	17,674		115	8,859
2004년	4	372,866	16,150	21,081	93	8,134
2005년	1	37,096	15,476		86	
합계	48	1,080,363	211,166	198,972	935	86,573

주: 2005년도 환산가격기준

자료: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해당년도.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해당년도.

1) 자연재해 현황 및 대응실태

■ 상대적으로 자연재해 안전지역

- 1996년~2005년 충남의 자연재해 피해액은 전국 대비 5%의 비율로 충남은 비교적 자연재해 안전지역임

〈표 II-147〉 최근 10년간 충남 자연재해 피해액 추이(1996~2005)

(단위: 억원, %)

구분	전국	충청남도	비중
1996	6,180	185	3
1997	2,352	356	15
1998	17,378	1,003	6
1999	13,678	901	7
2000	7,094	533	8
2001	13,875	2,461	18
2002	67,749	840	1
2003	47,778	424	1
2004	12,567	3,729	30
2005	10,498	371	4
합계	199,149	10,804	5

주: 2005년도 환산가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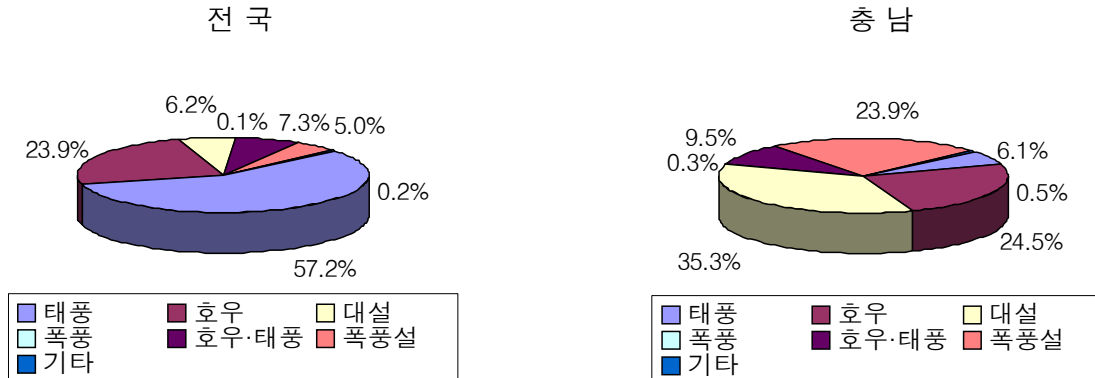
자료: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해당년도.

■ 상대적으로 많은 호우·대설·태풍에 의한 피해

- 전국적으로는 태풍과 호우 피해가 8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충남은 호우와 대설이 5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호우·태풍의 경우 9.5%를 차지
- 자연재해 원인별 피해액은 대설이 총 피해액의 35.3%로 가장 많고, 호우가 24.5%, 폭풍설이 23.9%를 차지¹⁾

1) 대설피해가 높은 것은 2004년 폭설 당시 대설피해가 충남의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97%를 차지하였기 때문임

〈그림 II-56〉 자연재해 발생유형(피해액 기준)



〈표 II-148〉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원인별 피해액 합계(1996~2005)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태풍	호우	대설	폭풍	호우·태풍	폭풍설	강풍	기타
전국	199,149 (100.0)	113,918 (57.2)	47,616 (23.9)	12,397 (6.2)	103 (0.1)	14,534 (7.3)	10,040 (5.0)	93 (0.05)	448 (0.2)
충남	10,804 (100.0)	655 (6.1)	2,652 (24.5)	3,815 (35.3)	31 (0.3)	1,023 (9.5)	2,579 (23.9)	-	49 (0.5)

주: 2005년도 환산가격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재해연보, 해당년도

■ 지역특성에 따른 시·군간 상이한 자연재해

- 최근 10년간 부여군, 공주시, 논산시, 당진군 등이 타 시·군에 비해 피해가 컸음
 - 침수피해는 당진군, 태안군, 부여군이 컸음
 - 건물피해는 천안시와 당진군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산업단지 입지에 의한 급격한 도시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삽교천 하류부인 당진은 충남 피해액의 11%에 달하고 있음. 금강 하류부인 논산과 부여 역시 충남 전체 피해액의 28%를 상회하고 있음. 특히, 서해안 지역과 금강유역은 전국에 비해서도 강우량이 높아 주변지역의 홍수 위험이 높는데 기인함

〈표 II-149〉 최근 10년간 충남 시군별 자연재해 피해현황(1996~2005)

(단위: 명, 천㎡, 백만원)

	인명피해 (명)	침수피해 (천㎡)	건물피해 (백만원)	선박피해 (백만원)	농경지침수 (백만원)	공공시설피해 (백만원)	기타피해 (백만원)	총피해액 (백만원)	비율 (%)
충청남도	48	767,437	9,546	1,101	32,360	337,544	699,817	1,080,367	100.0
천안시	2	25,808	906	—	844	27,294	32,007	61,053	5.7
공주시	6	26,185	915	1	787	18,230	97,027	116,960	10.8
보령시	—	52,459	430	148	1,042	17,874	15,587	35,081	3.2
아산시	2	44,747	551	10	793	25,782	40,414	67,550	6.3
서산시	2	58,002	617	87	730	18,235	13,788	33,457	3.1
논산시	2	55,425	527	—	689	19,672	116,066	136,954	12.7
계룡시	—	75	31	—	—	1,717	2,959	4,707	0.4
금산군	8	12,096	590	—	14,417	40,500	14,205	69,712	6.5
연기군	1	10,151	331	—	797	10,596	40,804	52,527	4.9
부여군	2	98,529	465	—	2,702	34,830	120,982	158,978	14.7
서천군	2	54,861	339	277	659	9,593	20,757	31,624	2.9
청양군	—	10,224	259	—	497	9,249	38,490	48,496	4.5
홍성군	1	30,409	287	50	570	18,936	29,994	49,837	4.6
예산군	—	57,771	585	—	387	12,695	40,304	53,970	5.0
태안군	3	110,581	585	475	2,823	20,549	18,775	43,208	4.0
당진군	17	120,117	2,127	52	4,624	51,793	57,658	116,254	10.8

주: 2005년도 환산가격기준

자료: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해당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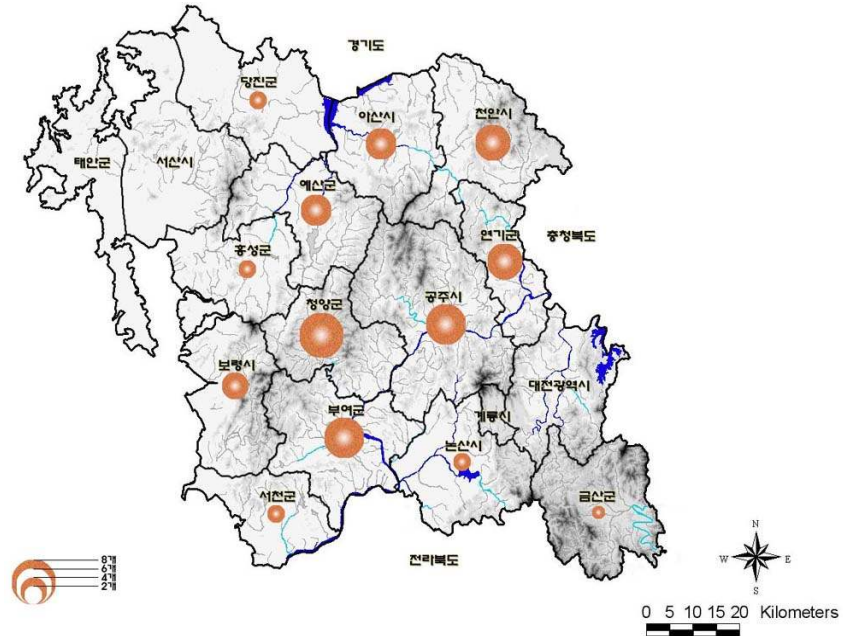
■ 자연재해 방지대책 현황

- 2006년 충청남도에는 57개소의 자연재해위험지구²⁾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55개소는 침수위험지구이며 2개소(천안시 부성, 성환)는 유실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음
 - 2006년 기지정된 47개소 자연재해위험지구가 해제되었으며 총 2,22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음

2)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상습침수지역·산사태 위험지역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함.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천재 등 외력의 영향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방재시설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의미함.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유형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로 구분함.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대부분은 제방을 축조하는 데에 치중하여 다양한 치수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배수펌프장이나 제방위주의 구조적 치수대책과 토지이용 등을 활용한 비구조적 치수대책과의 균형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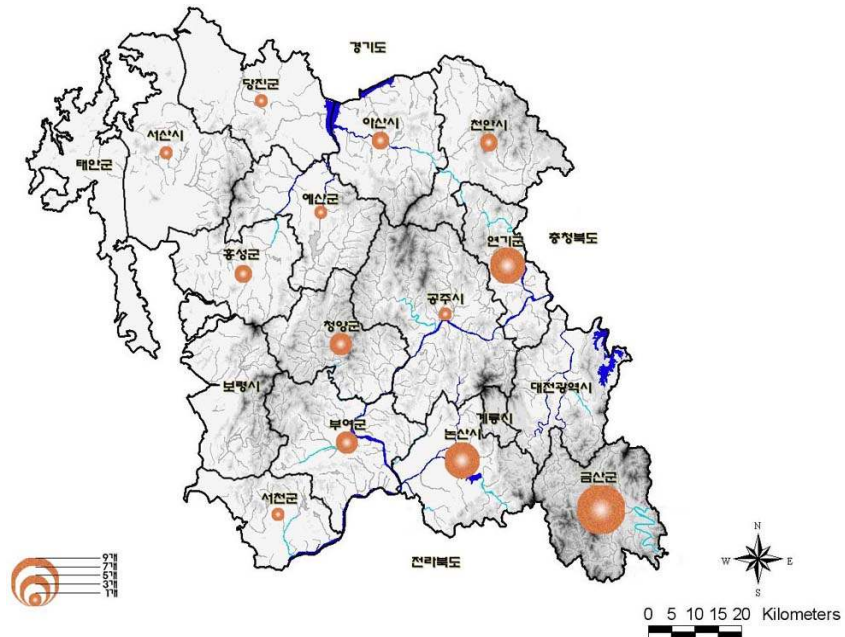
〈그림 II-57〉 자연재해위험지구 분포도



-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자연재해의 사전예방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 충청남도 내 하천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은 9개이며 개수율은 97%, 지방1급 하천은 11개이며 개수율은 92%, 지방2급 하천은 526개에 달하며 개수율은 84%에 달함. 반면, 소하천의 경우 2,396개소에 달하나 개수율은 33%에 불과함
 -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6,532억원을 투자하여 3,406km에 달하는 소하천을 정비. 2006년의 경우 66개 지구 45km에 대해 216억 투자
- 수해상습지구 관리³⁾로 충청남도에는 38개 지구(하천 연장 135km)에 대해 2,24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됨

3) 수해상습지구는 하천의 미개수 및 통수단면 부족 등 외수침수로 인해 홍수피해가 3~4년에 1회이상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의미함.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수해상습지의 외수침수를 막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제방을 축조하는 사업으로, 제3단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1999~2004)은 지방2급 하천을 대상(지방1급 하천 일부포함)으로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870개에 대해 시행중에 있음.

〈그림 II-58〉 수해상습지구 분포도



-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⁴⁾으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73개 지구 323.5km의 하천연장에 대하여 총사업비 2,278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 2005년 현재까지 5개 지구에 대해 사업이 완료되었고 11개 지구는 추진 중이며 향후 57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

2) 인위재난 현황 및 대응실태

■ 도로교통과 화재에 의한 과다한 인위재난

- 최근 10년간 충남의 발생건수 대비 인위재난 유형으로는 도로교통이 87.8%로 가장 많으며, 화재가 9.0%를 차지함
- 충남의 경우 도로교통재난은 1999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지속적인 방지대책이 요구됨
- 산불과 환경오염에 의한 재난은 2000년을 고비로 감소하고 있음

4)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은 하천 내 토사의 유입 및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축소되어 홍수범람 및 제방유실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미리 개선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됨

〈표 II-150〉 최근 10년간 충남 인위재난 발생건수 및 피해액(1996~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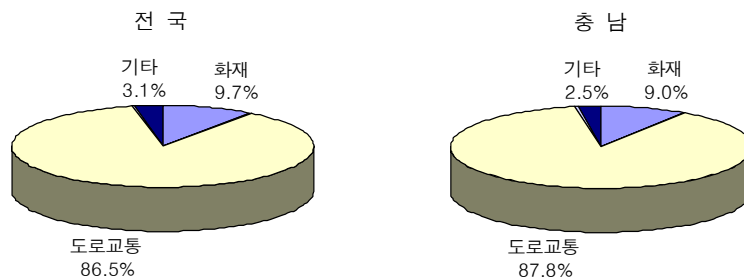
(단위: 건)

구분	계	화재	산불	붕괴	폭발	도로교통	환경오염	유도선	해난	기타	재산피해액 (백만원)
1996	17,243	892	43	2	11	16,228	5	2	34	26	19,137
1997	15,689	976	52	2	6	14,492	3	2	39	117	47,029
1998	15,114	1,154	39	2	7	13,818	8		45	41	44,793
1999	16,901	1,406	23		3	15,279	6		62	122	72,222
2000	15,524	1,457	84		10	13,809	9		56	99	37,206
2001	14,178	1,502	47		2	12,491	8		56	69	43,822
2002	11,798	1,333	45		8	10,303	6		23	80	37,024
2003	11,501	1,324	8		10	10,061	1		21	76	9,977
2004	10,912	1,390	14	4	3	9,336	2		65	98	31,279
2005	12,906	1,376	27	7	5	8,646	6		41	2,798	11,742
합계	141,766	12,810	382	17	65	124,466	54	4	442	3,526	354,232

주: 2005년도 환산가격기준

자료: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해당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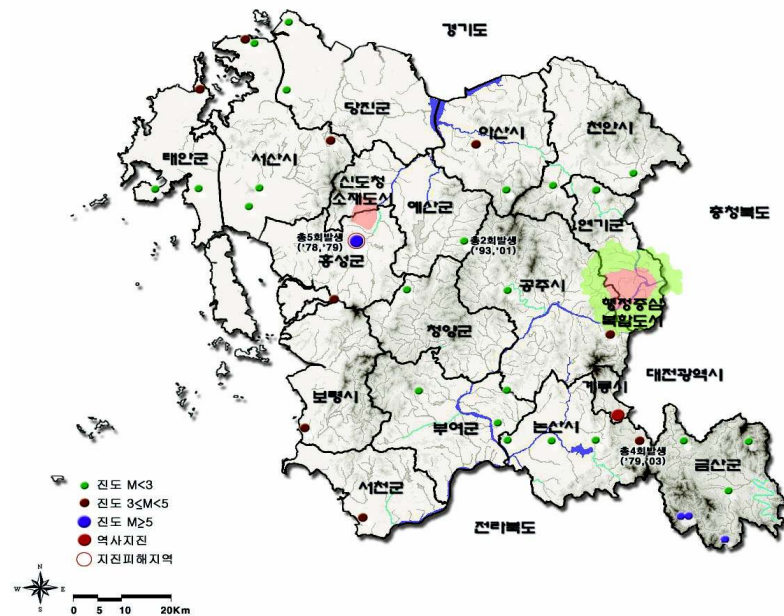
〈그림 II-59〉 전국과 충남의 인위 재난 발생유형(1996~2005)



- 기타 재해

- 지난 28년간 지진발생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논산 7회, 금산 6회, 홍성 6회, 서산 5회 등으로 나타나 충남의 경우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II-60〉 전국과 충남의 지진 발생유형(1978~2005)



■ 인위재난대책 현황

- 충남 내 특정관리대상시설⁵⁾은 2005년 12월 현재 전체 3,437개소로 시설물은 730개소, 건축물은 2,707개소임. 이중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3,416개소이며 재난위험시설이 21개소임
 - 시설물은 전체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21%이나 재난위험시설의 경우 전체 21개 중 11개(52%)를 차지하고 있어 건축물에 비해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5) 특정관리대상시설지정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지정·관리 및 정비하는 것을 말함. 이 가운데 중점관리시설(A, B, C급)은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와 이용인구 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시설을 말하며, 재난위험시설(D, E급)은 긴급히 보수·보강해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제한을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을 의미함.

〈표 II-151〉 충청남도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2005)

구 분	관리대상 시설물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합 계	3,437	3,416	1,936	1,197	283	21	17	4
시설물	730	719	242	372	105	11	11	-
건축물	2,707	2,697	1,694	825	178	10	6	4

자료: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 내부자료

- 충남 내 인위재난을 대응·관리하는 소방관서는 10개소, 파출소 36개소, 구조대 16개소가 설치되어 소방공무원 1,409명으로 운영됨
 - 소방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는 천안이 2,865명으로 가장 많고, 홍성이 868명으로 가장 적음
 - 관할면적은 공주 소방서가 1,303km² 로 가장 넓고, 아산이 542km² 로 가장 좁음

〈표 II-152〉 소방서 설치현황 (2005)

소방서	관할 시·군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면적 (km ²)	행정구역			
				계	읍	면	동
10	7시 9군	14,225	8,598	209	24	146	39
천 안	천안시	2,865	636	26	4	8	14
공 주	공주시	1,503	941	17	1	10	6
	연기군		362	8	1	7	
보 령	보령시	1,000	568	16	1	10	5
아 산	아산시	1,888	542	17	1	10	6
서 산	서산시	1,275	739	15	1	9	5
	태안군		505	8	2	6	
논 산	논산시	1,520	555	15	2	11	2
	계룡시		61	3		2	1
	금산군		576	10	1	9	
홍 성	홍성군	868	444	11	2	9	
	청양군		480	10	1	9	
예 산	예산군	1,109	543	12	2	10	
당 진	당진군	1,268	664	12	2	10	
부 여	부여군	929	625	16	1	15	
	서천군		357	13	2	11	

자료: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 내부자료

나. 여건변화와 전망

■ 대단위 개발사업과 도시화로 인한 재해위험성 증가

- 금강 유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하천 유역의 재해위험성을 가중시킴
 - 불투수층 확장으로 홍수유출량이 증가하고, 집중호우 시 하천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되어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
- 도시화에 따른 인구 및 자산의 집중으로 잠재적인 홍수피해규모가 증가
- 서북부지역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인위재난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피해증가가 우려됨
 - 태풍 피해가 충남지역을 강타할 경우 충남의 재해피해액은 이전보다 급격히 증가할 것이므로 적절한 방재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이상기후 및 집중호우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위험 증가

- 예기치 못한 이상기상, 태풍, 가뭄 등에 의한 재해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여 기존 방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재해가 빈번히 발생
- 이에 대비한 전방위 지역방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재해유형의 다양화

- 과거 자연재해의 유형은 호우 및 태풍으로 한정되었으나 최근 폭설, 태풍, 호우, 가뭄 등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 향후 지진 관련 각종 구조물에 대한 내진성능 향상 및 대피소 설계뿐만 아니라, 핵방사능 유출과 같은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재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함

■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재해대응기능의 향상

-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공위성, 이동통신 및 GIS 시스템을 활용한 방재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임
- 향후 IT기술, RS기술 및 영상처리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을 방재분야에 적용하여 재해의 사전예방 및 첨단재해경보시스템이 구축될 것임

다. 계획의 기본방향

■ 구조적인 재해대책과 비구조적인 재해대책의 조화

- 제방축조와 같은 구조적인 재해대책은 홍수피해를 일차적으로 방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제방중심의 획일적인 치수대책은 피해 잠재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따라서 구조물 중심의 공학적 패러다임을 ‘홍수터 관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비구조적인 재해대책도 함께 활용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과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르는 금강 유역의 홍수위험성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적 기법의 활용
 - 토지이용계획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저감하는 근본적인 수단임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활용하여 위험지역에 인구가 밀집하지 못하도록 규제
 - 대응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방재체계를 전환하여,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의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난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 수립
-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수해상습지구와 같은 위험지역에서의 대규모 토지이용 및 지역개발을 방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엄격한 재해영향평가제를 실시하여 대규모 지역재해·재난의 발생 가능성을 예방

■ 재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재시설의 확충

- 도시기반시설의 재해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원녹지, 도로공간 등의 충분한 오픈스페이스와 교통시설, 라이프 라인 등 도시기능을 유지시키는 시설정비를 강화
- 도시방재시설의 안전성을 강화
 - 제방, 배수펌프장 등 기존 도시방재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통해 신규 방재시설의 안전성을 제고

■ 종합적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 첨단정보통신기술을 방재분야에 응용하여 재해예측의 정확도를 제고
- 충청남도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해발생의 통합적·체계적 관리
 - 홍수, 태풍, 대형화재, 산불, 건축물 붕괴, 폭발, 가스안전사고, 전기사고, 교통사고, 해난사고 등 인위 및 자연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
 - 충청남도 종합방재센터 건물과 함께 각종 방재시설을 구비함으로써 비상시에 해당 시군으로 신속하게 지원

라. 세부추진시책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된 47개 지구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서 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의해 설치된 제방, 배수장, 배수로, 배수 펌프장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시설안전 점검을 통해 부실 공사로 인한 홍수위험을 방지
- 향후 추진 예정인 57개 지구에 대해 안정적으로 사업추진

■ 수해상습지 개선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4단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상습침수지역의 위험을 저감
- 축조된 제방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일정한 홍수방어능력을 유지

■ 방재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지침 수립

- 저지대, 상습침수지구 등은 개발대상에서 제외
 - － 재해발생위험지역의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지역 지정을 제한
- 홍수위험이 높은 지역의 대단위 도시개발의 재해가능성 예측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방, 우수지, 저류시설 등 방재시설의 설치 의무화
- 홍수시 하천으로 한꺼번에 유입되는 유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투수성 토지이용을 유도하거나 충분한 녹지 확보
- 농촌지역에서는 홍수발생시 농경지의 자연적 우수지 기능을 강화
- 산지는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유역별 산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사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임도를 개설
 - － 도시개발시 재해발생을 고려하여 과도한 산지개발을 억제
- 위험물을 분산수용하며, 대규모 사고시 피난을 고려한 방재완충지대를 설정

- 도로, 주차장, 공지,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와 시설은 재해시 피난장소이자, 재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도시개발 시 충분하게 확보

■ 풍수해 보험제도 도입

- 보험제도를 통한 재해대비로 자율적 방재체계 구축
 - 자연재해로 일순간 생활터전을 잃는 도민들을 위해 풍수해 보험제도확대 실시
 - 재해발생시 지역주민의 실질적 복구비 확보를 위한 보험금 지급 가능
 -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수령을 통한 자기책임 또는 맞춤형 자율적 방재체계 구축
 - 방재대책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으로 자율적 방재대책 수립기반 조성
- 보험제도와 도시개발을 연계하여 재해에 강한 충남 도시건설 추진
 -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경험 모델을 활용하여 위험정도에 따라 지도를 제작하고, 건축행위와 보험제도를 결합하여 운영

■ 재해예방지도 작성·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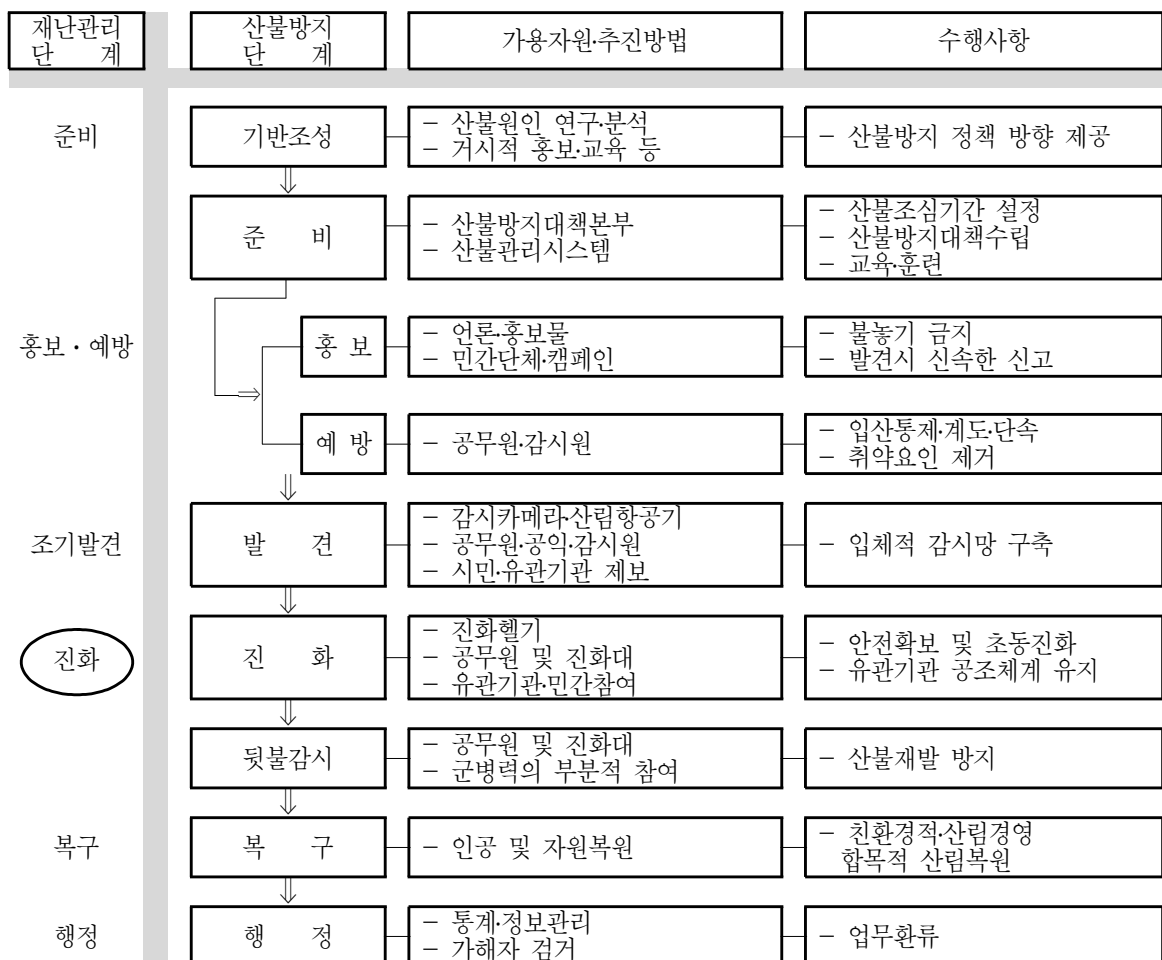
- 과거 피해사례 및 피해예상지역을 조사하여 향후 재해피해예측 및 사전대응태세를 구축
 - 재해피해도, 재해예상위험도, 주민대피도 등 방재관련 도면 작성
 - 재난관리 대상 시설의 정기적 점검 및 DB화를 통한 위험시설물 종합관리
 - 재해 발생시 신속한 주민대피 및 피해 최소화 방향 제시
- 충청남도 전역의 재해예방지도 작성
 - 우선 시범실시 지역인 논산시, 부여군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군에 대한 지도 작성
 - 재해예방지도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이력전산화 작업, 재해지도 작성, 재해통보시스템을 구축
 - 재해위험지도 상 위험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 산불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건강하고 안정된 산림자원을 유지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의 확립으로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불방지 통합시스템 구축

- 도민 홍보 강화로 인위적 산불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
- 산불의 조기발견, 헬기 및 정예화된 진화요원에 의한 초동진화 체계 강화
- 대형산불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산불통합지휘체계 구축
-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시책
 - 대형산불 또는 일일 대응능력을 초과하는 산불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
 - 산불취약지역에 산불진화를 위한 진입도로, 담수시설, 취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
 - 산불담당 조직의 보강 및 전문인력 확충
 - 진화장비의 과학화·현대화(산불진화차 확보,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 휴대용 무전기, 임차 헬기 등)

〈그림 II-61〉 산불관리 통합시스템



■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특정관리 대상시설 및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대책 강구
 - 대산 석유화학단지, 도청이전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시설 관리 실시
 - 재난예방을 위한 정기·수시·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실시
 - 도로, 가스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정비
-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 실시
 - 시설물별 소관업무 담당관리 책임자 지정 및 점검자 실명제 시행
 - 건축주·시설주·관련협회 책임자 등을 근접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
 - 계절별 재난발생 특성을 반영한 중점점검 대상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표 II-153〉 계절별 중점점검 대상시설

계 절 별	중점점검 대상시설
해 병 기 (2~3월)	· 절개지, 축대·옹벽, 건설공사장, 공동주택 등
행 락 철 (4~5, 9~10월)	· 유도선, 유원시설, 신종업종, 종교시설 ·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등(판매, 숙박, 여객, 공연시설 등)
하계휴가철 (6~8월)	· 도로시설, 관람·전시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등
동 절 기 (11~익년2월)	· 주점 등 위락·휴게시설, 가스 등 위험물질 취급시설 · 스키장, 비디오·게임 제공업 등 ·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등 (판매, 숙박, 여객, 공연시설 등)

■ 소방 인프라 확충

- 소방관서 증설 등 소방력 확충을 통하여 도민의 안전욕구 증대에 부응
 - 「제8차 소방력 보강계획(2007~2011)」에 의하면 4개의 소방서, 27개의 파출소, 2개의 구조대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을 증원하여 3교대 근무인력 확보
 - 도시개발 시 소화전 설치를 의무화 하여 화재발생시 필요한 소방장비를 간소화하고 재난대응의 신속성 확보

- 소방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복잡화·다양화된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
 - 노후 소방차량의 교체를 통한 현장대응능력 제고
 - 고층건물 인명구조 및 위험물 화재에 대비한 특수소방차량을 확보하여 복잡화된 재난발생에 대비
- 소방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 재난신고 접수 및 처리, 종결 등 전과정을 전산화하여 신속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난현장 대응능력 제고
 - 과학적인 자료수집·분석 및 환류를 통해 역동적인 소방조직을 운영
 - 주 전산기를 도입하여 현장활동 정보지원 DB 구축
 - 각종 장비, 배치부서, 내구 년수, 이용 현황 등의 장비관리 DB 구축
 - 소방공무원에 대한 비상소집 시스템 구축
 - 재난현장 사진처리 시스템 개발 및 실시간 정보파악대응

■ 충청남도 종합방재센터 건립

- 충청남도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을 통합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충청남도 종합방재센터를 건립
 - 자치단체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위재난과 자연재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
 - 홍수, 태풍, 대형화재, 산불, 건축물 붕괴, 폭발, 가스안전사고, 전기사고, 교통사고, 해난사고 등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충청남도 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설치
 - 현재 이원화된 재해관리시스템을 도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에서 일원화 하여 전산관리
 - 종합방재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체별 방재시스템과 도 종합방재센터와의 비상연락망을 통한 긴밀한 연계 시스템 구축
 - 「119종합안전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one-stop 서비스 시스템으로 연계처리
- 도민 안전체험장 설치
 - 화재, 가스, 지진, 풍수해 등 각종 재해·재난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시 위기 극복능력을 제고

- 「소방안전타운」을 설립·운영하여 도민들의 안전문화를 생활화하고 체험식 교육시설과 소방관련 부대시설물을 설치하여 교육효과를 강화
- 재난 대응, 방재교육, 홍보 등 체계적 방재대응 교육프로그램 수립
 - 재난 발생시 대처할 표준행동요령, 재난예방을 위해 주민들이 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방재교육 실시
 - 모든 사고의 초기대응요령과 안전교육 실시
 - 대피소의 지정·관리·홍보를 통한 피해 최소화 방안 수립
 - 재해예방지도 활용과 관련한 주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주민 재해대응능력 제고
 - 「충남 안전관리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재해·재난, 소방안전, 교통안전, 학교안전 등 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 및 안전정책 개발의 기반을 마련
 -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시·군의 안전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시·군 안전평가제도 확립
- 재해정보 전달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상호지원시스템 구축
 - 종합방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강우량, 재해위험상황, 주민행동요령 실시간 제공
 - 재해유형 및 분야별 행동요령의 매뉴얼 구축
 - 실시간 재해발생 자료제공으로 재해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 제고
- 비상재해 구호체계 구축
 - 대규모 재해 등에 대비하는 비상재해발생 대응훈련 의무화
 - 중소형 항공기, 헬기를 이용한 환자 긴급수송체계 및 재난구조체계 구축
 - 도농 복합지역의 소방 사각지대인 읍·면 지역의 안전을 위한 의용소방대 육성 및 활성화

〈표 II-154〉 방재 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치수방재	구조적인 재해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57개소) · 4단계 수해상습지 개선(25개소) ·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73개 지구) · 소하천정비(66개 지구)
	비구조적인 재해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해보험 제도 확대(16개 시·군으로 확대) · 재해예방지도 작성(16개 시·군으로 확대) ·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 방재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소방안전	소방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환경 개선(노후청사 신·개축, 장비교체) · 첨단 재해경보시스템 장비 구축(1식) · 산불예방장비 구축(진화차 224대)
	충남 종합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연구센터(1식) · 119종합안전정보센터(1식) · 종합방재센터 설치(1식) · 시·군 안전평가제도

	제Ⅲ편
계획의 집행과 관리	
	제1장 행정계획 제2장 재정계획

제1장 행정계획

1. 미래지향적 자치역량 확보

2. 지역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협력적 지역개발

3. 국제교류 및 국제통상의 활성화

1. 미래지향적 자치역량 확보

가. 현황과 문제점

■ 지역의 자생적 발전 계기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무원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지역의 미래를 설정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경영마인드를 토대로 창의성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려는 분위기 확산
 - 지역경제발전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어 지역여건과 특색을 살린 지역발전계획 수립, 추진

■ 행정서비스의 개선과 공개화·투명화

- 지방행정 전반에 자율성이 부여되면서 지방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이 향상되고 주민에 대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 분야별 혁신 확산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정보공개, 주민참여활동 등을 통해 행정의 정과정을 공개하려는 노력이 가시화
 -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공개와 참여를 모색

■ 중앙정부의 통제와 지행행정조직의 계층화

- 중앙정부의 제도적 통제와 지원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분권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 지방행정 조직 역시 기본적으로 계층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 통제와 의사소통은 비교적 원활하나 수평적 차원의 자율적 협력과 조정능력은 저하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구조와 경직성으로 인한 행정수요 대응능력 저하

-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경직성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규모나 형태 등 기본적인 골격이 전국적 차원에서 중앙의 지침에 따르고 있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나. 여건변화와 전망

■ 지방분권에 따른 권한 및 자율성 증대

- 효율성 지향의 사고 전환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제의 본질에 부합하는 행정시스템 구축 요구
- 지방행정체제의 변화 요구
 - 지방행정체제가 지역간 경쟁체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효율적인 지방경영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됨
 - 이와 함께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간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한 광역행정체제의 필요성 대두

■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기능 재편 요구

- 세계화의 흐름은 지방단위의 경제영역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신장
 - 중앙정부를 통한 투자와 통상이 다양한 장소적 이점을 찾아 지방정부와 직접적인 관계형성을 선호
 - 정보화는 경영능력의 함양 및 지식정부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행정정보의 디지털 및 행정체계의 네트워크화를 요구

■ 시민사회의 성장과 자치행정의 민주성 요구

- NGO나 시민단체 등을 통한 자치행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참여 요구
 - 중앙정부의 권한이 줄어들면서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광범위한 민주성이 요구되고 이는 자치행정에 대한 다양한 참여욕구로 나타남

■ 경쟁원리의 도입과 시장성의 강화

-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 있어서 민영화, 민간위탁, 제3섹터방식 뿐 아니라 보다 수익자부담원칙의 다양한 공급방식을 모색
 - 이로 인한 시장실패의 우려 속에서 공공성 및 사회적 형평성도 요구

■ 지방행정 수요구조의 변화

- 지방행정이 단순히 주민에 대한 복지 및 대민서비스의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할 수행

- 이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에의 대응이 필요시 되며 전문지식과 기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전문행정인력의 유치와 양성이 필요함

다. 계획의 기본방향

■ 미래 행정수요에 부응한 체감형 고객감동 행정 실현

-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신속적으로 대처하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고객지향적 참여행정체제로 조직 강화
- 행정의 성과와 결과가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도민들에게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분석
- 도정 정보에 대한 공개 확대로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부조리를 제거하고 도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 마련

■ 지방행정의 경영성과 향상과 효율성 제고

- 충남의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법령의 정비와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여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민간부분과 상호보완과 파트너십 하에서 민간부분을 적극 유도하며, 향후에는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로부터 다양한 공급제도를 모색
-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장기적·계획적 접근과 투자를 통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 공무원 양성의 기반 조성
-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도정운영의 성과와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의 정착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 참여기제의 제도화 및 정책평가

- 도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우수사례를 전파하며 제도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주민참여기제를 제도화하고 활성화시킴

- 지역 전문가들이 지방정책결정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 및 감시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도정 발전과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함
 - 이를 위해 위원회 운영의 대응성을 강화하고 관학정책연구팀 구성 및 정책모니터단을 적극 운영하며 정책참여 유인수단을 강화함
- 수요자 중심행정의 실천을 위해 민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
 -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의 구체적 보완으로 객관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단순비교에서 탈피하여 시책 품질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표로 우수사례의 전달과 확산에 초점을 맞춘 평가시스템 도입

■ 인사운영의 합리화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공무원 육성

-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기반 조성으로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 이를 위해 지방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승진·전보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며 다면평가제도 등의 개선
- 교육훈련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로 공무원의 능력개발
 - 전문성과 창의적인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

■ 도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경영행정 추진

- 충남의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법령의 정비와 제·개정을 위한 논리개발
 - 현실과 부적합한 법령을 발굴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입안 초기부터 입법동향 관리 및 법령 추진상황 보고를 정례화 하며 언론매체, 설명회 등을 통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확산
-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기능 및 민간운영으로 시설이용이 활성화 되는 기능, 비영리단체에 재정보조 등으로 관리가 효율적인 기능 등을 중심으로 추진대상을 확대
 - 객관적이고 투명한 계약방법으로 능력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 민간위탁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로 수탁기관의 책임성 제고
- 도정운영의 성과향상과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의 정착

- 성과와 보상이 연계된 실시간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학습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조직의 성과와 고객만족 제고

〈표 III-1〉 행정계획 분야의 세부추진시책

추진시책	시책유형	세부시책
참여기제의 제도화 및 정책평가	도민참여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정책과 방법의 제도화 · 주민참여프로그램개발 및 우수사례 전파
	지역전문가의 정책참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및 관·학연구팀 구성 · 정책모니터단 운영 및 정책참여 유인수단 개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수요 증가 분야 선정 품질평가 확대 실시 ·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보완 · 우수사례의 전달과 확산에 중점을 둔 평가시스템 구축
인사운영의 합리화와 창의적 공무원 육성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위원회의 기능강화 · 승진·전보인사의 예고제를 통한 객관성 확보 · 다면평가제 개선
	교육훈련의 계획적·체계적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행정 추진	법령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과 부적합한 법령의 정비와 제·개정 · 입법동향 및 법령 추진상황 보고 정례화
	민간위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이고 투명한 계약방법 개발 · 민간위탁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성과관리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와 보상이 연계된 실시간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조직구성원의 핵심역량 개발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2. 지역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협력적 지역개발

가. 현황과 문제점

■ 광역자치단체간 협력사업

- 광역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은 대전·충북·충남이 참여하는 「충청권행정협의회」와 충남·전북이 참여하는 「충남-전북교류협력회의」, 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가 참여하는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은 지방자치, 지역경제, 도로·교통, 물관리, 환경보전, 문화관광, 농어업 소득보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혐오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운영, 교육 및 연구개발 등에 대한 협력은 미흡한 실정임

■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사업

-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사업도 행정협의회, 발전협의회, 행정협력회 등의 이름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경기도 평택시·안성시가 참여하는 「중부권공동발전협의회」, 충청남도 천안시, 경기도 안성시, 충청북도 진천군이 참여하는 「3도 3사·군행정협력회」, 대전시 유성구, 충청남도 공주시·금산군·부여군, 전라북도 무주군이 참여하는 「백제권 5개 지방자치단체 관광벨트」, 대전 유성구, 충남 예산군·아산시 등 전국 8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국온천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 강원도 동해시, 경상남도 고성군, 충청남도 태안군이 참여하는 「3개 해안행정교류회」 등이 대표적
-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은 주민간 친목도모, 민간단체 교류, 공동방역, 문화예술 및 관광, 스포츠, 지방자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사업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간 협력사업에 포함되어 패키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도적인 협력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선언적·상징적 협력 및 일회성 행사로 전략가능성

- 기초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협력사업이 없이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 머무를 가능성이 큼

■ 협력안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견해차

-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은 행정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협력안건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견해차가 클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협력이 제한됨

■ 단순한 협력·제휴형태의 사업내용

- 자치단체간 협력·제휴는 단순협력이나 공동분담의 범위에 국한되어 시설의 공동설치와 이용, 공동투자 등의 고차원의 협력·제휴가 이루어지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협력·제휴 추진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주로 관 주도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며, 민간차원의 협력·제휴는 친선교류차원에 한정됨.

나. 여건변화와 전망

■ 지역개발이 국가주도에서 지역주도로 변모하고 있으며, 집권·단절형 사회에서 분권·네트워크형 사회로 변화

- 지역간 상호협력 및 역할분담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공동 R&D, 인프라, 예산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역행정체제 필요성

-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역간 공동대처가 요구되는 광역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
 - － 규모의 경제성이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치단체별로 사업 추진시 중복추진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초래

■ 자치단체간 개발경합과 분쟁 발생

-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분권화 추진에 따라 지역간 개발경합과 분쟁이 늘어나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빈발
 - － 이는 사회적·경제적 손실과 주민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까지도 초래

■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구체적 가시화

- 충청남도의 경우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생활권이 점차 광역화 되면서 인접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대함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가 가시화

다. 계획의 기본방향

■ 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구축

- 도내 시-군간, 인근 광역자치단체의 시-군과 다원적 협력체 구축을 통해 지역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광역시설의 공동관리운영체제 구축

- 인접 자치단체간 소각장 등의 공동시설 구축시 추가적인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역시설의 공동 관리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자원낭비를 방지

■ 민·관협력 경영전략 모색

- 행정서비스의 생산·공급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인식하고 주민을 단순히 행정서비스의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생산자적 지위로 인식함으로써 참여기회 제공과 경제적 효과를 향상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 협력기반의 조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시·도와 연계발전을 모색하고, 초광역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대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 충청권행정협의회 및 충남-전북교류협력회의를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간 공식적 협력은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식적 협의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협의체별로 나누어져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민간부문의 정보교류, 공동연구 등 활발한 교류 추진
- 지역주민이나 공무원들은 자치단체 홍보매체, 지역언론매체 등을 통해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방안의 모색과, 그간의 협력사업의 추진경과나 성과 등에 대해서도 워크숍, 세미나, 언론매체 발표 등을 통해 홍보

■ 협력제도의 정비

- 지방자치단체가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공동의 목표로 인식되는 특정 기능에 맞추어 기능적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간 자발성 증진
- 지방자치단체간 다양한 형태의 지속적 협력사업으로 상호간 신뢰를 형성하고, 시설의 공동운동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공동시설 운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소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시설 운영 시범사업 추진
-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위한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장치 마련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기금의 용도는 시설의 공동설치 등과 같은 물리적 사업재원이 아니라, 주민간 협력, 문화·학술·스포츠분야 등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

〈표 III-2〉 지역간 협력개발 분야의 세부추진시책

추진시책	시책유형	세부시책
협력기반의 조성 및 확충	협력제도 강화	· 자치단체간 협력에 대한 제도적 강화
	협의체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민간부문과의 교류 확대
	협력에 대한 홍보	· 홍보매체 등을 통한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추진경과 및 성과 홍보
협력제도의 정비 및 보완	기능적 협의체 구성	· 공동의 목표로 인식되는 사업과 기능에 대한 협의체 구성
	공동시설 운영	· 공동시설운영에 대한 수요조사 · 공동시설운영 시범사업 추진
	협력기금 마련	· 법률이나 조례제정을 통한 재정 확보 ·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기금 활용방안 마련

3. 국제교류 및 국제통상의 활성화

가. 현황과 문제점

■ 지방행정 변화와 국제교류

-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에 따라 국제교류는 기존의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나 상호 의존의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교류의 성격과 범위도 변화하고 있음
 - － 그 변화는 첫째, 국제교류의 주체가 과거 국가 위주의 개념에서 지방정부나 민간단체 등 개별주체로 이동하고 있으며,
 - － 둘째, 정치와 경제영역에 한정되었던 교류영역이 사회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 － 셋째, 국제교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사항으로 전환되고 있음

■ 지역별, 분야별로 편중된 국제교류

- 2005년 현재, 충청남도는 6개 단체와 자매결연, 9개 단체와 우호협력을 체결하였음. 도내 11개 시·군은 6개 국의 26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음
 - － 충남도의 6개 자매결연단체 및 9개 우호협력단체는 여러 국가에 분포되어 있지만, 교류실적은 자매결연단체의 경우 일본·중국과의 교류가 86.6%, 우호협력단체의 경우 중국과의 교류가 85.3%를 차지하는 등 편중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 16개 시·군의 경우 몽골, 벨기에, 독일의 1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자매결연 자치 단체가 미국, 일본, 중국에 편중되어 있음
 - － 자매결연의 목적 중의 하나가 국제 이해라고 할 때, 보다 다양한 나라와 자매결연 활동을 통해 국제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 2005년까지 충청남도는 총 540회 6,568명의 교류가 있었으며, 분야별로는 주요 인사 방문 등 일반행정 분야의 교류가 가장 많았음
 - － 따라서 교류대상의 다양화와 함께 교류분야의 다양화가 요구됨

〈표 Ⅲ-3〉 충청남도의 해외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실적

(2005. 12. 31 누계)

단 체 별		실 적		결연 년도
		회 수	인 원	
총 계		540	6,568	
자매·우호단체 계		418	5,025	
자매결연 단체 (6)	소 계	336	3,913	
	구 마 모 토 현	222	2,756	1983
	허 베 이 성	69	710	1994
	아 무 르 주	16	140	1995
	남 호 주 주	18	191	1999
	미시오네스주	3	39	2001
	비엘코폴스카주	8	77	2002
우호협력 단체 (9)	소 계	82	1,112	
	산 등 성	24	205	1995
	바 이 에 른 주	3	34	1996
	볼 리 바 르 주	4	70	1997
	캘리포니아주	1	17	1997
	레닌그라드주	4	22	2000
	연변조선족자치주	32	652	2002
	룽 안 성	3	30	2005
	지 린 성	4	40	2005
	장 쭈 성	7	42	2005
기타 지역		122	1,543	

〈표 III-4〉 충청남도 시·군의 해외 자매결연 현황

(2005. 12. 31 현재)

기관별	외 국 자 치 단 체	결 연 일
천안시(2)	· 미국 오레곤(Oregon)주 비버튼(Beaverton)시 · 중국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莊)시	'89. 5. 1 '97. 8.26
공주시(4)	·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기쿠스이(菊水)町 · 일본 시가(滋賀)현 모리야마(守山)시 · 일본 야마구치(山口)현 야마구치(山口市) · 미국 앨라배마주 캘훈(Calhoun)군	'79. 9.15 '91. 8. 5 '93. 2.23 '92.11.14
보령시(3)	· 중국 상하이(上海)시 청푸(青浦)區 · 일본 카나가와(神奈川)현 후지사(藤澤)시 · 미국 쇼어라인(Shoreline)시	'99. 4.26 '02.11.15 '03.10.15
아산시(1)	· 중국 요녕(遼寧)성 푸란뎬옌(普蘭店)시	'97. 5.20
서산시(3)	· 일본 나라(奈良)현 덴리(天理)시 · 벨기에 후이(huy)시 · 몽골 자황도(Zavkhan Aimag) · 독일 안스베르그시	'91. 11. 7 '84. 12. 7 '04.10.26
금산군(1)	· 중국 쪄린(吉林)성 안투(安圖)현	'95. 3.28
부여군(6)	· 일본 나라(奈良)현 아스카(明日香)村 · 일본 후쿠오카(福岡)현 다자이후(太宰府)시 · 일본 미야자키(宮崎)현 남고(南郷)村 · 일본 시가(滋賀)현 가모우(蒲生)군 히노(日野)町 · 일본 시가(滋賀)현 가모우(蒲生)군 가모우(蒲生)町 · 중국 낙양시	'72.11.28 '78. 4.21 '91. 9. 2 '90. 5.15 '92.11.2 '96.8.13
홍성군(1)	· 중국 산둥성(山東)성 이쭈이(沂水)현	'02. 4.24
예산군(1)	· 미국 테네시주(Tennessee)주 녹스빌시(Knoxville)시	'03. 12.4
태안군(1)	· 중국 산둥(山東)성 타이안(泰安)시	'97. 4.23
당진군(1)	· 미국 워싱턴(Washington)주 스노미쉬(Snohomish)군	'89. 5.10

■ 미비한 국제교류 및 통상전문 인력

- 충청남도는 지방 차원에서의 국제통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제 통상 전담부서인 국제통상협력과(국제교류계와 국제통상계)를 신설하였음
 - 2006년 현재 국제통상과는 국제기획·국제교류·통상진흥·투자유치·중국지원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Ⅲ-5〉 충청남도 국제화 추진조직 및 인력 현황(2007년 3월 현재)

구분	부 문	인원수	기 능
국 제 통 상 과	국제기획분야	6명	· 도민 국제화 수준향상 및 공무원의 국제화 능력개발 · 국제화 관련 민간조직 육성 및 협력 · 국제화추진협의회 및 명예국제협력위원 운영 · 국제업무에 대한 관련기관 및 실과시군과의 협조 업무
	국제교류분야	6명	· 자매결연 및 교류협정을 통한 외국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 재외교민과의 협력 · 도, 시·군 국제교류 추진 지원 · 해외사무소 지원 및 운영
	통상진흥팀	5명	·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통상 지원 등 통상 진흥시책을 수립·시행 · 시·군의 통상업무 및 서울통상지원사무소와 해외사무소의 활동을 지원
	중국지원팀	4명	· 중국과의 장기적 발전방안 수립 추진 및 교류증진 · 중국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 중국관련 자료수집 및 제공
	해외사무소	3명	· 지방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제품 및 농축산물의 수출을 지원
	소계	29명	
투 자 유 치 담 당 관	투자기획	5명	· 외국기업 및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 외국인 투자진흥관실 및 투자유치협의회 운영 · 외자유치설명회 및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지원업무
	투자유치1	4명	
	투자유치2	3명	
	기업유치	3명	
	소계	15명	
총계		44명	-

- 국제교류 및 통상 전문인력의 미비
 - 충남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국제교류 및 통상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 전무함. 충남도의 경우에도 외국어 능력과 국제교류·통상의 전문지식을 지닌 전문인력이 결여되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됨
- 충청남도는 중소기업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뉴욕, 일본 구마모토, 중국 상해 등 3개 해외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지원하고 있음
- 기타 국제화 지원 조직
 - 1999년 설립된 충청남도중소기업지원센터는 충남도내의 중소기업 경영개선과 세계화를 위해서 전략적 육성 및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경영전반에 걸쳐 직접지원 또는 유계지원을 하고 있음
 - 2001년 설립된 충남인터넷무역센터는 도내 기업들의 수출증진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

- 충청남도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외국투자기업이 쉽게 진출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활발한 통상 및 외국인 투자유치

- 충청남도의 무역수지는 2000년부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국가의 무역·통상 부문에서도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
- 충남의 무역수지흑자는 2001년 24억 달러 이후 2005년에는 156억5천만 달러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표 III-6〉 충청남도 무역수지 현황(2001~2005)

(단위: 천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증가율
2001년	11,652,525	9,245,497	2,407,028	-
2002년	15,150,513	9,335,303	5,815,210	141.6
2003년	19,806,013	11,262,375	8,543,638	46.9
2004년	29,271,550	15,425,613	13,845,937	62.1
2005년	33,519,624	17,863,430	15,656,194	13.1

주 :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www.kita.net), 2006.

- 교역국별로는 수출의 경우 2005년에 중국(40.6%), 일본(21.6%), 홍콩(16.9%) 등 아시아지역으로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미국(-15.8%), 독일(-7.3%) 등 미주 및 유럽으로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음
- 수입의 경우 중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충남의 무역국은 특정국가에 집중되어 향후 교역국의 다변화가 요구됨
- 수출품목의 대부분은 공산품(99.4%)으로써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요구됨
-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1년 491백만달러에서 2004년 1,200백만달러로 연평균 36%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천안·아산·당진 등 북부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III-7〉 연도별 외국직접투자유치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구 분	합 계	2000년이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건 수	381	234	38	41	26	42
유치실적	5,013,072	2,038,649	491,062	580,990	701,646	1,200,725

자료 :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2005.

나. 여건변화와 전망

■ 자유무역협정 확대

-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를 배경으로, 우리나라도 자유무역(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칠레와의 FTA체결에 이어, 현재 미국과의 FTA가 추진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와 한국과 ASEAN 국가와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임

■ 국제교류협력의 증대

- 세계화에 따라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도 국제관계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의 경제·문화·체육·인적교류 및 상징사업 등 다양한 국제교류가 증대되고 있음

다. 계획의 기본방향

■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지방이 국제교류의 한 주체로 등장함에 따라 지방외교와 국제교류를 추진할 조직, 인력, 기반시설 등 기반여건을 확충함

■ 생산적 국제교류 확대

- 민간주도의 교류활동 다양화
 - 기존의 기관장이나 직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유지 방문 중심의 소수 엘리트 중심의 자매결연 활동으로부터 주민, 민간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등이 참여하는 국제교류로 전환
 - 지역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로 민간 교류단체를 발굴·지원하고, 내실화를 위해 사전 교류단계부터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
- 교류대상지역의 다변화
 - 미국, 일본, 중국 편중의 자매결연 대상지역 및 국제교류 활동지역을 외국 자치단체와의 상호보완성과 유사성에 착안하여 유럽, 동남아 등으로 확대

■ 통상교류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 향후 미국, ASEAN, 일본-중국 등과의 FTA확대를 대비하여 지역기업의 국제통상활동을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해외시장개척 등 통상교류를 확대
- 글로벌시대 지역경제발전의 주요 동인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함

라. 세부추진시책

■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국제통상 전담공무원 전문화 및 육성
 - 국제통상 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각종 통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역의 수출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을 육성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계(係)수준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순환보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국제전문공무원” 으로 양성
 - 국제통상 전담공무원 전문화를 위해 국제통상 관련 위탁교육, 해외연수 기회 확대, 자매지역간 국제교류 연구과정 등의 전문과정 교육을 확대
- 지역브랜드의 육성
 - 세계시장 지명도가 떨어지는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지역브랜드를 육성

■ 국제교류협력 확대

- 자매 우호단체와의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민간차원의 교류사업을 지원
- 외국 지자체 공무원의 한국 이해를 증대하기 위해 K2H(Korean Heart to Heart) 사업을 추진
- 환황해권시대를 대비하여 중화권 교류를 추진하며, 기타 지역 해외교포와의 유대를 증진
-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세계 각국의 자치단체와 국제기구들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협력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주요 국제기구(World bank, CLRAE, IULA, CEMR 등)와 적극적인 국제교류 협력관계를 형성
- 「한민족 정신문화 허브」 조성
 - 충남의 열과 역사문화 홍보를 목적으로 재외동포 및 해외입양자, 한국거주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근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 등
도내 관광자원 체험사업 전개

■ 통상교류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 해외사무소(뉴욕, 구마모토, 상해무역관)를 도내 기업 수출지원센터로 육성
- 국제교류·협력 관련 예산 증액
 - － 국제통상조직, 국제통상인력, 전문인력배양 등 국제통상역량을 강화하기 위
해서 국제통상 관련 예산을 증액하며, 앞으로 일정액의 예산을 국제협력비
로 책정하여 집행하는 방안 등을 강구
-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기반구축
 -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매력적인 투자환경(교통 및 통신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노동력 공급, 공업용수, 산업폐기물 처리, 직업교육훈련 등)
을 조성
 - － 각종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인센티브제도를 개발하고 확대

〈표 III-8〉 국제교류 및 국제통상 분야의 세부추진시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추진시책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국제통상 전담공무원 전문화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지자체에 전담조직 구성 · 전문과정 교육 확대
	지역브랜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중소기업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도, 시·군 의 브랜드를 육성
국제교류협력 확대	인적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매 우호단체와의 상호 교류 확대 · 민간교류사업 지원 · K2H(Korean Heart to Heart) 사업 확대 · 지역 해외교포와의 유대 강화 ·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한민족 정신문화 허브」 조성
통상 및 외국 기업 유치 확대	통상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사무소의 기업 수출지원센터 기능 확대
	외국 투자기업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력적인 경제적, 물리적 투자환경 조성 · 외국 투자확대를 위한 행정규제 정비

제2장 재정계획

제2장 재정계획

가. 현황과 문제점

■ 지속적인 재정규모 확대

- 도 본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충남 전체의 재정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약 7조원임
 - 도 본청은 2조 5천억원 규모로 35.2%를 차지하고 있음
- 2005년 충남(도 본청 및 시·군 포함)의 재정규모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5년과 비교할 때 약 2배 증가한 규모임
 - 1995년 도 본청의 재정규모는 1조 3,796억원에서 2005년 2조 5,237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충남의 전체적인 재정규모 증가추세와 유사

〈표 III-9〉 지방자치단체(본청, 기초단체 포함) 재정규모 추이

(단위: 억원)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서울	104,451	149,683	198,498
부산	40,293	48,306	64,887
대구	27,981	37,024	43,663
인천	23,240	33,172	53,465
광주	14,110	21,592	26,622
대전	14,752	19,002	25,872
울산	-	13,108	19,817
경기	97,175	144,738	219,927
강원	27,868	43,142	61,633
충북	20,755	31,714	44,077
충남	36,000	46,441	71,607
전북	35,662	45,732	61,526
전남	38,422	63,901	84,989
경북	44,407	62,397	84,461
경남	56,165	68,400	93,027
제주	8,625	15,518	23,347

주: 1995년과 2000년은 최종예산, 2005년은 당초예산.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해당년도.

〈표 III-10〉 시·도별 재정규모 변화추이

(단위: 억원)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서울	79,267	107,718	145,658
부산	30,495	33,622	47,580
대구	21,042	28,462	32,764
인천	16,401	22,596	39,335
광주	10,814	15,530	20,306
대전	10,533	13,561	19,117
울산	-	8,865	13,991
경기	29,961	48,582	85,728
강원	8,609	13,978	22,072
충북	7,704	11,758	17,548
충남	13,796	17,400	25,237
전북	12,026	15,602	23,960
전남	14,094	23,402	32,824
경북	13,179	19,886	29,913
경남	18,029	24,693	35,556
제주	3,269	6,577	10,095

주: 1995년과 2000년은 최종예산, 2005년은 당초예산.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해당년도.

■ 안정적인 재정운용기조 유지

- 지방채 발행을 자제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 유지
-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행정비의 비중은 매년 유사한 수준 유지

■ 재정에서 자체재원의 비중 점진적 증대

-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에서는 자체재원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추세
 - 과거 10년간 충남의 지방세수 신장률은 경기도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충남의 지방세수 신장은 2000년 이후 대폭적인 증가
 - 지방세수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추세이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비중 낮음

〈표 III-11〉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 변화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합 계	1,716,765	(100.0)	1,882,997	(100.0)	2,055,530	(100.0)
자재수입	489,660	(28.5)	568,272	(30.2)	677,233	(32.9)
지방세	395,100	(23.0)	462,000	(24.5)	535,000	(26.0)
세외수입	94,560	(5.5)	106,272	(5.7)	142,233	(6.9)
의존재원	1,202,105	(70.0)	1,314,725	(69.8)	1,378,297	(67.1)
지방교부세	265,993	(15.5)	290,664	(15.4)	331,781	(16.2)
지방양여금	136,694	(8.0)	202,360	(10.8)	—	—
보조금	799,418	(46.6)	821,701	(43.6)	1,046,516	(50.9)
지방채	25,000	(1.5)	—	—	—	—

자료: 충청남도, 예산개요, 해당년도.

〈표 III-12〉 충남의 지방세 신장률 추이(본청, 시·군 포함)

(단위: 억원, %)

구분	1995년(A)	2000년	2005년(B)	(B/A)×100
합계	140,910	203,616	350,047	248.4
서울	39,650	62,042	98,523	248.5
부산	12,004	14,318	22,644	188.6
대구	8,470	9,313	14,559	171.8
인천	7,078	10,152	17,243	243.6
광주	2,869	4,843	7,408	258.2
대전	4,426	5,557	8,848	199.9
울산	—	4,651	8,102	—
경기	27,543	43,311	88,234	320.3
강원	3,647	4,981	8,276	226.9
충북	3,205	4,743	7,383	230.4
충남	4,339	6,339	13,469	310.4
전북	3,941	5,307	7,927	201.1
전남	3,746	5,620	9,005	240.4
경북	6,751	9,487	14,907	220.8
경남	11,600	10,603	19,529	168.4
제주	1,641	2,349	3,990	2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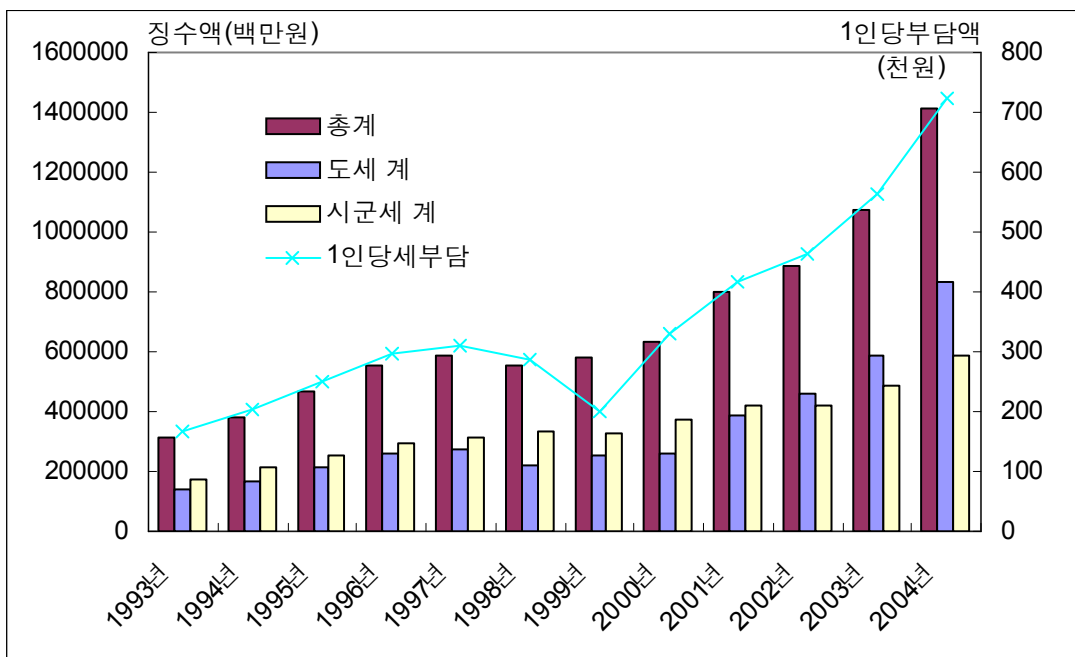
주: 1995년과 2000년은 결산, 2005년 예산은 최종예산.

자료: 행정자치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6.

■ 지방세 도세의 세수규모 확대

- 2001년까지 지방세수 중 시·군세 비중이 도세규모에 비해 컸으나, 2002년 이후 도세 규모가 시·군세를 앞서고 있음
 - 도세 목적세인 지방교육세의 도입과 부동산 거래 확대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수 증대에 기인함
-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1998년과 1999년 감소추세를 나타냈으나, 2000년 이후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III-1〉 충남 지방세 징수액 및 1인당 지방세부담액 추이



자료: 충청남도 통계연보, 해당연도를 참조하여 재구성.

■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심화

- 시 단위 기초단체 재정규모에서 2005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천안시는 약 1조원의 규모이며, 계룡시는 약 1,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 약 8.4배의 격차 보임
- 군 단위 기초단체의 2005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규모가 가장 큰 단체는 당진군(3,600억원)이며, 가장 작은 단체는 청양군(1,600억원)으로 나타나 약 2.2배의 격차 보임
- 재정자립도에서도 천안시, 아산시와 태안군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

- 자체재원이 점진적 증가추세를 보이거나, 상대적 규모에서 미약함
- 의존재원에서도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높아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가 어려움

〈표 III-13〉 충남 시·군 재정규모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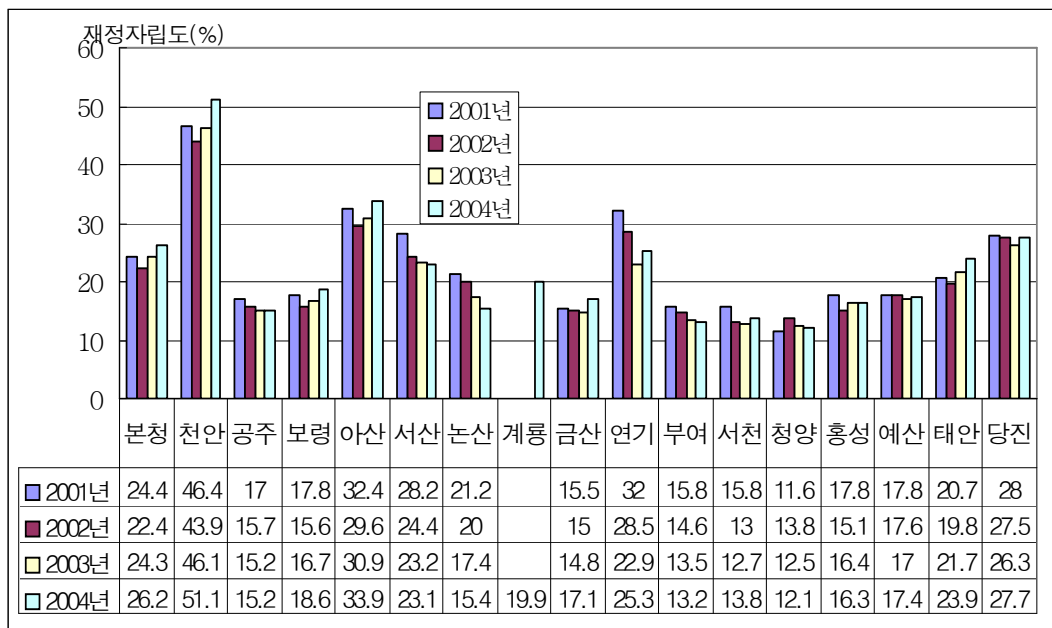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천안시	4,826	6,620	10,327
공주시	2,441	2,424	3,130
보령시	2,074	2,835	3,858
아산시	1,774	2,706	5,841
서산시	1,496	2,278	4,000
논산시	1,316	2,349	3,083
계룡시	-	-	1,231
금산군	781	1,510	2,064
연기군	1,205	2,019	2,230
부여군	1,705	2,792	2,525
서천군	944	1,316	2,046
청양군	1,016	1,335	1,653
홍성군	1,212	1,599	2,498
예산군	1,104	1,803	2,400
태안군	1,009	1,900	2,977
당진군	1,180	2,536	3,639

주: 1995년과 2000년은 결산, 2005년은 당초예산.

자료: 충청남도, 2006예산개요.

〈그림 III-2〉 충남의 각급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추이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해당년도.

나. 여건변화와 전망

■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도입 및 총액배분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
- 국세 세원의 이양을 통한 지방세 세수구조의 문제점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소비과세와 소득과세 보완을 위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
- 지방채 발행의 총액한도제 전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및 자율성 증대
 -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인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가능

■ 지방예산 및 결산제도의 개편

- 성과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
 - 2008년 이후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의 필요성 증대
- 발생주의 복식부기제 도입
 - 결산을 중시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제 도입으로 비용 대비 산출의 중요성 및 효율성 강조

■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의 변화

-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율의 인하
 - 지방세 도세 보통세의 가장 중요한 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인하는 지방세수 감소의 요인
- 재산세제의 세율 변화 및 국세 종합부동산세 도입
 - 지방세 시·군세 보통세로 부과되었던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일정 금액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 2004년 종합토지세 부과액을 기준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분 교부

■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투자비의 지속적인 증가

- 지역간 균형발전 및 도청 이전에 따른 대규모 투자 수요의 지속적인 증대가 계획되어 있어 향후 투자재원 부족
- 2009년까지 투자재원은 약 11.5조원 규모, 투자비는 약 12조원 소요 예상,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부족 재원의 규모는 약 4.6억원으로 판단

〈표 III-14〉 투자재원 판단 및 부족재원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05-2009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세 입(A)		152,626	28,282	29,026	30,111	31,445	33,762
경상예산등(B) ¹⁾		38,057	6,346	7,556	7,783	8,035	8,337
투자재원(A-B)		114,569	21,936	21,470	22,328	23,410	25,425
투자비		119,219	22,686	22,430	23,298	24,390	26,415
부족재원		4,650	750	960	970	980	990
대책	지방채	4,650	750	960	970	980	990
	채무부담행위	—	—	—	—	—	—

1) 경상예산등은 공무원의 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채무상환금, 예비비로 구분됨

자료: 충청남도, 2005~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5.

- 2005년부터 2009년 기간 중 세입의 구성은 자체수입 39.6%, 의존재원 57.4%로 예상
- 투자비의 연도별 및 부문별 배분계획에 의하면 건설·교통과 농림수산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보건복지는 연평균증가율에서 11%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에도 높은 증가율이 지속될 것임
- 문화관광 투자의 증가가 더욱 큰 규모로 이루어질 것임

〈표 III-15〉 충남의 세입·세출의 자원별·성질별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05-2009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증감률
	금액	구성비						
합 계	152,626	(100.0)	28,282	29,026	30,111	31,445	33,762	(4.5)
세입	자체수입	60,395 (39.6)	12,284	11,491	11,558	12,106	12,956	(1.5)
	의존수입	87,581 (57.4)	15,248	16,575	17,583	18,359	19,816	(6.8)
	부족재원 ¹⁾	4,650 (3.0)	750	960	970	980	990	(7.8)
세출	경상예산	11,458 (7.5)	2,045	2,161	2,287	2,416	2,549	(5.7)
	사업예산	119,219 (78.1)	22,686	22,430	23,298	24,390	26,415	(3.9)
	채무상환	5,665 (3.7)	1,195	1,167	1,123	1,107	1,073	(-2.7)
	예비비등	16,284 (10.7)	2,356	3,268	3,403	3,532	3,725	(13.0)

1) 부족재원은 자체수입+의존수입에서 세출 차감한 규모.
자료: 충청남도, 2005~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5.

〈표 III-16〉 충남의 연도별·부문별 투자비 배분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05~2009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증감률
	금 액	구성비						
합 계	119,219	(100.0)	22,686	22,430	23,298	24,390	26,415	(3.9)
행정, 정보화	6,848	(5.7)	3,054	1,564	972	666	592	(-32.4)
문화관광	5,445	(4.6)	970	1,035	1,087	1,148	1,205	(5.6)
보건복지	22,736	(19.1)	3,854	4,149	4,329	4,602	5,802	(11.1)
환경관리	13,040	(10.9)	2,412	2,490	2,556	2,681	2,901	(4.7)
산업경제	8,407	(7.1)	1,398	1,540	1,657	1,786	2,026	(9.7)
농림수산	26,353	(22.1)	4,852	5,060	5,232	5,481	5,728	(4.2)
건설교통	35,245	(29.5)	6,002	6,435	7,239	7,717	7,852	(7.0)
소방방재	1,145	(1.0)	144	157	226	309	309	(22.4)

주: 투자비의 세부항목임.
자료: 충청남도, 2005~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5.

〈표 III-17〉 투자자원 및 부족자원 규모 예측(2010~2020)

(단위: 억원)

구분	세입(A)	경상예산등 (B)	투자자원 (A-B)	투자비	부족자원	대책	
						지방채	채무부담 행위
합 계	476,054	112,015	364,049	371,025	6,976	8,011	—
2010년	35,281	8,612	26,669	27,445	776	776	—
2011년	35,869	8,896	26,973	28,515	1,542	1,542	—
2012년	37,483	9,190	28,293	29,627	1,334	1,334	—
2013년	39,170	9,493	29,677	30,782	1,105	1,105	—
2014년	40,933	9,806	31,127	32,340	1,213	1,213	—
2015년	42,775	10,130	32,645	33,601	956	956	—
2016년	44,700	10,464	34,236	34,911	675	675	—
2017년	46,712	10,809	35,903	36,273	370	370	—
2018년	48,814	11,166	37,648	37,688	40	40	—
2019년	51,011	11,534	39,477	39,158	-319	—	—
2020년	53,306	11,915	41,401	40,685	-716	—	—

주: 1. 세입은 연평균증가율(4.5%)을 적용하여 추계.
 2. 경상예산등은 연평균증가율(3.3%)을 적용하여 추계.
 3. 투자비는 연평균증가율(3.9%)을 적용하여 추계.

다. 계획의 기본방향

■ 재정기반 확충 및 자율성 제고

- 지방재정 자립기반 확충 및 자율성 확대
 - 지역에 부존하는 지방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수 확충
 -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자체재원의 적극적 확보
 -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 통한 재정의 자율성 확대

■ 재정운용의 효율성, 건전성 강화

-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강화
 - 경상경비 절감 및 투자경비의 계획적 활용
 - 경영마인드 및 경쟁개념의 과감한 도입과 성과관리체계 강화
 - 예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및 예산편성의 효율화, 예산관리의 합리화 추구
 - 자치단체의 합리적 예산편성 및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

■ 성과지향적 재정운용

-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점진적 추진
 - 사업별예산(프로그램예산) 제도 도입
 - 복식부기제 도입

■ 다각적인 투자재원 확보

- 투자재원의 적극적 확보
 - 민간자본 유치 및 새로운 투자재원조달 방안 시도
 - 건전 재정운용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통한 투자재원 모색

■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재정운용

-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통한 균형발전 모색
 - 기초단체에 지원되는 이전재원을 활용하여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방안 모색
 - 기반시설 및 부족한 기초시설에 대한 우선적 예산지원을 통해 균형발전 방안 모색

사례: 독일연방주 재정균형기금 지원제도

- 연방주 재정 균형기금 지원제도
 - 조세분배로 열악한 연방주에 정상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법적 근거: 기본법, 기준법, 균형기금 지원제도법 등
- 중앙정부에서 연방주 재정능력 측정
 - 중앙정부에서 총 주세(州稅) 수입 + 지방정부 세수의 65% 합산금액
- 재정이 약한 연방주: 결손액 지급
 - 기준치의 92% 미달 시: 결손액 전액 지급
 - 기준치의 92~100% 해당: 결손액의 37.5% 지급
- 재정이 건전한 연방주: 조정분담금 징수
 - 기준치의 100~101%의 재정능력 보유 시: 15%
 - 기준치의 101~120%의 재정능력 보유 시: 66%
 - 기준치의 120%의 재정능력 보유 시: 75%

라.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개발사업

■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 확충

- 자체재원의 적극적 확충
 - － 지역에 부존하는 자원을 활용한 지방세 신세원 발굴
 - －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피(혐오)시설을 지방세원으로 편입하여 지방세로 과세하는 방안 모색
 - －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실효적인 징수방안 실시
 - －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효율현실화

■ 성과중심 세출예산 운용 및 계획성 제고

- 합리적인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 － 재원 투자의 외부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투자사업으로 선정
 - － 재원조달계획과 투자사업을 연계하여 재원이 마련된 투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 세출예산의 계획성 제고
 - － 당초예산 대비 결산액의 초과규모 감소로 예산운용의 계획성 및 투명성 제고
 - － 당초에 계획되지 않은 세출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여 예산운용의 건전성 확보

■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의 다각적인 조달

-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
 - －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기존 양여금 대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보와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의 안정적 확보 방안 모색
 - － Matching Fund를 활용한 국고보조금의 적극적인 유치
 - － 도청 이전에 따른 국비의 적극적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의 논리 개발
- 민자 유치를 통한 투자재원 조달방안 모색
 - － 효율적인 지방채 발행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의 안정적 재원조달
 - － 자산유동화증권(ABS),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등 재원

조달방안의 다각화 추진

- BTL을 활용한 문화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확충

■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의 형평성 제고

- 낙후지역 우선지원의 재정운용
 -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개발사업 및 투자수요에 가중치 부여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 시·군에 총액으로 배분되는 재원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원 배분
-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지원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조성
 -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우선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특정 사업 및 특정 자금의 운용이 가능한 특별회계로 신설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은 도세 보통세 수입의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일부예산을 이용하여 조성
- 기금 조성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지원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조성
 - 현행 일반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보전금의 지원방식에 의할 경우 인구수가 적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고,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금을 조례로 설치(근거규정 지방자치법 제133조)하되, 그 재원은 지방채 등을 발행하여 조달

〈표 III-18〉 재정계획의 세부추진시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 확충	자체재원의 적극적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부존자원을 대상으로 신세원 발굴 · 지역에 입지하는 기피시설을 과세대상으로 편입 ·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개선 ·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성과중심의 세출운용	우선순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투자의 외부효과 큰 사업 우선 선정 · 투자사업과 투자계획의 연계
	계획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예산 대비 결산액의 오차액 감소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의 다각적인 조달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tching fund를 활용한 국고보조의 적극적인 유치 · 도청이전 재원의 확보 및 중앙정부와 네트워크 강화
	민자유치를 통한 투자재원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채의 효율적인 활용 · 자산유동화증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 민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편익시설 확충
기초단체 재정지원의 형평성 제고	낙후지역 우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가중치 적용
	균특 지역개발계정 형평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평성 우선의 총액예산 배분
	재원조성 통한 지역균형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 재원조성[(가칭)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

제3장 투자사업계획 및 집행방안

제3장 투자사업계획 및 집행방안

가. 투자사업계획

■ 투자 대상사업의 선정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광역권개발계획 등 중앙정부 추진·지원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
- 도 전체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군 경계를 넘어서 개발과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선정
- 시·군이 요청한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도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도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 선정
- 낙후 시·군의 사업추진을 지원하여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 단계별 사업추진 원칙

- 각 단계별 사업추진 원칙은 상위계획·관련계획의 부문별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계획목표 달성도, 지역개발 파급효과 등이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표 III-19〉 단계별 사업추진 원칙

단계	사업기간	대상사업 선정기준
1단계	2006~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조기 완공되어야 할 기반사업 • 기반사업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한 사업 • 고용·소득효과가 커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2단계	2011~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사업 등 단계별 개발계획이 제시된 사업 • 투자자본의 규모가 작고, 회수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사업 • 민간자본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활용이 가능한 사업
3단계	2016~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본의 규모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대규모 사업으로 기초조사, 기본투자가 필요한 사업 • 장기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 • 차후 지속적인 개발 및 선행사업 등에 의해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

■ 총투자규모 및 투자비 분담

- 계획기간(2006~2020년) 동안 사업추진에 필요한 총 투자소요액은 약 84조 4,344억원으로 산정
- 부문별 투자분담내역에서는 사회인프라부문이 38.8%로 가장 높고, 도시 및 지역개발부문 24.0%, 산업부문 16.6%, 문화관광부문 8.4%, 환경부문 6.7%, 생활복지부문 3.1%, 자원개발부문 2.4%임
 - 사회인프라부문에서는 교통에 대한 투자가 31조 6,366억원을 차지하여 총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5%에 달함
- 재원별 투자내역은 국비가 36조 3,337억원으로 43.0%를 차지하며, 지방비는 10조 2,036억원으로 12.0%, 민자 등 기타가 29조 7,516억원으로 39.8%임
- 계획단계별 투자내역은 2008~2010년 20.5%, 2011~2015년 37.8%, 2016~2020년 32.0%임

〈표 III-20〉 총투자사업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총투자 금 액	기투자 금 액	단계별 투자계획			재원별 투자내역		
			2008~ 2010	2011~ 2015	2016~ 2020	국 비	지방비	기 타
계	844,344	81,455	172,763	319,581	270,545	363,337	102,036	297,516
도시 및 지역 개발부문	203,196	25,821	57,279	66,147	53,949	28,846	12,879	135,650
산업부문	140,166	18,994	35,037	49,225	36,910	26,066	15,766	79,340
문화관광 부 문	71,058	7,534	22,343	23,710	17,471	11,844	14,422	37,258
사회인프라 부 문	327,339	15,689	33,345	144,298	134,007	254,317	26,532	30,801
생활복지 부 문	26,226	3,303	7,342	10,755	4,826	5,719	7,292	9,912
자원개발 부 문	20,369	3,560	5,452	6,053	5,304	8,513	5,493	2,803
환경부문	55,990	6,554	11,965	19,393	18,078	28,032	19,652	1,752

■ 재원조달 기본방향

-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의 재원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 자치단체의 재원조달에 의해 추진
 - － 개발계획이 수립된 대규모 개발사업(세종도시, 도청이전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연계된 사회간접시설의 재원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확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국가계획 수정계획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협력)
- 민자 선호사업인 관광사업, 지역개발사업 중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민자외자 등을 유치하여 재원조달
- 낙후 농어촌지역 정비사업,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축수산업 및 제조업 육성사업,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은 관계 부처별 재정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재원 확보
- 주민의 욕구가 큰 문화·체육 기반시설은 BTL(Build Transfer Lease)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간투자법에 의한 44개 공공시설에 대하여 확대·추진
 - － 기초 서비스제공을 위해 건설·운영해야 하는 국공립시설
 - － 시설이용료 수입으로는 민간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 － 민간의 창의성 활용으로 사업편익 증진과 비용이 절감되는 시설 등

■ 재원조달 방안

- 중앙정부 의존재원 확보
 - －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련 재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
 - － 중앙정부의 재정운용 기조와 연동하는 지방재정운용
 - － Matching Fun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운용 시행
 - － 대규모 사회간접시설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연계사업과 개발비용의 분담 등을 통해 적시에 재원확보 유도
- 자체재원 확충을 통한 투자재원 조달
 - －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신세원의 적극적 발굴 및 체납 지방세의 적극적인 징수를 통한 재원조달
 - － 사용료, 수수료 등의 세외수입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 추진

-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방채를 활성화하여 투자사업의 현재 비용 부담자와 미래 수혜자의 비용 편익의 분담
- 충남의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의한 인구 유입 및 부동산 확대에 지방세수 확충이 예상
- 이러한 조세채권을 기반으로 한 지방채 발행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수단으로 활용 가능
- 민자유치
 - 민자 투자수요가 예상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위한 유인책 제공
 - 민자수요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기업도시 등 민간에게 유리한 투자유인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투자유치
- 기타 재원조달 방안
 - 충남개발공사를 활용한 자산유동화증권(ABS)에 의한 재원 조달

나. 투자사업 재원조달 및 추진체계 구축

■ 재원조달 방안

- 효율적인 도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재정 및 예산과 연계하여 세부 부문별 실천계획 수립
- 재원투자계획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투자사업 시행
- 재원운용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 일부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추구로 인한 소외가 발생하여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고려
- 중앙정부 재정 지원사업, 도 자체 사업, 도와 시·군 합작사업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투자사업 추진
- 부문별 계획 중 도 발전을 전략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선정,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집중 투자

■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화

- 국내외 민자, 외자유치,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도 종합계획의 지속적·실천적 추진, 여건변화에 따른 도 종합계획의 재정비 등을 전담할 기획조정 기능을 포함한 전담 추진체계 구축
- 투자사업에서 민간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인 충남개발공사를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행자로 활용

	제 IV 편
시·군별 발전방향	
	<div>천안시</div> <div>공주시</div> <div>보령시</div> <div>아산시</div> <div>서산시</div> <div>논산시</div> <div>계룡시</div> <div>금산군</div> <div>연기군</div> <div>부여군</div> <div>서천군</div> <div>청양군</div> <div>홍성군</div> <div>예산군</div> <div>태안군</div> <div>당진군</div>

1. 천안시 : 충청권을 대표하는 국제적 산업·업무·R&D 거점도시

가. 기본목표

- 「첨단산업-국제비즈니스-R&D」가 체계화된 혁신적 성장거점도시
- 선진 도시기반과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춘 어메니티도시
- 새로운 지방문화 창조를 선도하는 고품격의 문화관광도시

나. 발전방향

- 두정~불당~쌍용동을 행정·금융·상업 등 국제비즈니스 중심으로 거점화하고 아산신도시-중심시가지-차암동-직산읍(천안밸리)-입장면(입장밸리)을 탕정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세계적인 크리스탈밸리(Display)로 조성
- 4대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생산-R&D-주거기능의 전문산업단지 조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국내·외 고급인력, 다국적기업·연구소의 유치, 지식기반집적지구 지정 등을 단계적·입체적으로 추진
- 청주·인천공항, 평택·당진항 등의 국제물류기지 및 대전·충북(오송·오창)과의 연계교통체계 확충은 물론 산업체·대학·TP·연구기관·주거지 등과 의 원활한 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최고의 삶의 질 달성과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국제수준의 문화·관광인프라를 확충하며, 외국인 종사자 자녀를 위한 학교 설립, 영어 사용자 커뮤니티 구축, 국제수준의 의료시설 및 진료서비스 등을 추진
- 중심생활권내 신·구도심간, 북부 및 남동부생활권간, 도시와 농촌간 균형발전을 통한 사회통합으로 지역사회발전의 성장동력원화
- 정주여건 개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삶의 질' 최고의 도시로 육성
- 고품질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박물관·도서관·문예회관·공원과 문화광장·체육시설을 적재적소에 확충하고, 천안흥타령축제의 월드페스티벌화와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며, 천안 동부지역의 병천-목천-수신(상록리조트)의 삼각 축을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를 형성하여 증가하는 수도권·충청권의 관광수요를 수용

2. 공주시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상생 발전하는 SMART CITY

가. 기본목표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권의 중추도시
-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고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국제관광휴양도시
- 지속가능성, 능률성, 쾌적성, 첨단성이 확보된 SMART CITY

나. 발전방향

- 행복도시와 상호 보완적 기능을 유지하는 네트워크 도시체계 강화
 -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지원시설 유치로 도시성장기반 확충
 -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역사성을 보완하는 국제관광 중심지로 육성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국제관광휴양도시 기반 강화
 - － 중부권 또는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권의 국제 및 광역 기능의 역할 강화
 - － 역사문화, 금강자연경관을 활용한 복합체험형 레저관광지 조성
- 고속·광역교통망 활용 지역발전 견인
 - － 호남고속철도 남공주역세권 개발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 고속도로 IC연접지역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견인
- 근교도시 장점을 활용한 농업·농촌의 전략적 육성
 - －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민과의 교류하는 농업·농촌 만들기
 - － 중소 전원마을 조성으로 돌아와 더불어 사는 농촌마을 조성
- 신개발과 기성시가지의 체계적 정비
 -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한 문화재와 생활공간의 면적인 정비를 추진
 - － 공주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주변 대도시의 수용에 적응할 다양한 계획적 주거지 조성
 - － 신개발의 영향을 기성시가지와 연계한 체계적 정비

3. 보령시 : 4계절형 국제적 종합해양관광·문화 허브도시

가. 기본목표

- 경쟁력 있고 품격 있는 21C형 관광문화 테마도시
- 4계절 찾아와 머물러가는 지역특화형 관광인프라를 갖춘 도시
- 천혜의 자연환경과 해양·휴양문화가 조화된 환황해권 교역기지

나. 발전방향

- 서해안 관광벨트 특성화, 보령~안면 연육교 가설, 보령신항 건설
 - 보령~안면 연육교 조기 착공, 보령신항의 조기 건설 추진
- 천혜의 해양자원과 섬 고유의 문화자원을 보전 및 발굴
 - 78개 섬지역 정주환경정비, 도서경제 활성화, 기반시설정비, 연안환경 개선, 관광개발사업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
- 해양레포츠 특구지정 추진
 - 원산도, 보령 포트랜드 조성사업으로 서해안의 해양휴양 관광거점 구축과 삼지도 휴양타운 조성사업으로 특색 있는 해양휴양지 조성
- 관창지방산업단지 조기입주 촉진
 - 잔여부지 조기입주 대안 모색을 통한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
 - 관광문화산업과 연계하여 '해양레포츠산업' 육성을 도모
-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폐광이용 관광테마마을 조성, 재래시장 특화상품 출시 및 판로 확대, 특산물 저장 위판시설 및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건어 위판장 시설 확충
- 도시관리시스템 재정립 및 도시 안전관리시스템 조기 구축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 추진, 수변 경관지구 지정 및 해안선 스카이라인 (도서 포함) 보호, 시가지 개발은 인구수용 능력 감안 단계적 사업추진
 - 국제안전도시(International Safe Community) 공인사업 추진

4. 아산시 : 중부 광역권의 성장을 견인하는 세계속의 녹색 첨단도시

가. 기본목표

- 충남경제의 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첨단산업 리더도시
- 수도권 기능을 분담하고 중부권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중추 거점도시
- 삶의 가치를 높이고 고품격 지역문화를 창달하는 교육문화 일류도시

나. 발전방향

- 3대 전략산업(디스플레이, 자동차, 반도체)을 집중 육성하여 전국 제일의 수출중심 산업도시로 도약하고, 아산만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여 전자정보산업과 국제업무 중심의 글로벌 특구 조성
- 탕정산업단지-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음봉 디스플레이지원센터를 연계하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R&D, 마케팅, 전시·컨벤션, 파이낸싱 산업 유치로 아산크리스탈밸리 조성
- 아산신도시를 선진형 첨단복합, 자족적 거점, 환경친화적 전원도시로 개발하여 수도권의 기능을 분담하는 북부 내륙생활권의 광역중심도시로 만들고, 광역 아산만권 물류·유통 네트워크의 중심 축으로 발전
- 공항과 항만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고속철도-수도권전철-광역도로가 연계된 입체적 선진교통망 구축으로 수도권, 행정중심 복합도시, 도청 이전신도시 등 주요성장 거점과의 광역 협력체계 구축
- 온양권과 신도시의 동반성장 실현을 위해 도시개발, 주거환경개선, 노후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중심권역 도시환경정비 등 뉴타운 개념의 종합 리모델링과 도로, 상·하수, 문화, 환경 등 도시발전 인프라 확충
- 품격높은 교육·문화도시 육성을 위해 문화융합타운과 복합스포츠타운, 경찰교육타운을 조성하고, 명문학교 및 평생학습도시 육성, 특목고와 국제학교 유치, 국제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육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 3대 테마 관광단지를(온천보양테마, 아산호·삼교호 해양테마, 민속마을·광덕산 전통테마) 중점 개발하여 휴양·레저 복합 관광도시로 발전
- 품질고급화 및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1사 1촌 자매결연, 체험관광농업, 주말농장 등 생산적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

5. 서산시 : 내포문화·해양생태자원·신산업이 어우러진 임해관문 도시

가. 기본목표

- 대중국교역 및 환황해경제권 교류의 중심지
- 서해안시대 임해산업의 중심지
- 서해안의 관광·휴양지 및 친환경적 도시

나. 발전방향

- 대중국 및 환황해 경제권 교역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광역 교통·물류 거점 육성
 - 대산항 확장, 서산비행장 민항기 취항을 통한 대중국 교역 및 국제적 교류의 거점화
 - 고속도로(대전~당진~대산)·동서산업철도(인주~서산~안흥) 건설, 주요 국도 및 지방도의 4차선 확장 등으로 수도권 및 중부권 대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광역교통망 구축
-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산업 육성
 - 석유정밀화학, 첨단자동차산업 중심으로 한 산업클러스터화
 - 서산바이오웰빙특구 조성 등 지역특구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삶의 여유와 볼거리가 있는 관광·휴양도시 육성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관광휴양시설 확충
 - 천수만 생태공원 조성, 생태자원 유네스코 등록, 월드 버드랜드 조성 등으로 자연생태자원의 학습·관광적 활용 도모
 - 안면도~대산항(삼길포)~인천~중국으로 이어지는 크루즈 관광 육성
- 고품격 문화교육 환경 및 쾌적한 도시주거 공간 조성
 - 종합문화예술회관, 내포문화박물관, 예술인촌 조성, 자연국제영화제 유치
 - 전문기능대학교 유치, 명문 고등학교 설립, 외국인 영어마을 조성
 - 도시공원 확충 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전원도시 육성

6. 논산시 : 도농복합형의 자족형 전원도시

가. 기본목표

-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도농복합형 전원도시
- 미래를 여는 첨단기술산업 도시
-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창조도시

나. 발전방향

- 특화작물 생산·육성 및 생산구조 개편 및 농촌지역 인재 육성
 - 대표 특화작물의 고품질화 및 읍면별 특화 작목 육성하고, DB구축하여 농업환경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선진 연구결과신기술 보급 및 산·학·연·관 협의회 등과 네트워크 구축
 - 고품질의 생산물을 주변 도시로 공급키 위한 산지 유통체계 확립
 - 귀농자 농업기술교육 및 농업후계자 장학사업 등 농촌지역 인재를 육성
- 산업·유통단지 및 서비스업 육성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조성
 - 기존의 농공단지를 활성화(논산지방산업단지, 연무·은진·연산·가야곡농공단지 등) 및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종합 유통단지 조성
 - 도심지의 상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논산시 동부의 중심상업지구, 강경 젓갈시장, 지역특화 시장 등)
- 관광농업의 적극적 육성
 - 농가민박과 향토요리, 특산물 개발,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의 독특한 생활과 문화를 자원으로 활용하며, 농촌환경 보전을 원칙으로 한 개성있는 관광농촌마을 조성 및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사체험 실습장 개설, 전통문화 체험, 테마공원 건설
- 자연·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기반을 구축
 - 특색있고 다양한 관광거점 육성(계백장군 묘역, 사계묘역, 윤증고택, 노성산성, 강경 옥녀봉, 금강, 논산천, 탑정호, 왕암저수지 등)
 - 관광거점 연계 네트워크를 형성하되, 이를 주민을 위한 문화거점으로 활용
- 군사문화 관광 및 국방관련 산업클러스터화
 - 인접 계룡대(계룡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호국관광벨트 구축 및 국방관련 산업유치, 국방관련 대단위 교육연구시설 이전(유치) 추진

7. 계룡시 : 누구나 살고 싶은 전원 · 문화 · 국방의 모범도시

가. 기본목표

- 에코폴리스를 지향하는 전원모범도시
- 아트폴리스를 지향하는 문화모범도시
- 시빌리터리 폴리스(민군화합도시)를 지향하는 국방모범도시

나. 발전방향

- 도시공간구조 및 도시성장축 정비
 - 연속적 녹지축 형성 및 관리, 정주생활권과 역세권개발을 포함 도시성장 개발축 설정,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동서 간선도로 건설
- 생활권 설정 및 거점 특화개발
 - 금암지구 중심생활권 및 생활권별 특화 추진,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내부 교통축으로는 금암지구 중심의 방사환상형으로 구축
-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지연(地緣)산업 인프라 구축
 - 우수 농특산물에 공동브랜드(신도안) 부여 농가소득의 획기적 증대, 슬로 우 푸드·농촌체험마을사업 및 청정농산물의 판로 확대
-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녹지축 형성으로 생태도시 조성
 - 국제문화지구 및 자연체험 교육시설 조성, 대실지구에 푸른숲(녹지벨트), 깨끗한 공기(대기벨트), 맑은 물(물벨트)이 연계된 풍수환경도시로 건설, 두계천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 전통문화와 민속예술이 살아 숨쉬는 예술문화도시 구현
 - 청정성과 도시경관을 관광자원화, 민군협력 문화예술단 구성으로 특화운영, 평생학습도시 추진, 염사문화공간 및 유동리 시민문화체육단지 조성
- 민군화합도시('Civilitary')를 지향하는 국방모범도시를 지향
 - 민군화합타운 건설(복합컨벤션센터), 제대군인촌(Retired Military Town) 조성 및 민군협력센터 설립·운영, 입암산업단지 연계 국방산업단지(국방벤처기업군)의 본격 육성, 대덕R&D과학특구 대응 '국방특구' 역점조성
 - 종합안보체험관 및 체험훈련장 건립 조성, 계룡대 내 주초석 일대를 공원 조성 및 통일탑, 솟을추, 암용추, 천황봉을 잇는 안보관광 자원 개발

8. 금산군 : 자연과 생명산업이 공존하는 활력 있는 전원도시

가. 기본목표

- 문화적 가치가 유기체적으로 기능하고 새로운 복지시스템이 구축된 문화·건강도시
- 기능성 지역특화산업으로 경쟁력이 확보된 선진도시
- 아름다운 자연과 균형적 개발이 조화된 쾌적도시

나. 발전방향

- 생활문화형 사계절 관광개발
 - 테마가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며 금산 산업의 핵심인 인삼약초시장 건물의 경관과 거리특화사업 등을 추진
 - 보곡산골의 산꽃과 드라마세트장 등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금산군과 인접하고 있는 1시, 2구, 5군과 광역적 연대를 통한 광역관광루트를 공동개발
- 선진복지 패러다임 도입 및 정착
 - 복지서비스 제공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군민에 대한 종합지원 DB와 보건 복지카드를 작성하여 종합관리
 -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복지계획을 수립
- 특화산업의 전략적 계획 수립과 생명농업패러다임 구축
 - 자연순환형 농업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관리하며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
 - 건강관련식품산업을 특화시키고 개발하며 기능성 전통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식품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벤처농업 및 생명농업을 육성
- 어메니티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공공사업
 - 적정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시가지 확장 및 인삼약초상가의 참여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경관조례를 제정
 - 산촌지역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금강을 잇는 금강탐방관광도로를 건설하며 하천공원화 사업과 전원주거단지 조성

9. 연기군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함께 하는 역동적인 건강도시

가. 기본목표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관문도시
- 일(첨단산업)과 레저가 있는 기능도시
- 작지만 역동적인 건강도시

나. 발전방향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효과 극대화
 - 계획적·전략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개발압력 수용
 - 개발압력과 변화하는 신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공간 조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권 계획과 연계하여 연기군에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 강화
-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혁신거점 개발
 - 접근성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켄지와 회랑(Wedge and Corridors) 및 IC 연결부와 연계한 개발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도시 수요에 대응한 광역적 생활·레저 관련 기능공간 조성
-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재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주변 대도시권의 성장에 따른 제조업 수요 증가에 대비한 중소기업집적화단지 조성
 - 전략적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
-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만들기
 - 대도시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살린 도시형 농업, 체험관광농업 등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와 도시근교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 생활공간으로서 중심시가지 정비
 -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신규 시책 개발

10. 부여군 :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관광의 중심지역

가. 기본목표

-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금강르네상스의 문화·관광지역
- 깨끗한 정주환경으로 살고 싶은 행정도시 배후 휴양지역
- 친환경·고품질의 고부가가치 청정 농업지역

나. 발전방향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하여 국제적 거점관광지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전통·문화예술기반 육성
 - 고도(古都) 옛모습 되살리기 추진 및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백제호 관광단지,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및 (가칭)대백제전의 세계화 추진
 - 금강변 수변지역의 개발을 통해 금강의 생태자원을 관광자원과 결합
 - 古都보존특별법을 활용한 역사·문화자원 보존·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
- 국제적 문화관광지역으로서 입체적 광역교통망체계 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부여~서천」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과 「도청이전신도시~부여」를 연결하는 중단 교통망 구축
- 경쟁력을 갖춘 첨단 농업기반 구축
 - 지역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유통구조개선, 첨단유기농업 등 기술집적으로 첨단생태농업지대로 육성하며 관광농업과 체험형농원, 농경지 등을 확충하여 관광 자원화
- 농촌복합생활공간화로 침체된 농업지역을 활성화
 - 부여읍과 배후 농촌지역을 하나의 통합생활권으로 재편하여 정체된 농촌을 도시와 소통하는 복합공간으로 개발
- 농촌어메니티자원을 이용한 농촌소득기반 확충
 - 부여의 농촌다움과 친환경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대전권, 행정도시권의 휴양도시로 개발하고, 매력 있는 경관을 조성

11. 서천군 : 쾌적한 환경과 풍요로운 삶이 있는 「어메니티 서천」

가. 기본목표

- 환황해권의 역동적인 산업·교역을 지원하는 배후중심도시
- 아름다운 경관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한 서해 남단의 관광거점도시
-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이 있는 건강·복지도시

나. 발전방향

- 환황해권의 생산·교역 중심지로서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 － 해양, 내륙, 금강생태자원을 연계하는 순환연계형 교통망과 「서천-부여-공주-행정도시」를 연결하는 “금강 르네상스 광역교통망” 구축
- 지역산업 육성, 교역기능 지원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 － 김가공 특화단지 및 비인만 건어물 판매단지 조성
- 서천읍과 함께 장항읍을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소도읍으로 육성
- 서해 해양자원과 금강하구의 생태자원의 관광자원화 추진
 - － 홍원항 다기능 어항, 송석 어촌체험마을, 봉선리 유적 공원화 사업 등을 통하여 서해 남단의 관광지역으로 육성하며, 금강 하구 생태테마공원화 사업 및 금강 르네상스와 연계한 관광자원화 추진
- 서천 고유 특산품의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상품화
 - － 한산모시, 소곡주 등 지역의 특산품을 소재로 한 제품을 개발하고 이벤트 활용 및 마케팅 전개를 통한 브랜드화 추진
- 농촌복합생활공간화로 침체된 농업지역을 활성화와 소득기반 확충
 - － 서천의 농촌다움과 친환경 자원을 이용한 배후 휴양지 개발 및 행정도시·대전광역권, 도청이전신도시권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봉선저수지 주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확대 추진
-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이 있는 복지·문화시설의 지속적 확충
 - － 고령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에게는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보건, 복지환경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12. 청양군 : 에코 파라다이스(Eco-Paradise) 청양

가. 기본목표

- 도시적 편리함과 전원적 쾌적함이 조화된 전원도시
- 미래형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이 연계된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
- 청정한 자연생태자원에 기반한 매력 있는 관광·휴양도시

나. 발전방향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와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기반 구축
 - 도청이전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도시민의 5도2촌 정주의 최적지가 될 수 있는 맞춤형 정주공간을 조성
 - 청양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을 통한 중심시가지 활력증진을 도모
- 지역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 육성
 - 단순 생산중심의 관행농업에서 탈피하여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이 연계된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업 실현
 - 청양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축산바이오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고추·구기자 등 향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개선된 접근성을 활용한 IC 연결부 복합개발(Smart IC) 추진
-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그린투어의 메카로 육성
 - 체험형 주말 가족농원 조성과 농촌체험마을 확대를 통한 “그린컴(Green-Come) 청양” 활성화
- 칠갑산·지천 중심의 문화관광 활성화
 - 칠갑산과 지천을 활용한 산악관광 및 생태관광 벨트를 구축하고 가족중심의 체험관광 기반 시설 조성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지역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확충
 -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유출 억제

13. 홍성군 : 충남의 자랑, 서해안시대의 신중심 홍성

가. 기본목표

-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환황해권 거점도시
-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지방행정중심도시
- 자긍심과 개성이 풍부한 역사문화·복지도시

나. 발전방향

- 충남도청 이전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기반 구축
 - 충남도청 이전과 연계한 공간구조 재편 및 지역발전축 설정
 - 도청이전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간선교통망 및 기존도시와의 연계 도로망의 지속적 확충
- 환경친화적인 도농복합형 정주기반 조성
 - 차별화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존도시의 재생과 신도시의 균형적 개발 추진
 - 활기찬 농촌만들기를 위한 농촌의 복합공간화 및 테마공간 조성
- 혁신주도형 지역경제 기반 구축
 - 단순 생산중심의 관행농업에서 탈피하여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이 연계된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업 실현
 - 도청이전신도시라는 위상에 부합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육성
- 지역정체성을 제고하는 문화·관광산업 육성
 - 내포문화 중심지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보존·정비
 - 궁리-어사-남당 해양관광벨트 구축, 용봉산·오서산 체류형 관광명소 개발 등을 통한 관광지로서의 대외 인지도 제고
-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복지환경 조성
 - 지속적인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생활환경 조성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생산적 사회복지 기반 확충

14. 예산군 : 역사와 문화속에 힘차게 도약하는 충남의 신중심도시

가. 기본목표

-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지는 내포문화 중심의 문화관광도시
-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춘 도청이전신도시 배후 지원도시
- 첨단산업과 농산업을 공존하는 조화로운 청정도시

나. 발전방향

- 충남도청 및 관련 유관기관 이전효과 극대화
 - 관련 종사자 및 부양가족 이동을 최대한 수용하는 정주형 도시 건설
 - 지역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도시공간구조 재편
 - 도청이전신도시와 연계한 효율적인 교통망 확충
- 일상 속에서 푸르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태도시화
 - 도시 전체를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조성
- 충남 서북부지역의 첨단산업과 연계한 지역산업구조 재편 및 고도화
 - 산업입지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업용지 공급
 - 지역간 연대와 협력방안 모색 및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
- FTA 협정체결에 대비한 수요대응형 농산업 육성
 -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관련 제조·가공산업, 유통·서비스업, 인력양성 및 기술관련 기관 등을 포괄하는 농산업 집적화
 - 지역특화작물인 과수원예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방안 모색
- 내포문화권특정지역계획과 연계한 문화관광 허브 도시화
 - 내포보부상촌 조성 및 현대적 보부상시장 개설 등을 통하여 내포문화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내포 중심지로서의 현대적 역할과 기능을 제고
 - 덕산온천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 예당호, 의좋은 형제 등을 네트워킹 함으로써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지역 이미지를 제고
 -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소규모 관광컨벤션산업 육성
 - 웰빙 체육, 교육체험시설을 갖추으로써 가족형 체험 및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15. 태안군 : 서해안 관광벨트의 국제적 관광허브 도시

가. 기본목표

- 친환경 전략적 농수산업의 특화 발전지역
- 전통과 해안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창출지역
- 서해안관광벨트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국제적 해양관광 거점지역

나. 발전방향

- 서해안 관광벨트의 거점 중심지로서 국가균형발전 선도 지역
 - 안면도(지포)국제관광지, 만리포관광지, 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 등 관광거점 도시권 육성과 지역내의 균형된 관광자원 개발
 - PINE Coast 트라이앵글 관광거점도시인 안면도국제관광지, 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 보령 대천해수욕장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 국제수준의 해양관광도시 조성과 독살사구·자염염전 등 테마관광명소를 발굴·육성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
- 산업고도화로 지역 전략산업과 향토산업의 육성
 - 태안군 고유의 농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농수산물의 유망품목 발굴과 전문지식 창업농 육성 및 농어업복합형 농어촌체험관광지 지정 운영
 - 청정 수산자원의 바다목장으로 기르는 어업의 육성과 채소, 마늘, 고추, 화훼 등 지역 농수산업의 특화 육성
- 전통과 해안지역의 특성이 살아 있는 문화관광산업 육성
 - 지역 SOC 확충과 관광기반시설의 조성을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연결도로망, 동서산업철도, 국제여객항만 건설과 고속훼리 운항 등 추진
 - 해양레저관광의 계절적 편중성 극복을 위해 해양스포츠, 유람선 운항 및 테마 해수욕장을 조성하고, 인접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 주5일 근무제형 웰빙상품과 참여형 가족단위 체험상품으로 도서, 해안 생태관광자원의 발굴·육성과 5도2촌을 위한 세컨드하우스의 개발 제공
 - 태안의 명소형 장소마케팅과 특산품을 판매 강화 및 주변의 서산·홍성·보령 등 관광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적 관광사업의 추진

16. 당진군 : 동북아 물류 및 임해형 신산업 중심도시

가. 기본목표

- 역동적인 수출 지향적 임해신산업지대
- 환황해경제권을 주도하는 물류·유통 중심도시
- 지속가능한 체험형 휴양 및 여가의 중심지

나. 발전방향

- 임해형 신산업도시로 육성
 - 환황해경제권에 대비한 대 중국 전진기지 및 임해형신산업단지육성
 - 석문복합산업단지내 첨단산업 및 레저산업의 유치로 신산업단지 조성
 - 산학연계를 통한 인력, 기술력 확보 및 생산력의 증대
- 고도화된 정보·물류거점도시로 조성
 - 당진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으로 국제적인 교역 기반 구축
 - 서해안고속도로 IC를 중심으로 한 물류·유통시설 및 주거단지 조성
 - 지역 산업발전 및 물류기능 제고를 위한 종합물류·유통체계 확립
- 친환경 도농복합형 Eco-city 건설
 - 당진시 승격에 대비하여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건설
 - 산업단지의 환경정비·오염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 자연환경을 고려한 정주공간 및 지역기능 배분
 - 공원 및 녹지체계의 구축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공간 조성
- 선진화된 근교농업지대 조성
 -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유기농 및 고품질 농산물 개발
 - 첨단기술농법 개발 및 전문기술인력 육성·발굴 및 지원
 -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브랜드 마케팅 기법 도입
- 해양 및 내륙관광휴양 중심지 육성
 - 내륙·해양 관광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장기적 개발·보전계획 수립
 - 삼교호 관광지 및 한진·성구미·장고항, 도비도, 난지도 등 항포구와 관광지를 해양 휴양 및 여가지대로 조성
 - 천주교 및 불교자원을 이용한 역사문화관광 추진지역 조성
 - 자연경관 및 무공해농산물 생산, 가공산업 육성, 지역 특산물과 연계된 그린투어리즘 추진

부 록	
	<div>1. 원계획과 수정계획의 비교</div> <div>2. 종합계획도</div> <div>3. 투자사업내역</div>

1. 원계획과 수정계획의 비교

구 분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00)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
계획의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차 국토종합계획('00~'20)의 지역적 실천을 위한 지역종합발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05~'20)의 지역적 실천을 위한 지역종합발전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등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발전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과 시책수단 필요
계획의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임해산업·환황해권 교류 중심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계획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를 창조하는 「산업·물류·해양 중심 지역」 •개성과 전통을 살린 「문화·관광 중심 지역」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농업 중심지역」 •삶의 질을 최우선하는 「생활·복지 중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형 있는 지역발전 •함께 하는 복지사회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역동적인 산업경제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환경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류·협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공간개발 •미래형 산업기반 육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 •개성있는 지역문화권 형성 및 관광개발 •서해안시대를 대비한 사회인프라 구축 •고품격의 생활·복지환경 조성 •맑고 깨끗한 푸른충남 구현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국제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고 싶은 도시·농촌 정주기반 조성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산업 육성 •특색 있는 지역문화와 매력 있는 관광 진흥 •신속하고 편리한 인프라 구축 •더불어 누리는 생활·복지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자원의 개발 및 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푸른충남 구현
주요 계획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연도(2020년) 계획인구 : 2,186천명 •1인당 GRDP : 29,238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연도('20년) 계획인구 : 2,500천명 •1인당 GRDP : 39,588천원

구 분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00)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
공간구조	지역 발전축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田”자 형의 개발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田”자 형의 개발축 유지 •동서2축과 남북2축을 설정하여 개방형 통합국토축(역π형)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주변의 광역시·도와의 연계성 제고 및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형의 2축을 추가
	개발 경영권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부권, 백제권, 서해안권, 금강권 등 4개 개발경영권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개발경영권의 설정·운영 원칙을 계승하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시·군간 광역적 연계체계의 재편 필요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백제권”을 “내륙권”으로 조정
	생활권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경영권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지역생활권간 균형발전을 위해 6개의 광역생활권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형 도시체계의 형성을 전제로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에 따라 생활권의 구성을 조정 •개발경영권과의 일관성 유지, 기존 생활권 체계, 생활권 내부의 지역간 기능적 연계성 및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확보, 지역생활권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로 구분

구 분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00)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개발	중소도시 개발 및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의 통합개발 •신도시 및 신시가지 개발 •종합대학타운 및 학사촌 조성 •도시의 중심기능 강화와 특화기능 육성 •새로운 지방문화 창조와 역사·문화 도시 네트워크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신도시 및 신시가지 개발 및 관리 •지역특성을 활용한 전문기능도시 육성 •중소도시 중심시가지 활력증진 •네트워크 도시체계의 강화 •참여와 협력의 도시계획·개발 체계 구축
	농산어촌 개발 및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부문으로 책정되지 않고 지역개발 및 농·림·수산업에 일부 포함 •농촌지역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정비와 특정지역 관광·휴양을 위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역개발을 별도의 부문으로 분리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정비를 비롯한 소득, 교육, 의료, 복지, 인적자원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지역개발의 추진
산업 및 기술의 경쟁력 강화	농·림·축·수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초점 •생산 위주의 농림축수산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물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방안 및 농업경영에 초점 •생산 위주의 농림축산업에서 생산, 유통이 결합된 복합산업으로서의 농림축산업 육성 •농산업클러스터 및 벤처농기업 육성,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농림축산업 육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및 시장지향적 농림축산업 육성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전역을 3개 축으로 하는 「신산업지대」 형성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고도화 및 지식기반화 •산업의 다양화·고도화·전문화에 대비한 업종별 집적지 육성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식산업 집적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의 지식기반화 추세의 반영 •산업클러스터 접근방법에 기반한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의 다양화, 고도화, 전문화에 대응한 권역별(지역별), 산업별 산업용지 공급 •전략산업의 성숙화에 따른 신전략산업의 육성 •기업지원기반 강화방안 제시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기반조성 •지역내 신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한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략화 •지속가능한 유통서비스업의 육성 •자금의 효율적 중개 및 배분을 통한 지역금융의 활성화

구 분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00)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
문화관광 자원의 개발	개성과 품격 있는 지역문화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기반조성 및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지역의 전통계승 및 문예활동 진흥을 위한 종합활성화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형 문화공간 확충과 문화 네트워크 구축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고품격 문화인프라 구축과 지원체계 구축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산업 육성
	관광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과 관광 산업 육성 •거점관광지 전략적 개발과 관광인프라 구축 •권역 특성화와 광역 관광벨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도시, 도청이전신도시와 연계한 배후관광지 개발 •서해안관광벨트와 백제·내포문화권 관광특정지역 개발 •문화컨텐츠 관광상품 개발과 인접 지역 협력적 관광개발 추진
교통·물류 및 정보통신 망의 구축	교통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교류중심지로서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선망 확충 •산업개발 촉진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 •교역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항만 개발 •항공 교통시대를 선도할 근거리 항공의 실용화와 경비행장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선도로망 확충 및 정비 •산업물류 지원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철도망 확충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 항만 개발 •군비행장의 지역중심공항으로 활용 및 관광레저형 경비행장 육성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과적인 물류유통을 위한 물류권역의 설정 •Tri-port 체계 구축 및 지역거점 물류시설 확충 •물류비 절감 및 효율적 물류시설 이용을 위한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율적 물류시스템 구축 •권역별·산업특성별 물류거점시설의 합리적 배치 •물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물류네트워크 구축 •동북아 관문으로 물류·비즈니스 거점항만기능 확충
	정보통신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기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지식정보 활용능력 선진화 •전자지방정부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U-농촌건설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 사업 추진 •행정혁신 및 u-인프라 구축 •유비쿼터스 기반의 u-산업 육성 •u-City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시행

구 분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00)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
주민생활 확충 및 복지환경 의 조성	주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의 고급화·정보화와 지역특성을 살린 주거환경 개선 주택의 양적 확충과 저소득층 주택 지원 재고주택의 보전과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복지정책의 강화 주택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다양한 주택공급의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전략과 통합 주택거버넌스의 구현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예방적·생산적 복지서비스기반 구축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건설을 위한 구성원의 참여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종합적 추진 사회계층별 사회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시설 확충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종합적 추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구축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시설 확충 및 지역간 의료수준 격차해소 새로운 의료서비스 기반구축 및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의료서비스 확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민건강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시설 확충 건강한 임신출산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질병예방 및 건강계층을 위한 건강관리체계 구축 전염병 예방을 및 만성·신종질환 관리강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교육 및 체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한 체육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등 오지·낙후지역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지역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전문인력 및 미래지향적 청소년 육성 평생학습사회의 실현 및 평생학습도시 건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체육활동 활성화
지역자원 의 개발과 관리	토지이용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적·계획적 토지이용 관리체계 확립 친환경적 개발기법 적용 확대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적 토지이용 관리 강화 합리적인 토지이용 규제장치 마련 산지 및 농지의 체계적 관리
	경관의 형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 및 행정체계 구축 경관정책의 실현성 제고를 위한 관련정책 개발 및 시행
	건전하고 안정된 수자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된 수자원 확보 및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된 물공급 및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적극적인 수요 관리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개선을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에너지 이용의 생태적 효율성 증진

구 분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00)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
환경의 보전·관리	자연환경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 하천, 연안을 연계한 지역 생태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단위 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에 따른 생물다양성 강화사업 추진 •생태네트워크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 확대 추진
	대기질 관리와 기후변화 협약 대응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오염 배수시설관리시스템 도입 및 황사피해 예방대책 강구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 및 교통수단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대책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오염 배출관리시스템 도입 및 예·경보체계 구축 •인접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국제환경협약 발효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및 관리방안 강조
	과학적인 물환경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강수계의 하천 및 호소관리계획을 강조 •통합적인 연안오염방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강수계 및 삼교호수계 등 유역특성별 물환경통합관리방안 강조 •축산·분뇨 관리방안 및 수질관리 시설 설치방안 제시 •연안 및 하구지역의 오염예방·관리
	환경자원의 순환형 사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조성 및 관리 강화를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발생단계부터 감량시책 및 재활용기반 조성 •폐기물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하폐수 슬러지 처리기반 구축 및 재생에너지 개발
	도시 및 지역의 안전과 방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재해 대처능력강화 및 방재체계 구축을 위한 첨단재해경보시스템 설치와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난 대응능력 제고 및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재해관리수단의 활용(구조적 재해대책과 비구조적인 재해대책의 조화)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의 통합관리를 위한 종합적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의 집행과 관리	행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 중심의 인본행정체계 구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행정체제 정착 •지식정보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기제의 제도화 및 정책평가의 확대 •인사운영의 합리화와 창의적 공무원 육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행정의 지속적 추진
	지역간협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행정계획 중 경영행정체제 정착의 일부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단체간 협력기반의 조성 및 협력 제도의 정비
	국제교류 및 국제통상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기반 조성 및 직접 교류·협력 확대 •국제교류·협력 기반 조기구축 •민간 교류·협력의 확대·강화 •전략적 경제·통상교류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생산적 국제교류 확대 •통상교류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제 3 차 2008~2020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도



■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08~2020) 투자사업 총괄표

구 분		총사업비 (억원)	기투자 (억원)	2008~2010				2011~2015	2016~2020	주체별 (2008~2010)			부문별 구성비(%)
				계	2008	2009	2010			국비	지방비	기타	
계		844,344	81,455	172,763	59,813	53,648	59,302	319,581	270,545	363,337	102,036	297,516	100.0
도시 및 지역개발	소 계	203,196	25,821	57,279	19,827	17,361	20,091	66,147	53,949	28,846	12,879	135,650	24.0
	도시개발	158,044	19,785	38,965	14,280	11,613	13,072	55,112	44,182	10,422	7,018	120,819	18.7
	농산어촌개발	45,152	6,036	18,314	5,547	5,748	7,019	11,035	9,767	18,424	5,861	14,831	5.3
산업	소 계	140,166	18,994	35,037	12,165	11,460	11,412	49,225	36,910	26,066	15,766	79,340	16.6
	농림축수산업	39,307	6,743	11,404	3,820	3,897	3,687	11,388	9,772	16,032	9,266	7,266	4.7
	제조업	98,428	11,608	22,650	8,033	7,240	7,377	37,432	26,738	9,054	5,695	72,071	11.7
	서비스업	2,431	643	983	312	323	348	405	400	980	805	3	0.3
문화관광	소 계	71,058	7,534	22,343	7,786	6,415	8,142	23,710	17,471	11,844	14,422	37,258	8.4
	문화	32,815	2,942	15,301	5,311	4,100	5,890	10,862	3,710	9,784	12,490	7,599	3.9
	관광	38,243	4,592	7,042	2,475	2,315	2,252	12,848	13,761	2,060	1,932	29,659	4.5
사회 인프라	소 계	327,339	15,689	33,345	11,001	10,439	11,905	144,298	134,007	254,317	26,532	30,801	38.8
	교통	316,366	13,435	31,360	9,305	10,297	11,758	140,644	130,927	251,676	25,063	26,192	37.5
	물류유통	9,456	2,102	1,684	1,593	48	43	2,990	2,680	2,212	885	4,257	1.1
	정보화	1,517	152	301	103	94	104	664	400	429	584	352	0.2
생활복지	소 계	26,226	3,303	7,342	2,358	2,726	2,258	10,755	4,826	5,719	7,292	9,912	3.1
	주거	7,757	771	3,232	1,083	973	1,176	2,254	1,500	2,446	2,883	1,657	0.9
	복지의료	7,389	860	2,311	616	877	818	2,328	1,890	2,500	2,829	1,200	0.9
	교육체육	11,080	1,672	1,799	659	876	264	6,173	1,436	773	1,580	7,055	1.3
자원개발	소 계	20,369	3,560	5,452	2,669	1,348	1,435	6,053	5,304	8,513	5,493	2,803	2.4
	토지이용	1,406	199	387	175	112	100	400	420	594	613	0	0.2
	경관	255	42	63	21	21	21	75	75	46	167	0	0.0
	수자원	16,080	3,079	4,383	2,335	979	1,069	4,607	4,011	7,354	4,534	1,113	1.9
	에너지	2,628	240	619	138	236	245	971	798	519	179	1,690	0.3
환경	소 계	55,990	6,554	11,965	4,007	3,899	4,059	19,393	18,078	28,032	19,652	1,752	6.7
	자연환경	5,866	235	993	250	322	421	2,500	2,138	2,089	3,441	101	0.7
	대기질	999	96	191	55	54	82	290	422	378	385	140	0.1
	물환경	20,501	2,288	4,749	1,695	1,514	1,540	6,982	6,482	13,466	4,036	711	2.4
	폐기물	8,992	1,412	1,850	627	618	605	2,850	2,880	2,558	4,222	800	1.1
	치수방재	19,632	2,523	4,182	1,380	1,391	1,411	6,771	6,156	9,541	7,568	0	2.3
연차별, 재원별구성비		100.0	9.6	20.5	7.1	6.4	7.0	37.9	32.0	43.0	12.0	35.3	

■ 살고 싶은 도시·농촌 정주기반 형성

〈혁신적이고 인간적인 도시개발 및 정비〉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개 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기투자 (억원)	2008~2010				2011 ~2015	2016 ~2020	주체별 (2008~2010)		
							계	2008	2009	2010			국비	지방비	기타
계				—	158,044	19,785	38,965	14,280	11,613	13,072	55,112	44,182	10,422	7,018	120,819
도시개발	소 계			2006~2012	23,000	1,909	11,587	5,400	2,300	3,887	9,504		5,146	1,729	14,215
	신성장 거점도시 육성	신도청도시 개발	1개소	2006~2012	23,000	1,909	11,587	5,400	2,300	3,887	9,504		5,146	1,729	14,215
	소 계			—	130,273	16,899	25,860	8,455	8,702	8,703	43,332	44,182	3,496	3,331	106,546
	지역 활성화 거점 육성	IC 연결부 개발 시범사업	5개소 (장소미정)	2008~2020	1,255	0	505	5	250	250	500	250	0	5	1,250
		고속철도역세권 개발사업	호남고속철도 남공주역	2009~2020	8,305	0	5		2	3	3,600	4,700	3,496	108	4,701
		신도시개발,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29개 지구 (부록1 참조)	2006~2020	120,713	16,899	25,350	8,450	8,450	8,450	39,232	39,232	0	3,218	100,596
	소 계			—	4,771	977	1,518	425	611	482	2,276		1,779	1,958	57
	기존 도시 활성화 사업	소도읍종합육성사업	15개 시군 22개 소도읍 (부록1 참조)	2006~2012	3,920	784	1,036	260	446	330	2,100		1,568	1,568	0
		Green Park 조성사업 (소공원 조성, 담장허물기, 도시숲조성)	16개시군, 363개소 (장소미정)	2007~2010	655	193	462	165	165	132			92	370	0
		친수공간 조성사업	1개소(장항)	2010~2015	196	0	20			20	176		119	20	57

〈농산어촌 및 특수지역 활성화〉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개 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기투자 (억원)	2008~2010				2011 ~2015	2016 ~2020	주체별 (2008~2010)		
							계	2008	2009	2010			국비	지방비	기타
계				—	45,152	6,036	18,314	5,547	5,748	7,019	11,035	9,767	18,424	5,861	14,831
기초생활 인프라구축 및 농촌정주환경 정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을하수도정비사업	16개시군, 265개소 (장소미정)	2006~2020	3,710	294	700	196	224	280	1,400	1,316	2,440	976	0
		농어촌불량주택개량사업	9,713동 (장소미정)	2006~2020	3,886	435	832	252	276	304	1,200	1,419	2,415	1,036	0
	농촌정주환경 정비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114개 면 (부록2 참조)	2006~2020	1,913	317	535	175	180	180	531	530	1,276	320	0

	테마마을조성 및 도농교류 활성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01개 권역 (장소미정)	2006~2020	6,956	150	289	89	100	100	3,290	3,227	6,792	12	2
		전원마을조성사업	35개 마을 (장소미정)	2006~2013	525	66	105	35	35	35	354		367	92	0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64개소	2006~2011	128	58	56	22	18	16	14		35	35	0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47개소 (장소미정)	2006~2008	47	33	14	14					7	7	0
		어촌체험마을사업	24개 마을 (보령4, 서산2, 서천4, 홍성4, 태안7, 당진3)	2006~2020	120	5	60	25	25	10	25	30	62	48	4
균형개발 및 지역특성의 자원화	낙후지역 활성화	오지종합개발사업	32개 면 (부록2 참조)	2006~2020	2,662	292	570	178	205	187	800	1,000	1,659	711	0
		도서종합개발사업	24개 도서 (부록2 참조)	2006~2020	631	80	111	35	37	39	200	240	386	165	0
		산촌종합개발사업	55개 마을 (장소미정)	2006~2020	232	37	45	15	15	15	75	75	136	59	0
		어촌종합개발사업	5개 권역 (서산1, 서천2, 태안1, 당진1)	2006~2020	259	37	137	37	50	50	50	35	177	33	11
		신활력지역개발사업	4개군 (금산, 부여, 청양, 서천)	2006~2007	241	241	0						0	0	0
			금산군	2006~2007	46	46	0						0	0	0
			부여군	2006~2007	65	65	0						0	0	0
			청양군	2006~2007	81	81	0						0	0	0
			서천군	2006~2007	49	49	0						0	0	0
	개발촉진지구 개발	홍성지구	11개 사업	2006~2010	2,272	321	1,951	500	700	751			207	128	1,616
		태안지구	7개 사업	2006~2010	8,261	1,000	7,261	2,000	2,000	3,261			105	923	6,233
		보령지구	18개 사업	2006~2010	601	127	474	218	203	53			293	0	181
		서천지구	15개 사업	2006~2010	2,717	1,343	1,374	556	380	438			465	517	392
		금산지구	15개 사업	2007~2011	3,000	600	1,800	600	600	600	600		800	400	1,200
		부여지구	15개 사업	2007~2012	3,000	600	1,800	600	600	600	600		800	400	1,200
	지역균형개발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	시범사업 (홍성, 5개 분야)	2009~2020	3,991	0	200		100	100	1,896	1,895	0	0	3,991

■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서 농·림·축·수산업 육성〉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개 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기투자 (억원)	2008~2010				2011 ~2015	2016 ~2020	주체별 (2008~2010)		
							계	2008	2009	2010			국비	지방비	기타
계				—	39,307	6,743	11,404	3,820	3,897	3,687	11,388	9,772	16,032	9,266	7,266
농업	소계			—	24,405	4,088	7,237	2,391	2,436	2,410	7,385	5,695	12,325	5,732	2,259
	생산기반조성	경지정리	367백만㎡	2006~2020	5,671	275	295	105	95	95	2,551	2,550	4,317	1,079	0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400km	2006~2020	2,993	515	600	200	200	200	939	939	1,982	496	0
		발기반정비	106백만㎡	2006~2020	2,153	147	168	56	56	56	919	919	1,604	402	0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13백만㎡	2006~2020	1,023	96	243	80	82	81	342	342	464	463	0
		지표수 보강개발	54개 지구	2006~2020	1,199	90	159	49	55	55	475	475	1,109	0	0
		배수개선	304백만㎡	2006~2011	2,302	606	932	312	310	310	764		1,696	0	0
		방조제 개보수	133개 지구	2006~2020	508	150	236	76	80	80	61	61	300	57	0
		한발대비 용수개발	87백만㎡	2006~2013	229	68	117	34	42	41	44		129	32	0
	농업기술개발	무, 배추 물류표준화 촉진 지원	228개소	2006~2010	105	36	69	23	23	23			35	0	34
		농작업기술개발 보급	1식	2006~2020	353	54	81	27	27	27	109	109	0	183	116
	영농기계 지원	과수채소원예단지 기계공급	6,000대	2006~2010	150	60	90	30	30	30			0	45	45
		과실생산 영농자재 공급	15개 시군	2006~2010	38	16	22	8	7	7			0	11	11
		대형농기계 지원	60개소	2008~2011	180	0	135	45	45	45	45		0	180	0
		소형농기계 지원	6,400대	2006~2011	392	120	204	68	68	68	68		10	117	144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2백만㎡	2007~2010	170	43	127	43	42	42			0	76	51
	친환경농업육성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	10,020백만㎡	2006~2011	1,751	562	888	287	301	300	301		0	1,089	100
		친환경인증비 지원	29,000건	2007~2011	66	9	42	12	15	15	15		0	29	29
		친환경농자재 지원	205백만㎡	2007~2011	206	30	126	36	40	50	50		0	123	53
		천적방제 지원	3.5백만㎡	2007~2011	25	4	15	4	5	6	6		0	17	4
		친환경체험마을	20개소	2007~2011	20	4	12	4	4	4	4		0	10	6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41개소 (아산, 부여, 서천, 예산, 당진)	2006~2011	190	60	90	30	30	30	40		52	52	26

	농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공형, 테마형 클러스터 구축	6개소	2006~2010	279	159	120	40	40	40			80	40	0
			아산	2006~2007	31	31	0						0	0	0
			서천	2006~2007	24	24	0						0	0	0
			논산	2008~2010	60	0	60	20	20	20			40	20	0
			서산	2008~2010	60	0	60	20	20	20			40	20	0
			청양	2006~2007	64	64	0						0	0	0
			금산	2006~2007	40	40	0						0	0	0
	유통체계 개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25식(16개 시군)	2006~2020	868	113	155	50	50	55	300	300	226	151	378
	고부가가치 충남 쌀 육성	충남 쌀 명미화단지 조성	23개소(당진, 홍성, 아산, 예산, 부여, 천안, 논산)	2006~2011	212	44	120	24	48	48	48		0	84	84
		우수브랜드 선정, 홍보, 판촉 지원	35식	2007~2011	47	8	29	9	10	10	10		2	28	8
		RPC를 충남 쌀 유통의 중심체로 육성	159기	2006~2011	1,933	346	1,347	449	449	449	240		286	509	792
		산물벼 처리를 위한 건조, 보관능력 확충	16개 시군	2006~2010	834	298	536	176	200	160			0	287	249
		벼 공동육묘장 설치	192동	2006~2011	262	48	160	53	53	54	54		0	128	86
	FTA지원사업 (과수) 육성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1식	2006~2010	48	18	30	10	10	10			0	15	15
		사과, 배, 포도 재배면적 및 농가 구조조정	16개 시군, 80개소	2006~2008	104	72	32	32					32	0	0
	화훼산업육성	화훼단지 조성	9개 단지 (태안, 당진, 서산, 예산, 아산)	2006~2010	94	37	57	19	19	19			0	29	29
임업	소계			—	5,428	1,380	1,980	726	734	520	1,043	1,025	1,989	1,442	617
	임업생산기반 확충	경제수 조림	255백만㎡	2006~2009	336	177	159	78	81				104	51	4
		임도망	792km	2006~2009	278	124	154	77	77				120	17	17
	임산물 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	임산물소득 지원	16개 시군	2006~2010	753	288	465	150	155	160			103	93	269
		산촌클러스터 구축	1개소 (홍성 오서산)	2007~2009	200	75	125	60	65				63	63	0
	경제자원 및 산림보호 강화	숲가꾸기 확대, 자원화 촉진	16개 시군	2006~2020	3,046	389	612	204	204	204	1,020	1,025	1,329	1,052	277
		산림재해예방 능력 강화	16개 시군	2006~2010	269	103	166	57	59	50			116	50	0
		산림병해충방제	1,320백만㎡	2006~2010	112	44	68	22	22	24			24	22	21
		산불관리통합시스템 구축	10대(금산, 논산, 계룡, 태안)	2006~2010	15	6	9	3	3	3			2	7	0

	산림의 한양· 관광자원화	수목원 조성	3개소 (태안 안면도, 공주 강수목원, 아산 영인산)	2006~2010	141	69	72	30	21	21			36	36	0
		자연휴양림 조성·기능보강	2개소 (금산, 공주)	2006~2015	278	105	150	45	47	58	23		88	85	0
축산업	소계			—	8,425	1,039	1,716	550	571	595	2,680	2,990	1,272	1,804	4,310
	축산경쟁력 제고 및 바이오산업 육성	축산바이오 테크노파크 조성	1개소 (청양), 829천㎡	2007~2010	50	20	30	10	10	10			0	30	0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3개소 (토바우, 한울소, 기타)	2006~2013	148	48	60	20	20	20	40		0	61	39
		축산 전업농가 육성	13종	2006~2020	2,704	234	420	130	140	150	900	1,150	229	689	1,552
		가축개량	3종 (한우, 젖소, 돼지)	2006~2020	361	37	84	28	28	28	120	120	0	195	129
	축산경영 및 사료수급 지원	축산물 브랜드 활성화	10개소	2006~2010	284	108	176	58	59	59			0	15	161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240개소	2006~2020	930	105	175	55	60	60	300	350	288	124	413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축산물 작업장 지원	20개소	2006~2020	1,507	207	300	100	100	100	500	500	0	0	1,300
		도축검사 지원	1개소	2006~2020	84	8	16	5	5	6	30	30	27	27	22
		축산분뇨처리시설 확충	3,000개소	2006~2020	1,500	163	287	88	93	106	500	550	401	267	669
	선진화된 방역 체계 구축	가축방역사업 추진	3,600백만 마리	2006~2020	438	54	84	28	28	28	150	150	269	115	0
		공동방제단 운영	500개소	2006~2020	175	30	45	15	15	15	50	50	73	72	0
		소독약품 지원	50천호	2006~2020	200	20	30	10	10	10	75	75	0	180	0
		가축전염병 컨설팅	1,500호	2006~2020	44	5	9	3	3	3	15	15	0	31	8
수산업	소계			—	1,049	236	471	153	156	162	280	62	446	288	79
	생산기반 확충	수산종묘 매입방류	250종	2006~2020	47	16	21	8	8	5	5	5	16	15	0
		기반시설 확충	6개 시군 (보령, 서천, 태안, 서산, 당진, 홍성)	2006~2020	45	4	6	2	2	2	18	17	0	0	41
		김유기산 구입	3,500톤	2006~2020	53	8	13	4	4	5	16	16	0	37	8
		인공어초시설	226백만㎡	2006~2015	347	86	161	50	52	59	100		209	52	0
		양식어장 소득제 지원	1,700톤	2006~2020	78	12	18	6	6	6	24	24	0	52	14
		갯벌형 바다목장 추진	1개소(태안), 105백만㎡	2007~2011	75	13	54	18	18	18	8		0	48	14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2개소	2007~2011	100	10	60	20	20	20	30		45	45	0
			보령	2007~2011	50	5	30	10	10	10	15		23	23	0
			서천	2007~2011	50	5	30	10	10	10	15		23	23	0
		연안자원조성	13.5백만㎡	2006~2011	27	10	15	5	5	5	2		0	9	8
	어업경영 개선	연근해어업구조조정	420척	2006~2012	277	77	123	40	41	42	77		160	40	0

〈제조업의 지식기반화와 전략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화〉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개 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기투자 (억원)	2008~2010				2011 ~2015	2016 ~2020	주체별 (2008~2010)		
							계	2008	2009	2010			국비	지방비	기타
계				—	98,428	11,608	22,650	8,033	7,240	7,377	37,432	26,738	9,054	5,695	72,071
4대전략 산업육성 및 생산기반 확대	소계			—	2,311	775	796	283	272	241	370	370	756	287	493
	전자정보기기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 건립 (측정분석장비 구축)	아산 음봉, 9,937㎡	2006~2010	498	270	228	76	76	76			164	41	23
		디스플레이 협력단 운영	협력단 운영	2006~2020	15	2	3	1	1	1	5	5	0	13	0
	자동차 부품산업	반도체 장비기술 인력양성	대상업체 279개소, 교육인원 774명	2006~2020	167	22	35	11	12	12	55	55	56	10	79
		자동차부품산업 R&D집적화센터 설립 (장비구축 지원)	천안 풍세(자부연내), 6,611㎡	2006~2020	427	53	174	58	58	58	100	100	187	144	44
		자동차부품산업 기술개발지원	공모과제 지원	2006~2009	225	148	77	45	32				39	12	26
		자동차부품산업 내구성 향상 시스템 구축	선문대(RIS사업), 기술개발, 기업지원등	2006~2020	199	34	51	17	17	17	57	57	41	23	100
		친환경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기반구축 (센터설립, 장비 및 네트워킹 구축)	천안 풍세(자부연내), 1,983㎡	2006~2020	234	51	49	16	16	17	67	67	84	6	92
		자동차사시부품 내구성 향상 시스템구축 (센터설립, 장비 및 네트워킹 구축)	천안 풍세(자부연내), 1,074㎡	2006~2020	256	37	47	15	16	16	86	86	89	21	109
	첨단문화산업	영상미디어산업사업화 센터 건립	천안 직산 (천안밸리내), 16,281㎡	2006~2010	263	131	132	44	44	44			96	16	20
	농축산 바이오산업	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터 건립	논산내동 (부지7,091㎡, 연면적3,765㎡)	2006~2007	27	27	0						0	0	0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소계			—	1,310	126	504	166	168	170	380	300	317	309	559
	새로운지식기반 사업육성	텔레메틱스산업 육성	연구개발 지원	2008~2020	450	0	150	50	50	50	150	150	100	100	250
		환경산업 육성	연구개발 지원	2008~2020	450	0	150	50	50	50	150	150	100	100	250
		나노산업 육성(나노펠센터 설립지원)	18,109㎡	2006~2011	70	20	30	10	10	10	20		0	50	0
	기술개발지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콘소시엄	16개 대학	2006~2011	340	106	174	56	58	60	60		117	59	59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체계 구축	소계		—	11,330	402	948	318	360	270	5,040	4,940	1,881	1,687	7,360	
	기업지원 기반조성	국제 비즈니스파크 조성	천안시 일원 (면적 3,825천㎡)	2007~2016	7,370	10	40	10	10	20	3,660	3,660	0	50	7,310
		서북부권경제지원센터 조성	1식 (천안·아산 인접지)	2011~2015	100	0					100		0	50	50
	기업유치지원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취득 매입비 지원	661천㎡	2006~2020	600	12	28	8	10	10	280	280	441	147	0
		지방이전 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토지매입가의 50%)	30개 업체	2006~2020	3,260	380	880	300	340	240	1,000	1,000	1,440	1,440	0
생산기반 확대	소계		—	83,477	10,305	20,402	7,266	6,440	6,696	31,642	21,128	6,100	3,413	63,660	
	현대화지원	산업단지(농공) 시설 현대화 지원	노후시설 개선	2007~2020	280	20	60	20	20	20	100	100	0	260	0
	산업단지조성	천안 입장밸리	천안 입장면 기로·홍천리 일원 5,039천㎡	2009~2016	4,000	0	500		100	400	2,500	1,000	0	0	4,000
		천안 자동차부품 전문산업단지	천안 풍세면 용정리 일원 1,449천㎡	2006~2008	215	115	100	100					52	26	22
		천안 BIT 전문산업단지	천안 성환읍 와룡·신방리 일원 4,130천㎡	2008~2016	3,230	0	30	2	10	18	2,667	533	0	0	3,230
		천안 바이오 전문산업단지	천안 동면 연평리 일원 449천㎡	2007~2016	1,295	2	43	10	10	23	1,042	208	0	0	1,293
		천안 제5지방산업단지	천안 성남 대화·수신·신평리 일원 1,431천㎡	2006~2011	2,439	554	1,500	500	500	500	385		0	429	1,456
		공주 사곡지방산업단지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일원 332천㎡	2006~2009	191	89	102	51	51				0	0	102
		공주 신영지방산업단지	공주시 유구읍 일원 451천㎡	2011~2015	534	0					534		0	0	534
		공주 탄천지방산업단지	공주 탄천면 일원 978천㎡	2006~2010	1,034	129	905	373	266	266			0	3	902
		보령 조선산업단지	보령 신흥만 배후지역(오천면) 495천㎡	2011~2015	780	0					780		8	8	764
		보령 에너지산업단지	보령 신흥만 배후지역(오천면) 1,068천㎡	2008~2015	1,770	0	600	100	200	300	1,170		18	18	1,734
		아산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아산 둔포면 둔포·운용·석곡리 2,370천㎡	2006~2010	5,864	2,345	3,519	1,173	1,173	1,173			1,441	36	2,042
		아산 탕정 제2 지방산업단지	아산 탕정면 갈산리 2,116천㎡	2006~2009	5,752	3,427	2,325	1,662	663				0	0	2,325

아산 도고농공단지	아산 도고면 신언·금사리 214천㎡	2006~2007	185	185	0						0	0	0
아산 둔포제2농공단지	아산 둔포 신항리 · 영인 신봉리 145천㎡	2006~2008	95	90	5	5					0	0	5
서산 제2지방산업단지	서산 성연면 해성리 일원 922천㎡	2006~2010	1,150	460	690	230	230	230			300	390	0
서산 테크노폴리스	아산 성연면 일원 3,306천㎡	2008~2015	4,000	0	1,100	100	500	500	2,900		0	0	4,000
논산 제2지방산업단지	논산 성동면 원북·정지리 일원 434천㎡	2007~2011	450	90	270	90	90	90	90		40	0	320
홍성 지방산업단지	홍성 갈산면 일원 1,322천㎡	2007~2014	1,200	13	349	20	120	209	838		198	989	0
예산 지방산업단지	예산 예산읍 창소리 일원 1,322천㎡	2006~2008	992	510	482	482					0	5	477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당진 석문 삼봉 고대면 성산리 일원 11,967천㎡	2007~2020	9,176	50	600	100	200	300	3,200	5,326	0	0	9,126
당진 송산지방산업단지	당진 동곡리· 가곡리 일원 3,174천㎡	2006~2015	2,400	336	720	240	240	240	1,344		0	0	2,064
당진 합덕지방산업단지	당진 합덕읍 소소·석우리 일원 985천㎡	2006~2008	534	360	174	174					0	0	174
논산 군수산업 지방산업단지	논산 661천㎡	2008~2015	951	0	357	50	119	188	594		99	10	842
부여 문화콘텐츠 지방산업단지	부여 규암면 330천㎡	2008~2015	524	0	240	80	80	80	284		77	27	420
서천자동차부품전문 지방산업단지	서천 장항읍 991천㎡	2010~2015	1,427	0	238			238	1,189		149	215	1,063
서천 장항국가산업단지	서천 장항읍 12,364천㎡	2007~2015	13,725	1,525	4,575	1,525	1,525	1,525	7,625		2,065	0	10,135
청양 청정산업 지방산업단지	청양군 청남면 495천㎡	2009~2015	713	0	119		59	60	594		74	219	420
금산 인삼약초 지방산업단지	금산 부리면 창평리 일원 149천㎡	2008~2012	181	0	120	30	30	60	61		32	5	144

		연기 전의 제2 지방산업단지	연기 전의면 신정 · 관정리 일원 852천㎡	2008~2010	518	0	518	100	200	218			54	6	458
		계룡 입암지방산업단지(확장)	계룡 두마면 왕대리 330천㎡	2008~2010	116	0	116	39	39	38			12	1	103
		한방바이오밸리 조성 (웰빙 헬스케어)	금산, 720천㎡	2007~2020	550	5	45	10	15	20	250	250	197	122	226
		한산모시 콤플렉스 조성	서천 한산면 지현리, 16천㎡	2011~2015	59	0					59		29	30	0
		기타 위치 미지정 산업단지	개소수, 위치 추후 결정	2011~2020	17,147	0					3,436	13,711	1,254	614	15,279

〈서비스업의 지식기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개 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기투자 (억원)	2008~2010				2011 ~2015	2016 ~2020	주체별 (2008~2010)		
							계	2008	2009	2010			국비	지방비	기타
계			14개 사업	—	2,431	643	983	312	323	348	405	400	980	805	3
중소 서비스업 경쟁력기반 강화	지원기반조성	소계	6개소, 18,182㎡	2011~2020	370	0	0	0	0	0	150	220	230	140	
		중소서비스업 창업보육센터	5개소(5개 시군), 8,264㎡	2011~2020	200						80	120	130	70	
			1개소(논산시), 1,653㎡	2011~2020	40						16	24	26	14	
			1개소(아산시), 1,653㎡	2011~2020	40						16	24	26	14	
			1개소(서산시), 1,653㎡	2011~2020	40						16	24	26	14	
			1개소(공주시), 1,653㎡	2011~2020	40						16	24	26	14	
			1개소(홍성군), 1,653㎡	2011~2020	40						16	24	26	14	
		중소서비스업 지원센터	1개소(아산시), 9,917㎡	2011~2020	170						70	100	100	70	
서비스업의 지식기반화	정보화기반시설 구축	업체별 홈페이지 구축	1식	2007~2010	20	4	16	4	4	8			8	8	
비즈니스 서비스업 육성	인력확보	인적자원시스템 구축	인적자원 DB구축	2011~2015	30						30		0	30	
	혁신역량강화	R&D지원사업 및 정책자금지원	지원자금	2011~2015	30						30		0	30	
	지원체계구축	충남비즈니스혁신센터	1개소(천안시), 9,917㎡	2011~2020	150						70	80	100	50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 구축	혁신플랫폼 구축	신규 지원기관 1개소(천안시)	2011~2020	200						100	100	130	70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활동 지원 및 연구성과 DB구축	1식	2011~2015	25						25		15	10	
유통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유통기반 강화	충남 유통혁신센터	1개소(천안시), 661㎡	2007~2010	50	10	40	10	10	20			28	12	
	재래시장 육성	환경개선 및 마케팅·경영혁신지원, 상거래현대화	재래시장 69개소 (부록3 참조)	2006~2010	1,556	629	927	298	309	320			469	455	3

■ 특색 있는 지역문화와 매력 있는 관광 진흥

〈개성있는 지역문화권 형성과 문화기반의 조성〉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개 요	사업기간	총사업 비 (억원)	기투자 (억원)	2008~2010				2011 ~2015	2016 ~2020	주체별 (2008~2010)		
							계	2008	2009	2010			국비	지방비	기타
계				—	32,815	2,942	15,301	5,311	4,100	5,890	10,862	3,710	9,784	12,490	7,599
역사문화 자원의 체계적인 정비복원	소계			—	28,824	2,312	13,285	4,721	3,392	5,172	9,967	3,260	8,573	10,411	7,528
	역사문화자원 보존 정비	소계		—	4,854	720	1,230	438	443	349	1,604	1,300	1,734	2,188	212
		지정·미지정 문화재 보수	16개 시군,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40개)	2006~2020	2,936	321	615	199	205	211	1,000	1,000	1,474	1,141	
			16개 시군, 전통문화유적 정비	2006~2009	234	111	123	60	63					123	
			16개 시군, 도지정문화재 보존 정비	2006~2020	915	123	192	65	67	60	300	300		792	
		전통사찰 보수 정비	16개 시군, 80개소	2006~2010	102	39	63	21	21	21			25	25	12
		외암리민속마을 보존 및 관광 기반 확충	저지거리, 민속박물관 등	2006~2012	290	93	145	60	53	32	52		128	69	
		성경전래지 성역화 사업	서천 마량, 15천㎡	2007~2015	195	3	12	3	4	5	180			15	177
		봉선리유적 공원화 사업	서천 봉선, 95,868㎡	2007~2015	182	30	80	30	30	20	72		106	23	23
	개성있는 역사문화권 개발	소계		—	23,970	1,592	12,055	4,283	2,949	4,823	8,363	1,960	6,839	8,223	7,316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5개 분야 42개 사업	2006~2010	9,640	1,228	8,412	2,798	1,927	3,687			1,166	2,731	4,515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4개 분야 46개 사업	2006~2015	10,375	355	3,616	1,476	1,013	1,127	6,404		4,276	5,027	717

		기호유교문화 유적정비 및 개발사업	논산 돈암서원, 윤증고택 외	2007~2020	3,955	9	27	9	9	9	1,959	1,960	1,397	465	2,084
커뮤니티 문화공간 확충과 고품격 문화인프라 구축	소계			—	3,297	463	1,789	519	631	639	745	300	998	1,765	71
	충청남도 도립예술원	도내 1개소, 부지99,174㎡, 건평33,058㎡		2007~2012	1,000	10	900	300	300	300	90		198	792	
	충남 도립미술관 건립	1개소, 연면적 11,900㎡		2006~2020	550	150	300	100	100	100	50	50	98	302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	5개소(공주, 부여, 홍성, 강경, 해미)		2006~2015	657	92	210	60	70	80	355		247	247	71
	공공도서관 및 주민자치문화센터	도내 8개소(미정)		2006~2010	320	92	228	10	109	109			32	196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도내 13개소(미정)		2006~2020	770	119	151	49	52	50	250	250	423	228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소계			—	694	167	227	71	77	79	150	150	213	314	
	도립예술단/충남연정 국악원 육성	천안, 공주, 부여 등 3개 예술단		2006~2020	602	119	183	59	61	63	150	150	195	288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도내 일원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만해체험관, 이문구문학관, 이응로기념관 외 6개소)		2006~2010	92	48	44	12	16	16			18	26	

〈안정된 관광기반 구축과 특화 관광자원 개발〉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개 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기투자 (억원)	2008~2010				2011 ~2015	2016 ~2020	주체별 (2008~2010)		
							계	2008	2009	2010			국비	지방비	기타
계			16개 사업	—	38,243	4,592	7,042	2,475	2,315	2,252	12,848	13,761	2,060	1,932	29,659
관광권역별 관광거점과 대도시 배후 테마관광지 개발	소계		3개 사업	—	23,079	2,254	4,291	1,408	1,437	1,446	7,597	8,937	715	417	19,693
	대도시 배후 관광지와 국제관광도시 조성	백제호종합개발	부여 반산, 2,975천㎡	2008~2020	1,450	0	100	10	40	50	675	675	0	220	1,230
		안면도국제관광지 (지포지구 포함)	꽃지/지포지구 6,115천㎡	2006~2020	11,018	840	2,068	690	689	689	4,385	3,725	715	197	9,266
		태안관광레저기업도시 건설	태안(14,612천㎡)	2006~2020	10,611	1,414	2,123	708	708	707	2,537	4,537	0	0	9,197

	소계		2개 사업	—	385	35	0	0	0	0	350	0	0	0	350
	온천테마 보양·체험관광 도시의 개발	아산만권 휴양단지	아산, 330천㎡	2011~2015	350	0	0				350		0	0	350
		온천·옹기전시체험관 건립	아산 도고, 17,365㎡	2006~2007	35	35	0						0	0	0
관광거점 연계형 관광명소의 발굴, 육성	소계		2개 사업	—	12,459	2,098	2,372	860	813	699	3,961	4,028	719	744	8,899
	명소관광지 및 역사테마관광지 개발	기존 지정관광지 정비 및 신규관광지 조성	25개소(정비/보완) 4개소(신규) (부록4 참조)	2006~2020	12,399	2,075	2,335	852	805	678	3,961	4,028	702	723	8,899
		의종은형제 체험관광촌 조성	예산 대흥, 66,116㎡	2006~2010	60	23	37	8	8	21			17	21	0
	소계		3개 사업	—	338	63	45	35	5	5	90	140	50	68	157
	생태관광자원과 농어촌관광 활성화 기반구축	탐정호 생태관광지구 조성	논산 탐정, 52천㎡	2007~2020	250	5	15	5	5	5	90	140	35	53	157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	예산 예당, 109천㎡	2006~2007	28	28	0						0	0	0
		어촌관광단지 조성	보령 무창포	2006~2008	60	30	30	30					15	15	0
	소계		3개 사업	—	1,298	34	152	52	30	70	556	556	413	337	514
	레포츠형 위락과 웰빙체험과 문화콘텐츠 관광상품 제공	마리너시설 조성	보령, 서천, 홍성, 당진	2006~2020	480	4	120	20	30	70	178	178	238	238	0
		태안그린웰빙파크 조성	태안 원북, 694천㎡	2007~2008	62	30	32	32					0	32	0
		레포츠단지 조성	공주, 148천㎡	2011~2020	756	0	0				378	378	175	67	514
	소계		4개 사업	—	684	108	182	120	30	32	294	100	164	366	47
	메가이벤트 정기개최와 시군 협력 관광자원 개발	문화관광축제 육성	5개소(금산, 보령, 서천, 강경, 아산)	2006~2010	74	28	46	15	15	16			23	23	0
		세계 군문화 엑스포(2008년)	1식(계룡)	2006~2020	341	51	90	90			100	100	111	162	17
		(가칭) 대백제전	1식(부여,공주)	2008~2012	200	0	6	2	2	2	194		30	170	0
		서해안 Sea Food 페어	보령, 서산, 태안, 홍성, 당진, 서천	2006~2010	69	29	40	13	13	14			0	10	30

■ 신속하고 편리한 인프라 구축

〈전방위 교류·교역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개 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기투자 (억원)	2008~2010				2011 ~2015	2016 ~2020	주체별 (2008~2010)		
							계	2008	2009	2010			국비	지방비	기타
계				—	316,366	13,435	31,360	9,305	10,297	11,758	140,644	130,927	251,676	25,063	26,192
도로교통	고속국도	소계	417km	—	64,008	3,544	7,208	1,772	2,272	3,164	29,554	23,702	60,464	0	0
		평택-공주(행정도시)간	40km	2011~2020	8,000	0	0				1,600	6,400	8,000	0	0
		안성-연기(행정도시)간	8km	2016~2020	1,600	0	0					1,600	1,600	0	0
		서해안고속도로 6차로 확장	94km	2011~2020	7,800	0	0				3,230	4,570	7,800	0	0
		당진-천안간(태안 연장)	103km	2009~2017	20,040	0	2,000		300	1,700	10,536	7,504	20,040	0	0
		당진-대전간(대산 연장)	24km	2006~2013	4,520	1,500	1,664	750	750	164	1,356		3,020	0	0
		보령-공주간	45km	2011~2017	6,800	0	0				5,400	1,400	6,800	0	0
		공주-청원간	42km	2009~2017	11,160	0	1,500		200	1,300	7,432	2,228	11,160	0	0
		서천-공주간	61km	2006~2009	4,088	2,044	2,044	1,022	1,022				2,044	0	0
	일반국도	10개 노선	336km(부록5 참조)	2006~2020	30,459	5,142	5,612	2,145	2,145	1,322	8,291	11,414	25,317	0	0
	신도청연계 고속화도로	소계	6개 노선, 316km	—	37,352	433	1,492	434	434	624	21,581	13,846	36,919	0	0
		신도청-천안간	65km	2011~2020	7,800	0	0				3,900	3,900	7,800	0	0
		공항도로	48km	2011~2020	5,670	0	0				2,835	2,835	5,670	0	0
		신도청-부여간	69km	2007~2020	8,280	400	1,200	400	400	400	4,680	2,000	7,880	0	0
		내포문화도로	29km	2010~2020	4,102	0	30			30	2,036	2,036	4,102	0	0
		신도청-금산간	97km	2007~2020	10,700	33	102	34	34	34	7,490	3,075	10,667	0	0
		홍성서북부 우회도로	8km	2010~2015	800	0	160			160	640		800	0	0
	기타고속화도로	소계	2개 노선, 244km	—	27,744	250	1,245	250	450	545	14,355	11,894	25,814	1,680	0
		서해안관광산업도로	180km	2009~2020	21,895	0	495		200	295	10,700	10,700	21,895	0	0
		서천-대전간고속화도로	64km	2007~2020	5,849	250	750	250	250	250	3,655	1,194	3,919	1,680	0
	행복도시권 광역도로	소계	6개 노선, 91km	—	6,700	70	1,320	230	470	620	5,310	0	6,630	0	0
		정안IC 연결도로	17km	2007~2013	1,700	20	320	50	130	140	1,360		1,680	0	0
		공주-연기간확포장	22km	2007~2013	2,200	20	420	50	160	210	1,760		2,180	0	0
		대평리-구죽간확포장	9km	2007~2013	900	10	190	50	60	80	700		890	0	0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6km	2007~2013	600	10	140	40	50	50	450		590	0	0
		북유성IC 연결도로	8km	2007~2013	800	10	150	40	50	60	640		790	0	0
		행정도시-남공주역 순환도로	29km	2009~2013	500	0	100		20	80	400		500	0	0

	대전권 광역도로	소계	4개 노선, 40.7km	—	3,545	50	1,404	434	435	535	2,091	0	1,748	1,747	0
		대전산성-금산구례간	6.5km	2008-2014	944	0	404	134	135	135	540		472	472	0
		대전괴곡-논산연산간	7.7km	2008-2012	1,001	0	600	200	200	200	401		501	500	0
		대전가수원-논산노성간	17.0km	2010-2015	1,000	0	100			100	900		500	500	0
		대전송강-연기대평간	9.5km	2007-2013	600	50	300	100	100	100	250		275	275	0
	국가지원지방도	4개노선	175km (부록5 참조)	2006-2020	15,877	1,606	2,409	803	803	803	7,036	4,826	9,990	4,281	0
	지방도	26개노선	217km (부록5 참조)	2006-2020	15,490	501	569	203	198	168	7,406	7,014	0	14,989	0
	기타도로	소계	21.4km	—	943	0	100	5	45	50	407	436	392	513	38
		강경 우회도로	1.8km	2009-2010	60	0	60		30	30			0	60	0
		금강변 탐방관광도로	19.6km	2008-2020	883	0	40	5	15	20	407	436	392	453	38
철도교통	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65km	2006-2020	15,000	200	1,000	100	100	800	6,900	6,900	7,400	0	7,400
	일반철도	소계	215km	—	52,917	0	110	0	10	100	18,000	34,807	52,917	0	0
		서해선철도	26km	2009-2018	7,675	0	110		10	100	4,000	3,565	7,675	0	0
		충청선철도	89km	2011-2020	27,000	0	0				14,000	13,000	27,000	0	0
		서해산업선철도	78km	2016-2020	14,722	0	0					14,722	14,722	0	0
		천안-문경간철도 (천안 도경계)	22km	2016-2020	3,520	0	0					3,520	3,520	0	0
	전철	소계	166km	—	25,250	0	250	0	0	250	13,400	11,600	12,130	1,680	11,440
		수도권전철 연장 (신도청도시)	51km	2010-2017	2,550	0	250			250	1,800	500	2,550	0	0
		금강관광경전철	105km	2011-2020	10,500	0	0				5,000	5,500	4,100	0	6,400
		공주-남공주간경전철	11km	2016-2020	2,200	0	0					2,200	2,200	0	0
		경전철 (천안-아산, 금산-대전, 계룡-대전, 행정도시-조치원)	50km	2011-2020	10,000	0	0				6,600	3,400	3,280	1,680	5,040
	기타철도	중부권터미널인입철도 (부강-ICD)	3.3km	2016-2020	450	0	0					450	450	0	0
해운교통	무역항	소계		—	16,409	1,085	7,632	2,562	2,535	2,535	5,061	2,631	9,618	0	5,706
		평택당진항 건설	40선석	2006-2020	6,509	356	2,372	808	782	782	2,550	1,231	1,484	0	4,669
		보령신항 건설	9선석	2007-2015	3,427	74	2,515	839	838	838	838		3,353	0	0
		대산항 건설	6선석	2006-2011	4,373	655	2,745	915	915	915	973		2,681	0	1,037
		장항항 건설	8선석	2011-2020	2,100	0	0				700	1,400	2,100	0	0

	연안항	비인항 건설	1식	2006~2011	220	34	126	42	42	42	60		186	0	0
	국가어항	소계		—	1,580	344	709	267	300	142	352	175	1,236	0	0
		남당항 건설	1식	2006~2009	250	85	165	75	90				165	0	0
		삼길포항 건설	1식	2006~2009	203	85	118	50	68				118	0	0
		홍원항 건설	1식	2006~2011	257	65	150	50	50	50	42		192	0	0
		안흥항 건설	1식	2006~2020	650	75	150	50	50	50	250	175	575	0	0
	지방어항	지방어항 건설	29개 항	2006~2020	1,006	210	300	100	100	100	400	96	637	159	0
항공교통	공항	소계		—	1,636	0	0	0	0	0	500	1,136	14	14	1,608
		민항기 취항	1식	2016~2020	136	0	0					136	14	14	108
		경비행장	6개소	2011~2020	1,500	0	0				500	1,000	0	0	1,500

〈생산·물류 신중심권 구현을 위한 물류·유통기반 강화〉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개 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기투자 (억원)	2008~2010				2011 ~2015	2016 ~2020	주체별 (2008~2010)		
							계	2008	2009	2010			국비	지방비	기타
계			15개 사업	—	9,456	2,102	1,684	1,593	48	43	2,990	2,680	2,212	885	4,257
물류거점 시설의 합리적 배치	화물기지	중부권 화물기지	연기 동면, 479천㎡	2006~2008	2,009	935	1,074	1,074					483	0	591
	거점유통단지	소계	7개소, 2,512천㎡	—	3,703	982	491	491	0	0	2,230	0	0	0	2,721
		천안 유통단지	463천㎡	2006~2008	1,473	982	491	491					0	0	491
		아산 유통단지	330천㎡	2011~2015	360	0	0				360		0	0	360
		공주 유통단지	330천㎡	2011~2015	360	0	0				360		0	0	360
		당진 유통단지	330천㎡	2011~2015	360	0	0				360		0	0	360
		논산 유통단지	198천㎡	2011~2015	210	0	0				210		0	0	210
		보령 유통단지	529천㎡	2011~2015	580	0	0				580		0	0	580
		장항 유통단지	330천㎡	2011~2015	360	0	0				360		0	0	360
	특산물유통단지	소계	3개소, 193천㎡	—	320	150	50	5	25	20	60	60	35	5	130
		서산 수산물 유통단지	165천㎡	2011~2020	120	0	0				60	60	0	0	120
		홍성(남당) 수산물 유통센터	2,645㎡	2008~2010	50	0	50	5	25	20			35	5	10
		예산 거점산지유통센터(APC)	25,124㎡	2006~2007	150	150	0						0	0	0
	물류기지	소계	2개소, 496천㎡	—	2,520	0	0	0	0	0	400	2,120	1,260	630	630
		보령신항물류기지	330천㎡	2016~2020	1,680	0	0					1,680	840	420	420
		서산공항물류기지	165천㎡	2011~2020	840	0	0				400	440	420	210	210
효율적인 물류시스템구축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사업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500개소	2006~2020	404	35	69	23	23	23	150	150	185	0	185
동북아 물류거점항만기 능강화	일괄처리시스템	일괄처리시스템 (On-Dock시스템 도입)	당진항, 1식	2011~2020	500	0	0				150	350	250	250	0

〈디지털복지사회를 위한 유비쿼터스 충남 구현〉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개 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기투자 (억원)	2008~2010				2011 ~2015	2016 ~2020	주체별 (2008~2010)		
							계	2008	2009	2010			국비	지방비	기타
계				—	1,517	152	301	103	94	104	664	400	429	584	352
정보화	u-행정 및 정보인프라	소계		—	284	44	40	10	10	20	200	0	20	220	0
		u-행정	3개 사업 (RTG, M2M, CRM)	2008~2010	40	0	40	10	10	20			20	20	0
		충남ICDW 구축	1식	2011~2015	200	0	0				200		0	200	0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5,334가구	2007	44	44	0						0	0	0
	맞춤형 정보화사업	소계		—	618	108	261	93	84	84	149	100	109	349	52
		정보화마을 조성	10개소 (장소미정)	2006~2010	30	12	18	6	6	6			2	16	0
		고향사랑 Net	3,500개 마을(장소미정)	2006~2008	32	24	8	8					0	6	2
		취약계층 컴퓨터 지원사업	· 신규PC 5,500대 · 장애인 7,000대 · 중고PC 4,000대	2008~2010	129	0	129	43	43	43			0	104	25
		주민정보화교육	30만명	2006~2010	118	48	70	24	23	23			0	70	0
		USN응용사업	2개 사업(u-스쿨, RFID 활용사업)	2006~2020	260	24	36	12	12	12	100	100	94	142	0
		u-Health care	1식	2011~2015	49	0	0				49		12	12	25
	u-city	소계		—	615	0	0	0	0	0	315	300	300	15	300
		u-city 시범사업	신도청도시	2011~2020	615	0	0				315	300	300	15	300

■ 더불어 누리는 생활·복지환경 조성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조성〉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개 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기투자 (억원)	2008~2010				2011 ~2015	2016 ~2020	주체별 (2008~2010)		
							계	2008	2009	2010			국비	지방비	기타
계				—	7,757	771	3,232	1,083	973	1,176	2,254	1,500	2,446	2,883	1,657
주거	주거복지정책 강화	시니어타운 건설사업	8개소, 528천㎡	2006~2020	2,000	88	912	304	304	304	500	500	574	765	574
	주거환경개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100개 지구 ['10년까지 57개 지구 (부록6 참조)]	2006~2020	4,248	683	1,565	524	419	622	1,000	1,000	1,783	1,783	0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3개소 (금산, 서천, 청양)	2008~2015	1,509	0	755	255	250	250	754		90	336	1,083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의료 서비스체계 구축〉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개 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기투자 (억원)	2008~2010				2011 ~2015	2016 ~2020	주체별 (2008~2010)		
							계	2008	2009	2010			국비	지방비	기타
계			495개소	—	7,389	860	2,311	616	877	818	2,328	1,890	2,500	2,829	1,200
복지의료 서비스	소계		268개소	—	2,618	514	1,015	308	365	342	561	528	857	1,247	0
	사회복지관기능 보강	소계	15개소	—	78	5	14	4	6	4	18	41	37	36	0
		천안시	2	2007~2020	12	1	2		1	1	3	6	6	6	0
		공주시	3	2006~2020	13	1	2	1		1	3	7	6	6	0
		보령시	2	2007~2020	13	1	2		1	1	3	7	6	6	0
		아산시	4	2007~2020	14	1	2		1	1	3	8	7	7	0
		서산시	2	2006~2020	10	1	2	1	1		2	5	5	5	0
		논산시	1	2008~2020	8	0	2	1	1		2	4	4	4	0
		홍성군	1	2008~2020	8	0	2	1	1		2	4	4	4	0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소계	74개소	—	902	292	493	160	160	173	58	59	304	306	0
		천안시	6	2006~2020	68	20	37	10	17	10	5	6	24	24	0
		공주시	6	2006~2020	64	20	35	10	13	12	5	4	22	22	0
		보령시	6	2006~2020	62	20	33	10	10	13	5	4	21	21	0
		논산시	6	2006~2020	62	23	30	10	10	10	5	4	20	20	0
		금산군	5	2006~2020	60	20	30	10	10	10	5	5	20	20	0
		부여군	5	2006~2020	60	20	30	10	10	10	5	5	20	20	0
		서천군	4	2006~2020	56	20	30	10	10	10	3	3	18	18	0
		홍성군	4	2006~2020	56	20	30	10	10	10	3	3	18	18	0
		예산군	4	2006~2020	56	19	30	10	10	10	3	4	19	19	0
		태안군	4	2007~2020	49	10	33	10	10	13	3	3	19	20	0
		청양군	4	2007~2020	52	10	35	10	10	15	3	4	21	21	0
		아산시	4	2006~2020	58	20	30	10	10	10	3	5	19	19	0
		서산시	4	2006~2020	52	20	30	10	10	10	1	1	16	16	0
		계룡시	2	2007~2020	25	10	10	10			3	2	7	8	0
		연기군	5	2006~2020	60	20	35	10	10	15	3	2	20	20	0
		당진군	5	2006~2020	62	20	35	10	10	15	3	4	21	21	0

노인복지회관 증·신축	소계	22개소	—	255	70	130	20	70	40	15	40	16	169	0
	천안시	3	2006~2020	35	10	20			20		5	1	24	0
	계룡시	2	2006~2015	25	20	0				5		0	5	0
	부여군	1	2006	20	20	0						0	0	0
	청양군	2	2007~2015	25	20	0				5		0	5	0
	논산시	2	2008~2020	25	0	20	20				5	2	23	0
	공주시	2	2009~2020	25	0	20		20			5	2	23	0
	홍성군	2	2009~2015	15	0	10		10		5		2	13	0
	예산군	1	2009	10	0	10		10				2	8	0
	태안군	1	2009	10	0	10		10				2	8	0
	아산시	1	2010~2020	25	0	20			20		5	2	23	0
	연기군	1	2009	20	0	20		20				2	18	0
	당진군	1	2016~2020	5	0	0					5	0	5	0
	서천군	1	2016~2020	5	0	0					5	0	5	0
	금산군	1	2016~2020	5	0	0					5	0	5	0
	서산시	1	2016~2020	5	0	0					5	0	5	0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소계	38개소	—	475	58	97	31	32	34	159	161	205	212	0
	천안시	7	2006~2020	87	12	25	11	12	2	25	25	37	38	0
	공주시	5	2006~2020	35	4	6	2	2	2	10	15	15	16	0
	보령시	2	2006~2020	30	4	6	2	2	2	10	10	13	13	0
	아산시	4	2006~2020	66	11	15	11	2	2	20	20	28	28	0
	서산시	3	2006~2020	25	2	3	1	1	1	5	15	11	12	0
	논산시	2	2006~2020	24	12	2	1	1		5	5	6	6	0
	계룡시	1	2011~2020	16	0	0				12	4	8	8	0
	금산군	1	2010~2020	9	0	1			1	4	4	4	5	0
	연기군	2	2006~2020	14	2	2	1		1	5	5	6	6	0
	부여군	1	2011~2020	16	0	0				12	4	8	8	0
	서천군	3	2006~2020	39	11	6	2	2	2	10	12	14	14	0
	청양군	1	2011~2020	19	0	0				15	4	9	10	0
	홍성군	2	2010~2020	30	0	10			10	5	15	15	15	0
	예산군	1	2009~2020	19	0	11		10	1	4	4	9	10	0
	태안군	1	2011~2020	16	0	0				12	4	8	8	0
	당진군	2	2010~2020	30	0	10			10	5	15	15	15	0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	소계	2개소	—	114	14	30	20	10	0	70	0	16	84	0
	천안시	1	2007~2009	44	14	30	20	10				6	24	0
	내륙권 일원	1	2011~2015	70	0	0				70		10	60	0
장애인 복지관 건립	소계	6개소	—	180	0	90	25	30	35	60	30	30	150	0
	논산시	1	2008	25	0	25	25					5	20	0
	당진군	1	2009	30	0	30		30				5	25	0
	연기군	1	2010	35	0	35			35			5	30	0
	계룡시	1	2011~2115	40	0	0				40		5	35	0
	청양군	1	2011~2115	20	0	0				20		5	15	0
	내륙권 일원	1	2016~2020	30	0	0					30	5	25	0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소계	2개소	—	125	12	28	8	10	10	35	50	34	79	0
	서부장애인복지관	1	2006~2020	63	6	14	4	5	5	18	25	17	40	0
	남부장애인복지관	1	2006~2020	62	6	14	4	5	5	17	25	17	39	0
아동시설 기능보강	소계	15개소	—	118	15	23	8	8	7	40	40	52	51	0
	천안시	3	2007~2020	19	4	5		4	1	5	5	7	8	0
	보령시	2	2006~2020	24	2	8	2		6	10	4	11	11	0
	아산시	1	2007	1	1	0						0	0	0
	논산시	3	2007~2020	13	1	4		4		4	4	6	6	0
	금산군	2	2011~2020	8	0	0				4	4	4	4	0
	연기군	1	2007~2020	14	2	0				4	8	6	6	0
	부여군	1	2008~2020	9	0	1	1			4	4	5	4	0
	홍성군	1	2006~2020	15	4	3	3			4	4	6	5	0
	예산군	1	2006~2020	15	1	2	2			5	7	7	7	0
모자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 (계룡, 서천, 아산 각 6억원)	3개소	2006~2020	18	2	3	1	1	1	6	7	8	8	0
보육시설	보육시설기능보강	90개소 (장소미정)	2006~2020	324	43	101	29	36	36	90	90	141	141	0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소계	1개소	—	29	3	6	2	2	2	10	10	13	13	0
	연기군	1	2006~2020	29	3	6	2	2	2	10	10	13	13	0
소계		229개소	—	4,771	346	1,296	308	512	476	1,767	1,362	1,643	1,582	1,200
의료시설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	2개소 (천안,공주)	2007~2012	2,164	0	700	100	300	300	924	540	432	532	1,200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4	2006~2020	320	56	120	40	40	40	72	72	132	132	0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0	2006~2020	1,405	22	33	11	11	11	600	750	691	692	0
	공립치매병원 건립	4	2006~2010	184	56	128	52	56	20			64	64	0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209	2006~2014	698	212	315	105	105	105	171		324	162	0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학습사회 실현〉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개 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기투자 (억원)	2008~2010				2011 ~2015	2016 ~2020	주체별 (2008~2010)		
							계	2008	2009	2010			국비	지방비	기타
계				—	11,080	1,672	1,799	659	876	264	6,173	1,436	773	1,580	7,055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평생학습	소계			—	380	20	20	6	7	7	312	28	136	224	0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학습	평생학습도시	11개 시군	2006~2020	44	16	12	4	4	4	8	8	14	14	0
		한민족 정신문화 허브	1식(공주), 19,800㎡	2011~2015	284	0	0				284		120	164	0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 센터	1개소	2006~2020	52	4	8	2	3	3	20	20	2	46	0
	소계		11개 사업	—	286	111	33	19	6	8	69	73	85	91	0
	청소년수련관건 립및기능보강	소계	6개소	—	192	81	11	11	0	0	50	50	56	56	0
		서산시	신축	2006~2008	42	31	11	11					6	6	0
		태안군	신축	2006~2007	45	45	0						0	0	0
		금산군	개보수	2006	2	2	0						0	0	0
		천안시	개보수	2007	1	1	0						0	0	0
		보령시	개보수	2007	1	1	0						0	0	0
		부여군	개보수	2007	1	1	0						0	0	0
		기타	기능보강	2011~2020	100	0	0				50	50	50	50	0
	청소년문화의집	소계	4개소	—	65	11	22	8	6	8	14	18	24	30	0
		당진군	신축	2006~2007	11	11	0						0	0	0
		아산시	신축	2008~2010	18	0	18	8	6	4			8	10	0
		금산군	신축	2010~2013	18	0	4			4	14		8	10	0
		예산군	신축	2016~2019	18	0	0					18	8	10	0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소계	2개소	—	14	4	0	0	0	0	5	5	5	5	0
		금산군	신축	2006	2	2	0						0	0	0
		태안군	신축	2007	2	2	0						0	0	0
		기타	신축	2011~2020	10	0	0				5	5	5	5	0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당진군, 1개소	2006~2007	15	15	0						0	0	0

소계		216개 사업	—	10,414	1,541	1,746	634	863	249	5,792	1,335	553	1,265	7,055
공설운동장	소계	5개소	—	750	100	250	50	100	100	300	100	65	585	0
	아산시	119천㎡	2006~2008	150	100	50	50					5	45	0
	계룡시	1개소	2009~2015	150	0	100		50	50	50		15	135	0
	연기군	1개소	2009~2015	150	0	100		50	50	50		15	135	0
	서천군	1개소	2011~2020	150	0	0				100	50	15	135	0
	태안군	1개소	2011~2020	150	0	0				100	50	15	135	0
실내체육관	소계	7개소	—	175	10	25	5	10	10	70	70	33	132	0
	서산시	1개소	2006~2009	25	10	15	5	10				3	12	0
	논산시	1개소	2010~2015	25	0	10			10	15		5	20	0
	계룡시	1개소	2011~2015	25	0	0				25		5	20	0
	금산군	1개소	2011~2015	25	0	0				25		5	20	0
	청양군	1개소	2011~2020	25	0	0				5	20	5	20	0
	홍성군	1개소	2016~2020	25	0	0					25	5	20	0
	예산군	1개소	2016~2020	25	0	0					25	5	20	0
인조잔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도내 54개소 (10개소는 2011~2020)	2006~2020	216	56	120	40	40	40	20	20	50	55	55
생활체육공원	소계	5개소	—	173	100	73	37	36	0	0	0	23	50	0
	천안시	340천㎡	2006~2007	50	50	0						0	0	0
	아산시	28, 천㎡	2006~2008	27	20	7	7					3	4	0
	논산시	26천㎡	2007~2009	46	15	31	15	16				7	24	0
	계룡시	90천㎡	2007~2009	20	5	15	5	10				8	8	0
	홍성군	91천㎡	2007~2009	30	10	20	10	10				7	13	0
웰빙테마파크	서산 바이오 웰빙테마파크 조성	5,775천㎡	2008~2015	4,400	0	88	22	22	44	4,312		0	0	4,400
골프장건설	소계	5개소	—	3,700	1,100	1,000	400	600	0	800	800	0	0	2,600
	버드우드	1개소	2006~2007	500	500	0						0	0	0
	정안	1개소	2006~2009	800	300	500	200	300				0	0	500
	퍼스트밸리	1개소	2006~2009	800	300	500	200	300				0	0	500
	기타	2개소	2015~2020	1,600	0	0				800	800	0	0	1,600
종합사격장	종합사격장	청양 1개소 (부지 165천㎡, 건물 7천㎡, 클레이경기장 33천㎡)	2006~2020	200	75	40	30	5	5	40	45	31	94	0
기타체육시설	기타체육시설	16개 시군, 150개소	2006~2020	800	100	150	50	50	50	250	300	350	350	0

■ 지속가능한 자원의 개발 및 관리

〈친환경적 토지이용과 관리〉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개 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기투자 (억원)	2008~2010				2011 ~2015	2016 ~2020	주체별 (2008~2010)		
							계	2008	2009	2010			국비	지방비	기타
계				—	1,406	199	387	175	112	100	400	420	594	613	0
통합적 토지이용체계 구축	계획적 토지이용 관리체계	도로명 및 건물 부여사업	16개 시군 (136개 지역) (부록7 참조)	2006~2009	92	44	48	24	24				15	33	0
		지리정보시스템 구축(GIS)	16개 시군	2006~2020	1,314	155	339	151	88	100	400	420	580	580	0

〈개성과 매력의 지역경관 형성과 관리〉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개 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기투자 (억원)	2008~2010				2011 ~2015	2016 ~2020	주체별 (2008~2010)		
							계	2008	2009	2010			국비	지방비	기타
계				—	255	42	63	21	21	21	75	75	46	167	0
관련정책개발 및 시행	경관관련 시책사업	농어촌 빈집정비	9,000동	2006~2020	180	32	48	16	16	16	50	50	0	148	0
		경관농업직불제 확대 추진	16개 시군	2006~2020	75	10	15	5	5	5	25	25	46	19	0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효율적 수요관리〉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개 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기투자 (억원)	2008~2010				2011 ~2015	2016 ~2020	주체별 (2008~2010)		
							계	2008	2009	2010			국비	지방비	기타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	16,080	3,079	4,383	2,335	979	1,069	4,607	4,011	7,354	4,534	1,113
	물절약	물절약 종합대책 사업	수도요금 현실화, 절수기기 개발 및 설치, 노후관 교체 등	2006~2020	3,249	411	739	223	248	268	1,099	1,000	360	1,439	1,039
	상수도 사업	중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시설용량 :163천 m3/일 (공주59.4, 논산71, 부여32.6)	2006~2008	1,223	1,039	184	184					184	0	0
		금강북부권 급수체계구축	증설용량 :254.7천 m3/일 (천안151.6, 아산66.9, 청양7.0)	2006~2008	748	261	487	487					487	0	0
		충남남부권 광역상수도	시설용량 :32천 m3/일 (금산22.1, 예비0.4)	2006~2008	695	29	666	666					666	0	0

		전주권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증설사업	서천군 마서면 일원 송수관로 증설 : 7.4km	2007~2008	43	22	21	21					21	0	0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	아산시 영인, 인주면 일원 배수지 (8,000m3*2), 송배수관 (L=52.664km)	2006~2016	236	44	74	25	24	25	98	20	76	116	0
		신시가지 상수도시설 사업	아산시 배방면 배수지 (10,000m3/일), 송배수관 (L = 8.85m)	2006~2008	154	120	34	34					16	18	0
		배수지 확장사업	아산시 용화동 배수지 (22,000m3/일), 송배수관 (L=1,654m)	2006~2008	108	84	24	24					11	13	0
	낙후지역 물공급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77개소, 89천톤/일	2006~2020	3,828	538	866	263	285	318	1,424	1,000	2,632	658	0
			암반관정 개발 (907지구)	2006~2020	1,544	223	330	110	110	110	491	500	1,057	264	0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2,072개소 (마을 951, 소규모 1,121)	2006~2020	3,766	130	840	280	280	280	1,398	1,398	1,818	1,818	0
지하수이용 및 보전방안	지하수 오염예방	폐공원상복구사업	매년 100공씩	2006~2016	41	6	9	3	3	3	13	13	0	35	0
		보조관측망 및 수질측정망 운영	16개 시군 (장소미정)	2009~2020	70	0	10		5	5	30	30	0	70	0
수자원 재이용	중수도 이용	중수도시설개발 및 보급	16개 시군 (부록8 참조)	2009~2020	123	0	19		4	15	54	50	16	62	45
		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 시범사업	천안 (관로 11.5km, 가압시설 3대) 공주하수종말처리시설 (관로 6.1km)	2006~2007	172	172	0						0	0	0
		하폐수처리수 이용사업	16개 시군	2008~2010	80	0	80	15	20	45			10	41	29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개 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기투자 (억원)	2008~2010				2011 ~2015	2016 ~2020	주체별 (2008~2010)		
							계	2008	2009	2010			국비	지방비	기타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부문 투자사업		계	10개 사업	—	2,628	240	619	138	236	245	971	798	519	179	1,690
에너지 개발	도시가스 공급	도시가스 공급기반시설	공동주택 6,166세대	2007~2010	171	42	129	43	43	43			0	0	129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확대	태양광발전	태안, 380kw	2008~2020	290	0	90	30	30	30	100	100	90	0	200
		풍력발전	4개소 (태안, 당진, 홍성, 서천), 16,450kw	2007~2020	518	138	80	20	30	30	150	150	59	0	321
		태양열 급탕	32개소 (시군당 2)	2008~2020	330	0	30	10	10	10	150	150	20	10	300
		그린빌리지 조성	16개소 (시군당 1)	2006~2020	80	10	15	5	5	5	25	30	49	21	0
	에너지 관련 사업	수소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1식	2010~2020	30	0	5			5	10	15	20	0	10
		신재생에너지 테마관광지 조성	서천군 서면 일원, 231천㎡	2009~2015	454	0	172		80	92	282		0	0	454
광물자원 개발 및 관리	대체산업 활성화, 관광개발, 기반시설 정비	폐광지역 진흥 사업	1식(보령시)	2006~2020	600	30	68	20	28	20	202	300	190	143	237
	폐광산 안전관리 모니터링 및 오염토양 복원	폐광산 오염토양 복원	12개소(공주2, 논산2, 부여2, 서산, 천안, 금산, 당진, 연기, 청양)	2006~2020	150	20	30	10	10	10	50	50	91	0	39
	광물자원 부존량 조사	광물자원 개발 가능량 조사	1식	2011~2020	5	0	0				2	3	0	5	0

■ 깨끗하고 안전한 푸른충남 구현

〈지역생태망 구축과 자연환경 보전·관리〉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개 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기투자 (억원)	2008~2010				2011 ~2015	2016 ~2020	주체별 (2008~2010)		
							계	2008	2009	2010			국비	지방비	기타
계			27개 사업	—	5,866	235	993	250	322	421	2,500	2,138	2,089	3,441	101
자연환경 모니터링	환경원격탐사	위성영상촬영	공간해상도2.5m 이내, 정사영상	2008~2020	22	0	12	10	1	1	5	5	0	22	0
		자연환경변동조사	1식	2009~2020	6	0	2		2		2	2	0	6	0

	자연환경보전	환경보전종합계획	1식	2007~2020	48	3	9	3	3	3	18	18	0	45	0
		야생동식물보호 세부계획	1식	2011~2020	2	0	0				1	1	0	2	0
	환경정보망 운영	야생동식물 DB화사업	DB구축	2008~2020	52	0	12	4	4	4	20	20	16	36	0
		충남환경정보시스템 구축	응용시스템 개발	2010~2020	15	0	5			5	5	5	5	10	0
지역생태네트워크 구축	광역생태축 보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도 전역	2006~2007	4	4	0						0	0	0
		로드킬(Road-kill) 조사	지방도 37개 노선, 1,446km	2008~2020	18	0	6	2	2	2	6	6	5	13	0
		생태이동통로 설치	20개소 (장소미정)	2009~2020	600	0	180		90	90	150	270	200	400	0
		시군 생태지도 제작	16개 시군	2007~2020	36	3	21	7	7	7	6	6	0	33	0
		연안정비	90개 지구(21개 장소미정)(부록9 참조)	2006~2020	2,170	85	185	65	60	60	900	1,000	1,057	1,028	0
	생태공원	천수만 생태공원화 사업	서산 부석 (66,000㎡)	2006~2008	51	34	17	17					5	12	0
		금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서천하구둑~신성리 (976천㎡)	2006~2015	500	26	124	41	41	42	350		142	332	0
		가로림만 생태공원 사업	삭선리(73,680㎡)	2007	25	25	0						0	0	0
		신성리 생태공원 조성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463천㎡)	2007~2015	414	3	29	4	10	15	382		56	254	101
		생태공원 조성	3개소(추가 지정)	2011~2020	450	0	0				150	300	135	315	0
	습지복원	습지복원사업	3개소(장소미정)	2010~2020	150	0	50			50	50	50	45	105	0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사업	3개소(장소미정)	2010~2020	60	0	20			20	20	20	0	60	0
	생태도시 (마을)	바람길 지도제작	3개 시군 (장소미정)	2009~2010	6	0	6		2	4			0	6	0
		생태도시 시범사업	1개소(장소미정)	2011~2020	240	0	0				120	120	72	168	0
		생태마을 조성사업	9개소(장소미정)	2008~2020	270	0	90	30	30	30	90	90	81	189	0
	생태코리더	지천 자연형호안 정비사업	16km	2010~2020	100	0	20			20	40	40	50	50	0
		사구체험교육관 건립	1개소(신두리)	2007~2009	98	20	78	40	38				55	23	0

생물다양성 증진	야생동식물 증식 및 방사	야생동물 증식방사구역 조성	1개소	2011~2020	30	0	0				15	15	15	15	0
		중부권 생물자원관	1개소	2010~2020	100	0	30			30	35	35	30	70	0
		야생동물 구조/관리/진료 센터 운영	1개소	2006~2020	46	6	10	3	3	4	15	15	12	28	0
	철새보호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이행 (철새도래지 7개소 -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서천, 예산, 당진)	2006~2020	301	26	75	20	25	30	100	100	82	193	0
		철새연구센터 설립/운영	1개소	2008~2020	52	0	12	4	4	4	20	20	26	26	0

〈대기질관리와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개 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기투자 (억원)	2008~2010				2011 ~2015	2016 ~2020	주체별 (2008~2010)		
							계	2008	2009	2010			국비	지방비	기타
대기질관리 부문		계	11개 사업	—	999	96	191	55	54	82	290	422	378	385	140
대기오염 저감대책 수립추진	대기질조사	대기질조사	11개소 화력발전 (서천, 보령, 태안, 당진), 산업단지 (대산, 송산), 도시지역 (천안, 아산, 논산, 공주, 홍성)	2006~2020	16	3	1	1			5	7	7	7	0
	오염원관리계획	배출원 목록관리 DB구축	1식 (충남도 일원)	2007~2020	33	2	6	2	2	2	10	15	15	16	0
	자동차공해 저감대책	천연가스차량	7개시, 1,500대 (천안 276, 아산 112, 서산, 보령, 공주, 논산, 계룡 등)	2006~2020	401	40	61	20	20	21	100	200	180	181	0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시스템 도입	TMS 시스템 구축	366개소	2006~2020	170	30	50	15	15	20	40	50	0	0	140
		종합관리망 운영	1식 (충남도 일원)	2006~2020	85	10	15	5	5	5	30	30	22	53	0

예경보제 정착	측정망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	대기측정망 확충	20개소(천안4, 아산3, 보령2, 공주2, 서산2, 당진2, 태안, 홍성, 연기, 서천, 논산)	2007~2020	53	2	6	2	2	2	20	25	25	26	0
		소음자동측정망 설치	4개소(천안, 아산, 홍성, 연기)	2010~2020	60	0	20			20	20	20	30	30	0
		황사경보운영체제	1식	2007~2020	38	2	6	2	2	2	15	15	18	18	0
대기오염 총량관리	제도기반 구축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대비 DB구축	1식	2007~2020	53	2	11	3	3	5	20	20	38	13	0
	자발적 협약체결	이산화탄소 삭감지원 (톤당 5천원)	1식	2007~2020	62	3	9	3	3	3	20	30	30	30	0
	광역협력체제 구축	수도권 및 충청권 통합운영체제	1식	2007~2020	28	2	6	2	2	2	10	10	13	13	0

〈맑고 깨끗한 물환경 관리〉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개 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기투자 (억원)	2008~2010				2011 ~2015	2016 ~2020	주체별 (2008~2010)		
							계	2008	2009	2010			국비	지방비	기타
계				—	20,501	2,288	4,749	1,695	1,514	1,540	6,982	6,482	13,466	4,036	711
유역 중심적인 물환경 관리정책 추진	수질총량관리제	금강수계	기본,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3,845km ²) - 천안,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2006~2020	88	12	28	7	7	14	24	24	0	38	38
		삽교호수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668km ²) - 천안, 아산, 연기, 청양, 홍성, 예산, 당진	2006~2020	12	2	4	0	2	2	3	3	0	10	0
자연형 하천복원을 통한 물생태 건강성 회복	자연형하천조성	자연형하천조성사업	도내 일원(75km) 연간 약5km추진 - 대상지역은 수시 조정 및 결정	2006~2020	1,246	133	313	86	104	123	400	400	779	334	0

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물관리시설 체계 구축	하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6개 시군	2006~2020	5,434	719	1,215	386	406	423	2,000	1,500	3,126	1,334	255
		하수관거설치공사	16개 시군 (1,000km) 합류식관거지역 중심으로 연간 약50~100km추진 - 대상지역은 수시 조정 및 결정	2006~2020	7,696	946	1,750	500	600	650	2,500	2,500	4,725	2,025	0
	축산폐수처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도내 일원 (6개소, 보수보강 및 확충 3개소) - 결정2010년까지 (보수보강: 공주, 아산, 논산, 홍성, 예산, 보령) 확충대상: 당진, 천안, 금산) - 2011~2020년까지 미확정	2006~2020	910	40	270	90	90	90	300	300	696	174	0
	폐수종말 처리시설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도내 일원(21개소) - 2010년까지 (신규: 아산 둔포 산단, 예산 신암 농공, 아산 도고 농공, 계곡: 천안 제4산단, 인주1 산단, 탕정산단, 청양 정산농공) - 2011~2020년까지 미확정	2006~2020	4,361	388	973	524	258	191	1,500	1,500	3,576	0	397
	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공사	도내 일원 (17개소, 보수보강) - 시군별 1개소 (단 연기군은 2개소)	2007~2020	140	10	30	10	10	10	50	50	104	26	0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	도내 일원(114개소) - 2010년까지 41개소 (서산1개소, 논산 1개소, 금산10개소, 연기29개소) - 2011~2020년까지 미확정	2007~2020	41	6	5	5			15	15	18	10	7

비점오염원및 비점오염물질 관리강화	비점오염원관리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	도내 일원, 15개소 환경관리공단에서 국비로 환경부 대행사업으로 선정 추진 - 2010년까지 금강 수계 5개소 - 2011~2020년까지 미확정	2008~2020	150	0	50	50			50	50	150	0	0
연안 및 하구지역의 오염예방·관리	연안오염관리	침체어망 인양	도내 서해연안 일원(13,983톤) - 서해연안지역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당진) 일원	2006~2020	242	15	67	23	22	22	80	80	182	45	0
		양식어장 정화	도내 서해연안 일원(242백만㎡) - 서해연안지역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당진) 일원	2006~2020	151	13	38	12	13	13	50	50	111	14	14
		항포구쓰레기 수거	도내 서해연안 일원(12,630톤) - 서해연안지역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당진) 일원	2006~2020	30	4	6	2	2	2	10	10	0	26	0

〈폐기물의 과학적 관리와 재활용기반 구축〉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개 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기투자 (억원)	2008~2010				2011 ~2015	2016 ~2020	주체별 (2008~2010)		
							계	2008	2009	2010			국비	지방비	기타
폐기물관리부문		계	9개 사업	—	8,992	1,412	1,850	627	618	605	2,850	2,880	2,558	4,222	800
폐기물적정관리 체계 확립	폐기물의 발생 및 수거관리체계	폐비닐, 농약병 수거 지원	도 일원	2006~2020	275	34	51	17	17	17	90	100	241	0	0
		공공재활용센터 운영지원	도 일원	2006~2020	29	3	6	2	2	2	10	10	0	26	0
	재활용 기반 조성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11개소, 240톤/일 (천안 70, 공주 30, 보령 15, 서산 20, 논산 10, 계룡 5, 금산 10, 연기 10, 부여 40, 서천 15, 홍성 15)	2006~2020	229	29	100	40	30	30	50	50	60	140	0

		재활용단지 에코타운 조성	1개소 (장소미정)	2010~2020	290	0	70			70	100	120	100	40	150
	폐기물처리 기반시설 구축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공공시설	7개소, 230톤/일 (천안 70, 공주 30, 아산 50, 논산 30, 청양 10, 예산 20, 당진 20)	2006~2020	588	48	140	40	40	60	200	200	162	378	0
		소각시설 설치	9개소, 725톤/일 (천안 200, 공주 100, 아산 200, 금산 15, 연기 40, 부여 30, 홍성 50, 예산 40, 당진 50)	2006~2020	3,539	678	861	309	295	257	1,000	1,000	663	1,548	650
		매립시설 설치 및 기존매립지 정비	매립지 11개소, 비위생 3개소 (매립지(천안, 공주, 보령 2, 서산 2, 계룡, 연기, 태안, 당진 2), 비위생(아산, 논산, 예산))	2006~2020	2,900	461	439	164	179	96	1,000	1,000	841	1,598	0
하폐수 슬러지 처리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 설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설치	7개 시군, 9개 시설 260톤 / 일 (천안,보령 2,아산, 계룡,금산,부여,당진 2)	2006~2020	1,142	159	183	55	55	73	400	400	492	492	0

〈재해에 강한 안전충남 조성〉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개 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기투자 (억원)	2008~2010				2011 ~2015	2016 ~2020	주체별 (2008~2010)		
							계	2008	2009	2010			국비	지방비	기타
계				—	19,632	2,523	4,182	1,380	1,391	1,411	6,771	6,156	9,541	7,568	
치수방재	소계		57개소 (부록10 참조)	—	6,751	567	841	286	277	278	3,938	1,405	3,711	2,473	
	자연재해 위험지구	천안 6개소	성현천, 성정천 등	2006~2020	217	18	27	9	9	9	127	45	119	80	
		공주 8개소	어천, 용선천 등	2006~2020	927	76	117	39	39	39	541	193	510	341	
		보령 4개소	노전천, 하개천 등	2006~2020	230	18	30	10	10	10	134	48	127	85	
		아산 5개소	봉산천, 곡교천 등	2006~2020	625	60	70	30	20	20	365	130	339	226	
		논산 1개소	방축천	2006~2020	542	44	69	22	23	24	316	113	299	199	
		계룡 1개소	두계천	2006~2020	8	2	2	1	1	0	4	0	4	2	

		금산 1개소	후곤천	2006~2020	54	4	7	2	2	3	32	11	30	20	
		연기 5개소	조천, 북암천 등	2006~2020	301	26	37	13	12	12	175	63	165	110	
		부여 7개소	기증천, 증산천 등	2006~2020	671	56	84	28	28	28	391	140	369	246	
		서천 2개소	단상천, 도마천	2006~2020	188	16	23	8	8	7	110	39	103	69	
		청양 8개소	송병천, 아산천 등	2006~2020	1,110	92	139	46	46	47	648	231	611	407	
		홍성 2개소	관천천, 와룡천	2006~2020	523	43	66	22	22	22	305	109	288	192	
		예산 5개소	지곡, 노곡 등	2006~2020	407	34	51	17	17	17	237	85	224	149	
		당진 2개소	배수갑문, 석우제	2006~2020	948	78	119	39	40	40	553	198	522	348	
	소계		25개소 (부록10 참조)	—	4,534	745	1,141	377	383	381	762	1,886	2,163	1,626	
	수해상습지 개선 (4단계)	천안 2개소	천안천, 녹동천	2006~2020	587	96	148	48	50	50	99	244	294	197	
		공주 5개소	중산, 검상천 등	2006~2020	1,137	188	285	95	95	95	191	473	569	380	
		보령 1개소	황룡천외2	2006~2020	207	34	52	17	17	18	35	86	104	69	
		아산 3개소	학성, 둔포천 등	2006~2020	282	46	71	23	24	24	47	118	141	95	
		논산 2개소	오산천외1, 황하천	2006~2020	322	54	80	27	27	26	54	134	161	107	
		계룡 1개소	연산천외1	2006~2020	299	50	74	25	25	24	50	125	149	100	
		연기 1개소	노송천	2006~2020	107	16	28	8	10	10	18	45	54	37	
		부여 1개소	석목천외2	2006~2020	140	22	36	12	12	12	24	58	71	47	
		서천 2개소	직천,만덕천외1	2006~2020	245	40	62	20	21	21	41	102	123	82	
		청양 1개소	낙지천외1	2006~2020	71	12	18	6	6	6	12	29	36	23	
		홍성 4개소	읍내, 삽교천 등	2006~2020	658	110	164	55	55	54	110	274	219	329	
		예산 1개소	신양천외1	2006~2020	343	56	87	29	29	29	58	142	172	115	
		당진 1개소	남원천	2006~2020	136	21	36	12	12	12	23	56	69	46	
	소계		73개 지구, 323.5km (부록10 참조)	—	3,165	533	815	270	272	273	472	1,345	1,580	1,052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	천안 3지구	입장, 풍서천 등	2006~2020	81	13	21	7	7	7	12	35	41	27	
		공주 12지구	고성, 정안천 등	2006~2020	439	74	113	37	38	38	65	187	219	146	
		보령 4지구	웅천, 하개천 등	2006~2020	147	24	39	13	13	13	22	62	74	49	
		아산 4지구	밀두, 회룡천 등	2006~2020	65	12	16	6	5	5	10	27	32	21	
		서산 4지구	해미, 둔당천 등	2006~2020	135	22	35	11	12	12	20	58	68	45	
		논산 6지구	방축, 마산천 등	2006~2020	453	76	117	39	39	39	67	193	226	151	

		연기 3지구	맹곡, 조천 등	2006~2020	61	10	16	5	5	6	9	26	31	20	
		금산 5지구	봉황, 조정천 등	2006~2020	186	32	47	16	16	15	28	79	93	61	
		부여 5개소	하관, 상황천 등	2006~2020	239	40	62	20	21	21	36	101	119	80	
		서천 4지구	길산, 라궁천 등	2006~2020	106	18	27	9	9	9	17	44	53	35	
		청양 3지구	지천, 신양천 등	2006~2020	272	46	70	23	23	24	40	116	135	91	
		홍성 7지구	장성, 금리천 등	2006~2020	408	69	105	35	35	35	61	173	204	135	
		예산 11지구	삽교, 무한천 등	2006~2020	525	88	135	45	45	45	78	224	262	175	
		당진 1지구	역천	2006~2020	47	8	12	4	4	4	7	20	23	16	
		태안 1지구	반계천	2006~2020	1	1	0						0	0	
	소계		66개 지구 (부록10 참조)	—	3,723	488	753	249	251	253	1,237	1,245	1,621	1,614	
	소하천 정비	천안 6지구	군동, 수혈천 등	2006~2020	296	40	59	20	20	19	98	99	128	128	
		공주 8지구	학림, 고재천 등	2006~2020	1,028	136	207	69	69	69	342	343	446	446	
		보령 7지구	신산, 시루외천 등	2006~2020	209	28	42	14	14	14	69	70	91	90	
		아산 4지구	시전, 금산천 등	2006~2020	174	22	36	12	12	12	58	58	76	76	
		서산 4지구	초록, 탑골천 등	2006~2020	157	20	32	10	11	11	52	53	69	68	
		논산 3지구	개설, 덕곡천 등	2006~2020	157	20	32	10	11	11	52	53	69	68	
		계룡 1지구	향한천	2006~2020	14	2	3	1	1	1	4	5	6	6	
		금산 4지구	상촌, 진밭들천 등	2006~2020	261	34	53	17	18	18	87	87	114	113	
		연기 2지구	용두미, 봉대천	2006~2020	138	18	28	9	9	10	46	46	60	60	
		부여 3지구	오수, 송국천 등	2006~2020	157	20	32	10	11	11	52	53	69	68	
		서천 3지구	천방골, 심동천 등	2006~2020	174	24	34	12	11	11	58	58	75	75	
		청양 4지구	안골, 박성미천 등	2006~2020	192	24	40	13	13	14	64	64	84	84	
		홍성 3지구	잠방골, 청광천 등	2006~2020	279	38	55	19	18	18	93	93	121	120	
		예산 5지구	삽티, 다박골천 등	2006~2020	174	22	36	12	12	12	58	58	76	76	
		태안 6지구	두산, 대소천 등	2006~2020	174	22	36	12	12	12	58	58	76	76	
		당진 3지구	상거, 월곡천 등	2006~2020	139	18	28	9	9	10	46	47	61	60	
소방안전	비구조적인 재해대책	풍수해 보험제도 도입	16개 시군으로 확대	2006~2020	395	5	90	30	30	30	150	150	324	66	
		재해예방지도 작성보급	16개 시군으로 확대	2006~2008	8	6	2	2					0	2	
		산불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산불예방 장비구축)	진화차 224대	2007~2020	70	5	15	5	5	5	25	25	17	48	

	소방인프라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청사 건립	2007~2010	58	12	46	16	15	15			0	46	
		노후청사 신개축 및 장비교체	1식	2006~2010	600	160	440	143	142	155			12	428	
		첨단 재해경보시스템 장비 구축	1식	2009~2010	28	0	28		14	14			14	14	
	충청남도 종합안전망 구축	안전관리연구센터	1식	2007~2010	8	2	6	2	2	2			0	6	
		119종합안전정보센터	1식	2010~2012	92	0	5			5	87		0	92	
		종합방재센터 건립	1식	2015~2018	200	0					100	100	100	100	

■ 계획수립참여자

- 단 장: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김용웅
- 연구책임: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연
- 실무총괄: 충남발전연구원 자치행정연구팀장 성태규
충남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팀장 오용준
- 총 인 원: 77명

분과	충남발전연구원 31	도, 관련기관 및 단체 46
총괄	선임연구위원 김정연 연구위원 성태규 책임연구위원 오용준 책임연구위원 강영주 책임연구위원 이관률 초빙연구위원 장인수 초빙연구위원 김희영 초빙연구위원 이재현 초빙연구위원 김사년 초빙연구위원 김 송	도 혁신정책기획관 도 균형발전담당관 도 정책관리담당 충청남도 역사문화원 임선빈 대전발전연구원 육동일 국토연구원 이원섭 국토연구원 조판기 서울시립대학교 김창석 한남대학교 정순오 대전대학교신문 고광률 충청남도의회 최의환 서천군의회 전익현 중도일보 박기성
도시·농촌	선임연구위원 김정연 책임연구위원 임준홍 책임연구위원 윤갑식 책임연구위원 조영재 책임연구위원 유학렬 연구위원 김진경 초빙연구위원 김진석	목원대학교 이건호 목원대학교 김혜천 한밭대학교 이상호
지식기반산업	책임연구위원 신동호 책임연구위원 임재영 연구위원 박광배 연구위원 백운성 연구위원 임형빈	우송정보대학교 김선균 건양대학교 조세형
문화·관광	연구위원 이인배 책임연구위원 박철희 책임연구위원 이인희 연구위원 김경태 초빙연구위원 정혜영	건양대학교 지진호 호서대학교 정경훈 공주영상정보대학교 양광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효정

인프라	책임연구원	조봉운	공주대학교	이선하
	책임연구원	신동호	남서울대학교	김항배
	책임연구원	오용준	청석엔지니어링	신태균
	책임연구원	윤정미	남서울대학교	원종문
	초빙연구원	성순아	국토연구원	이춘용
			한국교통연구원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유정복
생활·복지			목원대학교	최봉문
	연구위원	송두범	공주대학교	양병찬
	책임연구원	임준홍	공주대학교	모선희
			대전보건대학교	박혜숙
자원개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위원	정종관	국토연구원	채미옥
	책임연구원	오용준	공주대학교	이경진
	책임연구원	한상욱		
자연환경	연구원	오혜정		
	연구위원	정종관	한서대학교	이영신
	연구위원	이상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종우
	연구위원	최병학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노백호
	책임연구원	장갑수	국토연구원	이용우
	책임연구원	최충익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김명국
			금강유역환경청장	소준섭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정현
행·재정			충남환경운동연합	차수철
	연구위원	성태규	충북대학교	김병기
	연구원	고승희	목원대학교	조연상
	연구원	박광배		